國語學叢書 20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 20世紀 러시아의 Kazan에서 刊行된 文獻資料에 依한 -

郭 忠 求 著

國語學會

머리말

最近의 國語音韻論 연구는 그 동안 견실하게 쌓아 올린 音韻史的인 연구 업적과 다양한 音韻 理論에 대한 批判的 省察의 토대 위에서 音韻現象의 기술을 정밀화하고 體系化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지 방언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 또는 문헌자료를 통한 方言史 연구의 勞作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도, 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理論化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方言 硏究는 力動的인 音韻現象을 살핀다거나 國語音韻史의 기술이나 再構를 위해서 또는 國語의 空間的 分化를 온전히 밝혀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하게 남아 있었던 부분이 북한 지역의 방언이었다. 특히 資料의 蒐集 및 硏究의 必要性은 切感하고 있었지만 分斷의 障壁으로 인해서 그 實體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장 保守的인 咸北 北部地域 方言이었다. 이러한 계제에, 本書가 함북 六鎭地域 方言의 모습을 알리는 데에 그리고 國語 方言學 및 音韻 硏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필자로서는 여간 多幸이 아닐 수 없다.

本書의 六鎭方言 硏究는 今世紀 初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계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람스테트 박사가 韓國語 및 알타이어 比較硏究에서 자주 인용한 한국어 북부 방언의 자료 수집 과정과 자료의 성격을 밝혀보려는 욕심으로 그의 論著들을 뒤적이다가 서울大 圖書館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露韓會話>라는 소책자였다. 이 책자를 처음 접했을 때에 가졌던 가벼운 흥분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것은 거금 一世紀 前의 六鎭方言을 韻律的 要素까지 精密轉寫한 口語體 자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言語를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歷史的인 文獻資料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정작 람스테트 박사가 그의 논저에서 많이 인용했던 <露韓小辭典>은 달리 구해 볼 방도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蘇聯과는 일체의 通交가 없었던 터이라 귀중한 文獻資料를 얻어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터에 마침 핀란드의 헬싱키大에 계시던 故 고송무 교수께서 람스테트 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이 辭典을 복사하여 보내주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뒤에 런던大의 J.R.P. King 교수 그리고 보쿰大의 R. Adami 선생의 도움으로 다른 Kazan 자료는 물론, 19세기 후기에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계 문헌자료를 마저 구해 볼 수 있었다.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는 두고두고 빚을 진 느낌이다.

이렇게 하여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모아서 90년 10월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六鎭方言의 音韻 現象 全貌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그 밖에 國語學史 또는 言語地理學 硏究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다. 논문을 제출하고 이런 저런 일로 덮어두었다가 國語學會의 배려로 출판을 서두르게 되었다. 어설픈 곳이 많아 마땅이 깁고 다듬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필자의 非才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세상에 내어 놓을 수밖에 없다. 筆者는 다만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계 문헌자료의 면면과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六鎭方言의 실체를 학계에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先輩 同學 여러분의 많은 叱正을 苦待한다.

國語學을 공부하겠다고 뒤늦게 大學院에 籍을 두고 學問의 길로 들어섰으나 매양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嚴密한 科學性과 洞察力 그리고 誠實性을 요구하는 냉엄한 학문의 세계를 열어 보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바르게 살아가는 道理를 묵시적으로 보여주신 스승님들 곁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만큼은 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 거칠고 보잘 것 없는 본서가 이나마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李崇寧, 李基文, 李庸周, 姜信沆, 金完鎭, 安秉禧, 李翊燮, 李秉根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오래전 필자가 精文硏의 方言 調査 事業에 참여하게 된 이후, 필자에게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田光鉉, 洪允杓, 崔明玉, 崔銓承 선생님과 友誼로써 충고와 비판을 해주는 宋喆儀, 李南淳, 李相揆, 李丞宰 學兄에게도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國語學叢書로 선정해 주신 國語學會 여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까다로운 컴퓨터 조판에 도움말을 주신 金炳善 교수,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수고하신 太學社의 池賢求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1993, 12월

月谷洞 硏究室에서 筆者 씀.

차 례

머리말 3

第 1 章 緖 論

1.1 硏究目的 ······ 11
1.2 硏究 範圍와 方法論 ······ 13
1.3 硏究 資料 槪觀 ······ 18
1.3.1 *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ъ*(<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 20
1.3.2 *Русско-Корейскiе Разговоры*(<露韓會話>) ······ 26
1.3.3 *Слова и Выраженiя к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ъ Разговорамъ*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 ······ 30
1.3.4 *Опутъ Краткаг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 (<試篇 露韓小辭典>) ······ 33
1.3.5 기본 자료 이외의 補助資料 ······ 42
1.4 六鎭 地域의 歷史와 地理的 位置 ······ 47

第 2 章 音聲 轉寫와 音韻體系

2.1 音聲 轉寫 ······ 49
2.2 音韻體系 ······ 84
2.2.1 音聲과 音素體系 ······ 84
2.2.1.1 子音音聲과 子音體系 ······ 84
2.2.1.2 滑音 ······ 94
2.2.1.3 母音音聲과 母音體系 ······ 94
2.2.1.4 資質分類 ······ 102
2.2.2 韻律素와 韻素體系 ······ 102

第 3 章 共時音韻論

3.1 母音調和 ········· 107
3.2 움라우트 ········· 121
3.3 圓脣母音化 ········· 136
3.3.1 脣子音에 의한 동화 ········· 136
3.3.2 圓脣母音에 의한 동화 ········· 138
3.4 滑音形成 ········· 141
3.5 鼻母音化와 鼻子音 /ŋ/의 脫落 ········· 151
3.6 音韻脫落 ········· 159
3.6.1 母音脫落 ········· 159
3.6.2 子音脫落 ········· 174
3.7 長母音化와 母音의 音韻論的 强度 ········· 180
3.8 子音의 中和 ········· 192
3.9 硬音化 ········· 194
3.10 有氣音化 ········· 204
3.11 子音同化 ········· 208
3.11.1 邊子音化 ········· 208
3.11.2 鼻子音化 ········· 211
3.11.3 磨擦音化 ········· 213
3.11.4 流音化 ········· 215
3.12 子音群單純化 ········· 219
3.13 非自動的 交替語幹에서의 音韻現象 ········· 221
3.13.1 特殊名詞의 語幹 交替와 그 類型 ········· 221
3.13.2 活用語幹의 特殊한 語幹 交替와 그 類型 ········· 235

第 4 章 通時音韻論

4.1 母音調和 ········· 247
4.2 'ᄋᆞ'의 變化 ········· 253

4.3 오>우 변화 257
4.4 움라우트 259
4.5 圓脣母音化 263
4.6 非圓脣母音化 275
4.7 母音體系의 再構 278
4.7.1 母音體系의 再構와 그 변화 278
4.7.2 二重母音의 변화 287
4.7.3 三重母音의 변화 309
4.8 口蓋音化 315
4.9 語中子音 脫落 331

第 5 章 악센트 體系와 그 變動

5.1 Kazan 자료와 六鎭方言의 악센트 346
5.1.1 六鎭方言의 악센트 347
5.1.2 악센트 전사의 單位 351
5.1.3 악센트 전사의 실제 모습과 분석 353
5.1.4 六鎭方言의 악센트와 중세국어 聲調와의 比較 355
5.2 屈折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364
5.2.1 體言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364
5.2.2 用言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393
5.3 派生語 形成과 악센트 變動 412
5.4 漢子語의 악센트 418
5.5 借用語의 악센트 435

第 6 章 結 論 437

參考論著 459

凡　例

1. 本文에 삽입된 六鎭方言의 例는 키릴문자 및 그 변종으로 轉寫된 것을 國際音聲記號(I.P.A.)를 바탕으로 하여 再轉寫한 것이다. 그밖에 轉寫와 관련하여 필자가 부가한 기호들과 그 지시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 ]는 音聲表示로서 音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였다.

　② / /는 分節音素를 표시한다.

　　例) [šwéʤədzɨnɨ]=/sywétsətsɨnɨ/(소젖(牛乳)-은, 회57)
　　　[mutʰʉ́y]=/mutʰúy/(통나무, 사5, 40)
　　　[yešǘni]=/yesyúyni/(예순(六十), 회xii)

　③ [ˊ]는 악센트 標識로서 이 부호가 놓인 음절 모음이 高調임을 나타낸다.(原典에는 [ˋ]로 표시되어 있으나 筆者가 [ˊ]로 바꾸었다.) 분절음소의 변동에서 혹은 中世國語 聲調와의 대응에서 이 標識 대신에 高調를 'H'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例), tóŋsam(겨울(冬), 사38), kɨbur-gí(구르(轉)-기, 사7)
　　　nɨbɨ́y(누이(妹), 회180), kitʰɨ́-gi(남기(遺)-기, 사74)

　④ 長母音 역시 原典의 轉寫대로 같은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例), naáraŋ(천천히, 회433), ʧəə́guna(근근히(僅), 사64)
　　　séemi(시어미(姑), 회198), tuúri(둘(二), 회200, 사24,89)

2. 이 책에서 사용된 記號나 略號는 다음과 같다.

　① → 特異한 六鎭方言形이 있을 때 그 방언형의 의미를 표준어로써 밝히거나, 形態는 표준어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그 의미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例), mutʰʉ́y(무퉈(→통나무), 사5,40)
nagɨnɛ(나그내(→손님), 사36)
但, 規則의 表示에서 '→'는 共時的 變動을 가리킨다.

② ~ : 鼻母音 表示 例), pɛ̃ɛr(팽이, 사137)

③ >, < : 通時的 變化. 例), wəndúy>wəndɨ́y(완두(豌), 사20)

④ C : 자음, V : 모음

⑤ H : 中世國語의 去聲 및 六鎭方言의 악센트 표지가 있는 高調.
L : 中世國語의 平聲 및 六鎭方言의 악센트 표지가 없는 低調.
R : 中世國語의 上聲.

⑥ M : 양성모음(a, o, ɛ), F : 음성모음(ə, ɨ, u, e)

⑦ N : 名詞, Vst. : 動詞 語幹

⑧ X, Y : 變項

⑨ # : 單語 境界 표지

⑩ + : 形態素 境界 표지

⑪ * : 再構形

⑫ σ : 音節

3. 이 책에서 引用된 後期中世國語 段階의 文獻資料와 그 略號는 다음과 같다.

訓民 : 訓民正音
龍 : 龍飛御天歌
釋譜 : 釋譜詳節
月曲 : 月印千江之曲
月釋 : 月印釋譜
楞 : 楞嚴經諺解
法華 : 法華經諺解
圓 : 圓覺經諺解
蒙 : 蒙山和尙法語略諺解
金三 : 金剛經三家解
內訓 : 內訓
杜初 : 分類杜工部詩諺解(初刊)
朴初 : 飜譯朴通事
四解 : 四聲通解
字會 : 訓蒙字會
六祖 : 六祖法寶壇經諺解
勸供 : 施食勸供
小諺 : 小學諺解

第 1章 緖　論

1.1 硏究 目的

本書는 20세기 初 咸鏡北道 六鎭地域 方言의 音韻體系를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音韻現象들의 共時 및 通時的 音韻過程을 논의하고 體系化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六鎭地域'이라 함은 국토의 最北端에 위치한 豆滿江邊의 '穩城, 鐘城, 會寧, 慶源, 慶興, 富寧'의 6개 郡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으로, 朝鮮朝 世宗이 이 지역을 開拓하고 '六鎭'을 설치한 데에서 유래한다. 본서는 이들 六鎭地域 중에서도 慶興을 논의의 주대상 지역으로 삼는다. 이 지역은 15세기 중엽에 국토의 일부로 편입되어 타지역의 주민이 대거 入居하였다는 남다른 歷史的 背景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변경지역인데다 자연지리적인 조건이 외부와의 접촉을 疎遠하게 한 까닭으로 언어의 改新이 더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六鎭方言은 국어의 제방언 중에서도 가장 保守的이면서, 다른 방언에 비해 殘滓的인 요소와 異質的인 요소를 많이 지닌 孤立方言(isolated dialect)의 성격을 띨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남다른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특이한 방언권을 형성하면서, 國語의 한 변종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六鎭方言은 우선 그 자체가 국어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지만, 이 방언이 공시적으로 보여주는 음운의 변동 양상과 통시적인 음운변화는 國語音韻史의 記述이나 再構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언에 대한 旣往의 연구는 매우 零星한 편이어서 지금까지 이 방언의 음운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업적은 보이지 않는다. 순수히 六鎭方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두복(1962), 宣德五(1986)이 있지만, 음운, 문법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밝히는 정도에서 머문 것이었다. 이 외에 東北方言의 방언적 특징을 드러내 보이려는 목적이나 言語地理學的 측면에서 연구된 논저들에서 六鎭方言의 특징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1)]

小倉進平(1927)은 六鎭方言을 비롯한 東北方言의 방언적 특징을 소개한 최초의 조사 보고서이다. 이 논문은 음운사적인 주제와 어법상의 문제를 두고 咸鏡南北道 각 지역을 조사한 보고서 성격의 글이다. 그 밖에 국어의 방언구획을 논의하고 대방언권의 방언특징을 기술하면서 이 방언의 音韻, 形態, 文法的인 특징을 언급한 업적으로 小倉進平(1940, 1944), 河野六郎(1945), 李崇寧(1967), 김병제(1959, 1988), 한영순(1967), 김영황(1982), 황대화(1986), 정용호(1988)가 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南韓과 中國의 교포 학자들이 東北方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辭典을 편찬하거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사 연구를 하였다. 金泰均(1983)은 함북 각 지역의 語彙, 文法, 音韻上의 특징과 그 차이를 고려하여 함북 방언의 방언구획을 논의하였다. 그는 함북 방언이 세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뉜다고 하고 富寧을 제외한 六鎭地域을 六邑方言圈, 富寧과 茂山을 轉移方言圈, 그리고 鏡城, 明川, 吉州, 鶴城을 四邑方言圈이라 하였다. 이어 金泰均은 남한에 거주하는 함북 출신인들을 제보자로 삼고 방언조사를 하여 <咸北方言辭典, 1986>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전학석(1986, 1987, 1988)이 滿洲 琿春地域의 韓國語(주로 六鎭地域 출신인의)를 대상으로 하여 어음과 악센트의 특성을 밝혔다. 또한 宣德五(1986)는 中國 東北地域에

1) 本書에서 '東北方言'이라함은 咸南 定平 이북의 함경도 방언을 지칭하고 '六鎭方言'이라 함은 東北方言의 한 下位 方言圈인 六鎭 地域의 方言을 지칭한다.

거주하는 慶興 및 咸鏡南道 출신의 한국인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六鎭方言(慶興方言)과 다른 동북방언을 비교한 다음, 六鎭方言을 東北方言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方言圈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2] 그리고 황대화(중국 중앙 민족대학, 1986)는 함북의 六鎭地域과 淸津, 함남의 咸州·洪源 그리고 강원도 통천·고성·법동 지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동해안 지역의 어음, 형태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발표된 이 방언에 대한 연구는 모두 음운(사), 형태, 문법, 어휘적인 특징을 언어지리학 혹은 언어사적인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이 방언의 音韻體系 및 音韻現象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도 體系的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 本書는 그러한 요구에 다소간 부응한다는 취지로 씌어진다.

1.2 研究 範圍와 方法論

本書의 硏究 資料는 성격상 몇가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들 자료가 현재의 六鎭地域으로부터 調査·蒐集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전에 채록된 20세기 初의 六鎭方言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들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文獻들은 모두 러시아의 카잔(Kazan)에서 간행되었다는 점과 六鎭方言 자료가 모두 러시아語의 키릴문자(Cyrillic alphabet) 혹은 그 變種으로 精密轉寫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문자로 전사되어 있는 文獻資料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언 음운 연구이다.

2.1에서는 Kazan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그 背景, 문헌자료에 대한 書

2) 宣德五(1986)는 六鎭方言을 '東北方言', 기타의 함경도 방언을 '中北方言'으로 命名하였다. 이와 같이 六鎭方言을 독립 방언권으로 설정하려는 견해는 한영순(1967)에서도 볼 수 있다. 김병제(1988:208-210)는 六鎭地域을 '동북방언 지역'의 한 하위 방언권인 '륙진방언지방'으로, 정용호(1988:37)는 '함경도 방언'의 한 하위 방언권인 '륙진방언지구'로 설정하였다.

誌的 고찰이 있게 되고, 轉寫文字 體系와 그들 전사문자가 지시하는 한국어의 音聲特徵과 韻律素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記寫者들의 한국어 音聲에 대한 認識과 그 音聲을 轉寫한 態度, 方法을 면밀하게 살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2에서는 六鎭方言의 音聲과 韻律素를 보이고 이들의 분포와 기능을 고려하여 音韻 目錄을 작성하고 音韻體系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音素(segmental phoneme)와 韻素(suprasegmental phoneme)를 자질로 二元 分類한다. 이것은 3장에서 논의할 육진방언의 음운현상에 대한 기술의 簡便, 經濟性을 고려한 것이며 동시에 音韻規則의 一般性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제 3장은 六鎭方言의 共時的 音韻現象에 할애된다. 즉 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음운현상들의 내적 질서와 그 기제를 구명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들 음운현상은 제 2장에서 마련한 音韻體系와 有機的으로 관련지워 파악하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음소층위가 아닌 자립적인 운소층위가 분절음소들의 변동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규칙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 보이는 교체 현상이 단일한 基底形을 설정하여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들은 이른바 불규칙이라고 불려온 것들인데, 이에 대한 理論的인 또는 實證的인 문제들은 崔明玉(1985, 1988a), 韓榮均(1985), 金星奎(1988), 金京芽(1990)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주로 自然音韻論(natural phonology)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들의 설명 방법은 국어 음운연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면서 얻어진 실증적인 연구 결과 내지는 기왕의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서에서도 역시 特殊한 語幹들의 交替 현상은 單一한 基底形으로부터 적절히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雙形語幹(doublet)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수 어간 교체는 명백히 공시적이 아닌 통시적인 음운과정을 밟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音韻部의 領域이 아니라 語彙部(lexicon) 내에서 논의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굴절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형태론적인 경계에서의 음운현상 중에는 通時的인 音韻過程을 밟아 語彙化한 語幹 異形態들이 선택규칙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곳이 있다. 그러나 本書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고려하여 굴절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형태론적인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은 제 3장 공시음운론에서,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운현상은 제 4장 통시음운론에서 다루되, 통시성과 공시성을 언급할 부분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음운현상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六鎭方言의 通時音韻論을 다룬다. 20세기 初의 이 방언의 공시적인 양상은 이 방언이 긴 時間軸上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變化의 산물이므로, 이 공시적 양상으로부터 선행시기 이 방언이 수행하여 온 변화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內的 證據들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모음조화를 비롯한 형태음소론적인 교체를 精密化함으로써 선행시기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재구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 보이는 構造制約도 선행시기의 形態素構造規則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모음체계의 재구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재구될 수 있는 이 방언의 音韻體系는 오직 相對的年代(relative chronology)의 것으로 推定되는 것일 뿐이다.

이는 文獻資料가 보여주는 15세기 中央語(以下 '中世國語'라 稱함)와 직접 대응시켜 선행 단계의 음운체계를 再構하는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中世國語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언어체계이므로 이 방언과의 구조적인 차이는 물론 규칙 발생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고, 특히 語彙는 借用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직접 대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취해진 방법이다. 공시적으로 보여지는 음운현상이나 형태소구조제약은 적어도 그 언어의 전 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휘 대응을 통한 比較方法보다는 內的再構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內的再構 방법은 문헌자료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육진방언의 공시태가 보여주는 통시성에 대한 암

시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육진방언 어휘와 동원어(cognate word)라고 생각되는 中世國語의 어휘를 比較하는 방법도 육진방언의 음운체계를 재구하는데 보조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육진방언이 中世國語로부터 분화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이 방언과 中世國語를 1:1로 대응시키는 일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즉 개체사적이며 원자론적인 기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점을 견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中世國語와의 비교는 다만 음성변화가 일차적으로 音聲對應(phonetic corespondence)을 통하여 가정되고, 이 대응을 통하여 音聲過程(phonetic process)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음운체계를 재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운변화들을 주시할 것이다. 그러한 音韻變化는 音韻體系와 有機的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思考에 바탕을 둔 것인데(金完鎭:1963, 1978, 李秉根:1972, 1973), 이러한 사고는 音韻體系의 再構造化(restructuring)에도 적용된다. 또한 本書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음성변화의 기술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音韻規則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音韻體系와 관련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예들이 보인다. 즉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에 있어서 /uy/는 硬口蓋子音(音聲的으로)을 선행 자음으로 하고서 [ü]로 單母音化하였다. 그러나 이 [ü]는 아직 音韻層位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變異音에 불과하다. 그러나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보면 피동화주가 /u/이고 그 피동화주의 선행자음이 경구개자음이면 움라우트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ü]를 單母音 체계에 소속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음운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뿐만아니라 [ü]는 급진적인 어사들에서 이미 [ü]>/i/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구개음화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음운 층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음성 층위에서 수행되는 제변화 양상도 通時音韻論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 목표의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한 變異音 規則이나 혹은 音聲變化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온전히 그 방언의 역사를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음운변화에 대한 기술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바는 변화의 통시적 전개 과정에서 제기되는 速度나 方向에 관한 문제이다. 동일한 음운변화 환경을 갖춘 어사들이 變化의 緩急을 달리하거나 相異한 方向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음과의 통합관계, 체계, 어휘 자질(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하는 등의), 음절 위치(어두와 비어두), 규칙의 변화, 어휘확산 등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다루어진 규칙들과(즉, P-rule) 형태소 내부에서의 규칙(MS-rule)들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규칙의 변화 등을 기술하고 그러한 규칙변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염두에 둘 것은 이 방언이 孤立方言的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분명 중앙어를 비롯한 인접방언과의 접촉과정에서 借用된 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규칙으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들이 借用의 결과인지 아니면 漸進的 變化 段階에서의 語彙擴散과 관련되는 것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나, 이는 전국적인 방언분화나 인접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지는 이 지역 방언 화자의 다양한 成層을 고려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으므로 20세기 초의 자료를 연구하는 본서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어중자음의 변화,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등의 음운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또한 통시적인 변화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非音韻論的인 變化가 있을 수 있다. 육진방언에서는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심리적 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이 장에서 검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육진방언의 악센트 體系 및 그 變動을 다룬다. 필자가 이 방언의 示差的 韻律素를 '악센트'라 부르는 것은 카잔 자료 편찬자들의 이에 대한 認識을 念頭에 둔 때문이다. 먼저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이 'Korejskaja udarenie'(한국어의 악센트)라 명명한 육진방언의 악센트를 어떻게 認識하고 그것을 전사에 반영하였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들 것이다. 이는 육진방언의 악센트의 본질 나아가 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은 한국어의 韻律的 요소인 악센트가 示差的인 機能 要素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악센트의 音聲的 實體가 어떠한지는 밝혀 놓지 않았다. 따라서 편차자들의 한국어 악센트에 대한 認識과 그 轉寫 態度·方法 등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이어서 체언과 용언 어간이 어미와 統合될 때의 악센트 變動과 派生語 形成에 있어서의 악센트 變動 및 漢字語, 借用語의 악센트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이 방언의 악센트 체계가 中世國語의 聲調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도 아울러 밝힐 것이다.

1.3 硏究資料 槪觀

본 연구에 이용된 咸鏡北道 六鎭方言 자료는 帝政러시아 시대에 간행된 다음 文獻들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1. *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ъ*, Изданiе Православнаго Миссiонерскаго Общества, Казань:Типографiя В.М. Ключникова, 1902.
   (*Azbuka dlja Korejtsev*, Izdanie Pravoslavnago Missionerskago Obshchestva, Kazanj:Tipografija V.M. Kljuchnikova, 1902)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러시아正敎宣敎協會 出版, 카잔: V.M.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1902.) 略號 : <敎科書>, 교.
2. *Русско-Корейскiе Разговоры*, Изданiе Православнаго Миссiонерскаго Общества, Казань:Типографiя В.М. Ключникова, 1904.
   (*Russko-Korejskie Razgovory*, Izdanie Pravoslavnago Missionerskago Obshchestva, Kazanj:Tipografija V.M. Kljuchnikova, 1904)
   (<露韓會話>, 러시아正敎宣敎協會 출판, 카잔:V.M.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1904.) 略號 : <會話>, 회.
3. *Слова и Выраженiя к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ъ Разговорамъ*, Изданiе

Православнаго Миссіонерскаго Общества, Казань:Типография В.М. Ключникова, 1904.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 Izdanie Pravoslavnago Missionerskago Obshchestva, Kazanj:Tipografija V.M. Kljuchnikova, 1904)/(<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 러시아正敎宣敎協會 출판, 카잔:V.M.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1904) 略號 : <單語와 表現>, 표.

4. *Опыть Краткаг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 Изданіе Православнаго Миссіонерскаго Общества, Казань:Типо-графия.В.М. Ключникова, 1904.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Izdanie Pravoslavnago Missionerskago Obshchestva, Kazanj:Tipo-litografija V.M. Kljuchnikova, 1904)/(<試篇 露韓小辭典>, 러시아正敎宣敎協會, 카잔: V.M.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1904.) 略號 : <辭典>, 사.

위 문헌자료들은 1902년부터 1904년에 걸쳐 Kazan의 러시아正敎宣敎協會에 의해 출판되었다. 책의 편찬에는 카잔대학(Kazanskoj Akademii) 교수, 엠. 마샤노프(M. Mashanov)와 카잔사범학교(Kazanskaja Uchiteljskaja Seminarija)의 한국인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무렵 沿海州에는 주로 咸鏡北道의 北部地域으로부터 移住해 간 韓國人들이 상당수 居住하고 있었는데,[3] 위 학생들은 이들 韓國人 移住民의 러시아 公民化에 필요한 러시아 정교의 布敎 활동 및 러시아語 교육을 담당할 敎員養成要員으로 카잔에 파견된 사람들이었다.[4]

3) 이들 문헌자료가 간행될 당시인 1902년에 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러시아 국적 취득자 16,140명, 미취득자 16,270명, 도합 32,410명에 달했다.(Kim Syn Khwa, *Ocherki po Istorii Sovetskich Korejtsev*, 1965, Alma-ata, p.42에 의함.(姜興周, "蘇聯의 少數民族政策과 韓國," <現代 蘇聯의 硏究>, 한국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1984, p.342에서 再引用함.)

4) Y.H. Toivonen(1950)에는 Ramstedt 박사가 1898년에 Kazan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Kazan의 神學校(séminaire)에 재학 중인 한국인 청년을 만나려다 실패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 나오는 神學校는 위의 카잔사범학교인 것으로 보인다.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는 러시아語 자모인 키릴문자(Кириллица, Cyrillic alphabet)를 익히게 할 목적으로, <露韓會話>는 慶興을 위시하여 豆滿江邊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의 교역이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은 <露韓會話>의 자매편으로서 <露韓會話>에 수록되어 있는 韓國語 六鎭方言의 格體系, 活用語尾, 品詞 등을 序文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本文에서는 <露韓會話>에 나와 있는 한국어 단어들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새김하고 그것을 상호 연결시켜 한국어의 문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露韓小辭典>은 연해주의 남우수리 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의 러시아語 학습을 돕기 위하여 편찬된 辭典이다.

위 文獻資料에 실려 있는 한국어는 모두 咸鏡北道 六鎭地域, 그 중에서도 慶興 주변 지역의 방언이다. <露韓會話>,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의 한국어는 모두 카잔 사범학교 재학생인 K.F. Kana(姜) 氏의 말, 즉 慶興方言의 口語體 文章을 精密轉寫하여 채록한 것이다. 姜 氏는 1872年 頃 함경북도 慶興에서 러시아의 沿海州 포시에트(Posjet) 구역의 찌진헤(Tizinhe)로 이주한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다.(<綴字敎科書>의 序文, xvii 및 <露韓會話> 序文, iii) 그리고 <露韓小辭典>은 沿海州의 얀치헤(Ianchihe) 출신으로서 역시 카잔사범학교 재학생인 A.K. Hana(韓) 氏의 한국어 方言을 精密轉寫한 것이다.(<露韓小辭典> 序文, xvi) 이들 文獻資料가 보여주는 한국어 방언은 國內와는 교류가 적은 孤立된 지역에서 쓰였던 것이므로 그 무렵의 六鎭方言보다는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1 *Azbuka dlja Korejtsev*(<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5]

5)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韓國語 東北方言의 음운, 형태, 어휘, 통사적 특징이 J.R.P King(1989)에 소개되어 있다. J.R.P. King 敎授는 Kazan자료를 비롯한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바, 그 일부가 J.R.P King(1991)으로 발표되었다. 필자는 London大의 King 교수

책의 크기는 세로 25.7 × 가로 17cm이고, 1902년 4월 7일 카잔의 러시아正教宣敎協會에서 출판하였다. 책의 체제는 序文(Predislovie, iii-xxi), 目次(Oglavlenie, xxii-xxvii), 한국인을 위한 철자(Azbuka dlja Korejtsev)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을 위한 철자' 부분은 '韓國語 篇'(korejskij otdel)과 '러시아語 篇'(Russkij otdel)으로 나뉘어 있다. 序文에는 이 책이 간행되기에 앞서 1901년 *Pervonachaljnyj Uch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tsev*(<韓國人을 위한 初等 러시아語 敎科書>)가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이 교과서의 韓國語 轉寫에 이용된 轉寫文字(대부분 키릴문자이거나 그의 變種임)와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에서 韓國語 전사에 이용된 轉寫文字를 대조하면서 전사문자의 改廢, 그들 轉寫文字가 지시하는 한국어의 音聲特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6)]

또한 序文에는 한국어의 된소리를 된소리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달리 전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 한국어의 연구개 유성마찰음 [ɣ]를 전사하기 위한 새로운 문자 [ṙ]를 제정하였다는 사실과 이 문자는 동사 'hagi'(하-(爲)-기)가 末音이 /n, r/인 선행어와 함께 빨리 발음될 때에(例, 'marɣɛ'(말(言) 해)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시하기 위하여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두 가지로 발음되는 단어(例, kidurgugi/ʧidurgugi(기다리-기))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의 音聲 중에서 어떤 것이 意味分化의 示差的 機能을 지니는가 하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最小對立雙(minimal pairs)을 제시

로부터 이 책의 복사본을 입수하였다. 지면을 빌어 King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책의 내표지에는 두 개의 圖書印이 찍혀 있는데, 하나는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蘇聯 科學院 東方學硏究所)이고, 다른 하나는 'Библиотеки Казанской Духовной Академии'(카잔신학대학 도서관)이다. 본디 카잔대학에 소장되었다가 東方學硏究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6) 이 책을 비롯하여 <露韓會話>, <露韓小辭典>에서 한국어 전사에 이용된 轉寫文字들과 그 體系에 대해서는 2.1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чибя иннывдзуру, коллашо. К адоркэ инт'он сори тык-к'эшо. К адори инт'он сори тыккиныидэры кашо. ц'оны одо башо, чибуру хашо.

5. Йанг гха шынг'ä норомп.

Адори мадант каныры кашо. К адори йанг гха шынг'ä норому шыдзäгиры хäшо. Цäт-тори шынг'äцпры хäшо. К а мар т'аллышо тип кариры олла гашо. Тип кар'э подорподор хäшо. Цäт-тори ныбошо. Понг-нäми гха Кобун'н'э йангцпры хäшо. К адори шынг'äры чи-дургуошо, шынг'äны опсо. Кыго пуллошо. Цäт-торпры одо поди мот хагу, кашо. Эми хашо, пуллошо:

„Одымэ Цäт-тори ни'н'а? Одымэ Цäт-тори пи'н'а?"

Пат'эранг, наму пат'эранг ка пашо. Цäт-тори опсо. Эми мадандзэ хашо, пуллошо:

„Цäт-тора! Цäт-тора!"

Цäт-тори тäдап хагиры:

„Нä йонгтэ иссо, нä пассо, мар т'ä чапнад'эшо, нору, отти тип кариллы пäр'э карцуру.

6. Норигä тот'ымакчпри.

Кунп-доригэ гха Мая Шэгигэ мари псопо. К адори тот'ымакчиры хäшо, нуэ марпигаагу. К адори цоо коци мары цуэ тангтäшо.

„Нары тагу, нä марпрыда".

„Мот хагäтта, нэ нары тагу, нэ марин'а? нä марида".

Azbuka dlja Korejtsev(<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의
韓國語 篇 Razskazy(이야기)의 한 부분

하고, 아울러 악센트가 이 한국어에서 역시 示差的 機能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예를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뽑아 例示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最小對立語를 통한 악센트와 음성들의 示差性 확인은 모든 音聲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아니했다. 그것은 이 책의 편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音韻目錄을 作成하고 音韻體系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음성특징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시차적이라는 사실을 보이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시기는 '音韻'과 '音韻體系'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전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의 음성특징을 記述한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당시 소수 민족의 언어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카잔에서의 언어 연구 및 카잔學派의 音韻 理論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7)]

그밖에 序文에는 語幹 母音의 長音化에 대해서 언급하고 動詞 '하-'의 활용에서 그리고 名詞 '때'(時)의 곡용에서 나타나는 長母音化의 예를 본문에서 가려뽑아 소개하였다. 이는 이 책의 편찬자들이 구어체 문장을 정밀전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	장모음	ork^{h}i hɛɛsso	10, 6	옳게 했소
		soun hɛɛšə	20, 13	소원(所願)을 했어
	단모음	mot hɛšə	27, 1,	못했어
	장모음	kɨ t'ɛɛnɨn	33, 4	그 때에는
		kɨ t'ɛɛsa	59, 3	그 때에야
	단모음	kɨ t'ɛ irillɛ	3, 6	그 때의 일로 해서
		amut'ɛdəndi	17, 8	아무 때든지

그리고 한국어의 전사에 있어서 복합어에는 語基 사이에 원칙적으로 '-'을 두었음을 말하고, 'panban hao'(판판하다), 'tirəɣasso'(들어가

7) 19세기 후기 러시아에서 Baudouin de Courtenay를 중심으로 한 카잔學派의 言語 硏究에 대해서는 R. Jakobson(1971) 및 이기웅(1990)을 참고.

다), 'namu sɛ patʰe'(남새밭-에) 따위와 같은 語構成에 있어서는 하이픈을 두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문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국인 人名을 남녀로 나누어 모두 나열하고, 그 인명이 지니고 있는 뜻을 밝혀 놓았다. 몇 예를 보기로 한다.

tsɛt-tori 잿(灰)속의 돌	kobuňňe 고운(예쁜) 소녀
poŋ-nɛmi 복(福) 있는 남자아이	sɛp pyeri 샛별
kuin-dori 귀여운 돌(石)	šuŋ-gumi 순금이(順金)
man šegi 만석(萬石)	tyaŋsoni 장손(長孫)

序文의 마지막에는 이 책의 편집에는 카잔사범학교에 재학중인 3인의 한국인이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그들의 출신지역(沿海州)과 한국에서의 先代 居住地와 그 위치, 沿海州로의 移住 年度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이 책에 실려 있는 한국어 方言이 어느 地域語인지를 明示的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부분을 飜譯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현재의 이 소책자의 편집은 카잔사범학교 재학생인 3명의 한국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두 명은 찌진헤(Tizinhe)마을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시지미(Sidimi)마을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 두 마을은 연해주의 남우수리 관구 포시에트 구역의 아지미(Adimi)面에 위치한다. 3인 모두는 한국의 북부지역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주해 살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위 시지미에서 온 한국인은 G.P. 徐 氏인데, 그는 20年 前에 그의 故國 吉州/Kilj-chzhyu(kil-tjyou, 姜 氏의 발음으로는 kil'-tts'u, 徐 氏의 발음으로는 kil'-ts'yu라 함)에서 移住한 家庭에서 태어났다. 吉州는 Pulkova에 의하면 북위 40° 57', 동경 99° 4'에 위치한다.

찌진헤로부터 온 한 사람은 대략 1872年 慶源/Kiöng-uon' (Kyeng-ouen, 姜 氏의 발음에 따르면 'Kyəwəní'이고, 韓 氏의 발음으로는

'Kyəwəni'임)으로부터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P.P. 韓이다. 慶源은 Pulkova에 의하면 북위 42° 18', 동경 100° 5'에 위치함. 다른 찌진헤 출신자는 K.F. 姜 氏로 대략 바로 그 해에(1872년) 도시 慶興/Kiöng-hing(Kyeng-heung, 姜 氏의 발음으로는 Kyəhiŋ-ibi임)으로부터 이주한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慶興은 북위 42° 4', 동경 100° 15'에 위치함. 이들 중 맨 마지막 사람의 발음은 이 출판물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韓國語 篇'의 문자 전사된 내용은 '慶興'이라는 도시와 무관하지 않다. 라틴 문자로 전사된 도시의 명칭은 1880년 요꼬하마에서 파리外邦宣敎會 소속의 한국 주재 선교사들에 의하여 간행된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韓佛字典>)이라는 책으로부터 그 위치와 함께 빌어온 것이다. 괄호 밖에 있는 러시아 문자로 표시된 도시의 명칭은 1900년 러시아 財務省에서 편찬한 大作 *Opisanie Korei*(<韓國誌>)의 제 3편을 참고하여 빌어 온 것이다.

本文은 1.한국어 편(이야기들), 2.러시아어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편에는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를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하고, 그 음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한국어 단어를 예로 들었다. 이때 제시된 한국어 단어는 대개 最小對立雙을 이루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단어들이 同綴異音語일 때에는 악센트 標識를 두어 의미 辨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한국어 단어들의 실제 쓰임을 보이기 위하여 한국어 문장을 벌여 놓기도 하였다.

본문의 13~75페이지까지에는 짤막한 것부터 제법 긴 것까지 합쳐서 도합 91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慶興方言으로, 모두 러시아의 키릴문자를 이용하여 만든 전사문자들로 轉寫되어 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톨스토이(L.N. Tolstoj)의 著作인 *Novaja Azbuka* (<새로운 綴字敎科書>)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다.[8] 이들

8) *Novaja Azbuka*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초심자가 러시아 자모인 키릴 문자를 효과적으로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터득할 수 있도록 꾸며진 학습서이다. 이 책은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異民族의 러시아어 교육에 많이 사용되었다.(<露韓小辭典>, 序文 참고) 이 책은 국내에 전하지

이야기는 모두 口述者가 청자에게 口演하는 文套의 구어체 문장을 정밀전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六鎭方言의 音聲, 音韻, 形態, 文章論에 이르기까지 全 部面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자료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露韓會話>나 <露韓小辭典>과 달리 악센트가 전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의 악센트 전사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同綴異音語의 意味 辨別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3. '러시아편'에서는 러시아의 키릴문자를 제시하고, 그 키릴문자의 쓰임을 러시아어 단어로써 보였다.

1.3.2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

이 책은 1904년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러시아어 한국어 對譯會話書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가로 12cm × 세로 16cm, 면수 xx+76pp.의 작은 책자이다. 책의 출판은 러시아正敎宣敎協會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카잔대학의 마샤노프 (M. Mashanov) 교수가 '번역위원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책은 前篇, 會話篇, 附錄(단어와 표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前篇은 회화편의 도입부로서 '서문, 목록, 목록에 대한 주의, 실례, 오류에 관하여'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飜譯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要約)

序文: 露日戰爭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새로이 긴밀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관계는 이미 1860년대 초에 60여명의 한국인이 沿海州의 찌진헤(Тизин-х'э)에 移住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이책은 慶興邑에서 연해주로 移住한 가정에서 출생한 카잔 사범학교 3년생인 姜 氏와 그의 同僚 韓國人들의 도움을 받아 편찬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J.R.P. King 교수로부터 이 책을 입수하여 <韓國人을 위한 綴字 敎科書>와 비교 검토하였다.

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책은 자국의 極東 邊境의 전쟁과 병사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하고, 이 책의 한국어는 위의 姜氏라는 한국인의 고유한 발음으로 그 자신이 이 책에 기입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韓國語가 소수의 方言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이 책자는 주로 海岸地方과 慶興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 하여 이 책에 수록된 한국어 방언의 사용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는 46자의 轉寫文字가 쓰이고 있으며 그 중 26자는 러시아 자모에서 빌어온 것이고, 나머지 20자는 러시아어에 나타나지 않는 韓國語 音聲의 轉寫에 쓰인다고 하고 이 20자의 전사문자를 제시하였다. 또 이 20자의 전사문자들에는 각각 용례가 제시될 것이고, 이들 전사문자들은 각각 그 出現 環境이 制約된다고 하였다.

目錄: 러시아어에는 없고 한국어에만 있는 음성들을 전사하기 위한 20자의 전사문자들을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 한국어 음과 유사한 음을 가진 러시아 문자를 옆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문자로 그 전사문자가 지시하는 한국어 음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짤막하게 그 음성특징만을 지적하여 놓았다.

目錄에 대한 注意: '目錄'에서 제시한 전사문자 중에서 불투명하게 示唆된 한국어의 音聲特徵을 매우 精密하게 觀察 分析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實例: 목록에서 제시한 전사문자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한국어의 음성을 語頭, 語中, 語末 位置로 나누어 예를 보였다. 특정 음성이 출현할 수 있는 分布 環境을 考慮하면서 그 음성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복합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형태소의 접합 위치에서 音韻脫落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指示하기 위하여 특별한 記號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例를 들어 보였다. 이것은 이 책의 편찬자들이 음성은 물론이요 단어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를 철저하게 연구하였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Азбука,

примѣненная въ настоящей книжкѣ для изображенія звуковъ корейскаго языка.

А а	Ä ä	Б б	Г г	Ġ ġ	Д д
Е е	Ё ё	**Ё ё**	Ц̦ ŋ	ʒ	И и
И̯ и̯	*Ж и*	К к	К̣ к̣	Л л	М м
Н н	нг	ŋ	О о	Ȯ ȯ	П п
П̣ п̣	Р р	С с	Т т	Т̣ т̣	У у
У̯ у̯	*У у*	Ў ў	Х х	Ц ц	Ц̣ ц̣
Ч ч	Ш ш	Щ щ	Ы ы	Ы̂ ы̂	Ь ь
	Э э	Ю ю	Я я	***Я я***	

Звуки корейскаго языка, имѣющіе одинаковыя начертанія со звуками языка русскаго, произносятся или тождественно съ ними, или же очень близко къ нимъ. Съ произношеніемъ остальныхъ звуковъ, изображаемыхъ русскими буквами со знаками (за исключеніемъ буквы Ё) или буквами особаго начертанія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изъ примѣровъ на каждый такой звукъ, приведенныхъ въ предисловіи къ настоящей книжкѣ

Рус.-кор. разговоры.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의 韓國語 轉寫文字

12. Кхын нäри-мäгй опсо?
13. Каппуя олли-мäгй „ ?
14. Тёнгэ мур тарй тывдын хао?
15. Кы тарй нобы эммäо?
16. „ „ кирций „ ?
17. Тарй нобырӹ цагуыллы карчшиу.
18. И кйри мосäллы тэпхиуд - янèссо?
19. И кйри мосäллы тэпхиубссумни.
20. И кйри цыд - янйо?
21. И кйри цыыяни.
22. И кан сарыямдорираг, машуыдорираг, чймираг конноэуныв тэ иссо?
23. Нуыги и кан широ конноэуо?
24. Нуэгэ цхуäидори иссо?
25. „ сарымдорираг, машуыдорираг, чймираг конноэуныи тэдори иссо?
26. Одымэ кан коро конно кагй ятхын царй иссо?
27. И коро коннэ кагй ятхындэлляы аццо кагора.
28. Тё - цагэ ка хаи ня падырира.
29. Нары кйры карчшиуо цуо?
30. И киллы одымэры кармäн хао?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의 韓國語 會話 部分

本文: 'Sašəri'(會話)편으로 첫 페이지에는 46개의 전사문자를 제시했다. 이어서 10편의 '사셔리'가 러시아어 한국어 대역으로 나열되어 있

다. 그리고 각 회화 문장의 머리에는 일련번호가 붙어 있다.

附錄: 권말에는 부록으로 '單語와 表現'(첫번째와 두번째 회화에 대한)이 附載되어 있다. 이 부록은 본문에 들어 있는 단어를 문장의 일련번호에 따라 차례로 뽑아 배열한 다음, 그 단어의 뜻을 러시아어로 새김한 일종의 단어집이다. 비단, 단어의 뜻 뿐만 아니라 이들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제 3편에서 10편까지는 2개월 후에 간행된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에 실려 있다.

1.3.3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

이 책은 <露韓會話>의 자매편으로서 <露韓會話>의 본문인 10편의 '사셔리'에 수록되어 있는 六鎭方言의 어휘들의 의미를 러시아 단어로 새김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시켜 한국어 문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露韓會話>에 대한 일종의 참고서이다. 이 책은 <露韓會話>가 간행된 2개월 후인 1904년 5월에 간행되었는데, 序文 xxxv와 本文 4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六鎭方言의 格體系, 曲用, 活用, 品詞, 曲用과 活用時의 악센트 移動 등 한국어 문법의 대강을 설명해 놓았다.[9] 그리고 본문인 單語와 表現(Slova i Vyrazhenija)의 구성 방식, 본문에서의 誤謬, 책의 편찬 과정과 편찬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어는 앞서 편찬된 <露韓會話>의 한국

9) 이 책은 蘇聯科學院 人類學博物館(Muzej Antropologii)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文法 부분은 다음 책을 참고로 하여 편집되었다.(序文, iv)

A.B. Starchevskij, Russkij Morskoj Perevodchik, *Vostochnye Iazyki* knizhki IV,V i VI, SPB., 1892, strr.487-490.(스타르체프스키이, "러시아 海洋通譯," 東方言語, 산크트-페테르부르크, pp.487-490.)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1881.(<韓語文典>)

Dictio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1880.(<韓佛字典>)

어 제보자인 K.F. Kana(姜) 氏의 한국어 방언이고, 카잔사범학교의 동료 학생인 P.P. Hana(韓) 氏가 이 책의 편집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서문은 밝히고 있다.(序文, xxxv) 序文은 한국어의 格을 '基本格, 主格, 屬格, 對格, 與格, 呼格, 向格, 處格, 奪格, 主題格의 10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格語尾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명사의 曲用 예를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 예시하였다. 그의 몇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格	촌(村),	제비(燕),	떡(餠),	아우(弟),	여우(狐)
基本格	tsʰon	ʧéb-i	t'ək	asɨ	yəsɨ
主格	tsʰón-i	ʧéb-i	t'ég-i	ɛkk-í	yekk-í
屬格	tsʰon	ʧéb-i	t'ək	akk-ɨ	yəkk-ɨ
與格	tsʰon-k'é	ʧeb-igé	t'ək-ké	asɨ-gé	yəsɨ-gé
對格	tsʰón-ɨ	ʧéb-irɨ	t'əg-ɨ	akk-ɨ	yək-ɨ
呼格		ʧəb-a		akk-á	yəkká
向格	tsʰón-ɨllɨ	ʧéb-illɨ	t'əg-ɨllɨ	akk-ɨllɨ	yəkk-ɨllɨ
處格	tsʰon-é	ʧeb-igé	t'əg-é	asɨ-gé	yəsɨ-gé
奪格	tsʰon-ešə	ʧeb-igéšə	t'əg-ešə	asɨ-géšə	yəsɨ-géšə
主題格	tsʰón-ɨnɨn	ʧéb-inɨn	t'əg-ɨnɨn	akk-ɨnɨn	yəkk-ɨnɨn

위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책의 편찬자들은 한국어 六鎭方言의 格體系와 曲用을 주도면밀하게 분석 제시하고 있다. 위의 예는 이 책에서 제시한 곡용 例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한국어의 곡용 예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각 격의 격어미들이 명사 어간의 의미 자질에 따라 統合上 制約을 받거나, 異形態들이 音韻論的인 혹은 形態論적인 條件에 따라 달리 交替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우, 여우'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格語尾가 통합되면 語幹이 특이하게 交替되는 名詞들이므로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일반 명사들과 구분하여 그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 격어미가 통합될 때에 발생하는 여러 음운현상이나 악센트의

移動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가령, 위 例에서 '떡'(餠)에 주격어미 '-이'가 통합되면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어 어간이 '기본격'으

Падежныя окончанія..**

	Ед. ч.		Мн. ч.
Осн.	—	т/з ор	нэ̀
Им.	и	" -и	
Р.	=Осн., ы̊, у	=Осн.	
Д.[1]	кѐ, {кэ / кэ̀, гэ̀, игэ̀, угэ̀}	т/з ор -кэ̀ или Р.	нэ-э̀-гэ̀
В.	иры̊, ы̊, у	" -ы̊	нэ̀-ры̊
З.	а, э̀	" -а, =Осн.	
Ор.	{и / ы̊ / у} ллы̊	т/з ол -лы̊	" -лы
М.	э, э̀ {кэ̀, гэ̀ / игэ̀} (=Д.)	т/з ор -э, =Д.	=Д.
Исх.	=М.+шо̀	М.+шо̀	=М.(=Д.)+шо̀
П.	{и / ы̊ / у} ны̊н	т/з ор-ы̊ны̊н	нэ̀-ны̊н

**) Настоящій списокъ падежн. оконч. составленъ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аніи примѣровъ, приводимыхъ въ нижеслѣдующихъ образцахъ склоненія, и по измѣненію слова сарыми—человѣкъ. Срвн. стр. XV.

[1]) Указываемыя здѣсь формы Дат. пад. тизинханцы употребляютъ такъ, что онѣ отвѣчаютъ на вопросъ у кого, у чего, А для перевода русскаго Дат. они пользуются формой своего Вин.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의 序文 중 格語尾 부분.

로부터 달라진다는 점과, 어두 음절에 악센트가 놓이는 '촌', '제비', '떡'에 여격과 처격어미가 통합되면 악센트가 격어미로 移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3.4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試篇露韓小辭典>)

이 辭典은 가로 10.2 × 세로 15.2cm, 면수 xviii+138pp.의 소책자이다. 이 辭典은 <露韓會話>의 출판이 이루어진, 6개월 뒤인 1904년 9월에 역시 러시아正敎宣敎協會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飜譯委員會의 代表者 역시 카잔대학의 마샤노프 敎授이다. 또한 이 책의 편찬은 당시 카잔사범학교에 재학중인 6인의 한국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露韓小辭典>과 <露韓會話>는 發行 年月日만이 다를 뿐 모두 동일 기관의 동일 인물들에 의하여 편찬 출판된 것이다.[10)]

이 辭典의 전체적인 구성은 내표지와 刊記, 간행사 그리고 '일러두기'와 같은 성격의 글인 序文을 포함하여 18페이지, 사전 본문 138페이지로 이루어졌다. 각 부분의 내용을 번역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11)]

刊行辭: 사전 편찬의 動機와 經緯, 러시아어 표제항목의 선정 과정, 한국어 제보자의 身元, 사전의 이용 범위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에 의하면 사전 편찬의 동기는 연해주의 남우수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을 돕기 위함에 있었다. 그리고 표제항목의 선정은 엘. 엔. 톨스토이가 지은 <새로운 綴字敎科書>(*Novaja Azbuka*, 24판, 모스크바:1900)라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이 책이 異國人들을 위한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표제항목의 선정 기준이 된 것이다. 이 외에 몇몇 표제어는 기왕에 출판된 다른 참고서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

10) 筆者가 본 <露韓小辭典>은 핀란드 헬싱키 대학 도서관 Ramstedt 文庫 소장본의 복사본이다. 故 고송무 교수의 厚意에 의하여 入手하게 되었는바, 고송무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11) 이 사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1987)를 참고할 것.

На нашей далекой восточной окраинѣ живутъ корейцы, выходцы изъ сѣверной части с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ѣти этихъ насельниковъ Южно-Уссурійскаго округ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ѣщаютъ русскія училища и учатся по русскимъ книгамъ. Для употребленія въ этихъ училищахъ и изданъ настоящій опытъ словаря.

Объемъ его невеликъ, такъ какъ въ него вошли за нѣкоторыми исключеніями только тѣ русскія слова, которыя содержатся въ Новой Азбукѣ Л. Н. Толстого (24 изданіе, Москва, 1900 года).

Сдѣлано такъ потому, что азбука эта одна изъ самыхъ употребительныхъ въ училищахъ для инородцевъ; къ тому же написана она въ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ростымъ и въ то же время достаточно богатымъ русскимъ языкомъ.

Мѣстоименія, предлоги, союзы и междометія опущены при выписываніи словъ изъ названнаго пособія. Мѣстоименія заимствованы потомъ изъ книги Н. Смирновскаго, Учебникъ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часть I, этимологія, *предлоги же взяты изъ книжки* Русскіе предлоги, Казань, 1899; *союзы приняты только въ количествѣ 7,—а, да, если, и, или, лишь-только, но —, а междометія*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試篇 露韓小辭典>)의 辭典 序文 모습

— 3 —

беззу̀бый — ни цадʻăн

безъ *предл.* Р. — ониш; *см. пред.*

бѐрегъ — мур йок,—йэги, *чит.* мур'ок, мур'=эги

берёза — цазăк, цазăги

берѐчь — конзуру хагй

бить — т'йги

бѝться — саумыр хагй—дрàться

благословѝть, благословлять пугыдонди поксыр э сàрмуи пип'о хагй—желàть кому̀-нибудь счастлѝвой жѝзни; тарын сàрыми орă сàрги шип'о хагй—призывàть на другого человѣка долгодѐнствіе; поги цугй—надѣлѝть добрòмъ | ход'эры хагй—разрѣшàть, дозволять цоры хàуги—осѣнѝть крѐстнымъ знàменіемъ *по-свящѐнпически для тогò, чтобы преподàть благословѐніе*

блескъ — паргын пит,—пич'и—свѣ̀тлый цвѣтъ (окрàска), кобуп сăк,—сăги—красѝвый цвѣтъ (=окрàска)

блѝже — то кац'ăбй

близь *предл.* Р. — кац'ăбй; *см. пред.*

бливъ — кирым ток,—тоги; кирым кубй

이 사전의 한국어는 연해주 남우수리 지역 출신 한국인들 중의 한 사람(A.K. Hana)의 발음을 채록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그 지역 인들이 이 사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序文 :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 표제어에 대한 풀이 방식. 본문에서 표제어에 대한 주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곳을 다시 이끌어 내어 보충 설명을 가한 補遺部分. 한국인들의 姓名은 <韓佛字典>을 참고하였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다.

2.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들을 보임. 그 중에서 'ʁ'와 'ɣ'가 지시하는 한국어의 음성 특징과 그 예를 소개함. 기타 사전의 주석란에서 쓰이는 기호들을 제시하고 그 기호들의 지시 의미를 밝힘.

3. 한국어의 기본격(Osnovnoj padezh)과 주격(Imeniteljnyj padezh) 형에 대한 설명. 이들의 식별법. 兩格의 사전 안에서의 식별 방법. 한국어 형용사의 표시 방법. 존칭어미 '-k'e'에 대한 설명 및 용례. 한국어에서 유성음이 어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다만, 語頭의 無聲子音은 복합어 형성이나, 派生, 屈折 등 형태소의 접합 과정에서 有聲音과 有聲音 사이에서만 無聲音이 有聲音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힘.

한국어에는 악센트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악센트는 일정 환경에서 이동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주위의 단어들과의 모든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을 명시. 악센트 標識가 없는 경우는 전사문자 上端에 보조부호(diacritic mark)가 있을 때인데, 이러한 경우 악센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러둠. 러시아어의 完了體를 한국어로 번역한 방법.

4. 이 사전의 편집 구성은 카잔사범학교 재학생인 6인의 한국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성명과 출신지를 밝혀 놓았다.(出身地는 1.4의 <地圖 1>을 참고할 것)

姜 氏(K.F. Kana), 연해주의 아지미면 찌진헤 출신.

韓 氏(P.P. Hana), 〃 〃 〃
徐 氏(G.P. Shegaja), 연해주의 시지미 출신.
吳 氏(V.V. Ogaja), 연해주의 화타시 출신.
韓 氏(A.A. Hana), 연해주의 찌진헤 출신.
韓 氏(A.K. Hana), 연해주의 얀치헤 출신.

이들 중에서 맨 마지막의 A.A. Hana(韓)의 한국어 방언이 이 사전에 수록되었다.

이 사전은 위의 '머리말'에서 본 바와 같이, 편찬 목적이 다른 對譯辭典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일반 對譯辭典이 외국어의 학습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 사전은 러시아인이 자국의 영내에 거주하는 소수 異民族인 한국인을 러시아의 공민으로 만들고 또 그들에게 러시아正敎를 傳播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러시아語 교육을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전의 편찬 방식도 다른 對譯辭典과는 사뭇 다르다.

사전 주석란의 한국어는 키릴 계통의 전사문자로만 전사되어 있다. 이는 일반 외국어 사전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로서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이나 사전 이용자의 특수한 여건이 고려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注釋欄의 한국어를 키릴문자로 전사한 것은 'transliteration'이 아니라 'transcription'이라는 점이다. 흔히 자국어를 외국 문자로 전사할 때에는 표준어와(혹은 그와 동등한 지위의 방언) 그 시대의 표기법을 고려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 문자로 전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사전의 한국어는 이 무렵의 한국어의 전통적인 표기법이나 중부방언의 영향을 전혀 입지 않은 六鎭方言 話者의 실제 발화음을 精密轉寫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수준의 언어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 카잔에서의 언어학의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露韓會話>, <露韓小辭典>의 편찬에 관여한 '飜譯委員會'의 대표자인 카잔대학의 마샤노프 교수를 위시한 번역위원회 위원

들은 이들 책의 편찬에 필요한 言語學的 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이전부터 카잔에서 異民族의 言語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研究해 온 傳統이 이러한 特異한 辭典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12)

source language가 그 언어의 문자로 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전의 경우처럼 한국어가 키릴문자로 전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전이 키릴문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키릴문자에 익숙하여 있지 않은 한국인은 이 사전의 이용이 매우 不便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춘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혹자는 당시 카잔에서 한글자모로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앞서 1898년에 인접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 주재 한국 公使였던 김병옥에 의하여 <한국어독

---

12) 카잔은 명실공히 東方學 研究의 中心地라 할 만하다. 19C 초부터 카잔과 페테르부르크(前 레닌그라드)에서는 中央 및 東部아시아의 少數 異民族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다. 당시 言語學의 큰 흐름이었던 歷史比較文法의 영향하에서 언어의 親族關係를 밝히려는 학술적인 욕구나 宣敎 政治的인 目的 때문이었다.

한편, 인접도시인 Sankt-Peterburg와 동부의 Irkutsk, Vladivostok 등지에서도 政治, 軍事, 學術的 목적으로 19C 초부터 러시아 영내의 이민족 혹은 주변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露韓小辭典>과 비슷한 유형의 사전이 많이 간행되었다. 20C 초까지 간행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辭典의 編纂은 革命後 더욱 활발해졌다.)

<노어-한국어사전>(<로한즈뎐>, 1874), 페테르부르크.
<몽고어-노어사전>(1893-5), 페테르부르크.
<몽고어-노어사전>(1896)(補遺篇), 페테르부르크.
<만주어-노어사전>(1875), 페테르부르크.
<골디어-노어사전>(1900), 블라디보스토크.
<노어-한국어사전>(1898), 이르쿠츠크.
<노어-몽고 부리야트어사전>(1909), 이르쿠츠크.
<노어-야쿠트소사전>(1916), 페트로그라트.

본>이 출간되었고 이듬해엔 <한국어 학습교재>가 출간되기도 하였고, 이미 1874년에는 푸쩰로의 <로한즈뎐>이 石版 印刷된 사실을 상기하면 한글 활자 사정에 의해서 키릴문자로 한국어를 전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13) 따라서 한국어를 키릴문자로 전사한 것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인 초보자로 하여금 키릴문자로 전사된 한국어를 읽고 쓰게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키릴문자의 자형과 그 발음을 익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의 학습 능률을 올리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편찬 목적도 이와 동일함은 물론이다.

한편, 注釋란의 표제어에 대한 풀이는 대개 표준어나 표준어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문화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역의 방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이 사전의 풀이말은 한국어 방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도 이질적인 한국의 東北方言이라는 점이다. 이 점도 역시 이 사전의 편찬 목적과 배경이 다른 對譯辭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지만 매우 異例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사전의 이용자들은 咸鏡北道 출신의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언인 東北方言으로 편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3.4.1 사전의 체제와 형식

1974년에 편찬된 푸쩰로의 <로한즈뎐>이 사전으로서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對譯語彙集이라고 한다면, 이 사전은 모름지기 사전다운 면모를 갖춘 露韓辭典의 嚆矢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의 주석 방식은 일반 사전과는 다른 면이 있다. 주석란의 한국어는 부분적으로 표제항의 문법 범주가 드러나도록 풀이되어 있다. 가령, 체언은 '기본격'과 '주격'형을 일일이 제시하고, 용언은 定動詞語

---

13) Kim, Pёn-ok, Korejskie Teksty, Sankt-Peterburg, 1898, 62pp.
Kim, Pёn-ok, Posobie k izucheniju korejskogo jazyka, Lekcii, sostavlennye Kim, Pёn-okom, prepodavatele pri SPB. universitete, Faculjtete vostochnyx jazykov, Izlozh. studentom L.Brodjanskim, 1898, Sankt Peterburg, 48pp.

尾 '-다' 대신에 '-기'(動詞), '-게'(形容詞)를 어간에 붙여 표시하였다. 체언의 경우 이렇게 주격형과 기본격형을 일일이 제시한 것은, 체언어간에 주격어미 '-이'가 통합될 때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움라우트, 어간말자음군 단순화, 비모음화 및 비자음 [ŋ]의 탈락)을 辭典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특수한 語幹交替를 보이는 일군의 명사들, 가령 'asɨ'(아우(기본격), 'ɛkki'(주격형)) 따위와 같은 명사들은 기본격과 주격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東北方言 특히 六鎭方言에서는 체언 어간에 '-이'가 결합된다. 이 때의 '-이'는 체언의 어간 말음이 모음일 때에는 그 모음에 흡수된다. 이 때의 '-이'는 定語的(determinative)인 기능의 첨사로 보이는데, 폐음절 어간에 결합된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가 연결되면 탈락한다. 따라서 어간 말음이 모음(혹은 자음[ŋ])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모두 'kamɛ'(釜), 'nyəmnye'(念慮), 'nyəmtʰuy'(염통)와 같이 어간이 再構造化되었다. 이러한 음운론적 혹은 형태론적 현상을 사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표제어가 동사일 때에는 러시아어의 完了體와 不完了體를 한국어 번역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가령, 'sorirɨ ta s'igi(노래를 다 부르-기)와 같은 표현 방법으로 러시아어의 相(aspect)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品詞 表示는 전치사와 접속사만 밝혔다. 그리고 명사의 성은 밝히지 않았고, 數 표시는 복수명사인 경우 명사어간에 복수접미사 '-tər-'(-들-)을 접미시켜 나타내었다.

또한 사전의 注釋欄에는 각종 記號를 使用하여 韓國語 單語의 意味는 물론 단어의 形態論的 構成과 音韻現象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풀이항의 한국어를 音韻이나 形態, 意味, 造語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분석적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편찬자들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사전은 또한 그 注釋 方式이 특이하다. 즉 표제어에 대한 주석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어떤 표제어는 아예 러시아어로 되

어 있고 보조적으로만 한국어 풀이가 부가되어 있다. 또 한국어 주석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러시아어로 새김을 해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은 露韓辭典이라기보다는 露韓露辭典에 어울리는 편찬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사전이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러시아어 교육을 목표로 편찬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1.3.4.2 辭典의 韓國語 方言

이 사전의 한국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 우수리의 얀치헤 출신인 A.K. Нана(韓)의 개인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방언이다. 그러나 이 한국어 방언은 韓氏의 한국에서의 先代居住地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東北方言의 어느 下位 지역어인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앞서의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露韓會話>, <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의 한국어는 慶興方言이라는 사실이 책의 편찬자들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만, 이 사전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전의 한국어는 남우수리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한국어 방언일 것이므로 육진지역 방언일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로 이 방언은 <露韓會話>의 한국어와 거의 동일하다. <露韓會話>에 나타나지 않는 육진방언의 종결어미 '-꾸마'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구개음화나 원순모음화 등, 음운변화의 예들은 小倉進平(1927)이 조사 보고한 육진 지역 방언의 주요한 음운사적 변화 특징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이 사전의 한국어는 육진방언 중에서도 경흥 내지는 경흥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방언이라 단정할 수 있다.[14)]

---

14) 필자의 함북방언 조사 경험에 의하면 육진 이외의 지역 출신인들은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이 인식하는 방언차는 대개가 종결어미이거나 어휘인데 실제로 어휘, 음운, 문법에서 六鎭地域 방언과 비육진방언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육진 지역에서도 서부 海岸地方인 富寧은 비육진 방언과 가깝다. 또한 慶興, 慶源과 內陸의 穩城, 鍾城, 會寧은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음운에서 가장 큰 차이는 圓脣母音化이다. 穩城, 鍾城, 會寧은 脣子音下에서 'ㆍ>오' 변화를 보인 반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ㆍ>아'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露韓小辭典>은 慶興과 일치한다.(4.5 참고)

이 사전과 <露韓會話>의 한국어가 보여주는 차이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다만 辭典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보다 規範的인 태도를 취하려고 한 흔적이 이따금 발견된다. 가령, h-구개음화의 경우, 固有語 '켜(點火, 鋸)-기'는 두 책이 모두 구개음화를 경험한 'š'əgi'로 나타나지만, 漢字語 '형'은 <露韓會話>가 'šə̄i'로 되어 있는데 반해 <사전>은 'hyə̄i'로 되어 있다. 이 외에 다음 예와 같은 音韻에서의 차이도 발견된다.

	<露韓會話>	<露韓小辭典>
누구	nʉygi	nugi
삼촌	$samts^hun$	$samts^hon$
성냥	šəŋnyuɛ	šəŋnyuwɛ
주인	ʧweni	ʧu-eni
시어미	seemi	siy-emi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露韓小辭典>은 語源 意識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 이외에는 다른 차이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이 사전의 韓國語를 <露韓會話>와 동일한 六鎭의 下位方言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3.5 기본 자료 이외의 補助資料

위에서 열거한 자료 이외에 본 연구에 이용된 문헌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문헌들의 書誌 및 資料의 성격, 利用範圍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다.

1.3.5.1 <로한ᄌᆞ뎐>,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 略號: PU.

<로한ᄌᆞ뎐>은 1874년 제정러시아의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칠로(M. Putsillo)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사전은 최초의 한국어 관계 對譯辭典이자 또한 最初의 露韓辭典이다. 국내에는 서울대학교에 唯一本이 전한다.

이 辭典은 일찍이 Ramstedt에 의하여 한국어 연구에 이용되었다. 최학근(1977)은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어의 방언적 성격을 밝혀보려 한 글이다. 拙稿(1988)에서는 이 사전의 체재, 한국어의 전사, 한국어의 방언적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露韓辭典은 Medhurst가 편찬한 *A Comparative Vocabulary of Chinese, Corean and Japanese*, (Batabia:1834)(一名 朝鮮偉國字彙)라는 책을 기초로 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朝鮮偉國字彙>에는 <倭語類解>와 <千字文>이 들어 있는데 푸칠로는 이 책의 한국어 어휘를 상당수 <로한주뎐>에 轉載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한국어를 東北方言이라 단정하고 자료로 이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뿐만 아니라 키릴문자로 전사된 한국어나 한글자모로 전사된 한국어나 모두 오식이 많고, 또 표제어에 대한 한글 주석도 오류가 많다.

— 666 —   — 657 —

Тутовое дерево, шелковица [illegible] . . [illegible]

Тщательность [illegible] . . . [illegible]

Тыква — хобаги . . . . [illegible]

Тыква сухая, горлянка [illegible] . . . . . . [illegible]

Тыроми *) — тыроми . . . . [illegible]

Тысяча — ц'ен, ц'ени, [illegible] . . . . [illegible]

10 Тысячъ мани . . . . [illegible]

Тѣло — моми . . . . [illegible]

Тѣмъ болѣе — [illegible] . . . . [illegible]

Тѣми **) — [illegible], теми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фразу отъ другой.

<로한주뎐>,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의 本文 모습

이 사전의 한국어는 <朝鮮偉國字彙>에서 전재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조사 수집한 것, 연해주에서 그 자신이 수집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 이자는 동북방언임에 틀림없으나 동북의 여러 하위방언들이 섞여 있어 조심스럽게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東北方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몇몇 단어만을 뽑아서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하였다.

1.3.5.2 *Pazvedchiku v Koree*(Russko-Korejskij Slovarj), S. Peter burg:Izdanie Voenno-Statisticheskago Otdela Glavnago Shtava,1904.
(<韓國에 대한 偵探(露韓辭典)>, 페테르부르크 :參謀部軍事統計局出版, 1904. 略號: 정

이 책은 제목이 그러하듯이 한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위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의 한국어는 南部方言과 北部方言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책의 편자는 제2대 駐러시아 韓國 公使이자 페테르부르크 大學의 韓國語 講師인 김병옥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에 악센트 표지를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어의 악센트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15)]

북부방언이라 한 한국어에는 함경도 북부 방언의 어휘가 발견되지만 중부방언적 요소도 다수 나타난다. 가령, nɨpta(臥, 49), sulguy(車, 58), namu-pat(林, 49), əkan-e(間, 49), ətə-poo(尋, 50), mut^{h}u(통나무,43)등을 비롯하여, ts^{h}wan(船, 49), tadupɛts^{h}ɛ(호배추, 47), t^{h}uŋdza(물통, 43), t^{h}andza(담요, 44) 따위와 같은 차용어는 함경도의 북부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어사들이므로 이 책의 편자는 분명 함경도의 북부지역 출신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정밀하게 전사되어 있는 한국어의 악센트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 책의 한국어 악센트는 Kazan자료의 한국어 악센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

15) 이 책은 소련의 모스크바 레닌 도서관(Biblioteka SSSR Imeni V. I Lenina v Moskve) 소장본의 복사본이다. 일본 Deutsches Institut für Japanstudien의 R. Adami선생의 노력으로 구해 볼 수 있었다. R. Adami선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격어미를 비롯하여 함경도 방언으로 보기 어려운 어사들이 간혹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책의 편자는 함경도 방언과 중부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二重方言話者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책의 한국어는 김병옥 자신의 방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특징은 漢字語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 문화에 대한 新造語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 점이 고유한 육진방언 어휘를 보여주고 있는 Kazan 자료와 차이나는 점이다. 또 Kazan 자료는 발화음을 그대로 精密轉寫한 것인 데 반해, 이 책은 略式轉寫(broad transcription)한 것이라는 차이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의 한국어는 음운 연구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악센트 특히 한자어의 악센트 연구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18

	Сѣверное нарѣчіе.	Южное нарѣчіе
Былъ ли ты тамъ въ этомъ мѣсяцѣ?	*Итáрэ кáта-оассó?*	Такъ-же какъ сѣверное.
Веди меня туда. . . .	*Чёниро нáрыль тарё-таиjо.*	
Веди такъ, чтобы никто меня не видалъ.	*Амотó морóкэ тарё-та иjо.*	
Если хорошо поведешь, я хорошо заплачу.	*Мáниль цаль интó-хáё-цумё'н, тон мáни цукï'ссо.*	
Если не туда поведешь, я тебя убью.	*Мáниль тарыiн кóт-ырó тарё' - кимё'н, цукí-кï'ссо.*	
Прямо-ли надо итти? .	*Парó каль-кá?*	*Кот-кí каль-кá?*
—направо-ли итти? .	*Орыiн-пхё'н - ырó каль-кá?*	*Упхё'н-ырó каль-кá?*

*Razvedchiku v Koree*의 本文 모습. 北部方言(Severnoe Narechie)과 南部方言(Iuzhnoe Narechie)으로 나뉘어 轉寫되어 있다.

1.3.5.3 Tajshin, *Russko-Korejskij Slovarj*, 1898, Habarovsk.

1.3.5.4 Matveev,"Kratkij Russko-Korejskij Slovarj," *Spravotchanja Kniga g.Vladivostoka,* 1900, Vladivostok.

이 두 露韓辭典은 辭典이라기보다는 對譯語彙集이다. 타이신이 편찬한 사전은 연해주 총독부 참모부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의 어휘는 반수 이상이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에서 전재한 것이다. 역시 상당수의 동북 육진방언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사한 키릴문자 전사체계는 매우 조잡하다. 한국어의 유기음과 된소리가 구별되어 전사되지 않은 것이 그 한 예이다.

Matveev의 사전도 역시 동북방언 어휘를 수록하고 있지만, 제보자의 신원이나 출신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또 키릴문자에 의한 한국어 전사도 조잡하다. 이 책의 한국어에 대해서는 King(1988)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이 두 대역어휘집에 수록되어 있는 동북방언 어휘는 본고에 인용되지 않았다. 다만 어휘 의미적인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16]

1.3.5.5 六鎭地域의 각 郡誌

최근 남한에서 실향민들에 의하여 간행된 郡誌의 '言語 篇'에는 각 군의 지역 방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郡誌에 채록된 방언 어휘는 실향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 온 전형적인 지역 방언형들로서 표준어에 비해 방언 특징이 두드러진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 어휘 중의 일부가 4.2 'ᄋᆞ'의 변화, 4.5 원순모음화, 4.9 어중자음에서 보충자료로 활용되었다. 참고한 郡誌는 다음과 같다.

慶興郡誌, 慶興郡民會, 1988, pp.234-238.
慶源郡誌, 慶源郡民會, 1988, pp.130-138.
會寧郡誌, 會寧郡民會, 1978, pp.209-212.

16) Tajshin의 <露韓辭典>은 李基文 선생님께서, Matveev의 <露韓小辭典>은 J.R.P King 교수께서 제공하신 것이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會寧便覽, 〃 , 1988, pp.8-14.
茂山郡誌, 茂山郡民會, 1984, pp.181-191.

1.4 六鎭 地域의 歷史와 地理的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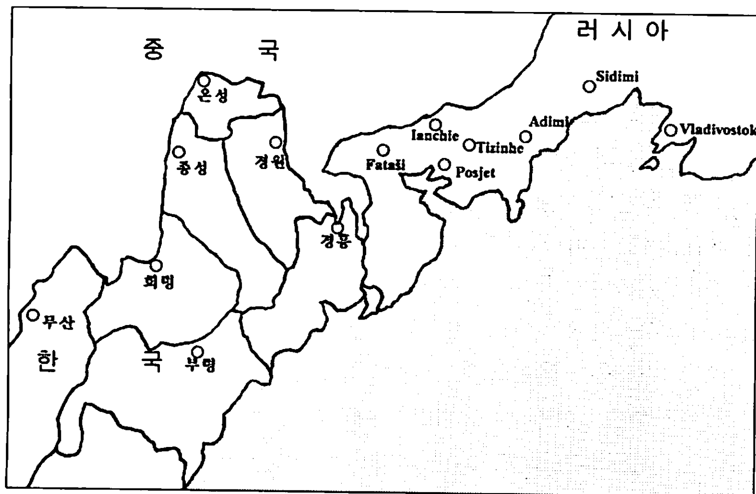
咸鏡北道 最北端의 豆滿江邊에 위치한 六鎭地域의 慶興 慶源 지방은 본디 高句麗의 땅으로 孔州라 하였다. 그러나 高句麗 멸망 이후 이곳은 오랫 동안 女眞族의 독무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麗末鮮初에 朝鮮人의 移住民이 불어나는 한편, 穆祖 李安社와 그의 配位인 孝恭王后의 陵이 있어 太祖 李成桂는 이곳을 肇基之地라 하고, 卽位 元年부터 李芳遠을 보내어 陵을 참배하게 하고 또 李之蘭으로 하여금 築城케 하였다. 太祖 7년에는 鄭道傳을 보내어 慶源部라 칭하고 주변 지역의 地名을 改稱하였다. 이후 太宗 10년 여진족의 잦은 來襲으로 慶源部를 南으로 일시 옮겼다. 世宗 15년(1433) 우디거(兀狄哈)族이 오도리(斡朶里)族을 습격하자, 世宗은 여진족의 내분을 北方 經略의 好機로 삼아 육진 개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횟가(會叱家)와 소다로(所多老) 지역을 慶源, 孔城을 慶興, 伯顔愁所와 수주(愁州)를 鐘城, 옴회(吾音會, 斡木河) 지방을 會寧, 多溫坪을 穩城, 石幕과 富居站 지방을 富寧이라 함으로써 육진지역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六鎭 開拓과 함께 咸鏡道의 南部 住民은 물론 下三道 주민을 이거시키는 徙民政策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이곳은 실질적인 國土의 일부분이 되었다.

한편, 咸北 北部 거주민들이 沿海州 지역으로 移住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부터이다. 饑饉에 시달린 12가구 60여명의 이주민이 沿海州의 포시에트 近郊에 위치한 '찌진헤'로 이주한 이래 이주민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865년에는 222명에 달했고, 1874년에는 3473명에 달했다.[17]

---

17) 위 統計는 푸칠로의 <로한ᄌᆞ뎐>(序文:iv 및 脚註)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最初의 韓國人 移住村 '찌진헤'는 <로한ᄌᆞ뎐>을 비롯, 카잔 자료의 여러

그리고 카잔 자료가 간행되던 1902년에는 32,140여명이 거주했다.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잔 자료의 한국어 방언은 카잔에 파견되었던 이 지역 출신인들로부터 채록된 것이다.



<咸北 六鎭 地域과 20세기 初 沿海州 韓人村의 地理的 位置>

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地名이 일관되게 전사되어 있지 않다. <로한즈뎐>의 序文에는, 'Тизен-хэ', <露韓會話>의 序文에는 'Тизин-хэ', <露韓小辭典>에는 'Тизин-хэ'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第 2章 音聲轉寫와 音韻體系

2.1 音聲 轉寫

2.1.1 轉寫文字와 그 體系

六鎭方言의 音韻體系와 音韻現象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轉寫文字 體系를 살펴보고, 이어 육진방언의 音聲과 韻律素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푸칠로의 <로한즈뎐> 및 Kazan에서 간행된 한국어 문헌자료의 序文(Predislovie)에는 한국어를 전사한 轉寫文字들에 대한 說明이 있다. 특히 <初等敎科書>, <敎科書>, <會話>의 序文은 六鎭方言 音聲의 調音特徵, 分布環境 그리고 그 音聲들을 전사한 키릴 계통의 전사문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또 <敎科書>와 <辭典>에는 이 방언의 악센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히 <敎科書>에는 이 악센트가 示差的 機能 要素임을 밝히고, 동일한 분절음 연쇄의 형태소들이 악센트에 의하여 意味가 分化된다는 점을 最小對立雙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로한즈뎐>을 비롯하여 <敎科書>, <會話>, <辭典>의 전사문자 체계는 조금씩 다르다. 이 중 <會話>와 <辭典>은 有氣音, 二重母音, 軟口蓋 磨擦音의 전사문자만이 달라졌을 뿐 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편찬된 <敎科書>의 한국어 전사 체계와 <한국

인을 위한 초등 러시아어 교과서>(*Первоначальный Учебникъ Русскаго Языка для Корейцевъ*, 略號:UCH)[1]의 전사 체계는 매우 다르다.

같은 시기에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문자 및 그 체계가 달라진 까닭은 한국어의 음성을 보다 精密하게 轉寫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사문자를 러시아語의 키릴문자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키려는 意圖가 있었고 또한 調音方法, 調音位置 등을 고려하여 전사문자들을 體系化하려는 노력을 계속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한국어 提報者의 개인적인 音聲差를 전사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도 그의 한 원인이었다.

최초에 <初等 敎科書>에서 마련된 轉寫文字들은 한국어 제보자들의 발화음에 대한 관찰이 精密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개량되었다. 또한 <會話>는 한국인보다는 러시아인을 위해서 편찬된 會話書이기 때문에 키릴문자 외의 다른 전사문자(혹은 음성기호)로 한국어를 전사하는 것보다 키릴문자로 전사하는 것이 한국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으로 해서, <辭典>은 전사문자를 키릴문자에 가깝게 접근시킴으로써 키릴문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켜 러시아語의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러시아 문자 혹은 그 변종으로 한국어를 전사했던 것이다.

이제 <로한ᄌᆞ뎐>과 <初等 敎科書, UCH>, <會話>, <辭典>, <敎科書>에서 한국어 전사에 이용된 문자들을 비교하여 보고 이들 전사문자

---

1) 이 교과서는 Kazan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계 문헌자료 중 최초로 간행된 것이다. Kazan 사범학교 한국인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이 책의 편집에 관여하였고, 그들의 발음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가 전사되었으며, 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러시아어 會話 學習을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 책의 한국어는 순수한 六鎭方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Kazan자료에 비하여 한국어 轉寫가 正確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音聲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돋보인다. 한국인 제보자 개개의 音聲特徵을 綿密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일일이 轉寫文字化하였다. 그리고 *Grammaire Coréenne* 등을 참고하여 韓國語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音聲도 전사할 수 있도록 豫備로 전사문자를 마련해 놓았다. 때문에 이 책의 전사문자는 <敎科書>에 와서 상당수 廢棄되었다. 수록된 한국어는 咸北方言의 어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J.R.P. King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

체계의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 음성을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키릴문자화했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기로 한다.(<會話>과 <單語와 表現>의 전사문자는 동일하다.)

<표 1>[2)]

露語 字母	韓國語 I.P.A.	<로한> (1874)	<初等> (1901)	<敎科書> (1902)	<會話> (1904)	<辭典> (1904)	備考
к	[k]	к	к	к	к	к	
г	[g]	к/г	г	г	г	г	
г	[ɣ]	—	—	г̇	г̇	—	
к	[k']	ск	К̄	К̄	к̭	к̭	
к	[kʰ]	кх	к‘	к‘	кх	к‘	
н	[ŋ]	ӊ	ӈ	ӈ	ӈ	ӈ	
н	[˜]	—	ӊ	ӊ	ӊ	ӊ	鼻母音표시
п	[p]	п	п	п	п	п	
б	[b]	п/б	б	б	б	б	
м	[m]	м	м	м	м	м	
п	[p']	сп	n	л	п̭	п̭	
п	[pʰ]	пх	п‘	п‘	пх	п‘	
т	[t]	т	т/Ђ	т	т	т	
д	[d]	т/д	д/л	д	д	д	
т	[t']	ст	Т̆/т	Т̆	Т̭	Т̭	
т	[tʰ]	тх	т‘	т‘	тх	т‘	
н	[n]	н	н	н	н	н	
н	[ňň]	—	—	н'н'	—	н'н'	
р	[r]	р/рь	р/рл̇	р	р	р	
л	[l]	л/ль	л/л̇	л	л	л	
л	[ʎʎ]	—	—	л'л'	—	л'л'	

2) '-' 는 해당 音聲이 없거나 전사문자가 없다는 뜻임.

с	[s]	с	с	с	с	с	
с	[s']	сс	*с*	с̈	сс	с̬	
ц	[ts]	ц	ц	ц	ц	ц	
ч	[tʃ]	ц/ч	ч	ч	ч	ч	
	[dz]	—	s	ꙁ	ꙁ	ꙁ	
	[ʤ]	—	џ	џ	џ	џ	
з	[z]	з	з	—	з	—	自由變異音
ц	[ts']	сц	*ц*	*ц*	ц̬	ц̬	
ч	[tʃ']	—	*ч*	*ч*	—	—	轉寫例 없음
ц	[tsʰ]	цх	ц'	ц'	цх	ц'	
ч	[tʃʰ]	—	ч'	ч'/ч"	чш	ч'/*ч*"/ч"	
ш	[š]	—	ш	ш	ш	ш	
ш	[š']	—	—	*ш*	ш̬	ш̬	
х	[h]	х	х	х	х	х	
й	[y-]	—	й	'/й	—	'/й	on-glide
и	[-y]	и	ї/й	и̬	и̬	и̬	off-glide
и	[i]	и	и	и/ы	и	и	ы는 [š]뒤에서
э	[e]	э	э́	э	э	э	
а	[ɛ]	ае	á	ä	ä	ä	
ы	[ɨ]	ы	ы	ы	ӹ	ӹ	
о	[ə]	ō	э	ɸ	ȯ	ȯ	
а	[a]	а	а	а	а	а	
у	[u]	у	у	у	у	у	
о	[o]	о	о	о	о	о	
и	[ʸ]	—	—	ι	*и*	*и*	[y]의 약화음
у	[w]	у	ў	у̬	у̬	у̬	
у	[ʷ]	—	—	*у*	*у*	*у*	[w]의 약화음
у	[ü]	—	ỳ	ӱ̆	ӯ	ӯ	
о	[ö]	oe	ó	ö	—	—	

е	[ye]	ѣ	е/йе	йэ/ʼэ	е	йэ/ʼэ	
	[yɛ]	яи/йae	йâ/â/	йä/ʼä	я	йä/ʼä	
	[yə]	ё̄	э/йэ	йⱷʼ/ʼⱷ	ё	йȯ/ʼȯ	[ʼ]는
я	[ya]	я	ä/йä	йa/ʼa	я	йa/ʼa	軟音符號
ю	[yu]	ю	ю/ÿ	йy/ʼu	ю	йy/ʼy	
ё	[yo]	ё	ö/йö	йo/ʼo	ё	йo/ʼo	
ы	[ɨy]	ыи	ы́/ы	ы	ы	ы	
	[uy]	уи	yĭ	yи̯	yи̯	yи̯	
	[uy]	—	ÿĭ	y̯ы	y̯ы	y̯ы	
	[ʉy]	—	*ы*	*уы*	*уы*	*уы*	
	[wa]	ya	y̆a	y̯a	y̯a	y̯a	
	[we]	yэ	y̆э̇	y̯э	y̯э	y̯э	
	[wə]	yō	y̆э	y̯ⱷ	y̯ȯ	y̯ȯ	
	[wɛ]	yae	y̆ȧ	y̯ä	y̯ä	y̯ä	
	[ʷe]	—	—	*уэ*	*уэ*	*уэ*	
	[yö]	—	йô/ô	—	—	—	
	[yü]	—	йv/v/ŷ	—	—	—	

<표 2> <로한ᄌᆞ뎐>에서의 한국어 중모음의 전사

1) y-계 중모음의 전사

한글전사	야	여	요	유	의	위	외	예	얘	외	위
키릴전사	я	ё̄	ё	ю	ыи	уи	oe	ѣ	яи	ёи	юи

2) w-계 이중모음의 전사

한글전사	와	워	웨	왜
키릴전사	ya	yō	yэ	yae

韓國語의 語音이 러시아어의 키릴문자로 전사된 최초의 문헌은 푸칠로(M. Pucillo)의 <로한ᄌᆞ뎐>이다. 이 사전의 전사문자 체계는 이후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 관계 문헌자료들에서의 한국어 전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

그러나 <로한ᄌᆞ뎐>에서의 한국어 전사는 transcription이라기 보다는 transliteration에 가까운 것이다.4) 따라서 한국어의 음성을 한글 자모에 의지하지 않고 精密轉寫하고자 할 때에, 푸칠로의 이 전사체계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로한ᄌᆞ뎐> 이후에는 전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사문자 체계가 고안되고 그것이 실용화되었던 것이다. <표 1>이 보여주는 <初等敎科書>, <敎科書>, <會話>, <辭典>의 전사문자 체계의 변모 과정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로한ᄌᆞ뎐>의 한국어 전사가 transliteration에 가깝다는 것은 拙稿(1988)에서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표 1>에서 드러나는 사실만을 가지고 말하면, 우선 경음 표기에 있어서는 'ㅅㄱ, ㅅㄷ, ㅅㅂ'을 그에 대당되는 키릴문자 'ск, ст, сп'로 전사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모음의 전사는 한국어의 실제 발화음이 아닌, 한글자모를 그대로 키릴문자화한 전사문자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transliteration의 한 증거인 것이다. 가령 한국어의 '위'는 단순히 'уи'(=uy)로 전사되었는데 Kazan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시기의 동북방언의 '위'는 선행자음의 資質 또는 有無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푸칠로는 이를 'uy'로만 전사한 것이다.5)

---

3) <로한ᄌᆞ뎐> 이후 러시아에서는 한국어를 키릴문자로 전사한 많은 문헌들이 간행되었다. 대개 宣敎, 政治, 軍事, 敎育, 交易 등의 목적으로 Sankt-Peterburg, Kazan, Xavarovsk, Vladivostok에서 편찬된 辭典, 會話書, 敎科書, 語彙資料集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Sankt-Peterburg에서는 김병옥에 의하여(*Korei* (1900) '附錄'에 실려 있는 한글자모의 러시아 문자 표기는 김병옥에 의한 것임. *Razvedchiku v Koree*(1904)에 러시아 문자로 전사되어 있는 한국어도 김병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Kazan에서는 러시아正敎宣敎協會의 주관하에 카잔사범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에 의하여, Vladivostok에서는 Podstavin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한국어를 키릴문자로 전사하려는 노력은 20C에 들어와서도 K.I. Veber(1908) 등에 의하여 지속되었다.

4) 푸칠로의 이러한 韓國語 轉寫는 Medhurst의 <朝鮮偉國字彙, 1834>로부터 影響을 받은 것이다.

Kazan에서 간행된 문헌들의 한국어 전사는 <初等敎科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전사문자 체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졌다. 이러한 전사문자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음성에 대한 관찰이 점점 정밀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며 또한 한국어 음성을 가급적 키릴문자로 전사하면서 한국어의 음성특징과 전사문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표기의 效率性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같은 계열에 드는 음성을 전사한 문자들은 그 음성 특징들의 징표가 전사문자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음의 전사는 한국어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을 가진 러시아 문자로 전사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이 원칙은 이들 Kazan 자료들이 러시아어 교육이나 한국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자를 익히거나 러시아 문자로 전사된 한국어를 읽을 때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세워진 것이다.

<표 1>에서 <初等敎科書>와 다른 Kazan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우선 경음의 전사문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初等敎科書>에서 경음을 전사한 문자들(n,К̆,Т̆,*c*,*ш*)은, 이들 경음과 상관을 이루는 평음의 전사문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경음의 徵標가 이들 전사문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š]의 경음과 [γ]를 전사하기 위한 문자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敎科書>에서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되었다. 즉 'n(=p)'의 경음을 전사한 문자가 'n'에서 '*n*'로 바뀌고 [š]의 경음을 전사하기 위한 '*ш*'와 연구개 마찰음 [γ]를 전사하기 위한 문자 'г̇'가 새로이 추가된다. 'К̆'를 제외한 경음 전사 문자가 부분적으로 이탤릭체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경음을 전사한 문자들은 여전히 자형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會話>에 와서야 평음의 전사 문자에 補助符號

5)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transliteration의 증거는 많다. 그러나 푸칠로 자신이 한국어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국어의 실제 발화음을 전사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또 <로한ᄌᆞ뎐>의 서문에는 그 자신이 한국어의 음성 특징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푸칠로 자신이 한국어를 관찰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diacritic mark) [.]을 경음의 徵標로 부가함으로써 통일된 전사문자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편 有氣音을 전사한 문자들은 <로한ᄌᆞ뎐>부터 체계화되어 있었다. 푸칠로는 유기성의 徵標 [x]를 평음에 부가하여 유기음을 전사하였다. 그러나 <會話>를 제외한 Kazan자료들은 처음부터 [']를 유기성의 징표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會話>만이 푸칠로의 전사체계를 따르고 있음이 색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문헌자료의 전사문자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은 모음과 이중모음의 전사문자들이다. <로한ᄌᆞ뎐>의 표기는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자모를 그대로 키릴문자로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의 전사에서 그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로한ᄌᆞ뎐>의 중모음 전사는 그 음성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의 실제 발화음을 정밀전사하고자 했던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은 푸칠로의 전사체계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Kazan자료에 의하면 한국어 동북방언은 중모음(문자상의)의 反射形들이 분포 위치나 환경에 따라 그 음성실현이 다르다. 그러한 까닭으로 Kazan에서는 이중모음의 전사를 위하여 매우 다양한 전사문자를 마련하곤 했던 것이다.

특히 삼중모음 '쇠, 워'의 반사형들인 [šwe](쇠(牛)), [ʧinʤü](진쥐, 眞珠)등의 전사는 매우 다양하게 행하여졌는데 그것은 편찬자마다 선행자음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šwe]의 자음을 [š]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sy]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사방법이 달리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어 표기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은 후자에 속한다. 푸칠로는 거의 기계적으로 한글자모 '외, 워'를 'yoy, yuy'로 전사하였는데, 그가 실제 한국인의 발화음을 키릴문자로 전사한 예도 [yəmsye](염소), [tʰuŋsyey](퉁소)로 나타나 그가 [š]를 [sy]로 전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푸칠로의 한국어 이중모음의 전사 예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a. куксюи, 국쉬(국수), уо̄нсюи, 원쉬(怨讐), кѣсюи, 계쉬(桂樹)

b. цхюи хао, 츼하오(取하다), цюицёӊ ханда, 쥐졍한다(酒酊)

(2) '외'

a. мусёи, 무쇠(水牛). b. цхёи, 쵀(초(燭)).

(3) '애'

a. хуапёӊсяири, 화병섀리(花甁)

(4) '예'

a. сѣккѣӊи, 셕겡이(석경→거울), сѣпхи, 셰피(다람쥐)

b. цёмцѣ, 졈졔(돗자리), пуцхѣ, 부쳬(夫妻)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磨擦音과 破擦音 뒤에서의 三重母音은 'yoy, yuy, yay, yəy'로 전사되었다. 다시말하면 중모음 앞에 놓이는 자음을 구개음으로 전사하지 않았다.(간혹 구개음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글표기를 기계적으로 키릴문자로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위 표기에서 '얘'를 키릴문자 'яи'(я=ya, и=i)로 전사한 것은 '얘'를 '야+이'로 분석하고 '야=я, 이=и'와 같이 한글자모에 키릴문자를 대당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전사는 transliteration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教科書>, <會話>, <辭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선행자음과 on-glide를 硬口蓋 子音 [š, š', ʧ, $ʧ^h$]으로 전사하였다.

한국어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전사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해석해 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셔,져,쳐'와 같은 표기의 실제 발화음이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 즉 선행자음이 口蓋音이었는가 아니면 齒音이었는가 하는 점을 밝힐 수 있는 關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파찰음의 再音韻化와 그에 따른 子音體系의 變化 및 口蓋音化 規則의 발생과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자음들은 구개음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ts→/ʧ_+{i,y}와 같은 변이음 규칙(allophonic rule)이 이 方言에 존재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로 二重母音에 관한 한 transliteration에 의존했던 푸칠로도 간혹 齒音을 口蓋音으로 교정한 예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Kazan 자료에서 단모음 [ü]의 실현이 [š, ʧ, $ʧ^h$]와 같은 口蓋子音 뒤에서만 가능한 점도 이와는 無關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시기 동북방언의 '저, 져'의 음성적 실현은 각각 [tsə], [ʧə]였다고 결론한다. 그러므로 Kazan자료들의 전사는 실제 음성 사실을 그대로 정밀전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2 摩擦音과 破擦音의 轉寫

앞서 이중모음의 전사와 관련하여 육진방언의 硬口蓋 子音에 대하여 언급한면서 육진방언에 경구개 파찰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露韓會話>의 '目錄에 대한 注意'에는 파찰음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飜譯하여 引用하여 보면,

…џ는 ч의 有聲音임을 나타낸다. 즉 ч는 한 개의 音처럼 발음되는 綴字 тш(筆者 註;이는 I.P.A.로 [t]와 [ʃ]이다. 그러므로 [ʧ]를 뜻함)를 의미함과 같이 џ는 그러한 방법으로 발음되는 관련 유성음 дж(筆者註; 이는 I.P.A.로 [d]와 [ʒ]이다. 그러므로 [ʤ]를 뜻함)를 지시한다. ʒ는 ц의 유성음임을 표시한다. 즉 一般的인 無聲音 ц의 구성은 함께 발음되는 тс(筆者 註; [ts])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綴字 ʒ는 한 개의 형태로 발음되는 관련 유성음 дз(筆者 註; [dz])로 구성되어 있는 音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џ:ʒ=дж:дз=ж:з 라는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밖에 ʒ 대신에 з가 가끔 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慶興方言의 破擦音 'ㅈ'의 음성 특징을 매우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는 파찰음이 齒槽와 硬口蓋의 두 위치에서 조음된다는 정밀

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어의 음성을 조음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고 러시아어 자모와 그 음가를 빌어 설명한 것은 이 책을 읽을 대상이 언어학자가 아니고 일반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익숙한 러시아 문자와 그 음가를 이용하여 韓國語音의 音聲特徵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위 설명에 의지하여 육진방언의 파찰음을 調音位置 및 聲의 有無에 따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有聲音	無聲音	
齒槽音	[ds]	[ts], [ts'],	[ts^{h}]
硬口蓋音	[dʒ]	[tʃ],	[tʃ^{h}]

위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구개 파찰음의 경음 [tʃ']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Kazan 자료에서도 동일하다.[6)]

그런데 <教科書>에서는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tʃ^{h}]를 ч‘, ч“로 전사하였다. ч“는 [tʃ^{h}i-](뿌리다), [tʃ^{h}imulli'](針-으로)와 같이 [i]모음 앞의, ч‘는 [i]외의 모음 앞의 [tʃ^{h}]을 전사한 것으로 같은 [tʃ^{h}]라도 [i] 모음 앞의 [tʃ^{h}]이 口腔의 狹搾에 의하여 有氣性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전사한 것이다. <辭典> 편찬자들은 이들 硬口蓋 有氣破擦音을 더욱 精密하게 전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 음을 *ч*“, ч‘, ч“와 같은 세 종류로 전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본문에서는 ч‘, ч“으로만 전사함) ч‘, ч“는 <教科書>에서처럼 有氣性의 強度에 따른 전사문자이고, 追加된 *ч*“는 그 음성특징이 'notʃ^{h}a'(놓-쟈)와 같은

6) 중세국어에서도 어두자음군 'ㅶ' 다음에 이중모음이 연결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음운론적으로 우연한 공백이다.

<教科書>의 序文에는 硬音化와 그 실현 환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편찬자들은 형태소의 통합 과정에서는 된소리 [tʃ']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는 't+tʃ'으로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例) uttʃa(웃(笑)-자) 이로보면 <교과서>의 편찬자들은 [tʃ']이 語頭 위치에서 다른 음성과 대립되지 않고 오직 음성의 繼起的인 연결 과정에서만 이 음이 一時的으로 존재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tʃ']을 音韻 單位가 아닌 音聲 單位로만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에서 발견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t+tʃʰ-]를 전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磨擦音도 調音位置에 따라 齒音과 硬口蓋音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위치에는 평음과 경음가 있다. <初等敎科書>에서는 [š']을 전사하기 위한 문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敎科書>부터 이 音을 轉寫하기 위한 문자가 새로이 마련되었다.(<敎科書>, 서문vi,10)

2.1.3 流音의 轉寫

Kazan 자료의 음성전사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그로 인해 그 음성의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流音이다. 流音을 전사한 문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대체로 <로한ᄌᆞ뎐>과 <初等敎科書>가 유사하고 <敎科書>, <辭典>, <會話>는 동일하다. 먼저 <敎科書>, <辭典>, <會話>에서의 유음 전사와 그 전사문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1>을 통하여 유음 [r, l]이 ‘р, л’로 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사된 육진방언을 살펴보면, 母音間은 말할 것도 없고 자음 앞, 어말 위치의 유음은 모두 [r]로 전사되어 있고, 형태소 내부 혹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간의 -ㄹㄹ-만이 [ll]로 전사되어 있다. 따라서 유음에 대한 이러한 음성 전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 당시 육진방언의 유음을 해석한다면 이 방언에서의 유음 ‘ㄹ’은 [r]로만 실현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는 현대국어의 유음이 출현 환경에 따라 대체로 [l], [ɾ], [ʎ]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면이 있음은 물론이다.[7]

---

7) 小倉進平(1944), 河野六郎(1945) 등의 자료 조사 보고에도 流音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없다. 필자의 함경도 방언 조사에서도 유음은 다른 방언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G.J. Ramstedt(1939:11-16)는 북한 방언의 流音은 [r]이라 하고, 남한 방언의 유음 [r], [l]은 起源的으로 *r에 소급한다는 假說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A.A. Xolodovich(1954:9-10)도 북한 방언은 “표준어의 규범에 비추어

이 流音을 전사한 러시아 문자 'л'은 영어의 [l]과 유사하나 혀끝이 윗니의 뒷쪽에 닿아야 한다. 국제음성기호(I.P.A.)에는 이 음이 dark l(=ɫ)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л은 국어의 舌側音 'ㄹ'보다 조음위치가 앞쪽이고 혓몸이 경구개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조음되는 음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국어의 舌側音을 러시아 문자로 적는다면 'л'에 軟音符號 'ь'를 부가하여 'ль'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문자 'p'는 혀끝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진동시켜 내는 顫動音이다. 영어의 [r]과 유사하나 혀끝의 떨림은 그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유음의 [r]과 [l]을 그와 가까운 러시아 문자로 전사한다면 역시 [r]은 'p'를, [l]은 'л'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더러 'p'은 강한 顫動音이므로 이 문자를 가지고 한국어 설측음 [l]을 전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Kazan자료의 편집자들의 한국어 유음 전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푸칠로는 한국어 유음을 'p, pь, ль'로 전사하였다. 푸칠로는 모음간의 [r]을 'p'로 전사한 것 이외에 모든 환경의 한국어 유음을 이들 세 문자로 전사하였다. 일차 전사 후에 푸칠로는 자신이 키릴문자로 전사한 한국어음을 다시 校訂하였는데, 유음을 교정한 부분을 보면 대개 자음 앞에서 [l]로 전사해 놓았던 것을 [r]로 교정하였다. 이것은 푸칠로가 자음 앞에서의 한국어 유음을 [r]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이도 역시 Kazan자료들의 유음 전사와 비슷하다.

한편, <初等敎科書>의 유음 전사는 그 예를 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敎科書>의 서문에 <初等敎科書>의 유음 전사에 관한 언급이 있

---

[l]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서 [r]로 실현된다"고 하면서 북한 방언을 'r-방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G.J. Ramstedt와 A.A. Xolodovich의 이 같은 견해는 <辭典>의 影響下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행된 자료 조사 보고서나 연구 논저들을 통하여서는 이 문제의 眞僞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그런데 King(1988)은 소련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동북방언 話者로부터 어말 위치에서의 유음을 [r]로 발음하는 것을 청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러시아어의 발음 체계에 부분적으로 同化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土着的인 발음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어 <初等敎科書>에서의 유음 전사를 살펴볼 수 있다.(<敎科書>, 서문 x,13)

<綴字敎科書>에서는 л̇, pл̇와 같은 문자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目錄'(필자 註: <初等敎科書>의 轉寫文字 目錄)에서 그것들은 鄭 氏의 발음을 기입해 넣기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이다.

이 언급은 <初等敎科書>의 한국어 유음 전사문자 'p, pл̇, л, л̇'의 네 문자 중에서 <敎科書>에서는 그 중 'pл̇'와 'л̇'를 없앤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없어진 문자는 <初等敎科書>의 편집에 참여한 鄭 氏의 발음을 기입해 넣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정 씨가 발음하는 한국어 유음은 <敎科書>의 姜 氏의 발음과 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敎科書>의 姜 氏가 발음하는 육진방언의 유음은 <敎科書>의 전사문자대로 p(=[r]), л(=[l]) 이고, [r]은 모음간 이외의 환경에서도 출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로한ᄌᆞ뎐>과 Kazan 자료들은 육진방언의 유음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r]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그 이외의 조사 보고는 현대국어처럼 [r]과 [l]로 실현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밝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한국어 음성을 정밀전사한 Kazan 편집자들의 언어학 수준을 고려한다면 유음의 전사에 있어서도 그들의 견해를 좇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구개음화된 유음, 즉 [ʎ]은 'л'에 軟音符號 [']를 가하여 전사하였다. 그런데 [ʎ]은 다음과 같이 舌側音이 겹쳐 나는 환경에서만 출현한다.

(5) aʎʎəŋ haňa? (aл'л'Ⓘн xaн'a?) (안녕하냐?, 교22)

이처럼 구개음화된 유음은 [ll]이 'i,y'앞에서 [ʎʎ]로 실현된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ll]이 모두 구개음 [ʎ]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齒音 [n]의 경우도 동일하다. [nn]도 'i,y' 앞에서는 [ňň]로 전사되었다.)

그러나 'i,y' 앞의 'ㄹ'은 [r]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會話>에서는 이 중모음을 단일한 러시아 문자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i,y/에 선행하는 자음이 구개음인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없다. 뿐더러 <教科書>, <辭典>에서는 on-glide를 [']로 전사하였는데 이 때의 [']가 단순히 음절 부음 [y]를 전사한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어의 軟音符號—선행자음을 구개음으로 발음하도록 하는—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향성 二重母音의 音節副音 [y]를 기계적으로 軟音符號 [']로 대체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軟音符號는 러시아에서 혀의 중심부가 口蓋 位置로 옮아가는 調音 現象을 나타낼 때 부가하는 기호이므로 한국어 전사에 있어서 [']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구개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ㄹㄹ-, -ㄴㄴ-이 [ll], [nn] 혹은 [lʎ], [nň]으로 전사되지 않고 앞 자음까지 구개음으로 전사된 것은 'i,y' 앞에서 -ㄹ-과 -ㄴ-이 치음이 아닌 구개음으로 실현되었고 그것을 전사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軟音性은 러시아語에서는 시차성을 갖는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사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教科書>, <辭典>에서 연음부호 [']가 부가되어 있는 자음은 모두 구개음으로 단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上昇 二重母音 앞의 자음은 모두 구개음이라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의 전사에 있어서는 파찰음계 자음만이 하나의 전사문자로 전사되고 나머지 자음은 비구개 자음을 전사한 문자에 [']을 부가하여 나타내었다. 그것은 러시아어에는 파찰음계 자음이 非口蓋音과 口蓋音(硬子音(ц)과 軟子音(ч))으로 나뉘어 있고 그 음들이 시차성을 갖는 독립된 음소 단위이면서 각각 독립된 자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ʧ]과 [ts]를 구분하여 독립된 문자로 전사한 것이다. 다만 [ʤ]와 [dz]는 [ʧ]와 [ts]의 有聲音의 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사하기 위하여

러시아 자모에 없는 'ц, ʒ'와 같은 전사문자를 새로이 만든 것이다. 한국어의 [s]와 [š]를 연음부호를 쓰지 않고 러시아 문자 'c, ш'로 구분하여 전사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래 (6-8)은 <敎科書>와 <辭典>의 그러한 轉寫 例를 보인 것이다.

(6)a. [tsʰ] ц'амä (tsʰamɛ, 참외)
[ʧʰ] ч"а сур карак (ʧʰa sur karak, 찻(茶)숟가락)
b. [ts] цымсындо̇ри (tsɨmsiŋdəri, 짐승들이)
[ʧ] чо̇рмун (ʧərmun, 젊은)
c. [dz] аʒыбан,и (adzɨbani, 숙부)
[ʤ] шо̇нмäцä (šəŋmɛʤɛ, 석매장이, 연자방아꾼)
d. [s] со̇ры (sərɨ, 서로)
[š] шо̇рбун (šərbun, 섧-은)
(7)a. [t] танди (tandi, 단지(罐)), т'арыу (tyarɨu, 짧으오)
b. [n] но̇мгуги (nəmgugi, 넘기기)
н'ени, н'Ɵны (nyeni, nyənɨ, 연(鳶)-이, 연-을)
c. [r] пары (parɨ, 바로), мур'эги (muryegi, 물가(水邊))
[ll] олла (olla, 올라(登)), ал'л'Ɵн (aʎʎəŋ, 안녕)
(8)a. [m] м'о̇к'о̇риры (myəkʰərirɨ, 메투리(草鞋)-를)
b. [k] к'о̇ншиму (kyəŋšimu, 점심-을)

(6)은 치음과 경구개음의 전사를 연음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전사문자로 전사한 예로서, 한국어의 치음과 경구개음을 전사할 수 있는 러시아 문자가 있어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7)은 연음부호를 사용하여 전사한 예이다. 그런데 (8)은 순자음이나 연구개 자음에 연음부호가 부가된 예를 보인 것인데 이 전사를 따른다면 [m,k]의 구개자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m,k]의 구개자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음이 음성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는

가능하겠지만 [m]의 구개음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음절부음 [y]를 전사한 것이다. 러시아어에서도 [m]의 연자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연음부호 [']는 선행자음의 연음화 즉 경구개음화와 音節副音 [y]를 전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음방법상의 유사성에 따른 전사라 할 수 있다.

2.1.4 鼻音의 轉寫

한국어의 비음 [m, n]은 러시아 자모 'м, н'로 전사하였다. 그러나 연구개음 [ŋ]은 러시아 자모에 없기 때문에 치조비음 'н'(=n)의 자형을 약간 변형시킨 'ң'로 전사하였다.

그런데 육진방언에서는 '-Vŋ(+)V-' 환경에서 'Vŋ'는 鼻母音으로 실현되는데, 그 비모음을 지시하기 위하여 전사문자 'ӈ'를 사용하였다. (<會話>, 序:vi) 따라서 'ӈ'은 일종의 指示 記號로 先行母音이 鼻母音임을 지시한 전사문자이다. <로한즈뎐>에는 이 鼻母音을 전사하기 위한 문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문자 'ӈ'은 Kazan 자료와 달리 [ŋ]의 전사에 사용되었다.) <로한즈뎐>에서 전사되지 않은 음성이 Kazan 자료의 정밀전사에서 전사된 것이다. <로한즈뎐>에는 [ŋ]이 탈락한 형태로 전사된 어사들이 많은데 이것은 [ŋ]이 탈락한 것이거나 또는 비음성을 전사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2.1.5 滑音과 그 弱化音의 轉寫

滑音 [y]는 주로 on-glide이며 off-glide는 [uy] 이중모음의 전사에서만 보인다. 上昇 二重母音은 <로한즈뎐>과 <會話>에서는 그에 대당되는 러시아 자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敎科書>와 <辭典>은 선행자음이 있을 때에는 軟音符號로,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 러시아 자모 'я'로 전사하였다. off-glide는 <初等敎科書>에서는 'ī, я'로 전사하였으나 <敎科書>, <會話>, <辭典>에서는 러시아자모를 이용하여 'й'로 전사하였다.

활음 [y, w]의 약화음 [^{y}] 및 [^{w}]는 <로한즈뎐>에서는 전사에 반영

되지 않았다. 그리고 <初等敎科書>에서는 [^{y}]가 'ĭ'로 전사되고 <敎科書>에서는 'ι'로, [^{w}]는 'y'로 전사되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y}]와 [^{w}]가 온전히 전사에 반영된 것은 <會話>에 와서의 일이다. 그리고 <辭典>은 <會話>의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한 까닭으로 '외'의 반사인 [^{w}e]의 전사가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會話>의 편자들은 이 음을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pochti ne slyshino)라 하였는데(<會話>, 序:vi), 발화 환경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탈락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1.6 母音의 轉寫

2.1.6.1 單母音의 轉寫

한국어 단모음의 전사는 한국어와 동일한 음성을 지닌 러시아어 字母가 있을 때에는 그 字母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韓國語 音聲과 같은 음을 가진 러시아어 字母가 없을 때에는 한국어의 음과 유사한 음을 가진 러시아 자모에 補助符號를 附加하거나 또는 러시아 자모의 字形을 變形시켜 韓國語를 轉寫하였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前者에 속하는 것이 a(=[a]), и(=[i]), y(=[u]), э(=[e]), o(=[o])의 5모음이다. 後者에 속하는 것으로 ä(=[ɛ])가 있다. 같은 低母音으로서 중설모음인 a에 [¨]를 부가한 것이다. [ə]는 같은 중위모음(mid-vowel)으로 그보다는 후설모음인 o에 [¯]를 부가하거나(ō, <로한ᄌᆞ뎐>), [˙]를 부가하여(ȯ, <會話>, <辭典>) 전사하였다. 모두 모음 음성체계를 고려하여 전사문자화한 것이다. 또 [ɨ]는 그와 유사한 음을 가진 러시아 자모 'ы'를 이용하거나 보조부호를 가하여 전사하였다. 초기의 <로한ᄌᆞ뎐>, <初等敎科書>에서는 [ɨ]를 'ы'로 전사하였지만, <敎科書> 이후에는 이 문자에 보조부호를 가하거나(ы̆, <會話>, <辭典>), 고딕체(<敎科書>)화하여 전사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 자모 'ы'가 한국어 [ɨ]보다 전설쪽에서 조음되는 [ï]의 음가를 지니고 있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敎科書>, <會話>,

<辭典>에서는 'ꙋ'로 전사한 것이다.

한편, <教科書>에는 [ö]음이 나타난다. 이 음은 'ö'로 전사되었다. 이 음은 [šö](소(牛))와 같은 단어에서 보이는데, 이 단어는 <會話>, <辭典>에서는 [šwe] 혹은 [šwe]로 전사되었다. <教科書>와 <會話>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인물의 발음을 전사한 것이지만, <教科書>에서는 "姜氏의 발음을 土臺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會話>에서는 "姜氏는 그 자신의 고유한 발음에 따라 韓國語의 音을 이 책에 기입 수록하였다."고 하였다.[8] 이를 달리 말하면 <教科書>에는 姜 氏 外의 非六鎭人의 方言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教科書>의 편찬에는 非六鎭 地域인 吉州 出身 徐 氏 및 六鎭 出身 韓 氏가 참여하였는데, [ö]는 바로 吉州 出身 徐 氏의 發音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教科書>에서는 '외'의 반사형이 [ö]로 전사된 예가 드물고, 둘째 <會話>와 함께 <辭典>에서는 [^{w}e], [we]로 전사되었고, 세째 <教科書>에서 <辭典>으로 갈수록 음성에 대한 관찰과 그 전사가 정밀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1.6.1.1 전사문자 'ы'와 그 음가

모음을 전사한 문자 중에서 음가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教科書>, <會話>, <辭典>에서 보여지는 전사문자 'ы'이다. 'ы'는 이 문자가 지시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二重母音 'ㅢ'의 음가를 구명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전사문자는 러시아 자모로 그 음은 혀를 뒤로 끌어 당기면서 동시에 구개쪽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입을 옆으로 벌려 강한 긴장을 주면서 '이'를 발음할 때 나오는 소리이다. I.P.A.에서는 이 모음을 중설모음 [ɨ=ï]로 규정하고 'the retracted variety of i'이라고 하였다. 즉 [i]가 약간 후설화한 [i]의 변종인 것이다. 따라서 이 음은 현대 국어 '이'

8) Proiznoshenie etogo poslednjago litsa prinjato v osnovu nastojashchago izdanija …(<教科書>, 序文:xvii)

Zvuki korejskoj rechi v etoj knizhke zapisany Kanom po ego sobstvennomu proiznosheniju(<會話>, 序:iv)

와 '으'의 음성학적 거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문자 'ы'의 음가를 고려하면 이 문자는 한국어 [ï]를 전사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 현대국어에는 [ï]가 쉽사리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성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로 'ы'는 中世國語의 'ㅢ'와 대응되기 때문이며 또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等敎科書>, <敎科書>, <會話>, <辭典>에서 'ы'로 전사된 음이 30년전에 간행된 <로한즈뎐> 및 같은 해에 간행된 김병옥의 *Razvedchiku*에서는 'ый'(의)로 전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ы'는 한국어 [ɨy]를 轉寫한 文字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Kazan 자료에 나타나는 'ы'의 전사 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현재의 육진방언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문자가 지시하는 음성특징이 무엇인가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ы'의 轉寫 例는 다음과 같다.(편의상 'ы'는 [ï]로 再轉寫함.)

(9) a. kəmï(거미), nɨbï(누이), ïwəni(의원), nəbï(너비(廣))
t'ï(띠(帶)), tədï-(더디-(遲)), tsʰïugi(치우-(除))
b. tsantsʰï(잔치), sondzï(孫子), tyaŋsï(장사(商))
c. irïmi(이름-이), ərïmi(얼음-이(氷)), kərïmi(걸음-이(步))
d. nʷïgi(누구(誰)), pakʰʷï(바퀴(輪)), kamagʷï(가마귀(烏))
surgï(수레(車))
e. hwandï(환도(環刀)), wəndï(완두), mašʷï(마소(馬牛))
f. musïrɨ(무슨 일을)

(9a)는 중세국어에서 '의', (9b)는 '이'이었던 어사들이고, (9c)는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된 예, (9d)는 '위'의 변화 예, (9e)는 '외'의 변화 예를 보인 것이며, (9f)는 형태소 결합에서 보이는 'ï'의 例이다. 위 例들은 'ы'가 지시하는 音聲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端緖

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例 (9)는 모두 [ï] 또는 [ɨy]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카잔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카잔자료의 편찬들은 'ы'로 轉寫한 韓國語 音聲을 單母音으로 認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根據는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 자모 'ы'은 單母音 [ï]이다. 따라서 이 문자로 전사된 한국어 음성도 단모음일 것이다. 한국어의 단모음 전사에 이용된 러시아 자모는 모두 단모음의 음가를 지닌다. 반면에 이중모음의 음가를 지닌 러시아 자모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전사에 이용되었다. (例, я=ya, ю=yu 등)

나. <教科書>에는 'ы'가 [š] 다음의 [i]를 전사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는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ы'를 단모음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다. 例), шырⓘ кашⓘ (širə kašə;실어 갔어) 그러나 이후이 전사법은 폐기되고 한국어 [i]를 동일한 문자로 전사하였다.

다. 중세국어 '예쉰'(六十)의 반사형에 대한 <會話>의 전사는 'ешӱн (yešün), 'ешy̯ын'(yešwïn)이다. 'ы'가 [ɨy]라면 후자는 [uy]가 된다. 그러면 전자와 음성적으로 거리가 있다. [ü]는 [wï]과 가깝지 [uy]와 가깝지 않다.

라. 'ㅟ'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행자음이 경구개 자음이면 'ӱ'[ü]로, 선행자음이 없으면 'y̯ы'[wï]로 실현된다. 'ы'가 [ɨy]라면 'y̯ы'는 [wɨy]가 되는데, 이는 곧 [uy]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uy]는 'yи̯'로 전사하였다. 그러므로 'ы'를 [ɨy]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위 사실에 의존한다면 'ы'가 지시하는 音聲은 [ï]라 할 수 있다.

그러나 'ы'가 지시하는 音聲은 核母音 [ɨ]의 過渡性이 극히 微弱한 二重母音 [$ï^y$]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w}ï]는 [ʉy], [wï]는 [uy]와 가까운 조음 특성을 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는 외적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카잔 자료보다 앞서 편찬된 <로한주뎐>에는 카잔 자료에서 'ы'로 전사된 音이 [ɨy]로 전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카잔 자료의 전사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아래 전사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10)a. t'uygí(뛰(躍)-기, 사5, 43), t'ʷïgí(사93, 104)
kúy(귂(耳), 회ix) kwí̈(귀, 사6)
túi(뒤(後), 사40), twï(사33), par tʷí̈tsʰuk(발뒤축, 사94)
tuy kərɨmu hɛɛra!(뒷걸음을 해라!, 회435)
tsúygi(쥐(握)-기, 사5, 10, 24) tsí̈gi(쥐-기, 사104))
tsuyúgi(쥐이기(被握), 사24)
súygi(쉬(息)-기, 사29), sʷí̈gi(회xi)
b. sawí̈(사위(壻), 사39), wí̈dɛ(위대(偉大), 사132)
c. š'üyšígi(쑤시기, 회ix, 사46)

(10)은 'ㅟ'를 전사한 예들을 보인 것인데, (10a)는 동일한 어사가 非硬口蓋 子音下에서 [uy], [wï], [ʷï]로 전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ㅟ'에 선행자음이 없는 환경에서는 (10b)와 같이 [wï]로, 硬口蓋子音下에서는 (10c)와 같이 [ü]로 전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0a)의 전사 예이다. 同一 話者의 發話音이지만 精密轉寫를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전사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것은 발화 상황, 즉 발음의 緩急이나 casual style, formal style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發話表面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음성차를 전사에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ㅟ'가 [wï] 혹은 [ʷï]로 전사된 것은 전사문자 'ы'(=ï)가 過渡性이 매우 미약한 [ɨ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wï]는 [uy]보다는 혀의 이동이([u]에서 [i]로의) 微弱한 것을 전사한 것이고, [ʷï]는 혀의 이동에 있어서는 [wï]와 동일하지만 핵모음 /u/의 圓脣性이 약화된 [ʉy]를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라'에서 'ы'가 [ɨy]라면, 'ɣы'는 [wɨy], 즉 [uy]가 되어 'yɴ̥'

=[uy]와 전사상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래 (11)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11) súyn(쉰, 회42), cf. súyni(회부72), súyn-nama(쉰 남짓, 회42)
kúy(귀(耳), 회ix), kwí(귀, 사6)
túi(뒤(後), 사40), twï(사33)

單音節 語幹 그 자체로서는 어간 모음의 高低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잔 자료에는 2음절 이상의 어사에만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어 있다. 그런데 (11)의 예들은 單音節 語幹임에도 불구하고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어 있다. 이것은 音節 核母音 /u/에서 /i/로의 過渡가 매우 완만한, 거의 2음절에 가까운 調音 狀況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音調가 전사에 반영된 것이다. '뒤'가 [túi]로 전사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wï]일 것으로 추정한 音聲은 핵모음 /u/에서 /i/로의 過渡가 (11)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중모음 [uy]이라고 할 수 있다. (11)의 '뒤'와 '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사는 그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9)]

한편,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함북 출신인들로부터 조사 수집된 함북 방언자료(<咸北方言辭典>, 金泰均:1986), 中國 琿春에 거주하는 함북 출신인으로부터 함북방언을 수집하여 연구한 전학석(1987:88)에는 이 방언에 이중모음 [ɨy]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학자들의 조사·보고는 이와는 다르다. 'ㅢ'가 중설고모음인 單母音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10)]

9) 舊稿에서는 'ы'가 지시하는 음성이 單母音 [ï]일 것으로 단정하였지만 음운론적으로는 /ɨy/로 재음소화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자모인 'ы'가 單母音이라는 점을 존중한 것이었다.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은 한국어 이중모음 [ɨy]의 과도성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와 가까운 인상을 주는 'ы'로 전사한 것이다.

10) 북한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ㅢ'는 중설고모음의 單母音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한두복:1962, 한영순:1967, 김영황:1982, 황대화:1986) 황대화(1986:

이러한 사실은 육진방언에서 이중모음 [ɨy]가 20세기에 들어서서 單母音化를 향하여 부단히 변화해 왔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카잔 자료가 보여주는 과도성이 극히 미약한 [ɨ^y]가 현재의 육진방언에서는 [i]로 발전된 것이다. 北韓 學者들의 현대 육진방언에 대한 조사·보고를 따른다면 이중모음 [ɨy]는 'ɨy>i'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2.1.7 띄어쓰기

<教科書>, <辭典>, <會話>는 한국인의 발음을 운율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밀전사한 것이다. 이렇게 發話音을 문장 단위로 정밀전사할 때에는 屈折 範疇에서 일어나는 제반 형태음소론적 교체 또는 파생어나 복합어에서 語基와 接辭 혹은 語基와 語基를 어떻게 表記하여 語意와 文意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냐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한 띄어쓰기 원칙을 마련해야만 한다.

위 문헌자료에서 띄어쓰기는 원칙적으로 호흡 단위(breath group), 즉 어절(syntagma)을 한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체언과 용언의 굴절에서 어간에 붙는 제반 문법요소들은 그 어간에 붙여 표기하였다. 그러나 <教科書>에서는 아래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어의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1) k^hɨn amɛ gwa soňňe(할머니와 손녀, 교13)
k^hɨn abɛ gwa sondzɛ(할아버지와 손자, 교13)

(2) han bəni k^hɨn abɛ pusukkɛrɨ oruda mot olla ɣašə(한번은 할아버지가 부수깨(→부뚜막)를 오르다 못 올라갔어., 교13)
kɨ p^həsɨsɨ ʧiburu kaʤe kašə(그 버섯을 집으로 가져갔어., 교13)

---

18)는, "륙진방언의 전통적인 어음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로인층에서는 이상의 방언에서와 달리 겹모음 《ㅢ》를 평겹모음으로 발음하는데서 홑모음 《ㅡ》도 아니고 《ㅣ》도 아닌 가운데높은 모음 《ɨ》를 그의 대응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1)에서는 祖父母 呼稱語의 접두요소 'kʰɨn'과 'amɛ, abɛ'를 띄어썼음을 볼 수 있다. (2)에서도 복합동사 'olla ɣašə, kadʒe kašə'의 각 구성 성분을 띄어썼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복합어의 음성전사는 한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올라가-'를 'olla kašə'로 전사하지 않고, 후행동사의 첫음을 유성마찰음으로 전사한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가져가-'는 후행동사의 첫소리를 무성음으로 전사하였는데, 이것은 전자를 복합동사로 후자를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구별한 때문으로 보인다. (1)에서도 공동격의 '-과'가 '-kwa'가 아닌 '-gwa'로 전사되어 있다. 이는 'kʰɨn amɛ gwa'(할머니와)를 하나의 호흡단위로 파악하고 전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 2)와 같은 띄어쓰기는 <會話>에서는 달라진다. (1)은 語基 사이에 하이픈을 두어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3) kʰɨn-abɛ-gwa kʰɨn-amɛ sɛŋdʒən hɛɛ innya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존해 있냐 ?, 회176)

그러나 (2)와 같은 <敎科書>에서의 복합동사의 띄어쓰기는 <辭典>, <會話>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다.

한편 체언 어간에 붙는 곡용어미, 후치사, 접사 등은 모두 어간에 붙여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과, -도, -보구(-보다), -하-' 등은 아래 (4-7)과 같이 띄어썼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간과 어미를 하나의 호흡단위로 보고 음성 전사하였다.

(4) i pʰəsiši tarɨn pʰəsip pogu tyotʰa(이 버섯이 다른 버섯보다 좋다., 교13)

ore s'ɛgi šaŋ-nyən bogu kobi tə nukso(올해 품싹이 상년(嘗年→작년)보다 배가 더 눅다(→싸다), 회240)

(5) kʰɨn amɛ habundza t'ək tu kupku, tʃip tu s'ɨrə nɛgu, šikki du šikku soňňellɛšə, hogi du hogu.(할머니 혼자 떡도 굽고, 집도

쓸어내고(청소하고), 씻기도 씻고(빨래하고) 손녀를 위해, 호기 도 호고 (바느질 하기도 하고), 교13)

(6) adzɨmi, muru tʰundzɛɛ nyə kaʤigu ʧina kadaɣa, konyɛɛge gwa kɛge gwa muru pusəšə(아주머니가 물을 물통에 넣어 가지고 지나 가다가 고양이와 개에게 물을 부었어., 교15)

(7) yaŋšigɨ komtsʰɨyudi mao, uri ədə nɛmu, tə kuʧʰa hauri,(양식을 감추지 마오, 우리가 얻어내면(→찾아내면) 더 구차할 것이오(→가난할 것이오), 회137)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어미나 동사 어간에 붙는 접사는 모두 붙여쓰고 특수조사는 띄어썼다. 그러나 '-과' 만큼은 <會話>, <辭典>에서는 어간과의 사이에 하이픈을 두었다.(漢字語도 漢字 사이에 하이픈을 두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에서 주격, 대격, 여격 등은 어간에 일정한 어미가 붙어 격변화를 하지만 공동격은 접속사 'да(=и)' 혹은 전치사 'c'로서 나타내기 때문이다. 후치사 '-도'를 띄어쓴 것은 '-도'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러시아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미사 '-하-'를 띄어쓴 것은 '-하-'를 동사 '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호흡단위로 음성전사를 하였지만 발화 환경에 따라서는 호흡단위와 호흡단위 사이에서 음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편자들은 그 음운현상을 전사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예를 보기로 한다.

(8) k adəri toraŋ kyətʰe modašə, tordərɨ kaʤeda, torāda s'aašə (그 아이들이 도랑 곁에 모였어, 돌들을 가져다가 도랑에다 쌓았어., 교31)

(9) iʎʎəne šörɨ s'ar mani pəʎʎarɨ (일년(안)에 소를 살 만큼(돈을) 벌려고., 교71)

(8)은 본디 'kɨ a'(그 아이)이다. 모음 앞에서 'kɨ'의 어간모음 'ɨ'가 탈

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의 원형을 살리기 위해 띄어 쓴 것이다. (9)는 복합어이기 때문에 띄어쓴 것인데 子音同化를 전사에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음성전사는 발화 단위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줄, 적, 것' 따위와 같은 형식명사는 아래 (10)과 같이 모두 선행어에 붙여 전사하였다.

(10) ətti tip karillɨ nɛrye karts'uru(어떻게 짚가리를 내려 갈 줄을 내려 갈 지를), 교14)
nɛ yəbɨygu, panban ani harts'əgenɨ, kebi na hɛɛšə, narɨ t'argur k'aba(내 여위고 반반하지(예쁘다) 않을 적에는, 겁이 나, 나를 쫓아낼까 보아서, 교46)
məgɨrk'ə mardər tsuəra(먹을 것을 말들에게 주어라., 교6)

그런데 발화 단위라 할지라도 <敎科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간+디 아니하다'의 句는 띄어썼다.

(11) tot^{h}udy anik^{h}u (다투지 아니하고, 교52)
tat^{h}idy anirira (건드리지 않으리라, 교54)

그러나 <會話>, <辭典>에서는 복합어의 경우처럼 하이픈을 두어 나타내었다.

(12) i kiri mosɛllɨ tep^{h}iud-yɛnesso?(이 길이 모래로 덮히지 않았소?, 회18)
i kiri tsɨd-yɛnio?(이 길이 질지 않소?, 사20)

그런데 <會話>, <辭典>에서는 정밀전사로 인한 어간 형태소의 손상으로 의미 포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한 기호를 두어 音韻脫落이 있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또 <辭典>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에서 보여지는 음운현상을 전사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чит.'('читать(읽다)'라는 동사의 略形)라는 지시어를 두어 실제 발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13) a. ǝtt=yɛ (ǝtti hɛɛ, 회xix)
b. kanan=an (kanan han, 회xix)
c. mus=ɨyre (musuŋ+ir+e, 사36)
(14) a. u šuem,i (чит. uš'uemi) (웃수염, 사126)
b. s'ak (чит. s'aŋ) marigi (싹 마르(乾)-기, 사78)
c. $ts^hǝt$ (чит. $ts^hǝk$) kan,i (첫 칸)

(13a)는 'ǝtti hɛɛ'에서 'h'가 탈락하고 선행어의 말모음 'i'가 滑音化한 것을, (13b)는 'kanan+han'(가난한)에서 'han'의 'h'가 탈락한 것을, (13c)는 'musiŋ(무엇)+ire(일(事)-에)'의 연결에서 선행어의 말자음 'ŋ'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 다음 'ii>ɨy'로 변화한 것을 기호 '='로써 나타낸 것이다. 즉 형태소의 접합 과정에서 音韻脫落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하여 '='를 사용한 것이다. (14a)는 硬音化를, (14b)는 鼻音化를, (14c)는 邊子音化를 轉寫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호의 사용은 精密轉寫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파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이는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이 한국어 단어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1.8 限定添辭 '-이'에 대하여

카잔 자료의 한국어 전사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 <敎科書>의 한국어 체언과 용언의 어간에는 일정한 어미가 접미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體言에는 '-이'가, 動詞 語幹에는 '-기', 形容詞 語幹에는 '-게'가 접미되어 있다. 이와 같이 屈折語幹에 일정한 어미를 접미시켜 표기하는

방식은 <로한즈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간행된 Taishin(1898), Matveev(1900)는 물론 카잔 자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은 어떤 傳統을 이끈 慣習的인 것이거나 아니면 이들 문헌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어 東北方言의 特徵을 反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用言 語幹에 접미되어 있는 '-기, -게'는 분명 定動詞 語尾 '-다'를 대신하고 있는 형태소들이지만, 體言에 접미되어 있는 '-이'는 '체언'이라는 文法 範疇를 나타내기 위하여 접미시킨 形態素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이 규정한 것처럼 '主格語尾'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문법형태소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轉寫上의 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가 육진방언의 語彙 再構造化는 물론 공시적 音韻交替나 통시적인 音韻變化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어 본론에 앞서 이 형태소의 性格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형태소는 얼핏 主格語尾로 보인다. 그 이유는 體言에만 접미되어 있고 주격어미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육진방언에는 주격어미 '-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音調도 주격어미와 동일한 高調이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계 문헌들에서만 이러한 표기를 볼 수 있는데, 러시아어에서는 단수 주격이 그대로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한국어 체언에도 六鎭方言의 唯一한 主格語尾 '-이'를 體言에 접미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격의 위치가 아닌 환경에서 출현한다는 점, 開音節 語幹에 統合되어 어간의 일부로 固定되었다는 점 등에서 주격어미와는 사실상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이'의 性格을 구명해 보기로 한다.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은 이 형태소가 체언에 통합될 때 나타나는 여러 양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이 형태소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露韓小辭典> 주석란의 한국어 동북방언의 체언은 다음과 같이 전사되어 있다.

(1) a. ʧidak, ʧidɛgi, kwɛ-hɨk, kwɛhɨrgi(진흙, 사x)
b. hun-dyaŋ, hun-dyɛ(訓長), šədaŋ, šədɛ̃(書堂, 사135)
c. nyaŋban, i(兩班, 사2), sarɨm, i(사람, 사3,41,77,134)
d. ʧarɨdəri, ʧarɨ(자루(袋)-들, 사62), ʧargi(자루-가, 사62)

辭典 편찬자는 (1a-c)의 '-i'가 접미되지 않은 명사를 '基本格'(Osnovnoy padezh), '-i'가 접미되어 있는 명사의 격을 主格(Imeniteljnyj padezh)이라 하고, 語幹에 접미되어 있는 '-i'를 주격어미라 하였다. (1c)는 기본격과 주격어미가 컴마로 분리되어 있지만 (1a,b,d)는 주격어미가 컴마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1a,b)를 (1c)처럼 주격어미를 기본격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것은 發話音을 精密轉寫하였기 때문이다. 辭典 編纂者들은 語幹에 '-이'가 통합될 때에 音聲規則(有聲音化와 같은)이나 音韻規則에 의하여 어간의 모습이 기본격과 달라지기 때문에 컴마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1a)의 'ʧidɛgi'는 '-i'가 어간에 통합되면서 '-i'를 동화주로 하는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kwɛ-hɨrgi' 역시 기본격 'kwɛ-hɨk'과 어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i'를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기본격형은 子音群單純化 規則에 의하여 休止 앞에서는 'r'이 脫落하여 나타나지 않는 반면, 주격어미라 한 '-i'가 연결되면 'r'이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i'를 컴마로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다. (1b)는 어간에 '-i'가 통합되었을 때, 움라우트, 鼻母音化, 語幹末 '-i'의 탈락과 같은 일련의 규칙들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主格形'이 '基本格形'으로부터 크게 달라진 예인데 이 경우는 아예 주격형에서 '-이'를 분리해 낼 수조차 없는 것이다.

(1d)는 (1a-c)가 음운규칙에 의하여 어간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는 달리 기본격과 주격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이른바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는 特殊語幹交替 名詞의 한 例이다. 이러한 어사들에 있어서는, 기본격과 주격형을 구분해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전 편찬자들은 이러한 특이한 曲用 형태들로부터 기본격을

이끌어 내는 形態素 分析 方法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이들 어사의 複數形을 통해서 기본격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즉 이들 명사의 복수형에서 복수접미사 '-t(d)ər-'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 바꾸어 말하면 복수접미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어간 형태를 사전 편찬자들은 '基本格'으로 삼은 것이다.(<露韓小辭典>序文, xi) 생각컨데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은 系合體系 내에서 어떤 名詞 語幹이 곡용어미나 接尾辭(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체언어간과 복합어를 형성할 수 있는 명사까지도 포함하여)와 맺는 통합관계를 살피고, 거기에서 音韻論的 혹은 形態論的 條件에 의한 명사 어간의 형태 변화를 관찰한 다음 복수접미사 '-t(d)ər-'은 어간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 명사를 기본격과 주격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한글 자모를 이용하지 않고 끼릴문자 계통의 전사문자로 한국어를 정밀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文法意識의 所産으로 보이며, 실제 發話音을 바탕으로 명사의 어간과 어미를 분간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 즉, 어간(기본격)과 주격형이 (1)의 예와 같이 달라지는 한국어 동북방언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처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소 '-이'가 명사에 접미됨으로서 육진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간 再構造化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아래 예를 보면서 '-이'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ʧəgur, i(저고리, 사48)
ʧəgur šəpʰi(저고리 섶, 사84)
sər, i (서리(霜), 사41),
(3) k'εεm, i(개암, 사73), sεεg, i(처녀, 사29,66)
(4) wəndɨy(완두,사20), hwandɨy(環刀,사99), širgwε(실과, 사80)
maʤũi(마중, 사14), nyəmtʰʉy(염통, 사103)

(2) 'ʧəgur', 'sər'은 誤分析의 예로 보이지만, 복합어 'ʧəgur šəpʰi'로

보아 'ʧəgur'이 단독형으로 쓰였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3)도 'k'ɛɛm nɛŋgi', 'k'ɛɛm namu kaʤi', 'k'ɛɛmdəri'와 같은 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3)의 '-i'는 <露韓小辭典> 편찬자들의 말처럼 주격어미라 할 수 있다. (4)의 예들은 '主格語尾'라 한 '-이'가 語幹에 접미됨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音聲變化를 경험한 어사들이다.

wəndu + i >wəndui>wənduy>wəndɨy
hwando + i >hwandoi>hwanduy>hwandʉy>hwandɨy
šilgwa + i >šilgwai>šilgway>šilgwɛ

(4)는 '-이'가 완전히 어간에 흡수되어 버린 예다. <辭典>, <會話>, <單語와 表現>에 등재된 개음절 체언은 모두 이와같이 '-이'가 어간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육진방언을 비롯한 동북의 일부 방언의 개음절 체언은 前舌母音 중의 어느 하나로 끝나거나 下降二重母音으로 끝나는 形態素構造制約을 지니고 있다. 즉 語幹 母音은 'i, e, ɛ, ɨy, uy' 중의 어느 하나로 끝난다. 그리고 형태소 '-이'는 육진방언의 이중모음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디 상승 이중모음에 '-이'가 접미됨으로 해서 삼중모음을 형성하고, 이 삼중모음은 다시금 선행자음과의 통합관계에 의한 변화를 경험함으로서 육진방언의 이중모음은 타방언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4.7.2, 4.7.3 참고)

이러한 '-이'는 '주격어미'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육진방언은 주격어미 '-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격어미 '-이'가 개음절 어간에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이 방언의 어느 시기인가에, ay>ɛ, əy>e의 단모음화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에 의하여 주격어미 '-이'가 개음절 어간에 통합되면서 선행모음과 二重母音을 형성하고 이것이 單母音化로 결과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한ᄌᆞ뎐>, <會話>의 부록, <教科書>는 물론 Taishin(1898), Matveev(1900)와 같은 사전에는 한국어 동북방언의 체언어간에 '-이'가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사전의 동북방언에 접미되어 있는 '-이'가 모두 어떠한 성격을 지닌

어미인지 편찬자들이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필자는 주격어미보다는 정어적 기능을 갖는 육진방언의 특이한 문법형태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때의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음절 어간뿐만 아니라 폐음절 어간에도 결합되기 때문이다. 아래 예 (4)를 보기로 한다.

(5) komi(곰(熊), 교2), komisanyəŋ(곰사냥, 교28)
komirɨ(곰-을, 교60), komigerɨ (곰-에게로, 교61)
komirɨ tɛrigu(곰-을 데리고, 교42)

(6) a. əbudzagɨ tʰigi(고함-을, 사16,97)
əbudzak sorirɨ(고함 소리-를, 교26)
əbudzakʧirɨ (고함질-을, 교18,21)
a′ əbudzɛgirɨ tʰigi(사49), əbudzɛgirɨ(고함-을, 교57,65)
b. šidzak hagi(시작(始作)하-기, 사88,96)
b′ šidzɛgirɨ hagi(시작-을, 사64, 34. 교7,17,40)
c. i kiryəgɨ kapš'i emmɛo(이 기러기 값이 얼마오, 회344)
c′ kiryegidərɨ s'arman hao(기러기들을 살 만하오, 회254)

(7) a. ʧəgur, i(저고리, 사48)
ʧəgur šəpʰi(저고리 섶, 사84)
b. wənsii(원숭이, 교.47), wənsiɨ(원숭이-를, 교47),
wənsinɨn(원숭이-는), wənsiŋke(원숭이-에게, 교47)

(8) tuuru(뒤(後)-로, 사129,32,63), tuu(뒤(後)-를, 사82)
tue(뒤-에, 사32), twešə(뒤-에서, 사40, 84)
kue(귀(耳)-에, 사103), kuy(귀(耳), 회ix)
yekki kuyrɨ ʧoŋgurigu tara kaʤagu(여우가 귀를 쫑긋하고 달아 가자고(→달아나자고), 교54)
uurɨ(위(上)-으로, 회111), ui(위(上), 사9)
t'ai(땅(地), 표41), ʧʰoŋ-gwa hwandɨyrɨ <u>t'ae</u> noara(銃과 環刀를 땅에 놓아라, 회441)

例 (5)는 '곰'(熊)의 어간이 /komi/로 재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a-c)는 어간이 流動的이다. 즉, '-이'가 접미되어 재구조화된 어간과 그렇지 않은 어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7)의 어간은 /ʧəgur/, /wənsiŋ/으로 잡을 수 있어, '-이'가 아직 어간의 재구조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현대 중부방언에서 이들 어사들의 어간 말음이 '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예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임에 틀림 없다. 만약 '-이'를 주격어미로 본다면 현대국어의 '저고리', '원숭이', '기러기' 따위의 어말 '-이'는 기원적으로 주격어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때의 '-이'를 주격어미라 부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單音節이면서 개음절 어간인 (8)의 예들은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음절 어간에 '-이'가 통합되면 형태소 '-이'는 어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데, (8)의 예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선행어간의 말모음과 결합되어 단모음을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가 통합되면 탈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더욱이 例의 '귀'(耳), '뒤'(後)는 '따'(地), '우'(上)와 달리 中世國語를 참고할 때 본디부터 이중모음 /uy/임에도 불구하고 어간모음의 일부인 滑音 /y/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는 /uy/가 아직 단모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귀', '뒤'의 음절 부음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것은 어간에 고착되지 않은 '-이'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사실에 유추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로한즈뎐>, <敎科書>, <會話>, <單語와 表現>, <辭典>의 한국어 체언 어간에 접미되어 있는 '-이'를 단순히 주격어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육진방언에서 특이하게 존재하는 정어적 기능의 한정첨사라 할 수 있고 이 형태소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무엇이다'라는 대답에서 '무엇'의 자리에 나타나는 접사로 선행명사의 자격을 한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접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접사는 선행명사가 곡용을 하게 되면 탈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접사는 점차

어간의 일부로 고정되어 가고 있음도 위 예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 접사는 대상의 한정이라는 면에서 주격어미와 동일하다 할 것이나, 주격어미와는 달리 문장의 한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태층위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한 이유로 육진방언의 체언 어간이 본디 개음절 어간이면 '-이'가 어간말 모음과 결합하여 어간의 일부로 흡수되고, 폐음절어간과 결합하면 어간에 고정되거나 또는 어간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곡용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11)

따라서 <로한ᄌᆞ뎐>, <會話> 등의 한국어 체언말에 부가되어 있는 '-이'는 선행명사의 자격을 매겨주는 한정적 기능을 갖는 한정첨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주격어미와 형태상 동일하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辭典>의 편찬자들은 이 어미를 주격어미라 하였다. 한정첨사는 형태상 주격어미와 동일하다. 다만 이 형태소는 형태론적 층위에서 선행 어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주격어미는 통사적 층위에서 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

11) 지금까지 간행된 방언사전이나 자료집에는 '나무, 여우, 아우' 의 동북방언형이 '낭기(냉기), 아끼(애끼), 여끼(예끼)'로 조사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동북방언 화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는 반드시 한정첨사 '-이'가 접미된 어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인 '나무, 아스, 여스'와 같은 방언형이 조사 수록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편, 체언어간에 이와 같이 접사 '-이'가 어간에 접미되는 현상은 비단 육진방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지역방언에서 존재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치매' 따위도 '-이'가 어간에 접미되어 생겨난 방언형인 것으로 보인다. 육진 이외의 방언 특히 함경남도, 강원도, 경북과 같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체언 어간말에 '-이'가 어간의 일부로 굳어진 예들이 다수 보인다.(이상규:1983, 조현숙:1985) 이들 지역에서는 육진방언과 달리 주격어미 '-가'가 존재하므로 주격어미가 '-이가'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도 역시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격어미 '-가'가 존재하기 전에 육진방언과 동일하게 체언어간말에 '-이'가 접미되던 시기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音韻體系

앞 절에서는 <로한ᄌᆞ뎐>과 Kazan 자료의 한국어 전사문자와 그 체계, 전사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Kazan 자료가 보여주는 六鎭方言의 音聲 및 韻律 要素를 제시한 다음, 意味分化에 있어서의 有意味的 요소인 音素와 韻素體系를 밝히고 그것을 資質明細化(feature specification)한다.

2.2.1 音聲과 音素體系

2.2.1.1 子音音聲과 子音體系

<敎科書>, <會話>, <辭典>에 보이는 六鎭方言 音聲들의 目錄은 다음과 같다.

p, b	t, d		k, g	
p'	t'		k'	
p^h	t^h		k^h	
	s, z	š	ɣ	h
	s'	š'		
	ts, dz	ʧ, ʤ		
	ts'			
	ts^h	$ʧ^h$		
m	n	ň	ŋ	
	r			
	ll	ʎ		

각 음성 특징은 이미 2.1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각각의 음성과 그들의 분포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2.1.1.1 軟口蓋音

六鎭方言의 軟口蓋音은 [k],[g],[ɣ],[k^h],[ŋ]가 있고 그 分布 環境은 다음과 같다.

[k]	kasɛɛbi(장인, 사120)	kidurgugi(기다리-기, 사82)
	kaŋʧ^{h}i(→앙금, 사22)	kasirɨ(→추수-를, 표xxii)
	sonak(소나기, 사21)	karak(가락(環), 사77)
[g]	surgɨy(수레, 회79)	mərgʉy(머루(山葡萄), 사11, 회100)
	argugi(알리-기, 사71)	aʤəgi(아침, 사126)
[ɣ]	amuɣəttu(아무 것도, 회128)	kaɣɛsso(가겠소, 회298)
	koɣɛ(고개(峴), 회4)	ts'aɣirɨ(쪽(便)-으로, 회437)
[k']	k'ɨsɨgu(끌-고, 사119)	k'edi(꿰-지, 회387)
	k'ɛɛmi(개암(榛), 사73)	k'wɛ innɨn(꾀 있는, 사120)
[k^h]	k^{h}ɨnabani(할아버지, 사29)	k^{h}ɨy(키(身長), 사97)
	k^{h}wɛšaŋ(상자, 사vii)	k^{h}əudɛrɨ(푸대-를, 회148)
	tik^{h}igi(지키-기, 표22)	myək^{h}əri(메투리, 사89)
[ŋ]	yaŋmok(羊牧, 회366)	ɨŋšigi(應食, 회xii)
	tyaŋgɛrɨ(장가-를, 회185)	šəŋnyuwɛ(성냥, 사110)
	p^{h}inadiraŋ(피난-이랑,회302)	naaraŋ(천천히, 회433)
[~]	pyɛ̃uri(병아리, 회348)	pãuri(방울, 회xvi)
	pɛ̃ɛr, i(팽이, 사137)	šɛ̃i(성(城), 사19)
	tõe(동이(罐), 표33)	tsɨmɨsɨ̃(짐승-의, 사93)
	šə̃wɛ(성화, 사61)	šəŋ-tyũi(성중(城中), 사75)

[k]는 無聲無氣破裂音으로 어두 위치에 분포한다. 전사된 어말 위치의 [k]는 未破音이다. [g]와 [ɣ]는 유성음 사이에 분포하되, [g]는 파열음이고 [ɣ]는 마찰음이다.[12] 그리고 [k^h]는 無聲有氣破裂音이다. [ŋ]은

12) 이 음은 <會話>에서만 전사되었고 <辭典>에서는 전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g]의 自由變異音(free variant)이기 때문에 [g]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敎科書>에서는 mar ɣɛ'(말(語) 해)처럼 'ㅎ'이 탈락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子音과 休止 앞에서만 출현하고, 語頭나 母音 앞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鼻母音은 例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모음에 걸쳐 나타난다. 이들은 반드시 모음 앞에만 분포하는 制約을 갖는다. 이들 鼻母音은 音韻論的으로는 '모음+ŋ'으로 해석된다.

2.2.1.1.2 兩脣音

轉寫된 六鎭方言의 兩脣音은 [p],[p'],[p^h],[b],[m]이 있고 이 音聲들의 分布 環境과 그 예는 다음과 같다.

[p]	parš'ə(벌써, 회xviii)	pyɛnše(만두, 회99)
	purš'erɨ(갑자기, 회xviii)	pont^{h}ye(선물, 사20)
	podurabun(보드랍-은, 사62)	pargʉy(발귀, 사100)
	ipši(음식, 식량, 사51)	part^{h}op(발톱, 사45)
[b]	habundza(혼자, 사100)	habullɨ(홀로, 사8)
	kubi(밑(底), 사26)	kɨburgi(구르-기, 사7)
[p']	p'aburigi(빠뜨리-기, 사126)	p'ar-ts'ʉy(박쥐, 사89)
	p'yedɛ(뼈대, 사48)	pap'ugi(힘들-, 사123)
[p^h]	p^{h}imɛ(피마(牝馬), 사45)	p^{h}əsit(버섯, 사20)
	nyep^{h}yeni(여편네, 사31)	nyəp^{h}ari(옆, 사4)
[m]	musu(무(菁), 회335)	magam(마지막, 회87)
	adzɨmani(숙모, 회171)	kumiri(귀밀, 회43)
	mut^{h}ʉy(통나무, 사40)	mɨynməri(대머리, 사81)

[p]와 [b]의 분포는 相補的이다. [b]는 유성음 사이에 분포하고 [p]는 그 밖의 환경에 분포한다. [p'], [p^h]는 語末을 제외한 환경에 분포하고, [m]은 분포 제약이 없다.

그밖에 同時調音의 예로서 [^{b}m]을 들 수 있다. 이 音聲은 푸칠로의 <로한ᄌ뎐>, Matveev(1900)에서 보인다. 그러나 Kazan자료에는 이 음성이 전사에 반영되지 않았다.[13]

2.2.1.1.3 齒音과 硬口蓋 子音

六鎭方言의 齒音과 그 分布 環境은 다음과 같다.

[t]	tedigi(던지-기, 사5)	tat^{h}igi(다치-기(觸), 사122)
	tik'i(찍(啄)-기, 사98)	tarɛɛmi(다람쥐, 사129)
	tyaŋsɨy(장사(商), 사47)	tyošəni(朝鮮, 사47)
[d]	yadɨrbi(여덟(八), 회71)	tadɨbɛts^{h}ɛ(양배추, 회334)
	tandi(단지(罐), 회329)	ts^{h}adi(책임자, 회400)
[t']	t'argugi(따르(從)-기, 사18)	t'ik'i(찧(搗)-기, 사44)
	t'udigi (두더지, 사99)	t'ɨk'i(뜯-기, 사97)
[t^{h}]	t^{h}igi(치(打)-기, 사16)	t^{h}yen-ʧunimi(天主님, 사13)
	kit^{h}igi(→남기(遺)-기, 사74)	t^{h}uŋdzɛ(물통, 사8)
	tat^{h}igi(다치(觸)-기, 사122)	t^{h}oŋbari(통발, 사54)
[n]	obun(온(全), 사84)	yadɨn(여든(八十),회42)
	nagɨnɛ(손님, 사36)	konyɛ(고양이, 사48)
	naraŋ(나라(國), 사130)	nasagagi(나아가-기, 사83)
	ʧənage(저녁-에, 회299)	narš'e(날씨, 사82)
	nyaŋbani(양반, 사2)	nyɛɛgi(이야기, 사96)
[ň]	kaaňňa(가느냐, 교73)	hɛɛňňa(했느냐, 교22)

위 예들은 破裂音이다. [t], [d]는 출현 환경이 相補的이다. [d]는 유성음 사이에 분포하고, [t]는 그 이외의 환경에 분포한다. [t'], [t^{h}]는 語頭 語中 위치에 분포하며 鼻音 [n]은 分布制約이 없다. 경구개음 [ň]은 <教科書>, <辭典>에서만 전사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위 예에서 보

13) <로한ᄌᆞ뎐>과 Matveev(1900)에는 [m]이 [b]로, [n]이 [d]로 전사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전사는 m>p, n>t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b}m], [^{d}n]과 같은 동시조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外國人들의 韓國語 轉寫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小倉進平(1930:11), Ramstedt(1939), Martin (1982), 宋敏(1974), 拙稿(1988)참고. 이 동시조음에 대한 체계적 해석은 李秉根(1980)을 참고.

는 바와 같이 동일 자음이 겹쳐 나타날 때에만 전사하였다.

이 외에 同時調音의 예로서 [ᵈn]이 있다. [ᵇm]과 마찬가지로 <로한ᄌᆞ뎐>, Matveev(1900)에서 그 轉寫 例를 볼 수 있는데, Kazan 자료에서는 오직 <初等敎科書>에서만 [ᵈn]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初等敎科書>(序文, 17)에서는 'nɨbi'(妹)는 거의 'dɨbi'로 발음되고 'ne'는 'de'에 가깝게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음특징은 전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齒槽 위치에서 調音되는 破擦音의 例를 보기로 한다.

[ts]	tsantsʰɨy(잔치, 사48)	tsaŋtʃʰigi (장치-기, 사106)
	tsɛmɛɛktʃir(자맥질, 사69)	tsəuri(저울, 사17)
	tsuməni(주머니, 사48)	tsɨmsiŋ(짐승, 사61,97,99)
	tsɨn-tsʰaŋ(진-창, 사55)	tsɨši(짓(모양), 사29)
[dz]	kadzɛ(가재(蟹), 회xiv)	kadzɨ(게으름, 회xiv)
	padzɛ(울타리, 회xiv)	andzuk(아직, 회200)
	maudzɛ(러시아인, 회100,214)	madzu(마주, 사64)
[ts']	ts'wɛugi(쬐(曝)-기, 사21)	ts'ɨmi(틈(隙), 사136,회xvii)
	ts'adzɛgi(자작(樺), 사3)	ts'onnɨn(좇-는, 사82)
[tsʰ]	tsʰwani(배(船), 회x/사55)	tsʰonio(촌(村)-이오, 회361)
	tsʰadi(책임자, 회400)	tsʰumu(침(唾液)-을, 사80)
	tsʰɨgi(치(濾粉)-기, 사92)	tsʰɛdyəŋ(빗장, 사136)
	tsotsʰugi(좇-기, 사18)	turtsʰugi(들추-기, 교42)

齒槽 破擦音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무성음 [ts]와 유성음 [dz]의 분포 환경이 상보적이다. 그리고 [ts]에 대한 경음과 유기음 [ts'], [tsʰ]가 있다. 이들 음성들은 [i]와 on-glide [y]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分布 制約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는 경구개 파찰음을 보기로 한다.

[tʃ]	tʃənεgi(저녁, 사124)	tʃəmagi(→두루마기, 사77)
	tʃədzɨ(젖-을, 사26)	tʃəksam(적삼, 사98)
	məgiraktʃi(머구리(蛙), 사57)	karaktʃi(가락지, 사46,78)
	tʃwenɨ(主人-을, 회233)	tʃəəguna(근근히, 사77)
[ʤ]	kamʤi(감자, 회xiii)	kamʤi(감주, 회xiii)
	kεεʤi(강아지, 회xiii)	šəŋmεʤε(석매장이, 교8)
	namuaʤεgirɨ(나무가지-를, 교19)	panɨʤir(바느질, 교37)
	uʤε(농담, 회134)	
[tʃ^h]	tʃ^{h}iŋgʉy(친구, 사28)	tʃ^{h}εk'i(차꼬(→着錮), 사43)
	tʃ^{h}ăadze(갈퀴, 사11)	kaŋtʃ^{h}i(→앙금, 사22)
	samtʃ^{h}igi(삼키(呑)-기, 사18)	hutʃ^{h}i(후추, 사ix)

위 예와 같이 경구개파찰음은 무성무기음 [tʃ], 유성무기음 [ʤ], 그리고 무성유기음 [tʃ^h]가 있다. 그러나 경음 [tʃ']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1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破擦音은 齒槽音과 硬口蓋音의 두 계열이 존재한다. 그런데 [ts] 다음에는 /i/와 y系 상승 이중모음이 연결되지 않는다. [tʃ] 다음에도 y-系 上昇 二重母音은 연결되지 않지만 /i/는 연결된다. [ts]의 이러한 연결 제약은 [ts] 다음에 /i,y/가 연결될 때에는 [ts]가 [tʃ]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變異音規則에서 확인된다.

---

14)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辭典>에서는 경구개에서 조음되는 무성유기파찰음은 ч',ч",ч"의 세 문자로 전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序文) 여기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tʃ^h]로 재전사하였다.

한편, 이 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에 [t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中世國語와 일치한다. 中世國語에서는 '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李基文:1972), 子音群 'ㅉ' 다음에 /i,y/가 연결된 예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방언에서는 '찌-'(肥)도 'tʃedu'(찌-어도, 교34)에서 보듯 어두경음화를 경험하지 않아 형태소 내부에서는 [tʃ']의 예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형태소 접합 위치에서는 [tʃ']의 실현을 볼 수 있는데, <敎科書>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tʃ']를 't+tʃ'과 같이 전사하였다고 하였다.(2.1.2 참고.)

šweʤədzini(소젖-은, 회108)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108)
cf. pʰəsisi(버섯-을, 교13,16,35), pʰəsiši(버섯-이, 교13)

따라서 [ts]와 [ʧ]를 音韻論的으로는 각각 /ts/와 /tsy/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음성들은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하며, 音聲的으로 類似하고, 分布가 부분적으로 相補的이므로 이들 음성을 별개의 音素로 설정하는 것은 非經濟的이다. 만약, 경구개 자음을 單位 音素으로 설정하면 이들 음소들 뒤에서 상승 이중모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音素 連結 制約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자음과 이중모음의 연결이 극히 자유스러운 이 방언의 音素排列 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 못 된다. [ʧ]를 /tsy/로 재해석한다면 /ts/ 뒤에 상승 이중모음의 연결은 다른 자음과 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기술할 수 있다. 또한 [ʎ], [ň], [š], [š']와 같은 경구개음을 모두 音素로 설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體系的인 觀點과 經濟性을 고려하여 이들 경구개 자음은 치음 계열 音素의 變異音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치조 마찰음은 다음과 같다.

[s] sadě(등(背), 사110) samɛri(소매-를, 사124)
sana(남편, 사61) sarimuge(사람-에게, 사66)
suk'uŋgi(숫구멍(頂門), 사120)
[s'] s'ao(싸-오(→-의 값이 있다, -에 합당하다), 사35)
s'ari(쌀, 사49, 회241)
s'andagu(사(買)-ㄴ다고, 회359), s'irgi(쓸(掃)-기, 사58)

<會話>에서는 [s], [s'] 이외에 유성음 [z]이 있다고 하였다. <會話>의 편자들은 이 [z]가 유성파찰음 [dz]의 自由變異音이라 하였다.[15]

15) [z]가 [dz]의 自由變異音이라는 사실은 <會話> 외에 Kazan의 다른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다. <敎科書>(序文, x)에서는 "[dz]는 確固不動한 것이 아닌데 이 音聲은 자주 [z]로 실현된다."고 하였고, <初等敎科書>(序文, 13)에서는 'pɛdzɛ'(바자(籬))가 'pɛzɛ'로 발음됨을 지적하고 있다.

경구개에서 조음되는 마찰음은 다음과 같다.

[š] šədɛ(書堂, 회viii) šwe(소(牛), 회246)
šeŋgigi(섬기-기, 교47) šepʰi(다람쥐, 사7)
šimbaramk'un(심부름꾼, 사51) šet'ɛ(혀, 사138)
ašimtʰyɛnitʰa(→고맙습니다, 사89)
šintʰikʰɛɛra(→살펴라, 교50)
[š'] š'əgi(켜-(鋸,点火), 사33) kirš'i(길이(幅), 표3)
š'ɛri(미친 사람, 회xviii) š'üšigi(쑤시기, 사46)

[š]와 [š']도 音韻論的으로는 /sy/와 /s'y/로 해석된다. [s]는 [i]모음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š]로 실현되므로 [š]는 [s]의 條件變異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ʰəsɨsɨ(버섯-을, 교13,16,35), pʰəsiši(버섯-이, 교13)
š'igasɨ(씨앗-을, 사118), š'igaši(씨앗-이, 사118)

2.2.1.1.4 流音

유음은 [r], [l], [ʎ]이 있다. 이들 음성의 분포 환경을 보기로 한다.

[r] kirɨymi(기름-이, 회336) kort'ɛ(고랑, 회xvii)
nirgup(일곱, 회42) kɨmur(그물, 사65,118,17)
[l] allɨn(앓-는, 회135) əllidi(속이-지, 사86)
p'alli(빨리, 회xvi) ollimɛgi(오르막, 회13)
maallɨ(마을-로, 회84) kirəkʰillɛ(그러하기에, 회75)
pʰalla(팔-러, 회358) hɨrgillɨ(흙-으로, 회387)
[ʎ] aʎʎəŋhaňa(안녕하냐?, 교68), oʎʎegadi(올려가지, 교28)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음은 어떤 환경에서나 [r]로 나

타난다. 그리고 舌側音 [l]은 유음이 중첩되는 환경에서만 출현한다. [ʎ]은 口蓋音이다. 음운론적으로 유음은 /r/로 표시된다.

2.2.1.1.5 喉音

후두마찰음 [h]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 위치에서만 분포한다.

[h]	hallare(하루-에, 회232)	hannɛ(하나, 회42)
	hamʤi(함지, 회xiv)	homi(골짜기, 회11)
	harɨmyəŋ(홡-으며, 교26)	hedzɛbirɨ(허수아비-를, 교58)
	hwɛts^{h}ɛllɨ(회초리-로, 교51)	hundyɛ(訓長, 교73)
	hansɛ(황새, 교17)	habundza(혼자, 교46)

지금까지 살펴본 六鎭方言의 音聲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방언의 자음 音素體系를 설정하고 이들을 資質로 明細化하기로 한다.

音素의 설정은 分布와 機能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다. 앞에서 音聲들의 分布 環境을 관찰하면서 어떤 음성들은 그들의 분포가 相補的임을 지적한 바 있다.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두 음성은 의미분화의 시차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音素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배제된 음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最小對立雙을 마련하고 이들이 意味分化의 機能 요소로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음소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 음소들이 지니고 있는 資質들을 明細化할 것이다. 그것은 한 음소는 여러 자질들의 총화라는 생각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 중에서 어떤 자질들이 의미분화에 관여하고 있는 시차적 자질인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또 규칙 설정에서 음의 變動이나 變化는 바로 이러한 資質들의 변동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가본적 사고에서이다.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쌍(minimal pairs)을 통하여 자음 音素 目錄을 작성하기로 한다.

[p]/[p']	puri(불(火), 사84)	p'uri(뿔(角), 사97)
[m]/[p^h]	muri(물(水), 회60)	p^{h}uri(풀(草), 사121)
[n]/[t]	nirɨgi(읽-기, 사92,127)	tirɨgi(지르(搖)-기, 사46)
[t]/[t^h]	tigi(鑄造하다, 사75)	t^{h}igi(치(打)-기, 사16)
[t']/[t]	t'ari(따리(船舵), 사98)	tari(다리(脚), 사68)
[s]/[s']	sari(살(갈퀴의), 사30)	s'ari(쌀(米), 사49)
[ts]/[s]	tsugi-(죽이-, 사34)	sugi-(숙이-, 사44)
[ts]/[ts^h]	tsum(줌(一把), 사20)	ts^{h}um(침(唾液), 사107)
[ts']/[k]	ts'ɨmi(틈(隙), 사136)	kɨmi(금(金), 사38)
[ts^h]/[k]	ts^{h}amɛ(참외, 사29)	kamɛ(가마(釜), 사48)
[ts]/[k^h]	tsɨn(질(泥)-ㄴ, 사55)	k^{h}ɨn(크-ㄴ, 회12)
[k]/[k']	kuri(그네(鞦韆), 사43)	k'uri(꿀(蜜), 사58)
[k]/[k^h]	kɨy(기(旗), 교12rl	k^{h}ɨy (키(身長), 사97)
[k]/[h]	kamʤi(감주(甘酒), 회xiii)	hamʤi(함지, 교70)
[ŋ]/[k]	yaŋ(양(羊), 회51)	yak(약(藥), 사66)

分布와 對立의 觀點에서 音素를 설정하고자 할 때, 齒音과 硬口蓋에서 調音되는 破擦音과 磨擦音의 音聲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ts], [ts'], [ts^h]와 [ʧ], [ʧ^h], [s], [s']와 [š], [š']이 그들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齒音이 [i]모음 앞에서 硬口蓋 子音으로 실현되는 變異音 規則이 존재하고, 치음과 경구개 자음 모두를 단위 音素로 설정하거나 경구개 자음을 音素로 설정하면 경구개 자음 뒤에서만 이중모음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을 두어야 하므로 非體系的이고, 記述에 있어서 非經濟的이므로 /ts/, /ts'/, /ts^h/, /s/, /s'/를 音素로 설정한다.

六鎭方言의 子音音素 目錄은 다음과 같다.

/p/, /p'/, /p^h/, /m/
/t/, /t'/, /t^h/, /n/

/s/, /s'/
/ts/, /ts'/, /tsʰ/, /r/
/k/, /k'/, /kʰ/, /ŋ/
/h/

2.2.1.2 滑音

滑音은 음성학적으로 조음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轉移되는 성질을 갖는 음을 말하는데 [y],[w],[h]이 있다. [y]는 [i]의 위치에서 후속모음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모음 위치에서 [i]의 위치로 轉移되는 음이며, [w]는 [u]의 위치에서 후속모음으로 이동하는 음이다. [h] 역시 조음위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후속모음이 조음되는 위치에서 조음되는 음이다.

따라서 [y, w, h]는 滑音으로 分類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중에서 [h]는 무기음과 통합하여 유기음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음 특성상 활음 목록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나 中和나 口蓋音化와 같은 음운현상에서 자음처럼 행동하므로 자음으로 간주한다.(李秉根, 1977:19)

2.2.1.3 母音音聲과 母音體系

2.2.1.3.1 單母音

Kazan 자료에서 보이는 육진방언의 母音 音聲은 다음과 같다.

i, ü	ɨ	u
e	ə	o
ɛ	a	

이들 모음 음성들의 예와 분포 환경은 다음과 같다.

[i] ik'i(이끼(苔), 사6) ipš'i(음식, 사51)
nimɛ(이마, 사54) tipʰu(짚-을, 회107)
[ü] š'üyšigi(쑤시기, 회ix) yešüni(예순, 회부72, xii)

	nürye(이레(七日), 회227)	üyri(유리, 회xi)
	ümiri(유밀(裸麥), 회143)	wənšüri(원수-를, 사60)
[e]	emi(어미, 사57)	emmɛ(얼마, 회211)
	yəŋge(여기-에, 회80,142)	pek'igi(벗기-기, 회109)
[ɛ]	ɛkki(아우-가, 회165)	ɛgi(아교, 회viii)
	ɛbari(노력, 회viii)	ɛbi(아비, 사26,75, 회161)
	mɛt'ugi(메뚜기, 사113)	nɛguri(연기, 사29)
[ɨ]	ɨŋšigi(應食, 회xii)	ɨni(銀-이, 회xii)
	ɨŋtsʰɛ(매우, 사76)	ɨs'ɨ hao(으스스 하오, 사32)
	tsɨkkɨm(지금, 사64,69)	sɨmur(스물, 사24)
[ə]	əllidi(속이-지, 회86)	əbudzɛgi(고함소리, 사49,97)
	ədirɨ(어디로, 사50)	əši(부모, 교5)
	ədze(어제, 사14)	ərgugi(얼리(氷)-기, 사34)
[a]	asɨ(아우, 사v,5,103)	adzɨbani(숙부, 사30)
	aʤəŋmadaŋ(아침-마다, 교8)	ank'ani(아녀자, 사8,50)
[u]	u-yue(우유-에, 사vii)	uŋdəŋ(웅덩, 사92)
	utʰɨy(웃, 사80)	uʤɛ(농담, 사135)
	uš'uemi (웃수염, 사126)	uullɨ(위-로, 사81)
[o]	obun(온(全), 사85,회133)	oyaŋ(외양, 사129)
	orɛbi(오라비, 사5)	odzomkʰɛ(→膀胱, 사93)
	ori(오리(鴨), 사126)	orkʰi(옳-게, 교10)

위 모음 음성들이 이루는 최소대립쌍을 통해서 모음음소를 확인하고 모음체계를 수립해 보기로 한다.

[i]/[ɛ]	pʰi(피(血), 사49)	pʰɛ(표(票), 사49)
[i]/[a]	himi(힘(力), 사60,104)	hami(함, 사47)
[i]/[ə]	nibun(입(被)-, 사65)	nəbun(넙(廣)-, 사84)
[e]/[ɛ]	ke(게, 사111)	kɛ(개(犬), 사79)

[e]/[o]	k'egi(꿰-기, 사10,92)	k'ogi(꼬-기, 사11)
[e]/[i]	nəe(물개, 사22,121)	nəi(넷, 사132)
[ɛ]/[i]	ɛk'i(아우, 사103)	ik'i(이끼(苔), 사6)
[ɨ]/[o]	tsɨk'i(짖(吠)-기, 사52)	tsok'i(좇-기, 사18)
[ə]/[o]	kəptʃi(껍질, 사73)	koptʃi(고뻬, 사12,81)
[a]/[ə]	sari(살(갈퀴나 바퀴의),사30)	səri(설(元旦), 사89)
[a]/[ɛ]	pa(밧줄, 사9)	pɛ(배(布), 사85,129)
[a]/[ɨ]	s'agi(사(買, 値)-기, 사35)	s'ɨgi(쓰(書)-기, 사79)
[a]/[o]	pami(밤(夜), 사69)	pomi(봄(春), 사10)
[a]/[o]	karɛ(가래(楸), 회viii)	korɛ(고래(鯨), 사22)
[a]/[u]	mari(말(斗), 사61)	muri(물(水), 사65,68)
[o]/[a]	tsomi(좀벌레, 사60)	tsami(잠(眠), 사35)
[o]/[i]	kori(머리, 골, 사19)	kiri(길(路), 회5)
[o]/[ɛ]	mogi(목(頸), 사135)	mɛgi(맥(脈), 사60)
[o]/[u]	kobi(곱(脂), 사100)	kubi(밑(底), 사26)
	sori(솔(刷), 사136)	suri(숟(匙), 사55)
[u]/[ə]	suri(독수리, 사73)	səri(서리(霜), 사41)
[u]/[o]	sugi(쑥(蓬), 사55)	sogi(속(內, 사7)

앞서 제시한 육진방언의 모음음성과 위의 최소대립쌍을 토대로 육진방언의 모음 음소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前舌高母音 [ü]의 音素 설정에필요한 최소대립쌍은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ü]는 그 分布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앞서 모음 음성에서 [ü]의 예로 든 바 있는 'š'üšigi', 'wənšüri'는 硬口蓋 子音 [š'], [š] 뒤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들 경구개 자음은 /s'y/, /sy/로 재음소화하였으므로 [ü]는 음운론적으로는 /y/ 뒤에서만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nürye, ümiri, üyri'는 위 예와는 달리 [ü]가 非硬口蓋 子音 혹은 어두 위치에 분포한다.[16] 그러나 이들 예와 최소대립쌍을 이룰

16) 통시적으로 이들 예는 [yü]>[ü]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즉,

수 있는 짝은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ü]는 그 분포가 편재되어 있고, 최소대립쌍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음운 단위로 설정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필자는 [ü]가 이중모음 /uy/로부터의 통시적인 발달이라는 정보를 고려하고 [uy]와 相補的 分布를 이룬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uy/의 변이음으로 처리한다. [ü]를 /uy/의 변이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ü/→[uy]보다는 /uy/→[ü]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17)]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육진방언의 모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	/ɨ/	/u/
/e/	/ə/	/o/
/ɛ/	/a/	

2.2.1.3.2 二重母音

2.2.1.3.2.1 y系 二重母音

六鎭方言의 y계 이중모음은 타방언의 그것에 비해 다양하고 또 선

---

yumiri > yümiri(움라우트)> ümiri(/y/탈락)
yuri > yüri(움라우트) > üri > üyri

/uy/의 어간 모음 /u/가 움라우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선행하는 활음 /y/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3.2를 참고.

17) 이렇게 [ü]를 /uy/로 재음소화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單母音을 이중모음으로 재음소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움라우트 현상의 경우, 'maʤűi'는 음성적으로 경구개 자음 [ʤ] 뒤에서 피동화주 /u/가 [ü]로 움라우트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통시적으로 [ü]는 비어두 위치에서는 'ü>i'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예, kotʃʰi(고추)) 이러한 문제들은 공시와 통시의 구분 또는 音素의 設定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필자는 음소 설정을 機能的 혹은 分布의 관점에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ü]를 /uy/로 재음소화한다.

행 자음과의 통합도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上昇 二重母音은 /ya/, /yə/, /yɛ/, /yo/, /yu/, /ye/의 여섯으로, 고모음 /i, ɨ/를 핵모음으로 하는 上昇 二重母音은 존재하지 않는다. /yi/는 體系的인 空白(systematic gap)이고 /yɨ/는 偶然한 空白(accidental gap)이다. 下降 二重母音은 /ɨy/, /uy/만이 존재한다. 육진방언의 상승 이중모음은 자음과의 연결이 자유롭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출전은 생략)

	/ya/	/yə/	/yɛ/
--	/yatɨrp/(여덟)	/yəsɨ/(여우)	/yɛki/(藥)
/m/	——	/myəŋti/(명주)	——
/p/	/pyaŋuri/(병아리)	/pyərɨki/(벼룩)	/pyɛnsye/(餞)
/p^h/	——	/p^hyəkkɛ/(도시락)	——
/p'/	/p'yam/(뼘(把長))	/p'yə/(뼈)	/p'yɛmi/(뺨)
/n/	/nyaŋpani/(兩班)	/nyəp^hari/(옆(側))	/nyɛɛki/(이야기)
/t/	/tyarɨ-/(짧다)	/tyəŋke/(저기에)	/tyɛŋi/(市場, 張)
/t^h/	/yesyaŋt^hyank^hi/ (豫想치 않게)	/t^hyənɛ/(天下)	/tyot^hyɛnio/(좋지 않소)
/t'/	——	/t'yəəsa/(찧-어야)	/ət'yɛsyə(어쩨서)
/ts/	/tsyarɨki/(斷)	/tsyəksɛmi/(衫)	/kotsyɛ/(宦)
/ts^h/	/ts^hyaŋatse/(갈퀴)	/ts^hyərp^hir/(펜)	/ts^hyɛk'i/(着錮)
/r/	/mekɨryarɨ/(먹이-게)	/moryək/(말갈기)	/amuryɛdu/(아무래도)
/s/	/syaŋnyən/(작년)	/syəŋnyuwɛ/(성냥)	/syeŋi/(城)
/s'/	/s'yaatsɛ/(斜視人)	/s'yəgi/(켜-(鋸,火)	/s'yɛri/(狂人)
/k/	/kyɛɛtsip/(기와집)	/kyəŋsim/(점심)	——
/k^h/	——	——	——
/k'/	——	——	——
/h/	——	(/hyəŋi/)	——

	/yo/	/yu/	/ye/
--	/yoktʃir(욕질)	/yumiri/(裸麥)	/yesyu/(예수)

/m/	/myokɛpi/(모사꾼)	——	/myeŋnyən/(명년)
/p/	——	——	/pyekɛ/(베개)
/p^h/	/p^hyo/(표)	——	/nep^hyeni/(여편네)
/p'/	/p'yotsok/(뾰족)	——	/p'yetɛ/(뼈대)
/n/	/nyoŋkuni/(농부)	/nyuksik/(肉食)	/nyeryəm/(여염)
/t/	/tyotsyəm/(공장)	/tyusyək/(朱錫)	/tyentʃɛ/(불모)
/t^h/	——	/t^hyuŋsin/(忠臣)	/t^hyetsɛ/(紙錢)
/t'/	——	——	——
/ts/	/tsyoŋe/(종이)	/tsyuk/(粥)	/tsyepi/(제비)
/ts^h/	/ts^hyo/(초)	/ts^hyutor/(주춧돌)	/ts^hye/(妻)
/r/	——	/hwaryuŋsyən/(화륜선)	/nürye/(이레)
/s /	/syosik/(소식)	/syupɛgi/(수박)	/syep^hi/(다람쥐)
/s'/	——	/us'yuemi/(웃수염)	——
/k/	/kyotsa/(轎子)	——	/kyetsip/(계집)
/k^h/	——	——	——
/k'/	——	——	——
/h/	——	(/hyuŋnyəni/(흉년))	——

(빈칸은 해당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표시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음과 이중모음의 연결은 다른 방언에 비하여 제약이 적다. /h/ 다음의 이중모음 연결은 <露韓小辭典>의 韓氏 방언의 漢字語에서만 가능하다. <露韓會話>를 비롯한 다른 Kazan 자료의 한국어 육진방언에서는 h-구개음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h/ 다음에는 이중모음의 연결이 있을 수 없다. 이 외에 양순음과 연구개 자음하에서 이중모음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위 자료는 Kazan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자료가 더 확보된다면 위 빈칸은 줄어들 것이다.

한편, y系 下降 二重母音은 다음과 같다.

	/ɨy/	/uy/
--	/ɨywəni/(의원)	/uytɛ/(위대(偉大))
/m/	/mɨynməri/(대머리)	———
/p/	/pɨy/(비(箒)	———
/pʰ/	/syarpʰɨy/(녹도리)	———
/p'/	———	———
/n/	/nyənɨy/(魚名)	/nuygi/(누구)
/t/	/tɨtɨyki/(디디-기)	/tuy/(뒤(後))
/tʰ/	/utʰɨy/(옷(衣))	/matʰuy/(만두(饅頭))
/t'/	/t'ɨy/(띠(帶))	/t''uy-/(뛰(躍)-)
/ts/	/satsɨy/(사자(獅))	/tsuy-/(쥐(握)-)
/tsʰ/	/tsʰɨyugi/(치우-(除))	/samtsʰuy/(샘(泉))
/ts'/	/irts'ɨygi/(일찍이)	/p'arts'uy/(박쥐)
/r/	/irɨymi/(이름)	———
/s/	/sɨyna/(사내(男))	/suyn/(쉰(五十))
/s'/	/s'ɨydyɛninda/(쓰지 않는다)	———
/k/	/kɨyki/(기(匐)-기)	/kuy/(귀(耳))
/kʰ/	/kʰɨy/(키(身長))	/pakʰuy/(바퀴)
/k'/	———	/sik'uy/(식구)
/h/	/hɨynt'ək/(흰떡)	/tsihuyhaki/(지휘하기)

下降 二重母音 역시 선행자음과의 통합이 자유롭다. 다만, /uy/는 脣子音下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位置에서 /uy/가 非圓脣化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생긴 體系的인 空白이다.

2.2.1.3.2.2 w-系 二重母音

w-계 이중모음과 그 例는 다음과 같다.

/we/; ʧweni(주인-이, 회91) ʧwenɨ(주인-의, 회233)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108)
šwe-gyẽ(소경(盲人), 사107)
/wɛ/; wɛgari(왜가리, 교9), wɛugi(외우(誦)-기,사133)
/wə/; wəndɨygwa(완두-와, 교40), wənsiŋ(원숭이, 교46)
/wa/; wãi(王-이, 교61), wassukkuma(왔습니다, 교74)

이들 이중모음 중에서 [we]는 [ʧ, š]과 같은 硬口蓋 子音하에서만 나타나는 分布 制約을 갖고 있다. [ʧ, š]는 음운론적으로 /tsy, sy/로 표시되므로 [ʧweni]의 音韻表示는 /tsyweni/가 된다. 따라서 /we/는 독자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언제나 활음 /y/ 뒤에서만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음운론적으로는 두 활음 /y/와 /w/가 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滑音의 繼起的 連結은 매우 不自然스러운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w/는 음성적으로 매우 약화된 음으로 실현되었다.[18] 반면 /-wyV-/의 활음 연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2.2.1.3.3 三重母音

앞서 [ü]를 /uy/로 경구개 자음을 /Cy/로 再音素化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들은 음운론적으로는 三重母音이다.

[š'üšigi](쑤시-기)→/s'yuysiki/ [wənšü](원수(怨讐))→/wənsyuy/
[yešüni](예순)→/yesyuyni/ [ʧinʤü](眞珠)→/tsintsyuy/

18) <露韓會話>의 序文(vi)에는 'yɔ'([=^{w}e])의 'y'가 이 문자 뒤의 모음에 약간의 영향을 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음'(pochti ne slyshno)이라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 이중모음을 가진 단어는 오직 2 例만이 보일 뿐이다. 例) š^{w}edəri(소(牛)-들-을, 회48) š^{w}e kogirɨ(쇠고기-를, 회246, 269)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56, 329) 등이다. 그러나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108)처럼 [we]로 전사된 예도 보인다. <露韓小辭典>에도 위 예는 모두 약화음으로 전사되어 있다.

2.2.1.4 資質分類

지금까지 작성한 음소목록을 자질로 명세하면 다음과 같다.[19]

	p	p'	pʰ	t	t'	tʰ	ts	ts'	tsʰ	k	k'	kʰ	s	s'	m	n	ŋ	r	h	w	y	i	e	ɛ	ɨ	ə	a	u	o
vo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ri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s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lo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ig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abi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韻律素와 韻素體系

2.2.2.1 六鎭方言의 악센트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은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었다. <敎科書>, <辭典>에서는 韓國語가 accent를 가진 言語이고 이 악센트가 어사의 意味 辨別에 관여하는 示差的 要素임을 認識하였다. 그리하여 <敎科書>의 序文은 아래의 對立雙들이 악센트에 의해서 의미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Predislovie, xi-xiii)

mári(言),	marí(馬)	s'ári(米),	s'arí(싸리나무)
tári(月),	tarí(脚,橋)	kákki(如),	kakkí(깎(削)-기)

19) 圓脣性 資質은 [round] 대신에 [labial]이란 자질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소강춘(1983), 최태영(1983)을 참고.

šíkki(載),	šikkí(食器)	hɨ́ygi(白),	hɨygí(泳)
nórgi(遊),	norgí(獐)	kúri(窟),	kurí(銅)
tsúkki(拾),	tsukkí(死)		

그리고 <教科書>보다 2년 후에 편찬된 <會話>, <單語와 表現>, <辭典>의 한국어에는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어 있다. 특히 <辭典>의 서문에는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편찬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두었음을 사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Predislovie. xiv-xv) 그와 같은 관심은 한국어의 악센트가 의미변별의 기능적 단위 요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20] <辭典>의 편찬자들은 한국어의 악센트가 환경에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 책에서의 한국어 악센트는 주위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관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語基와 語基가 결합되어 複合語를 형성할 때에, 이동되는 악센트를 전사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한국어 복합어를 분석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사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어 있는 음절은 high pitch로 이해하고, 그 음절모음에는 [+high]의 자질을 부여하고 무표지 음절은 [-high]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 [+high] 자질은 다음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변별의 機能的 單位이므로 육진방언의 韻素가 된다.[21]

kóbi(脂, 사100),	kobí(倍, 회240)
kúri(그네, 사43)	kurí(銅, 사61)
kúbi(底, 사26)	kubí(炙, 사3)
mári(言,斗, 사5,사61)	marí(馬, 부73)

20)<會話>, <辭典>과 같은 해(1904년)에 Sankt-Petersburg에서 출판된 *Razvedhiku v Koree*에는 한국의 北部와 南部方言이 採錄되어 있고, 여기에도 該方言의 악센트가 轉寫되어 있다.

21)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인식한 육진방언의 악센트에 대해서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múri(水, 사60,64,71) muri(群, 사111)
p'úri(角, 회xvi) p'urí(根, 사47)
s'ági(圈,値, 사50,사35) s'agí(買, 사50)
tírgi(入, 사35) tirgí(擧, 사83)
káʤi(枝, 사116) kaʤí(種, 사110)

2.2.2.2 長音

<敎科書>, <會話>, <辭典>에서는 長音도 전사에 반영하였다. 長音은 아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모음을 중복 표기함으로서 나타내었다.

(1). suurina(술(酒)-이나, 회99,100), suuri(술-이,회100,316)
suurɨ(술-을, 회90), suur,i(술, 사5,xiv)
tuuri(둘(二), 회200), tuuri(사89), tuur,i(사24)
tuurbakke(둘-밖에, 회70)
maame(마음-에, 회209), maam,i(사29,67,105-6)
kyəəri(겨울, 사38), tsiim,i(끝(際), 경계, 사46)
nɛɛri(내일, 사33), peegi(베(割)-기, 사98,114)
t'ɛɛr(때(炊)-ㄹ, 회76), t'ɛɛgi(때-기, 사121)
t'ɛɛmu(땜-을, 사34)
kirhɛɛni(行人, 사70)
(2). hɛɛn,i(下人, 사106-7), sɛɛgi(처녀, 회200,사66)
kɛɛmi(개암(榛), 회xvi), nyɛɛgi(이야기, 사91,96,104)
mɛɛʤi(망아지, 사31), kɛɛʤi(강아지, 회xiv,사136)
tyeer(제일(第一), 사60), pədir kɛɛʤi(버들강아지, 사9)
šuun,i(水銀, 사98), seemi(시어미, 회198)
(3). moo nəmə(墓-를 넘어, 사132), tuuru(뒤-로, 사32,63)
uullɨ(위(上)-로, 사81)
t'yəəsa(찧-어야, 회143), ʧiin(짓(作)-은, 회365)

s'aan (쌓-은, 회387), šeesso(세(算)-었소, 회292)

(4). hiŋdzɨgɨree hange(柔弱한, 사31), hiŋdzɨgɨree hagi(사33)

naaraŋ(천천히, 회433), noormyəŋ(천천히, 회187)

məərgən nat sɛgi(멀건 낯색-이, 사4)

kamaani (가만히, 사124), cf. kamani(회128)

kadzuraani (가지런히, 사99)

tyaam-dyam-han(캄캄한, 사57)

tyaaŋdzɨ(항상, 사24), cf. tyaŋdz(교9)

uts^{h}uuk^{h}i(우둔하-게, 사18), uts^{h}uu hange(우둔한-것이,사18)

(1)은 통시적으로 語中子音의 탈락 이후에 후행모음이 선행모음에 동화된 어사들를 보인 것이고, (2)는 인접 모음에 의한 同化 또는 縮約에 의하여 장음화한 예이다. (3)은 격어미 '-i', '-iri' 혹은 활용어미들이 어간에 통합되면서 이루어진 長音化의 예이다. 長音이 예견되는 中世國語의 上聲 어간의 반사형들은 모두 악센트를 가진 短音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4)의 예들은 수식어에서 보여지는 장음의 예로서 표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表現的 資質(expressive feature)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질은 意味分化의 적극적인 機能을 지니지 못하므로 韻素目錄에는 들 수 없다.[22]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는 意味 分化에 관여할 수 있는 音長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長短에 의하여 意味 分化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

22) 長音을 동반하는 低長調, 上昇調 및 下降調가 있다. 이들은 非示差的인 音調이다. 이들 例는 5章 pp.348-350을 참고할 것.

第 3章　共時音韻論

3.1 母音調和

母音調和의 한 遺形으로 남아 있는 六鎭方言에서의 副詞形 語尾 '-아/어' 交替는 어간 모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간 내에는 모음들의 계기적인 질서를 규제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시 형태소 경계에서의 '-아/어' 交替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

이 음운현상에 대한 논의의 주안점은 '-아/어'의 교체가 어간 모음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것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를 음미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아/어'의 交替가 어간형태소의 모음에 따라 어떻게 交替되는가를 살펴보고, 이 交替가 어떠한 機制下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간을 음절수로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모음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공시적으로 '-아/어' 교체의

---

1) 母音調化에 대한 이론과 현상에 대한 문제는 李崇寧(1947), 李基文(1968), 金完鎭(1963,1971,1978), 李秉根(1976) 崔明玉(1982) 등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비교언어학 또는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현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들 논의의 핵심이었다.

기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작업이다. 즉 '-아/어' 교체가 궁극적으로 모음 상호간의 동화이고, 이 동화를 지배하는 힘은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의 계기적인 모음 연결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어간모음이 1음절인 경우, 어간 모음에 따라 어미 '-아/어'가 어떻게 교체되는지 보기로 한다.

(1) 語幹 母音이 /i/인 경우.
t'igə mək'ɛtta(찍-어 먹겠다, 교43)
ʧʰibə(칩(寒)-어, 교55), kipʰə(깊-어, 사68)
mitsʰə(및(及)-어, 교68), šipʰə hagi(싶-어 하기, 사3)
ʧibə tədigi(집(執)-어 던지기, 사101)
širəda tsugi(실(載)-어다 주기, 사101)

(2) 어간 모음이 /e/인 경우.
k'ee nagagi(꿰-어, 사15,21), k'e kənne(꿰-뚫어 건너, 사105)
see=dyesso(세-어졌소(→값이 비싸졌소), 회240)
mee-nɛtʰigi(메-어 내치다, 사21), mee kagi(메-어 가기, 사86)

(3) 어간 모음이 /ɨ/인 경우.
nɨbə tsanɨn(늡(臥)-어 자는, 사52,84), nidzə(늦-어, 사84)
kɨsə nyəkʰi, kɨsəšə(긋(引)-어 넣-기(→끌어 넣다), 사14, 교39)
tɨrəra(들(入)-어라, 교23)
s'agɨ tɨrəsso(들(入)-었소(→품삯에 고용되다), 회235)
nɨrgəšə(늙-었어, 교13)

(4) 어간 모음이 /ə/인 경우.
ədə(얻(得)-어, 회137), ədəsa(얻-어야, 회158)
kərəšə(걸(步)-었어, 교18), kərəra(걸-어라, 회26,87,363)
hərəšə(헐(毁)-었어, 교55), nəmə(넘(越)-어, 사132)
mərəs'o(멀(遠)-었소, 사74), k'ək'əšina(꺾-었으나, 사68)
nyəəra(넣(入)-어라, 회440), məgəra(먹-어라, 회90)

(5) 어간모음이 /u/인 경우.

kubəsso(굽(曲)-었오, 교7),

urə, urəšə(울(泣)-어, 울-었어, 사137)

murə tsuuri(물(償)-어 줄 것이오, 회139,359, 사66)

tsugək'ɛs'o(죽-었겠소, 사viii)

turə kadi(돌-아가지(迂廻), 회383-5, 427)

p'urə(불(增)-어, 사10), cf. p'ukki(붇-기, 회xvi)

purbə hagi(붊(羨)-어,→부러워 하기, 사33)

(6) 어간모음이 /ɛ/인 경우.

mɛtsara(맺(紐)-아라, PU.179)

mɛbasə(맵(辛)-아서, 小倉進平:1944, p.359)

nɛɛ tedigi(내(出)-아 던지기, 사15), nɛɛ šeugi(내 세우기, 사33)

(7) 어간모음이 /a/인 경우.

nasak'ɛšə(낫(好)-았겠어, 교16), nasa kagi(나아가다(進), 사83)

marasa s'ɨgɛtta(말(勿)-아야 되겠다, 교17)

tara kagi(닫(走)-아 가기(→달려가기), 사81,82,124)

tara kaʤagu(닫(走)-아 가자고(→달려 가자고), 교54)

tʰara(탈-아(→실타레에 실을 감다), 사35)

cf. tʰargi(탈-기(→실-을 감기), 사35)

tsaba(잡(捕)-아, 교16, 20), saradu(살(生)-아도, 회198)

padannɨragu(받(受)-았노라고, 회293)

andzana(앉-아서나, 사15), andzas'o(앉-았소, 사54)

parɣadyešə(밝-아졌어, 교68), parɣašə(밝-았어, 교11)

(8) 어간모음이 /o/인 경우.

toba tsugi(돕(協)-아 주기, 사36), koba(곱(麗)-아, 교44)

tora kagi(돌아가기(歸), 사9), s'odašə(쏟(覆)-았어, 교62)

tyoa hanɨn(좋(好)-아 하는, 사9), para(보(視)-아라, 회101)

k'wa=digi(꼬(捻絲)-아지기, 사11), cf. k'ogi (사11)

(1-8)을 통하여 어간모음이 /a, o, ɛ/일 때에는 '-아'로, /i, e, ɨ, ə, u/일 때에는 '-어'로 交替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單音節 語幹인 경우에는 語幹 母音이 어떠한 部類인가에 따라서 '-아' 혹은 '-어'가 규칙적으로 선택되므로, 이들 어미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워진 이형태들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어간 모음들이 '-아/어'의 교체를 선택적으로 지배하는 형태음소론적 현상이다. 이를 모음체계와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ɨ	u
e	ə	o
ɛ	a	

[구조적 체계]

-ə	i ɨ e ə u
-a	ɛ a o

[조화적 체계]

이와 같이 '-아/어' 交替에 있어서 構造的 體系와 調和的 體系(李基文:1968)사이에는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어'를 선택적으로 지배하는 어간 모음들의 부류들이 체계상 自然部類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斜線 軸에 의하여 모음 부류들이 나뉘지만 이들 모음들의 부류는 音韻 資質로 묶이지 않는다.

다음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의 '-아/어' 교체 모습을 보기로 한다. 多音節語幹의 '-아/어' 교체는 單音節 語幹과는 달리 그 實現 樣相이 단순하지 않다. 語幹의 構造와 그에 따른 '-아/어'의 교체를 살펴보면서, 이 교체가 어떠한 내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고려하여 /a, o, ɛ/는 전통적인 용어를 써서 '양성모음'이라 하고 'M'으로써, /i, e, ə, ɨ, u/는 '음성모음'이라 하고 'F'로써 표시한다.2)

2)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는 술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계적 관점 또는 음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정 부류의 모음들이 특정 어미를 선별적으로 지배 한다는 점 때문에 그 부류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9) M + M[3)]

karɛšə(가래(選)-았어(→가리다), 교47), cf. karɛgi(사15,95)

t'aɣabašə(따갑-았어(→뜨겁다), 교24)

(10) F + F

putturəsso(붙들-었오, 교62), putturətta(붙들-었다, 교28)

kiburə tɛŋgigi(구르(轉)-어 다니다, 사7), cf. kiburgi(사7)

ʧəmurə(저물(昏)-어, 회311), hindirəšə(흔들-었어, 교65)

(9-10)의 예들은 어간 모음이 모두 'M'(양성모음)일 때에는 '-아'가, 'F'(음성모음)일 때에는 '-어'가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1-8)의 예들과 교체 방식이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1)에서 모음 /i/는 음성모음들처럼 '-어'를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中立母音이라 불리워 온 /i/ 모음은 그 자신이 위치한 음절이 語頭(혹은 語中)인가 아니면 語末인가에 따라서 달리 행동한다. /i/가 다음절 어간모음 중의 하나일 때 '-아/어'의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 /i/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11) M + i

anye(아니-어, 교30,43), kot^{h}ye(고치-어, 회157)

kaʤə kagi(가지-어, 사27,41), cf. kaʤigu(가지고, 사10,43,68)

tɛryə ogi(데리-어 오기, 사90), tɛryeda tagu(데려다 다오, 회31)

tɛŋgyešə(댕기(行)-었어, 교16,27)

nɛryə(내리-어, 사90), naryə(내리-어, 사108)

modirədigi(모딜-어지기(→살찌다), 사85), cf. modin(살찐, 사121)

---

3) (9)의 예가 어간 모음 /ɛ/에 '-아'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karɛšə'는 '-어'가 연결되어도 동일한 어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t'aɣabašə'는 例 (27)에서 보게 되겠지만 語幹末 子音이 /p/인 경우는 언제나 '-아'만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어간 구조에 맞는 형태소에는 '깨닫-'가 있는데, 필자가 직접 조사한 慶興方言에서는 이 어사가 '-아'를 취하였다.

tsʰɛryə nibun(차리-어 입은, 사64)
targyəs'o(달리(掛)-었소, 사26), cf. targigi(달리-기, 사26).

(12) F + i
p'uryə(뿌리-어, 사75)
p'ek'yə(벗기-어, 사134), cf. p'ek'igi(벗기-기, 사75)
tyedyešə(던지-었어), 교19), tyedyesso(던지-었오, 교37)
tɨk'ye(들리(被聞)-어, 교21)
megyera(먹이-어라, 회115)
kərgyə ik'i(걸리(掛)-어 있기, 사11), cf. kərgigi(걸리-기, 사14)

(13) i + i
kitʰyə tugi(기티(遺)-어(→남기어), 사74), cf. kitʰigi(사74)
tiryə(드리-어, 회ix), tirye (회126), cf. tirigi(사11)
tikʰyešə(지키-었어, 교58), cf. tikʰigi(사112, 회154)

(14) i + M
kina(지나-아, 사58), kina kark'a(지나-아 갈까, 회217-8)

(15) i + F
kip'ə hagi(기쁘-어, 사70,95), cf. kip'un(기쁜, 사95)
ik'ɨrə(이끌-어, 교71)

(11-15)는 두 모음 중 하나가 /i/일 때의 '-아/어' 교체를 보인 것인데, /i/가 제 1음절 위치에 있을 때에는 '-아/어' 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末母音이 'M'이면 '-아'로, 'F'이면 '-어'로 교체된다. 반면에 /i/가 말모음일 때에는 제 1음절 모음이 'M'이건 'F'이건 '-어'로 교체된다. 이것은 /i/가 어말 위치에서는 음성모음으로 행동하지만, 비어말 위치에서는 이 교체에 대하여 非關與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서 'MMi', 'FFi'와 같이 어간말모음이 /i/인 3음절 어사들에 있어서의 '-아/어' 교체를 검토하기로 한다.

(16) M + M + i

ʧappadyešə(자빠지-었어, 교8), cf. ʧap'adigi(자빠지-기, 사76)

(17) F + F + i

tuduryešə(두드리-었어, 교20,23), cf. tuduridi(두드리-지, 사32)

(16-17)은 어간말 모음이 /i/이면, 선행모음이 어떤 부류의 모음들이건 관계없이 '-어'로 교체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의 'Mi', 'Fi'의 어간구조와 동일한 교체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간모음이 어떤 부류의 모음들로 이루어졌든, 그 어간말 모음이 /i/일 때에는 '-어'로 교체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아/어' 교체를 지배하는 어간 내의 모음이 어두 음절 모음이라고 한다면, 위 환경에서의 모음 /i/는 調和力을 沮止시키는 妨害者(blocker)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말하면 '-아/어'의 교체는 어간의 말모음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 예들을 검토해 보면 곧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例 (18-19)는 어간 모음이 'MF, FF'인 예들이다. 이와 같이 어간모음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構成되어 있을 때의 '-아/어'교체는 어떠한가를 보기로 한다.[4)]

(18) M + F

a. M + u, ɨ

katsʰwa(갖추-아, 회95,97), 갖추오/갖춘다/갖촤라(PU.529)

cf. katsʰugi(갖추-기, 사78), katsʰugu(갖추-고, 교58)

---

4) 'FM' 유형의 어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形態素構造制約은 선행 시기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의 母音連結制約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이 방언도 선행시기에는 중세국어에서처럼 형태소 내부에서는 엄격한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MSC가 과거의 MSR을 재구할 수 있는 內的根據가 되는 예이다.

mollašə(모르-왔어, 교13,26), cf. morunda(모른다, 교41,44)
moda nosso(모두(集)-아 놓소, 회120)
modašə(모두-왔어,교20)
cf. moduo(모으-오, 회138), modugi(모으-기, 사108)
noŋgwašə (농구-왔어(→나누-었어), 교25)
cf. noŋgugi(나누-기, 사30), noŋgumyəŋ(나누-으며, 교16)
pakkwa(바꾸-아, 교63), cf. pak'ugi(바꾸-기, 사78)
pɛwara(보이-아라, 회442)
cf. pɛumni(보입니다, 회402), pɛugi(보이-기, 사84)
totʰašə(도투-왔어(→다투었어), 교32,41,16)
cf. totʰumi(다툼-이, 사111, 교42), totʰudyanikʰu(교52)
tʰɛwana(태우(乘)-아나(→태우거나), 사43), cf. tʰɛugi(사31)
tsʰɛwa kadʒigu(채우(滿)-아 가지고, 교16)
masadinin(마스(碎)-아지는(→부서지다), 사122)
masa nokʰu(교59), masa noaňňa(교66), cf. masɨgi(사65,95)

b. mɛndɨrašə(만들-었어, 교16,58)
mɛndɨrəšə(만들-었어, 교31,38), mɛndɨrəsa(만들-어야, 교56)

c. M + gu(파생접사)
t'argwa kanin(딸구-아 가는(→쫓아가는), 사82)
cf. t'argugi(쫓-기, 사18), t'arguašə(쫓아냈어, 교46)
sargwa tallagu(살구-아(→살려 달라고), 교37)
cf. sargugi(살리-기, 사96,110)
torgwa(돌구-아(→돌리어), 사73)
p'uru mɛua(뿔-을 매-어, 교71)

(19) F + u

a. turtsʰə pogira(들추-어 보기를, 교42, 회121)
cf. turtsʰugi(들추-기, 표18)
uppə(우뿌-어(→우스워), 교93,35)
cf. up'ugi(우습-기, 교5), up'unge(우스운 것이, 교7)

t'ɨywəšə(띄우-었어, 교34)

šewə nok^{h}u(세우-어 놓고, 교65)

b. F + gu(파생접사)

t'ərgwə tugi(떨구-어 두기, 사74), t'ərguəšə(교46)

cf. t'ərgugi(떨어뜨리기, 남겨두기, 사97)

tewəšə(데우-었어, 교24)

例 (18)은 MF 유형의 어간들이다. 즉, 제 1음절 모음은 양성모음이고 제 2음절 모음은 음성모음 /ɨ, u/이다. (19)는 음성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어간으로 (10)과 같은 유형이지만 (18)과의 대비를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18-19)는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들의 '-아/어' 교체가 제 1음절 모음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8)의 어사들에 있어서의 비어두음절 위치의 /u/와 /ɨ/는 '-아/어'교체에 있어서 非關與的이라 할 수 있다. (1-17)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음절 위치에서는 /ɨ, u/가 同化의 主體로서 음성모음으로 機能하고 非語頭 音節 위치에서는 非關與的이다. (1-17)의 예들은 어간말 모음에 따라서 '-아/어'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18)의 예들은 어두 위치의 모음에 의하여 어미가 선택되므로 '語幹末 母音에 의하여 交替된다'고 하기보다는 '語頭 위치의 母音에 따라서 交替된다'고 기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b)에서 본 바와 같이 '만들-'는 '-아/어' 교체가 수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단일 형태소이든, 派生語이든 어간말 자음이 없는 開音節 語幹들이 필수적으로 '-아'만을 취한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이는 語幹末子音이 調和力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교체어미 '-아'가 점차 '-어'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3음절 어간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5]

---

5) 이 예들은 중앙어에서,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ㆍ>으', '오>우'의 통시적 변화를 경험한 어사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방언에서도 중앙어와 동일한 모음조화 규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규칙이 'ㆍ>으', '오>우'와 같은 음운변화로 위와 같은 모음 교체가 결과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

그런데 다음 (20~25)類型 語幹의 '-아/어' 교체 양상은 자못 복잡하다.

(20) M + i + u

a. kartʃʰiwara(가르치우(教)-아라, 교32)

cf. kartʃʰiugi(갈치우다, 회부65)

a′ kartʃʰiwəra(가르치우(指)-어라, 회106,206)

kartʃʰiwənnya(가르치우(教)-었냐, 교74)

kartʃʰiwə tsuma(가르치우(指)-어 주마, 교47)

b. nɛriwa ponɛgi(내리우(降)-아 보내다. 사111)

cf. nɛriugi(내리우다, 사108)

nɛriwa nokʰu(내리우-아 놓고, 교54,28)

pɛwara(보이우-아라, 회442)[6]

cf. pɛumni(보입니다, 회402), pɛugi(보이기, 사11,84)

c. tatʰiwə sorina(다티우-어(→건드려 소리나다), 교57)

k'argiwəssumni(깔기우-었(→깔리었읍니다), 회74)

cf. k'argiugi (깔기우다, 부75)

t'argiwə kašə(딸기우-어(→쫓기어 갔어), 교45)

tɛkkiwəšə(닫기(閉)-었어(→닫히었어), 교62)

(21) F + i + u

a. tərgiwə kagillɛ(덜기우-어(→덜거덕거리어), 교41)

b. tepʰiwəssumni(덮히-었읍니다, 회9)

cf. tepʰiugi(덮히우다, 회부65)

한 사실들로부터 음운체계는 변화하였지만 모음조화라는 형태음소론적 교체는 여전히 과거의 기제 속에 묶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시적인 이러한 교체는 지역 방언이 경험한 음운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端緖가 된다. 즉 선행시기 이 방언의 모음조화나 모음체계를 재구할 수 있는 내적 증거가 된다. 이 문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6) 이 어사가 <教科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öwašə(보이-았어, 교24,13,49)

nöwakkədən(놓이-었거든, 교21), nöwašə(놓였어, 교64)

šewə nokʰu(세우-어 놓고, 교65)
s'ɨrgiwə kagillɛ(쓸리-어 가길래, 교67)

(22) F + ɨy + u
mudɨywəs'o(무듸(鈍)-어, 사70), cf. mudɨyn(사123)
titʰɨywə nokʰi(드틔-어 놓기(→발을 디디다), 사102)
cf. titʰɨyugi(드틔우다, 사24)

(23) M + ɨy + u : 해당 어간 없음.

(24) i + F + u
kidɨrgwə(기들구-어(→기다리다), 사10)
ʧidurguəšə(기들구-었어, 교62), cf. kidurgugi(사82)

(25) i + M + u : 해당 어간 없음[7)]

3음절 어간에서의 '-아/어' 交替는 (20-25)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들 어간은 語基에 파생접사 '-우-' 혹은 '-이우-'가 접미된 것들이다. 語頭 音節 母音이 'F' 또는 'i'인 (21), (22), (24)의 語幹 構造에서는 例外없이 '-어'로 교체되지만, 제1음절 모음이 'M'인 (20)과 같은 語幹 構造에서는 응당 '-아'로 교체될 것이 기대되지만 결과는 수의적이다.

(20)에 속한 어간들의 '-아/어' 교체를 살펴보면, (20a)는 동일 어사임에도 교체가 수의적이며(숫적으로는 '-어'가 우세한데, 이러한 현상은 앞서의 'mɛndɨrašə, 'mɛndɨrəšə도 동일), (20b)는 '-아'로 교체되었음에 반해 (20c)는 '-어'로 교체되었다. (20b)를 고려하면 일단 非語頭音節의 /i/와 /u/는 '-아/어' 교체에 있어서 非關與的이라 할 수 있고, '-아'로의 교체는 語頭音節 /ɛ/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b)와 동일한 부류의 어간 모음들로 구성된 (20c)는 기대되는 '-아'가 아

7) (23), (25)유형의 어간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23)은 이 방언에서는 歷史的으로 이러한 유형의 어간이 없었기 때문에 'FM'형의 不在와 더불어 形態素構造制約이라 할 수 있지만, 'iMu'형의 不在는 資料의 缺乏에 불과한 偶然한 空白일 따름이다.

닌 '-어'로 교체되었으므로 /i/와 /u/가 非關與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20) 유형 어간들의 '-아/어' 교체를 어간 구조에 의지해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21), (22), (24) 類型의 語幹이 필수적으로 '-어'로 교체되는 것과는 달리 (20) 類型 語幹은 수의적이지만 '-아'로 교체되므로, 3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아/어'를 지배하는 힘은 어두 음절 모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母音調和의 조화력은 語頭音節 위치의 모음에 있으며 이 調和力은 어간의 음절수가 擴大될수록 상대적으로 弱化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調和力이 약해질수록 交替語尾는 '-아'에서 '-어'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26)은 매우 특이한 예들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왔던 '-아/어' 교체의 기제에서 離脫한 이단적인 존재들이다.

(26) 語幹末音이 /p/인 예.

a. ak'aba hanɨn(아깝-아 하는, 사105, 교24,43,49)

b. kušəba(구섭-아(→아쉬워), 교52)

mušəba(무셥-아, 사4,xv, 교22,26,36,48,53,73)

mugəbadini(무겁-아지니, 교39)

ʧibisirəba(집이스럽-아(→고집스러워), 교30)

tsošimsirəba(조심스럽-아, 교40)

niaksirəbašə(이악스럽-아서, 교40)

cf. niaksirəbumi(이악스러움-이, 교40)

多音節 어간으로서 末子音이 /p/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26)의 예들은 어간모음들의 자질에 관계없이 모두 '-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26)은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해 왔던 '-아/어' 교체 규칙을 무색케 하는 異端兒들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들 어사들의 '-아/어' 교체는 어간말의 /p/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해야 옳을 것이나 그에 대한 타당한 음성적인 혹은 음운

론적인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8)의 1음절 어간 중에서 어간말자음이 /p/인 '칩-(寒), 집-(執), 늡(臥)-, 굽-(曲), 맵-(辛), 잡-(捕), 돕-(協), 곱-(麗)' 등은 모두 어간 모음이 어떤 부류의 것들이냐에 따라 '-아/어'의 교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미 보아 왔기 때문에 어간말 자음 /p/가 꼭이 '-아'를 牽引하는 役割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예들은 六鎭方言에서만 볼 수 있는 'kušəba'의 一例를 제외하면 파생어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中世國語를 고려하면 위 예들은 각각 語基에 '-압/업-', '-검-', '-스럽-'과 같은 접사들이 접미된 파생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과 같은 '-아'로의 교체가 이들 파생접사와 관련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파생어 '어듭-'(昏)가 보여주는 교체 사실로부터의 유추이다.

(27) ədibədigi(어듭-어지기, 사107)
ədibadigira(어듭-어지기, 교71)

(27)은 '어듭-'의 '-아/어' 교체가 수의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의성은 개인의 방언차일 가능성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辭典>에서 '무섭-'는 '-아'를, '어듭-'는 '-어'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가 파생과 비파생의 차이라 한다면 위의 파생접사는 모종의 이유로 어미'-아'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간말자음이 /p/인 다른 비파생 어사들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문제는 자료상의 불충분 내지는 특정 파생접사가 '-아/어' 교체를(적어도 모음조화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아/어'의 교체에 있어서) 지배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8)]

---

8) 필자의 조사 경험에 의하면, 咸北의 會寧, 吉州, 鏡城에서는 '춥-'가 'ʧʰibasə'로, '덥-'가 'təbəsə'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Kazan 자료들이 어간말 자음이 /p/이고 어간 모음이 /i/인 1음절 어간이 필수적으로 '-어'를 취한 것과 비교하면 흥미롭다.

그리고 필자가 /p/보다는 파생접사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이익섭

지금까지 우리는 용언 어간형태소를 음절수에 따라 혹은 어간모음의 구조에 따라 육진방언의 '-아/어'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音節數	-a를 취하는 語幹	-ə를 취하는 語幹	
1	M(ɛ, a, o)	F(e, ɨ, ə, u)	i
2	MM	FF	i i
	i M	i F	M·i, F i
	MF(F=ɨ, u)	(FM 語幹은 없음)	
3	Miu(수의적)	Fiu	iFu (iMu는 없음)
	(Mɨyu는 없음)	Fɨy	MMi, FFi
※ 2음절 이상의 어간으로서 末子音이 /p/일 때			

論議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음절 어간은, 어간 모음이 /a, o, ɛ/이면 '-아'로, 어간 모음이 /ə, u, ɨ, i/이면 '-어'로 交替된다. 例外를 허용하지 않는다.
2. 中立母音이라고 불러왔던 /i/는 어간말 음절에 위치할 때에는 음성모음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비어말 위치에서는 여전히 非關與的이다. iM, Miu와 같은 어간 유형에서의 '-아/어' 교체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3. 2음절 이상으로서 '-아'를 취하는 語幹 유형은 M, MM, MF, Miu, iM의 6가지이다. 이는 '-아/어' 교체가 語頭音節母音에 의한 同化現象임을 시사한다.
4. 'MF' 構造의 어간에는 원칙적으로 '-아'가 연결되지만, 閉音節일 때에는 교체가 수의적이다. 이는 어간말 자음이 조화력을 沮止하

(1972), 소강춘(1989)에 의하면, 강릉 및 전북 무주 지방에서도 이들 어사들은 '-아'를 취하는데 이 어사들은 'β>w'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어서, 꼭 /p/가 이러한 교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는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Miu'와 같은 多音節 語幹에서는 '-아'로의 교체가 수의적이되, '-어'로의 교체가 더 우세하다. 이는 이전의 모음체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母音調和라는 형태음소론적 규칙이 체계의 변화나 音韻變化로 말미암아 조화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6. /u, ɨ/가 비어두위치에 있을 때에는 非關與的이다.
7. 末音이 /p/인 2음절 이상의 어간에는 어간모음에 관계없이 '-아'로 교체된다.
8. 교체 어미 '-아'가 점차 '-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가 모음조화의 잔재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형태음소론적 교체는 그 기반이 모음부류들의 일정한 자질에 따른 동화현상임을 일깨워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체계에 기반을 두었다거나 혹은 모음부류들의 완전한 조화적 질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3.2 움라우트

피동화주인 후부 계열의 모음들과 동화주 /i, y/ 사이에 일정한 介在子音이 놓일 때 후부 계열의 모음이 전부 계열의 모음으로 변화하는 음운현상을 움라우트(Umlaut)라 한다.

李崇寧(1935)에서 이 음운현상에 대한 대체적인 機制가 밝혀진 이후, 움라우트 현상은 국어 음운 연구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음운현상에 대한 논의는 중앙어에서 방언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가 병행됨은 물론 각기 다른 이론 체계의 수용과 함께 그 機制 전반에 대한 精密化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결과 이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同化主, 被同化主, 介在子音의 制約 등과 같은 음운론적 조건은 물론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制約까지도 釋明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音韻體系의 變化나 音韻體

系와 音韻規則의 有機的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論據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언어지리학의 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이 음운현상은 국어음운론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운현상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20세기 초 육진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을 기술하면서 既往에 움라우트 현상의 주요 爭點이었던 다음 몇 가지 사안에 留意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개재자음의 音韻論的 조건이 과연 [+grave]나 [-coronal] 혹은 崔明玉(198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αback] [αhigh]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 崔銓承(1986)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움라우트의 通時的 전개 과정에서 '1차적 i-umlaut'와 '2차적 i-umlaut'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이 음운현상에 비분절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는가. (李秉根:1971, 서정목:1981) 넷째, 이 音韻現象이 母音體系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다섯째, 각 방언이 獨自的으로 수행하여 온 이 음운현상이 하나의 原理나 過程 혹은 法則으로 歸納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문제이다.

아래 (1)은 한정첨사 혹은 주격어미 '-이'가 체언 어간에 통합되었을 때와 용언 어간에 '-기'가 통합되었을 때의 움라우트 실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被同化主와 介在子音을 고려하여 제시해 놓은 것이다.

---

9)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田島泰秀(1918:63-65)에서 보인다. 이 논문은 咸鏡北道 鏡城方言의 音韻·形態的 특징을 기술한 글인데, 움라우트 현상을 "이 音 向上의 法則"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 음운현상의 同化主는 '이'이고 介在子音이 'ㅁ,ㅂ,ㅇ,ㅋ,ㅍ,ㅎ'일 때에만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피동화주 'ㅏ, ㅓ, ㅗ, ㅜ, ㅡ'는 각각 'ㅐ, ㅔ, ㅚ, ㅟ, ㅢ'로 바뀐다고 하였다.

李崇寧(1935), 정인승(1937)은 이 음운현상을 언어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기제를 밝힌 업적이다. 이후 金完鎭(1963,1971) 및 李秉根(1972)에 이르러 이 음운현상의 여러 제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체계와의 유기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 崔銓承(1986:117-149)은 이 음운현상의 본질과 통시적 전개과정을 정밀하게 기술한 글이다. 崔明玉(1988b)은 움라우트 현상이 통시적인 현상임을, 崔明玉(1989)는 이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사를 다루면서 이 음운현상의 개재자음의 제약조건 등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린 논문이다.

(1) a. pɛ́bi(밥(飯)-이, 사43), šénɛbi(세납(稅納)-이, 사23)
šúbɛgi(수박-이, 사1), yɛ́gi(약(藥)-이, 회xii)
pyɛ́mi(빰-이, 사xii), t'ɛ́mi(땀(汗)-이, 회xvii)
ts'ɛgí(짝(隻)-이, 사113), pʰuŋgɛ́gi(풍각(風角)-이, 사61)
sonkarɛgí(손가락-이, 사77)
ʧídɛgi(→진흙-이, 사x), cf. ʧídak(진흙, 사x),
ʧə́nɛgi(저녁-이, 사124, 회viii), cf. ʧənagé(저녁-에, 회159)
irs'ɛgí(일삯-이, 회239), cf. s'agɨ(삯-을, 회129, 235)
pɛ ʧəksɛmí(베적삼-이, 사129)
b. húndyaŋ, húndyɛ̃(훈장, 훈장-이, 사127), húndyɛ(교73,74)
šədɛ́(서당(書堂)-이, 회viii), šədáŋ, šədɛ́(사135)
tɛʤɛ́nya(대장장이-이냐?, 회119)
c. ɛkkí(아우(弟)-이, 회165, 사103), ɛk'íranɨn(아우-이라는, 사5)
nɛŋgí(나무-이, 회76,xiv), cf. naŋgɨ́(나무-의, 교50)
d. s'ági(싸(値)-기, 사35), tsági(자(眠)-기, 사69)
ts'ági(짜(織)-기, 사120), pak'í(뱉(唾)-기, 사80)

(2) a. t'égi(떡-이, 회xvi), pari-p'yegi(바람벽(壁)-이, 사115)
hədək, hədegí(헛간, 사100), hədyə́k, hədyégi(허락-이, 사108)
šək, šégi(말갈기, 사21), moryə́k, moryégi(말갈기, 사21)
mur yək, muryégí(물역(水邊), 사62),
kiryegí(기러기-이, 회344), cf. kiryəgɨ́(기러기-를, 회254),
tɛ-dyəp, tɛ-dyebí(대접-이, 사119)
b. šʷe-gẽ(소경-이, 사107), tigyəŋ, tigyẽ(지경(境)-이,사20)
uŋde(웅덩이-가, 회370-1), cf. uŋdə(웅덩이-를, 회371-2)
ángyẽ(안경-이, 사102), ʧorẽ(조롱-이, 사130)
pɛ́k-šəŋ, pɛ́k-šẽ(백성-이, 사64)
c. yek'í(여우(狐)-이, 사53), cf. yəsɨ́(여우-를).
d. nyəkʰí(넣(揷)-기, 사14,35), šəgí(서(立)-기, 사88)
š'əgí(켜(点火)-기, 사33, 회xviii)

pʰyəgí(펴(伸)-기, 사112), mək'í(먹(食)-기, 사79)

(3) a. kərɨ́ymi(걸음-이, 회x), cf. kərɨ́mu(걸음-을, 회435)

kirɨ́ymi(기름-이, 회336), cf. kirɨ́m kubi(기름 구이, 사1)

irɨ́ymi(이름-이, 사175,216,219), cf. irɨ́mi(사6)

pyerɨ́ygi(벼룩-이, 교7). cf. pyərɨ́gi(사4)

b. narsɛ tsɨmsɨ́y(날짐승-이, 사93)

ʧəŋsiŋ, ʧəŋsɨ́y(정승-이, 사59)

kadzɨ́y(가증→게으름, 사56), cf. kadzɨ́(회xiv)

c. wənsɨ̃i(원숭이-가, 교47), cf. wənsɨ̃i(원숭이-를, 교47)

tsʰɨŋ, tsʰɨ̃i(秤→저울, 사117), tsʰɨŋ, tsʰɨ̃i(層-이, 사110)

tɨŋ, tɨ̃i(등(燈)-이, 사55)

d. sárɨmina(사람-이나, 사49), tsik'ín tsarí(찢긴 자리, 사111)

tɨk'ígi(들리기(被聞), 사107,126)

e. nɨpkí(눕-(臥)기, 사52-5)

tɨk'í(듣(聞)-기, 사17,107), k'ɨ́gi(끄(消火)-기, 사34)

(4) a. maʤɨ̃i(마중-이, 사14), cf. maʤɨ̃ hagí(마중-을 하기, 사14)

b. núygi(누구-가, 표4,19,21,36), núyginya(누구-이냐?, 표23)

núygidəndi(누구-이던지, 표51)

nʉ́ygi(회xi, 80), nʉ́ygidəndi(회xi,80, 사130)[10]

c. nyəmtʰʉ́y(염통-이, 사103)

sɛ ʧorʉ́y(새조롱-이, 사45), cf. sɛ ʧorúŋ

ʧudɨ́y(주둥이, 사60)

kidɨ̃í(기둥-이, 사113), pʰɨ̃i(천막, 사134)

---

10) 이 예는 '누+구+이', '누+구+이던디'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向格, 奪格, 與格語尾의 통합형에서는 nuegešə(회258,261), nuege(회358), nuegerɨ(회195)와 같이 '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辭典>에는 nugɨy(사49), nugɨydəndi(사3,49), nugɨyindu(사3,49)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보면 <教科書>, <辭典>의 nuygi 또는 nʉygi는 nu+ku+i>nuguy>nugɨy>nugi>nuygi, nʉygi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uy로부터 발전된 i가 움라우트의 동화주 역할을 한 점이 흥미롭다.

ʧibuŋ, ʧibũí(지붕-이, 사49)
šyəŋ-tyũí(성중(城中)-이, 사97,123,126)
d. agúgi(아국(俄國)-이, 사97), ʧúgi(죽(粥)-이,사88)
kugí(국(음식)-이, 사127), súgi(쑥-이(蓬), 사55)
tuʤógi(頭足(동물의 머리)-이, 사19)
nirgúbi(일곱-이, 부71, 사103)
kummuk, kummugí(굴뚝-이, 사122)
s'aŋnurúgi(누룩-이, 사28)
kumirína(귀밀(裸麥)-이나, 회148,264,419)
kúbi(굽(底)-이(→밑), 사26)
e. mukkí(무(菁)-이, 회335, 사99)
f. tsʰúgi(추(舞)-기, 사81), tsugí(주(與)-기, 사23-4)
tsuk'í(죽(死)-기, 사22,86)

(5) a. mogí ə́mnɨn(목(項)-이 없는, 사2)
toŋ-nógi(녹(銅綠)-이, 사97), pógi(복(福)-이, 사26),
mómi(몸(身)-이, 사54)
kóbi(곱(脂)-이, 사100), cf. kóbu(곱-을, 회250)
kobí(곱(倍)-이, 회240), kopʰín(곱히-(곱하다), 사24)
b. həgóŋ, həg'õi(허공-이, 사92)
nyə́-ʤoŋ, nyə́-ʤõi(여종(女從)-이, 사95)
ʧət tʰoŋ, ʧət tʰõi(젖통-이, 사15)
toŋ, tõí(동(수랑사)-이, 사47)
c. p'ópk'i(뽑(拔)-기, 회xvi), hógi(호(縫)-기, 사135)
k'ógi(꼬(새끼를)-기, 사11), pogí(보(視)-기, 사11)

(1-5)는 피동화주인 後部母音 /a, ə, ɨ, u, o/가 움라우트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제시한 예들이다. 모음체계와 이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규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동화주별로 나누었고, 또 제약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 개재자음이나 비음운론적 층

위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특수한 어간 교체를 보이는 명사들의 주격형도 제시하였다.(1c, 2c, 4e)

위 例를 통하여 우리는 (1-2)의 예들 즉, 피동화주가 /a, ə/일 경우에는 움라우트가 예외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운현상은 同化主 /i, y/ 앞에 /m, p, pʰ, k, kʰ, ŋ/과 같은 脣子音이나 軟口蓋音, 즉 邊子音의 部類에 드는 介在子音이 놓여야만 可能하며, 이 경우에는 악센트가 움라우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단, (1d~2d)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용언 어간에 '-기'가 통합되면 움라우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피동화주가 /ɨ/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 모음 /ɨ/의 움라우트에는 악센트가 관여하고 있다. (3a,b)는 피동화주가 악센트를 지닌 예이고, (3c,d)는 악센트가 없는 예들인데 (3a,b)만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피동화주가 악센트를 지닌 모음이라 하더라도 제 1음절 위치에 있으면 이 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nɨ́pʰi'(늪(沼)-이)는 어간 모음에 악센트가 놓여도 움라우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被同化主 /ɨ/가 움라우트를 경험할 수 있는 條件은 '악센트가 놓인 非語頭音節 위치에서'라는 制限된 範圍로 縮小된다.[11] 피동화주가 後部母音으로서 非高母音, 非圓脣母音인 /a, ə/일 때에는 악센트 有無에 관계없이 움라우트가 실현될 뿐 아니라 또한 例外를 許容하지 않는 반면, 고모음 /ɨ/가 피동화주일 때에는 악센트가 놓여야만 움라우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3a)를 움라우트의 예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움라우트라는 음운현상을 '후설모음이 일정한 制約 條件下에서 序列上의 前部母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때 (3a)는 (1-2)의 움라우트와는 구별될 성질의 것이다. (1-2)의 /a/,

11)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3a)의 예들은 모두 피동화주의 선행자음이 /r/이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추가될 수 있을 듯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렵다.

/ə/가 각각 그에 대립되는 전부 계열의 /ɛ/, /e/로 이동한 것과는 달리 (3a)는 'ɨ→i'가 아닌, 'ɨ→iy'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화주 /i/모음에 의하여 피동화주가 下降 二重母音을 형성하는 움라우트를 편의상 움라우트(가)(崔銓承(1986)에서의 1차 'i-umlaut')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ɨ/와 함께 後部 高母音에 속하는 /u/가 피동화주일 때에는 /ɨ/의 경우처럼 움라우트(가)를 경험한 예가 稀少하게나마 목격된다. (4b)가 그 예이다. (4c,d)는 악센트 표지의 유무, 개재자음을 고려하여 제시한 예인데, /ɨ/와는 달리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움라우트(가)는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4a)는 움라우트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일한 構造記述을 만족시키는 (4a)와 (4b)의 음운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4a)의 'maʤǘi'(=/matsy[ǘ]ŋ-i/)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4a)는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 환경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으므로 움라우트의 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4c,d,e)의 예들이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움라우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maʤǘi'에서 분명히 (4b,c,d)와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피동화주의 先行子音이 硬口蓋音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六鎭方言의 [ü]는 오직 硬口蓋子音下에서만 存在한다는 사실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즉 /uy/가 硬口蓋子音下에서만 [ü]로 변화한 것이다. 비록 음운론적으로는 아직 音素의 地位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ü]는 의연히 경구개자음 뒤에서 존재하는 것이다.[12] 이렇게 [ü]의 分布 制約과 u→[ü]의 움라우트 현상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다. 음성적으로 [ü]가 경구개 자음 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maʤuŋ-i'의 피동화주 /u/가 [ü]로 움라우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1-3)과는 달리 (4a)는 音聲 層位에서 실현되는

12) 이 방언에서는 선행자음이 경구자음일 때에만(음성적으로) uy>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8을 참고할 것.

움라우트 현상인 셈이다.

한편, (5a,b,c)는 피동화주가 /o/일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방언의 母音體系에 그에 대립되는 前部 계열의 圓脣高母音 /ö/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더러 [ü]처럼 [ö]가 특수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maʤũi'에 비견할 만한 예를 형태소 경계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š^{w}e-gyəŋ(소경), š^{w}e-gẽ(소경-이, 사107)'의 一例가 발견된다. [^{w}e]는 [ö]의 breaking으로 여겨지는바,[13] 이렇게 同化主 /y/에 의하여 被同化主 /o/가 움라우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o/에 선행하는 자음 [š]가 '音聲的으로 硬口蓋子音'이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14]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이 방언에서는 [-coronal] 자질을 지닌 자음이 개재할 경우에만 움라우트가 가능하며 또 피동화주가 /a,ə/일 때에만 움라우트가 실현된다. 그리고 off-glide 이중모음을 형

13) 二重母音 '외'(=/oy/)의 單母音化 및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에 대해서는 는 4.4 및 4.7.2를 참고할 것.

14) 李崇寧(1935:111), 金完鎭(1963:78), 崔銓承(1986:117-169), 崔明玉(1989:7-39) 등에는 피동화주가 /o/인 경우에는 움라우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각 지역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崔明玉(1989)를 참고할 것.) 그러나 20世紀 初 六鎭方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타의 방언과는 달리 母音體系에 /ö/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동화주 /o/의 움라우트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특수한 조건 하에서 실현되었던 痕迹을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현대 六鎭方言을 관찰한 北韓學者들은 母音體系에 /ö/가 存在하지 않지만('외'는 現代 六鎭方言에서 Kazan 자료와 동일하게 /wɛ/로 나타난다.), /o/→/ö/의 움라우트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황대화:1986) 北韓學者들의 調査·報告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o/→/ö/의 움라우트는 母音體系와는 無關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육진 이외의 東北方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용호, 1988:83) 그러나 Ramsey(1975)의 北靑方言에서는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조사에 의하면 동북의 하위 방언권에는 /ö/가 存在하는 지역이 있다. 따라서 위 북한학자들의 조사·보고는 지역, 세대차 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하는 움라우트(가)는 高母音 /i/일 때에만 일어나며 이 현상은 움라우트보다도 더 까다로운 制約 條件 속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고모음의 /u/는 움라우트(가)의 적용 예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움라우트 규칙의 제약 조건에다가 '/u/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 자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실현되는 움라우트의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음운론적 층위에서의 논의였다. 그 이외의 층위에서의 움라우트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 (1d, 2d, 3e, 4e, 5c)의 예들은 名詞化素 '-기'가 연결되면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통사론적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金完鎭, 1963:76-77, 1971, 李秉根:1971).

지금까지 우리는 六鎭方言의 움라우트 현상이 어떠한 制約 條件下에서 실현되는가를 논의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육진방언의 움라우트 현상과 움라우트(가)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규칙: 1]

$$\begin{bmatrix}\text{-high}\\ \text{-labial}\end{bmatrix} \rightarrow [\text{-back}] \;/\; __ + \begin{bmatrix}\text{c}\\ \text{-cor}\end{bmatrix}\begin{bmatrix}\text{-cons}\\ \text{+high}\\ \text{-back}\end{bmatrix}$$

[움라우트(가): 2]

$$\phi \longrightarrow \text{y} \;/\; \begin{bmatrix}\text{+high}\\ \text{+back}\\ \text{+accent}\end{bmatrix} __ + \begin{bmatrix}\text{c}\\ \text{-cor}\end{bmatrix}\begin{bmatrix}\text{-cons}\\ \text{+high}\\ \text{-back}\end{bmatrix}$$

3.2.1 동화주가 앞 뒤에 위치한 움라우트

앞에서 우리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coronal] 자음이 동화주에 선행하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coronal] 자음이 개재하여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6)과 같은 예들이 산발적으로 발견된다. (6)은 움라우트를 경험한 어사들을 介在子音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 예를 통해서 육진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앞서의 움라우트 예들과 그 機制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현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形態素 內部'에서의 현상도 아울러 관찰하기로 한다.

(6)a. 介在子音이 /n/인 例

iʎʎeni kina(일년-이 지나서, 교71)

cf. iʎʎəne(일년-에, 교71), iʎʎənɨ(일년-을, 교71)

ʧeryeni(마을, 사106). cf. ʧeryən(사106)

nyeni(연(飛鳶)-이, 교15)

cf. nyənɨ(연-을, 교15) , nyəninɨn(연-은, 교15)

nyən, i(연-이, 사38), nyənsarɨ(연살-을, 교15)

nyepʰyeni(여편네, 사31)

posyeni, posyəni(버선-이, PU. 708)

ašimtʰyɛnio(고맙습니다, 회296), ašimtʰyɛnitʰa(회89)

tsɨdyɛnio(tsɨr(泥)+di(否定語尾, -디)+ani-, 회20)

cf. →(tsɨr)dyanio>(tsɨr)dyɛnio

tsuguryeni(죽으려니(死), 교38)

b. 介在子音이 /r/인 例

kɨy-ʤeri(氣絶, 사70) cf. kɨy-ʤər, kɨy-ʤərɨ hagi(사70)

nyeryemi(마을, 사106) cf. 녀염이/녀례미(마을, PU.208)

š'ɛri(쌀 + 이(정신착란, 회xviii)

cf. 쌰쓰오/쌰르 쓰오(미친짓 하오, PU.627)

pyeri/pyəri(별(星)-이, PU.194-5)

pyeri/kɨmulpyeri(벼리(綱), PU.47)

tyoyrihao/tyoririlhao, 됴리ᄒᆞ오/됴리를 한다(조리하-, PU.466-7)

pʰar-ʧʰel-li(八千里, 회40) cf. pʰar-ʧʰən(八千, 회42)

c. 介在音이 /tsy/(=[ʧ],[ʤ])인 例

ʧeʤi(젖(乳)-이, 부73,교70,72), šöʤeʤi(교71,70)

cf. ʧədzinɨ(젖-은, 회57)

ʧədzɨ ts'agira(젖-을 짜기를, 교72)

myetʃʰi isso(몇-이 있소, 회391), myettʃʰio(몇-이오, 회413)
tyendʒa(뎐쟝(포로,인질)-을, 회131)
cf. tyəntsyaŋi, 뎐쟝이, 불뫼(PU.5)
tʰyendʒu(텬쥬(天主), 사xiii,4,13,28)
kyedʒip, kyedʒibi, kyedʒiptəri(겨집(釋譜19:14), -이, -들이, 사72)
yuytsi, 위지(유지(油紙), PU.237)
tsyetsʰio/tsyəsso, 제치오/졌소(젖히다(使濕), PU.309)
yentsi, 옌지(연지(燕脂), PU.552-3)

d. 介在音이 /sy/(=[š])인 例
š'üšigi(뱎시기(扣, 內訓1:3), 회ix, 사46)
yešüni(여쉰(六十, 月印2:58), 회xii,42)
kyešio(겨시-(在, 龍110), 회92)
hɛsiril handa/hyosi(효슈(梟首), PU.339)
tyoysyuy, 되쉬(조수(潮水), PU.497-8)
ɨym-šək ɨym-šegi(음식-이, 사79,114,136)
cf. ɨym-šək katsʰunɨn ank'ani(음식 만드는 아낙 → 여요리사)
imšəge(음식-에, 회233)

e. 介在子音이 /t, tʰ/인 例
pyət, pyetʰi(별(陽), 사102)
myeŋdi(명주(紬), 교38) cf. myəŋdi(사134)

f. 介在子音이 /rp/,/rk/인 예
šerbi(섧이-서러이, 교70)
yergigu ikkillɛ(열리(開)-어 있기에, 교67)
yergyennɨnde(열리-었는데, 교64)

(6)은 同化主 /i,y/ 앞에 놓이는 개재자음이 [-coronal] 자음이어야 한다는 움라우트 규칙의 제약 조건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이 예들의 움라우트 環境을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被同化主가 모두 二重母音 /ya, yə, yo, yu/라는 사실이

다. 이는 이들 이중모음의 on-glide /y/가 이 同化 現象의 牽引車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피동화주의 音節 副音 /y/도 同化主 /i, y/에 못지 않게 이 음운 현상의 동화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피동화주가 單母音이고 介在子音이 /n, s, ts, t, r/과 같은 齒音일 때에는 움라우트 실현 예가 달리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6)의 움라우트에서 피동화주의 on-glide /y/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음운현상은 피동화주의 音節 副音 /y/와 동화주 /i, y/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동화 현상의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순행도 아니고 역행도 아닌 兩方向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음운현상은 앞서 논의한 움라우트와는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이 특이한 움라우트 현상에서 개재자음의 제약 조건을 전혀 도외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며 20세기초 육진방언의 공시태에서는 생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현상은 동화주 /i,y/ 앞의 자음이 경구개음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발생하여 확대되다가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면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 움라우트에서 개재자음이 (6c,d)와 같이 [ʧ], [š]인 경우는 이 현상이 /tsy/, /sy/ 단계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가령, 'tyəntsyaŋi>tyentsyaŋi', 'ɨmsyəgi>ɨymsyegi>imšegi'와 같은 변화는 同化主 /y/를 前提로 해서만 가능하므로 [ʧ], [š]의 선행 단계는 /tsy/, /sy/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변화는 /ts/와 /s/가 각각 [ʧ], [š]의 變異音을 갖기 以前에 발생한 現象이다. 이들은 피동화주가 '上昇 二重母音'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지닌 경우에 한정되는 움라우트의 예이기는 하지만, 개재자음의 제약 조건을 고려한다면, "조음시에 {i, y} 앞에서 경구개음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崔明玉(1989:22)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의 예 중, 'iʎʎeni'(일년-이), 'ʧeʤi'(젖-이), 'nyeni'(薦-이) 등과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움라우트를 보이고 있는 예들에서의 介在子音 /n, ts/는 음성적으로

경구개음이다. 이는 위 崔明玉(1989)에서 제시된 개재자음의 제약 조건에 相値되는 것이기도 하다.15) 따라서 위와 같은 움라우트 예를 개재자음을 고려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과거의 발음 습관에 연유한 것이거나 또는 이 방언에는 명사 어간말에 '-이'가 접미되는 형태론적인 현상이 있으므로 동화주 앞의 자음이 경구개음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이미 움라우트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정첨사 혹은 주격어미 '-이'가 통합된 환경 즉 형태소 경계가 아닌 단어 경계에서도 이러한 동화현상이 발견된다. (7)가 그 예이다.

(7) a. yer yadɨrbi(열 여덟, 표9, 부71)
cf. yar hannɛ(열 하나), yar tuuri(열 둘)
yar tasiši(열 다섯, 표9)
b. myen-nio(몇 리(里)오, 사39)
cf. tyə tsʰone myət-hoio?(저 村에 몇 戶나 있소?, 회41)
taŋšinne urige surgɨydəri myəttsʰɨ nɛ norman hao?(당신네 우리에게 수레를 몇을 내 놓을 만하오?, 회146)
myettʃʰenio(몇 천(千)-이오, 회411-2)
c. tʃʰeňňa tsuna(천냥(千兩)-을 주나, 교32)
tʃʰeňňa nɛgi(천냥-을 내기, 교32)

(7a)는 /열#야듧/, (7b)는 /몇#리/, (7c)는 /천#냥/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같이 굴절 환경이 아닌 단어 경계에서도 움라우트가 실현된다.그런데 소수의 例이기는 하지만 아래 (7)과 같이 피동화주가 上向 二重母音이 아니면서도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이 보인다.16)

15) 피동화주가 단모음이고 개재자음이 /n/일 때, 움라우트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상승 이중모음이라 하더라도 개재자음이 /n/일 때의 움라우트 역시 위 예를 제외하고는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16) 現在의 六鎭方言에서도 이러한 움라우트 예들을 볼 수 있다. 황대화(1986, 부록)의 조사 자료에 나타난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괘실(과실), 대니다(다니다), 데디다, 데지다(던지다), 셀기(설기), 애니(아

(8) tuyšɛi(두샹이>두생이(→늙은이), 교43-64)
kwɛširi(과실(果實), 회96)
tedigi(더디-(投, 曲64), 사5,75), cf. tədigi(던지-기, 사101)
tyedigu(뎐지-고, 교16,37,54)

(6)과는 달리 피동화주가 상승 이중모음이 아니면서 움라우트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러한 예들은 예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形態素 內部에서만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움라우트 규칙의 사적 변화, 이를테면 개재자음의 제약조건 또는 적용 영역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화주 /i, y/에 의한 특이한 음운현상을 보았다. 결과 이 음운현상은 움라우트 현상과는 몇 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1-4)의 움라우트와는 달리 (6-8)의 움라우트는 피동화주가 대개 上昇 二重母音이다. 둘째,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음운현상을 (1-4)에서 다룬 움라우트와 구분하여 별개의 움라우트 현상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것은 피동화주가 이중모음이 아닌 單母音이고, 介在子音이 (6)과 동일한 [+coronal]자음들인 경우에는 (6a)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이중모음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중부 또는 남부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벼>베, 겨드랑>게드랑'과 같은 변화는 이 시기 육진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7b)의 /myetsʰ/과 /myətsʰ/(몇(幾))이 그 점을 명확하게

니(否)), 얠밉다(얄밉다), 녜니(년-이, 여자애의 애칭), 옐여슷(열 여섯), 윈셩(穩城), 재리(조리), 채리다(차리다)

이밖에 東北方言 調査 資料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가령, 사셀(辭說, 會寧(<한글>7-6), 젠년(前年), 예럼집(<한글>5-3, 定平), 옌필(鉛筆), 버센이(버선)(<한글>1-9), 젤리다(절리다), 귀차하다(구차하다, 가난하다)(한글>9-3, 咸北 羅津) 등등.

보여준다. /myetsʰ/은 그 뒤에 반드시 同化主 /i/가 위치하는 조건하에서만 출현하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myətsʰ/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변화가 후행하는 /이/에 의한 동화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17]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특이한 음운현상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규칙: 3]

$$y \begin{bmatrix} -high \\ -labial \end{bmatrix} \rightarrow y[-back] \; / ___ (+,\#)C(C) \begin{bmatrix} +cons \\ +high \\ +back \end{bmatrix}$$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살펴보았다. 피동화주가 /a/, /ə/일 때에는 序列上의 前部 母音인 /ɛ/, /e/로 이동하지만, 後部 高母音 /ɨ/의 경우에는 피동화주가 非語頭에 位置하고 악센트가 놓이는 條件下에서 off-glide /y/가 개재하는 움라우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후부 원순모음 /o/가 피동화주일 때에는 움라우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방언에는 모음체계 내부에 前部 圓脣母音 /ö/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의 움라우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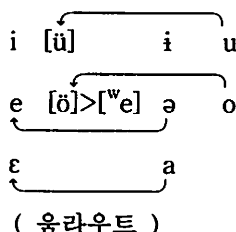
그리고 被同化主에 先行하는 자음이 硬口蓋 子音일 때에만 움라우트의 실현이 가능한 특이한 예로서 /u/→[ü] 및 /o/>[ö]>[we]의 예들을 검토한바, 이들은 음운론적인 층위가 아닌 음성 층위에서의 변이음과 변이음 규칙이었다. 音素의 地位를 아직 얻지 못한 [ü]는 경구개 자음하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피동화주 /u/의 선행자음이 경구개 자음인 경우에는 형태소 내부 위치에서나 형태소 경계에서 /u/→[ü]로의 움라우트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움라우트 현상은 介在子音이 [-coronal]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制約 條件에 拘束되지 않는 움라우트의 예들을 보았다.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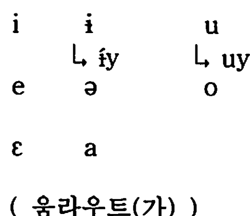
---

17) 중앙어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 예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중세국어에서 '겨시-, 겨집' 등이 근대 국어 단계에서 '계시-, 계집'으로 변화한 것도 위와 同軌의 변화로 보인다.

거개가 피동화주가 上向 二重母音인 어사들이었다. 이 움라우트 현상은 피동화주의 on-glide가 피동화주에 후행하는 同化主 /i, y/와 함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움라우트 현상을 체계와 관련시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움라우트(가))

3.3 圓脣母音化

3.3.1 脣子音에 의한 同化

어간말자음이 脣音일 때, 여기에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통합되면 순자음의 영향으로 비원순모음 /으/가 /우/로 변화한다. 이 음운현상은 용언의 활용이나 체언의 곡용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순수한 음운규칙으로서 중부방언과는 달리 문법 범주에 대한 제약이 없다.18)

(1) 用言

nəbun(넓-은, 사84,135), nibun(입(被)-은, 사65)

18) 근대 후기의 문헌어나 현대 중부방언에서 형태소 경계에서의 '으→우' 원순모음화는 체언 어간과 격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는 그 실현이 제약을 받지만 활용 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田光鉉:1967, 李秉根:1970b) 崔銓承(1986)은 원순모음화 규칙의 기능과 그 적용 영역을 정밀하게 기술한 논문이다.

d podurabun(보드랍-은, 사62), katsʰabun(가깝-은, 회196,360)
punsɨysirəbun(분수있-는, 사116), sarmun(삶-은, 회99)
šərbun(섧-은(서러운), 사105), tagabunge(뜨겁-은 것이,사20)
tsobun(좁-은, 사124), ʧərmun(젊-은, 사59,60,7.7)
ʧʰibun(춥-은, 사129), kəmun(검-은, 사43,132)

(2) 體言

1) 주제격: -in, -ini, -inin
ʧigɨmun(지금-은, 사65)
šəŋnimun(형님-은, 회184)
sarɨmunin(사람-은, 교52)

2) 대격: -ɨ
noromu(노름-을, 사39), tsʰumu pak'i(침-을 밷다, 사80)
pamu tsagi(밤-을(밤에) 자기, 사69), samu(삼(痲)-을, 사80)
sarɨmu(사람-을, 회83,130), sogumu(소금-을, 회245)
sonnimu(손님-을, 사95), sumu suygi(숨-을 쉬기, 사29)
sumu s'inin(부러워하는, 사33), sumu parigi((목)숨-을, 사125)
sɨyʤibu(시집-을, 회193-5),
hwɛparɨmu purgi(휘파람-을 불기, 사102)
tipʰu(짚-을, 회107), kobu(곱(脂)-을, 회250)

3) 조격: -illɨ, -irɨ
himullɨna(힘-으로나, 사63), himullɨ(힘-으로, 사63)
nabullɨ(납(鉛)-으로, 사34)
tipʰullɨ(짚(稿)-으로, 사109)

4) 향격: -irɨ, -illɨ
ʧiburu(집-으로, 사1,26,114, 회356)
apʰurɨ(앞-으로, 회431), apʰuru(앞-으로, 사13)
tuullɨ(뒤-로, 사40)

5) 원인격: -illɛ
hyəŋnimullɛ(형님-을 위해, 사95)

6) 속격: -ɨ
namu tsuegi(남-의 공, 사133)
7) 여격: -ige
sarimuge(사람-에게, 사66)

(1)은 用言 語幹과 活用語尾, (2)는 體言 語幹과 格語尾의 統合에 의한 圓脣母音化 현상을 보인 것이다. 위 예들은 用言이나 體言 語幹에 관계없이 語幹末 子音이 脣子音이면 圓脣母音化 規則이 필수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1-2)에 적용된 圓脣母音化 規則은 다음과 같다.

[圓脣母音化 規則: A]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labial}]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 \underline{\qquad}$$

3.3.2 圓脣母音에 의한 同化

脣子音에 의하여 非圓脣母音이 圓脣母音化하는 것과는 달리 원순모음에 의하여 후행하는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화하는 예들이 있다. 즉 圓脣母音 /o,u/가 同化主가 되고 후행 음절의 非圓脣母音 /ɨ/가 피동화주가 되어 圓脣母音 /u/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이 동화 현상은 介在子音의 有無 혹은 資質에 관계없이 隨意的으로 실현되는 遠隔 順行 同化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muru megyera(물-을 먹여라, 회115), ʧʰammuru(찻물-을,교24)
munu tak'i(문-을 닫기, 사34)
cf. tɛmunɨ tasso(대문-을 닫소, 회127)
nunu(눈(眼)-을, PU.182,590)
puru(불-을, 사45,96), cf. purɨ(불-을, 사33)
pʰuru(풀-을, 회160), uru(위(上)-으로, 교15)
tsuru(줄(絃)-을, 사53), tsɛmuru(財物-을, 교52)

harts'uru(할 줄-을, 회214), norusu(노릇-을, 교56)
niburu(이불(衾)-을, 교6), kusuru(구슬-을, 교16)
kɨmuru(그물(網)-을, 교37)
tʃiburušə(집-으로부터서, 교64)
šəŋdyuru(城中-으로(→市內-로 혹은 邑內-로, 교6)

(2) totʰu(돝(豚)-을, 회249), cf. totʰɨ(돝-을, 회342)
modu(못(釘)-을, 교27)
  cf. swɛmodɨ paga nyəkʰi(쇠못-을 박아 넣기, 사89)
yogu hagira(욕-을 하기를, 교58)
sonu(손-을, 교59)
  cf. mogɨ t'agi(목-을 따기(→死刑), 사42)
  cf. tonɨ(돈(錢)-을, 회139)

(3) putʰun(붙-은, 교54)
tsugundzuru(죽-은 줄-을, 교70), tsugun(죽-은, 사58,87)
tsuguryeni(죽-으려니, 교38), tsugur t'ɛ(죽-을 때, 교43)
pʰamudun(파묻-은, 교57)
kudun maami(굳-은 마음이, 사105-6)
purgun(붉-은, 사48)

(4) a. noon(놓(置)-은, 회97), nooni(놓-으니, 사48)
b. tyoun(좋(好)-은, 회129)

(1,2)는 체언 어간과 격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 (3,4)는 용언의 어간과 활용어미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圓脣母音化 現象을 각각 보인 것이다. (1,3)은 동화주가 /u/, (2,4)는 동화주가 /o/인 예들이다.

한편, (4)는 용언의 어간말자음이 /h/일 때의 원순성동화의 예이다. (4)의 예들은 피동화주인 어미의 두음 /ɨ/가 /u, o/ 중의 어느 하나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동화의 결과는 (1-3)과 다르다. 즉 (1-3)은 동화주에 관계없이 피동화주가 /u/로 동화된 데 반해, (4)는 /o/ 혹은 /u/ 로 동화되었다. 따라서 (4a)는 원순모음화가 아닌 다른 기

제에 의한 동화 현상이다. (4a)는 어간말 자음 /h/가 탈락한 다음 /ɨ/가 선행 모음에 동화된 것이다.(3.8 참고) 반면에 (4b)의 'tyouni'는 원순모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순모음화 현상은 /ɨ/와 /u/가 원순성 자질에 의한 대립짝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같은 후부모음의 대립짝이라고 할 수 있는 /ə/, /o/에서는 이러한 동화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1-4)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o/는 후행모음을 원순모음으로 동화시키는 동화력을 지닌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열상의 /ə/를 원순모음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는 앞서 보았던 순자음하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에서도 동일하다. 즉, 피동화주가 고모음 /ɨ/일 때에만 원순성에 의한 동화가 가능한 것이다.[19]

지금까지 논의된 원순모음화 현상은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圓脣母音化 規則: B] (수의적)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labial}]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text{C}) + ____$$

[規則 B]를 3.2.1에서 다룬 [圓脣母音化 規則 A]와 비교하면 결국 同化主가 子音이냐 母音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 동화주는 모두 [+labial] 자질로 自然部類를 이루므로 두 규칙은 다음과 같이 통합될 수 있다.

[圓脣母音化 規則: 4]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labial}]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langle(\text{C})\rangle + ____$$

(<(C)>는 동화주가 모음일 때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

19) 공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음운현상이 통시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가 대립짝이었던 'ᄋᆞ'를 잃고 '어'를 새로운 대립짝으로 맞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李秉根:1970) 새로운 모음체계로의 조정 이후에도 음운규칙은 여전히 과거의 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4 滑音形成

형태소 내부 혹은 형태소 경계에서 두 모음이 연접하게 되면 두 모음은 衝突을 피하기 위한 몇가지 음운론적 과정을 밟는다. 그 중에서 어간말모음 /u, o, i/에 /a, ə/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모음 /u, o/는 후설원순성 활음 /w/로, /i/는 전설성 활음 /y/로 각각 자질상의 변화를 입게된다. 이를 우리는 滑音形成(glide formation)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음운현상은 활용어간의 말모음에 '아/어'系 어미가 통합될 때에 실현되는데, 六鎭方言에서는 체언어간에 處格語尾 '-에'가 통합될 때에도 어간모음 /i/가 활음화한다. 또 어간말에 위치한 이중모음 /uy/에 '-아/어' 혹은 처격어미 '-에'가 연결될 경우에도 일정한 음운과정을 밟아 활음화가 이루어진다. 本節에서는 이 음운현상이 어떠한 환경하에서 어떠한 음운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또, 활음형성 이후에 활음이 탈락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떠한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고려하여 용언과 체언으로 나누고, 또 어간 모음이 /u, o, i, ɨy/일 때와 이중모음 /uy/일 때로 나누어 기술한다.

(1) 용언 어간말모음 /i/의 활음화

a. kot^{h}ye(고치-어, 회157, 교56), kot^{h}yesso(고치-었소, 교10)
put^{h}ye noara(붙이-어, 교74), kəkkədyešə(꺾-어지었어, 교20)
kaʤeda(가지(持)-어다, 교58), cf. kaʤigɛtta(가지겠다, 교19)
toŋʤešə(동지(束)-었어, 교54), cf. toŋʤigu(동지-구, 교54)
mošešə(모시-었어, 교62), cf. mošigi(표20)
p'adyeňňa (빠지-었냐, 교56)
megyera(먹이-어라, 회115), megye-man(먹이-어만, 회94)
tɨkkye(듣기(被聞)-어, 교21,49)
kɨymɛk^{h}yešə(기막히-었어, 교42)

šiŋgyera(신기-어라, 회117), cf. šingigi(신기-기, 사45)
nyegyešə(여기-었어, 교35), cf. nyegigi(여기-기, 사116)
tsugyešə(죽이-었어, 교46), cf. tsugigi (죽이-기, 사34)
tikʰyešə(지키-었어, 교58,37), cf. tikʰigi(지키-기, 사112)
nipʰyešə(입히-었어, 교58,61), cf. nipʰigi(입히-기, 사64)
tepʰyesso(덮히-었소, 회422)
yergyenninde(열리(賣)-었는데, 교64),
cf. yergigu ikkillɛ(열리어 있기에, 교67)
tirye(들이(入)-어, 회126), cf. tiryə(회ix)
tɛrye(데리-어, 회81,84,18), tɛryeda tagu(데려다 다오, 회31)
əʎʎetta(얼리(欺)-었다(→속이다), 교59,61), cf. əlligi(사70)

b. ʧʰešə(치(養)-었어, 교49)
ʧešə(지(肥)-었어(→살이 찌었어), 교43)
tʰyəkkwade(치(打)-었군요, 교26), cf. tʰigi(사112)
tʰye tsuupšo(치(打)-어 주십시오, 교51)

c. t'yəəsa(찧(搗)-어야만, 회143), cf. t'ik'i(사44)
ʧəəšə(짓(作)-었어, 교29), cf. ʧikʰi(짛(作)-기, 사114,118)

d. kuge noaňňa(구기-어 놓았나, 교66)

(2) 부정어미 /-ti/의 활음화.

a. s'ɨyd-yɛninda(쓰(用)-지 아니한다, 회134)
tatʰidyanirira(다티-지(→건드리지), 교54) cf. tatʰigi (사122)
totʰudyanikʰu(다투-지 아니하고, 교52), cf. totʰum,i (사111)
mantʰyɛniumni(많-지 아니합니다, 회53), cf. mankʰi (사4)
tyotʰyanikʰillɛ(좋(好)-지 아니하기에, 교67), cf. tyokʰi(표2)
tsɨdyɛnio?(질(泥)-지 않습니까?, 회20)
paridyanikʰi(바르(正)-지 아니하게, 교32)
cf. paridi anin(바르지 아니한, 사49)

(3) 용언 어간말모음 /o, u/의 활음화

a. k'wa=digi(꼬-아, 사11,), cf. k'ogi(꼬-기, 사11)

kartʃʰiwara(가르치-아라, 교32), cf. kartʃʰiugi(회부65)
tatʰiwə(다티우-어(→건드리다), 교57), cf. tatʰigi(사122)
t'argiwə(딸기우-어(→쫓기다), 교45)
s'irgiwə(쓸리-어, 교67)
pɛwara(보이-어라, 회442), cf. pɛugi(표39)
katsʰwara (갖추-아라, 회95,97,302), cf. katsʰugi(표16)

b. tyoa haninge(좋-아 하는 것, 사49), cf. tyokʰi(표2)
nowa(놓-아, 사75), titʰe noaňňa(건드려 놓았나, 교66)
tirye noara(들여 놓아라, 교36) 10), cf. notʰa (표序26) 12)

c. moda nosso(모두(集)-아 놓소, 회124)
· cf. modugi(모으-기, 사63,116), moduo(모으-오, 사108)
passo(보-았소, 교8), pašə(보았어, 교14)
kada nyəšə, kada nyəkʰu(가두-어 넣었어, ~고, 교18,17)
cf. kadunin(가두-는,사44)
totʰašə(다투-었어, 교16,32), cf. totʰugiri(다투-기를, 교39)

(4) 下降 二重母音 /uy/의 활음화.

a. t'we nɛrigi(뛰-어 내리기, 사110, 교10)
t'weɣašə(뛰어갔어, 교11), t'we nakagi(뛰-어 나가기, 사16)
cf. t'uymyəŋ(뛰며, 교6), t'uynda(교4), t'uyu(뛰-오, 교4,7)
t'uygi(사5,43), t'ʉygi(사93,104)
t'e našə(뛰어나갔어, 교11)
suešə(쉬(休)-었어, 교63),
tswešə(쥐(執)-어서, 사10)
cf. tsuygi(쥐-기, 사5,10,24), tsiygi(사104)

b. kee tirə kagi(기-어, 사11), cf. kiygi(사85)
pee nosso(배(刪)-었소, 회169), cf. piygi(표23)
nuygi nɛ kər annin sãe antaga, kigə tsaryešə <u>titʰe</u> noaňňa,
(누가 내 걸상에 앉다가, 그것을 자리에서 드티어 놓았나, 교66),
cf. titʰiyugi(사24, 사102)

(1a,b)는 용언의 어간말모음 /i/가 '-어'를 만나면 滑音化하여 이중모음 /ye/가 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1c)는 어간말자음이 /h/일 때의 활음형성을, (1d)는 소수의 예이지만 활음형성 후 /y/가 탈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2)는 부정어미 /-ti/에 /aniha-/, /ani-/가 연결될 때 활음형성이 이루어지는 예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활음형성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이지만 (2)는 단어 경계에서 발생하는 활음화이다. (3a)는 어간말모음 /u/에 '-아/어'가 통합되었을 때의 활음형성을, (3b)는 어간말자음이 /h/일 때의 활음형성 예를 보인 것이다. (3c)는 활음형성 이후에 /p, t/ 아래에서 /w/가 탈락함을 보인 것이다.[20]

그런데 어간말자음이 /h/이고 그에 선행하는 모음이 /i/,/u/일 때에는 활음형성의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1c)의 예들은 어간말자음 /h/가 탈락한 다음 어간말모음 /i/가 활음화하고 長母音化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예는 어간말자음 /h/가 없는 (1b)의 개음절 어간과 비교된다. (1b)의 예들은 장모음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c)와는 달리 'yə>ye'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21]

한편, (1)의 예들은 활음형성 이후에 'yə>ye'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會話>와 <教科書>는 /i/ 앞의 선행자음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있음에 반해, <辭典>의 자료는 이 규칙이 적용된 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기사자의 표기의식이기보다는 문법차일 것이다.[22]

---

20) 이 方言에는 齒破裂音 /t,t',tʰ/ 다음에 이중모음 /wa/가 연결되는 音節構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3c)는 表面音聲制約에 의한 것이다.

한편, '보-'는 'pašə'(보았어)에서 보듯 활음형성이 이루어져도 장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특이한 존재이다. 필자가 東北方言을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咸南의 中部 以北으로부터 咸北의 全地域은 Kazan 자료처럼 長音이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咸南의 中部 以南 지역은 'paasə, pwaasə'와 같이 長音으로 나타나 地理的으로 차이를 보인다.

21) 이 장모음화 현상은 3.8에서 다시 논의되므로 여기에서는 지적으로만 그친다.

22) 이는 <露韓小辭典>의 韓國語 話者인 韓 氏와 <露韓會話>의 韓國語 話者인 姜 氏의 文法差(즉, 'yə>ye' 규칙의 有無)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教科書>에서는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ani-/처럼 전사하였는

이처럼 형태소 경계에서는 'yə>ye'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형태소 내부에서의 /yə/, /ya/는 /ye/, /yɛ/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MS-rule과 P-rule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崔明玉, 1982:107)

한편, (3b)의 '둏-'(好)는 활음화하지 않는 반면, '놓-'(置)는 활음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간모음이 같은 /o/임에도 전자는 활음화가 불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둏-'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활음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tywa/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음절에 활음 /y/와 /w/가 繼起的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빚는다. 이러한 활음의 계기적 연결은 음성학적으로도 자연스럽지 못하거니와, 국어의 보편적인 音節構造에도 合當하지 않다. 또 활음형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립적 자질을 지닌 두 활음 /w/, /y/ 중 어느 하나는 탈락될 것인데 이로 인한 語形의 손상은 意味를 不透明하게 할 것이므로 활음형성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둏-'는 활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3]

(4)는 이중모음 /uy/에 '-아/어'가 통합되었을 때 이루어진 활음형성의 예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음운과정의 결과이다.

		/t'uy+ə/	/tsuy+ə/
가)	yə>ye	t'uye	tsuye
나)	/y/탈락	t'ue	tsue
다)	滑音形成	t'we	tswe

데, <會話>에서는 이를 모두 /-dyɛni-/로 轉寫하여 현실 발음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두 滑音 /y/와 /w/가 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을 이미 2.2.1.3에서 보았는데, /y,w/의 연결은 치찰음 /s, ts, ts', ts^h/에서만 가능하다. [$š^w$e](牛), [šweši](洗手)(音韻論的으로는 /sywe/, /sywesi/로 표시된다.)가 그 예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sibilant] 자음 다음에서는 /ywV/와 같은 音節構造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wyV/ 音節構造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위 규칙들과 규칙들의 적용순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다. 왜냐하면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로 규칙 가)의 적용에 앞서 't'uy+ə→t'u$yə'와 같은 음절구조의 재조정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uy/의 off-glide /y/가 보다 안정적인 음절구조를 이루기 위하여 후행모음의 on-glide로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만약 가)의 앞 단계에서 /y/가 탈락하면 /t'uə→t'wə/의 잘못된 표면형이 도출되므로 규칙 가)와 그 적용순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모음 /uy/의 활음화는 'yə>ye' 규칙, /y/ 탈락 규칙, 활음형성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b)는 어간 모음이 /ɨy/일 때의 활음형성의 예인데 다음과 같은 음운 과정에 의한 것이다.[24)]

		/kɨy+ə/
가)	yə>ye	kɨye
나)	y 탈락	kɨe
다)	모음동화	kee

지금까지 우리는 例 (1-4)를 통하여 용언의 어간모음들이 어미와 통합될 때 실현되는 활음화의 양상을 보왔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활음형성 규칙(1): 5]

$$(\delta)(C)\{u,o,i\}v.s. \quad + \; ə$$
$$1 \qquad\qquad 2 \;\Rightarrow\; C \begin{bmatrix} 1 \\ -\ voc \\ +\ high \end{bmatrix} 2$$

24) 어간이 /ki-/로 再構造化된 方言에서도 부사형어미 '-어'가 어간에 통합되면 /kyə/가 아닌 /ke:/로 실현되는 방언이 있다. 이 경우 /ke:/는 축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李丞宰:1980) 그러나 그러한 예도 통시적으로는 /kɨy-/ 단계의 활용방식을 고수해 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공시적 해석과 통시적 해석상의 차이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나 기존의 이론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yə>ye 규칙: 6] (C)i + ə →(C)ye
1 2 12

[활음 /y/탈락 규칙: 7] /y/ → ϕ / V____ + e

[/h/탈락 규칙: 8] /h/ → ϕ / V____(+)V

[활음형성 규칙(2): 9]

VXv.s. + ti # ani(h-)

$$1 \quad 2 \quad \Rightarrow \quad + t \begin{bmatrix} 1 \\ -\ voc \\ +\ high \end{bmatrix} \quad 2$$

위 규칙 [5]는 어간 말음 /u, o, i/가 부사형어미 '-아/어'를 만나면 /y,w/로 滑音化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활음형성 규칙은 부사형 어미 '-아/어' 교체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적용된다. 또 활음형성 이후에 'yə>ye' 규칙[7]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이 규칙은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규칙으로 선행자음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한 이 규칙은 활음형성 규칙 다음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두 규칙의 적용순은 내재적으로 결정된 규칙순(intrinsically ordered rule)이라 할 수 있다.

활음형성 규칙 [9]는 단어경계에서 실현되는 (2)의 예를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h/탈락 규칙과 활음형성 규칙(2)가 적용되면 'yə>ye'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장모음화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활음형성 규칙은 용언어간에서만 실현되어 형태론적 범주화가 필요한 규칙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말모음 /i/에 처격어미 /-에/가 연결되면 활음형성이 이루어진다. 용언의 (1a)와 평행되는 현상이다.

(5) 체언 어간말모음 /i/의 활음화

a. sank'oktɛgye(산꼭대기-에, 사61)

k'orɛšə(꼬리-에서, 교37), cf. k'ori(사128)

tuŋʤeda(둥지(巢)-에다, 교36), cf. tuŋʤi(사19)

munʤegye(문제기(→먼지)-에, 교49)

mogadʒeda(목아지-에다, 교21),
mudyešə(무디(→纈物)-에서, 교16), cf. mudi-ri(-로, 교27)
kadɛgyeda(가대기(→쟁기)-에, 교32), cf. kadɛgi(회viii)
namuatʃʰɛgyeda(아채기(→나무가지)-에다, 교46)
tsumənye(주머니-에, 교51), tsumənyenin(주머니에는, 교51)
tipkarye(짚가리-에, 교14), tʰəryešə(터리(毛)-에서, 교35)
hɛdodye(해돋이-에, 교35), sabaryešə(사발(沙鉢)-에서, 교65)
hamdʒe(함지-에, 교70)
tasiše(다섯시-에, 회309), myeš-še(몇 시-에, 회384,385)
b. tandyee(단지(壺)-에, 교35), cf. tandi(사20,50)
tsaryee(자리(席)-에, 교7,52)
(6) 체언 어간말 모음 /u/의 활음화
a. saŋ twešə(상(床) 뒤-에서, 사40)
šiswɛ twe(시쇄(<시쇠→時計) 뒤-에, 사84)
cf. tue(뒤-에, 사32), tuuru(뒤-로, 사32), tuulli(사63)
tui(뒤, 사40), tuy(회435, 표41), tuu(뒤-를, 사82)
b. kue k'enin karaktʃi(귀(耳)-에 꿰는 가락지, 사103), cf. kuy(사)
ue(위-에, 교13), cf. uru(위-로, 교35), uu(위-를, 교55)
huenin(후(後)-에는, 교9), huwe(후-에, 사87)
nuege(누구-에게, 회24), nuegešə(누구-에게서, 회258,261)
nue(누구-에, 사117), nuegeri(누구-에게로, 회195)
c. wenhan maam, i(어리석은 마음, 사29)
wen tsiši(바보 짓-이, 사29), wen,i(바보, 사28)
cf. uenige, uengwa(바보-에게, 바보-와, 교27)
uensirəbunge(바보-스러운 것이, 교26)
uenhan(바보같은, 교26)
tʃu-en,i(주인(主人, 사63), tʃwen-nim(주인님, 회92)
tʃweni(주인-의, 회233, tʃweni nuygio(주인이 누구요, 회91)
tuəm mudye(두엄 무디(무더기)-에, 교70)

(5a)는 체언어간말 모음 /i/ 다음에 처격어미 /e/가 통합되면 어간말 모음 /i/가 /y/로 활음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b)에서 보듯 비어두 위치이지만 활음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장모음화한 경우도 있다.[25]

한편, (6c)의 예들은 주로 한자어인데 어간 내부에서 /e/ 앞의 /u/가 수의적으로 활음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는 활음화가 수의적으로 이루어진다. (6a)는 동일화자의 발음에서 어간말음 /u/가 수의적으로 활음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6b)는 활음화를 거부하고 있는 예들이다. 이렇게 체언의 단음절 어간모음 /u/에 처격어미 /e/가 연결되면 활음화는 수의적이다. 이는 어간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의미의 불투명을 예방하고자 함에서 비롯된, 음운 행위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체언어간과 용언어간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체언 어간의 활음화는 어간 모음이 /i/일 경우에는 비어두위치에서의 활음화만을, 어간모음이 /u/일 경우에는 단음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활음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것은 육진방언에서 말음이 /u/인 어간은 거의 단음절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간말에 한정첨사 '-이'가 접미되어 어간말 모음은 이중모음이거나 그것이 단모음화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어두위치에서의 /u/의 활음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26] 물론 'namu, musu'와 같이 단음절이 아닌 2음절 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명사는 特殊한 語幹交替를 보이는 것들로서, 이들 명사에 처격어미 /e/가 통합되면 'naŋge, mukke'로 실현되어 활음화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어간모음이 /i/인 단음절 체언에 처격어미 /e/가 통합될 때의 활음화를 다루지 못한 것은 순전히 자료의 빈곤 탓이다.

체언어간에서 보여지는 활음화 현상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

25) 이러한 장모음화가 어간의 성조와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발화 환경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26) 어간말에 '-이'가 통합되어 uy>ü로 단모음화하였거나 uy로 이중모음화한 예들에 대해서는 4.7.2, 4.7.3을 참고. 그러나 예외도 보인다. turúe(들(野)-에), turúi(들(野)-이, 표41)가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음형성규칙(3): 10]

$$\begin{matrix} \delta & \{i\} &]_{N.s.} & e & & & & \\ 1 & 2 & & 3 & \Rightarrow & 1 & \begin{bmatrix} 2 \\ -\text{voc} \\ +\text{high} \end{bmatrix} & \begin{bmatrix} 3 \\ (+\text{long}) \end{bmatrix} \end{matrix}$$

마지막으로 어간말모음이 /uy/나 /iy/인 명사 어간에 처격어미 '-에'가 통합될 때의 활음화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6) pargwena(발구-에나, 사122), cf. parguy(발구, 사71,100)
surgena(수레-에나, 사122), cf. surgiy(수레, 회64,77/사12,81)
surgeešə(수레-에서, 교序10)
surge(수레-에, 회372,424, 사15,34,43,96,83,88)

(7) musiyri(무슨 일로, 교15)

例 (6)은 앞서 보았던 용언어간의 활음화 (4b)와 동궤의 음운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에 의해서 도출된 표면형이다.

	/surgiy+e/	/parguy+e/
	surgiye	parguye
y 탈락	surgie	pargue
모음탈락	surge	――――
활음형성	――――	pargwe
표면형	[surge]	[pargwe]

(7)은 /musiŋ/과 /ir/의 복합어이다. /musiŋ+ ir/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이 약화탈락한 다음에 /ii/>iy/로 활음화한 것이다. (4d)와 같이 단어 경계에서 활음화한 예가 된다.

3.5 鼻母音化와 鼻子音 /ŋ/의 脫落

六鎭方言에는 末子音이 軟口蓋 鼻音 /ŋ/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ŋ/에 선행하는 모음이 鼻母音化하는 음운현상이 있다. 그리고 발화 환경에 따라서는 鼻母音化 이후에 鼻音性이 소거되는 현상(음운론적으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의 /ŋ/ 탈락)도 발견된다.[27]

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會話>의 편자들은 六鎭方言의 鼻母音을 전사하기 위하여 'ҥ'라는 전사문자를 마련하였다. 편자들은 이 문자에 대하여, '先行母音의 鼻音發音'(Nosovoe proizn. predsh glasnago)이라는 설명을 두었다. 따라서 이 설명에 의하면 이 轉寫文字는 이 문자에 선행하는 모음이 鼻母音임을 指示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會話書인 <會話>와 口語體로 된 이야기책 <敎科書>에는 일정한 환경에서 /ŋ/이 탈락한 예가 다수 보인다. 또 동일 어사라 하더라도 이 비음성에 대한 轉寫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記寫者의 실수가 아닌, 실제 發話 環境에 따른 變異를 충실하게 전사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어느 정도는 規範性이 强調될 수밖에 없는 <辭典>에서는 이 비음성이 <會話>, <敎科書>보다는 전사에 더 많이 반영되었다. <敎科書>, <會話>와 <辭典>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發話 환경의 유형(style)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前者가 casual style이라 하면, 後者는 formal styl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정 국지 방언의 文體的 要因에 따른 變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육진방언의 鼻母音化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면서 비모음화 환경을 살피기로 한다.

---

27) 六鎭 以南의 東北方言에서는 육진방언과는 달리 /ŋ/ 이외에, /i/앞의 /n/도 선행모음을 鼻母音化한다. 例), sõi (손(手)-이)

(1) a. tsɨmsiŋ, tsɨmsɨ̃ɨ(짐승(獸), -이, 사37)
  b. tsɨmsiŋ, tsɨmsɨ̃y(짐승(獸), -이, 사93), cf. tsɨmsɨy(교16)
  c. tsɨmsɨ̃ əbudzak(짐승-의 고함소리, 사97)
   tsɨmsɨ̃ tʰəri innɨn kadzugi(짐승-의 털이 있는 가죽, 사61)
   tsɨmsɨ̃ partʰop, tsɨmsɨ̃ partʰobi(짐승-의 발톱, -이, 사45)
  d. tsɨmsiŋdəri(짐승-들-이, 사viii)
   tsɨmsiŋdərɨ kadunɨn tuŋʤi(짐승-들-을 가두는 둥지, 사44)

(2) a. šədaŋ, šədɛ̃(書堂, -이, 사135), cf. šədɛ(書堂, 회viii)
  b. šədaŋ paŋ an,i(書堂 房 안, 사44)
   šədaŋ hundyaŋ, hundyɛ̃(書堂 訓長, ~이, 사127)
   padaŋ mullɨ(바닷물-로, 사81), padaŋ murgwa(-과, 교32)

(1a,b), (2a)는 기본격과 주격형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이'가 통합된 주격형에서 鼻母音化를 발견할 수 있다. (1c)는 속격어미 'ɨ'가 어간에 통합된 모습을 보인 것인데, /ŋ/에 선행하는 모음이 鼻母音化하였다.[28] (1d)는 語幹에 子音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연결된 예를, (2b)는 어간 다음에 休止나 單語 境界가 놓인 예를 각각 보인 것인데, 이 환경에서는 비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鼻子音 /ŋ/이 V__+V 환경에서만 선행모음을 鼻母音化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鼻母音化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비모음화 규칙]

$$V \rightarrow [+nas] \,/\, \underline{\quad\quad} (+) \begin{bmatrix} -\text{ant} \\ -\text{cor} \\ +\text{nas} \end{bmatrix}$$

한편, 이 규칙은 /ŋ/이 선행모음을 비모음화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

28) 이와 같은 비모음화 현상은 형태소 내부의 V__V 환경에서도 발견된다.
pɛ̃ɛr,i(팽이, 사137), cf. pɛɛr,i(사13), pyɛ̃uridərɨ(병아리-들-을, 회349)
pãuri(방울(鈴), 회xvi, 사37), tõigi(돌려 감다, 사105,124)

므로, (1-2)의 비모음화한 표면형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모음화 이후에 동화주 /ŋ/이 탈락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ŋ/탈락 규칙]

$$\begin{bmatrix}-\text{ant}\\-\text{cor}\\+\text{nas}\end{bmatrix} \rightarrow \phi \ / \ \begin{bmatrix}\text{V}\\+\text{nas}\end{bmatrix} \underline{\qquad}$$

그런데 '鼻母音化 規則'은 鼻母音이 音素가 아니기 때문에 음운규칙이라 하기 어렵다. 반면에 '/ŋ/탈락 규칙'은 음운의 탈락이므로 음운규칙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규칙의 적용은 鼻母音下에서만 가능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모음은 음운론적으로는 /Vŋ/으로 표시되므로 /Vŋ/뒤에서 /ŋ/이 탈락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 설정 대신에 선행모음과 /ŋ/이 하나로 통합(coalescence)되어 비모음화를 이룬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경제적이다.[29]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비모음화 규칙: 11]

$$\underset{1}{\text{V}}\ \underset{2}{\begin{bmatrix}-\text{ant}\\-\text{cor}\\+\text{nas}\end{bmatrix}}\ +\ \underset{3}{\text{V}} \ \Rightarrow \ \begin{bmatrix}1\\+\text{nasal}\end{bmatrix}\ \underset{\phi}{2}\ \underset{\text{V}}{3}$$

한편, (1b)에서는 비모음화의 동기화를 부여했던 후속모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모음이 탈락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i'가 단순히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음운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29) S.A. Schane(1973:62-8)에서도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불어에서는 비모음화(동화)와 더불어 비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 었던 일이고 공시적으로도 비모음이 단위 음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통합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국어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통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a. yãa kogi(양-의 고기, 회270), cf. yaŋ+ɨ
i am-yãa kirɨym hangɨn kapši emmɛo(이 암양의 기름 한 근 값이 얼마오, 회338)
yãa tʰəršir,i(양의 털실, 사93), cf. yaŋtʰəri(양털, 사12)
b. narɨ t'an pãa nɛ tsuo(나-에게 딴 방(房)을 내 주오, 회93)
tu-nyãa passo(두 냥(兩)-을 받소, 회234)
sanyəŋguni tʃʰõo nos'o(사냥꾼이 총-을 놓소(→쏘오), 사114)
c. šəŋnyaallɨ(→돌담-으로, 회368)
kurõllɨ(굴헝(→도랑)-으로, 회369), cf. kurəŋ, kurẽ(사97)

(3a)는 /yaŋ/에 속격어미 'ɨ'가 통합된 예이고, (3b)는 /paŋ/, /nyaŋ/에 대격어미 'ɨ'가 통합된 어형이다. (3c)는 向格 및 造格語尾 '-illɨ'가 어간 /šəŋnyaŋ/, /kurəŋ/에 통합된 어형이다. (3)의 例를 통해서 우리는 격어미의 두음 'ɨ'가 선행모음에 의하여 同化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동화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모음동화 규칙: 12]

$$/ɨ/ \rightarrow V_i \,/\, + \begin{bmatrix} V_i \\ +nas \end{bmatrix} + \underline{\quad\quad}$$

그리고 동화된 후속모음은 (3a,b)와 같이 동화주가 어두음절 위치에 있을 때에는 탈락하지 않지만 비어두음절 위치에 있을 때에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는 사실을 예 (3c)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동일모음 탈락 규칙이 필요하다.

[동일모음 탈락 규칙: 13] (수의적)

$$V_i \rightarrow \phi \,/\, \#(C)V(C)) \begin{bmatrix} V_i \\ (+nas) \end{bmatrix} + \underline{\quad\quad}$$

한편, '-이'와의 통합형인 (1a)의 'tsɨmsĩi'와 (1b)의 'tsɨmsĩy'가 전사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발음의 완급에 따른 음성차에 기인하는 것이다. 'tsɨmsĩy'는 鼻母音化 이후에 /i/가 滑音化한 것이다. 그런데 (2a)

의 'šədɛ̃'는 어떤 음운 과정을 밟아 나타난 표면형인지 알기 어려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음운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syədaŋ+i/	(나)	/syədaŋ+i/
비모음화	syədāi	움라우트	syədɛŋi
축약	syədɛ̃	비모음화	syədɛ̃i
		末音 /i/ 탈락	syədɛ̃

(가), (나) 두 음운 과정 중 (나)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아래 (4)에서 보듯 鼻母音이 'ə̃'인 경우에는 'i'가 鼻母音과 축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약으로 보려는 (가)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 (4-6)의 예를 보고 더 논의하기로 한다.

(4) k'wə̃i(꿩, 사127)
　tə̃i(덩이(塊), 사50)
　tsʰiŋ, tsʰĩi(층(層,秤)/ -이, 사110, 17)
　həgoŋ, həgõi(허공(虛空)/ -이, 사92)
　ioktʰoŋ, moktʰõi(목통(→목청)/ -이, 사19)
　nyə-ʤoŋ, nyə-ʤõi(여종/ -이, 사95)
　ʧətʰoŋ, ʧəttʰõi(젖통/ -이, 사15)
　šəm-tyuŋ, šəm-tyũi(섬 중(島 中)/ -이, 사75)
　šəŋ-tyuŋ, šəŋ-tyũi(성중(城中→시내)/ -이, 사75)
　nyuri pyəŋ, nyuri pyə̃i(유리병/ -이, 사112)
(5) yɛ̃(羊, 회xii), am-yɛ̃(암양, 사71), cf. yaŋdəri(양-들-이, 회51)
　nyɛ̃(냥(兩), 사98), nyɛryɛmun(냥-이라면, 회283)
　nyɛo(냥-이오, 회281), cf. nirgum nyaŋš'i(일곱 兩씩, 회235)
　tyaŋ, tyɛ̃(場(→시장), 사2/ 帳, 사54)
　tɛʤɛ̃nya(대장장이(冶匠人)-이냐?, 회119)
　tɛʤɛ̃(대장장이, 교18, 사50), tɛʤɛ̃ge(대장장이-에게, 사74)

cf. tɛʤaŋdəri(대장장이-들-이, 사74)
tyenʤɛ(→인질, 포로, 교20), cf. tyəntsyaŋ-i(PU. 5)
kodyaŋ, kodyɛ̃(곶(處)/ -이, 사18)
koraŋ, korɛ̃(고랑(畔)/ -이, 사21)
kunyaŋ, kunyɛ̃(구멍(穴)/ -이, 사68)
madaŋ, madɛ̃(마당(場)/ -이, 사25)
martyaŋ, martyɛ̃((→담장 울타리의 말뚝)/ -이, 사113)
naraŋ, narɛ̃(나랑→임금/ -이, 사130)
padaŋ, padɛ̃(바닥/ -이, 사85)
ʧorəŋ, ʧorẽ(조롱(籠)/ -이, 사130)
sodzaŋ, sodzɛ̃(소장(馬具)/ -이, 사101)
šaraŋ, šarɛ̃(사랑(舍廊)/ -이, 사100)
šəbaŋ, šəbɛ̃(서방(님)/ -이, 사31)
nip'adyɛ̃(<nip'adyaŋi, 이빠진 사람/ -이, 사3)
takʧɛ̃(딱정벌레, 사32)
tirɛ̃(회충, 사132), tyəŋgɛ̃(정강이, 사46)
kunbyẽ(군병(軍兵)-이, 회398), cf. kun-byəŋ tsʰadio(회400)
hwaŋ-šyəŋ, hwaŋ-šẽ(황성(皇城)/ -이, 사60,100)
ingyəŋ, ingyẽ(인경, 인경-이, 사46)
tigyəŋ, tigyẽ(지경(地境)/ -이, 사20)
ʧəŋsiŋ, ʧəŋ-sĩy(정승(政丞)/ -이, 사59)
(6) kansɛ(간살, 아양, 사53), cf. kansaŋhan(간살스러운, 사128)
kansā s'ɨgi (사90)
kunyɛ(구멍, 사29), cf. kunyaŋ, kunyɛ(사129)
kwandyɛ(관장(官長), 사91)
sanyəŋ, sanye(사냥, 사76)
su-kʰonyɛ(수코양이, 사39), konyɛ(고양이, 사64)
šəŋnyuwɛ(석류황(石硫黃→성냥), 사110)
šiŋnyɛ(승냥이, 사12)

(5)는 비모음 'ẽ, ɛ̃' 다음에서 어간에 통합된 '-i'가 탈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4)는 주격어미가 그대로 어간에 남아 있어 대조적이다. (4)와 (5)의 차이는 움라우트 규칙을 적용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차이인데,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으로 피동화주가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동화주 'i'가 탈락한 것이다. 이는 'i'가 전설 계열의 /i, e, ɛ/에 계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언에는 /i, e, ɛ/ 뒤에서 /i/가 탈락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i/ 탈락 규칙: 14]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rightarrow \phi \; / \;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 (+\text{nasal}) \end{bmatrix} + ___ \; \#$$

이 규칙은 움라우트 규칙과 비모음화 규칙 이후에 적용된다. 그리고, (6)은 <辭典>에서 鼻母音의 鼻音性이 탈락된 예들을 보인 것이다. 발화 환경에 따라서 비음성이 탈락된 예라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1-3)은 다음과 같은 규칙 적용에 의해서 도출된다.

/tsɨmsiŋ+i/	/tsɨmsiŋ+ɨ/	/šədaŋ+i/	/yaŋ+ɨ/	
——	——	šədɛŋ+i	—	움라우트 규칙 1
tsɨmsĩi	tsɨmsĩɨ	šədɛ̃i	yãɨ	규칙 11
——	——	——	yãa	규칙 12
——	——	šədɛ̃	—	규칙 14
——	tsɨmsĩ	——	—	규칙 13(수의적)
[tsɨmsĩi]	[tsɨmsĩ]	[šədɛ̃]	[yãa]	표면형

우리는 例 (6)에서 비모음의 비음성이 탈락된 예를 보았다. 그런데 口語體를 반영하고 있는 <教科書> 및 <會話>에는 아래 (8)과 같이 V＿V 환경에서 鼻音/ŋ/이 탈락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

(8) namdye (namdyəŋ+i(=주격어미), 남정(男丁)-이, 교7,16,18)
namdyəni (namdyəŋ+ini(n)(=주제격), 남정-은, 교19,28,24)
namdyə tsʰasso (namdyəŋ+i(=대격), 남정-을 찾소, 교11)
namdyə ʧibi (namdyəŋ+i(=속격), 남정-의 집에, 교42)
namdyə (namdyəŋ+i(=여격), 남정-에게, 교16)
namdyəa (namdyəŋ+a(=호격), 남정-아, 교50)
(9) namdyəŋgwa (남정-과, 교28)
namdyəŋdəri (남정-들이, 교18,27-8)
namdyəŋkeri (남정-에게로, 교29)

(8)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앞에서의 '남뎡'(>남정(男丁))의 교체형이고, (9)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및 접사 앞에서의 교체형이다. 예 (8)은 어간말자음 /ŋ/이 V___V 환경에서 탈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ŋ/ 탈락은 위에서 설정한 규칙 [11-13]의 적용으로는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비음성이 탈락되는 또하나의 규칙이 필요하다.

[비음성 탈락 규칙: 15]

V → [- nas] / _____ + VX

이 규칙은 규칙 [11-14]가 적용된 이후에만 적용되므로 이들 규칙 [11-15]의 적용순은 내재적인 순서(intrinsically ordered)이다. 그러나 (8)은 이러한 복잡한 규칙들의 적용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즉 V___+V 환경에서 /ŋ/이 탈락하였다고 기술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간편하다. 예 (8)을 위한 /ŋ/ 탈락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ŋ/탈락 규칙: 16]

/ŋ/ → ϕ / V _____ + V

이 규칙 [16]의 적용 결과는 앞서 우리가 마련했던 규칙 [11], 규칙 [15]를 연쇄적으로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 音聲 表面에서 실현되는 제반 규칙들의 연쇄적 적용의 결과가 하나의 음운규칙으로 표시되는 셈이다. 이것은 복잡한 규칙들의 체계가 보다 간편한 체계로 이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__V 환경에서 /ŋ/이 탈락하는 규칙 [16]에 의하여 (8)의 표면형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에 의하여 이끌어 낼 수가 있다.

/namtyəŋ+ɨnɨ/	/namtyəŋ+ɨ/	/namtyəŋ+i/	/namtyəŋ+a/	
———	———	namtyeŋi	———	움라우트
namtyəɨnɨ	namtyəɨ	namtyei	namtyəa	규칙16
namtyəənɨ	namtyəə	———	———	규칙12
namtyənɨ	namtyə	———	———	규칙13
———	———	namtye	———	규칙14
[namdyənɨ]	[namdyə]	[namdye]	[namdyəa]	표면형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앞에서 설정한 규칙 [11,15]의 적용으로 (8)의 표면형을 이끌어 내는 것과 규칙 [16]을 적용하여 이끌어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동일 화자의 문법 속에 두 개의 규칙체계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는 발화 환경이나 문체적 요인에 의한 變異들을 어떻게 규칙화할 것인가 하는 社會言語學的 문제이기도 하다.

3.6 音韻脫落

3.6.1 母音脫落

3.6.1에서는 어간에 굴절접사가 통합될 때에 발생하는 모음탈락에 대해서 논의한다. 편의상 체언어간과 곡용어미, 용언어간과 활용어미

가 통합되는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6.1.1 體言語幹과 格語尾의 통합 과정에서의 母音脫落

육진방언을 포함한 동북방언의 격어미들은 다른 방언과 그 형태가 매우 다르다. 또 이들 격어미들은 어간형태소의 末音에 따라 여러 이형태로 交替되고, 그 교체 방식도 특이하므로 모음탈락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이형태들의 확인과 그들의 交替 還境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격어미별로 나누어 그들이 어간형태소와 통합되는 양상을 검토한 후, 그를 통하여 모음탈락의 기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v는 語幹 末音이 母音, r은 流音, c는 子音(ŋ과 脣音을 제외한), n는 ŋ, l은 脣音인 예를 보인 것이고, a는 母音同化의 例를 보인 것임.)

(1) 主題格:-ini(n), -uni(n), -ni(n)

v. hanna-ni(하나-는, 회250), konyɛ-ni(고양이-는, 교50)
hanna-nin(하나-는, 교26), swɛ-nin(쇠(鐵)-는, 사41)

r. targar-ini(달걀-은, 사1)
mar-inin(말(馬)-은, 교38,47), parinin(발(足)-은, 교17)

c. kokšəg-ini(곡식-은, 회240),
š^we-ʤədz-ini(소젖(牛乳)-은, 회57)
ank'an-inin(여자-은, 교17), tsʰoninin(촌(村)-은, 사1)
mad-inin(마지(伯)-는, 교17)

n. nara-ni(나라(國)-는, 사1), cf. naraŋ(나라(國), 사130)
namdyə-ni(남정(男丁)-은, 교28), namdyənin(남정-은, 교54)
cf. namdyəŋ-gwa(남정-과, 교47)
namdyəŋ-dər-i(남정-들-이, 교27)
wənsi-nin(원숭이-는, 교46), cf. wənsiŋ-gwa(원숭이와, 교46)
tsimsi-nin(짐승-은, 교26), cf. tsimsiŋ-dər-i(짐승들이, 사117)

l. sarim-unin(사람-은, 교52)

a. kʰooni(코(鼻)-는, 교26)

(2) 對格:-ri, -i, -u

v. sadziy-ri(사자(獅)-를, 교43), nyəmnye-ri(念慮-를, 회125)

r. kuri-ri(구리(→그네)-를, 사43), kɛ-ri(개(犬)-를, 사11,12,64)
mar-i(말(言)-을, 회201,202)

c. əbudzag-i tʰyešə(어부작(→고함)-을 치었어, 교26,69,73)

n. wənsĩ-i(원숭이-를, 교46,47)
namdyə tsʰasso(남정(男丁)-을 찾소, 교11)

l. kərim-u(거름(步)-을, 회435)

a. kʰoo tirgu(코-를 들고, 교41)
kom-u tu-u(곰(熊)의 뒤-를, 교61,16)
ʧib u-u(집 위(上)-를, 교55)

(3) 屬格[30]: -i, -u

c. yəkk-i sɛkkiri(여우-의 새끼를, 교48)
naŋg-i puriri(나무-의 뿌리-를, 교50)

l. sarim-u mari(사람-의 말-을,교56)
nam-u tsuegi(남-의 공, 사133)

n. yãa kogi(양-의 고기, 회247), cf. yaŋ-dəri(양-들이, 회358)
yãa sɛkkidəri(양-의 새끼들이, 교19,28)

a. i <u>aa</u> əsidərkenin tyaŋdzi kosãyə(이 아이-의 부모들에게는 항상 고생이여, 교9)

(4) 造格:-illi, -ulli, -lli, -li

v. kuri-lli han(구리(銅)-로 만든, 사61), mosɛ-lli(모래-로, 회18)
udan <u>utʰi-ri</u> nimnin sarim(羽緞 옷으로, 사2), cf. utʰiy(사80)

r. tol-li(돌(石)-로, 회365,사62)

c. in-illi han(은(銀)-으로 한(만든), 사38)

---

30) 屬格語尾는 '-i'이지만 격표지가 없는 단독형이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예) yəkki sɛk'iri(여우-의 새끼-를, 교46), yəsi sadiyriraŋ(여우-의 사등(→잔등) -으로랑, 교37)

l. tipʰ-ullɨ(짚(稿)-으로, 사109)

(5) 原因格:-ɨllɛ, -ullɛ, -llɛ, -lɛ

v. ɛbi-llɛ(아비 때문에, 사23)
kʰɨnamɛ-llɛšə(할머니 때문에, 교13)
soňňe-llɛšə(손녀 때문에, 교13)

l. hyəŋ-nim-ullɛ(형님 때문에, 사95)

r. pumo əmnɨn adəl-lɛ(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95)
š'iɣasɨ han al-lɛ tsuɣəkkuna(씨앗 한 알(卵)-때문에, 교43)

c. kosundotʰ-ɨllɛ(고슴도치-때문에, 교36)
naŋg-ɨllɛ(나무 때문에(→나무하기 위하여), 교67)

d. emi killɨ hue putʰəɨnɨn tə udyanyešə t'ar-ɨllɛ(어머니가 그 후부터는 딸 때문에 울지 않았어, 교42)
komi uri t'ar-ɨllɛ ogədən, uri mašʉy ponɨn sarim t'arɨ tsʰɛŋgyešə, uri t'ar tɛbirɨ tsuo(곰이 우리 딸 때문에 오거든 우리 마소 보는 사람의 딸을 챙겨서 우리 딸 대신에 주오., 교 60)

(6) 向格:-ɨllɨ, -ullɨ, -llɨ, -lɨ

v. samtsʰʉy-llɨ(샘(泉)-으로, 사76), cf. samtsʰʉy(→샘, 사123)
yatʰɨnde-llɨ(얕은 데-으로, 회27), toŋnellɨ(동네-로, 사40)

r. maal-lɨ(마을(村)-로, 회84), kil-lɨ(길(路)-로, 회84,30,363)
hammul-lɨ(한물(→내(川))-로, 교41), pʰul-lu(풀(草)-로, 교53)

c. tsʰon-ɨllɨ(촌(村)-으로, 표vi)

l. šəŋnim-ullɨ(형님-에게로, 표x)

n. kurŏ-llɨ(구렁(→우물)-으로, 사369), t'a-allɨ(땅-으로, 교53)
šəŋ-nya-allɨ(돌담-으로, šəŋ-nyaŋ+ɨllɨ, 회132)

(7) 與格:-rɨ, -ɨ, -u, -ge, -uge

v. a-rɨ usɨyrɨ(아이-에게 덤-을,교24), komi-rɨ(곰(熊)-에게, 교60)
cf. uri-ge(우리-에게, 표xiv)

l. hananim-u(하나님-에게, 교57)
nʉygidəndi pundzu=an sašərina iri hanɨn sarim-u tsweri

tsu-gɛsso(누구든지 시끄러운 말이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죄를 주겠소, 회130), cf. saramuge(사람-에게, 교55)

(8) 脫格:-irišə, -illišə, -ugešə, -ešə

v. tu-rušə(뒤-로부터, 교21)

cf. tu-irišə→tu-rišə→tu-rušə

r. adir-ešə(아들-에서, 표viii)

n. torã-allišə(도랑-으로부터, 교31)

martya-allišə(말댱(→울타리 사이의 말뚝)-으로부터, 교14)

cf. martyaŋ(사113)

l. sarim-ugešə(사람-에게서, 표xv)

(9) 資格格:-illi, -lli, -li

v. naɣanɛ-lli(나그내(→손님)-으로서, 교20,24)

ts^hadi-lli(차디(→대장, 우두머리), 대장-으로서, 교47)

(10) 器具格:-illi, -lli, -li

v. ts^hɛ-lli(채(채찍)-로, 교32), hwɛts^hɛ-lli(회초리-로, 교51)

r. pal-lišə(발(足)-으로, 교25), k'ul-li(꿀(蜜)-로, 교55)

위 예들은 각 격어미들의 異形態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語幹 末音에 따른 交替形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음탈락의 양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어미들의 이형태들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는 語幹 末音에 따라 交替되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형태들이 형태론적 重加現象을 보이기도 하고(-in, -ini, -inin 등), 鼻音 'ŋ'의 弱化脫落과 같은 음운현상에 의하여 어간과 격어미의 교체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1-10)의 예들을 어간말음의 환경과 그에 따라 교체되는 어미들로 구분하여 도표화하고 모음탈락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31]

31) 이 表는 本文의 例 외에 <露韓會話를 위한 單語와 表現>의 序文에서 引用한 것이다. 1.3.3에서 밝힌 바와 같이 <露韓會話를 위한 單語와 表現>에는

格語尾	子音下	流音下	脣音下	/ŋ/下	母音下
主題格	-ɨnɨ(n)	-ɨnɨ	-unɨn	-nɨ(n)	-nɨ(n),-ɨnɨ(Xv-vnɨ)
對 格	-ɨ	-ɨ	-u	Xv-v(ɨ)	-rɨ, Xv-v(ɨ)
屬 格	-ɨ, ϕ	-ɨ, ϕ	-u, ϕ	Xv-v(ɨ)	Xv-v(ɨ)
造 格	-ɨllɨ	-lɨ	-ullɨ	Xv-vllɨ	-llɨ
與 格	-ige	-k'e	-uge	-ge	-ge
	-k'e	-k'e	-k'e		
原因格	-ɨllɛ	-(ɨl)lɛ	-ullɛ		-llɛ
向 格	-ɨllɨ	-lɨ	-ullɨ	Xv-vllɨ	-llɨ, -gerɨ(有情體)
	-ɨrɨ				
資格格					-llɨ
器具格				-lɨšə	-llɨ
處 格	-e	-e	-e	-e	-e, -ge(有情體)
奪 格	-ešə	-ešə	-ešə	-gešə	-gešə
		-k'ešə	-ugešə		
	-ɨrɨšə	-lɨšə	-urɨšə	Xv-vllɨšə	

(공란은 확인할 수 없는 곳임. ( )는 괄호 속의 음으로도 실현됨을 뜻함. Xv_v는 格語尾의 頭音 (ɨ)가 선행모음 'v'에 동화됨을 의미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 어간과 격어미들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ɨ/ 탈락을 규칙화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ɨ/ 탈락에는 형태론적 제약이 있어서 이 음운현상이 단일한 기제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어간말음이 母音과 流音인 경우에는 격어미의 두음 /ɨ/가 예외없이 탈락하지만, 주제격어미 '-ɨnɨ(n)'의 頭母音 /ɨ/는 流音下에서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 (1r)가 그 예이다. 또한, 對格語尾는 語幹末

六鎭方言의 格語尾와 그 統合 環境 및 그에 따른 악센트 移動 等에 대하여 詳細히 說明하고 있다. 資格格, 器具格의 공란은 Kazan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그 交替 형태로 미루어 造格 및 向格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與格의 '-k'e', 奪格의 '-k'ešə'는 선행하는 어간말자음이 /n, m, r/인 경우에 출현한다. 그리고 與格의 '-k'e'는 尊稱과는 무관하다. 例), adɨrk'e(아들에게), mardərk'e(말(馬)들-에게), k'otdərk'e(꽃들에게)

音이 流音을 포함한 子音일 때에는 '-ɨ/u', 母音일 때에는 '-rɨ'로 교체된다. 따라서 對格語尾 'ɨ'는 어간말 자음이 流音 /r/이라 하여도 그 자신이 탈락하면 격 機能이 喪失되므로 탈락되지 않는다. 單音節의 格語尾는 탈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격어미의 이형태들인 '-ɨ/-u, -rɨ'는 하나의 基底形態로 表示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交替 환경도 명확하지 않다. 즉 '-ɨ'는 원칙적으로 자음 뒤에만 연결되지만, (2a)의 'k^{h}oo'(=k^{h}o+ɨ)처럼 1음절이면서 개음절인 어간에도 통합된다. 主題格의 '-inɨ(n)'도 이와 동일하다. (1a)의 'k^{h}oonɨ'는 'k^{h}o+inɨ'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론적 제약 때문에 主題格과 對格語尾는 /ɨ/ 脫落 規則의 논의에서 제외된다.[32] 그런데 주제격이나 대격어미가 아니라도 流音 아래에서 /ɨ/가 탈락하지 않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5d)가 그 예이다.

對格과 主題格을 除外한 格語尾에서의 /ɨ/탈락 규칙은 다음과 같다.

[/ɨ/탈락 규칙: 17]

$$/ɨ/ \rightarrow \phi\ /\ [+voc] + ____\ x\ ]_{\text{dec. ending}}$$

한편, 어간말 자음이 /ŋ/인 경우에는 /ɨ/로 시작하는 격어미가 어간에 통합되고, 이어 /ŋ/이 선행모음을 鼻母音化 시키고 그 자신은 탈락한다. 그 이후에 격어미의 두음 /ɨ/는 어간 모음에 동화되거나 동화된 이후에 短母音化한다.(例 (1n-8n) 참고)[33] 따라서 鼻母音化 규칙, 母音同化 규칙은 適用 順位에 있어서 /ɨ/탈락 규칙에 후행한다. 이들 규칙의 적용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34]

---

32) 음운탈락에 있어서의 형태론적 제약에 대해서는 李秉根(1981)을 참고.

33) 비모음화 및 비음의 약화탈락에 대해서는 3.5를 참고할 것. 모음동화에 대해서는 3.7을 참고할 것.

34) 아래 규칙 중에서 자음군단순화 규칙은 모음 사이에서 세 자음이 연결될 수 없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rr/이 음성 표면에서 [-ll-]로 실현된 것은 V___V 환경에서 /rr/이 [-ll-]로 실현되는 음성 규칙에 의한 것이다.

	/mosɛ+irrɨ/	/kir+irrɨ/	/t'aŋ+irrɨ/
/ɨ/탈락	mosɛ rrɨ	kir rrɨ	———
자음군단순화	———	kirr	———
비모음화	———	———	t'ã+irrɨ
모음동화	———	———	t'ã+arrɨ
표면형	[mosɛllɨ]	[killɨ]	[t'ãallɨ]

3.6.1.2 用言語幹과 語尾의 統合에서의 母音脫落

3.6.1.2.1 語尾의 頭母音 /으/의 탈락

개음절로 끝난 용언의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연결되면, 이 語尾의 頭音 /으/는 탈락된다. 아래 (1-5)는 그 예이다.

(1) a. ʧədzɨ məŋnɨn mɛdotʰi sɛk'idəri məgiryari(젖을 먹는 멧돼지 새끼들을 먹-으려고, 교50)

b. tsararyarɨ(자라(→넉넉하다)-도록, 회397, 교53)

karyarɨ(가-려고, 회364), murə poryarɨ(물어보-려고, 교52)

c. maʎʎarɨ(말(勿)-려고, 교33,29)

pəʎʎarɨ(벌(得)-려고, 교71)

(2) a. məgira(먹-으러, 교17), ədɨra (얻(得)-으러, 교46,54)

b. s'ara kaʤagu(사(買)-러 가자고, 교59)

pɨyra kašə(베(削)-러, 교42), šeŋgira kašə(섬기-러, 교34)

c. salla(살(生)-러, 교33,56)

(3) a. šiɾiragu(신(載)-으라고, 교48)

b. mallagu(말(勿)-라고, 교17)

(4) a. məgɨmyəŋ(먹-으며, 교6), arɨmyəŋ(앓(患)-으며, 교6)

harɨmyəŋ(핧-(舐), →핥-으며, 교26)

b. noŋgumyəŋ(나누-며, 교6,16)

c. hɨndɨrmyəŋ(흔들-며, 교74)

(5) a. pomun(보(視)-면, 교52), tsumun(주(與)-면, 교71)

b. pirmun(빌(祈)-면, 교71)

위 예들은 語幹 末音이 母音, 流音, 유음을 제외한 子音일 때, 연결어미 '-으랴르', '-으랴', '-으라고', '-으멍', '-으문'의 통합 양상을 보인 것이다. (1-5)의 (b-c)를 통하여 이들 어미의 두음 /으/는 母音과 流音 아래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의 어미들과 같이 어간 말모음 뒤에서 두음 /으/가 탈락하는 어미들은 '-으마', '-으랴문'(-으려면), '-은', '-을까', '-으련만', '-으리라', '-으리만이(-으리 만큼) 따위가 있다.35)

그런데 이들 예와는 달리 '-으'가 탈락하지 않고 先行하는 語幹末母音에 同化되거나 그대로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6) a. s'ɨɨmni(쓰-읍니다, 교11)
 b. tsuksumni(죽(死)-습니다, 교11)
 nossɨmni(놓(置)-읍니다, 교11)
 c. yəumni(열(實)-읍니다, 교9)
 saamni(살(生)-읍니다, 회200)

(7) a. pöupte(보이-읍디다, 교25)
 tswɛupte(죄(搾)-읍디다, 교26)
 poupte(보(視)- 읍디다, 교26)
 b. kassupte(가(去)-았읍디다, 교26)

(8) haamdu(하(爲)-음둥→합니까 ? , 교23)
 aʎʎəŋ haamdu(안녕하십니까 ?, 교23)

(9) notʰyaaniukkuəni(놓(放)-지 아니했지요, 교74)

(10) a. kaaňňa(가(去)-느냐 ?, 교32)
 pooňňa(보(視)-느냐 ?, 교66)

35) 이들 어미의 두음을 '매개모음' 혹은 '조성모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金完鎭(1972)의 견해대로 '으'가 자음충돌을 막기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방언에서도 '-다가', '쟈니,' '-그라', '기라', '-길래', '-마당', '-겠', '-기만', '-는가', '-냐'와 같은 어미들이 어간에 통합될 때에는 '으'의 삽입을 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으/를 이들 어미 형태소의 頭音으로 처리한다.(李秉根:1981)

t^hiiňňa(치(打)-느냐 ?, 교31)

puruuňňa(부르(呼)-느냐 ?, 회215)

b. saaňňa(살(生)-느냐, 교23), uňňa(울(泣)-느냐, 교35)

위 예는 육진방언의 聽者尊待法 語尾들이다. (6)의 聽者尊待法 語尾는 語幹 末音에 따라 '-읍니'와 '-습니'로 교체되는데, 그 환경은 (6a,c)와 같이 어간 말음이 母音이거나 流音일 때에는 '-읍니'가, 流音을 제외한 子音 뒤에서는 '-습니'가 연결된다.[36]

(8)도 역시 母音과 流音 뒤에서는 '-읍두(둥)', 子音 뒤에서는 '-습두'로 교체된다. (9)의 '-읍궈니'도 역시 동일하다. (10)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은냐'가 연결된다. (10)의 語尾 '-은냐'는 (6-9)와는 달리 '스'로 시작되는 교체 이형태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서는 결코 탈락하지 않는 특이한 형태소이다.

이처럼 이들 語尾(母音과 流音 뒤에 출현하는 異形態)의 頭音 '으'는 결코 脫落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행어간의 말자음인 流音을 탈락시킨다. 그러므로 이 때의 '으'는 流音을 脫落시키는 齒音 /ts, t, s, ts^h/과 더불어 自然部類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나 '으'와 齒音은 어떤 資質로도 自然部類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語尾의 頭音 '으'가 母音 뒤에서 脫落되지 않는 것은 形態論的 制約이다.[37]

그리고 (6-10)의 文法 形態素들의 頭音 '으'가 선행모음과 統合될 때에는 선행모음에 동화되어 長音化한다. 이것을 音韻脫落에 의한 報償

36) 이 語尾들은 通時的으로 다음과 같은 變化 段階를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

X[+voc] + -숩+니>ᄋᆞᆸ니>읍니>음니(움니)

X[-voc] + -습+니>ᄉᆞᆸ니>습니(숨니)

X[+voc] + -숩+더+이>ᄋᆞᆸ더이>읍데(웁데)

X[-voc] + -습+더+이>ᄉᆞᆸ더이>습데(숩데)

六鎭方言의 '합쇼'체 서술형 종결어미도 이와 유사한 형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voc] 뒤에서는 '-읍구마', [-voc] 뒤에서는 '-습꾸마'로 교체된다.

37) 이 문제는 3.5.2 자음탈락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으'로 시작하는 어미형태소가 '스'로 시작하는 교체 이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으'가 모음과 유음 앞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밝혀 두고자 한다.

的 長音化가 아니고, 母音同化에 의한 長音母化라고 단정할 수 있는 根據는 예 (1-5)의 文法 形態素의 頭音 '으'가 같은 환경에서 결코 長母音化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말미암는다. 즉 (1-5)의 頭音은 탈락하기 때문에 長母音化를 경험할 수 없고, 반대로 (6-10)의 頭音 /으/는 탈락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이 방언의 母音連結制約에 의하여 선행모음에 同化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38)]

용언어간과 어미 형태소가 통합될 때에 실현되는 /으/ 탈락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ɨ' 탈락 규칙: 18]

/ɨ/ → ϕ / [+voc] +______ x]$_{\text{infl. ending}}$

(對格, 主題格 語尾 및 聽者尊待法의 先語末語尾를 除外한 語尾의 頭音 '으'는 流音과 母音 앞에서 脫落한다.)

이 규칙은 결국 앞서 보았던 체언 어간에서의 /으/ 脫落 規則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진방언의 굴절 어간이 어미와 통합될 때 발생하는 /으/ 脫落 規則은 위 규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3.6.1.3 用言 語幹末母音 脫落

용어 어간말 모음 /으/에 부사형어미 '-어'가 통합되면 /으/는 탈락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1) masi+a→masadinin(부서지는), masa nok^{h}u(부수어 놓고, 교 59)
    cf. masigi(→부수다(碎), 사55, 95, 96)
  kisi+ə→kisə onara(끌어 오너라, 교28)
    cf. k'isigu tɛŋgigi(끌-고 다니기, 사119)

---

38) 語幹 母音과 活用語尾의 統合 과정에서, 滑音形成 혹은 母音同化에 의하여 'aa, oo…' 등으로 실현되는 것을 편의상 '長母音化'라 부르기로 한다. 이 長母音化 現象은 3.7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s'ɨ+ə→s'ə, cf. s'ɨgi(쓰(書)-기, 사79)
t'ɨ+ə→t'ə, cf. t'ɨgi(뜨(浮)-기, 사73)

위 '으' 탈락은 다음과 같은 규칙의 적용에 의한 것이다.

[어간말 모음 'ɨ' 탈락: 19]

$/ɨ/ \rightarrow \phi / ____ + V$

한편, 위 어간 모음 '으'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될 때에는 어느 모음이 탈락되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증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악센트가 없는 어떤 어간 형태소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된, 다음과 같은 교체형을 가정해 보기로 한다.

xɨ + ɨ́ → xɨ́

만약 위와 같은 交替形이 출현한다면 어간 모음이 탈락한다고 할 수 있다. 어간 모음이 '으'인 어사로는 '크-'(大), '끄-'(消), '뜨-'(浮,織), '쓰-'(用,冠,苦)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악센트를 지닌 어사들이다. 말음이 /ɨ/인 어간 중에서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 있다면 이를 검증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터이나, Kazan 자료에는 그러한 어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母音으로 끝나는 어간에 'ɨ'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면 'ɨ'가 탈락하므로 어간 말음이 'ɨ'일 때에도 語尾의 頭音 'ɨ'가 탈락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간과 어미가 同一한 母音일 때 어느 모음이 탈락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系列의 母音들이 同一한 音韻 行爲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간 모음이 '아, 어'일 때 부사형어미 '-아/어'가 통합되면 어떤 모

음이 탈락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악센트 실현을 고려하여 다음 세 어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39)]

(2) 차-(滿)	(3) 서-(立)	(4) 자-(眠)
tsʰát'a	šə́do	tsára
tsʰágu	šə́t'a	tsát'a
tsʰági	šə́s'o	tsádu
tsʰánik'a	šəgú	tságe
tsʰámyən	šəgí	tsáragu
tsʰánik'a	šəník'a	tsánik'a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 모음 '아, 어'에 부사형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모음조화 규칙('-아/어' 교체 규칙)에 의거, 어간모음이 /아/일 때에는 '-아'로, 어간모음이 /어/일 때에는 '-어'로 교체된다. 그 결과로 동일 모음이 중첩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한 모음이 탈락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탈락된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탈락되지 않는 경우, 동일 모음의 중복으로 실현됨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4)류는 'tsaara'(자-아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4)류의 모든 어간들이 그러한 장음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분명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탈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모음이 탈락하는 것일까? 이는 악센트 실현을 端緒로 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2)는 固定的으로 악센트를 지니는 어간인데, '-아' 역시 악센트가 있는 어미이므로, 이 경우 어느 모음이 탈락하였는 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3)은 악센트가 없는 어간인데 교체형에는 악센트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악센트가 없는 어간모음이 탈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4)의 유형도 (3)과 같이 부사형 어미가 어간에 연결될 때에는 어두 음절에 악센트가 놓이지만 대부분의 자음어미들이 이 어간에 연결될 때에는 악센트가 어미 쪽에 놓인다.[40)] (4)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접미되었을 때 (3)과

39) 활용어간의 악센트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5.2.2를 참고할 것.

같은 악센트 실현을 보이는 것은 이들 어간 모음이 부사형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간 모음과 어미가 동일한 모음일 때에는 어간 모음이 탈락한다고 결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문제, 즉 어간모음 /으/에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통합되면 어간의 /ɨ/가 탈락된다고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보다 간편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모음 탈락 규칙: 20]

$$\begin{bmatrix} +\text{back} \\ -\text{round} \end{bmatrix} \rightarrow \emptyset \; / \; ____ + \begin{bmatrix} +\text{back} \\ -\text{round} \\ -\text{high} \end{bmatrix}$$

3.6.1.4 呼格語尾 '-아' 앞에서의 체언 어간말 모음 /i/탈락

이 방언에서는 호격어미 '-아' 앞에서 어간의 말모음 /i/가 탈락하는 예가 있다. 다음 (1)을 보자.

(1) a. ne, <u>taksura</u>, məlliri nara tɛŋgidi marara(너, 독수리야!, 멀리 날아 다니지 말아라, 교50), cf. taksuri-gwa(독수리-와, 교19)
   b. hedzɛba(허수아비-야!, 교58), cf. hedzɛbi-rɨ(허수아비-를, 교58)
   c. mitsʰura(→물뱀, 교36)
   hanbənɨ kosundotʰiwa, <u>mittsʰurigwa</u> marhɛ <u>mitsʰura!</u> narɨ tirye noara.(한번은 고슴도치와 물뱀이 말해, 물뱀아! 나를 들여 놓아라, 교51)
   d. ʧəb-a(제비(燕)-야!, 표vi), cf. ʧebi(사39,52, 표vi)
   e. sɛɛk-a(새애기(→처녀), 사29), cf. sɛɛgi(사66,29)

위 (1a~e)의 어사들의 기저형태는 /taksuri/, /hetsɛpi/, /mitshuri/, /tsyepi/, /sɛɛki/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어사들의 어간말 모음

40) 위에서 제시한 활용형 이외에 (4)의 '자-' 類에 속하는 어간의 악센트 실현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이들 어간의 악센트 변동에 대해서는 5장을 참고할 것.

/i/가 호격어미 '-아' 앞에서 위와 같이 탈락하는 것이다. 어간 말음 /i/는 호격어미를 제외한 다른 모음어미 앞에서는 결코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탈락 현상은 형태론적 범주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d)가 'tʃeb-a'가 아니고 'tʃəb-a'라는 사실이다. 이는 불규칙 활용 어간이나 특수교체어간과 유사한 교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교체 이형태들이 단일한 基底語幹으로부터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한 예가 된다.[41]

3.6.1.5 체언 어간말모음 뒤에서의 계사 /-이-/의 탈락

계사 /-이-/는 체언어간말 모음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탈락된다. 다음 몇 예를 보인다.

(7) a. konyɛriguna(고양이-이로구나, 교26)
  cf. sut^{h}argiriguna(수탉-이로구나, 교26)
 b. yəŋgerida(여기-이로다, 교47)
  mɛrida(매(鷹)-이로다, 교23)
  tʃ^{h}adirida(차디(→대장)-이로다, 교47)
  cf. maririda(말(言)-이로다, 교14)
  maringaagu(말-인가 하고, 교14)
 c. p^{h}əsiširaŋ(버섯-이랑, 교23)
 d. hwaŋgariranin(황가리(→족제비)-이라는, 교16)

---

41) 호격어미 '-아' 앞에서 체언의 어간말 모음 /i/가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 왔다. 宋喆儀(1977, 1990)에서는 /i/가 脫落하는 것으로, 李珖鎬(1985)에서는 /i/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호격어미 앞에서는 처음부터 /i/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 (1d)는 李珖鎬(1985)의 견해를 지지해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宋喆儀(1990:10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맹꽁아'에서 '-이'가 脫落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계사 '이-'/는 '으' 탈락과는 달리 모음 뒤에서만 탈락한다. 즉, '으'는 流音과 母音([+voc]) 뒤에서 탈락하지만 계사는 유음 뒤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i/의 음운론적인 강도가 /r/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ɨ/는 같은 고모음인 /i/보다도 음운론적인 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6.2 子音脫落

자음탈락은 자음들 상호간의 혹은 자음과 모음의 계기적인 연결과정에서 보이는 음운현상인데, 이 음운탈락의 동기화는 음운론적인 요인 이외에도 형태론적인 요인들이 개재하고 있다. 육진방언에서 보이는 자음탈락, 즉 流音脫落, 어간말의 /h/탈락으로 각각 나누어 기술한 다음, 이러한 자음탈락의 기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6.2.1 流音脫落

용언의 어간말자음인 流音 /r/이 후행하는 活用語尾와 統合될 때에 일정한 部類의 子音들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流音脫落이라 한다. 이 탈락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만 보인다는 形態論的 制約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락의 동기화에는 음성적인 조건, 형태론적 조건, 음절구조상의 제약 등 여러 제약 조건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李秉根:1981) 여기서는 육진방언의 유음탈락에 관여하는 이러한 제반 제약조건들을 살펴 탈락의 기제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a. kadyanik^{h}ɛtta(갈(耕)-지 아니하겠다, 교32), kadyanik^{h}u(교32)
mopši kudi mao(몹시 굴-지 마오, 회132),
tirimidi(들이밀-지, 교38)
tɨdyanyesso(들-지 않았소, 교7)
tsɨdyɛnio(질(泥)-지 아니하오, 회20)

modidyanik'ʰi(모질-지 아니하게, 교66)
puttudi motʰɛšə(붙들-지 모했어, 교48)
sadi mot haɣɛtta(살(生)-지 못하겠다, 교70,36), sadi(사65)
udi mara(울(泣)-지 마라, 교42), udyanyešə(울지 않았어, 교42)
hədi mallagu(헐(毁)-지 말라고, 교56)
mədyanindešə(멀(遠)-지 않은 데서, 교67)
kirginin kida(길기는 길-다, 교39)
nəda(<너흘(嚼)-다, 교40), cf. nəərgi(사33)
hindida(흔들-다, 교8)
sada tsugəšə(살(生)-다가 죽었어, 교30)
udaga(울(泣)-다가, 교61)

b. nəʤagu(<너흘(嚼)-자고(→씹자고), 교24)
tiʤagu hɛšə(들(入)-자고 했어, 교57)
muʤagu hɛšə(물(齒)-자고 했어, 교67)
uʤa(울(泣)-자!, 교8)

c. noninge(놀(遊)-는 것이, 교7), sanin(살(生)-는, 교50)
həningə pogu (헐(毁)-는 것을 보고, 교56)
naninge(날(飛)-는 것이, 교7)
musuŋ aňa(무엇-을 아냐?, 교73)
kiňa(길(長)-냐?, 교39), aninya(알(知)-느냐?, 교44,54)

(2)a. kin(길(長)-은, 사104), kinge(긴 것이, 사26)
tsin kaŋʤɛɛgi(질(泥)-은 강재기(→진탕), 사22)
k'an(깔(伸)-은, 사62), tsan(잘(小)-은, 사58)
modin nɛŋgi(모덜-은 나무(→아주 큰 나무)-가, 교5)
kanin(가늘(細)-은, 교66), kanin pɛ(가늘-은 베(布), 사121)
ədingə(어질(仁)-은 것, 교32)

b. anda(알(知)-ㄴ다, 교56), yəni(열(實)-으니, 교57)

(3)a. naŋge yəumni(나무에 열(實)-읍니다, 교9)
mɛndimni(만들(作)-읍니다, 교11)

saamni(살(生)-읍니다, 회200)
tsɨɨmni(질(泥)-읍니다, 회21)
b. kaaňňa(갈(耕)-은냐?, 교32)
saaňňa(살(生)-은냐?, 교23)
uňňa(울(泣)-은냐?, 교35).
c. kau(갈(耕)-오, 교6), nau(날(飛)-오, 교7)
modiu(모딜(惡)-오, 교11), muu(물(咬)-오, 교4)
moo(몰(驅)-오, 교19), tau(달(甘)-오, 교4)
puttuu(붙들-오, 교5), həu(헐(毁)-오, 교54)
tsɨu(즐(泥)-오, 교8), au(알(知)-오, 교36,75)

(1)은 /r/이 /-ti, -ta(ka), -tsya, -tsyaku, -nɨn, -nya/와 같은 어미들 앞에서 탈락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어미들은 모두 /t, ts, n/과 같은 齒音으로 시작되는 것들이다. /t, ts, n/은 /r/과 함께 [+coronal]이라는 資質로 自然部類를 이루는데,[42] 이와 같이 /r/이 同一한 調音位置에서 조음되는 같은 계열의 자음들에 의하여 탈락되는 것은 同器管的 異化作用이다.(李秉根:1981)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음 탈락 규칙: 21] /r/ → ϕ /____ + [+coronal]

그러나 체언 어간과 격어미의 통합에서는 이러한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용언 어간의 어미와의 밀착도가 체언의 그것에 비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體言이 自立的인데 반해 用言 語幹은 依存的이기 때문에 어미들과의 癒着關係가 鞏固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多樣한 音韻現象을 惹起하는 것이다.

한편, (2)는 流音으로 끝나는 어간에 '-으'로 시작되는 어미들인 '-은,

42) 이 방언에서는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s/ 앞에서 /r/이 탈락하는 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派生語에서는 /s/ 앞에서 /r/이 탈락한다.

-으니' 가 통합될 때 /r/이 탈락됨을 보인 것이다. 이들 어미들의 첫소리 '-으'는 선행하는 어간 말음 /r/에 의하여 탈락되고 그 이후 [규칙 17]에 의하여/n/ 앞에서 다시 /r/이 탈락한 것이다.

'으'탈락 규칙 적용 이후에 /r/이 탈락하는 것은 국어의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즉, /sarn/과 같은 子音群은 국어의 음절구조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r/이 탈락하여 /san/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a)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다.

	/sar+ɨn/(生)	/tsir +ɨn/(泥)	/kanɨr+ɨn/(細)
/ɨ/탈락	sarn	tsirn	kanɨrn
자음군단순화	san	tsin	kanɨn
[표면형]	[san]	[tsin]	[kanɨn]

그런데 (3a-b)는 (2a-b)와 달리 어간모음이 장음화하였다. (2)에 적용된 규칙들과 그 적용순위에 의하면 예 (3a-b)의 표면형은 [kaňňa], [samni]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간모음이 장음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에서와 같은 규칙들의 적용순서에 의하여 (3a-b)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a-b)의 어미들은 앞 3.6.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 아래에서는 결코 탈락되지 않는 특이한 존재들인 것이다. 오히려 (3)의 예들은 (2)와는 반대로 어미의 두음 '으'가 /r/을 탈락시킨 것이다. 그런 다음 '으'가 어간모음에 동화되어 [kaaňňa], [saamni]와 같이 장모음화된 어간이 표면형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3)의 예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순서에 의하여 도출된 어형이라 할 수 있다.

	/kar+ɨnnya/	/sar+ɨmni/
/r/탈락	kaɨnnya	saɨmni
모음동화	kaannya	saamni
[표면형]	[kaannya]	[saamni]

여기서의 문제는 /r/탈락의 動機化를 부여한 어미의 頭音 '으'의 存在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表面的으로는 /r/탈락의 音聲的인 條件을 發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으'를 기저에서 /스/로 설정하는 추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telescoping rule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형태론적인 문제로 돌려, 이들이 통시적인 음운과정을 경험한 化石化된 遺形으로 처리할 것인가. /z/를 基底音素로 설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방언에는 [z]가 /ts/의 自由變異音으로 존재하므로([dz]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z]로 실현되기도 한다.(<會話> 序vii))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z/가 동일한 환경에서 음성 표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43] 따라서 이 문제는 '-습-'과 교체 이형태를 이루는 '-읍-'계 어미의 앞에서 /r/이 탈락한다는, 유음탈락의 형태론적 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미 '-읍니'는 '-습니'라는 異形態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의 설명이 가능하나 '-은냐'의 경우는 그러한 길이 막혀 있다. 그러므로 '-은냐'는 일단 유음탈락에 관여하는 특이한 형태소로 설정해 두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44]

---

43) /z/를 기저음소로 설정하면 음운현상의 기술이 간편해질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 즉 특수 명사의 어간교체나 악센트의 변동 등에서도 이들 어미의 두음 '으'나 하오체 종결어미 '-오'는 자음어미처럼 행동하므로 육진방언의 음운현상을 간편하게 기술할 수는 있다.

44) 語尾 '-은냐'는 특이한 疑問形 語尾이다. 이 어미의 두음 /으/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음을 탈락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읍니, -읍데'의 첫소리 '으'와 동일한 음운행위를 보인다. 그러나 '-읍니, -읍데'는 폐음절 어간 다음에는 '-습니, -습데'로 교체되는 이형태소가 존재하지만 '-은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小倉進平(1927:22)에서 이 어미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느야·느냐 : 手下에 대한 경우, 하느야·햇느야·하깃느야·조회야 또는 하느냐·햇느냐·하깃느냐·조회냐와 같이 동사의 어간에 첨가하여 쓴다. 일반적으로 느야·느냐의 어느 것을 쓰지만, 茂山, 會寧, 鏡城, 慶源, 慶興 지

통시적인 맥락에서는 (2)의 '-읍니'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예가 (3)의 하오체 종결어미 '-오'이다. 이 어미 앞에서도 /r/이 탈락함을 (3c)의 예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어미도 '-읍니, -읍데' 따위의 어미처럼 폐음절 어간 다음에서는 '-소'로 교체된다. 따라서 '-읍니' 따위의 어미와 '-오' 앞에서 유음 /r/이 탈락하는 기제는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육진방언의 流音脫落에 관여하는 形態素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形態素들을 敍法, 분포 환경에 따라 나누고 그에 따른 교체 이형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子音下	母音과 流音下
서술	하오체(현재)	-소	-오
청유	합쇼체(〃)	-습(숩)쇼	-읍(웁)쇼
서술	합쇼체(〃)	-습(숩)궈니	-읍궈니
서술	합쇼체(〃)	-습(숩)니	-읍(웁)니
보고	합쇼체(〃)	-습(숩)데	-읍(웁)데
서술	합쇼체(〃)	-습구마	-읍구마[45]
의문	합쇼체(〃)	-슴두(둥)	-음두(둥)
서술	하오체(미래)	-수리	-우리
의문	해라체(현재)	?	-은냐

<표1>에서 우측의 어미들이 /r/로 끝난 용언어간에 연결되면 /r/이 탈락한다. 그리고 어미의 첫소리 '으'는 선행하는 어간모음에 同化된

방에서는 한냐, 햇냐, 하갓느냐와 같이 쓰인다."

45) 황대화(1986:115-6)에 의하면 '-꾸마'와 '-꿔니'는, "모두 높임을 나타내는 알림토로서 그 쓰임이 비슷하나 의미적 색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꾸마》, 《꼬마》는 흔히 친근한 사이에 쓰이나 《꿔니》는 보다 정중성을 나타내려고 할 때나 또는 생소한 사이에서 높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나 그 사용율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어미는 억양에 따라 의문이나 명령어미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다. 이러한 경우의 어미의 첫소리 '으'에 의한 유음 /r/탈락은 형태론적인 사실로 돌릴 수밖에 없다.

(3c)의 'yəumni'는 '-ɨmni'가 아니고 '-umni'로 나타난다. 이것은 후행자음 /m/에 의한 역행적 동화인 것으로 보인다. <會話>와 <敎科書>에서는 /-ɨmni/와 /-umni/의 양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1음절 어간과는 달리 2음절 어간인 (3a)의 '만들-'는 'mɛndɨmni'로 장모음화하지 않았다. 이는 '-읍니'가 어간에 통합될 때에 장모음화한 다음 어떤 발화 환경에서 短母音으로 실현된 것이라 여겨진다. 장모음로 실현된 'puruunnya'(부르(呼)-은냐?)와 같은 예가 그것을 증명한다.[46]

3.7 長母音化와 母音의 音韻論的 强度

지금까지 六鎭方言의 여러 音韻現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音韻現象과 관련된 長音化 현상을 산발적으로 다루어 왔다. 여기서는 이들 長音化 현상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그 機制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長音'이란 용어의 개념은 非聲調地域語의 音長과는 다르다. 音長은 하나의 音節이 2 mora의 時間的 길이를 갖는 것을 지칭하지만 본고에서의 長音이란 활음형성에 의한 보상적 자음화 외에 母音同化에 의하여 2개의 동일모음이 계기적으로 실현되는 2 mora의 시간적 길이를 지칭한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2 mora의 시

46) 육진방언에서는 應諾法 語尾 '-으마' 앞에서는 어간말의 /r/이 탈락 하지 않는다. 이 어미의 두음 '으'는 중부방언에서는 유음 /r/을 수의적으로 탈락시키기도 하지만(李秉根:1981) 이 방언에서는 아래 a-c처럼 모음과 유음 앞에서 탈락될 뿐이다.

母音下: oma(오(來)-으마, 교50), nirɨma(니르(謂)-으마, 교50)
流音下: putturma(붙들-으마, 교26), pirma(빌(祈)-으마, 교74)
其他(同化): nooma(놓(置)-으마, 교39)

간적 길이를 갖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한 음절 모음이 내재적으로 지닌 음량(quantity)을 의미하며 후자는 음운과정에 의한 장모음화라는 차이가 있다.

비성조지역에서의 音長은 어두 음절 모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운율적 자질이며 그것이 示差的 機能을 갖지만, 六鎭方言에서의 長音은 滑音形成에 의한 報償的 長音化, 또는 相異한 두 모음의 연접으로 인해 그 중의 어느 한 모음이 다른 모음에 동화됨으로써 실현되는 장음화이며, 때문에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도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47] 편의상 활음형성에 의한 長母音化, 母音同化에 의한 長母音化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장모음화로 결과하게 된 동기화와 음운론적 과정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모음체계 내지는 모음 음소 상호간의 위계 등과 관련지어 장음화의 내적 기제를 살펴볼 것이다.

3.7.1 曲用上에서의 母音同化와 長母音化

(1)a. i aa əsidərkenɨn tyaŋdzɨ kosãio(이 아이-의 부모들에게는 항상 고생이오, 교9)

b. paa tirigi(←pa+ɨ(對格), 바(索)-를 꼬기, 사11), cf. pa(바, 사9)

moo nəmə(묘(墓)-를 넘어, 사132)

tuu t'argwa kanɨn sarɨmdəri(뒤-를 쫓아가는 사람들, 사82)

ʧip uu hərə t'ɛɛgira šidzɛgirɨ hɛɛšə(집 위-를 헐어 때기를 시작했어, 교56)

konyɛ kɛrɨ part^{h}obullɨ k^{h}oo həbešə(고양이가 개를 발톱으로 코를 할퀴었어, 교15)

---

47) 崔明玉(1982), 趙賢叔(1985)에서는 후행모음이 선행모음에 동화되는 현상을 '完全順行同化'라 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를 '母音同化'라 부르기로 한다. 'kasɛɛbi(<kasiɛbi, 丈人, 사40. cf. kasiemi(丈母, 사120)' 혹은 'sɨy-emi(시어머니, 사101), seemi(회198)'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는 逆行同化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子音同化'라는 술어에 어울리도록 한다는 뜻도 있다.

mur tsuy k^{h}oo tɨrgu marɣɛ(물쥐가 코-를 들고 말해, 교41)
mari k^{h}oo buu(말(馬)이 코(鼻)-를 부오, 교序10)
ts^{h}wani tɛŋgini, adəri əbudzagirɨ t^{h}imyəŋ ap^{h}u podyanik^{h}u kɨ tuu t'argwa tɛŋgidaga(배(船)-가 다니니, 아이들이 고함을 치며 앞을 보지 않고 그 뒤-를 좇아 다니다가, 교16)

c. nundərɨnɨ pyedigu, k^{h}oonɨ kakkuri kas'upte(눈(眼)-은 베지고 코-는 갈구리 같읍디다, 교26)
šiŋnyɛnɨ(승냥이-는, 교29)

d. tuuru(뒤-으로, 사32,63), tuullu(뒤(後)-으로, 교61)
uurɨ(위(上)-으로, 회111), uullɨ(위-으로, 사81)

(2)a. narɨ t'an pãa nɛ tsuo(나-에게 딴 방-을 내주오, 회93)
ʧ^{h}õo nok^{h}i(총-을 쏘다, 사77)
sanyəŋguni ʧ^{h}õo nos'o(사냥꾼이 총-을 쏘오, 사114)
komi sɛkkinin moktoksãa nok^{h}u(곰새끼는 목독상-을 놓고,교67)
sãa pogu(상(床)-을 보고, 교66)
nɛ nüryee tu nyãa passo(내 이레에 두 냥(兩)-을 받소, 회234)
madzuu wa(마중(迎接)-을, 교58)
nɛ kosãa mani hɛsso(나는 고생-을 많이 했소, 교7)

b. yãa kogi han-budɛ kapš'i emmɛo(양(羊)-의 고기 값이 얼마오, 회270)
yãa kogiraŋ kargiraŋ kats^{h}wa nosso(양(羊)-의 고기랑 가루(粉)랑 갖추어 놓으시오, 회302)

c. t'aallɨ(땅(地)-으로, 교53)
toraallɨšə(도랑-으로부터, 교31), cf. murtoraŋmɛgi(교31)
ka martyaallɨšə tipkarirɨ ollaɣašə(그 아이들이 담장의 말뚝으로부터 짚가리로 올라갔어, 교14)

위 예는 체언어간에 격어미가 통합되었을 때 실현된 장모음화로서 (1)은 개음절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속격(a), 대격(b), 주제격(c), 향격

어미(d)가 통합된 예를, (2)는 末子音이 /ŋ/인 語幹에 대격(a), 속격(b), 향격어미(c)가 통합된 예이다.

(1)은 말음이 모음인 어간에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ɨ/가 선행모음에 동화된 예들이다. 이러한 모음동화는 單音節 어간에서만 보여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母音同化 規則: 22]

$$/ɨ/ \rightarrow V_i / \#(c)V_i + \underline{\quad}]_{\text{dec. ending}}$$

(2)는 /ɨ/로 시작하는 격어미가 어간에 통합됨으로써 鼻母音化가 이루어지고 이어 위 [규칙22]가 적용됨으로써 결과한 장음화의 예이다. 그런데 (2)의 예들은 비모음 뒤에서 장음화한 것이므로 규칙[22]로써는 (2)의 예들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3.4에서 마련한 모음동화 규칙 [12]와 규칙 [22]는 다음과 같이 통합되어야 한다.

[母音同化 規則: 23]

$$/ɨ/ \rightarrow V_i / \langle\#\rangle(C)) \begin{bmatrix} V_i \\ \langle+\text{nas}\rangle \end{bmatrix} + \underline{\quad}$$

이와 같이 /ɨ/가 선행모음 /a,o,u,i,e,ɛ,ə/에 동화되는 것은 /ɨ/의 음운론적 강도가 이들 모음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음화는 음운탈락에 의한 報償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행모음에 의한 同化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tyooni', 'tyouni'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48] 그리고 예 (1,2)에서의 악센트 실현도 동화임을 입증한다. 즉, 單音節 低調語幹에 高調를 지닌 격어미가 통합되면 통합형의 제 2음절 위치의 모

48) 'tyooni'는 어미의 첫소리 /ɨ/가 어간모음에 동화된 것이고(完全順行同化), 'tyouni'는 어미의 첫소리 /ɨ/가 어간의 원순모음 /o/에 의하여 圓脣性同化를 경험한 것이다.

음이 고조로 실현되고(例, u+íri→uúrí), 고조 어간에 고조의 격어미가 통합되면 제 1음절 위치의 모음이 고조로 실현된다.(例, pá+í →páa) 후자는 고조인 어간에 고조인 어미가 연결되면 첫 고조만이 음성표면에서 실현되는 이 방언의 音調調整規則에 의한 것이다.[49]

(2a,c)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도 모음동화에 의한 장음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체언어간에 처격어미 '-에'가 통합되어도 장음화하는 경우가 있다.

(3) kɨɣəttəri pur putʰun <u>tsaryee</u> wašə(자리(席)-에 왔어, 교54)
ne <u>tsaryee</u> anti mau (내 자리-에 앉지 마오, 교序7)
urane muri innin tandi šəgu isəšə, <u>tandyee</u> muri mikkube ikkillešə, kamuŋgi ətti har šü əpšə(울안에 물이 있는 단지가 서 있었어. 단지-에 물이 (단지의)밑-에 있기 때문에 가문기가 어찌 할 수 없어, 교35)

(4) adzimi, muru <u>tʰundzɛɛ</u> nyə kaʤigu kadaɣa(아주머니가 툰재(→물통)-에 물을 넣어 가지고 가다가, 교15)
t'ɛɛsa(때(時)-에-야, 교59), t'ɛɛnin(때-에는, 교33)
<u>konyɛɛgegwa</u> kɛge(고양이-에게와 개에게, 교15)

(5) <u>toŋsɛɛna</u> orɛbina(동생-이나 오라비-이나, 사5)

(6) surgeešə(수레-에서, 교10), cf. surgɨy

(7) toŋneešə(동네-에서, 교10), cf. toŋne
su-komigeešə(숫곰-에게서, 교65)

(3)에서의 장음화는 滑音形成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1~2)와는 달리 非音節化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음형성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는 어두음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흥미로운 존재들이다. 앞서 3.4에서 제시한 例

49) 이 방언의 악센트와 그 실현에 대해서는 제 5장을 참고할 것.

(5a)는 활음형성시 모든 어사들이 장모음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은 장모음화하였다. (3)과 같은 장모음화가 어떤 기제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3)의 'tandi, tsari'가 각각 'LH'이어서 음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50]

(4~5)는 (3)과는 달리 모음동화에 의한 장모음화의 예이다. (4)는 /e/가 어간모음 /ε/에 의하여, (5)는 /i/가 역시 어간모음 /ε/에 의하여 동화된 것이다. 양자는 모두 완전순행동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설 저모음인 /ε/가 같은 계열의 /i, e/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6)은 滑音形成에 의한 장모음화예이다. (7)은 어간말모음 /e/와 어미 /e/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장모음화의 예이다.

3.7.2 活用上에서의 母音同化와 長母音化

용언어간에서 보여지는 장음화도 상이한 음운론적 과정에 의해서 실현된다. 아래 예 (7)을 보기로 한다.

(8) a. poonňa(보-은냐(→보느냐), 교42)
tsuuňňa(주(與)-은냐(주느냐), 교33)
tʰiiňňa(치(打)-은냐, 교31), puruunnya(부르(呼)-은냐, 회215)
b. saaňňa(살(生)-은냐, 교23, 회189)
ne maudzε mari harts'uru aannya?(너는 마우재말(→러시아어)을 할 줄 아느냐?, 회214)
musirye patʰi kaannya(무슨 일로 밭을 가(耕)냐?, 교32)

(9) haamni(회74,198), haapte(회6,7)
nεεmni(내(出)+읍니, 사23)
seepte(세(→비싸다)+읍데, 회239)

---

50) <教科書>의 자료에는 악센트 표지가 전사되어 있지 않아서 기제를 밝히기 어렵다. 'tsari+e'가 (3)과 같이 장음으로 실현되지 않은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tsarye, 교23) 이것이 실제의 언어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단순한 전사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자료상의 제약으로 알기 어렵다.

(8)은 어미 /-은냐/가 개음절 어간과 /r/말음 어간에 통합되었을 때 실현된 장모음화의 예이다. (8a)는 어간말모음 뒤에서 어미 /-은냐/의 첫소리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8b)는 유음 /r/ 뒤에서 역시 /으/가 탈락하지 않고 오히려 /r/을 탈락시킨다는 점으로 해서 특이한 형태소로 규정한 바 있는데(3.6.2 流音脫落 참고), 이 어미의 첫소리 /ɨ/는 선행모음에 동화된다.

위와 같이 어미의 두음 /ɨ/가 탈락하지 않고 선행모음에 동화되는 또 다른 어미들은 '-ɨmni, -ɨpte, -ɨpkwəni, -ɨmdu, -ɨpkuma' 등으로 3.6.2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들 어미들이 개음절 어간에 연결되면 어미의 두음 /ɨ/가 선행하는 어간 모음에 동화되어 (9)처럼 실현된다.

다음은 어간말 자음이 /h/인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 보여지는 장모음화의 예이다.

(10) nooni(놓+으니, 교31), nooma(놓+으마, 교39)
noonge (놓+은 것이, 회97), noon(놓-은, 표xxvi)
cf. nokʰi(놓-기, 표xxvi)
tyoork'agu(좋+을까 하고, 교73), tyoortsəge(좋+을 적에, 교32)
cf. tyokʰi(좋-기, 표2)
tyəŋge tollɨ <u>ʧiin</u> ʧiptəri əpso?(저기에 돌로 지은 집들이 없오?, 회365), cf. ʧikʰi(짛(作)-기, 표18)
s'aan(쌓-은, 회387), cf. s'akʰi(표38)

(10)은 /h/ 탈락 규칙 [9]의 적용 이후에 모음동화 규칙 [22]의 적용으로 장음화한 예이다. 이 역시 (8-9)와 같이 /ɨ/가 탈락하지 않고 선행모음에 동화된 것이다. 이는 /으/탈락 규칙과 모음동화 규칙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으/탈락은 개음절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 실현되지만, 모음동화 규칙은 반드시 (10)과 같이 자음이 탈락한 이후에야 적용된다는 점이다. (9)도 통시적으로는 자음의 탈락을 경험한 어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다음 (11)은 개음절로 끝난 용언 어간에 부사형어미 '-어'가 통합될 때에 보여지는 장음화의 예이다.

(11) mee-nɛ-t^higi(메(負)-어 내 치기, 사21)
　　mee kagi(메-어(고) 가기, 사86)
　　šeesso(세(算)-었소, 회292), cf. šegi(사116)
　　seedyesso(세(→비싸다)-어졌소, 회240), cf. segi(표29)
　　k'ɛɛnašə(깨(曉)-어, 교69), k'ɛɛdindešə(깨(破)-어진, 교70)
　　nɛɛ tedigi(내어 던지기, 사15), nɛɛ šeugi(내어 세우기, 사16)
　　mɛɛ targigi(매-어 달리다, 사26)
(12) kee tɨrəgagi(기(匐)-어 들어가기, 사11)
　　kee nagagi(기-어 나가기, 사15), cf. kɨygi(사85)
　　p^huru pee nosso(풀을 베(刪)-어 놓소, 회169), cf. pɨygi(표23)
(13) hɛɛra(하(爲)-어라, 회86,101,29), hɛɛdu(하-어도,사67)
(14) irbun kunpẽ turue šəsso(日本 軍兵이 들(野)에 서(立)-었소, 회407), šət'ənde(서-었던 데, 교42,49)
　　kasa s'igɛtta(가(去)-야만 되겠다. 교18)
　　katta onara(가-왔다 오너라, 교22)
　　toŋne ka nirio(동네에 가-아 말하오, 회358)
　　nyədoŋsɛnɨ siyʤibu ani kasso(여동생-은 시집을 안 가-았소, 회194), t'ə(뜨(浮)+어, 사73)
(15) taašə(닿-아서, 교67), s'aašə(쌓-아서, 교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 모음이 /e, ɛ/일 때에는 후속모음 /a, ə/가 선행하는 어간 모음에 同化되어 長母音化하는데, 이는 /a, ə/가 /e, ɛ/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낮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1)이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가 아니고 어미 /a, ə/가 어간말 모음에 동화된 것이라는 점은 아래 악센트 실현이 그것을 입증한다.(편의상 악센트 음절 모음은 'H'로 악센트가 없는 음절 모음은 'L'로 표시한다.)

(16)a. šégi(算), šé + ə́sso šeésso
H H LH

ʧíkʰi(作), ʧíh + ín ʧiín
H L LH

b. ségi(비싸-), sé + ə́ séedyesso
H H HL

tyókʰi(好), tyóh + ín tyóon(tyóun)
H + H HL

c. s'akʰí(積), s'ah + ín s'aán
L H LH

(16a)의 'še-, ʧih-'는 중세국어 聲調論에서 '可變的 上聲'이라 불린 (金完鎭:1973) 어간인데, 육진방언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高調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低調로 실현된다.[51] 이 어간에 '-었-'이 통합되었을 때 어간이 低調化하고 어미가 高調로 실현된 것은 어미가 탈락하지 않고 어간말 모음에 동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6b)는 固定的으로 高調를 지니는 어간이다. 여기에 高調를 지닌 語尾가 연결되면 音調調整規則에 의하여 어미는 저조화한다. (16c)는 저조의 어간에 고조인 어미가 연결된 것이어서 이도 어미가 어간모음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 ɛ/를 제외한 모음에 부사형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이와 같은 동화는 실현되지 않는다.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ɨ, ə, a/일 때에는 어간모음이 탈락된다.[52] 그리고 이미 활음형성 규칙에서 본 바와 같이 어간 모음이 /o, u, i/일 때에는 이들 어간 모음들은 활음화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이들 활용어간의 악센트와 그 변동에 대해서는 제 5장을 참고할 것.
52) 모음탈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간 모음이 /아,어/인 어간에 부사형어미 '-아/어'가 통합될 때에는 어간모음이 탈락한다.

語幹母音	音韻過程
아, 어, 으 + 아/어	語幹母音의 脫落 [규칙: 19]
오, 우, 이 + 아/어	滑音形成 [규칙: 8]
에, 애 + 아/어	母音同化 [규칙: 23]

따라서 부사형어미 '-아/어'가 개음절 어간에 통합될 때에 실현되는 母音同化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母音同化 規則(2): 23]

$$\begin{bmatrix} -\text{high} \\ -\text{round} \\ -\alpha\,\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back} \\ -\alpha\,\text{low} \end{bmatrix} \Big/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 -\alpha\,\text{low} \end{bmatrix} + \underline{\qquad}$$

한편, (12)는 본디 '긔-, 뷔>븨'와 같이 이중모음이었던 어사들이 활음형성에 의하여 장모음화한 예들이다. 체언에서 다룬 예 (6)과 동궤의 음운과정에 의한 것으로 3.4에서 논의한 바 있다.

(13)은 어간 '해-'에 '-아'가 통합되었을 때에도 장모음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하-'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실현되는 특이한 음운과정은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다. 이 문제는 공시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기술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崔明玉:1989) 따라서 기저에서 쌍형어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 어사도 /해-/와 /하-/를 어휘부에 등재시키고 그것을 어미들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방법을 따른다면 (13)의 장음화는 어간 /해-/에 '-아'가 통합된 다음에 모음동화 규칙[16]을 적용시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15)의 예들은 '-아/어'가 어간에 연결될 때 어간말자음 /h/가 탈락한 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미의 첫소리 /아/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15)는 어간 모음 /아/가 탈락하는 (14)와 대조적이며, 또한 앞서의 /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첫소리 /으/가 개음절 어간 다음에서는 탈락되면서, 어간 말음이 /h/인 경우 /h/ 탈락을 경험한 어간 모음 뒤에서는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과는

그 음운과정이 평행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규칙의 적용순서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모음 탈락 규칙이 /h/탈락 규칙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 규칙의 적용 순위를 정해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으로 장모음화 규칙들이 적용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장모음화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17) t'yəəsa(찧(擣)-어야, 회143)
tʃəəšə(짓(作)-었어, 교29)

위 (17)은 非音節化에 따른 報償的 장모음화로 여겨진다. 이러한 보상적 장모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보인다. 아래 (18)이 그 예이다.

(18) hɛɛn,i(下人, 사106-7)
nɛɛgi(이야기, 사91,96,104)
t'ɛɛmu(땜-을, 사34), t'ɛɛgi(때(饮)-기, 사121)

(18)은 통시적으로 어간 내의 두 모음이 하나로 축약되면서 보상적으로 장음화한 예이다. 두 음절로 전사된 (17,18)의 장음화는 2 mora의 시간적 길이로서 '저+고조' 혹은 '고+저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분절 층위와 자립 분절 층위에서의 음운과정으로 해석된다.

```
(17)   L  H                 L H                 LH
       |  |   → h 탈락      | |   → 활음형성    \|
      t'ih ə               t'i ə              t'yəə

(18)  H   L                 HL
      |   |    →축약        |/
      ha  in               hɛɛni
```

그러나 동일한 음운과정을 경험한 다음 (19)의 예들은 장음화하지 않았다.

(19) $t\int^h$ešə(치(養)-었어, 교49)
tʃešə(지(肥)-었어, 교43)

(17)과 (19)가 활음형성이라는 동일한 음운과정을 경험하였음에도 장음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현재로서는 밝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17)이 (10)이나 (15)처럼 어간 말음이 /h/라는 점에서 (19)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도 역시 어간말음이 /h/인 어사들과 개음절 어간인 어사들 사이에 상이한 음운론적 과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3]

3.7.3 母音의 音韻論的 强度

지금까지 모음들이 계기적으로 연결될 때에 발생하는 母音同化의 여러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동화현상은 完全順行同化이다. 앞에서 논의된 곡용과 활용에서 보여지는 모음동화 현상을 동화주와 피동화주로 나누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i + ɨ → ii		u + ɨ → uu
e + ɨ → ee	ə + ɨ → əə	o + ɨ → oo
ɛ + ɨ → ɛɛ	a + ɨ → aa	
e + ə → ee		
ɛ + ə → ɛɛ		

53)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간모음이 /i/인 어사들은 다음과 같이 장모음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사된 자료는 咸北 慶興 地域語임.)

티-(打); t^hyəra(치-어라), t^hyəšə(치-어서) (cf. 중세국어, H)
지-(負); tʃeera(지-어라), tʃeedo(지-어도), tʃeešə(지-어서),(", L)
비-(空); peet'a(비-었다), peešə(비-어서), (<뷔-, R)
이-(戴); neera(이-어라), needu(이-어도), neet'a(이-었다), (", ?)

이러한 차이가 성조와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행자음에 관계되는 것인지 또는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것인지는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

ɛ + i → ɛɛ
ɛ + e → ɛɛ
ɛ + a → ɛɛ

위와 같은 일련의 모음동화로부터 우리는 /ɨ/의 음운론적 강도가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전설 계열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는 開口度에 비례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ɛ/는 같은 계열의 /i, e/를 /ɛ/로 동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모음일 때에는 어간말 모음보다도 어미의 모음이 더 강하다. 3.5.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간말 모음과 동일한 어미가 어간에 통합되면 어간말 모음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또한, 후설모음보다는 전설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ɨ, ə, a/가 /i, e, ɛ/ 뒤에서는 /i, e, ɛ/로 동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高母音보다는 低母音이, 후설모음보다는 전설모음이, 후설모음 중에서는 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强 ←	弱 →	强
弱	i	ɨ	u
↓	e	ə	o
强	ɛ	a	

[母音의 音韻論的 强度]

3.8 子音의 中和

변별력을 가진 자음이 어말 위치나 장애음 앞에서 변별력을 상실할 때 이를 中和라 한다.[54] 중화된 음은 음성적으로 未破音(unreleased)이

54) K. Chung(1980), 崔明玉(1982:142-145)에서는 경음화, 유기음화 현상을 중화현상으로 보았다. 배주채(1989:45-50)에서는 중화규칙 대신에 平音化와 閉鎖音化 규칙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다. 아래 예를 보기로 한다.

(1) mɛtottu(멧돼지-도, 교50), mɛtokkwa(멧돼지-와, 교49)
cf. mɛtotʰi(멧돼지-가, 교49), mɛtotʰige(멧돼지-에게, 교50)
mitti mot hɛšə(및(及)-지 못 했어, 교67,68)
ʧət, ʧəttʰoŋ(젖(乳), 젖통, 사60,15)
cf. ʧəʤi(사60), ʧədzi(젖-을, 사26)
kirittəri(그릇들이, 교54), kirikkwa(그릇-과, 교72)
cf. kirisi (그릇-을, 교57,72)
pʰəsittəri(버섯-들을, 교16), pʰəsitpogu(버섯-보다, 교13)
cf. pʰəsisi(버섯-을, 교13,16,35)
katta onara(가-왔다 오너라, 교22)
apšənin(앞서는, 교19), cf. apʰu(앞-을, 교16,68)
nopso(높-소, 교5), cf. nopʰugi(높-게, 교19/높-기, 사16)
kəkkədimyəŋ(꺾어지며, 교65), cf. kək'i(꺾-기, 사55)

(1)은 어간 말음 /s, s', tʰ, ts, tsʰ/가 장애음 앞에서 /t/로, /pʰ/가 /p/로, /k'/가 /k/로 실현된 것을 보인 것이다.[55] 이 현상은 相關束을 형성하는 有無對立의 음소들이 [有氣性]이나 [喉頭緊長性]을 상실하고 평폐쇄음으로 실현되거나, 치음계열의 마찰음과 파찰음이 같은 치조음인 /t/로 조음방법상의 변동([+strident]→[-strident]의 자질 변경)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현상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中和規則: 24]

$$[+\text{obst}]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nt} \\ -\text{strident} \\ -\text{aspirated} \\ -\text{glottal} \end{bmatrix} \; / \; \text{——} + \begin{Bmatrix} \# \\ C \end{Bmatrix}$$

55) 이 방언에서 어간말자음이 /k', kʰ/인 체언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어의 '부엌, 밖'에 대당되는 이 방언의 방언형은 'pusuk'ɛ'(사52, 79,121), 'pag-itʰe'(사16)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 규칙의 환경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모든 자음 앞에서 장애음들이 /k, t, p/중의 어느 한 자음으로 실현된다고 해야 할 것이나 Kazan자료의 轉寫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가령 /kosuntot^h/(蝟)와 /is'-/(有)의 어간이 어미들과 통합될 때의 예를 보이면,

kosundot^{h}i	/ ___+vx	is'innya	/ ___+vx
kosundottu	/ ___+tx	ittən	/ ___+tx
kosundokkwa	/ ___+kx	ikkillɛšə	/ ___+kx
kosundomman	/ ___+mx	inninderɨ	/ ___+nx
kosundoppogu	/ ___+px	issumni	/ ___+sx

위 예는 語幹末子音 /t^h/, /s/가 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각각 달리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음어미에 따라 상이한 음운과정을 밟아 어간말음이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뒤에서 논의될 邊子音化 規則, 鼻音化 規則, 磨擦音化 規則의 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交替形이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中和規則만으로는 이러한 形態音素論的인 交替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성실현은 자음중화 규칙이 적용된 이후 변자음화와 같은 다른 음운 규칙이 순서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56)]

3.9 硬音化

C_1C_2의 자음 연쇄에서 C_2인 장애음 /p, t, k, ts, s/가 선행자음의 영향으로 경음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음화 현상은 중화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선행자음에 따라 경음화의 실현 여부가 결정되

56) 이승재(1980)는 중화규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기저표시의 어간말자음에 직접 자음동화 규칙을 적용시킴으로써 위 표면형을 이끌어 내었다.

는 음운현상이다. 즉 선행자음이 [+obst]의 자음이면 먼저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p, t, k/가 되고 이어서 C_2인 참자음계의 평음이 경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음화는 선행자음의 자질이나 경계표지 혹은 문법범주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실현 양상이 간단하지 만은 않다. 여기서는 굴절어간이 어미와 통합될 때에 실현되는 경음화 현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이 경음화 현상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육진방언의 경음을 어떻게 轉寫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음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전사에 반영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음운현상을 전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教科書>(序文vi-ix)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한 序文의 기술 내용을 간략히 발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음 표기를 위하여(이전의 <韓國人을 위한 初等教科書>와 달리) 새로이 轉寫文字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п[p'], с[s'], ш[š']이다. 그러나 ч[tʃ']은 轉寫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서문, vi)
2) 無聲의 硬音(sil'nyj gruxoj)은 同一子音의 重複轉寫로 표기. 그러나 母音間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사하였다.(서문, vi)

a. ugušʼi(→웃기떡, 4,10)
b. turts'ɛk'ənɨn(둘째 것-은, 18), turts'ɛk'e(둘째-것이, 18)
settsɛk'ənɨn(셋째 것-은, 64)
c. nöwak'ədən(놓였거든, 21),
mot haɣɛk'ədən(못 하겠거든, 25)
mašigɛk'ənyanɨn(마시겠냐마는, 33)
d. mək'ənyanɨn(먹-겠냐마는, 17), mək'ɛtta(먹-겠다, 43)
šik'ɛtta(식(冷)-겠다, 56)

tsuk'ɛšə(죽-겠소, 69)

3) 단어의 결합시에 나타나는 ɯ(=[ts]), ч(=[tʃ])의 경음은 'т+ɯ'(=[t+ ts]), 'т+ч'(=[t+tʃ])로 분석되므로 그 때에는 두 개의 문자형 'ɯɯ', 'чч' 대신에 그 조건하에서만 'тɯ, тч '로 전사한다.(序文, vii)57)

(예) settsɛ(셋-째, 18), uttʃa(웃-자, 8)
uttʃ^h(우차(牛車), 11), tittʃagu(뜯(採)-자고, 25)
kittʃešə(그치-었어, 37), nottʃagu(놓(置)-자고, 38)

4) /n, r, ŋ/ 다음에서 나는 경음은 경음의 전사문자로 전사함.(서문, viii)

(예) ank'u(앉-고, 38), təŋt'ɛri(→시렁-에, 69)
sirs'o(싫(厭)-소, 4,11,63), kort'ɛ(→고랑(畔), 5),
s'irt'e(쓸 데(用處), 39), kirts'ɛdəri(글자들을, 74)
karts'uru(갈(去) 줄을, 14), harts'əgeni(할 적에는, 44)
məgirk'ə(먹을 것, 6,10), parš'ə(벌써, 7,68)
isirk'ɛba(있을까 보아, 22), irš'e(→날씨, 67)

5) /n, m, r, ŋ/ 다음에 연결되는 경음은 평음으로 전사하였다. 가령, 與格語尾 '-게'는 /-k'e/가 아닌 /-ke/로 전사하였다.(서문, viii-ix)

(예) antʃa(앉-자(앉자마자), 36)
ankanke(안깐(→성인여자)-에게, 42)
namdyəŋke(남정(男丁→성인남자)-에게, 36)

57) <辭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전사문자 [ч"]를 새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辭典>의 이 전사문자는 '놓+자, 그치다, 우차'와 같이 유기음과 관련되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실제 사전 본문의 한국어 전사에서는 이 전사문자가 지시하는 음성을 [ч"]로 전사하였다.(<辭典>의 序文, ix)

wənsiŋke(원숭이-에게, 47), adərke(아이들-에게, 14)
tik^{h}irke(지킬(守)-것이, 31), pisɨrke(빗(梳)을 것이, 31)
sarɨmke(사람-에게, 52)

한국어 경음에 대한 <敎科書> 편찬자들의 이와 같은 관찰 분석과 그 전사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육진방언의 경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

1)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경음을 전사하기 위해 마련한 전사문자에 대한 설명이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ɥ[ʧ']는 전사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형태소 내부에 [ʧ']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화 규칙에 의거 /t, t^{h}, s, s', ts/가 /t/나 休止 앞에서 /t/로 중화된 다음 후속자음에 따라 여러 음운변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전사방법이다. 따라서 /kət-/(步), /is'-/(有), /kosundot^{h}/(蝟)을 [kək-ki](걷-기), [ik-ki](있-기), [kosundok-kwa](고슴돝-과)와 같이 전사한 것이다. 즉 [kək-ki]의 [kək-]의 末音 [k]는 본디 어간말자음 /t/를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그것이 후속자음과 더불어 경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즉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은, 전사는 'kək-ki'로 하였지만 실제 음성실현은 [kək'i]임을 밝힌 것이다. <敎科書>의 이러한 분석적인 전사방법은 <會話>에 이어지지만 2년 뒤의 <辭典>에서는 실제 음성실현을 존중하여 [kək'i]로 전사하였다. <敎科書>(a)와 <辭典>(b)의 轉寫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a. šikki(싣(載)-기, 표4)	b. šik'u(싣-고, 사8,12,101)
kɨrikkwa(그릇-과, 교72)	ʧak'i(작(小)-기, 사57)
tɛkkiwəšə(닫히-었어, 교62)	ək'i(얻(得)-기, 사63)
mɛtokkwa(멧돼지-와, 교49)	uk'i(웃(笑)-기, 사35,108)
mɛkkidu(맡기-도, 교63)	tsɨk'i(짖(吠)-기, 사52)

nɨkkillɛ(늦-기에, 교3) šik'i(씻(洗)-기, 사61)

그러므로 Kazan 자료에서 동일한 자음의 중복전사는 경음을 전사한 것이다. 즉 a는 b와 동일한 음성 사실을 달리 전사한 것이다. 한편, 2)의 예들은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경음의 예들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경음의 전사방법과 다르면서 환경이 특이한 것들이다. 2a)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경음을, 2b)는 접미사 '-째'가 연결될 때의 경음을(편찬자들은 이 접사를 '-재'로 인식한 듯함), 2c)는 선어말어미 '-었-, -겠-'의 말음이 후속자음을 경음화하는 예를, 2d)는 어간말 자음과 어미의 첫 자음이 동일한 자음일 경우에 실현되는 경음은 동일자음을 중복전사하지 않고 경음을 전사하기 위한 문자들로 전사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동일자음의 중복전사는 원칙적으로 자음동화(어간+어미의 결합에서 실현되는)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C_1+C_2의 연결에서 C_1이 /k,p/이고 C_2가 치음일 때에는 아래 예와 같이 C_2가 전혀 경음으로 전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 əptəmyən(없-다면, 사viii), əpsɨryamyən(〃)
əpso(없-소, 사66,69), əptəngeda(없-던게다, 교30)
əpkillɛ(없-길래, 교17), əpki(없-기, 교5/사2)
əpkɛtta(없-겠다, 교31)
məksumni(먹-습니다, 교8), tsuksumni(죽-습니, 교11)
məktyanyešə(먹-지 않았어, 교13)
məktʃagu(먹-자고, 교25), məkso(먹-소, 교17)

이와 같은 전사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2) əktʃillɨ(억지로, 사63), əptarigi(엎드리기, 사100)

이러한 전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간말자음이 /p/이고 후속어미의 첫소리가 /t,k/일 때(혹은 /k/일 때 /t,p/)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어간말 자음이 /t/이고 후속자음이 /k/인 경우에는 'əkki'(<敎科書>), 'ək'i'(<辭典>)와 같이 전사되어 있으므로 즉 경음화하였으므로 어간말음이 /k/이고 후속어미의 첫소리가 /t,p/인 경우에도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폐쇄음 뒤에 폐쇄음이 연결되면 경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음성학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58]

한편, 3)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몇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파찰음의 경음화는 매우 이색적인 표기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과 /ㅎ/ 다음의 파찰음이 유기음화하지 않고 경음화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가령, '그치-'와 같이 형태소의 접합 위치가 아닌 단일 형태소 내부의 유기음을 't+ʧ'로 분석한 것은 有氣音 調音時 나타나는 '구강 폐쇄→개방→지속'의 세 단계에서 '구강 폐쇄' 단계의 음(즉, [t])을 전사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t] 뒤에서는 발음의 완급 등에 따라 [$ʧ^h$]의 有氣性이 强하게 드러나지 않아 경음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한 이유로 전사는 <敎科書>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기음 [$ʧ^h$] 또는 [tʧ]으로 전사되기도 하였다.

> $matts^h$umemyešə(맞춤맞았어, 교65)
> mattʃešə(마치-었어(→부딪히다), 교63)
> $kiʧ^h$iragu(그치-라고, 교75)
> kittʃešə(그치-었어, 교37)

따라서 <敎科書>에서의 3)과 같은 전사는 발화 환경에 따라 [ㅊ]이

58)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어간말 자음이 /p/이고 후속자음이 /k/일 때에는 형태소 내부(차용어의 경우)에서나 어기와 어기의 결합 환경에서 후부 변자음화가 이루어지지만(例, šakkɛ, šapkɛ, šak'ɛ(露語 'šapka') 형태소 경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韓寫上)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위 (1-2)의 환경에서 경음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ʧ'] 혹은 [ʧʰ]에 가깝게 실현된 것을 충실히 전사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辭典>에서는 이러한 音聲을 ч“로 전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전사에서는 ч“[=ʧʰ]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ч“로 인식한 음성이 [ʧʰ]에 가까운 음성으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파열음이 아닌 破擦音의 경우에만 이러한 전사 방법을 택한 것은 [ʧ']이 이 방언에서는 音素로서 機能하지 못하기 때문에(형태소 내부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ʧʰ]의 음역이 넓었던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59] 즉, '놓-'에 /t, k/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되면('-디, -고' 따위) 결코 'nottʰi, notkʰo'와 같이 전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파찰음의 경음을 위와 같이 전사한 것은 어간말자음의 흔적을 남기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웃자'를 [uttʃa]로 전사한 것은 어간 ' 웃'의 말음 /ㅅ/을 의식한 때문이다. 이렇게 전사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kək'i'(걷-기)가 아닌 'kək-ki'와 전사상 일관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轉寫는 이와 같이 하였으나 [ttʃ]의 실제 音聲 實現은 [ʧ']라고 편자들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4)는 有聲子音 아래에서 [+obst] 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전사에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아래 例 (3~4)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六鎭方言에서는 語幹末 子音이 /n, m, r, ŋ/인 경우에는 후속어미의 첫소리인 장애음이 경음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편찬자들이 염두에 두고 제시한 예들이다. 4)의 例들은 모두 /n, r/뒤에 위치한 장애음이 경음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음화를 동기화한 /n, r/은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말 자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예인 '앉-'는 子音群이고 나머지는 관형사형어미 '-(으)ㄹ'이다. 이 어미 뒤에서 형식명사들이 경음화한 것이다.[60] <敎科書>의 편찬자들은 표

59) 푸찔로의 <로한ᄌᆞ뎐>에서도 형태소 내부의 유기음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다.

(예), 곳치다, 굿치(端), 닷티(帆), 솟티(鼎).(졸고:1988)

그러나, Kazan자료는 /ㅊ/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전사방법을 취하였다.

60) 이들 예들은 얼핏보아 중세국어의 표기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중세국

면적으로 동일한 유성자음 아래에서 후속어미의 첫소리가 유성음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경음으로 실현되기도 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그것을 전사에 반영하였음을 언급한 것이다.

5)는 여격어미 '-ke'의 경음 전사에 대한 것인데, 유성자음 뒤에서 경음으로 전사하지 않은 이유를 후속모음 [e]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ke'가 경음으로 전사되지 않은 반면 'məgirk'ə'에서 'k'ə'가 경음으로 전사된 것은 [e]가 [ə]보다 개구도가 작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경음화의 요인을 선행자음과의 연결에서 찾지 않고 후속모음의 개구도에 의지해서 설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어미는 <單語와 表現> 이후의 문헌에서는, 모음 뒤에서는 [-ge]로 자음 뒤에서는 [-k'e]로 전사되었다.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산만하기는 하지만 여러 층위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굴절 환경에서는 어간 말음이 중화규칙을 적용받은 다음, 변자음화와 같은 후속규칙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音韻過程을 거쳐서 비로소 경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敎科書>의 편자들이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을 기술하면서 어간말음이 /n, m, r, ŋ/인 어사들이 굴절어미와 통합될 때 실현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음 /n, m, r, ŋ/뒤에서는 후속어미의 두음이 경음화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Kazan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말음이 /n, m, r, ŋ/인 체언 어간에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통합되는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3)은 그 예이다.

어에서는 '앉고'는 '앉고'와 같이 표기되었고, 후속자음을 경음화 시키는 관형사형 어미는 'ㅭ'처럼 전사한 것이다. 이 例는 본고에서 다룰 과제는 아니지만 관형사형 어미 'ㄹ'이 基底에서는 /ㅭ/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3) a. sarɨmdu(사람-도, 교13), sarɨmdərgwa(사람들-과, 회94)
b. nundərinɨ(눈(眼)-들-은, 교26)
anʤirdəri(안질(→눈(眼)의 높임말)-들-이, 교24)
ank'andər(안깐(→여자-들), 사48)
c. namdyəŋgwa(남정-과, 교47), wənsiŋgwa(원숭이-와, 교46)
d. t'ardəri(딸-들-이, 교59), murdu tsugu(물-도, 교63)

(3)은 체언 어간말자음이 유성자음([+son])일 때에는 후속자음이 경음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4)는 용언의 활용 예를 보인 것이다.

(4) a. myək^{h}əriri samgi(며커리(→미투리)를 삼-기, 사80)
b. šingu tɛŋgigi((신을) 신-고 다니다, 사68)
šapkwɛrɨ angu amu sašərdu ani hɛ(모자를 안(抱)-고 아무 말도 아니 해, 교73)
c. pəm margu(범(虎) 말(勿)-고, 사49), sargi(살(生)-기, 사67)
d. samgi(삶(烹)-기, 사8)
ʧəmdyanin(젊-지 않은, 교40)
e. ank'i(앉(座)-기, 사64,100,104,118)
kɨ kannanɨ kamʧak ani hagu, ank'u isimyəŋ marɨ ani hɛšə (그 여자 아이는 꼼짝 아니하고 앉아서 말을 안 했어, 교59)

(4a)는 어간말자음이 /m, n, r/인 '삼-, 신-, 안-, 살-, 알-' 등의 용언 어간에 '-고, -기'와 같은 어미가 통합되었을 때 어미의 첫자음이 경음화하지 않고 오히려 유성음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61]

따라서 (3)의 체언 어간뿐만 아니라 용언어간에서도 어간말 자음이 /n, m, r/일 때에는 후속어미의 두음이 장애음일지라도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2] 그러므로 이 방언에서의 경음

61) 어간말 자음이 /ŋ/인 용언어간은 발견되지 않는다.

화 현상은 어간말자음이 장애음([+obst])이고 후속자음이 역시 장애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硬音化 規則: 25]

[+obst] → [+glottal] / [+obst] + ___

그리고 (4d)는 어간말 자음군 /rm/일 때에도 역시 후속자음이 경음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子音群單純化 規則의 결과이다.

그런데 (4e)는 첫자음이 /n/인 자음군 /nts/의 예인데, 여기에 장애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통합되면, 경음화가 이루어진다. (2b)와는 달리 (2c)가 경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음화 규칙과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규칙 적용 순위와 관련된다. 즉,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ank'i/는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4e)는 다음과 같이 경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야만 이끌어 낼 수 있다.

	/ants+ki /	/sarm+ki /	/sirh+so/
중화규칙 [24]	ant ki		sirt+so
경음화 규칙[25]	ant k'i		sirts'o
자음군단순화규칙[34]	ank'i	samki	sirs'o
[표면형]	[ank'i]	[samgi]	[sirs'o]

따라서 우리는 경음화 규칙이 자음군단순화 규칙에 앞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칙들을 적용하면 [samgi]가 아닌 [samki]가 도출되므로 유성음과 유성음사이에서 무성자음이 유성음화한다는 음성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은 음운규칙이 모두 적용되고 난 후에 적용되는

62) 이는 비단 체언의 곡용과 용언의 활용에서뿐만 아니라 파생어 형성에서도 동일하다. 즉, 어간말 자음이 /n, m, r/인 활용어간에 접미된 피사동의 접사들의 두음도 모두 [-gu-], [-gi-]로 실현된다.

규칙이다.

[有聲音化 規則: 26]

[-son] → [+voice] / [+son] ____ + [+son]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육진방언의 경음화 규칙은 문법범주나 형태론적 제약없이 실현되는 순수한 음운규칙이다.

3.10 有氣音化

C_1C_2의 음연쇄에서 C_1이 [+obst]의 자음이고, C_2가 후두마찰음 /h/이거나 혹은 그 역일 때 이들 음연쇄가 같은 서열의 유기음으로 統合(coalescence)되는 현상을 有氣音化라 이른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 말음 /h/가 후행하는 어미의 첫소리와 계기적으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외에 '-하-' 접미사가 접미된 어간에 [+obst]인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 '-하-'의 어간 모음 '아'가 탈락하면서 유기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음 (1)은 용언어간 말음 /h/가 [+obst]인 자음어미와 통합될 때의 유기음화 현상이다.

(1) a. nyəkʰi(넣-기, 사32,89), nyətʰi(넣-지, 교17)
nokʰi(놓-기,사75), notʰyaaniukkuəni(놓-지 않았지요, 교74)
notʰyɛnyesso(놓-지 아니했소, 회388), notʃʰa(놓+자, 사ix)
kirəkʰədən(그렇-거든, 교34), tyərəkʰi(저렇-게, 사119)
arkʰillɛ(앓-기에, 사41)
orkʰi(옳-게, 교10), ortʰa(옳-다, 교45)
b. nottʃagu hɛɛdu(놓-자고 하여도, 교38)
mattʃešə(맞-히었어, 교63), mattʃidi(맞히디, 교37)

(2) a. ani=kʰi(아니하-게,부65), ani=kʰi hagi(아니하-게 하기,사75)

tsukti an=ikʰɛs'o(죽지 아니하-겠소, 사68)
an=ikʰek'ədən(아니하-겠거든, 사68)
kadyanikʰɛtta(가지 아니하-겠다, 교32)
tyotʰyɛnitʰa(좋-지 아니하-다, 회321)
tɨttyanikʰu(듣-지 아니하-고, 교56)
b. ašimtʰyɛnitʰa(→고맙습니다, 회89)
ašimtʰyɛnio(→고맙소, 회296)
puršaŋkʰi(불상하게, 교24)
niakʰi ani hagillɛ(이악하-게 아니하기에, 교40)
c. mantʰa(많다, 사4), mantʰyɛniumni(많지 않습니다., 회53)
(3) a. kɨpʰanʤime(급한 김에, 교46)
b. kodišiɣan(고지식한, 교47)
c. mot-hagɛtta(못 하겠다., 교70), mot hagu(못하고, 교72)
ʧok-hagi(족(足)하기, 사128)
k'ɛk'ɛt-han, k'ɛk'ɛt-hagi(깨끗한, 사76)
yak-han mɛgi(약한 맥-이, 사106), yok hagi(욕하기,사106)
taptap han ir(답답한 일,사19), taptap hɛ(답답해, 교72)
(4) maʧʰigi(맞-히기, 사26), ʧəʧʰigi(젖히-기, 사63)
nipʰigi(입-히기, 사64), kopʰinge(곱(倍)-히기, 사24)
pɛkʰigi(박-히기, 사89)

(1a)는 末音이 /h/인 용언 어간에 平音으로 시작하는 語尾가 연결되었을 때 有氣音化한 예이다.

그런데 (1b)는 다소간 논의를 필요로 한다. 3.9에서 우리는 (1b)와 같은 전사가 경음을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1b)의 예들은 /h/가 중화규칙에 의거 /t/로 된 다음 /t/下에서 후속자음이 경음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용인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태소 내부에서도 (1b)와 같은 전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5) kittʃešə(그치-었어, 교37), cf. kitʃʰiragu(그치-라고, 교75)

따라서 (1b)의 전사는 /h/의 중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h/가 후속자음과 통합된 [tʃʰ]을 전사에 반영한 것이다. 이 때 [tʃʰ]가 <教科書>의 편찬자들에게는 [tʃ']으로 인식된 것이고, 이것을 위와 같이 'ttʃ'로 전사한 것이다. 'ttʃ'로 전사된 실제 음성은 [tʃʰ]보다는 유기성이 약화된 [tʃ']에 가까웠던 소리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음성 특징에 대해서는 2년 후에 <辭典>에서 다시 재론된다. <辭典>에서는 이 음성을 전사하기 위하여 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序文,ix) <辭典>의 편찬자들은 이 음성을 전사하기 위해 *ч*"라는 특수한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사전 본문에서는 *ч*"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ч"(=[tʃʰ])로 전사하였다. 이는 그들이 <教科書>에서 'ttʃ'로 전사한 음성이 [tʃ']보다는 [tʃʰ]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辭典>에서 *ч*"으로 전사할 수 있다고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kotʃʰi(고추), hutʃʰi(후추), myətʃʰi(몇(幾)-이)
notʃʰa(놓-자!), matʃʰigi(맞히기)

그러므로 위 (1b)의 예는 어간말의 /h/가 중화된 다음, 후속자음이 경음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언어간말의 /h/에 후속어미의 첫소리가 연결될 때에는 본디 두 자음이 지닌 고유한 자질들을 공유하는 유기음으로 통합되므로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有氣音化 規則: 27]

$$\underset{1}{h} + \underset{2}{\begin{bmatrix} +\text{obst} \\ -\text{cont}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1 \\ \phi \end{bmatrix} \begin{bmatrix} 2 \\ +\text{aspirated} \end{bmatrix}$$

한편, (2a)는 /aniha-/에 후속어미 '-다, -디, -고, -게' 및 선어말어미

'-겠-'이 연결되었을 때 실현된 유기음화의 예이다. (2b)는 본디 語基에 接尾辭 '-하-'가 접미되어 파생된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의 유기음화의 예이다. (2c)도 역시 (2a~b)와 동일하다.[63]

지금까지 우리가 본 有氣音化는 선행음이 /h/이고 후행음이 平閉鎖音인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3)은 /h/가 후행음일 때의 유기음화 여부를 보여주는 예들이다.[64]

그런데 어기에 '-하다'가 통합된 (3a~c)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3a)는 유기음화가 이루어진 반면, (3b)는 아예 /h/가 탈락하고 어기의 말자음이 유성마찰음 [ɣ]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3c)는 /h/가 온전히 전사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대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a)와 (3b,c)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더우기 (3a)의 '급하-'는 (3c)의 '족하-, 욕하-'와 그 파생법이 동일할 뿐더러 어기가 모두 漢字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 필자는 Kazan자료 편찬자들의 전사를 신뢰하여 (3)의 환경에서는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65]

---

63) (2a)의 기호 '='는 <會話>, <辭典>의 편자들이 형태소의 접합 위치에서 어떤 음이 탈락하였음을 지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니하-'에서 '-하-'의 모음 /아/가 탈락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2)에서 보여지는 유기음화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ᄒᆞ-' 가 접미된 용언 어간에 자음어미가 연결되면 'ᆞ'가 탈락하고 유기음화가 이루어진다.(安秉禧:1957, 허웅, 1975:466)

六鎭方言에서의 이러한 어간 교체는 공시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므로 쌍형어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중앙어의 '아니하-'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은 자음어미 앞에서 /anih-/로 출현하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tep^{h}iudyɛnyesso'(덮히지 아니했소, 회19), 'not^{h}yɛnyesso'(놓지 아니했소, 회388)와 같이 나타난다. '않-'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 같-'의 어간 교체는 중세국어의 '만ᄒᆞ-, ᄀᆞᆮᄒᆞ-'의 어간 교체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3.13을 참고할 것. 이 외에 어기에 직접 활용어미가 연결되는 중세국어의 특이한 활용방식도 육진방언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예), sɛŋgakku(생각하고, 교25)

64) 육진방언에서는 접속어미 '-하고'는 쓰이지 않으므로 이 어미와 어간이 통합될 때의 유기음화는 기술할 수 없다.

한편 (4)는 용언어간에 被使動接辭가 접미된 파생어들이다. 이 경우에도 어간말자음 /p, k, ts/에 접사 /-hi-/가 접미되면 유기음화한다.[66] 이 현상은 앞서의 유기음화 규칙과 경상규칙(mirror image rule)으로 통합할 수 있다.

3.11 子音同化

형태소 경계를 중심으로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자음 중 어느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되는 현상을 子音同化라 한다. 자음동화는 同化主에 따라 邊子音化, 鼻音化, 流音化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李秉根:1977) 李秉根(1977)에서는 이 자음동화의 방향성과 제약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음운현상의 내재적 질서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자음 음소들의 位階(hierarchy)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육진방언의 자음동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3.11.1 邊子音化

邊子音이란 조음기관의 兩邊에서 조음되는 脣音과 軟口蓋音을 지칭한다. 따라서 邊子音化란 邊子音이 아닌 치음계열의 자음이 변자음으로 同化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변자음화의 동화주와 피동화주를 살펴보고 동화의 방향과 제약은 어떠한지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 (1)은 피동화주가 후부변자음 /k/에 동화된 예를 보인 것이다.

---

65) 이와 같이 '-하-'와 결합한 어기가 1음절일 때 유기음화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동남 및 서남방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崔明玉, 1982:144 및 李丞宰, 1980:48의 脚注를 참고.)

66) 어간말음이 /t/인 경우에는 /-hi-/가 아닌 /-ki-/가 접미되므로 /t/ 말음 어간에 /-hi-/가 연결된 예는 없다. 뿐더러 /k/말음 어간에도 원적으로 /i/가 접미되므로 그 예는 위 예 이외에 '먹히-'(피동)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뿐이다.

(1)a. <u>púkkwa</u> ʧõé s'ɨo(붓과 종이 쓰오, 회295)
cf. put, púdi(붓(筆)-이, 사78), swɛ púdi(쇠붓(→펜), 사78)
mardəri <u>kokki</u> kəŋgeri(말(馬)들이 곧(直)-게 그곳으로, 교69)
šiŋnyɛ <u>takkira</u> šidzɛgiri(승냥이가 닫(走)-기를 시작을, 교23)
tɨkkininderi(들리(聞)-는 데로, 교14), tɨkkidyaninda(교53)
mukkira(묻(問)-기를, 교70), kəkki(걷(步)-기, 교6)
b. kosundokkwa(고슴도치-와, 교36),
cf. kosundotʰ-illɛ(고슴도치 때문에, 교36)
pakkira(침을) 밭-(뱉-)기를, 교43), kakki(같(如)-기, 교2)
c. kɨrikkwa(그릇-과, 교72), cf. kɨris-ɨ(그릇-을, 교57,72)
ɛkki(앗(奪)-기, 교2), ukku(웃(笑)-고, 교51)
s'ikki(씻(拭)-기, 교2), pəkku(벗(脫)-고, 교24)
d. ikkillɛšə(있(有)-기 때문에, 교35)
e. nɨkkillɛ(늦(晩)-기에, 교2)

(1)은 어간말 자음이 치음계열의 자음([+coronal])인 /t/, /tʰ/, /s/, /s'/, /ts/일 때, 연구개 자음([-coronal])인 /k/로 시작되는 어미들이 여기에 연결되면 이들 치음이 同化主인 후속 자음 /k/에 동화되어 /k/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동화는 위 어간말 자음이 중화규칙에 의거 평음 /t/가 된 다음 다시 동화주인 後部邊子音에 동화된 것이다.

그런데 [-cor] [+cor]의 순으로 자음이 繼起的으로 연결되었을 때에는 변자음이 舌頂的 子音으로 동화되거나 혹은 舌頂的 子音이 변자음으로 동화되는 일은 없다. 이는 변자음화의 동화방향이 逆行的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치음계열의 자음들의 음운론적 강도가 변자음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치음계열의 자음과 前部邊子音이 계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2) pʰəsippogu(퍼슷(→버섯)-보구(→보다(比較)), 교13)

cf. p^{h}əsiš-i(버섯, 사20), p^{h}əsis-ɨ(버섯-을, 교16,35)

sɛppyerigerɨ(샛별-이-에게로, 교24)

šimbar pənnɨnde(신발 벗는데, 교73)

(2)는 (1)과는 달리 후속자음이 前部邊子音일 때의 자음동화 예인데, (1)과 마찬가지로 치음계열의 자음이 前部邊子音에 동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逆의 환경에서는 전부변자음은 치음계열의 자음들에 의하여 결코 동화되지 않으며 또 순행적인 변자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규칙화 하면 다음과 같다.

[邊子音化 規則: 28]

$$\begin{bmatrix} +\text{con} \\ -\text{voc} \\ +\text{ant}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alpha\,\text{ant} \end{bmatrix} \Big/ \underline{\qquad} \ (+) \begin{bmatrix} -\text{cor} \\ \alpha\,\text{ant} \end{bmatrix}$$

(1-2)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치음계열의 자음들이 변자음에 동화된다는 사실과, 이 동화는 역행적이며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변자음이 치음계열의 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전부변자음과 후부변자음이 계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의 동화와 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mušəpku(무섭-고, 교25)

tsapkira(잡-기라, 교70), cf. tsamnɨn(잡-는, 교67)

əpkillɛ(없-기 때문에, 교17), əpkɛtta(없-겠다, 교31)

cf. əmnɨn(없-는, 교45)

nɨpki(눕-기, 교p.5), nɨpku(눕-고, 교63)

(4) šakkwɛ(삽괘(→모자, 러시아語 'shapka'의 借用語), 교22,36)

cf. šapkwɛ(사134)

pakkɛmi(밥개미(개미), 교p.5) cf. 밥개미(김태균:1986)

(3)은 이 방언에서 前部邊子音 /p/가 後部邊子音 /k/ 앞에서 同化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는 형태소 내부(借用語)와 단어 경계에서는 이 후부변자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굴절 환경보다는 형태소 내부에서 이 음운현상이 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後部邊子音 /k/와 前部邊子音 /p/가 繼起的으로 연결된 예는 자료의 제약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필자가 육진지역 출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환경에서는 결코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변자음끼리 계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에는 전부변자음의 후부변자음에 의한 역행적 동화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부변자음이 후부변자음에 비해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後部邊子音化 규칙: 29]

$$\begin{bmatrix} -\text{cor} \\ +\text{ant}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ant} \end{bmatrix} / \underline{\quad\quad} \begin{bmatrix} -\text{cor} \\ -\text{ant} \end{bmatrix}$$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을 종합하면, 육진방언의 변자음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치음은 변자음에 동화되며, 변자음끼리의 연결에서는 前部邊子音이 後部邊子音에 동화되는데, 이러한 동화는 隣接的이며 逆行的이다. 이 子音同化는 자음들의 音韻論 强度가 軟口蓋音, 脣音, 齒音의 순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李秉根:1977, 李丞宰:1980)

3.11.2 鼻子音化

순수자음이 비자음 앞에서 비자음으로 동화되는 것을 비자음화라 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67]

(1) a. kɛumnuŋguma(가집니다(-kɛ+up+nɨn+guma), 교30)
cf. kɛɛ-gi(갖(持)-기, 표16)

67) '鼻子音化'라 한 것은 3.5의 '鼻母音化'와 구분하기 위함에서이다.

todzəŋnomdərgwa(도적-놈들과, 교42)
tsamnɨngətʰyərɨ(잡(捕)-는 것처럼, 교67)

b. unnɨnge(웃-는 것이, 교p.7), pənnɨnde(벗(脫)-는데, 교73)
ʧinnin nun muri(짓-는 눈물이, 교42)
məgəňňa(먹-었냐, 교35)
ponɛɣɛnnɨndu(보내-겠-는-두(→보내겠습니까?), 교57)
pannɨnda(침을 뱉-는다, 교43)

c. kəŋnɨnya(꺾-느냐, 교60), k'aŋnɨnge(깎-는 것이, 교7)
pɛŋnya(백 냥(兩)-을, 교29)
aʤəŋmadaŋ(아적(→아침)마다, 교8), cf. aʤəgi(아침, 표33)

(1)의 자음동화를 동화주와 피동화주만을 고려하여 그 연결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p+n>mn
k, k'+n>ŋn
s, s', tʰ+n>nn
k+m>ŋm

위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비자음 앞에 순수자음이 놓이면 순수자음과 동일한 조음위치의 비자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자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鼻子音化 規則: 30] . C → [+ nasal] / ____ + [+ nasal]

치음계열 자음들의 비음화는 위 규칙 적용 전에 중화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이 비음화는 반드시 동화주인 비음이 순수자음 뒤에 놓일 때에만 이루어지는 역행동화이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환경에서는 앞서의 변자음화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비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순수자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모두 비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2) a. kaʤe karyəmmanɨn(가져 가련마는, 교60)
sooniryəmmanɨ(소원(所願)이련마는, 교74)
cf. mank^{h}ənmanɨ(망-건마는, 교52)
b. ʧ^{h}ammuru(찻(冷)물-을, 교24)
ʧ^{h}ammur tsanɨ(찻(茶)물 잔(盞)-을, 교69)
c. ts^{h}amnaŋge(참나무-에, 교19)

(2)의 예들은 형태소 경계가 아닌 단어 경계에서의 예를 보인 것인데, 같은 비음끼리 연결되었을 때에는 앞서의 변자음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치음계열의 자음이 변자음에 역행적으로 동화된 것이다. 그리고 (2c)는 변자음이 치음 계열의 자음에 의해서는 동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鼻音 중에서도 邊子音의 음운론적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11.3 磨擦音化

舌頂的 장애음이 마찰음 /s/ 앞에서 /s/로 동화되는 현상을 마찰음화라 한다.(허웅, 1965:211-4, 崔明玉, 1982:147-8) 아래 (1)은 그러한 예를 보인 것이다.

(1) kasso(같-소, 교62), kassupte(같-습데, 교26)
k'os-si(꽃-씨, 교ii), cf. k'odz-ɨ(꽃-을, 교7)
myeš-še(몇-시에, 회384,385), cf. myeʧ^{h}-io(몇-이오, 표5)
nasso(낮-소, 교ii)
tari tos-so((달(月)이 돋-소, 교ii)
passuri(받(受)-수리(→받을 것입니다), 회129)

(2) nosso(놓-소, 회302)
nossuri(놓-수리(→놓을 것입니다), 회126)
tyosso(좋-소, 회60), tyossumni(좋-습니(→좋습니다), 회61)
tyossupte(좋-습데(→좋습디다), 회61)
passuri(받(受)-수리(→받을 것입니다), 회129)

(1)의 예들에서 치음 /t^h, ts^h, ts, t/가 마찰음 /s/앞에서 /s/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磨擦音化 規則: 31]

$$\begin{bmatrix} +\text{obst} \\ +\text{cor}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 \,/\, ___ \begin{bmatrix} +\text{obst} \\ +\text{cor} \\ +\text{cont} \end{bmatrix}$$

그런데 (2)는 어간말 자음이 /h/인 어사들의 예이다. (1)과는 달리 치음이 아닌 /h/가 /s/로 동화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h/가 같은 마찰음인 /s/에 의해서 위치동화를 겪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중화규칙이 적용된 이후에(/s→t/) 위 마찰음화 규칙에 의거 (2)와 같은 표면형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번째 방안은 타당성이 인정이 되나 위 마찰음화 규칙과 기제가 다르다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그 역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h/가 특정한 조음위치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h/가 중화규칙에 의하여 중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h/의 중화는 [+sonorant]의 자음 앞에서만 가능하며, /k, t, p, ts/와 같은 자음 앞에서는 /h/가 이들 자음과 통합되어 유기음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s, n/ 앞에서의 /h→t/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은 /nonnin/(놓-는, 표序26)과 같은 비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칙이다.

[/h→t/ 규칙: 32]

$$\begin{bmatrix} +\text{cont} \\ +\text{asp}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str} \\ -\text{glottal} \\ -\text{asp} \end{bmatrix} / ___ \begin{bmatrix} +\text{cor} \\ +\text{cont} \\ +\text{nas} \end{bmatrix}$$

그러므로 예 (1)은 마찰음화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2)는 /h→t/규칙과 마찰음화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각각 표면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68]

3.11.4 流音化

어간과 어미(또는 접사)의 연결 혹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 과정에서 선행어의 어간말자음과 후행어의 頭子音 중 하나가 流音이고(혹은 r-선행자음군) 다른 하나가 鼻音 /n/일 때, /n/이 /r/에 동화되는 현상을 유음화라 한다.

이 유음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정밀하게 기술되었다. 어간과 어미의 연결에서는 유음을 첫자음으로 하는 子音群일 경우에만 順行的 間接同化로서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金完鎭:1972), 또 한편으로는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내지는 자음들 상호간의 위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음운현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이 행하여진 바 있다.(李秉根:1977, 李丞宰:1980)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이 방언의 유음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a. allin sarimi(앓-는 사람, 사4)

68) 이 문제를 이승재(1980), 최태영(1983:40)에서는 유기음화 규칙을 적용시켜 /s/로 변한다고 하고 이 음소가 표면층위에서는 나타날 수 없으므로 /s'/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와 같이 /s→t/규칙의 설정에 의하여 例 (2)의 마찰음화를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nonnin'(놓-는)과 같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마찰음 /h/가 같은 마찰음 /s/ 앞에서 /t/로 실현된다는 점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단점을 지닌다. 배주채(1989:99)에서는 (1)의 예들을 경음화 규칙과 중복장애음 규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ki kunbyə̃e allin kunsɛdəri əpso?(앓-는 군사들-이, 회396)

b. murgən s'ara kaʤagu ki sarimi tsʰɛŋgimyəŋ t'allegwa murəbašə(물건을 사러 가려고 그 사람이 챙기면서, 딸들에게 물어 보았어, 교59)

c. sollamu, sollɛŋgi(소나무, 사110), sollaŋgi, sollaŋge(교46), paktallaŋge(박달나무에, 사70)
mədzəllamdye(머저리 남자-가, 교19)
yaʎʎãi s'adyanitʰa(열 냥(十兩)의 값이 나가지 않는다, 교29)

d. pyəlliri(별일-이, 교6), pyəlliridəra(별일이더라, 교68)

e. iʎʎəne(일 년(一年)-에, 교71)
sa-ʧʰelli(사천리(四千里), 회40)

(1a)는 이 類型의 流音化는 동화주 /r/과 피동화주 /n/사이에 자음이 介在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러 준다. 왜냐하면 이미 流音脫落에서 본 바와 같이 /r/뒤에 /n/이 직접 연결되면 /r/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流音化 規則은 子音群單純化 規則의 적용 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음화 규칙] n → r / rC + ____

그러나, 유음을 첫 자음으로 하는 자음군 /rk/,/rp/,/rpʰ/,/rm/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태소가 연결되면 위와 같은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2) timnɨnda(듦(穿)-는다, PU.565)
pamnɨnda(밟(履)-는다, PU.645,465)

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tillinda, pallinda'가 아닌 오히려 鼻音化 규

칙을 적용받은 표면형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음화, 비음화 규칙을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규칙과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순위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앞서 流音化 規則은 子音群單純化 規則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r-子音群에 위 유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유음화 규칙과 비음화규칙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가 하는 두 규칙의 적용 순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음화에 앞서 비음화규칙을 적용시켜도 (3)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형은 이끌어 낼 수가 없다.

(3)	/arh+nin/	/parp+ninda/
중화	art+nin	――――
비음화	arn+nin	parm+ninda
유음화	arn+rin	parm+rinda
단순화	ar+rin	pam+rinda
	――――	――――
표면음성형	[allin]	[pamlinda]

위와 같이 'pamlinda'와 같은 부적절한 표면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위 유음화 규칙을 수정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조건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개재자음의 조건을 [+coronal]로 한정할 때에는 /h/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 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1)의 예들이 유음화 규칙을 적용받기 이전에 /h→t/규칙을 적용받아 도출되었다고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개재자음의 제약조건을 [+coronal]로 한정하되 유음화 규칙은 /h→t/규칙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칙의 적용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음화 규

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流音化 規則: 33]

$$n \rightarrow r / r \begin{bmatrix} C \\ +\ cor \end{bmatrix} + \underline{\quad}$$

(1)의 예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에 의하여 도출된다.

(3)

	/arh+nin/	/parp+ninta/
/h→t/규칙 (29)	art+nin	———
유음화 규칙(30)	art+rin	———
비음화 규칙(27)	———	parm+ninta
단순화 규칙(31)	ar+rin	pam+ninta
표면형	[allin]	[pamninda]

한편, (1b)는 체언 어간에 접미사 '-네'가 결합된 형이다. 어간에 접미사가 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이 탈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음화하였음을 본다. 이 예 이외에 체언어간에 접미될 수 있는 접미사로서 /n/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는 '-님'이 유일한 것이나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이 환경에서의 유음탈락 내지는 유음화를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1c)는 복합어의 예들이다. 이 경우도 유음화 현상을 볼 수 있다.

(1d-e)는 한자어로서 유음화를 경험한 어사들인데, 전자는 '사잇소리' /n/이 첨가되고 이어서 유음화를 경험한 예이고, 후자는 선행어의 말음 혹은 후행어의 첫소리가 유음이고, 그와 마주하는 음운 /n/이 유음화한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 예들은 고유어의 복합어와 한자어가 모두 동일한 음운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순행, 역행동화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漢字 하나하나를 自立形態素로서 하나의 단어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단어 경계를 사이하고 유음화를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2 子音群單純化

國語에서는 어간말 위치에서 두 자음이, 모음간에서는 세 자음이 연속하여 발음될 수 없는 制約이 있다. 그러므로 어간말 자음군은 休止나 단어 경계 앞에서 어느 한 자음이 탈락하고, 母音間에서 세 자음이 연속될 때에는 그 중의 어느 한 자음이 탈락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음 연결 제약을 논의하기로 한다.

자료에 보이는 이 방언의 音節末 子音群은 /nts, ps, rk, rp, rp^h, rm, rh/이므로[69] 이 방언의 子音群單純化 현상은 자연 이들 자음군들이 시현하는 교체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가 전개된다. 아래 (1)의 예를 보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1) antʃa(앉-자!, 교68), ank'u(앉-고, 교59)
  antaɣa(앉-다가, 교66), antima(앉-지마, 교vii)
    cf. andz-ara(앉-아라, 교68,74)
  kamman(값-만)
    cf. kaps-ɨ(값-을, 회359,377), kapš-i(값-이, 회240,316)
  əpso(없소, 사66,69), əptəmyən(없-더면, 사viii)
  əptəngeda(없-던 게다(→없던가 보다), 교30)
    cf. əps-ɨryamyən(없-으랴면, 사viii)
(2) sut^hakkedu(수탉-에게도, 교20,22)
    cf. sut^hargiriguna(수탉-이로구나, 교26)
  kwɛ-hɨk, kwɛ-hɨrgi(괘흙(→진흙), 사18)

---

69) 이 방언에서는 자음군 /ㄹㄷ/의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핥-'의 반사형은 /핡-/(例, harɨmyəŋ, 핡-으며, 교26)로 나타나 古形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훑-/는 자료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없는데, 필자가 육진지역 출신인으로부터 조사한 바로는 이 어사는 'hulk'o(훑고), hullunda(훑-는다)'로 교체되어 /ㅌ/이 탈락한다. 그리고 /ㄳ/의 예도 발견되지 않는다. '삯'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은 /삭/이다. '넋'은 역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pakkidʒənmadaŋ(밝(曉)-기 前마다, 교25), pak'i(밝-기, 사102)
cf. pargadyešə(밝-아졌어, 교68), pargadigi(밝아지기, 사102)
nɨkku(늙-고, 교13), nɨkso(늙-소, 교vii)
cf. nɨrg-ədyesso(늙-어졌소, 교43)
pukso/pukta/purgunge(붉소/붉-다/붉-은 것이, PU.261)
kɨk'i(긁(搔)-기, 사132)
kukso(굵-소, PU.123)
malgao/makso/makta(맑-으오/맑-소/맑-다, PU.261)
nir-yadɨp(七八, 회42), yadɨpše(여덟 시-에, 회305)
cf. yadɨrbi(여덟-이, 부71)
tɨpki sʉybə(뚫-기 쉬워, 교11), tɨmnɨnda(뚫-는다, PU.565)
popki(밟(踏)-기, 사121)
pamnɨnda/papso/palbara(밟-는다/밟-소/밟-아라, PU.193,465)
syəpta/syəpso(섧-다/섧-소, PU.429), cf. šerbi(서러이, 교70)
yəpso/yəpta/yapso/yapta(엷(薄)-소/엷-다, 얇-소, PU.645)
kirɨ ɨpso(글을 읊-소, PU.707)
samgi(삶(烹)-기, 사8), samso/samnɨnda/salmara(PU.121)
komgi(곪(膿)-기, 교3)
ʧəmdyanin(젊-지 않은, 교40), cf. ʧərmun(젊-은, 교17)

(3) allɨn(앓(患)-는, 사4), arašə(앓-았어, 교35)
sɨrs'o(싫(厭)-소, 교59,63)
kinədyešə(끊-어지었어, 교28)

(1)은 語幹末 子音群이 /nts, ps/, (2)는 /rk, rp, rp^h, rm/, (3)은 /rh/인 例이다. (1)은 C_2가 [+cor]인 예이고, (2)는 C_1이 /r/이고 C_2가 [-cor]인 예이다. (3)은 C_1이 /r/이고 C_2가 /h/인 예를 보인 것이다.

위 예들이 보여주는 자음탈락의 양상은 $C_1C_2+C_3$의 구조에서 C_2가 [+cor]이면 그 자신이 탈락하고, 반면에 C_2가 [-cor]이면 C_1이 탈락한다는 사실로 요약된다.

그러나 子音群 /rh/의 경우는 /h/가 [-cor]임에도 그 자신이 탈락하므로 위 결론과는 상치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h→t/규칙을 세운 바 있다. /rh/ 자음군인 경우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이 규칙이 먼저 적용되므로 (3)과 같은 표면형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子音群單純化 規則: 34]

$$[+\text{cons}] \rightarrow \phi \ / \ \left\{ \begin{array}{ll} \text{C} & [+\text{cor}] \\ __ & [-\text{cor}] \end{array} \right\} + \text{C}$$

3.13 非自動的 交替語幹에서의 音韻現象

六鎭方言에는 체언과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통합될 때에,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는 一群의 어사들이 존재한다. 이들 어사들은 후속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자음으로 시작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語幹 異形態로 交替된다. 交替되는 環境만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音韻論的으로 조건된 語幹 異形態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六鎭方言의 共時的 音韻過程으로는 이들 어간 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어간은 어미와의 통합관계에서 발생한 通時的 音韻過程의 共時的인 顯現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六鎭方言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교체 어간들을 제시하고 교체 類型과 機制를 밝히고 規則化하는 것이 目的이다. 3.13.1에서는 체언 어간의 교체를, 3.13.2에서는 용언 어간의 교체를 다룬다.

3.13.1 特殊名詞의 語幹 交替와 그 類型

特殊한 語幹 交替를 보이는 名詞들은 교체 환경과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語幹 構造에 따라 몇가지 類型으로 나뉜다. 이 명사 어간의 交替 異形態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

어미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또는 單語 境界) 앞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한 것이다.

1. 第 一類型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는 '나무'(木), '구무'(穴)가 있다. 환경에 따라 어간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나무(木)

(가) 母音語尾와의 통합형

1) -이(주격)

tarin toŋne sarimdərkenin <u>nɛŋgi</u> obun toŋsamu tsaraninde, nani urane ʧingə kwa ʧibu ʧərbani t'ɛɛdu, tsaradi mot^handa.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는 <u>나무-가</u> 온 동삼(→겨울)동안 자라는 데(→넉넉한데), 나는 울안에 지은 것과 집(家)을 절반을 때도, 넉넉하지 못하다., 교56)

2) -으르(향격)

manʤə nari noara. <u>naŋgiri</u> olla karyari(먼저 나를 놓아라. <u>나무-로</u> 올라갈 수 있도록., 교48)

šep^hi <u>naŋgiri</u> ollagašə(다람쥐가 <u>나무-로</u> 올라갔어., 교48)

3) -에(처격)

tse nari əttiɤɛňňa?, nɛge tuŋʤi <u>sollaŋge</u> nop^hunde(제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 둥지가 <u>소나무-에</u> 높은데, 교46)

ət'ən yərimɛdərinin <u>naŋge</u> yəumni(어떤 열매들은 <u>나무-에</u> 열립니다., 교9)

taksuri <u>naŋgeda</u> tuŋʤiri t^hirgu sɛk'idəri ʧ^hešə(독수리가 <u>나무에다</u> 둥지를 틀고 새끼를 쳤어., 교49)

kirət^hyanik^hunin <u>naŋgešə</u> musugeranindi tikkidyaninda(그렇지 않고서는 <u>나무-에서</u>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교53)

4) -으(대격)

kige <u>sollaŋgi</u> t^hɛuʤagu haninde(그것이 <u>소나무-를</u> 태우자고

하는데., 교46)

handar-gane tse nangi ta t'εεšə(한 달간에 자기 나무-를 다 때었어., 교55)

5) -으(속격)

nangi puriri p'εʤagu(나무-의 뿌리를 뽑자고., 교50)

6) -울르셔(기구격)

ki nangillišə t'εεgira šidzεgiri hεεšə(그 나무-로서 (불을) 때기 시작했어., 교55)

7) -으느(특수조사, -는)

nangini əpšə(나무-는 없어., 교55)

8) -울래(-때문에, -를 위하여)

nε hanbəni toŋsame namu patʰiri nangillε kašə, nangi tsedεri peešə(내가 한번은 겨울에 숲으로 나무 때문에(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제대로 베었어., 교67)

(나) 子音語尾와의 통합 예

1) -과(공동격)

namu-gwa muri kaʤe oo.(나무-와 물을 가져 오오., 회102)

2) -덜(복수 접미사)

namudəri(나무-들이, 교19)

(다) 複合語에서

k'εεm namukaʤi(개암나무가지, 교59)

namu kaʤilli(나무가지로, 교39)

namu aʤεgiri(나무가지로, 교19)

(2) 구멍(穴)

1) -이(주격)

suk'ungi(숫구멍(頂門)-이, 사120)

2) -들(복수접미사)

suk'umudəri(숫구멍-들이, 사120)

위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 '구멍'의 육진방언 반사형들은

교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어간 이형태로 교체된다. 즉, 子音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또는 單語境界 앞에서는 /namu/, 母音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앞에서는 /naŋk/로 교체된다. 이를 교체 환경을 고려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namu-/, ___{+CX, #}
/naŋk-/, ___ +VX

一類型에 속하는 어간으로는 '나무, 구멍' 외에 다음과 같이 '풀무(冶)와 '두멍'(水罐)을 추가할 수 있다.

(3) 풀무(冶)
p^huŋgi(풀무-가, UCH.47), p^humgi/p^huŋgi(풀무-가, PU.115)
(4) 두멍(水罐)
물두무 덮개(물두멍덮개), 기둥기(질그릇 두멍-이, 황대화:1986)

'풀무'는 中世國語에서는 '붊-'과 '불무'로 交替되던 어사이다. 이 어사가 이 방언에서 'p^humgi, p^huŋgi'로 실현된 것은 母音間에서 三子音群 /-rmk-/가 繼起的으로 連結될 수 없는 制約에 의하여 通時的으로 子音群單純化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70]

2. 第 二類型
이 교체 유형에 드는 명사들과 교체 어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루(袋)

70) 六鎭地域을 비롯한 東北方言에서는 /두무~둥기/로 交替되거나, '둥구, 둥기, 둥그'로 單一化된 것으로 보인다. 황대화(1986, 부록)에 의하면, 六鎭地域에서는 '기둥기'(筆者 註; '딜둥기>디둥기>기둥기(過度矯正 및 子音同化)의 變化形)', '물두무덮개(괘)'가 보인다. 또한 咸北 吉州·城津에서도 '물둥기, 물두무'라 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한글>6-3호(1938, 金圓珍))

1) -들(복수접미사)

ʧaridəri(자루-들을, 사62)

2) -이(주격)

ʧargi (자루-가, 사62)

3) -으(대격)

nyaŋbani paniʤir hanin sarimu toni han ʧargi tsuəšə(양반이 바느질하는 사람에게 돈을 한 자루-를 주었어., 교37)

(2) 가루(粉)71)

1) -이(주격), kargi (가루-가, 사61)

2) -으(대격)

taŋšinne urige kargi emmɛna nɛnorman hao?(당신들 우리에게 가루-를 얼마나 내놓을 만하오?, 회151)

ədimešə <u>kargi</u> pʰao?(어디서 가루-를 파오?, 회244)

(3) ʧargi(자루(柄)-가, 사98), cf. 칼잘기(刀柄) (PU.551)

(4) namu <u>kirgi</u>(kirgəri)(그루(株)-가, 사78)

cf. 그루/글기/글게/글그(김태균:1986, p.22, p.86), 긁/글기(함남 定平, <한글>5권, 1937)72)

(5) sirgi(시루(甑)-가, PU.256)

---

71) 李基文(1962:124-5)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가루'(粉)는 二類와 三類를 넘나들던 어사인데, 六鎭方言에서는 二類에 소속된다.

72) 中世國語의 '그르'(株)는 語幹末母音이 /으/, 語幹 聲調가 '平平'이라는 점에서 特殊語幹交替名詞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自動的 交替를 보인 'ㅎ' 終聲體言이었다. 그러나 六鎭方言을 비롯한 東北方言에서는 이 어사가 /kirk/, /kiru/로 교체된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名詞 末音 'ㅎ'과 特殊語幹交替名詞의 末子音 /k/는 역사적으로 깊은 關聯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중세국어와 방언간의 /k/~/h/ 대응과도 관련되므로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참고로 k>h는 河野六郎(1945), 李基文(1972:1973), Ramsey(1978), 李丞宰(1983)에서, h>k는 崔明玉(1982:76-79), 韓榮均(1985)에서 주장된 바 있다.)

韓榮均(1985)는 이 어사의 이러한 교체 사실을 중요시하고 特殊語幹交替名詞들의 末子音을 /h/로 再構할 수 있는 論據로 삼기도 하였다.

(6) nargi(나루(津)-가, PU.502)
(7) purgi(부루(→상추)-가, PU.524)[73)]
(8) norgi/norgatsi(PU.243), 놀기/놀가지, 놀구/놀그(김태균:1986,22, 1983,25-6)[74)]
(9) morgi/moru/margi(모루(鐵站, PU.332)
(10) 쿳맑(鼻頂), 고개말기(嶺上, <한글>6권3호, 1938, 咸南 定平)[7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二類 語幹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ʧari/, 모음어미 앞에서는 /ʧark/로 교체된다. 역시 一類와 마찬가지로 복합어의 선행요소일 때에는 자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과 동일한 /ʧari/로 실현된다. 교체 환경과 교체 어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ʧarɨ-/, ____{+C, #}
/ʧark-/, ____+Vx

3. 第 三類型 어간의 교체

---

73) 중세국어에서는 이 어사의 교체형이 발견되지 않으나 동북방언에서는 第 二類型의 교체 어간에 속한다. 이 어사의 방언형 중에는 '부룩쌈'(함남 함흥)/'부로기쌈'(경북 울진, 崔鶴根:1978)이 보이는바, 이는 이 어사가 */puruk/으로 再構될 수 있는 根據가 되리라 생각한다.

74) 金泰均(1983:25-6)에는 '자루, 노루, 가루, 부루(상추), 무'의 곡용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부루'가 '부루쌈'처럼 복합어에서는 '부루'로 나타나지만, 주격어미 '-이', 대격어미 '-으'와 통합되면 '불기, 불구'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체는 '자루, 노루, 가루, 나무, 무'와 같은 어사들에서도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위에 제시한 <敎科書>, <會話>, <辭典>의 예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3)~(9)는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만을 제시하였지만, 자음어미와 통합될 때의 교체형도 (1)~(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75) '마루'(棟)도 이와 동일한 교체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咸北 淸津 方言에서 '용마르때', '용말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한글>9-7(1941) '마루'(宗, 棟)는 中世國語에서 第 三類型에 속했던 어사이지만 六鎭方言에서는 二類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는 '하루'(一日)의 一例가 발견된다.

(1) ts^{h}ohalli(초하루, PU.358)
　harɨgari(하루갈이(一日耕作地), PU.138)
　harɨsari(하루살이(蜉), PU.162),　cf. ᄒᆞᄅᆞ사리(蜉, 字會上23)

(1)은 <로한ᄌᆞ뎐>의 例인데 '하루'가 交替 環境에 따라 /harr/~/harɨ/로 교체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는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harɨ-/, ____{+CX, #}
/harr-/, ____{+VX}

그런데 <會話>와 UCH의 例인 (2)는 그러한 語幹 交替를 보이지 않는다.

(2) taŋšinne <u>hallare</u> emmɛš'i passo(당신들은 <u>하루-에</u> 얼마씩 받소, 회232)
　nɛ <u>hallare</u> ʧwenɨ imšəge nə-donɨ passo(나는 <u>하루-에</u> 주인의 음식에다(제공에다) 넉 돈을 받소., 회233)
　onɨr nɨbi pigaktirɨ <u>hallarɨ</u> hɛɛs'o(누이가 오늘 (곡식)베는 일을 <u>하루-를</u> 했소, UCH58)

(2)는 '하루'의 방언형이 /harrar/이라는 사실과, 이 명사가 자동적 교체를 보인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harrar/은 /harar/(</hʌrʌr/)에서 변화한 것이다.76) 따라서 이는 어간 교체를 보이기 이전의 가장

76) 咸北 淸津 方言의 '하르, 할넬'(<한글>10-2호, 1942)이 참고된다.
東北方言의 조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하루'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기도 하고 또 (2)의 예처럼 /harrar/로 어간이 재구조화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 '할르'(함북, 황대화:1986), '초할리'(定平(<한글>5-3), 淸津(<한글>10-2),

오래된 古形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77]

4. 第 四類型

이 유형에 속하는 명사는 '여우'(狐), '아우'(弟), '무'(菁)의 셋만이 발견되는데, 이들 어간의 교체 모습은 아래와 같다.

(1) 여우(狐)

(가) 모음어미와의 통합

1) -이(주격)

yekki tuy pardərɨ mure nyək^{h}ira šidzɛgirɨ hɛɛšə(여우-가 뒷발을 물에 넣기 시작했어., 교37)

yekki tse tɛgarirɨ oŋdzoryeda nyət^{h}i mot hɛšə(여우-가 제 머리를 옹이 그릇에 넣지 못했어., 교18)

yekki habundza s'ak məgəšə(여우-가 혼자 싹 먹었어., 교18)

2) -으(대격)

pyerɨygidəri yəkkɨ murəšə(벼룩들이 여우-를 물었어., 교37)

han-sɛ yəkkɨ tse innɨnderɨ tʃ^{h}əŋɣɛda tʃəmšimu tsuəšə(황새가 여우-를 제 있는 곳으로 請해다 점심을 주었어., 교18)

yəkkɨ t'aragašə(여우-를 따라갔어., 교47)

3) -으(속격)

taksuri yəkkɨ sɛkkirɨ tsuygu kadʒe kadʒagu hani(독수리가 여우-의 새끼를 쥐고(잡고) 가져 가자고 하니, 교46)

kɨryɛgu yəkkɨ sɛkkirɨ kadʒegašə(그리고 여우-의 새끼를 가져갔어., 교46)

4) -으는(주제격)

yəkkɨnɨn murešə tarɨn tsarillɨ nawašə(여우-는 물에서 다른 자

'할날'(定平(<한글>5-3), 吉州(<한글>6-6).

77) 濟州方言에서 '하룻날'은 [hʌrɨl-nal] (崔鶴根:1978,160)이다. [hʌrɨl]은 바로 *hʌrʌr의 古形이 아닌가 생각된다.

리로 나왔어., 교58)

yəkkinin tse momu pɛgiri šidzɛgiri hɛɛšə(여우-는 제 몸을 둔갑하기를 시작했어., 교48)

(나) 자음어미와의 통합형

1) -과(공동격)

yəsigwa hansɛ(여우-와 황새., 교18)

2) 휴지 앞에서(屬格 위치)

pyerigidəri yəsi sadiriraŋ(벼룩이 여우 등으로랑, 교37)

pyerigidəri ta yəsi ərgurye modašə(벼룩이 여우 얼굴에 모였어., 교37)

3) 기본격, yəsi(여우, 사53)

(2) 아우(弟)

(가) 모음어미와의 통합형

1) -이(주격)

ɛkki(아우-가, 사53,103, 교2)

2) -는(주제격)

Bladimir ʧiburu tora ogu, ak'inin koŋbu hara kašə(블라디미르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우-는 공부하러 갔어., 사1)

(나) 자음어미와의 통합형

1) 기본격

asi(아우, 사v,103)

(3) 무(菁)

musu, mukki(무(기본격), 무-가, 사99)

mukki han-budɛ emmɛš'io ?(무-가 한 부대에 얼마씩이오?, 교 335)

'아우', 여우'의 교체형을 다시 격어미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單語와 表現>)

격(어미)	아우(弟)	여우(狐)
기본격	asɨ	yəsɨ
주격(-이)	ɛkk-i	yekk-i
속격(-으)	akk-ɨ	yəkk-ɨ
여격(-게)	asɨ-ge	yəsɨ-ge
대격(-으)	akk-ɨ	yəkk-ɨ
호격(-아)	akk-a	yəkk-a
향격(-을르)	akk-ɨllɨ	yəkk-ɨllɨ
처격(-게)	asɨ-ge	yəsɨ-ge
탈격(-게셔)	asɨ-gešə	yəsɨ-gešə
주제격(-으는)	akk-ɨnɨn	yəkk-ɨnɨn

위 第 四類 명사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asɨ/, 모음어미와 연결될 때에는 /akk-/로 교체된다. 이들 명사의 어간교체를 환경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asɨ-/, ___{+C,#	/akk-/, ___{+Vx
/yəsɨ-/, ___{+C,#	/yəkk-/, ___{+Vx
/musu-/, ___{+C,#	/mukk-/, ___{+Vx

지금까지 살펴본 一類에서 四類까지의 特殊 語幹交替 名詞와 그 교체 異形態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類) /namu-/ ~ /naŋk-/ (木)
/kumu-/ ~ /kuŋk-/ (穴)
/pʰulmu-/ ~ /pʰuŋki-, pʰumki/ (冶)
/tumu-/ ~ /tuŋk-/ (水罐)
二類) /karɨ-/ ~ /kark-/ (粉)
/kirɨ-/ ~ /kirk-/ (株)

/tsarɨ-/ ~/tsark-/ (袋)
/puru-/ ~ /purk-/ (蒿)
/naru-/ ~ /nark-/ (津)
/sirɨ-/ ~ /sirk-/ (甑)
/maru-/ ~ /mark-/ (頂, 棟)
/moru-/ ~ /mork-/ (鐵站)
/tsarɨ-/ ~ /tsark-/ (柄)
三類) /harɨ-/ ~ /harr-/ (一日)
四類) /yəsɨ-/ ~ /yəkk-/ (狐)
/asɨ-/ ~ /akk-/ (弟)
/musu-/ ~ /mukk-/ (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 어간으로서 특수한 어간 교체를 보이는 어사는 네 종류이다. 위와 같이 분류한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와 연결될 때에 나타나는 語幹 異形態의 末子音群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특수한 어간교체를 보이는 명사어간과 그 교체방식은 李基文(1962)에서 제시된 *lg, *zg의 段階變化說과 몇몇 음운변화를 제외하면 15세기 중앙어의 그것과 사실상 일치한다.

또한 李基文(1962)에서는 이들 체언 어간들의 聲調가 '平平'임을 밝힌 바 있는데, 六鎭方言에서도 이들 語幹은 악센트가 없는 低調 語幹이어서 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 체언 어간의 공시적인 교체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에도 타당한 음운과정을 제시하기 어렵다. 가령, 앞서 본 바와 같이 第 一類에 속하는 '나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나 접사 또는 單語境界 앞에서는 /namu/,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앞에서는 /naŋk/로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語幹交替를 단일한 基底語幹으로부터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李基文(1962)에서의 再構와 그 交替方式을 고려하여 /namuk/을 基底形으로 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基底形에 母音으로

시작되는 격어미가 통합되면 어간말 모음 /u/가 탈락하고, 자음어미가 통합되면 어간말 자음 /k/가 탈락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체 규칙은 공시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방언에서는 /namuk/을 기저형으로 설정할 때, 이와 동일한 어간 구조를 지닌 어사들, 다시 말하면 악센트가 없는(atonic) CVCVC 구조의 어간들이 위와 같은 특이한 어간교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 kadzuk, kadzugí(가죽(皮), 사46,61), kummuk, kummugí(굴뚝, 사122) 등. 또한 자음어미 앞에서 어간말자음이 탈락한다거나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말 모음이 탈락하는 음운현상도 이 방언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특수 어간교체 명사의 말모음 /u/를 다른 /u/와 구별할 하등의 音韻論的 根據도 없다. 이는 두 말할 필요없이 이들 交替語幹들의 공시적인 현현이 通時的인 音韻過程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78]

따라서 위 어간을 공시적인 교체로 설명하려면 이 방언의 文法에 過度한 짐을 부과해야 되는 난관에 부닥치게 되므로 이들 交替 語幹은 어휘화된 교체형(the lexicalized alternants of a stem)으로서 語彙

---

78) 위의 특수어간들의 역사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다. 제가의 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Ramstedt(1928)에서는 어말의 spirantic -g-가 발전하여 어간모음이 재구조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2) 先代形을 *namgʌ로 보고(*남ㄱ), 후에 *g가 탈락하여 namʌ>namo로 변화. (단독형) 곡용형은 namgʌ+i→namgi로 해석.(河野六郞, 1944:38, 111-113.)

(3) 나무, 구무의 원형은 [nam], [kum]으로 보고 'ㄱ'은 곡용시에 삽입되는 요소로 처리. '남>나모'는 불안정 어형인 데다 동음이의어(혹은 근사음 이의어)와의 식별이란 의미론적 문제도 곁들여 모음이 첨가됨.(南廣祐:1960)

(4) 이들 어간은 모두 CVCVC의 어간 구조를 갖는 것으로 재구하고, 이들 어간이 일정 시기에 비자동적 교체를 보인 것으로 해석.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제 2음절 위치의 약모음이 탈락(syncope)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앞에서는 어간말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해석.(李基文:1962)

(5) 韓榮均(1985)은 李基文(1962)의 再構形과 同一한 CVCVC語幹으로 再構. 다만 어간말의 자음을 /h/로 재구함. 그리고 李基文 교수의 *zg>zɣ>zɦ>ϕ와 같은 단계변화(gradual change)를 否定함.

部(lexicon)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崔明玉:1985, 1988), 音韻論的 條件에 따라 선택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교체 어간들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一類) /X {u-k}-/
(二類) /X {u(ɨ)-k}-/
(三類) /X {ɨ-r}-/
(四類) /X {u(ɨ)-k}-/

그런데 위와 같이 기저형을 설정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은 /namk/(一類), /ask/(二類), /harr/(三類), /ʧark/(四類)가 되는데, 이 중 一類와 二類에 속하는 어간의 교체형은 실제의 표면형 /naŋk/, /akk/와는 다르다. /namk/, /ask/로부터 /naŋk/, /akk/를 이끌어 내려면 형태소 내부에서 자음동화, 중화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나 두 규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 方言에는 /mk/, /sk/와 같은 子音群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형태소 내부에서 /-sk-/나 /-mk-/와 같은 자음 연결이 불가능한 形態素構造制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수한 어간 교체가 단일한 기저 어간으로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類와 二類 語幹의 基底表示는 다음과 같이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一類) /X {mu-ŋk}-/
(二類) /X {su(ɨ)-kk}-/

그리고 이들 어간의 선택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一類]

$$\begin{Bmatrix} \text{mu} \\ \text{ŋk}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mu} \;/\; \underline{\quad}\;]_{\text{N.st.}} \begin{Bmatrix} \text{CX} \\ \# \end{Bmatrix} \\ \text{ŋk} \;/\; \text{elsewhere} \end{Bmatrix}$$

[二類]

$$\begin{Bmatrix} \text{su(ɨ)} \\ \text{kk}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su(ɨ)/} \ ___ \ ]_{\text{N.st.}} \\ \text{kk / elsewhere} \end{Bmatrix} \begin{Bmatrix} \text{CX} \\ \# \end{Bmatrix}$$

[三類]

$$\begin{Bmatrix} \text{ɨ} \\ \text{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ɨ /} ___]_{\text{N.st.}} \\ \text{r / elsewhere} \end{Bmatrix} \begin{Bmatrix} \text{CX} \\ \# \end{Bmatrix}$$

[四類]

$$\begin{Bmatrix} \text{u(ɨ)} \\ \text{k}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ɨ /} \ ___]_{\text{N.st.}} \\ \text{k / elsewhere} \end{Bmatrix} \begin{Bmatrix} \text{CX} \\ \# \end{Bmatrix}$$

위 교체 규칙은 각각의 어휘화된 교체형이 어휘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음운론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체형이 적정한 환경에서 선택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명사들의 특이한 어간 교체를 규칙화했을 때 우리는 이들의 형태소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제 2음절모음이 [+high, -back]의 자질로 자연부류를 이룬다는 점등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 이형태의 설정은 이들 어간이 점차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단일화 되어가는 형태론적 단일화(leveling)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러한 단일화의 양상은 동북방언의 남부지역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화자들이 두 개의 어휘화된 이형태를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79]

79) 이와 같은 단일화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많이 보인다. Ramsey(1978)의 조사보고도 참고된다. 東北方言이 다른 方言('나무'로 단일화 된 방언)과 달리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單一化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정첨사 '-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동북방언에서는 체언에 한정첨사 '-이'가 접미되는 까닭으로 '-이'가 통합된 'nɛŋgi'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되는 'namu'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13.2 活用 語幹의 특수한 語幹 交替와 그 類型

3.13.1에서는 명사의 특수한 어간 교체의 예를 제시하여 유형화하고 그 교체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명사 어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간 교체를 보이는 용언 어간들이 있다. 이들은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라는 점에서 명사 어간과 일치한다.

用言 語幹에는 3.13.1에서 유형화한 一, 二, 三類型만이 존재하고 第四類型의 語幹은 없다.[80] 이들을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simk-/ ~ /simu-/(植)
(二) /turk-/ ~ /turu-/(揮)
(三) /purr-/ ~ /puru-/(呼)
(五) /nirɨr-/ ~ /nirɨ-/(至)

이제 이들 교체 유형들의 예를 살펴보고 규칙화하기로 한다.

I. 第 一類型
1) 심다(植)
1) 모음어미 (-어)
noini pɛ naŋgɨ šimgəšə(노인이 배나무를 심었어., 교27)
2) 자음어미 (-느냐, -기)
musɨy ne pɛnaŋgɨ šimunuňa(무슨 일로 너는 배나무를 심느냐, 교37)
šimugi (사99)

이 어사는 체언의 第一型과 交替 方式이 同一하다. (1)의 예처럼 모

80) 名詞 語幹의 第 四類型에 해당되는 用言은 六鎭方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中世國語에서 제 四類 交替 用言이었던 '그스-'(曳)의 육진방언 반사형은 'k'ɨsɨ-'인데, 이 어사는 'k'ɨsɨgu tɛŋgigi(끌고 다니-기, 사119), kɨsɨgi(끌-기, 교.68), kɨsə onara(끌어오너라, 교28,39)'와 같이 自動的 交替를 보인다.

음어미와 연결되면 /simk-/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되면 /simu-/로 교체된다.

그런데, <辭典>에서는 이 어사가 다음과 같이 자동적 교체를 보여주기도 한다.

3) šimgugi(심-기, 사118)
š'i-gasi <u>šimgunin</u> t'ɛ(씨앗을 <u>심-는</u> 때, 사118)

3)은 어간에 통합되는 어미의 頭音이 子音임에도 불구하고 /simku-/로 교체되어 어간이 단일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simku-/는 교체 어간 /simk-/와 /simu-/의 混淆形(blending)이다. 계합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형태들이 단순화(leveling)되어 가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II. 第 二類型: /niri-/~ /nirk-/ (謂,讀)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 어간은 모음어미 앞에서 /rk/의 子音群을 갖는다. 그 예들을 보기로 한다.

(1) 니르다(謂)
(가) 모음어미와의 통합.
1) -어(라)

ədimešə kidzaŋ s'ari pʰaniŋga <u>nirgə</u> tsuo(어디서 기장쌀을 파는가 <u>일러</u> 주오., 회241)

nɛ nədəri <u>nirgə</u> tsuma, ətti koňɛgešə saranark'ə(어떻게 하면 고양이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u>일러</u>주마., 교21)

kəŋgellisyə nɛ nəri <u>nirgə</u> tsuma(거기로부터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마., 교40)

<u>nirgəra(이르거라)</u>, 회205)

kɛya! <u>nirigəra</u> nə ədimešə məgirk'ə kuhaňňa?(개야 <u>말하거라</u> 너 어디서 먹을 것 구하냐?, 교33)

ne narɨ nirgədagu(네 나에게 말해다고., 교39)

(나) 자음어미와의 통합.

2) -기

nirɨgi(이르-기(말하-기)), 사104,133)

3) -겠

nirɨgɛtta(이르-겠다, 교3)

4) -명

nirɨmyəŋ(이르-며, 교6)

5) -디 아니하다.

Myəŋnɛminɨn nirɨdyanyešə(명남이는 이르-지 않았어, 교70)

6) -으마

nɛ naragwa nirɨma(내가 나랏님과 말하마, 교50)

ne emirɨ nɛ nirɨma(내가 네 어머니에게 말하마, 교74)

7) -오[81]

uri kɨmʤənillɨ kapsɨ murə tsumyəŋ ta ssandagu nirɨo(우리는 금전으로 값을 물어주며 다 산다고 말하오., 회359)

katsʰabun tsʰone ka nirɨo(가까운 촌(村)에 가서 말하오., 회360)

(2) 니르다(讀)

(가) 모음어미와의 통합

1) -어라

ne ʧara hagi kidurgugu kɨrɨ nirgəra(너는 자라기를 기다린 다음 글을 읽-어라., 교75)

(나) 자음어미와의 통합

1) -기

---

81) 語尾 '-오'가 자음어미와 동일한 음운행위를 보인다는 사실은 流音脫落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語幹交替에서도 역시 子音語尾와 같은 機能을 수행하므로 편의상 자음어미의 부류에 넣었다.

nuygi nəri <u>nirigiri</u> kartʃʰiwəňňa(누가 너에게 <u>읽-기를</u> 가르쳤느냐?, 교74)

nirigi(읽-기, 사92,127)

2) -는데

ta kiri <u>niríninde,</u> nəni əttyɛ yəŋge šəgu iňňa?(다 글을 <u>읽-는데,</u> 너는 어째서 여기에 서 있느냐?, 교73)

3) -고

nirigu(읽-고)

4) -지

man-ir <u>niridʒi</u> an=i kʰek'ədən tsʰɛgi kadʒə kadʒi mao(만일, <u>읽지</u> 아니 하겠거든 책을 가져 가지 마오., 사v)

5) -을 줄

tʃokkum <u>nirirtsur</u> du arašə(조금 <u>읽-을 줄</u>도 알았어., 교74)

cf. 니르오/니른다 (PU.706), nirgigi(읽히기, 사127)

(3) 두루다(揮)

1) -고

hundyɛ purgun mokšugənilli mogi <u>turugu</u> kaundilli tɛŋgye (訓長이 붉은 목도리로 목을 <u>두르-고</u> 가운데로 다녀., 교73)

2) -어

adərinin piyŋ <u>turgə</u> andza pašə(아이들은 빙 <u>둘러</u> 앉아 보았어., 교72)

sadziyri <u>turgə</u> šešə(獅子(주위)를 <u>둘러</u> 섰어., 교43)

əkke <u>turgə</u> meešə(어깨에 <u>둘러</u> 메었어., 교54)

(4) 부르다(飽)

pɛ <u>purgədu</u> tsosim sirəba(배(腹) <u>불러도</u> 조심스러워., 교40)

(5) 고르다(調)

korgəra/korio/korinda(골거라/고르오/고른다, PU.316, 112)

(6) 마르다(裁)

margara/mario/marinda(말가라/마르오/마른다, PU.82)

(7) 찌르다(刺)

tsilgəra/tsirɨnda/tsirɨo(질거라/지른다/지르오, PU.514)

(8) 두르다(圍)

tulgəra/turunda/turuo/(둘거라/두룬다/두루오, PU.378)

(9) 거르다(濾)

kəlgəra/kərɨo(걸거라/거르오, PU.516)

(10) 붇다(潤增: 불어나게 하다, 불리다)

pɨrɨo/purgəra/purɨnda(브르오/불거라/부르오, PU.335)

(11) 나르다(運搬)

날가라(나르-어라, 김태균, p.113-4)

위 용언어간들의 교체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nirk-/ ~ /nirɨ-/(謂)
(2) /nirk-/ ~ /nirɨ-/(讀)[82]
(3) /turk-/ ~ /turu-/(揮)
(4) /purk-/ ~ /puru-/(飽)
(5) /kork-/ ~ /koru-/(均)
(6) /mark-/ ~ /marɨ-/(裁)
(7) /tsirk-/~ /tsirɨ-/(刺)

82)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서는 '이르다'(謂)와 '읽다'(讀)의 방언형이 '니르-'로 동일하다. 15세기 중앙어에서 '니르-'는 [謂]의 의미를 지닌 어사로서 [讀]의 의미를 지닌 '닑다'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육진방언을 고려할 때, 이 두 어사는 중앙어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어느 단계에서 일찌기 어형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닑-'는 육진방언의 '니르-'가 모음어미와 통합될 때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그러므로 '닑-'는 15세기 중앙어에서 이형태 /nirk-/가 유음 /r/하에서 /nirɦ/로 약화되기 이전에 이미 '니르-'로부터 분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음어미와 통합되는 어휘화한 이형태가 다른 이형태를 제치고 새로운 어간으로 고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규칙한 이형태들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하에서 단일한 형태로 leveling을 이루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8) /turk-/ ~ /turu-/(圈)
(9) /kərk-/ ~ /kəri-/(濾)
(10) /purk-/ ~ /puru-/(增)
(11) /nark-/ ~ /nari-/(搬)

위 제 二類型에 속하는 용언 어간들은 모음어미 앞에서 /rk/子音群을 갖는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악센트가 없는 低調 語幹이다.

그런데 위 예에서 모음어미 '-으마'가 통합되면 응당 *nirkima가 되어야 하는데 nirima로 실현된다. 이렇게 교체되는 이유는 어미의 頭音 '으' 때문인데, 이 때의 '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으'를 매개모음으로 보는 것이다. 즉 '-마'가 어간에 연결될 때 '-으'가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金完鎭(1972)에서 논의된 것처럼 '-으마'와 같은 어미의 '으'는 '먹-니'(의문 종결어미) '먹-으니'(연결어미)에서의 후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때의 '으'는 어간모음을 탈락시키는 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2)의 예 5) '(으)ㄹ줄'도 동일한 경우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들 용언 어간들이 역사적인 어느 단계에서 경험했던 음운과정이 화석화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인데, 이 어간들의 선대형이 재구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교체의 기제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만 '으'가 자음어미와 같은 음운행위를 보인다는 지적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종결어미 '-오'가 연결될 때에도 자음어미와 통합되는 /niri-/로 교체된다. 이 '-오'는 음운론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동일한 음운 행위를 보인다 함은 이미 3.6에서 언급한 바 있다.

III. 第 三類型

(1) 오르다(登)[83]

83) 중세국어에서 이 어사는 二類型의 語幹이었다. 그러나 육진방언에서는 三類型에 속한다.

<u>olla</u> nibə tsanin tənt'ɛ(올라가서 누어 자는 시렁, 사84),

olla kagi (올라가기, 사83,56)

<u>orimyən</u>(오르-며, 교9)

cf. olligi (사14), ollimɛgi (부65), oʎʎe kadi (교28)

(2) 마르-(乾)

mallašə(마르-(乾)-았어, 교74)

marigi(마르-기, 사78)

marinda/mario(마르-ㄴ다, 마르-오, PU.190)

(3) 흐르-(流)

hilləšə(흐르-었어, 교16,72)

(4) 부르-(號,呼)

pulləšə(부르-었어, 교14,22)

purugədən(부르-거든, 교17), purugi(부르-기, 부67,사36)

puruo(부르-오, 회34), purunin(부르-는, 교17)

puruunnya(부르-느냐, 회215)

(5) 기타

parigi(껍질을 벗기(剝)-기, 사109/塗, 사57),

muru-, mullə(무르(退)-, 교1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第 三類型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rr/ 자음군을 갖는 어사들로서, 역시 악센트 표지가 없는 低調 語幹이다.[84] 위 語幹을 交替 環境을 고려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orr-/ ~ /ori-/(登)   /marr-/ ~ /mari-/(乾)

84) '모르-'(不知)는 'morúge'(모르-게, 사12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음어미 앞에서는 제 2음절에 악센트가 놓이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두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간은 악센트가 없는 어간과 동일한 어간 교체를 보여준다. 例), morugillɛ(모르-길래, 교21), morunda(모르-ㄴ다, 교44), moll as'o(모르-았소, 교26), mollašə(모르-았어, 교40), moruo(모르-오, 교14)

/hirr-/ ~ /hiri-/(流) /purr-/ ~ /puru-/(呼)
/murr-/~ /muru-/(退)

(라) 第 五類型

(1) 이르-(至)

nirirəsso(이를-었소, PU.150)
nirirətta(이를-었다, PU.150)

제 5유형은 /nirir-/~/niri-/로 교체되는 어간이다. 이 第 五類型의 語幹은 第 一類型, 第 二類型, 第 三類型의 語幹이 악센트가 없는 低低調 語幹인데 반해 제 2음절 어간 모음이 악센트 표지를 가진 低高調의 어간이다.[85]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第 一類型~第 五類型까지의 용언 어간들은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어간이 교체된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교체 어간들은 단일한 기저 어간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다. 자음어미 앞에서 교체되는 어간들이 구조적인 일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CVCV (=i,u)),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들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체언 어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어간 교체는 음운부의 영역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들 용언의 교체어간도 체언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기 어휘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적정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어간이 선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인 각 유형의 교체 어간의 기저표시와 선택규칙은 아래와 같다.

A. 어휘부에서의 기저표시:

(一類) /X {mu-ŋk}- /
(二類) /X {i-k}- /

85) 이 점도 중세국어와 일치한다.(李基文:1962)

(三類) /X {ɨ-r}- /

(五類) /X {ϕ-r}- /

B. 교체형의 선택 규칙:

$$(一).\ /X \begin{Bmatrix} \text{mu} \\ \text{ŋk}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mu /_____}\ ]_{\text{V.st.}}\ \text{(ɨ)CX} \\ \text{ŋk /elsewhere} \end{Bmatrix}$$

$$(二).\ /X \begin{Bmatrix} \text{ɨ} \\ \text{k}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ɨ /_____}\ ]_{\text{V.st.}}\ \text{(ɨ)CX} \\ \text{k /elsewhere} \end{Bmatrix}$$

$$(三).\ /X \begin{Bmatrix} \text{ɨ} \\ \text{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ɨ /_____}\ ]_{\text{V.st.}}\ \text{(ɨ)CX} \\ \text{r /elsewhere} \end{Bmatrix}$$

$$(四).\ /X \begin{Bmatrix} \phi \\ \text{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phi\text{/_____}\ ]_{\text{V.st.}}\ \text{(ɨ)CX} \\ \text{r /elsewhere} \end{Bmatrix}$$

3.13.3 '많-(多), 같-'(如)의 어간 교체

'많-, 같-'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도 특이한 어간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환경에 따라 이들 어간이 어떻게 교체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13.3.1 '같-'의 어간 교체

'같-'는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간이 교체된다.

(1) kədzə soge p^hi tərədiningə <u>kat^{h}ɛ</u>(속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아., 교10)

tse inninderɨ tirə oningə <u>kat^{h}ɛ</u>(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교42)

tə maši inningə <u>kat^{h}ɛšə</u>(더 맛이 있는 것 같았어., 교65)

(2) tyə sarɨmi tsugurk'ə kat^{h}au(저 사람이 죽을 것 같으오.,교10)
ki sɛɛgige modiri nəringə kat^{h}ani(그 처녀에게 매우 넓은 것 같-으니., 교65)
kɨʤən kat^{h}əmu ne p^{h}i-ɣɛsa s'igɛt'a(그 전 같으면 네 피(避)해야 되겠다. 교53)

(3) t^{h}yənae net^{h}yərɨ punsɨyinnɨn sarɨmi innɨngə kattyanit^{h}a(天下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교10)
kak-ki (같-기, 교2), katta (같-다, 교2)

(4) kat^{h}i(같이, 교16)

(1~4)를 어미와의 통합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kat^{h}ɛ + a, ašə
(2) kat^{h}a + u, ɨni, ɨmu
(3) kat + ki, ta, ti
(4) kat^h + i

이 교체는 단일한 기저 어간의 설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1~4)의 어느 어간을 기저형으로 잡아도 나머지 교체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교체를 보이는 용언이 또하나 있다. '하-' 동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어간은 다음과 같이 교체된다.

(5) hɛɛra(하-아라, 회86,201), hɛɛdu(하-아도, 회57/사67)
hɛs'ik'uma(하-았습니다, 사23)

(6) a. haamni(하-읍니다, 회74), haapte(하-읍더이다, 교6,7)
hao(하-오, 회14), hauri(하-오-리, 회47,133)

b. haryarɨ(하-으랴르, 회387), har(하-으ㄹ, 회214)
hamyəŋ(하-으며, 교58), haragu(하-라고, 교24)

c. hagɛsso(하-겠소, 회283), hadʒagu(하-자고, 교24)
hanɨn(하-는, 403), hadi(하-지, 회443)

(5)는 (1)과, (6a~b)는 (2)와 교체 방식이 동일하다. 이는 '같-'가 語源的으로 '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 어간은 단일한 기저어간으로부터는 그 교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 교체 이형태가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통합되는 어미에 따라서 어간이 선택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86)]

3.13.3.2 '많-'의 어간 교체

앞서 본 '같-'와 비슷한 어간 교체를 보이는 어사는 '많-'이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kogidəri <u>man=ɛdu</u>, muri kipʰə mot ʧapkɛs'o(고기들이 <u>많아도</u> 물이 깊어 못 잡겠소., 사68)
namdyə ʧibi tsuy <u>manɛšə</u>(男子의 집에 쥐가 <u>많았어</u>., AZ43)
(2) sãe kɨm tɛdyəpkwa ɨn tɛdyəbe kapši <u>manan</u> imšegi noyyəšə, t'o kapši <u>manan</u> kɨrise məndešə kuhɛ on suuri isəšə(床에 금대접과 은대접에 값이 <u>많이 나가는</u> 음식이 놓였어. 또 값이 <u>많이 나가는</u> 그릇에 먼 데서 구해 온 술이 있었어., 교9)
kəbi <u>manhan</u> sarimi(겁-이 <u>많은</u> 사람, 사122)
yokšimi <u>manhange</u>(욕심이 <u>많은</u> 것., 사30)
(3) mantʰ-yɛniumni(많지 않습니다., 회53)

86) 이와 같은 '같-'의 특이한 어간 교체는 15세기 중앙어의 'ᄀᆞᆮᄒᆞ-'와 일치한다. 중세국어에서의 'ᄀᆞᆮᄒᆞ-'의 어간 교체는 육진방언에서 이 어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특이한 어간교체의 기제가 어떻한 이유로 생겨난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에 요긴한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세국어의 'ᄀᆞᆮᄒᆞ-'는 부사 'ᄀᆞᆮ'과 'ᄒᆞ-'가 합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언은 모음어미 앞에서는 'ᄀᆞᆮᄒᆞ-'로, 子音語尾 앞에서는 'ᄀᆞᆮ'으로 교체되었다.(安秉禧:1957, 84) 이것은 六鎭方言에서 본 交替 方式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mant^{h}yanyešə(많지 않았어., 교55)

man=k^{h}i(많-기, 부73), mant^{h}a(많-다, 사4),

manso(많-소, 회51,63,58), mansumni(많-습니다, 회 52,64)

ki sarimke toni <u>mank^{h}ənmanə</u>(그 사람에게 돈이 <u>많건마는</u>, 교52)

(4) mani(많-이, 사55, 회302, 교32)

(5) manatəngerida!(많았던게로구나!, 교30)

위 예들을 각각 어미와의 통합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manε-/ + a, ado, ašə

(2) /man(h)a- / + in

(3~4) /manh-/ + ki, ti, so, sumni, kənmani, -i(부사 파생접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의 교체어간과 그 환경은 '같-'와 동일하다. 그런데 (5)는 이러한 교체 방식에서 이탈한 존재이다. 즉, (5)는 (1)과 같은 어간으로 교체되어야 함에도 자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것은 이들 교체 이형태들이 점차 (3)의 어간에 합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규칙한 어간이 점차 단일한 어간으로 단순화(leveling)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87]

87) 중세국어에서의 '만ᄒᆞ-'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만ᄒᆞ-'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많-' 혹은 '만ᄒᆞ-'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였었는데, 육진방언에서는 자음어미와 통합될 때에는 오직 '많-'으로만 교체되어 단순화되었다.

第 4章　通時音韻論

4.1 母音調和

前章 3.1에서는 부사형 어미 '-아/어' 交替 現象을 통하여 형태소 경계에서의 母音調和를 살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의 '-아/어' 交替가 단일한 機制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形態素構造制約과 함께 어미 '-아/어'의 交替를 지배하는 內的 秩序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共時的 母音調和 현상은 先行 時期 이 방언의 音韻體系 내지는 음운 상호간의 내적 질서를 보여주는 遺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선 시기 이 방언의 모음체계를 再構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진 사실에 바탕을 두고 공시적 어간의 형태소 구조를 살펴 선행시기 이 방언에는 엄격한 形態素構造規則이 있어서 이 규칙이 형태소 내부 모음들의 계기적인 질서를 지배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형태소 내부의 모음 연결에서 보이는 不調和가 통시적인 音韻變化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선행시기 이 방언의 形態素構造規則, 즉 母音調和의 기제를 드러내 보이는 한편, 거기서 모음체계의 재구에 필요한 논거를 마련하기로 한다. 먼저 모음들을 3.1에서와 마찬가지로 /a, o, ɛ/를 'M'으로, /u, ə, ɨ, e/를 'F'로 표시하고 이들 모음 부류들이 형태소 내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1) MM 類型

naraŋ(나라, 임금, 사130. cf. 나랗(國, 法華2:183))
koraŋ(고랑(畔, 字會上, 7), 사21)
karak, karagi(가락(指, 金三2:11), 사131)
sana(남편, 사61, cf. 순나히(男, 朴初上:55))
kanna(여자, 사29, cf. 갓나히(女, 釋譜19:14))

(2) MF 類型

a. adzɨmi(아즈미(叔母, 龍99), 사120)
adzɨbani(아즈바님(叔父, 楞跋:3), 사30)
adzɨmani(아즈마님(叔母, 釋譜6:1), 사120, 회171)
parɨm(ᄇᆞ롬(風, 月曲102), 사17)
sarɨm(사ᄅᆞᆷ(人, 釋譜6:5), 사1,3,23,41)
sasɨr(사ᄉᆞᆯ(鎖, 四解下, 28), 사131)
kasɨr(ᄀᆞᅀᆞᆯ(秋, 字會上, 1), 사74)
b.kamur(ᄀᆞᄆᆞᆯ(旱, 龍2), 사116)
habundza(ᄒᆞᄫᆞᅀᅡ(獨, 龍35), 사100)
c. amu(아모(某, 龍39), 사42,73)
kadzuk(가죡(皮, 類合上, 26), 사46,61)
pãur(방올(鈴, 法華1:85), 사37)

(1)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MM(=a,o) 구조를, (2)는 M/F(=a/ɨ,u) 구조를 보인 것이다. (2a)는 'a~ɨ', (2b,c)는 'a~u'의 모음 연결 예인데, 이를 중세국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a.	a - ɨ	=	아 - ᄋᆞ
	a - ɨ	=	ᄋᆞ - ᄋᆞ
b.	a - u	=	아 - ᄋᆞ
c.	a - u	=	아 - 오

(1~2)의 예를 통해서, 중세국어 語頭 音節 位置의 'ᄋᆞ'는 六鎭方言의 '아'에, 非語頭 音節의 'ᄋᆞ'는 六鎭方言의 '으, 우'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적인 音韻對應은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도 'ᄋᆞ'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ᄋᆞ'가 어두에서는 '아'로, 비어두 위치에서는 '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ᄋᆞ'가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으'(2a), '우'(2b)로 달리 변화한 것은 선행자음에 말미암은 것이다. (2b)는 [+labial] 자음 아래에서, (2a)는 [-labial] 자음 아래에서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3.2 圓脣母音化 現象에서 '으'와 '우'가 圓脣性 資質에 의한 對立 母音임을 확인하고 脣子音下에서 '으→우' 현상을 본 바 있으므로 'ᄋᆞ>우'의 변화는 'ᄋᆞ>으' 변화 이후에 선행하는 순자음에 의하여 다시금 '으>우' 변화를 경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c)에서 육진방언의 '우'는 중세국어의 '오'에 對應된다. 이 對應이 이 방언에서 발생한 비어두 위치에서의 '오>우'의 변화에 말미암은 것임은 공시적인 모음조화 규칙에서 확인된다. 즉, 3.1에서 본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서는 비어두 위치의 '우'가 '-아/어'의 교체에 대하여 非關與的이었는데, 이는 '오>우' 변화를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2)와 같은 육진방언에서의 'MF'型의 共時的 語幹 構造는 본디 'MM' 構造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ᄋᆞ,오,아'가 한 形態素 內部에서 繼起的으로 연결될 수 있는 母音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두 음절 위치의 'M'모음들에 'a, o, u, ɨ, i, ɛ'가 연결된 예들을 보았다. 그러나 'M'모음들과 'ə, e'가 연결된 예는 제시하지 못했다. 육진방언에는 그러한 모음 연결이 단일 어휘형태소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가), 나)로 요약된다.

가) 육진방언에서는 선행시기에 'M'(=아,ᄋᆞ,오)와 '어,에'가 연결될 수 없었다. 이는 '아,오,ᄋᆞ'만이 단일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 공시적으로 'M'이 'F'(=우,으,어,에,의) 중에서 '으,우'하고만 연결이 가능하고 '어,에'와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ᄋᆞ>으', '오>우'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六鎭方言의 共時態가 보여주는 形態素構造制約은 通時的으로는 육진방언의 形態素構造規則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形態素構造制約을 어기는 어사들은 고유한 語彙形態素가 아닌 借用語이거나 漢字語라 할 수 있고, 固有語라면 그 어사는 본디 複合語나 派生語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한다.

(3) a. $pont^he$(扶助, 선물, 사20,24,82)
t^hundzɛ(筒子→물통, 회xvi)
t^hyedzɛ(紙錢, 회357)
tadɨbɛts^{h}ɛ(호배추, 회334, 사43)
b. šabagúy(목이 긴 구두, 사2)
šarp^{h}ɨy(목도리, 사134)
mant^{h}ʉy(饅頭, 사53)
c. pašən ts'ak(버선짝, 사133) cf. 보션(杜初16:31)
moryegi, moryək(말의 갈기, 사21), cf. 모료기(PU.123)
sanyəŋ(사냥, 사76), sanyəŋguni(사냥꾼, 사114)
mɨyts^{h}ori(물뱀, 사124)
d. sɨyna(→사내 아이, cf. ᄡᆞᄒᆡ(釋譜19:14,17))
e. purt'o(佛道→예배, 사51)
kyərt'yaŋ(뎔(寺)+堂→교회, 사130)
šəŋnyuwɛ(石硫黃(→성냥), 사11), cf. šəŋnyuɛ(회xvi)
šašəri(辭說(→會話), 사60)

(3a)는 그 語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자어이거나 中國語 借用語일 가능성이 짙다. (3b)는 러시아어 및 중국어 借用語이다. (3c)는 음운론

적으로 형태소 내부에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어사들이다. 어떠한 이유로 모음조화를 어기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moryək'은 'mori+əgi'일 가능성이 짙다.) (3d) 'sɨyna'는 의미나 형태로 보아 중세국어 'ᄯᅠᆨ히'의 반사형으로 보인다. 모음조화를 어기고 있는 이유가 중세국어에서 보듯 語頭子音群이었기 때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특이한 形態素 構造이다.[1] (3e)는 漢字語로서 新文化·文物의 수용 과정에서 의미가 전용된 예이다.

다음은 'FF' 어간을 보기로 한다.

(4) a. pyəsir(벼슬(爵, 釋譜9:23), 사132)
nətsʰur(너출(蔓, 月釋1:43), 사83)
musu(무수(菁, 杜初16:70), 사99)
pədɨr(버들(柳, 杜初8:5), 사9)
pək'ugi(버국새(字會上, 17), 사50)
pʰəsɨt, pʰəsišɨ(버슷(菌, 字會上, 13), 사20)
sɨmuri(스믈(二十, 龍32), 사24)
b. surgɨy(술위(車, 釋譜9:32), 사12,81)
nyəmtʰɨy(념통(心臟, 字會上, 27), 사103)
murɨy(무뤼(雹, 訓民 解例), 사20)
kəmɨy(거믜(蛛, 杜初21:4), 사77)
mogɨy(모기(蚊, 釋譜9:9), 사117)
(5) a. nirgup(닐굽(七, 龍89), 표34), pʰinadi(피낟, 회325)
mudi(무더기(堆), 사47), tatʰigi(→걷드리-, 사122)
b. koptʃi(고삐, 사12), kotʰi(꼬투리, 사114)
nimɛ(니마(額), 사54), pinir,i(비누, 사61)

(4a)의 어간은 모음 'ɨ, e, u, ə, i'들이 형태소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

1) 'sana'(사61)는 '남편', '남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kanna'(여자), 'sɨyna, sana,'는 中世國語의 '갓나히, ᄯᅠᆨ히, ᄉᆞ나히'와 대응된다.

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들 모음 다음에 'a, o, ɛ'가 연결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연결이 있다면 그것은 (3)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3.1에서 示唆된 바와 같이 선행시기 이 방언에 'FM' 構造의 語幹이 存在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4b)의 예들은 'ɨy'가 중세국어의 '위,의,ᄋᆡ'에 대응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ɨy'가 형태소 내부에서 'M' 또는 'F'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ɨy'가 '의,ᄋᆡ'로부터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ɨy'가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위,의,ᄋᆡ'에 규칙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선행자음 또는 특정 선행음절 모음하에서만 제한적인 대응을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4.7을 참고.)

그리고 (5a-b)는 'M, F'모음들과 'i'가 자유롭게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가 모음조화에 있어서는 비관여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진방언의 부사형어미 '-아/어' 교체에서 'i'가 비관여적이거나 'F'모음들처럼 행동한 것은 'i'가 본디 中立母音이었는데 이후 음모음과 같은 음운 행위를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前章 3.1 및 앞의 (4a)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방언에는 'FM'어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M,F,I(=i)'를 임의로 選定, 組合했을 때, 'MM,MF,MI, FM,FF,FI, IM,IF,II'와 같은 組合型을 얻을 수 있는데 유독 'FM'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形態素 構造 體系에서의 이러한 빈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도 역시 선행시기 이 방언의 형태소구조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빈칸은 그 不在의 원인이 설명될 수 있는 체계적 공백(systematic gap)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 모음조화 규칙이 존재했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는 모음조화 규칙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어간의 제 1음절 모음에 따른 順行同化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같은 모음조화가 형태소 경계에까지 확대되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에까지도 그 동화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잔

재가 3.1에서 본 부사형 어미 '-아/어' 교체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선행시기 이 방언의 조화적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아, 오, ᄋᆞ
	어, 우, 으

이와 같은 조화적 체계가 형태소 내부에서 붕괴된 것은 무엇보다도 'ᄋᆞ'의 비음운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비어두 위치에서의 '오>우' 변화도 모음조화의 붕괴를 가져온 한 원인이다.

4.2 'ᄋᆞ'의 變化

앞서 우리는 이 방언의 形態素構造制約과 부사형어미 '-아/어' 交替를 통하여 선행시기 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정한 부류의 모음들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음조화 규칙이 존재했었으며, 이 모음조화 규칙은 이 방언이 경험해 온 음운변화로 말미암아 붕괴되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 방언의 공시적인 형태소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MM, FF, MF'형의 어간은 존재하지만 'FM'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MF'는 'MM>MF'의 변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MF'의 'F'가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에서 비관여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공시적인 어간구조 'MF'의 'F'는 중세국어와의 비교에서 '아,오,ᄋᆞ' 중의 어느 하나와 규칙적으로 대응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ᄋᆞ'가 어두 위치에서는 육진방언의 '아'에, 비어두 위치에서는 '으'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는 점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선행시기 육진방언에도 'ᄋᆞ'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진방언의 이 *ᄋᆞ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語頭音節 位置

a. paršə(ᄇᆞᆯ셔(已, 楞1:37), 사17)
parɨm(ᄇᆞᄅᆞᆷ(風, 龍2), 사17)
sumu parigi(ᄇᆞ리-(棄, 釋譜6:12), 목숨을 버리-기, 사125)
p'ar-ts'ʉy(ᄇᆞᆰ쥐(蝙, 四解上, 4), 사89)
madi(ᄆᆞᆮ(伯, 月釋2:5), 사112)
naryə(ᄂᆞ려(降, 龍8), 사108)
p^{h}agi(ᄑᆞ-(掘, 杜初8:41), 사46,99)
samɛrɨ kədugi(ᄉᆞ매(袖, 杜初8:45), 소매를 거두기, 사124)
samtʃ^{h}igi(ᄉᆞᆷᄭᅵ-(呑, 金三5:45), 사18)
s'ao(ᄡᆞ(包, 杜初16:67)-오, 사35)
tak'i(ᄃᆞᆮ기(走, 楞4:67), 사49)
taktəriraŋ(ᄃᆞᆰ(鷄, 訓民 解例), 닭들이랑, 회360,회부73)
tɛrigi(ᄃᆞ리-(件, 釋譜9:21), 회부66)
tsaragi(ᄌᆞ라-(足, 杜初16:56), 사97)
tsadzuru(ᄌᆞ조(頻, 楞9:32), 사131)
ts^{h}ɛrigi(ᄎᆞ리-(設, 楞1:16), 사108)
t^{h}agi(ᄐᆞᆨ(頤, 訓民 解例), PU.444)

b. yara(여러(諸, 釋譜6:28), 사117)
cf. yara tsɨmsiŋdəri(여러 짐승들이, 교53)
yadɨrbi(여듧(八, 釋譜6:7), 회42)
yari(열(十, 龍46), 사42)

c. hɨrgi(ᄒᆞᆰ(土, 訓民 解例), 회387)
cf. hargi(慶源郡誌, 茂山郡誌)

d. komts^{h}ʉyugi(ᄀᆞ초-(藏, 杜7:25), 사111, 회137)
pok'i(ᄇᆞᆲ-(踏, 楞8:23), 사121)
tot^{h}umi(ᄃᆞ토-, 釋譜6:7), 사111)

e. mardərɨ(ᄃᆞᆶ(복수접미사), 말(馬)들-을, 회45)
(šənde) k'ədʒi(ᄭᆞ지(至), ·셔(立)-ㄴ 데까지, 회403)

(2) 非語頭 位置

a. adzɨmani(아ᄌᆞ마님(叔母, 釋譜6:1), 회171)
adzɨbani(아ᄌᆞ바님(叔父, 楞跋3), 회170)
parɨ(바ᄅᆞ(正, 釋譜6:20), 사4)
parɨm(ᄇᆞᄅᆞᆷ(風, 龍2), 사17), cf. parɨm-mɛgi(바람막이, 사36)
sarɨm(사ᄅᆞᆷ(人, 釋譜6:5), 회22,196,83,94,37)
tasɨši(다ᄉᆞᆺ, 龍86), 회42, 사94)
asɨ(아ᅀᆞ(弟, 訓民 解例), 사103,5)
yəsɨ(여ᅀᆞ(狐, 月曲70), 사53), yəsɨgwa(여우(狐)-와, 교48,37)
ʧarɨdərɨ(쟈ᄅᆞ(袋, 字會中, 13), 자루들이, 사62)

b. onur(오ᄂᆞᆯ(今日, 釋譜6:28), 회159,298)
podurabun(보ᄃᆞ랍다(軟), 사62), podurɛbi(보드랍게, 사62)

c. kamur,i(ᄀᆞᄆᆞᆯ(旱, 龍2), 사116)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世國語에서 語頭位置의 'ㆍ'는 六鎭方言의 '아'에, 非語頭位置의 'ㆍ'는 六鎭方言의 '으'에 規則的으로 對應된다. 따라서 六鎭方言의 'ㆍ'는 中央語와 동일한 패턴으로 '아, 으'에 合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ㆍ'의 변화가 중앙어와는 달리 거의 例外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a)의 어사들은 중앙어에서 대부분 'ㆍ' 以外의 母音으로 변화하였지만 이 방언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음절 위치에 따라 '아' 혹은 '으'로 변화하였다.[2)]

---

2) 이 변화 유형에서 例外的 存在로 나타나는 것이 'ᄒᆞᆰ'이다. 그러나 이 방언형은 六鎭의 慶源, 穩城, 會寧, 鍾城에서는 '핡'으로 나타나 이마저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穩城(<한글>9-1, 1933년 오세준 조사), 慶源郡誌1988), 茂山郡誌(1984), 河野六郞(1945:316) 참고.) 이는 같은 六鎭에서도 慶興地域語가 가장 改新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아 慶興郡은 南部로부터의 改新派를 쉽게 接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턱'은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에는 't^hagi'로 전사되어 있어 이 방언형이 초기에는 'ㆍ>아'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咸北에서는 '문턱'

이것은 이 방언이 孤立方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音韻變化에 例外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借用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言衆의 社會的 成層이 水平的임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b)는 중앙어의 二重母音 '여'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인데, 'ya'로 실현된 예이다. 이는 李基文(1972,1977)의 견해대로 기원적으로는 *yʌ로 再構될 수 있는 예들인데, 이들 二重母音도 'ya'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d)는 원순모음화의 예로서 'ᄋᆞ>오'의 변화를 경험한 것들이다. (2b)는 중세국어에서 어두음절 모음이 '오', 후행음절 모음이 'ᄋᆞ'일 때 'ᄋᆞ'가 육진방언에서 '우'로 대응되는 예들을 보인 것이다. (2c)는 중세국어의 비어두음절 모음 'ᄋᆞ'가 육진방언의 '우'에 대응되는 예들인데, 선행자음이 순자음일 경우에만 이러한 대응이 성립된다. 이 예들은 前者가 先行音節의 모음이 圓脣母音이고, 後者가 先行子音이 圓脣子音이어서 양자가 공이 圓脣性 資質을 지닌 선행요소에 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외의 환경에서는 중세국어의 'ᄋᆞ'는 (2a)에서 본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육진방언의 '으'에 대응된다. 따라서 (2b,c)는

의 방언형이 '문트기'(교63)로 나타난다. 이는 이 방언에서 'ᄋᆞ'가 매우 규칙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데 김태균(1986)에는 '턱'의 방언형이 '택'으로 제시되어 있다. 筆者는 이를 誤分析(meta-analysis)의 예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방언의 어간말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가령, 'sɛɛgi'를 <辭典>에서는 'sɛɛk, i'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辭典編纂者들이 곡용형을 일일이 살핀 다음,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인 'sɛɛk'을 기본격으로 처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語幹末의 '이'가 움라우트의 同化主 役割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간모음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Kazan 자료가 보여주는 육진방언에서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2.1.8 참고) 즉, '턱'도 한정첨사 '이'가 어간에 접미되어 '탁이'가 된 다음 움라우트 규칙에 의거 '택이'가 되었을 것이고 이 어형의 어간말 '이'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함으로써 '택'이 단독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하여 황대화(1986:167)의 조사 자료는 퍽 示唆的이다. 그는 現在의 六鎭方言에서 '언덕'은 '덕' 또는 '덕이'라고 하였다.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의 'tʰagi'는 'ᄋᆞ'가 '애'로 직접 변화하지 않았음을 일러주는 귀중한 端緖이다.

'ㆍ>우'의 변화라기 보다는 'ㆍ>으'의 변화 이후에 다시금 '으>우'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圓脣性 資質에 의한 간접동화이고, 후자는 圓脣性 자질에 의한 직접동화이다.

그런데 (1e)는 'ㆍ>어'의 특이한 변화이다. 이들 예들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동기화한 특별한 환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변화는 별도의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金完鎭(1978)의 견해대로 모음체계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ㆍ'의 말기적 증상으로서 오래도록 존속했던 'ㆍ'가 '어'의 後舌化에 흡수된 예인 것이다. 음운변화는 어휘에 따라서 그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해석이다.[3)]

4.3 오>우 變化

'MF'는 'MM>MF'의 결과이므로 'MF' 語幹에서 'F=우'라면 이 '우'는 본디 'M'계의 모음으로부터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변화 이전의 모음은 '아, ㆍ, 오' 중의 어느 하나일 것인데, 이 중에서 같은 圓脣母音의 짝인 '오'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는 '오'와 圓脣性 資質에 의하여 自然部類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는 體系的 관점에서 볼 때 'i', 'u'와 더불어 가장 普遍的이므로, 즉 低舌 位置의 가장 안정적인 모음이므로 그 動搖가 지극히 의심스럽고, 'ㆍ'는 'ㆍ>우'의 변화가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labial] 자질을 지닌 음소 뒤에서만 나타나는 변화이어서 역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F, MMF, MFF'와 같이 語頭音節母音이 양모음이고 非語頭音節母音이 [-labial] 자음하의 '우'인 語幹들에 있어서, 이 '우'는 본디 '오'로부터의 변화 결과라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必要條件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充分條件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labial] 자음하에서도 '오>우'의 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

3) 'ㆍ'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은 4.7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방언에서의 '오>우' 변화는 위와 같은 再構를 基礎로 하고 中世國語形을 고려하여야만 온전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우'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4)]

(1) kadunɨn(가도(圄, 釋譜9:8)-는, 사44)
tsadzuru(ᄌᆞ조(頻, 釋譜6:11), 사131)
katsʰugi(ᄀᆞ초-(備, 杜初7:25), 사20,114)
namugwa(나모(木, 龍89)-와, 회102)
pak'ugi(밧고(換, 楞9:13)-기, 사78)
nagʉy(나괴(驢, 朴初上, 34), 사73)

그런데, 다음 예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음절모음이 '오'인 경우에는 비어두음절 모음 '오'가 '우'로 변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오'가 강한 동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5)]

(3) noromi(노름-이, 사112), noromu(노름-을, 사39)
norom kɛm,i(장난감-이, 사39)
sogom(소금(鹽), 사109), cf. sogum(회245)
odzomkʰɛ(오줌통(→방광), 사93)
osork'iri(오솔길, 회382), motʃʰori(메추라기, 사78)
todoktʃirɨhagi(도둑질-을 하기, 사48,115,125)
todzoŋ-nom,i(도둑놈-이, 사13)
podorbodor hɛɛšə(보들보들했어, 교14)

---

4) 이 변화는 보수적인 한자어에서도 발견된다. 例), irbun(日本, 사138, 회386, 401), koŋnʉy(功勞, 사58), koŋnuni(公論, 회xvi)

5) 이러한 현상은 中國의 琿春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본디 六鎭地域 출신 및 그 방언의 영향을 입은 화자들)의 方言에서도 나타난다 한다.(전학석, 1987: 357)

例), odʒom(오줌), ogom(오금), korom(고름), kodori(고도리), modo(모두), tʃok'om(조금), todok(도둑), posop(보습)

4.4 움라우트

前章 3.2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본절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관찰한 다음, 형태소 경계에서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이 음운현상의 통시적 전개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아래 例 (1)을 보기로 한다.

(1) a. kadɛgi(걩기, 회viii, 사110, cf. kadagi(PU.605)
ɛbi(아비, 사26)
cf. adzɛbi(叔父, 사30), hedzɛbi(허수아비, 사50)
nyɛɛgi(이야기, 사104), sonɛgi(소나기, 사20)
b. emi(어미, 사57)
cf. haburemi(홀어미, 사8), yaŋemi(양어미, 사50)
ʧebi(제비(燕), 사39,52,54)
nyegigi(여기다, 사31, 116)
pyenbyən haamni(변변 합니다(→넉넉합니다), 회65)
c. irts'ɨygi(일찍이, 회xvii, 회304)[6]
(2) a. kogina(고기, 회99), kogi(사62), kogidəri(고기들이, 사68)
tʰok'i(토끼, 사36)
ok'igi(엇갈리다, 사101)
homi(→골짜구니, 회11, 부65)
b. kumirɨ(귀밀(裸麥)-을, 회148), kumirina(귀밀-이나, 회43)
kamuŋgi(가문기, 사18)
mɛt'ugi(메뚜기. 사113)
turumi(두루미, 사52)

6) 'irts'ɨygi'는 단일 형태소는 아니지만, 비굴절 어사라는 점에서 例로 들었다.

(1)의 예들을 통해서 형태소 내부의 움라우트도 형태소 경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동화주가 후부계열의 비원순모음인 경우에는 움라우트가 가능하나, (2)와 같이 후부원순모음 /u, o/일 때에는 움라우트 현상을 볼 수 없으며, (1)의 경우 介在子音도 [-coronal]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ɨ/일 때에는 /i/가 아닌 /ɨy/로 실현되었고, 피동화주 /ɨ/가 비어두의 악센트 음절 모음이라는 점도 앞서의 논의와 일치한다.

(2)와 같이 피동화주가 /o, u/인 경우에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선행시기 六鎭方言의 母音體系에 前部系列의 圓脣母音 /ü/와 /ö/가 존재하지 않은 체계적인 이유에 말미암는 듯하다. 즉, 움라우트 규칙이 생산적이라 할지라도 모음체계 내에 전부계열 모음 /ü/, /ö/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움라우트는 불가능한 것이다. 同化의 指向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3)과 같이 어간모음이 /o/인 경우에 움라우트와 유사한 변화를 경험한 예들이 목격된다.

3) $š^w$e-gyəŋ, $š^w$e-gẽ(<소경, 사107)
wekkyešə(엇갈렸어, 교64), cf. ok'igi(사101)
mɛmir(<모밀, 사20)

(3)의 예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2a)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피동화주가 /o/일 때에는 좀처럼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분명 (3)은 이단적인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3)의 '$š^w$e-gẽ'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피동화주가 움라우트 규칙에 의거 o>ö>we, o>ö>wɛ>ɛ의 변화 단계를, 다른 하나는 o>oy>we, o>oy>wɛ>ɛ의 변화 단계를 想定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두 변화 단계가 모두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w}e]와 [ö]의 分布 制約 및 이와 관련된 움라우트 현상을 고려하면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즉, (3)의 '$š^w$e-gẽ'과 前章 움라우트에서 제

시한 바 있는 'maʤũi'는 피동화주에 선행하는 자음이 모두 음성적으로 '硬口蓋子音'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우리는 이 '硬口蓋子音'이 움라우트의 牽引車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았는데, 피동화주가 /o/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동화주 /o/, /u/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 자음이 아닌 환경에서는, 前章 움라우트 및 위 (2)에서 보았듯이 움라우트 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형태소 내부에서 /ü/가 오직 경구개 자음하에서만 존재하듯이[7] [^{w}e]도 경구개 자음하에서만 분포한다는 사실과 평행을 긋는 것이다. 가령, '쇠'(牛)의 육진방언형은 [š^{w}e]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쇠'(鐵)는 [swε]이다. 이러한 음성의 분포 제약과 그와 관련된 형태음소론적 교체 사실을 통해서 (3)의 'š^{w}e-gẽ'의 [^{w}e]는 o>ö>we의 변화 단계를 거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mεmir, wekki-'는 여전히 이단적인 존재로 남는다. 이들이 다른 방언의 차용어인지 아니면 또다른 기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8]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규칙적인 움라우트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제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형태소 내부에서는 그러한 움라우트 규칙의 制約 條件에서 벗어난 例外들이 존재한다. 먼저 아래 (4)의 예를 보기로 한다.

(4) páa tírigi(<드리다, 새끼(索)-를 꼬다), 사102)
tírye nossúri(<들이(入)-어, 들여 놓겠소, 회126)
nεrígi(<느리(降)-기, 사107), nεriúgi(<느리오(使降), 사108)
tεryé(<드리(率), 데려, 회81,118)
tεryə́(데려, 회ix), tεryéda tagu(데려다, 회31,376)
ts^{h}εryə́ nibún(<추리-어, 차려 입-은), 사64),

7) [ü]의 분포 제약에 대해서는 2.2.1.3에서 언급한 바 있다.

8) <會話>, <辭典>에는 이중모음 /oy/가 단모음 /ö/로 변화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敎科書>의 'wekki-'는 例에서 보듯 <辭典>에서는 'ok'ida-'로 전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wekki-'가 <敎科書>의 편집에 간여한 吉州 出身인 徐 氏의 방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tsʰɛrígi(차리-기, 사108), tsʰɛryešə(차렸어, 교61)
tedígi(더디다(投) 사5,75)
cf. tədígi(사101), tyedyešə(교28,44), tyedigu(교16,37)

(4)는 중앙어에서도 발견되는 어사들인데, 이들은 개재자음이 流音 /r/이고 用言이며 피동화주에 선행하는 자음이 '齒音'(金完鎭, 1963:78)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어두 음절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위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령, 'samgarigi'(→주의하-기, 조심하-, 사73)는 피동화주가 비어두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məri'(頭, 사19), 'tari'(脚/橋, 회8/사68) 따위는 체언이라는 점에서, 'kɨrigi(그리-기, 교7) 따위는 어두 자음이 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 없는 것은 아니어서, 'tarígi(다리-기, 사26)와 같은 예도 보인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 李秉根(1971), 崔明玉(1989)에서는 '비구개자음'이라는 음성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9)]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태소 경계에서는 엄격한 움라우트 규칙이 존재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데 반해, 형태소 내부에서는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피동화주가 /ɨ/인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규칙을 준수하면서 ɨ→ɨy의 움라우트가 이루어진 반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4)와 같이 규칙의 제약 조건이 무시된 상태에서도 ɨ>i의 움라우트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우리는 前章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는 '피동화주가 주로 상승 이중모음일 때에는 개재자음의 자질 또는 형태소 경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의적으로 움라우트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9) 前章 3.2에서 자세히 다룬 바와 같이 介在子音이 /r/을 포함하여 [-coronal] 자음인 경우에도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대개 피동화주가 상승 이중모음인 것들이었다.

은 최초에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여 점차 형태소 경계로 확대되었고 형태소 경계로 확대되면서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 조건이 [-coronal] 자음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圓脣母音化

4.5.1 脣子音下의 圓脣母音化

원순모음화란 脣子音 아래의 비원순모음 /으, ᄋᆞ/가 원순모음 /우, 오/로 변화하는 일종의 同化 現象이다. 이 음운현상은 국어학 草創期 言語地理學의 영역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小倉進平:1940) 이후, 圓脣性을 相關 徵標로 하는 母音들의 對立關係를 파악하거나, 모음체계의 변화를 기술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리하여 국어음운사뿐만 아니라 국어 방언 연구에 있어서도 이 음운현상은 母音體系와의 有機的 관련하에서 꾸준히 그리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다.(金完鎭:1963, 1977, 李秉根:1970, 1972, 李丞宰:1977, 崔銓承: 1986, 白斗鉉:1988)

六鎭方言의 원순모음화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미 小倉進平(1927)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육진지역 중에서도 내륙에 위치한 會寧, 鐘城, 穩城(이하 'A'지역이라 칭함)은 'ᄋᆞ>오' 및 '으>우' 圓脣母音化를 경험하였고 慶興地域은(이하 'B'지역이라 칭함) 몇몇 개별 어사를 除外하고는 원칙적으로 '으>우' 圓脣母音化만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六鎭地域은 이 원순모음화 현상에 의하여 두 개의 下位 方言圈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本節에서는 육진방언의 이러한 方言分化가 어떤 이유에 말미암는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서 A, B 兩地域의 원순모음화 현상을 모음체계 및 규칙의 변화와 관련시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육진 방언의 모음체계 재구와도 관련된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을 여러 환경으로 나누어 소

개하고 논의하여 그 기제를 밝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지역의 선행시기의 모음체계를 재구할 것이다. 먼저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 a. popki(볿다(踏, 釋譜6:34), 사121)
komts^{h}ʉyugi(ᄀᆞ초-, 곰초-(藏, 內訓二下, 16), 사111, 회137)
tot^{h}um,i(ᄃᆞ토-(釋譜6:7), 다툼, 사111), tot^{h}ašə(다투었어, 교32)
cf. tot^{h}udyanik^{h}u(다투지 않고, 교52)
tot^{h}umaktʃiri(다툼질-을, 교14, 45)
b. kamur,i(ᄀᆞ몰(旱, 龍2), 사116)
haburemi(*ᄒᆞ볼어미, 홀어미, 사8)
cf. habullɨ(홀로, 사8), habundza(혼자, 사100)
pap'ugi(밧ᄇᆞ-(→힘들다), 사123)
(2) a. mur-ɨ(믈(水)-을, 사126)
pur-ɨ(블(火)-을, 사34)
p^{h}ur-u(플(草)-울, 회160)
p'ur-i(ᄲᅳᆯ(角)-이, 사97)
b. kidurgu-gi(기드리다(待, 杜初21:3), 사82,31)
turu-e(드릏(野, 楞9:22), 들-에, 회407)
turu-llu(들-로, 사99)
(3) samɛrɨ kədugi(ᄉᆞ매(袖)-를 걷다, 사115)
parɨmp'yegi(ᄇᆞᄅᆞᆷ벽(壁)-이, 사115)
parɨm-mɛgi(ᄇᆞᄅᆞᆷ막이(防風), 사36, 17)
nɨbɨy(누의(妹), 사104, 회180, 193-4,199)
kɨburə tɛŋgigi(구르(轉)-, 굴러 다니-기, 사7)
kɨmman(곧, 이내, 사54)
nɨburi(노을(霞), 사34)
nɨbə(눕(臥)-어, 사52,55,85)
kɨmuri(그물(網), 사65)
kɨp^{h}i(급히(急), 회432, 사31)

ts'ɨmi(쯤(隙,間, 練兵指南:2), 사36, 회xvii)
ədɨmeda(어디메다, 교45)

(1a)의 어두음절 모음은 역사적으로 'ᄋᆞ'에 소급되므로, 이들 예는 선행자음 /k,t,p/ 아래에서 'ᄋᆞ>오'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popki'는 원순모음화의 예가 분명하지만, 'komtsʰɯyugi, totʰum,i'는 변화의 기제를 밝히 말하기 어렵다. 'komtsʰɯyugi, totʰum'는 함북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어사인데[10], 'totʰum'은 (2b)의 예들이 /t/ 아래에서의 '으>우'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어사들이기 때문에 이 어사도 'ᄋᆞ>오' 원순모음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11] 'komtsʰɯyugi'는 후행자음 /m/에 의한 원

---

10)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함경도 지역에서의 'ᄋᆞ>오' 원순모음화는 함북의 慶源, 穩城, 會寧, 鐘城과 咸南의 惠山, 三水, 甲山, 長津 등에서는 비교적 왕성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지역에서도 'ᄋᆞ>오' 圓脣母音化 例가 조사 보고된 바 있다. 가령, 咸南 定平方言을 수록한 <한글>5권 2호에서는 '볼(一件)<ᄇᆞᆯ', '보롬(風)<ᄇᆞᄅᆞᆷ'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어사와는 달리 '곰초->곰치(우)-', 'ᄇᆞᆲ->볿-', 'ᄃᆞ토->도투-'와 같은 圓脣母音化 예는 咸鏡道의 非六鎭地域에서도 散見된다. 카잔 자료가 그러하듯, 특이하게도 이들 어사들만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조사된 위 방언형의 분포 지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볿-';淸津(<한글>9·8), 함북, 강동, 육진(황대화, 1986 부록), 鶴城, 明川, 鏡城(金泰均:1986)
'곰치-';함경(정용호:1988), 꼼추다:함북(정용호:1988), 곰치우다:城津, 淸津, 茂山(金泰均:1986)
'도투-';吉州(<한글>6-6), 城津, 茂山, 明川, 鏡城(金泰均:1986)

11) 백두현(1988)은 /ㄷ/하에서의 '으>우'변화 예를 소개하고 있다. 예), '어듭-(昏) >어둡-' 그러나, 이 예가 원순모음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동화주가 어느 자음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t/가 동화주라면 (1a)의 예들도 원순모음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로 '독수리'(鷲)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잔 資料에는 이 단어가 '닥수리'(AZ.19,20,46,50)로 나타나고, 같은 六鎭 地域에 '덕수리'가 分布(김태균:1986)하는 사실에 의거 '독수리'는 '*ᄃᆞᆨ수리'로 再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例도 후행모음에 의한 원순성동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순모음화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3)의 예들이 후행하는 순자음에 의하여 원순모음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견해와는 달리 兩者 모두를 후행모음에 의한 원순성동화라 할 수도 있다. 즉, 'ᄃᆞ토-', 'ᄀᆞ초-'에서 제2음절 모음 '오'에 의하여 'ᄋᆞ>오'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Kazan자료가 보여주는 慶興地域語(B)는 특정 어사에서만 'ᄋᆞ>오'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慶興과 이웃하고 있는 A지역은 아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자음하의 /ᄋᆞ/가 모두 /오/로 원순모음화하였다.(小倉進平(1927)에서 전재한 것임)

(4) ᄆᆞᆯ(馬)> 몰(會寧), 몰 및 말(鐘城), 몰이 및 말이(慶源)
ᄑᆞᆯ(腕)> 폴(會), 폴이 및 팔이(慶源)
ᄑᆞ리(蠅)> 포리(會,鐘), 포리 및 파리(慶源)
ᄆᆞᅀᆞᆯ(村)> 모울(會,鐘), 마을(慶源)
ᄇᆞᄅᆞᆷ(風)> 보름(會,鐘), 바름(慶源)
ᄑᆞᆺ, ᄑᆞᆺㄱ(小豆)> 폿치(會,鐘), 폿 및 팟치(慶源)
ᄆᆞᆮ어매(伯母)> 모다매(會,鐘), 마다매(기타 지역)[12]

(4)의 예들은 육진지역에서도 가장 내륙에 위치한 會寧에서는 'ᄋᆞ>오' 원순모음화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고, 鐘城, 慶源에서는 어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12) 이 외에 'ᄲᆞᆯ-'(吸:慶源郡誌, p.134)', '보르-'(塗)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위 小倉의 조사에는 穩城郡이 빠져 있다. 筆者가 穩城郡 출신 趙範一 氏(穩城郡 南陽面 출신, 66歲)를 모시고 조사한바, 穩城도 'ᄋᆞ>오' 圓脣母音化가 이루어진 地域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例), pʰoops'yo(파(掘)-시오, pʰori-ri(팔(腕)-을), pʰori(파리(蠅)), pʰotʃʰi(팥) 등.
'ᄋᆞ>오' 圓脣母音化를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豆滿江과 鴨綠江에 沿해 있는 山間奧地에서 발생하여 동북방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擴散되다가 中斷되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은 會寧에서 慶源으로 넘어올수록 'ᄋᆞ>오' 원순모음화 규칙은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慶源에 隣接한 慶興에서는 이 규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會寧郡誌(1978), 慶源郡誌(1988), 慶興郡誌(1989)의 '言語' 편에 수록되어 있는 각 郡의 방언조사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慶源郡은 일종의 轉移地帶라 할 수 있다.

한편, (1b)도 비어두 위치의 모음이 'ᄋᆞ'에 소급되는 어사들이지만, (1a)와는 달리 脣子音 下에서 'ᄋᆞ'가 '우'로 變化한 예들이다. 이는 'ᄋᆞ>우'로의 직접 변화가 아니고 'ᄋᆞ>으>우'의 변화 단계를 겪은 것이다. A, B지역에서는 非語頭 位置의 'ᄋᆞ'가 거의 예외없이(이중모음 'ᄋᆡ'는 제외) '으'로 변화하였기 때문(例) sarimi(사ᄅᆞᆷ), parimi(ᄇᆞᄅᆞᆷ))에 'ᄋᆞ>으' 이후, 순자음 아래에서 '으>우'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어두 위치에서만 이루어진 까닭도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ᄋᆞ>오' 원순모음화 규칙은 'ᄋᆞ>으' 변화가 종료된 이후에, 즉 'ᄋᆞ'가 오직 어두 위치에서만 존재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2a)는 순자음하에서의 '으>우' 원순모음화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 변화는 A, B지역이 동일하다. (2b)는 /t/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예를 보인 것인데, 이 지역의 일반적인 변화는 아니다. 역시 특수한 변화이다. (3)은 이 음운현상이 순행동화임을 알려준다.

(1~4)와 같이 육진방언에서 경험한 각양의 원순모음화 현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순자음하의 'ᄋᆞ'는 어두음절 위치에서 'ᄋᆞ>아'(B지역), 'ᄋᆞ>오'(A지역)로 변화하였고, 비어두 위치에서는 'ᄋᆞ>으>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방언의 모음체계의 변화와 통시적 음운규칙들의 발생 시기를 해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이 방언의 선행시기의 모음체계를 재구할 수 있는 내적증거가 된다.

4.2에서 본 바와 같이 경흥지역어에서 'ᄋᆞ'는 중앙어의 음운사가 그

러하듯이 음절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변화하였다. 즉 1단계로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ᆞ>으', 2단계로 어두음절 위치에서 'ᆞ>아'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순자음하의 'ᆞ>으' 및 'ᆞ>오' 원순모음화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의 'ᆞ>으' 변화와 어두 음절 위치에서의 'ᆞ>아' 변화의 중간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ᆞ'의 변화 및 원순모음화 규칙의 발생 순서를 보고 이를 체계적인 관점에서 음미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 변화에 관련된 규칙들을 보기로 한다.

A 방언

(i). ᆞ>으 / (C)V(C)(V) ___

(ii). 圓脣母音化 規則, 語頭 位置: 'ᆞ>오', '으>우'

非語頭 位置: 'ᆞ>으>우'

(iii). ᆞ>아 / #[-labial] ___

위 규칙의 배열은 규칙의 발생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i)의 변화 이후에 (ii)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ᆞ'와 '오'가 원순성 유무에 따른 대립짝이었음을 의미한다.

ᆞ——오

그리고 '으>우' 원순모음화를 통해서 역시 '으'와 '우'가 원순성 유무에 의한 대립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으——우

따라서 우리는 A 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으,ᆞ/ > /우,오/ / [+labial] _____

이 변화는 'ᄋᆞ'와 '오' 및 '으'와 '우'가 원순성을 상관 징표로 하는 대립짝임을 말해준다. '오,우'는 원순모음이다. 이들이 원순모음이라면 이들은 후설모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범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방언의 원순모음화에 관여되어 있는 모음들의 대립체계는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으	우	ᄋᆞ	우
ᄋᆞ	오	으	오
(가)		(나)	

(나)와 같은 모음체계는 현재의 A방언의 모음체계를 염두에 둘 때 불합리하다. 현재 이 방언의 모음체계로 변화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3]

A방언의 이러한 원순모음화 규칙과 모음들의 대립체계를 염두에 두고, B방언의 원순모음화 규칙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어두음절 위치에서 'ᄋᆞ>오'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B지역에서의 문제는 'ᄋᆞ'와 '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ᄋᆞ'가 이미 '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ᄋᆞ>오' 원순모음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體系는 다르고 規則은 A방언과 동일 하다.)

(나) A, B방언의 원순모음화 규칙이 서로 달랐다.(體系는 同一하고 規則은 다르다.)

(가)는 'ᄋᆞ'가 완전히 非音韻化된 단계에서 원순모음화 규칙이 발생하였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가)는 체계상의 차이로, (나)는 규칙의 차이로 A, B 두 지역의 원순모음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13) 이숭재(1977), 백두현(1988)도 (가)와 같은 대립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가)가 합리적이라는 논거가 위 두 논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그러나 (가)는 여러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는 중앙어에서도 17세기 말기부터 '으>우'의 원순모음화 예가 발견되는데 이 때에는 'ᄋᆞ'가 제 1음절 위치에서 건재하던 시기이다.[14] 또 현재의 제주도 방언에서도 'ᄋᆞ>오'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李基文:1977, 鄭承喆:1988) 그리고 B지역에서도 몇 예에 불과하지만 (1)처럼 'ᄋᆞ>오', '으>우'의 예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ᄋᆞ'가 존재하던 시기에 이 원순모음화 규칙이 존재했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ᄋᆞ'가 엄존하던 시절에, A지역에서는 'ᄋᆞ>오, 으>우'의 원순모음화가, B지역에서는 '으>우' 원순모음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편의상, A, B 지역의 원순모음화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세워보면,

A지역의 원순모음화 규칙.

$$/\text{으,ᄋᆞ}/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underline{\qquad}$$

B지역의 원순모음화 규칙.

$$/\text{으}/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underline{\qquad}$$

위 A지역의 원순모음화 규칙은 B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입력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 B 중의 어느 한 규칙의 적용 영역이 더 확대되었거나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위 규칙의 입력 부분을 자질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시기의 모음체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4) 일반적으로 중앙방언에서 /ᄋᆞ/의 비음운화 시기는 1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李基文:1972, 宋敏:1975) 이보다 이른 시기에 비음운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李崇寧(1977). 그런데 '으>우'의 원순모음화 예가 보이는 譯語類解에는 'ᄋᆞ>오'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물론 'ᄋᆞ>아'의 변화가 있기 전이다. 그리고 현재의 제주도 방언에서도 'ᄋᆞ>오' 원순모음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어와 제주도 방언이 보여주는 모음체계와 원순모음화 현상은 'ᄋᆞ>아'의 변화 이전에도 원순모음화 현상이 존재했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A, B지역의 원순모음화 규칙을 모음체계와 관련시켜 음미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위 규칙으로부터 원순성 자질에 의한 대립모음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해서 모음체계를 재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ᄋᆞ/와 /오/가 원순성 자질에 의한 대립짝이므로 이 두 음소를 체계내에서 /으/와 /우/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A, B지역에서의 'ᄋᆞ>아'변화(A지역은 비순자음하, B지역은 무조건적 변화)를 고려하여 '아'의 위치를 '으, ᄋᆞ'와 같은 계열의 저모음 위치에 배당함으로써,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모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모음체계의 재구는 4.8을 참고)

이	으	우
어	ᄋᆞ	오
	아	

(다)

모음체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원순모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자질로 표시된다. (A, B지역)

$$\text{A.}\quad \begin{bmatrix} \text{v} \\ +\text{back}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___$$

$$\text{B.}\quad \begin{bmatrix} \text{v} \\ +\text{back} \\ +\text{high}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___$$

위 원순모음화 규칙 A, B는 적용 대상만이 다를 뿐이다. B규칙은 경흥방언의 것이고, A규칙은 會寧, 鐘城方言의 것이다. 이는 A, B 두 규칙 중 어느 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거나 축소되었음을 의미한

다. 현재로서는 A, B 두 규칙 중 어느 규칙이 적용 대상에 있어서 확대 혹은 축소되었는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칙 B→규칙A'로의 변화, 말하자면 規則 單純化(rule simplification)가 보편적이라는 사실과 'ᄋᆞ'가 어두 음절 위치에 존재하던 시기에 '으>우' 원순모음화만이 있었고 'ᄋᆞ>오' 원순모음화는 없었던 中央語와 濟州島 方言의 音韻史를 고려하면, A규칙이 B규칙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러므로 일단 B규칙이 A규칙으로 規則의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지역에서는 'ᄋᆞ>으' 이후에 B규칙이 발생하였고 이어 B규칙이 A규칙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는 규칙의 단순화를 경험하면서 'ᄋᆞ>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지역에서는 B규칙이 발생하여 A규칙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ᄋᆞ>아' 변화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ᄋᆞ>오' 변화의 길이 차단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A지역이 B지역보다 'ᄋᆞ'의 비음운화 시기가 뒤졌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ᄋᆞ>오' 변화는 東北方言 地域의 奧地라고 할 수 있는 豆滿江 및 鴨綠江과 隣接한 지역에서 비교적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음운 특징에서도 보수적이므로 'ᄋᆞ'가 오래도록 존속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規則의 變化, 傳播 方向, 規則 相互間의 競爭 關係로 말한다면, A지역의 A규칙이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B지역으로부터 A지역으로 확대되던 'ᄋᆞ>아'의 改新 規則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 까닭으로 B지역에서는 오직 '으>우'의 원순모음화만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순모음화 규칙의 전파 방향은 A→B이고 이 규칙과 'ᄋᆞ>아' 改新規則은 Competing rule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A지역과 B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慶源은 일종의 轉移地域(transitional area)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B지역에 속한 慶興方言은 원순모음화 규칙 B가 A규칙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이미 'ᄋᆞ>아'의 무조건적 변화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원순모음화는 단지 '으>우'의 改新에만 머무르고 말았던 것이다. B지역에서 'ᄋᆞ>오'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

(1a)처럼 少數에 그치고 만 것은 B地域 內에서도 社會的 成層에 따라 부분적으로 'ᄋᆞ>오' 규칙이 수용되고 그 변화가 漸進적으로 語彙에 따라 擴散되다가 "ᄋᆞ>아'로 말미암아 中斷된 때문이다.

4.5.2 圓脣母音에 의한 圓脣母音化

3.3.2에서 우리는 어간말의 원순모음 /o, u/에 의하여 어미의 첫소리 /ɨ/가 동화를 입어 원순모음화하는 예를 보았다. 이러한 원순성에 의한 동화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15] 먼저 개재자음 유무와 동화주인 선행모음을 고려하여 이 음운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C)u(C)ɨ >(C)u(C)u
  tuduridi(두드리-, 사32, 회74,115)
  kudur,i(구들(坑)→방바닥, 사85,64), kudur-e(구들-에,교65)
  kusur,i(구슬(珠), 사6), kusur-u(구슬-을, 교59)
  tsumurugi(주므르-, 사62,108)
  tʃugullɨ(죽(粥)-으로, 교28)
  musugəllɨ(무엇-으로, 회367), musuŋ tsʰonio(무슨 촌이오, 회361)
  nurugi(누르-(壓), 사23), pʰurugu(푸르-고(靑), 교26)
  nurunge(누르(黃)-ㄴ 것이, 사31), 누룬게/누루오/누루다(PU.166)
  purugi(브르(呼)-기, 사36,84, 부67), puruo(부르-오, 회34)
  puruunnya(부르냐?, 회215), purunɨn(부르-는, 사1,5)
    purugədən(부르-거든, 교17)
  putturgiun(붙들리-ㄴ, 회417)
    cf. put'ɨrgi(붙들-기, 사54,116,127,128)
(2) (C)o(C)ɨ >(C)o(C)u

15) 崔銓承(1986)은 19C 후기 전라방언에서도 이러한 음운현상이 광범위하게 실현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norusu(노ᄅᆞᆺ>노릇-을, 교58),

koruo(고ᄅᆞ-(擇)>고르-오, 회421)

onur(오ᄂᆞᆯ(今日)>오늘, 회159,298, 사65)

orun ts'aɣɨrɨ(올ᄒᆞᆫ>오른 쪽으로, 회436,415, 교34)

moruge(모ᄅᆞ-(不知)>모르-게, 사124), morugu(모르-고, 교58)

morunda(모르-ㄴ다, 교41,44)

podurabun(보ᄃᆞ랍->보드랍-운, 사62), podurɛbi(보드랍게, 사62)

(3) (C)uɨ(C)>(C)uu(C)

šuun,i(수은(水銀), 사98)

(1)은 동화주가 /u/, (2)는 동화주가 /o/인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3)은 개재자음이 없는 예이다. (1~2)가 보여주는 원순모음화는 前章 3.3.2에서 논의한 바 있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2)의 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위치에서의 'ᄋᆞ>으' 이후에, 다시 '으>우'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자음하에서의 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위치에서의 'ᄋᆞ>으' 이후에 발생한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아래 (4)의 예들도 위 견해를 지지해 주는 듯하다.

(4) a. tõe(동이(樽)<동ᄒᆡ, 회xvi,316, 사50, 교7)

b. mogɨy(모기(蚊)<모ᄀᆡ, 사117)

(4)의 예들이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였다면 각각 '동위, 모귀'가 되었을 것이다.[16] 그러나 (4)a는 'ᄋᆞ>어'의 변화를, (4)b는 'ᄋᆞ>으'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에 의한 비원순모음의 원순모음화는 'ᄋᆞ'의 비음운화 이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text{V}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 \ (\text{C})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text{C}) \underline{\qquad}$$

16) 이와 같은 원순모음화에 대해서는 崔銓承(1975,1986)을 참고.

이 규칙은 前章 3.3에서 논의된 형태소 경계에서의 원순모음화 규칙과 일치한다.

4.6 非圓脣母音化

앞 절에서는 脣子音 혹은 圓脣母音 아래에서 非圓脣母音 /ɨ/가 圓脣母音 /u/로 변화하는 음운현상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圓脣母音이 脣子音 아래에서 圓脣性을 잃고 그와 對立되는 非圓脣母音으로 변화하는 非圓脣母音化 現象이 있다. 이 비원순모음화의 예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환경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아래 (1)은 그러한 예들을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17]

(1) a. pɨy(뷔(箒, 楞2:87), 사17)
pɨygi(뷔다(刪, 杜7:18), 사31, 표23)
pɨyo(베오, 회229), pɨyʤagu(베자고, 회236)
pɨygaktʃirɨ hagi(베는 일을 하기, 추수하다, 사31)
pɨygaktirɨ(교5,6)
pɨyn(뷔다(空, 龍101), 사28,87,94)
təbɨy(더뷔(暑, 釋譜9:9), 사viii)
tʃʰibɨy(치뷔(寒, 釋譜9:9), 사60,129)[18]
b. toŋmɨy(동모(伴, 類合下38), 사28)
cf. 동뫼/동믜/동모/버디/동ᄉᆞ리 (PU.643)

17) 제시되는 예 외에 [ü]>i와 같은 비원순화가 있다. 例) šwešü>šweši. 이에 대하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4.7.3 三重母音의 變化에서 다룬다.

18) 아래 예들의 /ɨy/는 본디부터 이중모음 /ɨy/였는지 /uy>ɨy/의 비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mɨynməri(대머리, 뮌머리(禿子), 사81), nɨbɨy(누이(妹), 누위(杜23:46), 사104)
yəbɨyn(여윈(瘦), 여위다(月1:26), 사130), mɨytsʰori(물뱀, 사124)
pɨygi(븨다(날다(紡績, 譯補39)), 사93)

kwabɨy(과부(寡婦), 사8)
mɛbɨy(매부(妹夫), 사39) 20)
(2) murɨy(무릐(罷, 訓解 用字), 사20)
surgɨy(술위(車, 龍5:33), 사20)
tokkɨy(돗귀(斧, 曲106), 교2), tokkɨyna(도끼-나, 교11)

(1a)는 中世國語의 語頭音節 母音 '뮈, 뷔'에 규칙적으로 對應되므로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도 (1a)의 어사들은 '뮈, 뷔'와 같은 音節 構造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a)의 예들은 脣子音下에서 圓脣母音 '우'가 非圓脣母音 '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들은 '뮈>믜', '뷔>븨'의 변화 단계를 거친 것이다.[19] (1b)는 어간말 모음이 /u/인 개음절 어간에 한정첨사 '-i'가 접미됨으로써 二重母音 /uy/를 형성하고, 이어 (1a)의 예들과 동일하게 /uy>ɨy/의 변화를 경험한 어사들이다. (2)는 先行 音節 母音이 圓脣母音이기 때문에 後行 音節의 二重母音 /uy/의 핵모음 /u/가 비원순화한 예이다.

(1,2)의 비원순모음화는 모두 원순성 자질에 의한 異化作用의 결과인데, (1)은 자음에 의한 隣接變化이고 (2)는 모음에 의한 遠隔變化이다.[20] (1,2)의 비원순모음화를 규칙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원순모음화 규칙: 1]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 [\ -\text{labial}\ ] / \begin{bmatrix} \text{c} \\ +\text{labial} \end{bmatrix} ____ \begin{bmatrix} +\text{high} \\ -\text{round} \\ +\text{cont} \end{bmatrix}$$

19) 이는 어간모음 '위'가 이중모음 /uy/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二重母音의 再構 및 史的 發達은 4.7.2를 참고.

20) 東北方言에 흔히 나타나는 다음 예들은 逆行的인 非圓脣化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두음절에서 발견되고 선행자음이 치음인 경우에 국한된다. 카잔 자료에서는 /느븨, 눕다, 느부리/의 三例만 보인다.
느비(妹), 눕다(臥), 느부리(霞), 느베(蠶), 느비다(縫), 드비, 드뷔(豆腐), 뜨베(蓋, 가마뜨베(鼎蓋), 눈뜨베(瞼)) 등.

[비원순모음화 규칙: 2]

$$\begin{bmatrix}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 [\ -\text{labial}\ ] / \begin{bmatrix} \text{V} \\ +\text{labial} \end{bmatrix} (\text{C})__ \begin{bmatrix} +\text{high} \\ -\text{round} \\ +\text{cont} \end{bmatrix}$$

위 [규칙1]은 자음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를, [규칙2]는 모음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를 각각 규칙화한 것이다. 두 규칙은 모두 원순성 자질에 의한 변화이므로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원순모음화 규칙과 이 비원순모음화 규칙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同化 후자가 異化現象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음운변화의 환경과 관련하여 한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異化를 경험하는 대상 모음이 이중모음 /uy/라는 점이다. 單母音 /u/인 경우에는 이러한 비원순모음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3)은 중세국어 의 '뫼, 뵈'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위의 (1-2)와는 비원순모음화의 대상이 다르다. 즉, (1-2)가 이중모음 /uy/의 변화인 반면, (2)는 이중모음 /oy/의 변화이다.

(3)의 변화는 (1,2)의 변화가 'uy>iy'이므로 (3)의 어사들도 이와 동일한 변화 단계를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3)이 (1,2)처럼 비원순모음화에 의하여 /oy>əy/ 이후에 단모음화한 것이라면 응당 /e/로 결과했어야 하는데 /ɛ/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의 변화는 (1,2)와는 다른 변화 단계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은 어떠한 경로로 변화한 것일까. 앞 절 4.4에서 우리는 非硬口蓋 子音下에서는 'oy>wɛ'의 변화가 타당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3)의 변화는 脣子音下에서 원순성 활음 /w/가 통시적으로 탈락한 'oy>wɛ>ɛ'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1,2)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자음하에서 원순모음이 비원순화한 음운현상과 순자음하에서 활음 /w/가 탈락한 음운현상을 논의하였다. 이는 이 段階의 육진방언의 '으'와 '우'가 체계상 원순성에 의한 후부 고모음의 대

립짝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원순모음화는 서열상의 제약을 보이고 있다. 즉 같은 후부 계열의 원순과 비원순의 대립짝인 '오'와 '어' 사이에서는 이러한 비원순모음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으'와 '우'의 관계처럼 '오'와 '어'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음체계의 새로운 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李秉根:1970)

4.7 母音體系의 再構

4.7.1 母音體系의 再構와 그 變化

앞선 시기 이 방언의 母音體系는 이 방언의 歷史를 보여줄 수 있는 文獻資料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再構 方法에 의존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 再構(reconstruction)는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음소론적 현상을 통하여, 그리고 통시성을 반영하는 歷史的인 言語財를 보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앞선 시기의 언어 형식이나 음운체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우리는 먼저 육진방언의 공시태가 보여주는 제반 형태음소론적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이 방언의 音韻體系의 再構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먼저 母音調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운현상은 모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형태음소론적인 현상이므로 이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선행시기 이 방언의 모음체계를 재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시 및 통시적인 제반 음운현상이 모음체계의 재구 작업에 하나의 傍證으로서 제시될 것이다. 이것은 規則과 體系가 상호 有機的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는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론적으로 그 타당성이 그 동안의 중앙방언에 대한 일련의 연구 업적들에서 입증되어 왔고 또 그러한 작업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李基文:1968, 1972, 金完鎭:1963, 1978, 李秉根:1970, 1976, 1977)

앞서 우리는 육진방언의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를 통하여 이 방언의 모음조화 현상을 살펴본 바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하나는 1음절 어간에서는 '-아/어' 교체의 예외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행시기의 이 방언에서 /아,오,애/ 그리고 /어,으,우/가 각각 自然部類를 이루는 모음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그 시기의 모음체계와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 1음절 모음이 'M'일 때 非語頭音節 母音 /으,우/는 非關與的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가 語末 位置에서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非語末 位置에서는 비관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으,우/가 공시적으로 '-아/어' 交替에 影響力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간의 제 1음절 모음이 '-아/어' 交替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행시기 이 방언의 '母音調和'가 어간형태소의 제 1음절 모음에 의한 同化 現象이었을 것이라는 통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모음조화'는 제 1음절 모음에 의한 順行的 동화현상이었으며 이 동화현상은 형태소 경계에까지 미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의 교체에까지 동화력을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21)

한편, 어두 음절 위치에서와는 달리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으,우/가 '-아/어' 교체에 대하여 비관여적이라는 사실은 비어두 음절 위치의 /으,우/가 통시적인 음운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운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

21) 六鎭方言의 母音調和를 검토하여 얻어낸 우리의 이같은 결론은 中世國語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된 기왕의 모음조화에 대한 견해(李崇寧:1954, 金完鎭:1963, 李基文:1968)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李基文(1979), 崔明玉(1982), 金完鎭(1985) 등에서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견해들은 대략 양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되던 것이 후대에 점차 어간 내부의 환경에 따라 양모음과 음모음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본절에서 논의된 모음조화 및 재구된 모음체계는 공시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음소론적 교체나 중세국어와의 비교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재구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육진지역 이외의 모음조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x > 으 / (C)V(=M)____
y > 우 / (C)V(=M)____

여기서 우리는 'x=ᄋᆞ', 'y=오'임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MM>MF에서 MF의 'F'가 '으', '우'일 때, '으'는 중세국어의 'ᄋᆞ'에 '우'는 '오'와 규칙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이다.(4.2 및 4.3 참고)

'MF'유형의 어간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이 방언에서는 'MM>MF'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예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oo'형 어간, 즉 어간형태소의 두 모음이 모두 /o/인 경우에는 'o>u'의 변화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의연히 'oo'의 體制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22] 이는 이 이외의 'Mo'형 어간이나 기타 비어두위치의 /o/가 거의 필수적으로 /u/로 변화한 점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점인데, 이는 /o/의 동화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3] 이러한 사실은 이 방언에 모음조화가 존재하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한편,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에서 이 방언에는 'FM, Mɨyu'와 같은 유형의 어휘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공시태에서 보여지는 形態素構造制約은 앞선 시기 이 방언의 形態素構造規則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 적용되었던 形態素構造規則, 즉 母音調和 규칙에 말미암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FM, Mɨyu'의 不在는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이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공존할 수 없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만 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추론을 뒷받침

22) 이러한 예들은 4.3 '오>우' 변화를 참고할 것.

23) 일반적으로 각 방언에서의 '-아/어' 교체는 어간모음이 /o/일 때에 가장 강력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충남방언은 대개 '-아/어'의 교체가 '-어'로 단일화되어 가는 방언인데 유독 어간 모음이 /o/인 경우에는 /a/를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o/가 가장 동화력이 강한 모음임을 암시하는 것인데, 국어 방언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해 주는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FM' 어간이 선행시기에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중세국어로부터 타방언에 이르기까지 어두 위치에서 규칙성을 띤 'M>F'의 예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FM' 어간이 선행시기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FM>FF'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어간형태소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도 결국은 앞의 사실을 지지해 주는 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MF'유형의 어간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선대의 모음조화를 재구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 말하자면 'MF'가 존재하고 거꾸로 'FM'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MF'가 'MM>MF'와 같은 변화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4.1, 4.2, 4.3 참고)

'MM>MF'를 입증하는 음운변화는 앞서 지적한 비어두음절 위치에서의 'ᄋᆞ>으', '오>우'이다. 공시적으로 'MF'어간은 부사형어미 '-아'를 취하였고 이것이 어두음절 모음 'M'에 의한 순행적 동화였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응당 'M'에 속하는 /아,애,오/가 /ᄋᆞ,오/와 더불어 自然部類를 이루는 母音群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ᄋᆞ,오,아/는 모두 양모음 계열의 모음이며 이들은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서로 調和的 關係를 맺을 수 있었던 母音群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로서 우리는 'ᄋᆞ>아' 및 'ᄋᆞ>으' 그리고 '오>우'와 같은 변화들과 지금까지 논의된 모음조화에 대한 결과들을 토대로 선행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모음들이 자연부류를 형성하였고, 그들은 일정한 자질에 따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아	오	ᄋᆞ
어	우	으

'아,오,ᄋᆞ'와 '어,우,으'가 대립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에는 이들을 모음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모음조화 규칙과 관련시

켜 유기적으로 음미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일정 부류의 모음들이 일정한 자질에 따라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였지만 각각의 모음들이 서로 어떠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밝히지 못했다. 이는 모음들을 모음체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음소들을 체계의 내부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음운변화나 음운현상을 확인하여 각 음소들의 대립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음운현상들로부터 얻어진 대립체계를 단순히 조합하는 일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음운변화들을 계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만 올바른 모음체계의 재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모음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기의 체계를 재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우리가 재구하려는 이 방언의 모음체계는 현 육진방언이 보이는 공시적인 음운현상이나 통시적인 음운변화 또는 화석화된 유형식 들에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구의 한계도 자연 그에 따라 그어지게 마련이다.

앞서 우리는 원순모음화 현상에서 'ᄋᆞ'와 '오' 그리고 'ᄋᆞ'와 '아'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脣音下의 'ᄋᆞ>오'는 같은 환경에서의 '으>우'를 고려하면 'ᄋᆞ'와 '오'가 원순성 유무에 따른 대립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ᄋᆞ —— 오
으 —— 우

그런데 원순모음은 [+back]이 보편적이므로 이들은 후설모음이다. 따라서 '우, 오'의 체계상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으 —— 우
ᄋᆞ —— 오

앞서 '-아/어'의 교체에서 /i/가 語末 位置에서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하지만, 非語末 位置에서는 非關與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음절 어간 형태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제 1음절 모음이 '-아/어' 交替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iM, iF'유형에서도 어두의 'i'가 '-아/어' 교체를 지배하여야 함에도 비관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iM', 'iF'型 어간의 모음 연결이 그러하듯이 역사적으로 /이/가 중립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이/가 'M, F'와 자유로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가 중립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상에서는 '오,ᄋᆞ'와 '으,우'와는 다른 位置에 비정한다. 그 위치는 전설고모음 위치가 될 것이다. /이/가 전설 고모음이었음은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나 Umlaut와 같은 음운현상에서 /이/가 동화주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ᄋᆞ/가 /아/에 합류하였다는 점에서 /ᄋᆞ/에 인접한 위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가 전설고모음이고, /우/가 후설원순고모음이라면 /아/는 후설저모음의 위치에 비정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기본 모음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으	우
어	ᄋᆞ	오
	아	

< 체계 A >

따라서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모음체계는 <체계 A>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근본적인 몇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첫째 위 체계는 모음조화와는 거리가 있는 체계가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모음조화에 대하여 위 모음체계는 어떠한 설명력도 부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不一致는 모음조화 규칙이 <체계 A>보다는 선행한 단계의 모음체계와 관련을 맺는 것이라 하여도 그 선행단계의 모음체계로부터 <체계 A>로의 推移 過程이 설

명되기 어렵다는 難點이 있다.[24]

반면에 <체계 A>는 /ᆞ/가 一段階에 /으/에 합류한 사실이나, 二段階에 /아/에 합류한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용이하다. 그것은 체계의 중앙에 있는 /ᆞ/가 인접 음소로부터의 견제를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ᆞ/는 고모음 /으/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4.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어두음절 위치에서의 변화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인접의 중위모음 /오/도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고모음 /우/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분포적 제약을 갖게 된 어두음절의 /ᆞ/는 그보다 전설 위치의 /어/에 밀려 점차 /아/에 합류함으로써 非音韻化에 이른 것이다. 중앙어의 음운사에 의하면 '오>우'의 변화는 'ᆞ>으'보다 약간 늦은 시기인 16세기 후기부터 나타난다. 이것은 <체계 A> 단계에서 중위모음 /ᆞ,오/가 연쇄적으로 경험하게 된 변화로 해석된다.[25] 그리고 /어/가 후설화한 증거로는 金完鎭(197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ᆞ/ 변화의 末期에 /ᆞ/가 /어/로 변화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方言에도 그러한 예가 발견된다.[26]

---

24) 이와 같은 사고는 국어의 모음조화가 口蓋的 調和(palatal harmoney)(李基文:1968, 1971, 1972)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구개적 조화 체계에서 <체계A>로의 추이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모음체계의 가정은 이승재(1977)에서도 보인다. 이승재 교수는 구례방언의 원순모음화를 논의하면서 그 방언의 모음체계를 위와 같이 재구한 바 있다.

25) 현대 중부 방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중위모음이 고모음화 하는 현상이다. 長母音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지만, /어>으/, /에>이/가 바로 그 예이다. 李秉根(1977)에 의하면 19세기 말에는 /어>으/만이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6) 金完鎭(1978)은 /어/의 후설화의 증거로 비교적 늦은 시기의 /ᆞ>어/의 예를 들었다. 이들은 가장 늦은 시기까지 남아 있던 /ᆞ/가 /어/의 후설화를 맞은 예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ᆞ>어' 변화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金完鎭 敎授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방언에서의 그러한 예들은 4.7을 참고할 것. 근대후기 문헌자료에도 이러한 'ᆞ>어'의 변화 예가 다수 발견된다.(졸고:1980)

<체계 A>가 비교적 여러 음운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모음체계는 모음조화와의 유기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체계 B>는 우리가 제시한 몇가지 음운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으	우
	어	오
	아	ᄋᆞ

< 체계 B >

즉, <체계 B>는 원순모음화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점이 있고, 또 /ᄋᆞ/가 /으/와 /아/에 합류한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ᄋᆞ/와 /으/가 과연 어떠한 자질에 의하여 대립짝을 형성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다. /ᄋᆞ/가 /으/로 변화할 만한 타당한 음성학적인 거리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難点을 <체계 A>를 통하여 고려해 본다면, <체계 A>를 다음과 같이 <체계C>로 재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으/우
	어	ᄋᆞ/오
	아	

< 체계 C >

위 체계는 金完鎭(1978)에서 제시된 중세국어 단계의 모음체계이다. 위 <체계C>는 <체계A>에서 불합리한 점으로 지목했던 문제들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믿어 필자는 육진방언의 선행단계의 모음체계를 위와 같이 재구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와 /으/, /ᄋᆞ/와 /오/를 각각 재음소화할 내적증거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

하여 필자는 원순모음화 현상을 들고 싶다.[27)]

이 단계에서 /ᆞ/의 비음운화로 /어/의 후설화가 이루어지고 이어 전설계열에 단모음 /에,애/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비로서 <체계 D>의 8모음 체계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으	우
에	어	오
애	아	

< 체계 D >

<체계 D>로 변화한 사실은 움라우트 규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후부 계열의 비원순모음 '어,아'가 전부계열의 모음으로 서열상의 이동을 보인 것은 곧 전부계열에 '에,애'가 존재하였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방언에는 전부계열의 원순모음 [ü]가 존재한다 함은 이미 2.2.1.3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음성은 아직 音素的인 地位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uy/의 변이음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경구개자음 [ʧ, ʧʰ, š] 및 滑音 /y/ 下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ü]가 최초에 이 위치에서 태동하여 점차 음소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端緖이다. 20세기 초 六鎭方言의 母音 音聲體系는 다음과 같다.[28)]

이(i) [ü]	으(ɨ)	우(u)
에(e)	어(ə)	오(o)
애(ɛ)	아(a)	

<20C 初 六鎭方言의 母音 音聲體系>

---

27) 金完鎭(1972,1978)는 이에 대한 내적증거로서 'β+ᆞ>오, β+으>우'와 같은 예를 든 바 있다. 이 방언의 圓脣母音化에 대해서는 4.5를 참고.

28) 現在의 六鎭方言에는 [ü], [ö]가 존재하지 않는다.(한영순:1967, 황대화:1986 및 전학석:1988) 이는 [ü], [ö]가 音素의 地位에는 오르지 못하고 다만 變異音으로서만 존재하다가 歷史의 表面에서 사라진 때문이다.

북한 학자들은 현재의 六鎭方言의 母音體系에서 /에/와 /애/의 對立이 動搖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두복(1962), 한영순(1967)에서는 /에/와 /애/의 音韻論的 對立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영황(1982:26), 황대화(1986:14)에서는 對立을 인정하면서도 '에'와 '애'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調音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조사·연구로부터 Kazan 자료가 보여주는 20세기초의 六鎭方言의 母音體系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4.7.2 二重母音의 變化

본 절에서는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이중모음 체계를 재구하고 그 통시적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선행시기 이 방언은 7 모음체계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 시기 이 방언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중모음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편의상 한글자모 '아,오,ᄋᆞ,어,우,으,이'를 'a,o,ʌ,ə,u,ɨ,i'로 바꾸어 전사하고, 음절부음은 'y,w'로 전사한다.[29])

(A)	yi	yɨ	yu	(B)	iy	ɨy	uy	(C)	wi	wɨ	(wu)
	yə	yʌ	yo		əy	ʌy	oy		wə	wʌ	(wo)
		ya				ay				wa	

(A, B)는 y계 二重母音 體系이고, (C)는 w-계 二重母音 體系를 보인 것인데, ( )는 體系的 빈칸(systematic gap)을 이루는 이중모음들임을 나타낸 것이다.[30]

29) 이중모음의 재구 및 사적 발달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44), 河野六郎(1945), 李崇寧(1954), 李基文(1972,1977), 崔明玉(1980,1987,1988), 崔銓承(1987,1988) 등을 참고. 그리고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金完鎭(1964)을 참고. 중세국어 이중모음체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李崇寧(1952) 및 李基文(1972)와 金完鎭(1972a)을 참고. 현대국어 이중모음의 빈칸에 대해서는 허웅(1968)을 참고.

構造的으로 可能해 보이는 (A, B)의 이중모음 체계에서 *yi,*iy,*yɨ는 20C 初의 六鎭方言이 보여주는 공시적인 자료로서는 재구가 불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육진방언이 보여주는 공시태 및 중세국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재구 가능한 이중모음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4.7.2.1 下降 二重母音의 再構와 그 變化

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초 육진방언에는 下降 二重母音 /uy/와 /ɨy/가 존재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선행시기에 존재하였던 모든 /uy/와 /ɨy/가 아무 변화없이 제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시적인 음성형 [uy]는 그 분포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uy]의 분포 환경 외의 환경에서는 다른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선행 시기 이 방언의 /uy/가 어떻한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uy/, /ɨy/를 바탕으로 하고 六鎭方言의 共時態가 보여주는 제반 현상들에 대한 분석 및 중세국어와 이 방언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조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하강 이중모음들을 재구하고 그 변화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선행자음의 資質에 따른 변화와 그 통시적 음운 과정 및 변화 속도의 緩急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4.7.2.1.1 *oy의 재구와 그 변화

六鎭方言의 先行時期에 *oy, *uy가 存在했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共時的인 例들로부터 입증된다.

(1) a. kamaguy(가마괴(烏, 龍86), 회xi)

30) 이들 二重母音은 중세국어의 형태음소론적인 교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바 있고(李基文:1972, 金完鎭:1972), *yɨ는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에 지역 혹은 사회적 성층에 따라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naguy(나괴(騾, 朴初上34), 사73)

b. k'wɛ innɨn(꾀(謀, 龍83), 꾀있는, 사120)

(2) a. hwandɨy(環刀, 회xi, 440,441, 사99),

b. wəndɨy(완두(豌豆), 사20)

c. surgɨy(술위(車, 月曲61), 회440)

murɨy(무뤼(雹, 訓民), 사20)

(3) a. $š^{w}$e(쇼(牛), 회48,56, 사34)

šweʤəʤina(소젓-이나, 회108)

b. mašuy(마쇼(馬牛), 사47,77,15,25,105)

(1a)의 先代形을 '가마괴', '나괴'로 재구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이 방언과 중세국어가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母音調和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점, 둘째 비어두 음절 위치의 '오>우' 변화이다. 이러한 근거를 기초로 삼고 (1-2)의 공시적인 자료를 통하여 선행시기 *oy, *uy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구할 수 있다.

例 (1)에서 中世國語의 '외'를 음절 위치를 고려하여 육진방언형과 비교하여 보면,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는 [uy]에, 어두위치에서는 [wɛ]에 규칙적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음절 위치에 따라 對應音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외'가 음절 위치에 따라 다른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a)는 母音調和에 어긋나므로 /kamakuy/는 /kamakoy/로부터 변화한 것이라 해야 옳다. 즉,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오>우'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2a)는 /hwanto/(環刀)로부터 변화한 漢字語이다. 語幹 末音이 /o/임에도 불구하고 /hwandɨy/로 변화한 것은 이 어사의 어간말에 한 정첨사 '-이'가 결합되어 어간의 일부로 고정되면서 /hwantoy/로 再構造化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가 어간에 접미된 이후 (1)과 동일한 변화를 경험한 다음 비원순화하여 /hwandɨy/가 된 것이다. (2b)는 어간말 모음이 본디부터 /u/이다. (2a)처럼 어간말에 '-이'가 접미되어 /wənduy/로 재구조화된 다음 (2a)와 동일한 변화를 겪은 것이다. (2a)

와 (2b)의 어간말 모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시태로 결과한 것은 (2a)가 (1a)의 예들과 같이 '오>우'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우' 변화는 이중모음 *oy, *uy의 存在를 前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2c)는 先行 音節의 圓脣母音에 의하여 後行 音節 모음이 非圓脣化한 것이다.(4.6 참고) 이 변화는 /uy>ɨy/를 가정하여야만 合理的으로 說明될 수 있으므로 이도 역시 이중모음 *uy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3a,b)로부터도 역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3a,b)는 '소'(牛)의 육진방언형으로 (3a)는 어두위치에서의, (3b)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의 반사형이다. 동일한 어사가 음절 위치에 따라서 음성형(phonetic shape)이 각각 달리 나타난 것은 '소'의 六鎭方言形이 *syo (中世國語 의 '쇼'와 同一)이었음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즉, 어두음절 위치의 [šwe] 혹은 [$š^w$e]는, /syo+i>syoy>syö>sywe(=[šwe]/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며, 비어두 음절 위치의 '-šʉy'는 /-syo+i>-syuy(=[šʉy]/의 변화를 거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 단계에서 어간말에 부가된 '-i'는 한정첨사이다. 그리고 후자의 '오>우'는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적용된 통시적 규칙이므로 위 變化 段階의 設定은 妥當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실들을 통하여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 이중모음 /oy/, /uy/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중세국어의 '외, 위'에 대응되는 육진방언의 반사형들을 검토하여 보고 이중모음 /uy, oy/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4.7.2.1.2 二重母音 /oy/의 변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외'에 대한 육진방언 반사형은 아래 (1)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의 예를 검토하면서 /oy/의 변화를 논의하기로 한다.

(1) a. wɛugi(외오-(誦, 楞7:44), 사34,133)

wɛ(외(瓜, 杜初8:42), 회x, 회261)
wɛnts'age(왼(左, 釋譜6:30), 왼쪽에, 회416,436)
wɛ harmi(외할머니, 사2)
cf. hwɛparimʤiri hagi(휘파람질을 하다, 사102)
hwɛparimu purgi(휘파람을 불기, 사102, 교68)
wɛn(맨, 가장, 회38,277)

b. mɛt'ugi(묏도기(字會上, 23), 사113), cf. mɛttogi(PU.266)
mɛtotʰini(뫼돝, 멧돼지-는, 교49,50), mɛtotʰi(PU.220)
mɛtpoŋori(묏봉오리(峰, 字會上, 3), PU.426)
pɛ(뵈(布, 龍3:13), 사85), pɛʧəksɛmi(베적삼, 사129)
cf. 븨/싱포,싱븨/다드문 븨/, PU,685)
pɛumni(뵈-(被見, 釋譜13:24), 회402), pɛuo(보이오, 사11)
pɛwara(뵈-(使見, 龍36), 회442), pɛugi(보이기, 사84)

c. swɛmodi paga nyəkʰi(쇠(鐵, 杜8:32), 쇠못을 박아 넣기, 사89),
cf. swɛmot, swɛmodi(쇠못(鐵釘), 쇠못-이, 사18)
swɛ put, swɛ pudi(쇠붓(鐵筆), 사78)
swɛšurɛ(쇠스랑, 사20)
swɛlli tigi(쇠로 鑄造하기, 사75) cf. tigi(디-(鑄, 金三2:31)
swɛgi(쇠야기(楔, 四海下83), 사44)
swɛnin(쇠-, 사41)
cf. sɛŋʤini swɛnin sarimi(생일을 쇠는 사람, 사41)
tswɛun(죄-(挾), 사122)
ts'wɛugi(쬐-(曝, 月釋1:48), 사21), cf. ts'uɛupte(쮜디다, 교26)
twɛgi(되야기(疹, 老上4), 사48)
twɛu(되오(되게), 사21)
k'wɛ innin(꾀(謀, 龍83), 꾀있는, 사120)
cf. k'wɛmaŋsirəbun(꾀있는, 교19,37,49)
k'wɛk'ori(꾀꼬리, 교62)

d. šʷedəri(소들을, 회48), šʷe kogiri(소고기-를, 회246,249)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108,329)

š^{w}erɨ(소-를, 사26,34),

š^{w}etʃət ts'anɨn kɨrɨt(소젖 짜는 그릇, 사83)

(5) a. nöwašə(놓였어, 교21,55,64-5), nöunge(놓인 것, 교65)

b. pöwašə(보였어, 교13,24,49,54), pöuryarɨ(보이려고, 교38)

pöupte(보입디다, 교25), uppə pöwašə(우스워 보였어,교35)

pöuʤagu(보이자고, 교62)

c. am-notʃ^{h}inneɣegwa soňňeɣe sərɨ sörke əpsəšə(늙은 안노인과 손녀에게는 설(元旦)을 쇨 것이 없었어, 교57)

šö(쇼(牛), 교2,3), šöʤədzɨllɨ(쇠젖-으로, 교69)

šöʤəʤiraŋ(소젖-이랑, 교17-8,43)

šöʤeʤi(쇠젖-이,교70)

su-šö(숫소, 교2), am-šödu s'agu(암소도 사(買)고, 교57,58)

sip amšö(열 살짜리 암소, 교69)

yəmšö(염소, 교8,17)

t^{h}ömarye(툇마루-에, 교73)

(1)은 선행자음과의 통합관계를 고려하여 /oy/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1a)는 선행자음이 없을 때 /oy/가 /wɛ/로, (1b)는 脣子音下에서 /ɛ/로, (1c)는 脣子音을 제외한 자음하에서 /wɛ/로, (1d)는 音聲的으로 경구개자음 [š] 뒤에서(音韻論的으로는 /sy/ 뒤) /we/로 변화한 예이다.

(1b)는 순자음하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므로, 이들도 (1a,c)처럼 oy>wɛ의 변화를 경험한 다음, 순자음 아래에서 같은 [+labial] 자질을 공유한 /w/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방언의 이중모음 /oy/는 (1d)를 제외하고는 語頭 音節 位置에서 先行子音의 有無에 관계없이 /wɛ/로 변화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는 '오>우' 규칙에 의하여 /oy>uy/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후 /uy/의 변화에 합류하였다. 이중모음 /oy/가 음절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변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중모음 'oy>wɛ'의 변화는 '오>우' 규칙의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우' 규칙의 발생 이전에 'oy>wɛ'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1)과 같은 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d)는 (1a,b,c)와는 다르게 /we/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yo>ö>we'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임은 4.4의 움라우트에서 논의된 바 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방언의 共時的인 母音體系, [we]의 분포 제약 및 움라우트라는 음운현상을 통해서 (1d)의 올바른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즉, 體系와 規則을 상호 有機的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형태소 내부 혹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이 규칙적이며 생산적인 이 방언에서, 만약 모음체계 내부에 /ö/가 존재한다면 움라우트 규칙의 構造記述 부분을 만족시키는 어간 모음 /o/가 /ö/로 실현될 것이나, 4.4 움라우트 현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예는 육진방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듯한 다음 예를 제시한 바 있다.

š^w^egẽ, š^w^egyəŋ(소경(盲人)-이, 소경, 사107)

움라우트는 후설모음이 전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화주 /o/가 움라우트에 의하여 /we/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예는 /syökyəŋ/으로 변화한 다음, (1d)와 같이 이중모음 /we/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면 (1d)는 ö>we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we/가 음성적으로 경구개 자음 뒤에서만 출현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uy/가 역시 경구개 자음 뒤에서만 [ü]로 변화한 사실과 平行的이기 때문이다. 硬口蓋 子音 뒤에서만 이러한 單母音化를 경험한 이유는 경구개 자음이 'i'와 함께 [+high]라는 자질로 自然部類를 이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音聲이 音素的 地位를 얻기 이전에, 즉 한 음소의 異音(allophone)의 단계에서도 어떤 音韻 規則의 적용 영역에 포함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ö]가 音素의 지위에는 이르지는 못한 異音으로 존재([ö]는 음성적으로 구개자음 뒤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것)하던 시기에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으로 /o/가 [ö]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의 [ö]는 構造的인 壓力으로 二重母音 /we/로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5)에서는 '외'의 반사형들이 [wɛ]가 아닌 [ö]로 전사되어 있는데, 모두 <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AZK>에서만 보여진다. 그리고 (5)의 예들은 (4a-d)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會話>, <辭典>에서는 [we], [wɛ]로 전사되어 있다.('보이-'(示)가 (4b)에서는 [pɛu-]로 전사되었지만 (5b)에서는 [pöu-]로, '쇠-'가 (4c)에서는 [swɛ-], (5c)에서는 [sö-]로, '소'(牛)가 (4d)에서는 [$\check{s}^{w}$e], (5d)에서는 [šö]로 전사되어 있다.)

그런데 <會話>과 <敎科書>는 동일한 한국인의 發話音을 전사한 것이므로 이것은 同一音을 다르게 轉寫한 것이거나 혹은 <敎科書>의 편찬에 관여한 다른 韓國人의 發音을 轉寫한 것이 분명하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5)의 전사 내용은 <敎科書>의 편찬에 관여한 徐 氏(吉州 出身)의 發話音으로 보인다. 어쨌든 <敎科書>보다는 <會話>가 後에 편찬되었고, 또 그 때문에 <會話>의 音聲轉寫가 <敎科書>보다는 정확하고 精巧하다는 측면에서 필자는 이 전사 예를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31)

---

31) (5)의 [ö]는 <敎科書>의 편찬에 간여한 徐 氏(咸北 吉州 出身)의 발음일 가능성이 짙다. <교과서>의 전사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외'가 모두 [ö]로 전사된 것은 아니다. 단지 [5]의 예들만이 그러하고 나머지는 <辭典>, <會話>와 동일하다. 따라서 (5)는 吉州 출신인 徐 氏의 발화음을 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小倉進平(1927)에는 '외'가 六鎭地域에서는 /wɛ/로, 吉州에서는 [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필자의 함북지역 방언 조사에서도 小倉의 조사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참고로 필자가 조사한 '보이-'의 방언형은 아래와 같다.

[pɛunda]:慶源, 鍾城, 穩城, 慶興(以上 六鎭), 茂山, 鏡城
[pöunda]:明川, 吉州　[pöönda]:鶴城
[peunda]:富寧

4.7.2.1.3 /uy/의 변화

이중모음 /uy/가 선행하는 자음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1) a. sauy(사회(壻, 釋譜6:16), 사39), mašuy(마쇼(馬牛), 회부66)
  nɛuy(내외(內外)→부녀가 외간 남자를 피함, 사115)
 b. tuy(:뒤(後), 회435), tui(사40), cf. tɨy-tsʰaŋ(뒤창, 사72)
  par-tɨytsʰuk(발:뒤·축(法華2:12), 사94)
  t'uygi(:뛰-(躍), 사5,43), cf. t'ɨygi(사93,104)
  t'we nɛrigi(뛰어 내리기, 사110), t'we tɨrgi(뛰어들기,사5)
  t'we nirənagi(뛰어 일어나기, 사14),
  t'we nagagi(뛰어 나가기, 사16)
  suygi(:쉬-(呼吸, 杜24:35, 사20)
  suyn(:쉰(五十, 釋譜19:2, 사68)
  suyni(부70), suy-namu(쉰 남짓, 회42)
  tsuygi(:쥐-(握, 楞1:108), 회ix), cf. tsɨygi(사104)
  tsuyugi(쥐이다. '쥐-'의 피동형. 사24), cf. šunhan mari tyaaŋdzɨ tsar <u>tsuyunda</u>(順한 말이 항상 잘 순종한다.)
 c. kamagɨy(가마괴(烏), 사13), ʧihɨyhagi(指揮하-기, 사126)
  kɨyt'uri(귀뚜라미, 사101)

(2)a. hwandɨy(환도(環刀), 사99, 회440-1)
  wəndɨy(완두(豌豆), 사20)
 b. murɨy(무뤼(雹), 訓民解例), 사20)
  surgɨy(술위(車, 龍5:33), 사12,81)
 c. toŋmɨy(동모(友, 老朴字解下9), 사28)
  təbɨy(더뷔(暑, 釋譜9:9), 사viii)
  ʧʰibɨy(치뷔(寒, 釋譜9:9), 사60,129)

따라서 위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5)의 전사는 吉州 出身인 徐 氏의 발음임이라 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mɛbɨy(매부(妹夫), 사39)
kwabɨy(과부(寡婦), 사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모음 /uy/는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音聲的으로 달리 실현되거나(共時的으로), 선행자음 및 선행음절 모음에 따라 달리 변화하였다. (1)은 /uy/의 공시적 변이형들을 나열한 것인데, (1a,b)는 [uy]로 실현됨을, (1c)는 핵모음 /u/의 圓脣性이 약화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1a,b)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轉寫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문인데, (1b)는 (1a)보다 過渡性이 거의 인식되지 않아 2음절에 가까운 조음특성을 전사에 반영한 것이다.(2.1.6 參考) (1b)는 중세국어 단계에서 上聲의 聲調를 지녔던 어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c)는 (1b)와는 반대로 핵모음 [u]의 원순성이 약화되어 [ɨ]와 가까운 음으로 실현되고 /y/의 과도성도 극히 미약한 이중모음의 전사 예이다. 음성표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調音上의 差異는 환경에 따른 /uy/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32)]

(2a)는 선행자음 /t/ 아래에서 /uy/>/ɨy/ 변화를 겪은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의적이다. (2b,c)는 이미 4.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非圓脣化에 의하여 /uy>ɨy/의 변화를 경험한 어사들이다. 이 異化作用은 (2b)와 같이 선행 음절 모음이 圓脣母音 /u/일 때와(遠隔的), (2c)와 같이 脣子音下에서(隣接的) 일어났다.

한편, 아래 (5, 6)은 중세국어의 어간말 모음 '오,우'에 대응되는 예들이다. '오,우'에 限定添辭 '-이'가 결합되면서 그것이 어간의 일부로 고정되어 二重母音 /oy, uy/를 형성한 다음, 다시 '오>우' 규칙에 의거 /oy/가 /uy/에 합류하고 이어서 앞 (1-2)와 같은 음성적 실현을 보인 것이다.

(5) a. koŋnʉy(功勞, 사58), tsɛdzʉy(재주, 사64),

32) 필자의 함북방언 조사에 의하면 (2)의 예들은 대체로 /i/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慶興출신의 金翊俊씨는 필자에게 '가마귀'의 '귀'는 '긔'도 아니고 '기'도 아닌 그 中間音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그는 그 음을 [ï]로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에게는 거의 /i/에 가까운 소리로 들렸었다.

mašʉy(마소(馬牛), 부44, 사15,25,47,77,105)

b. toŋmɨy(동무, 사28), kudzɨy(救助, 회419)

(6) a. ʧʰiŋgʉy(친구, 사28,91), cf. ʧʰiŋgosa(친구-야, 교53)

tarsʉy(달수(月數), 사61), mantʰʉy(만두, 사53)

pundzʉyrɨ s'igi(→시끄럽게 하다, 떠들다, 사135)

cf. pundzu=an(사130)

nugɨy(누구, 사49), cf. nugidəndi(누구든지, 사69)

wəndɨy(완두콩, 회x), wəndɨy kotʰi(완두콩 꼬투리, 사20)

(5)는 본디 어간말음이 /오/인 예들이고, (6)은 /우/였던 예들이다. 어간말에 '-이'가 첨가됨으로써 (5)는 /oy/>/uy/, (6)은 /uy/ 이중모음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5b)와 (6a)는 비원순화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이'가 개음절 어간에 첨가됨으로써 이 방언에는 語幹 末音이 /오,우/로 끝나지 않는 形態素構造制約이 생겨나고 또한 이중모음 /uy/가 다른 방언과는 다른 특이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4.7.2.1.4 *ʌy의 재구와 그 변화

앞장에서 우리는 육진방언의 선행시기에 /ᄋᆞ/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그의 史的 변화를 기술한 바 있다. 거기서 우리는 /ᄋᆞ/가 어두음절에서는 /아/에, 비어두음절에서는 /으/에 합류한 사실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중세국어의 'ᄋᆡ'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 (1-2)에서도 발견되므로, 선행시기 육진방언에 이중모음 'ᄋᆡ(ʌy)'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1) 어두음절 위치에서,

hɛ(ᄒᆡ(歲, 釋譜6:1), 사19,109)

k'ɛdak'i(ᄭᆡ돋-(覺, 釋譜6:20), 사90)

k'ɛugi(ᄭᆡ오-(使曉, 杜15:26), 사6)

mɛgi(ᄆᆡ-(結, 曲76), 사17), mɛk'i(ᄆᆡᆽ-(結, 金三4:63), 사63)

nɛguri(ᄂᆡ(烟), 연기, 사29)
pɛdzabun namu patʰi(ᄇᆡ-(稠密, 同文類解下58), 稠密한 숲,사131)
tɛɣari(ᄃᆡ골(顱, 字會上24), 머리, 사19)
(2)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mogɨy(모ᄀᆡ(蚊, 釋譜9:9), 사117)
kasɨy(가ᄉᆡ(荊, 釋譜11:35), 교2)
tsantsʰɨy(잔ᄎᆡ(宴, 朴初上57), 사48)

(1-2)는 중세국어의 어두음절 위치의 'ᄋᆡ'가 육진방언에서는 '애'에, 비어두음절 위치의 'ᄋᆡ'는 'ɨy'에 대응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ᄋᆡ'가 二重母音 *ʌy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六鎭方言의 선행시기에 이 二重母音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ᄋᆡ'가 '애'와 'ɨy'로 반사된 것은 'ᄋᆞ'가 音節 위치에 따라 /아/, /으/로 달리 변화한 사실과 평행을 긋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중모음 *ʌy는 꼭 이와 같은 패턴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아래 (3)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위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변화한 것들이다.

(3) 어두위치에서,
hɨyn(ᄒᆡ-(白, 龍50), 사107,128)
(4) 비어두위치에서,
a. karɛgi(ᄀᆞᆯᄒᆡ-(選, 龍8), 가리-기, 사15,95, 교2,19,47,71)
b. tõe(동ᄒᆡ(盆, 救簡1:112), 사50, 회xvi,316, 교7)
ʧõe(죠ᄒᆡ(紙, 解例用字), 사6, 회296)
ore(올ᄒᆡ(今年, 杜8:27), 회239,240)

(3)은 예외적인 변화로 육진의 경흥방언에서 역시 'ᄋᆞ>으'로 변화한 'ᄒᆞᆰ>흙'과 평행을 긋는 것이다. (4a)는 'ᄋᆞ>아'의 변화 이후에 單母音化한 예이고, (4b)는 'ᄋᆞ>어'의 변화 이후에 單母音化한 예로서 선행음절 모음이 /o/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의

동화력이 강하여 /ᄋᆞ/가 비교적 오래도록 존속되다가 'ᄋᆞ>어'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이 방언에서는 한정첨사 '-이'가 'ᄋᆞ'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되어 어간의 일부로 고정되면서 이중모음 'ᄋᆡ'를 형성하였다. 아래 (5)는 그러한 예들에 있어서의 이중모음 'ᄋᆡ'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5) a. kamʤe(감ᄌᆞ(藷), 회333, 표34, PU.228)
　　cf. kamʤi(감ᄌᆞ(藷), 회xiii, 慶源郡誌)
　honse(혼ᄉᆞ(婚事), 사101), honsɛrɨ(혼사-를, 교62)
　saŋsenasso(상ᄉᆞ(喪事)났소(→돌아가셨소), PU.453, 慶源, 會寧郡誌), cf. saŋsɛnagi(喪事나-기, 사125)
　tyəmdze(簟子(→짚으로 엮은 자리), 사45), cf. 뎜제(慶興郡誌)
b. padzɛ(바자(把子(→울타리)), 회xiv, 사32)
　wandzɛ(완자(碗子)→찻잔, 사131)
　tʰundzɛ(툰재(筒子)→물통, 회xiv)
　tʰandzɛ(탄재(毯子)→담요, 회xiv)
c. sadzɨy(사ᄌᆞ(獅子), 사52, 교26), sadzɨyge(사자-에게, 교43)
　sadzɨygwa(사자-와, 교43), sadzɨyrɨ(사자-를, 교43)
　　cf. satsi(사자. PU.276)
　sondzɨy(손ᄌᆞ(孫子), 교13)
　ʧoŋdzɨy yegi(종ᄌᆞ(鍾子), 종지의 갓(邊), 교8,9)
　saŋdzɨy(상ᄌᆞ(箱子), PU.730)
　　cf. pyeru saŋtsi(벼루 상자, PU.730)

(6) tyaŋsɨy(댱ᄉᆞ(商), 사47,50)

(5)는 모두 漢子語로서, 末音節이 '子, 事'인 어사들이다. 이들 漢子音은 본디 'ᄌᆞ, ᄉᆞ'로서[33] 여기에 한정첨사 '-이'가 결합되어 이중모음

33) 이 漢字들의 東音은 'ᄌᆞ, ᄉᆞ'이다. 子: 아ᄃᆞᆯ ᄌᆞ(訓蒙字會(叡山本), 上16b). 事: 셤길 ᄉᆞ(千字文(光州板), 11a)

‘ᄋᆡ’가 형성된 것인다. ‘ᄋᆡ’의 핵모음 ‘ᄋᆞ’의 변화를 살펴보면, (5a)는 ‘ᄋᆞ>어’, (5b)는 ‘ᄋᆞ>아’, (5c)는 ‘ᄋᆞ>으’의 변화를 각각 겪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예는 漢字語에서 二重母音 ‘ᄋᆡ’의 통시적 변화가 固有語와는 달리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6)은 고유어로 어말에 ‘-이’가 결합된 예이다.

(5c)는 (2)의 고유어와 동일하게 ‘ᄋᆞ>으’로 변화하였음에 반하여(급진적인 어사는 ɨy>i의 변화까지 보인다.), (5a)는 (4)와 같이 ‘ᄋᆡ>에’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5b)는 ‘ᄋᆡ>애’로 변화하였다. 비어두 위치에서 (5)의 예들이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이들이 漢字語이기 때문이다. 즉 漢字語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 하나하나가 개별 형태소로서 인식되므로 固有語와는 그 변화의 속도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5)의 몇 예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ᄋᆡ>e	2.ᄋᆡ>ɛ	3.ᄋᆡ>ɨy	4.ᄋᆡ>ɨy>i
kamdʒe			kamdʒi
saŋsenasso	saŋsɛnagi		
		sadzɨy	sadzi
		saŋdzɨy	saŋtsi

(4는 3의 단계를 밟아 변화한 급진적 변화 예임)

(5a)와 (5c)가 相異한 변화를 보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語源意識이다. 語源意識이 稀薄한 경우는 고유어와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하였지만(5c),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어두 음절 위치이지만 ‘ᄋᆞ>아’의 변화를 겪었고(5b)[34], 어떤 부류는 ‘ᄋᆞ’의 音價를 끝까지 고수하다가 非音

34) 이들 예는 中國語 借用語일 가능성이 많다. ‘탄재’는 同文類解에도 보인다. 함북방언에는 이러한 차용어들이 다수 보이는데, t^hyedzɛ(紙錢,회357), t^hyebodzɛ(지갑), p^hoŋdzɛ(수레 위에 얹는 상자 같은 것, 사81) 등은 語源을 밝히기 어렵지만 中國語 借用語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어사들의 말음절 ‘-dzɛ’는 (5b)와 동일한 ‘子+ ㅣ’의 한국어 발음인 것으로 여겨진다. ‘ᄋᆞ>아’의 변화가 규칙적

韻化의 마지막 단계에서 'ᄋᆞ'가 '어'에 合流하게 되면서 (5a)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이다. (5)는 어휘 자질에 따라 變化 速度나 變化 方向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비어두음절 위치에서의 'ᄋᆡ>에'변화이다. 이 변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ᄋᆞ>어'의 변화에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ᄋᆡ'가 '애', '에'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單母音으로 발전한 다음 '에(e)'에 합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35] 이것은 전자의 변화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유어에서는 (1-2)와 같이 어두음절에서는 'ᄋᆡ>ɛ', 비어두음절에서는 'ᄋᆡ>ɨy'의 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어두음절 위치에서 'ᄋᆞ'가 非音韻化한 이후에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발생하였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4)의 예들만이 이 단모음화의 대열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ᄋᆞ>어'의 변화 예들처럼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이중모음 'ᄋᆡ'의 음가를 고수하던 어사들이 'ʌy>əy>e'의 변화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4)의 예들만이 'ᄋᆞ>어'의 변화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4)의 예들의 형태소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4.1에서 이 방언의 모음조화를 논의하면서 비어두음절위치에서 '오>우'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一群의 어사들에 注目한 바 있다. 그들은 동화주라 할 수 있는 어두음절 모음 /o/였는데 이 모음은 동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우'의 변화를 制御하고 있었던 것이다. (4)의 예들이 'ᄋᆞ>어'로 변화한 것도 그러한 까닭에 말미암은 것이다. 즉, 어두음절 모음 '오'가 후속 모음 'ᄋᆞ'로 하여금 '으'로(즉, '의'로) 변화하는 것을 제어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ᄋᆞ'가 'ᄋᆞ>어'의 변화 물결에 합류한 것이다.

으로 이루어진 점이 흥미로운데, 'ᄌᆞ>자'의 변화 이후에 借用된 것이 아닌가 한다.

35) 小倉進平(1945:461)의 제주 방언에 대한 보고에서처럼 'ᄋᆡ'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4.7.2.1.5 ɨy의 변화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의 '의'는 육진방언의 'ɨy'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1) kəmɨy(거믜(蛛, 字會上21), 회x, 사77, 교6,38)
kɨyu, kɨygi(긔-오, -기(匐, 月釋1:11), 교35), kɨy(긔(旗), 교2)
mudɨyn, mudɨywəs'o(무듸-ㄴ(鈍, 金三4:49), 사70,123)
nəbɨy(너븨(廣, 月釋8:12), 회17,부65)
sɨy-emi(싀어미(姑, 杜初8:67), 사101)
tədɨy(더듸(遲, 杜初23:39), 회202)
tɨdɨygi(드듸-기(踏, 月曲19) -기, 사115)
titʰɨyugi(드틔우-기(옮겨 놓기, 디디다, 朴初上33), 사24,102)
t'ɨy(띄(帶, 字會中, 23), 회xvi),
ʧəndɨydi(견듸-지(忍, 杜初8:21), 교8)
tsʰɨyugi(츼-기(除, 法2:207), 회124)

그런데, 아래 (5)에서 보듯 응당 'ɨy'가 기대될 자리에 /i/가 나타나는 예들이 있다.

(5) a. tikʰigi(디킈-(守, 釋譜9:21), 회154,사112)
ʧirgin(질긔-ㄴ(질기), 사49)
ibuktəri(의복(衣服)들이, 교54,
iwəndəri(의원(醫員)-들이, 교10), iwəni(의원, 교9)
b. imšəge(음식-에, 회233, 사51)
imšəktu(음식-도, 교58), imšəgɨ(음식-울, 교40,70)
cf. ɨymšək, ɨymšegi(음식, 사136,79,114)
<u>ɨymšək</u> katsʰunɨn ank'ani(음식 만드는 여자, 사114)
<u>ɨymšək</u> məŋnɨn kan,i(음식 먹는 간(식당), 사113)
c. kɨbyəri(긔별(奇別, 龍35), 사17)

(5a)는 'ɨy>i'의 변화형이고, (5b)는 ɨmsyək>ɨymsyək>imsyək의 변화 과정을 겪은 예인데, <辭典>에는 변화의 중간 단계형인 ɨymšək도 보인다. (5c)는 'ɨy>ɨ' 변화형이다. (5)는 비록 소수의 例에 불과하지만 20세기초의 육진방언이 'ɨy>i'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

4.7.2.1.6 *ay, *əy와 그 변화

*əy는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와 그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을 비교함으로써 재구할 수 있다.

:셓(三), səi(회부71), main səi(마흔셋, 회부72), yar səi(열셋,회부71)
səišə(셋이서, 사14), cf. sə mari(세 말(馬)-이, 사122)
:넿(四), nəi(회부71), suyn nəi(쉰 넷, 회부72), yar nəi(열넷,회부71)

중세국어의 '에'는 /əy/라는 사실과 중세국어의 '에'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이 /əi/로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 육진방언의 선행시기에도 *əy가 존재했음을 알 수있다. 중세국어의 '셓'와 '넿'는 聲調가 모두 上聲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위 예는 이러한 비분절적 요소에 의하여 *əy의 單母音化가 저지되어 化石化된 어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上聲이었던 '게'(解)는 'ké(사111)'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上聲 語幹이 모두 이중모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어휘가 단모음화하지 않고 남아 있는 데에는 모종의 다

---

36) 中國의 琿春 지역의 한국어 방언을(육진방언) 조사 보고한 전학석(1987:344)은 이중모음 '의'에 대하여, "훈춘지방말에는 겹모음 [ɨi]가 없다. 표준어에서의 겹모음 [ɨi]는 훈춘지방말에서는 [i], [e], [ɨ(u)]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金泰均(1986:19-20)에서도, "'의'는 대체로 '이'([i])로 소리난다. 本道 사람들은 '의'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간 의식적이 아니고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咸北方言에는 二重母音 'ɨy'가 존재하지 않음을 언명하고 있다. 小倉進平(1927,1931,1945)의 조사 보고에는 /ɨy/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영순(1967), 황대화(1986:18)에서는 ɨy>ï 변화를 소개하고 ï가 아직도 老年層의 화자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육진방언형은 이중모음이 아니라 두 음절모음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어간모음이 高調로 실현된 사실도 흥미로운 점이다.[37)]

한편, *ay를 재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əy의 재구에서와 같이 중세국어의 上聲 어간들과 이 방언에서의 그 對應形들을 比較함으로써 *ay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모음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새(草) sɛrɨ tʰigi(새(풀)를 치다(베다), 사48)
sɛnadi(풀 베는 낫, 사118), sɛ patʰi(牧草地, 사55)
:새(鳥) sɛ(새, 사79), sɛʧorʉ̃y(새조롱, 사45)
:개, 가히(犬) kɛ(개,사79)
kɛrɨ tɛrigu tɛŋgigi(개를 데리고 다니기, 사12)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재구한 이중모음들의 체계를 고려할 때 *ay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前節에서 우리는 'ʌy>ay>ɛ'의 변화를 보았으므로 *ay의 존재는 의심없이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下降 二重母音과 육진방언의 재구된 그것을 비교하여도 선행시기 육진방언에서의 *ay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六鎭方言에서 다른 下降 二重母音과는 달리 *ay가 그 痕迹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母音體系와 관련되는 듯하다.[38)] 즉 滑音 /y/의 이동

---

37) 황해, 충남과 같은 중부방언권에서도 '세,네,게' 등은 'sə:i, nə:i, kɨ:i'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육진방언이 이중모음이 아닌 2음절로 나타나고 어두 음절모음이 악센트를 갖고 있는 점과 평행을 긋는다.

38) 육진방언에서는 'hɛɛni(하인(下人), 사106-7)'에서 보듯 단어 내부에서의 /a+i/의 음운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ay/의 單母音化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4.8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은 피동화모음이 /a,ə/일 때 강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ay/가 여타의 이중모음보다 單母音化의 速度가 빨랐을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끝나는 위치에 있는 /i/와 상대적으로 開口度가 다른 모음에 비하여 큰 핵모음 /a/가 그러한 음성학적인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單母音化를 促進시킨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音聲的 動機가 부여됨으로써 /ay/는 다른 하강 이중모음에 비하여 단모음화가 빨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진방언이 7모음체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ay, əy, oy, uy, ʌy, ɨy/의 하강 이중모음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 이중모음들은 시간축상에서 緩急을 달리하면서 각각 상이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 변화 속도는 低母音이 가장 빠르고 高母音이 緩慢하다는 점도 들어났다.

4.7.2.2 上昇 二重母音의 再構와 그 變化

앞서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모음체계를 논의하면서 /i,ɨ,ə,a,u,o,ʌ/의 7모음을 재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母音과 滑音 /y/가 결합된 下降二重母音 /ɨy, əy, ay, uy, oy, ʌy/를 재구하고 그 변화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上昇 二重母音도 구조적으로는 /yi, yɨ, yə, ya, yu, yo, yʌ/의 상정이 가능하다.[39]

공시적으로 육진방언에는 /ya, yə, yo, yu/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yi, yɨ, yʌ가 선행시기에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체계적인 공백을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논의의 주안이 되어야 하지만, 공시적인 자료만으로는 그 구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yʌ는 타방언과의 비

39) *yɨ ,*yʌ는 중세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金完鎭:1964, 1972, 李基文:1972) 다만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의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라는 記事 내용을 통하여 15C의 공시적인 지역 방언 혹은 社會的 成層에 따라 *yi, *yʌ가 존재했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yʌ는 姜信沆(1967), 李基文(1972, 1977)에서 실증적으로 검토되었고, 15C의 선행 단계에 *yʌ가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金完鎭(1972), 李基文(1972)에서는 중세국어에서 表面層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yi가 중세국어의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基底層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교를 통해서 그 실재 여부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육진방언의 이중모음 /ya, yə, yo, yu/는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7모음체계를 유지했던 시기에도 이중모음 /ya, yə, yo, yu/는 그대로 존재했었을 것이다.

우선 위 이중모음들을 중세국어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ya/

am-yaŋ((羊, 朴初上2), 사71,회51)

nyaŋban(냥반(兩班, 飜小10:15), 사2)

tyaŋgari kagi(댱가(嫁, 釋譜6:16)-를 가기, 사31)

ʧaraŋ(/tsyaraŋ/)(쟈랑(矜, 杜初15:5), 사128)

ʧaridəri(/tsyaritəri/)(쟈ᄅ(袋, 字會中, 13)-들이, 사62)

šaŋgɛbi(s'ada)(/syaŋkɛpi/)(샹급(賞給, 朴初上60)-이 싸다.(賞給을 받을 만하다), 사35,58)

(2) /yə/

yəsiši(여슷(六, 釋譜6:1)-이, 회42, 사62)

nyəkʰi(녛(入, 釋譜9:21)-기, 사14,32)

nyəmtʰɨy(념통(心臟, 字會上, 27), 사103)

myəŋdi(명디(紬, 字會中, 31), 사134)

myəŋširi(명일(名日), 사89)

pyərigi(벼록(蛇, 字會上, 23, 사4)

pyəri(별(星, 龍101), 사37)

pyəgɛ(벼개(枕, 杜初15:11), 사83)

kibyər(긔별(奇別, 龍35), 사17)

pʰyəgi(펴(伸, 釋譜6:2)-기, 사112)

nampʰyən(남편(男便, 月釋8:93), 사61)

šədi, šəgu(/syəti/, /syəgu/)(셔(立, 龍28)-지, -고, 회122,123)

šərbun(/syərpun/)(셣(서러운, 釋譜6:44)-은, 사105)

mušəbun(/musyəpun/)(무서운, 사113)

tyə(뎌(彼, 釋譜6:26), 회28,41,63)
tʰyəndi(天地, 사102), tʰyənɛ(天下, 사102), tʰyər(鐵, 사45)
ʧəguna(/tsyəkuna/)(져그나(僅, 月2:5), 회75)
ʧəmurə(/tsyəmurə/)(져믈(昏, 杜初25:7)-어, 회31)
ʧəksam(/tsyəksam/)(젹삼(衫, 金三3:12), 사98)

(3) /yo/
yokšim(욕심(慾心, 飜小8:11), 사30,113)
moyok(모욕(沐浴, 字會下, 11), 사8), hak'yo(학교, 사72)
tyotʰi(둏(好)-지, 사65), tyošəni(됴션(朝鮮), 사47)

(4) /yu/
hyuŋnyən(흉년(凶年), 사19)
nyuk pɛŋri(뉵백리(六百里), 회40)
šugən(/syukən/)(슈건(手巾, 朴初上66), 사80,85)
šuun(/syuun/)(슈은(水銀, 字會中, 31), 사98)
tyuŋgan(듕간(中間), 사103)
pamt'yuŋ(밤듕(夜中, 朴初上22), 회313)
tyušək(듀셕(錫, 字會中, 31), 사99)
ʧugi(/tsyuki/)(쥭(粥, 字會中, 20), 사88)

(1-4)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진 방언의 이중모음 /ya, yə, yo, yu/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일치한다. 이들 이중모음은 共時的으로 先行子音과의 連結 또는 分布에 있어서 어떠한 制約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yo/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우' 규칙에 의거 非語頭音節 위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40]

40) 小倉進平(1927:5-6)에는 이들 이중모음들이 六鎭의 하위지역에 따라 달리 변화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例), '점심'(點心)은, "뎜심(鍾城), 뎜심,뎜심(會寧), 뎜심,뎀심(慶源), 점심(慶興, 雄基)" 等. 그런데, 이 방언에도 위 예와 같이 변화한 듯한 예가 발견되지만(例), tʰyenʤu, 베리(星) 等) 이들은 후행음절모음이 /i,y/일 때에만 보여지는 현상이어서 어간 내부에서의 선행자음과의 통합관계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움라우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육진방언

한편, *yʌ는 다음 몇가지 근거를 통하여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 실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육진방언의 /ya/의 일부가 중세국어의 /yə/와 대응된다는 점이다. 중세국어에서 體系的인 空白으로 남아있던 *yʌ는 中世國語의 語彙資料가 보여주는 암시적인 근거에 의하여 재구가 가능하다. 즉, '여러'(諸)가 母音調化 規則을 違背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하여 선행시기 이 어사는 *yʌra 혹은 *yara로 재구할 수 있는바, 濟州島方言에 이 어사의 반사형이 yʌra로 나타나므로 *yʌ ra로의 재구가 타당하다.(李基文:1972) 또한, 申景濬이 지적한 'ᄋᆢ듧'(姜信沆:1967)과 濟州島方言의 /yʌdirp/(李崇寧:1957)도 위 재구를 뒷받침해 주는 예이다. *yʌ로 소급될 수 있는 육진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5) <u>yara</u> pənɨ mək'i(여러 번을 먹기, 사117)
yadɨp še(8시에, 회305), yadɨp(여덟, 회42)
yadɨn-tonš'imni(여든 돈씩입니다, 회326)
yadɨ-namu(80남짓, 회42)
yari(열(十), 사26), yar-amu(열남짓, 회42)

(5)는 '여러', '여덟'의 반사형들인데, '여'가 /ya/에 대응된다. 이것은 이들 어사들의 선대형이 각각 *yʌra, *yʌtʌrp으로 재구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들 어사들은 이 方言에서 /ᄋᆞ/가 어두음절 위치에서 /아/에,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으/에 각각 合流하게 되면서 /yara/, /yatirp/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육진방언의 선행시기에 이중모음 *yʌ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yʌ는 중세국어에서는 體系的인 空白으로 남아 있었지만, 六鎭方言에서는 7母音體系를 유지하던 시절에도 하강 이중모음 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존재했었고, 'ᄋᆞ'의 非音韻化와 그 운명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1]

에서 상승 이중모음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의 일임을 알 수 있다.

4.7.3 三重母音의 변화

이 방언에서 中世國語의 三重母音에 대응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육진방언의 체언 어간말에는 '-이'가 접미되므로, 본디 上昇 二重母音으로 끝난 어간에도 '-이'가 접미되어 三重母音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언의 삼중모음은 주로 어간의 말음절 위치에서만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러한 形態論的 사실에 말미암아 이 방언은 많은 三重母音을 갖게 되었고 이 三重母音은 선행자음의 자질에 따라 타방언과는 다른 특이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앞 장에서 再構한 육진방언의 上昇 二重母音을 고려하면 이 방언의 삼중모음은 구조적으로 yay, yəy, yoy, yuy, yʌy, yɨy, yiy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yʌy, yɨy, yiy는 현재로서는 그 존재 유무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yay, yəy, yoy, yuy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中世國語에서 발견되는 '여쉰'과 같은 예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육진방언의 三重母音은 다음과 같이 한정첨사 '-이'가 어간말 위치의 이중모음에 접미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ya + i → yay	yə + i → yəy
yo + i → yoy	yu + i → yuy

이제 위 삼중모음들이 선행자음과의 통합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1) 방언에 *yʌ가 남아 있음을 증언한 申景濬은 全北 淳昌 出身(姜信沆, 1967: 10-16)이므로 그가 證言한 *yʌ는 그의 고향 방언일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가정이 맞는다면 18C 전후의 全北 淳昌方言에는 *yʌ가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小倉進平(1944), 崔鶴根(1978)에는 '여덟'의 淳昌 方言形이 모두 /yadal/로 조사 수록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순창 방언에서도 육진방언과 동일한 패턴으로 *yʌ가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4.7.3.1 /yay/, /yəy/의 변화

이들 三重母音은 二重母音 /ay/, /əy/가 單母音 /ɛ/, /e/로 변화한 사실과 평행되게 /yɛ/, /ye/로 변화하였다. /yay/, /yəy/는 /yoy/, /yuy/가 선행자음과의 統合關係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 과정을 겪은 사실과는 달리 선행자음과 無關하게 /yɛ/, /ye/로 변화하였다. 이는 모음체계 내부에 /ɛ/, /e/가 존재하는 반면, [ü]는 音韻論的으로 滑音 /y/하에서만 /uy/의 變異音이라는 신분으로 그 존재를 내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4에서 논의한 움라우트 현상도 그의 한 방증이다. 삼중모음 /yay/, /yəy/의 변화 예는 다음과 같다.

(1) nyəmnye-rɨ mao(념녀(念慮), 염려-를 마오, 회125, 사32)
tyaŋsɨytʃʰe((장사꾼의) 쳐(妻), 사50, 회177)
p'ye, p'yedɛ(뼈(骨, 字會上28), 회xvi, 사48)
(2) koʤɛ(고쟈(宦, 字會中1b), 사46)
puʤɛ(부쟈(富者), 사4, cf. 者 놈 쟈, 千字文42)

(1)은 /nyəmnyə/, /tsʰyə/, /p'yə/에 '-이'가 접미되어 삼중모음 /yəy/가 형성된 다음 /yəy>ye/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 (2)는 /kotsya/, /putsya/에 '-이'가 접미되어 /yay/가 된 다음 /yay>yɛ/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4.7.3.2 /yuy/, /yoy/의 변화

선행시기 육진방언에 삼중모음 /yoy/, /yuy/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앞서 4.7.2.1에서 언급한 '쇼'(牛)의 변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세국어 '쇼'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은 음절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어두음절 위치; šʷe, šweʤəʤina(소젖-이나, 회108)
(2) 비어두음절 위치; mašʉy məksɛ(마소(馬牛)의 사료, 사47)

동일한 어사가 음절 위치에 따라 (1-2)와 같이 달리 실현된 것은 '쇼'의 先代形을 /syoy/로 再構함으로써만 그 설명이 가능하다. 즉, 비어두음절 위치에서는 '오>우' 규칙에 의하여 /-syoy/>/-syuy/의 변화를 경험하여 (2)와 같은 공시적인 형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반면, 어두 위치에서는 'syoy>syö>sywe'의 변화를 경험하였다.(4.4 참고)

이러한 사실은 이 방언의 앞선 시기에 삼중모음 /yoy/, /yuy/가 존재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이는 또 '오>우' 규칙이 하강 이중모음들의 변화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한자어 '아교'(阿膠)의 변화를 통해서 삼중모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3)은 '아교'의 이 방언의 반사형이다.

(3) ɛgyü(사ix), ɛgi(회viii)

(3)의 '阿膠'의 육진방언형은 선대형을 /akyoy/로 설정하여야만 그 변화가 설명된다. 즉, /akyoy/ 단계에서 '오>우' 규칙과 uy>ü 單母音化를 가정하여야만 (3)의 공시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 삼중모음 /yoy/, /yuy/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3.2.1 /yuy/의 변화

삼중모음 /yuy/는 다음 (1-4)와 같이 변화하였다.

(1) yešüni(여쉰(六十), 회xii, 회부72)
yešün tasɨši(예순 다섯, 회부72)

(2) a. wənšürɨ(원슈(怨讐)-를, 사60)
ʧinʤü(진쥬(眞珠), 회ix, 사6)
tʰoʤüna(토쥬(土酒)-나, 회100)
ʧənʤü(전쥬(前廚), 회ix)
por š'ü(볼 슈(보(視)ㄹ-수(형식명사), 회xii)
ɛgyü(아교(阿膠), 사ix)

b. madʒüi(마즁(迎接), 사14)
üminɨ(유밀(稞麥), 회143)
üri(유리(璃), 회xi)
š'üšigi(뿌시기, 회ix, 사46)

(3) mok-šuy(m.k.목슈(木手), 사41,70)

(4) kamdʒi(감쥬(甘酒), 사44, 회xiii)
šweši(세슈(洗手), 사80,85)
kuši(구슈(槽), 회69,70,105)
hutʃʰi(후츄(胡椒), 사ix)
kotʃʰi(고쵸(椒), 사ix)

(1-4)의 예들은 삼중모음 /yuy/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위 예 중에서 본디부터 삼중모음인 것은, (1) 하나뿐이다. (2-4)는 본디 어간말음이 이중모음 /yu/, /yo/인 어사들로서 한정첨사 /i/가 어간에 접미됨으로써 삼중모음을 형성한 어사들이다.42)

(2)는 /yuy/의 /uy/가 [ü]로 單母音化한 예를, (4)는 /i/로 변화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3)은 (2) 및 (4)와는 동일한 환경을 지녔지만 아직 /uy/를 고수하고 있는 예이다. 그런데 (4)의 예들은 삼중모음 /yuy/가 직접 /i/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2)의 예들처럼 [ü]로 單母音化한 다음, [ü]가 非圓脣化되어 /i/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는 삼중모음 /yuy/의 가장 先進的인 變化形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서 소개한 '아교'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이다. <辭典>의 한국어 제보자가 'ɛgyü'로, <會話>의 제보자가 'ɛgi'로 발화한 사실로서 'ɛgi'는

---

42) (1-4)의 어간말음이 이중모음 /yu/임은 千字文(光州板本), 訓蒙字會, 倭語類解의 한자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문헌에 실려 있는 위 예들의 한자음은 다음과 같다.

手, 손 슈(千,36v) 酒, 술 쥬(訓,中21) 뾈, 읜숫 슈(訓,下24) 廚, 부억 쥬(倭,上31) 椒, 고쵸 쵸(訓,上12) 珠, 구슬 쥬(千,3r)

<會話>의 'ɛgyü'의 단계를 거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의 예들이 (1-3)과 그 기원을 같이 하면서도 (4)와는 달리 선진적으로 변화한 사실은 우리에게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즉, 'ü'는 변이음에 불과하므로 음운론적인 機能負擔量이 없고, 그 나마 주로 非語頭 음절위치에만 분포하며, 또한 on-glide /y/뒤에서만 存在하는 分布上의 偏在性 때문에 쉬 非圓脣化된 것으로 판단된다.[43] 또한 (1-2)의 어두 위치에서는 [ü]>i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지만 (4)와 같이 비어두 위치에서는 [ü]>i의 변화가 수행된 사실은 변화의 진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가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4)의 예들이 보여주는 單母音化는 音韻論的으로 /y/ 뒤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high] 資質이 單母音化의 牽引車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 (5-6)의 예들을 보고 더 논의하기로 한다.

	(가) /y/ 뒤에서	(나) 기타 환경에서
(5)	a. tʃindʒü(眞珠)	b. p'altʃʉy(볽쥐(扁), 사89)
	tʃəndʒü(前廚)	pits^{h}ʉygi(비취-기, 사102)
	wənšü(怨讐)	punsʉy(분수, 사106)
		tarsʉy(달수(月數), 사61)
(6)	a. kuši(槽))	b. hwandɨy(환도(環刀), 회440)
	šweši(洗手)	təbɨy(더뷔(曙), 사viii)
		murɨy(물위(雹), 사20)
(7)	a. šwe, š^{w}e(소(牛))	b. swɛ(쇠(鐵), 사18,75,89)

43) 경구개자음 뒤에서 단모음화가 일찍 일어났을 것임은 일찍이 이희승(1957)에서 지적된 바 있다. 六鎭方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단모음화 현상은 그러한 지적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ㅈ,ㅊ'이 경구개 자음으로 再音素化한 이후에 이러한 단모음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육진방언과 같이 變異音 단계에서 단모음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방언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각 방언의 음운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보다 정밀하게 분석 검토된 다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가)는 음성적으로 硬口蓋 子音 下에서, (나)는 非硬口蓋 子音 下에서의 이중모음 변화를 보인 것이다. (5a)는 uy>ü, (6a)는 uy>ü>i의 변화를 겪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5b)는 uy>[ʉy], (6b)는 uy>ɨy의 변화를 겪었다. (가)와 (나)의 변화가 서로 相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가)에 속하는 어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單母音化하였거나 그 후에 다시 'ü'가 非圓脣化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나)의 예들은 음성적으로 [ʉy]로 실현되었거나 'uy>ɨy'로 비원순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앞서의 지적처럼 음성적으로 硬口蓋 子音 下에서만 (音韻論的으로는 /y/下) 單母音化가 이루어졌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i,ü]의 조음위치가 경구개에 근접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한편, (7)의 예들도 선행자음에 따라 달리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7a)는 oy>ö>we의 변화를 보인 반면, (7b)는 oy>wɛ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앞서의 (5-6)의 변화와 평행을 긋는다. oy의 변화도 uy처럼 선행요소에 따라 그 변화의 과정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44)

(5-6)의 예들이 현재의 함북방언에서는 (가), (나)구분없이 거의 /i/로 실현되고 있음을 볼 때, 위 예들이 보여주는 三重母音 혹은 二重母音의 變化 過程은 咸北方言의 音韻史 記述에 매우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時間軸上에서 놓쳐버리기 쉬운 音聲表面에서 일어나는 音聲變化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시기와 다른 한 시기의 어형을 대응시켜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통시적인 변화를 기술하고자 할 때,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音聲 層位에 있어서의 gradual change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위 예들은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구개성 자질이 음성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ü'가 아직 音素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태음소론적 음운현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직껏 논의를 유보해 두었던

---

44) [šwe]로 전사된 것은 국어의 음소 연결에 있어서 /ywV/의 音節構造가 자연스럽지 못한 까닭으로 /w/가 매우 미약하게 발음되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2b)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ü'는 공시적으로 /y/하에서만 존재하는 /uy/의 변이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2)b는 형태소 내부 혹은 형태소 경계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움라우트 현상은 반드시 피동화주 앞의 선행자음이 경구개 자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u/의 움라우트가 피동화주 앞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 자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制約條件을 內抱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音聲表面에서의 變異音과 allophonic rule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음운층위가 아닌 음성층위에서 실현되는 이러한 변이음과 변이음규칙들은 음운체계와 음운규칙과의 有機的인 關係에 못지 않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중모음 혹은 삼중모음의 변화는 음소 /ts/가 변이음 [ʧ]를 갖게 됨으로서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ts/가 /ʧ/로 再音素化되기까지의 과정, 말하자면 자음체계의 새로운 조정 과정이 있기까지의 音聲表面에서 이루어진 제반 통시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音韻體系와 音韻規則과의 有機的인 關係 못지 않게 變異音과 變異音規則과의 關係도 重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8 口蓋音化

國語音韻史에서 口蓋音化만큼 깊이 있게 연구된 분야도 달리 없다. 이 음운현상은 訓民正音에서 齒音으로 규정된 'ㅅ,ㅈ,ㅊ,ㅿ'의 音價를 밝히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 中世國語의 'ㅈ,ㅊ'은 齒槽音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李基文:1964, 1972a:65-66, 허웅:1965) 이어서 'ㅈ'의 구개음화와 t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웅(1965)에서는 'ㅈ'의 구개음화보다 t구개음화가 다소 앞섰을 것이라 하고, 이어서 ㄷ>ㅈ의 'ㅈ'이 먼저 [ts]>[ʧ]의 구개음화를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 'ㅈ'의 구개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李基文(1972a:64-69)에서는 [ts]>[ʧ]과 같은 구개음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서 'ㄷ>ㅈ'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이 문제를 체계적 관점에서 혹은 西北方言을 보조적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논증하였다. 이와 아울러 같은 치음 계열의 /n, s, t, ts/ 등이 /i, y/앞에서 [ň, š, ʎ, ʧ]으로 실현됨으로써 어두에서 /i, y/ 앞의 /n/이 탈락하고, /s/다음에 이중모음 /ya, yə, yo, yu/가 연결될 수 없는 음소연결상의 새로운 제약이 가해졌다는 견해가 나옴으로써 근대국어 단계에서 발생한 음운변화 사실들이 구개음화와 관련지어져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근에 이 음운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술을 꾀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宋敏(1986), 洪允杓(1987)이 그것이다. 전자는 문헌자료의 표기 사실을 통하여 t구개음화를 수의적 교체, 음성규칙, 음운변화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후자는 근대국어 단계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t구개음화, h-구개음화, k-구개음화 규칙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음운현상의 공간적 변화나 변화의 내부적 환경 및 규칙 발생의 동기화, 규칙 발생의 시기를 체계적으로 구명하였다.

本節은 이와 같이 꽤 다양하게 논의된 구개음화 현상을 재음미해 보기 위하여 씌어진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20C초의 육진방언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양면에서 제약을 받지만, 이들 자료는 구개음화에 대한 기왕의 의문들, 즉 주로 가설적 범위에 머물렀던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인 해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쟁점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새로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믿어진다.

本節에서는 <辭典>, <會話>, <敎科書>의 정밀한 음성전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방언의 자음체계, 변이음 규칙, 구개음화 규칙 등을 살펴보고 t, k-,h-구개음화 현상의 발생 시기의 선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8.1 t-口蓋音化

먼저 'ㅈ'의 변이음 및 재음소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세국어

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육진방언형과 중세국어의 出典은 생략함.)

(1) [ts]	[ʧ]
[六鎭方言](中世語形)	[六鎭方言](中世語形)
tsara-uri(ᄌᆞ라(足)-)	ʧag-ɨn(쟉(小)-은)
tsadzuru(ᄌᆞ조(頻))	ʧebi(져비(燕))
tsam-u(ᄌᆞᆷ(眠))	ʧaŋnim(쟝님)
tsa-nɨn(자(眠)-는)	ʧəmur-da(져믈(昏)-다)
tsari(자리(席))	ʧap'adi-gi(졋바디(倒)-기)
tsar(잘(能))	ʧaŋmur(쟝(醬))
tsap-kεs'o(잡(捕)-겠소)	ʧarɨ(쟈ᄅᆞ(袋))
tsok^{h}ε(족하(姪))	ʧaraŋ(쟈랑(誇))
tsošim(조심(操心))	ʧidi(지(敗)-디)
tsok'i(좇(從)-기)	ʧibə tədigi(집어 던지기)
tsomi(좀(蠱))	ʧədz-ɨ(졎(乳)-을)
tsu-o, tsu-uri(주(與)-오)	ʧəguna(져그나(젹으나))
tsugəm(주검(屍))	ʧokhagi(죡ᄒᆞ(足)-기)
tsuygi(쥐(執)-기)	ʧok'um(죠곰)
tsugi-gi(죽이-기))	ʧoŋ(죵(奴))
tswe-rɨ(죄(罪)-를)	ʧõe(죠히(紙))
tsum(줌(一把))	ʧəŋsiŋ(졍승(政丞))
tsɨ-dyεnio(즐(泥)-디)	ʧuk(쥭(粥))
tsur(줄(線))	ʧueni(쥬인(主人))
tsɨk'i(즛(吠)-기)	ʧəgur(šəp^{h}i)(져구리 셥)
tsɨmsiŋ(즘승(獸))	ʧəksam(젹삼(衫))
tsɨši(즛(貌))	ʧəŋšin(졍신(精神))

(2) [ts']　　　　[ʧ']의 例는 발견되지 않음[45]

45) 중세국어에는 'ㅆ'이 없었다. 그리고 語頭子音群 'ㅄ' 다음에는 /i/나 y-계

ts'ag-e(짝(隻,便)-에)
ts'agi(ᄧᅡᆨ(織)-기)
ts'agi(ᄧᅡᆨ(壓搾)-기)
ts'um(ᄠᅳᆷ(隔隙))
ts'onnɨn(쫓(逐)-는)
ts'ogɛgi(조각(片))
irts'ɨygi(일즉(早))

(3)[tsʰ]
tsʰon(촌(村))
tsʰam-pɛ(ᄎᆞᆷ(*접두사, 참배))
tsʰaŋ(창(倉,槍,窓))
tsʰamnamu(ᄎᆞᆷ나모(참나무))
tsʰət(첫(第一))
tsʰamsɛ(ᄎᆞᆷ새(雀))
tsʰamɛ(ᄎᆞᆷ외(眞瓜))
tsʰɛk(책(冊))
tsʰɛ(채(鞭))
tsʰum-u(춤(唾液,舞, 춤-울)
tsʰɨŋ(층(層))
tsʰɨyu-gi(츼(除)-기)
tsʰɛri-gi(ᄎᆞ리(省,備)-기)
tsʰan(ᄎᆞ(滿)-ㄴ)

[tʃʰ]
tʃʰoroŋ(쵸롱(籠))
tʃʰɛk'i(챡고(錯錮))
tʃʰe(쳐(妻))
tʃʰir(칠(七))
tʃʰinɨn(치-(養))
tʃʰibɨy(치뷔(寒))
tʃʰibun(치본("))
tʃʰimɛ(치마(裳))
tʃʰindi(친지(親知))
tʃʰiŋguy(친구(親舊))
tʃʰo(쵸(燭))
tʃʰutt'ori(츄(礎)돌)
tʃʰən(쳔(千))
tʃʰəŋha-gi(쳥ᄒᆞ(請)-기)[4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진방언의 [tʃ]는 중세국어의 '야, 여, 요, 유'와 같은 上昇 二重母音을 지닌 어사와 대응되고, [ts]는 單母音과

이중모음이 연결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육진방언에서 [tʃ']이 자음음성 체계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에 말미암는다.

46) <辭典>에서는 [tʃʰ]를 ч',ч",ч"의 세 轉寫文字로 전사하였다.

下降 二重母音 앞에서 출현한다. 이러한 대응은 <辭典>, <會話>, <教科書>가 보여주는 육진방언의 모든 어휘 자료에서 일치한다.

이 때 우리는 音聲 [ts]와 [tʃ]를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ts]와 [tʃ]를 각각 독립된 音素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ts/와 /tʃ/가 그 분포에 있어서 排他的이라는 사실(/ts/는 /i,y/ 앞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 이들 音素 뒤에는 /i/ 혹은 on-glide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音素 連結上의 制約 등을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變異音規則이 존재하므로 [ts]와 [tʃ]을 별개의 음소로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šwe-ʤədzɨ s'arman hao?(소젖(牛乳)-을 살만 하오?, 회257)
š^{w}e-ʤədzɨnɨ tyə ts^{h}one əpsumni(소젖(牛乳)-은 없습니다, 회57)
š^{w}e-ʤəʤina(소젖(牛乳)-이나, 회56)
(cf. šwe-ʤeʤina(소젖(牛乳)-이나, 회108), ʧeʤi(젖-이, 회부72)

따라서 [ʧ]은 /ts/의 異音으로 처리한다.

한편, 육진방언의 선행시기에는 이러한 異音 規則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적으로 개재자음이 [ʧ^{h}, ʤ]일 때에 움라우트 현상을 보인 예가 있다.

t^{h}yenʤu(</t^{h}yəntsyu/)(텬쥬(天主), 사xiii,4,13,28)
tyenʤa mat^{h}io(</tyəntsyaŋi/)(뎐쟝(포로,인질)-을 맡기오,회131,132)
cf. 뎐쟝이/tyəntsyaŋi, PU.5.
kyeʤip(/kyətsip/)(계집, 사72)

이 음운현상은 동화주 /y/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시기 육진방언에는 이중모음의 on-glide가 [ts] 다음에 연결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ts/가 /i,y/ 앞에서 [ʧ]로 변하는 異音

規則이 생겨남으로서 [ʧ] 다음에는 /y/가 연결되지 않는 제약이 마련된 것이다. 공시적으로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滑音形成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ʧʰešə(치(養)-었어, 교49)
ʧešə(지(肥)-었어, 교43)

이들은 활음형성시 yə>ye변화를 보인 것이다.47) 이도 역시 /ts/ 다음에 /y/의 연결을 전제로 함으로 /tsyə-/의 음성결합이 존재했었음을 말해 준다. 이 두가지 사실은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파찰음은 어느 환경에서나 齒槽破擦音 [ts]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언에는 어느 時期인가에 /ts/를 /i,y/ 앞에서 구개음 [ʧ]로 실현시키는 變異音 規則이 발생하였고 할 수 있는 것이다.48)

이 규칙은 비단 '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같은 치음 계열의 /n,s/나 유음 /r/ 등도 동일했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예가 그것을 암시한다.

(1) pʰəsɨs-ɨ(버섯-을, 교13,16,35), pʰəsiši(버섯-을, 교13)
iʎʎəne(일년(一年)-에, 교71), iʎʎeni(일년-이, 교71)

---

47) 이 滑音形成의 예는 활음형성 규칙과 yə>ye규칙의 규칙순과도 관련되므로 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교체는 굴절체계에서 보여지는 음운현상이 통시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48) 이러한 사실은 西北方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小倉進平(1945:256)에는 '定州'를 [təŋdzu]로 발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북방언에서는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의 on-glide /y/가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州'(고을 쥬:石峯千字文, 26b)가 [dz]로 실현된 것은 곧 [tsyu]>[tsu]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姜信沆(1983), 金周弼(1985)은 15세기 중앙어의 'ㅈ'은 /i,y/앞에서는 [ʧ]로, 기타 모음 앞에서는 [ts]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지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옴라우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쥬(州)'는 [ʧu]>[tsu]와 같은 音聲變化를 가정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kaaňňa(가-느냐, 교73)

따라서 이 시기 육진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異音 規則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ts,n,s,r/ —→ [ʧ,š,ň,ʎ] / ____+{ i,y }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의 'ㅈ'은 음운론적으로 치경음 /ts/이며 [ʧ]는 음운론적으로 /tsy/로 재해석 된다. 이는 통시적으로 /ts/가 /i,y/ 앞에서는 구개음 [ʧ]으로, 기타 환경에서는 [ts]로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體系下에서 육진방언의 t구개음화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會話>, <辭典>, <敎科書>에는 t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어사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구개음화를 경험한 예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 niriʤi anik^{h}ek'ədən(읽-지 아니하겠거든, 사vii)
kaʤə kaʤi mao(가져 가지 마오, 사vii)
ʧap'aʤigi(자빠지-(倒), 사126)
cf. ʧap'adigi(사76)

(2) a. hwaŋʤe(황뎨(皇帝), 사130)
ʧəmšimu(뎜심(點心), 회95, 교17,44,62)
cf. ʧəmšim t'ɛ(점심때, 회307)

b. swɛ-pudi, ʧ^{h}ərp^{h}iri(텰필(鐵筆)→펜(pen), 사78)
ʧ^{h}əllo kats^{h}ɛbi(텰로(鐵路) 가까이, 사v)

(1)은 否定語尾 '-디'가 구개음화를 경험한 예이다. <會話>, <辭典>, <敎科書>에는 이 어미가 상당수 출현하지만 실제 구개음화를 경험한 예는 오직 (1)의 3例에 불과하다. (2)는 모두 漢字語다. 일반적

으로 한자어는 固有語보다도 語源意識이 강하기 때문에 音韻變化에 있어서 保守的임에도 불구하고 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2b)의 예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그 당시로서는 新造語에 해당되기 때문에 借用語일 가능성이 짙다. 같은 <辭典>에 't^hyərani(鐵丸→총알), t^hyər(鐵)'과 같은 단어들이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49]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기의 육진방언은 오직 否定語尾 '-디'에서만 t구개음화를 보인다.[50] 이후에 이 방언에서 t구개음화가 어떠한 층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51] 다만 小倉進平(1927)의 조사 보고는 이에 대하여 매우 시사적이다. 小倉進平(1927)에는 육진방언의 t구개음화 현상과 'ㅈ'의 음성적 실현에 대하여 비교

49) <辭典>의 序文에는 辭典의 序文의 편집에 M.P. Lyang(梁 氏)이 참여하였고, 또 梁 氏는 몇몇 서울 방언을 소개하였다고 하였다. 梁 氏가 소개했다고 한 '서울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육진방언에 없는 단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文物에 대한 名稱인 (2b)와 같은 예가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a)도 借用語일 가능성은 있다. '점심'의 육진방언형은 일반적으로 'kyəŋšim'이기 때문이다.(<辭典>에도 'kyəŋšim') '皇帝'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지나친 추측은 삼가기로 한다.

50) 18C초의 중앙어를 보여주고 있는 女四書諺解, 伍倫全備諺解에도 구개음화를 경험한 부정어미 '-지'가 산발적으로 나타난다.(田光鉉:1978, 宋敏:1986) 이러한 사실은 육진방언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이다. 한편, 이 시기 육진방언에서는 /i,y/앞의 /n/탈락(어두 위치의)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명사의 말자음 /ㅌ,ㄷ/이 주격어미 '-이'나 계사 '-이-' 앞에서 구개음화된 예도 발견되지 않는다.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에는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된 예들이 다수 발견되지만 주격어미나 계사 앞에서 구개음화된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拙稿:1988) 이는 이 음운현상이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시작되어 형태소 경계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慶興 出身인 金翊俊 氏(62세)는 10세 전후해서는 자기보다 40-50세 年上인 토박이 화자들은 구개음화를 몰랐다고 하였다. 자기들이 구개음화한 어형을 쓰게된 것은 학교 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언어 외적인 요인이 구개음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학석(1987:362-365)의 조사 보고가 뒷받침한다. 전학석(1987)에는 육진지역 출신자들인 중국의 훈춘지역 거주 한국인들(노인층)의 방언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적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육진의 각 지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小倉進平, 1927:5-7)

鐘城 : 敎場-교댱, 點心-뎜심, 天地-텬디, 鐵道-텰도, 國中-국듕
會寧 : 田畓-뎐답 또는 던답, 停車場-뎡거댱 또는 덩거당
天地-텬디-턴디
慶源 : 點心-뎜심 또는 뎀심, 天地-텬디 또는 텐디

위와 같이 육진의 북부지역 방언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慶興에 대해서는, "慶興, 雄基, 淸津, 鏡城 以南의 地域에서는 댜,뎌,됴,듀 등은 京城地方과 同一하게 쟈,져,죠,쥬와 같이 발음된다."고 하여 이 시기 慶興地方은 이미 t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ㅈ'의 음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ㅈ,ㅊ'은 淸津, 鏡城 以南의 지방에서는 京城지방과 동일하게 ch, ch'(筆者 註; ʧ, $ʧ^h$)로 발음되지만 그로부터 以北의 會寧, 鐘城, 慶源, 慶興, 雄基 지방에 있어서는 현저히 'ts, ts^h'의 音으로 들린다.

고 하고 그러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준다(與)-tsunda, 혼자-hondza, 분주-pundzu, 일쭉-ilts'euk

위 例는 'ㅈ'이 모음 앞에서 /ts/로 실현된 사실은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i/나 /y/ 앞에서의 'ㅈ'의 음성적 실현에 대해서는 예가 없어 알 수 없다. Kazan자료와 동일하게 [ʧ]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小倉의 證言을 종합하면 慶興(雄基 포함)지방의 'ㅈ'은 /y,i/를 제외한 환경에서 [ts]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t구개음화는 상당

히 진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小倉의 견해를 좇는다면 慶興지역은 /ts/>/ʧ/와 같은 再音素化와 관계없이 口蓋音化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ʧ]가 /ts/의 異音인 단계에서 t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4.8.2 h-口蓋音化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20C초의 慶興方言의 t구개음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h-口蓋音化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例外없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52]

(1)a. š'əgɛ(혀(蟣, 字會上23), 서캐, 교11)
b. še, šet'ɛ(혀(舌, 訓民 解例), 사138)
šə̃i(형(兄)-이), šəŋne-gwa(형네-와, 회183)
šəŋnimun(형님-은, 회184), šəŋ-ge(형-에게, 회187)
š'əgi(혀-(点火, 法華3:58, 鉅, 三綱忠15), 사33, 회xviii, 교6)
šegi(혜-(算, 數, 釋譜19:11), 사116, 교12)
šee(세-어, 회291), šeesso(세었소,회292)
šimi(힘(力)-이, 교20)
šimdzaranɨndɛri(힘 자라는 대로, 교15,38)
šimi modzarar t'ɛnɨn(힘이 모자랄 때에는, 교9)

비록 6例에 불과하지만 이들 어사들은 육진방언의 h-구개음화가 퍽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음을 일러주고 있다. 이는 또한 h-구개음화가 t 구개음화보다도 그 발생 시기가 빠르다는 사실을 明示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2) 전학석(1987:364-5)에는 훈춘의 한국어 방언에서 [se](舌), [šimʧ'ul, šimok](힘줄)은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suŋňyən](兇年), [suŋ](흉), [šim](힘)과 같은 예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외의 단어들에서는 'i,j'앞의 h는 구개음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예외적 존재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1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표준어 '서캐'에 대응되는 'š'əgɛ'를 h-구개음화의 예에 편입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방언간의 비교에 의해서 *혀개를 재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再構가 타당하다면 중부방언에서도 제한적이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h-구개음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더 검토하기 위하여 구개음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西北方言 그리고 六鎭方言, 현대 중부방언, 중세 근대 단계의 중앙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53]

<西北方言>	<六鎭方言>	<중세어>	<근대어>	<표준어>	<재구형>
헤케,허캐,허개	쎠개	혀	셕하	서캐	*ᅘᅧ(개)
헤-(算)	세-	혜-	혜-	세-	*혜-
헤-(点火)	쎠-	ᅘᅧ-	켜-	켜-	*ᅘᅧ-
헤-(머리털이)	세-	셰-	셰-	세-	*혜-
헤(舌)	셰(셰띄)	혀	혀	혀	*혀-
혈마	설마	현마	혈마	설마	*혈마
헤눙	?	?	?	시늉	*형용(形容)
형애	?	?	?	성애	*형애
형에(쟁기의)	?	?	?	성에	*형에[54]

위의 방언간의 비교에 의해서 六鎭方言의 'š'əgɛ'가 h-구개음화를 경험한 어사임을 알 수 있다.[55]

---

53) 西北方言은 金履浹 先生의 <平北方言辭典>에서 引用하였고, 근대어 및 중세어는 劉昌惇 先生의 <李朝語辭典>에서 引用함.

54) 중세 및 근대 국어 단계에서 보이는 '셧가래-혓가래'(椽木), '셕-혁'(轡)등은 이른바 hyper-correction의 예로 보인다. 그 이유는 <平北方言辭典>에 '서까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서, 셧가래'가 더 古形이기 때문이다. 근대국어 단계에 출현하는 '입힐홈'(입씨름), '힘힘ᄒᆞ-'(심심하-)가 이 범주에 드는 어사인지는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어사들은 <平北方言辭典>에 '씨림', '심심하-'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힐홈, 힘힘ᄒᆞ-'는 hyper-correction의 예가 된다고 할 것이나, 西北方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단정은 피하기로 한다.

한편, (1)의 h-구개음화 例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다.

hyəŋnim>šyəŋnim>šəŋnim(형님)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š]는 음운론적으로 /sy-/임으로 [šyəŋnim]은 /syyəŋnim/으로 표시된다. 이 때 표면형 'šəŋnim'을 이끌어내려면 glide /y/탈락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hapolology로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이 구개음화가 h>š의 변화임으로 이 규칙은 음성규칙이라 할 수 있다.

4.8.3 k-口蓋音化

<會話>, <辭典>에서 k-구개음화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教科書>에만 몇 예가 보일 뿐이다. <教科書>의 序文에는(序文 xiii), 이 책에는 한 단어가 두가지로 발음되는 예들이 있다고 하고 그러한 예로서 'kidur guəšə'와 'ʧidurguəšə'를 들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kidurguəšə'형을 택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教科書>에 보이는 k-구개음화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ʧəəri(겨울, 교8)
ʧəndɨydi(견디-지, 교8)
ʧət^{h}e(겉-에, 교31,50,58,60), ʧət^{h}irɨ(겉-으로, 교33.41)
ʧət^{h}ɨllɨ(겉-으로, 교73)
ʧit^{h}əšə(기티-(遺), 교46)
ʧirɨmi(기름(油), 교8)
ʧikki twɛgɛtta((물-을) 긷(汲)-게 되겠다. 교46)

55) 방언자료에서 h-구개음화가 이른 시기에 발생했을 것임은 洪允杓(1985)의 조사 보고에서 드러난다. 洪 敎授가 제시한 例 중에서 '유로셩셩데'(有老成兄弟)는 이 방언에서 h-구개음화가 t구개음화보다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兄'은 구개음화를 경험하였지만 '弟'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ʧidurguəšə(기다리-(待), 교14,58,62)

ʧirginin ʧida(길-(長)기는 길다. 교39)[56)]

위 예들이 20세기 초 경흥방언의 k-구개음화 예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언적 요소가 가미된 것인지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敎科書>와 <會話>는 모두 慶興 출신 姜 氏의 발음을 토대로 하여 전사한 것인데 <會話>에서는 단 하나의 k-구개음화 예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敎科書>의 편집에 관여한 吉州 출신 徐 氏의 발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7)]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k-구개음화가 'ㅈ'이 /ts/이고 변이음 [ʧ]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k-구개음화 규칙은 音聲規則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六鎭方言, 그 중에서도 특히 慶興方言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의 구개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h-구개음화는 가장 왕성하게 진전되어 있었고, t구개음화는 매우 保守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극소수의 예이지만 t구개음화(<敎科書>의 k-구개음화 예가 慶興方言이든 吉州方言이든 관계없이 k-구개음화를 포함하여)가 [ʧ]가 /ts/의 변이음인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 중의 하나였다.

---

56) <敎科書> 편찬자들은 위 예 중에서 'ʧidurgu-'(待), 'ʧid-'(長)를 'kidurgu-', 'kida'로 修正하였다.(序文viii 및 xviii-xxi, '韓國語 단어에 있어서의 잘못된 誤謬와 발견된 誤植')(Некоторыя Неправильности в начертанiи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и замеченныя Опечатки)

57) 전학석(1987:363)에서는 k-구개음화에 대하여, "훈춘방언에서는 기본상 구개음화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별적 단어에서 구개음화 시키기도 한다."하고 위 예와 비슷한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술 내용이 다소 불투명한 면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敎科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小倉進平(1927)에서는 육진의 慶興, 富寧 지역은 k-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는 '제(糠), 치(箕), 젓(傍), 제집(女)'이다.

4.8.4 口蓋音化와 過度矯正

육진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변화를 보인 예들이 있다. 이들 변화는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1) kinagi(디나-(過), 부64), kinaon(지나온, 회5)
kinan(지난, 회38, 사65), kina kanɨn(지나가는, 회84)
kina karman hanya?(지나갈 만하냐?, 회218)
kyər, kyər-t'aŋ, kyər-t'ɛ̃(뎔(寺), 절당(-堂), 절당-이, 사130)
kyəŋšim,i(뎜심(點心), 사71), kyəŋšimu(점심을, 사71)
(2) kit, kiʤi(짗(羽), 사78)
(3) hibina(시비(是非)-나, 사99), hibirɨ hagi(시비를, 사110)
(4) pɨygaktiri(븨각질→베는 일, 교5,6)
madaŋdirɣɛšə(마당질 했어, 교6)
pidik'ɛ(piʤik'ɛ→성냥, 사110)

위 예들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t>k (2) ʧ>k (3) s>h (4) ʧ>t

이러한 변화는 국어음운사에서 달리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음성학적으로도 변화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므로 心理的 要因에 의한 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변화의 전후 단계와 동화주를 검토해 보면 이는 육진방언의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過度矯正(hyper-correction) 형임을 알 수 있다. t>ʧ, k>ʧ, h>s 변화에 대한 반사작용, 즉 구개음화에 대한 逆類推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58]

---

58) 구개음화에 관련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허웅(1965:509-511)에서 '부정회귀(false regression)', 宋敏(1986:56-58)에서 '과잉수정'(hyper-correction), 崔銓承(1986)에서 '過度矯正'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시기 육진방언의 t구개음화는 否定語尾 '-디'의 몇 예에서만 목격되는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의 예들이 t구개음화에 대한 역유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4)의 경우는 이 시기의 慶興方言에서 h-구개음화, k-구개음화 규칙이 생산적이었으므로 (2-3)과 같은 과도교정의 동기화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1)은 t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가령 이 방언에 t구개음화 규칙이 생산적이어서 '디나-'보다는 '지나-'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면, 언중들이 '지나-'를 k-구개음화 규칙에 의한 것으로 잘못 유추하여 '기나-'로 수정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디나->지나-'와 같은 t구개음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1)과 (4)는 t구개음화가 생산적인 방언과의 접촉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즉 (1)의 t>k의 변화는 유추과정이 두 단계를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2-4)가 단순한 심리적인 반사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1)은 이 방언 화자가 인접 방언의 t구개음화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k-구개음화 규칙도 아울러 이해한 상태에서, 본디 t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자기 방언의 단어를 자기 방언에서 일반적인 k-구개음화를 염두에 두고 과도교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과도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1)의 예들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변화를 한 것이라도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동기화에서 비롯되는 우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과도교정이 일반 언중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59] 이러한 의문에 대해

59) (1)의 예들은 육진방언에서는 일반화된 방언형이다. 그것은 푸칠로의 <로한주뎐>과 같이 19C에 편찬된 사전에도 (1)의 방언형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小倉進平(1927:6)에도 이 어사들에 대한 논의가 보이며, 최근의 조사 보고(전학석(1987:364)도 (1)과 동일하다. 김태균(1986)에도 (1)의 어사들이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1) 이외에 '기둥기'(筆者 註, 딜둥기(陶水罐))와

서 다소간 궁금증을 풀어줄 있는 예들이 있다. 그 하나는 <敎科書> 序文(xiii)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발췌 번역함)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두 가지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k/ʧ와 같은 교체를 보인다. *Azbuka*에서는 음성 k쪽으로의 발음을 수용하였다. 예는 다음과 같다.

수용한 발음	허용 가능한 발음
kina(過)	ʧina
kidurguəšə(待)	ʧidurguəšə
:	: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편찬자들이 '(디나->)지나-'의 어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敎科書>에는 t구개음화 예가 단 一例도 없다.) 편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ki-'형태가 바르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에 보이는 과도교정의 예를 보이겠다.

(5) 기난달이(去月, 319,351), 기난날/경일(經日, 351)
결이/절이(寺, 307), 절이/찰이(405)

(6) 기도리(지두리, 331,449)
깃치(짗(羽), 421), 깃츠 픠운다(307)
겹카리(졉-(重), 졉는 칼, 357)
슈졍이/슈경이(슈졍(水晶), 687)
졋뎌/졋뎌(져(笛), 679)
힝겨니(행전, 709)

(5)는 (1)과 같은 변화 예이고 (6)은 (3)과 같은 변화 예이다. 좋고

같은 방언형이 있다.(황대화(1986)에서 引用)

(198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한ᄌ뎐>에는 t구개음화한 어사가 상당수 등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ʧ'를 't'로 교정한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사전의 한국어 제보자들이 'ʧ> k'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의 (1)의 변화는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 이 방언 화자들은 다른 방언 화자와의 접촉에 의하여 t구개음화와 k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고 구개음화한 'ʧ'을 't'보다는 'k'로 되돌리려는 심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과 같은 특이한 변화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과도하게 수반된 결과이다.

4.9 語中子音 脫落

言語地理學 혹은 國語音韻史의 주요 과제로 꾸준히 注目을 받아온 것 중의 하나로 語中子音 脫落 現象이 있다. 국어 방언학 초창기의 역사주의 언어학에서 언어지리학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이 어중자음 탈락 현상은 중세국어가 보여주는 세 음소 /ㅸ,ㅿ,ㆁ/의 체계적인 해석은 물론 그의 통시적 변화(李基文:1972), 나아가 古代國語의 子音體系를 구명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어음운사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었다.

六鎭方言에는 文獻資料나 他方言에서 발견되지 않는, 어중자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사들이 다수 보인다. 本節에서는 이 방언의 語中子音 維持形과 脫落形을 제시하고, 탈락형들이 이 방언 자체에서 수행된 언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借用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선행시기 이 방언의 子音體系 內에 'ㅸ,ㅿ,ㆁ'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선에서 만족하기로 한다.

여기서 '語中子音 維持形'이라고 부르는 어사들은 중세국어의 형태

소 내부에서 'ㅸ,ㅿ,ㆁ'을 지녔던 것들이거나 前期中世國語 段階에서 語中子音을 유지했던 어사들, 혹은 文獻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現代國語와의 비교에서 어중자음 유지형임이 확실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용언 어간말 자음 'ㅸ,ㅿ'이 이 방언에서는 어떻게 대응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9.1 語中子音 /s/

어중자음 /s/를 유지하고 있는 어사들은 다음과 같다.

(1) a. əši(어ᅀᅵ(父母, 月釋2:12), 교5), əšidərkenin(부모들께는, 교7)
musindille(민들레, 慶源, 慶興郡誌)
kasir,i(ᄀᆞᅀᆞᆶ(秋, 楞7:13), 사74), cf. kairi(사74)
kisimu mɛnda(기ᅀᆞᆷᄆᆡ다(耘, 字會, 下:5), 김-을 맨다., PU.458)
kuši(구ᅀᅲ(槽, 字會, 中:12), 회69,부69))
kasɛ(ᄀᆞᅀᆡ(鋏, 杜初10:33), 사68)
naši(나ᅀᅵ(薺, 杜初8:18), 교2)
k'isin(그ᅀᅳᆯ-(燻), 그으른, 사70), k'isirəs'o(그을었오, PU.180)
k'isigu(그ᅀᅳ-(牽, 法華2:200), 끌고, 사119)
kisə onara(끌어 오너라, 교28), kisə nyəkʰi(끌어 넣-기, 사14),
kisio/kisinda/kisəra(긋-(劃, 杜初22:33), PU.400)
masadinin(ᄆᆞᅀᆞ디-(碎), 사122,55, 교24,66)
pusuk'ɛ(부ᅀᅥᆸ(廚), 사52,79,121)

b. nasa kagi(나ᅀᅡ가-(進, 龍35), 나아가-기, 사83)
nasak'ɛtta(낫-(愈, 法華6:155), 나았겠다, 교7)
pusəšə(븟-(注, 楞10:84), 부었어, 교15, PU.56)
pusəšə(븟-(腫, 法華2:169), 부었어, 교72)
아사뺀다(앗-(奪, 龍42), 빼앗다, 慶源郡誌)
ʧisəra(짓-(作), 지어라, 金泰均, p.456)[60]

60) Kazan 자료에는 /ʧih-/로 나타난다. 例), ʧibú ʧíkʰi(집을 짓기, 사114,118)

yəsə poo(여ᅀᅥ보-(窺, 金三2:65), 엿보오, PU.442)
nisəra(닛-(繼, 龍125), 이어라, PU.580)

c. yəsɨgwa(여ᅀᆞ와(狐 法華2:110), 여우-와, 교18, 사53)
asɨ(아ᅀᆞ(弟, 解例 用字), 사5,103)
musu(무ᅀᅮ(菁, 杜初16:70), 사99)

d. kasa s'igɛšə(가(去)-야만 되겠어, 교67)
kənnesa(건너야만, 교38), marasa(말(勿)-아야, 교17)
mɛndirəsa(만들-어야, 교56), tarasa(달(掛)-아야, 교21)
adzɨbanisa(ᅀᆞ부-가, 교22), amɛsa(어머니-가, 교42)
$ʧ^h$iŋgosa(친구-가, 교53), k^hoŋsɛsa(콩새-가, 교53)

위 예들은 중세국어에서 'ㅿ'으로 나타나는 어사들에 대한 육진방언의 반사형들을 보인 것이다. (1a)는 語中 'ㅿ'의 반사형을, (1b)는 語幹末 子音이 'ㅿ'인 용언 어간의 반사형을, (1c)는 특수어간교체 명사, (1d)는 强勢添辭 '-ᅀᅡ'의 반사형을 각각 보인 것이다.[61] 이들은 중세국어의 'ㅿ'이 육진방언에서는 규칙적으로 's'로 반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선행단계 육진방언의 子音體系에는 'ㅿ'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락형이 존재하므로 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a. saami(살(生)-읍니다, 회200), ʧaksumni(작(小)-습니다, 회66)
modiu(모딜(甚)-오, 교11), manso(많(多)-소, 회58)

b. twə(두ᅀᅥ(二三, 圓序65), 회42)
pɛɛri(비ᅀᆞᆷ(腸, 法華2:105), 교5)

ʧəəs'o(짓-었오, 교29), ʧiiŋgə(짓-은 것, 교55)

61) 강세첨사 '-사'는 용언어간 뒤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아/어사'로 교체되고, 체언 어간이나 부사 뒤에서는 직접 '-사'가 어간에 통합된다. 그리고 용언 어간에 이 첨사가 통합되었을 때에는 's'igɛtta'가 반드시 수반된다.

maam,i(ᄆᆞᅀᆞᆷ(心, 釋譜6:8), 사29,67,105)
maallɨ(ᄆᆞᅀᆞᆯ(村, 杜初7:39), 마을-로, 회84)
kyəəri(겨ᅀᅳᆯ(冬, 永嘉集下44), 사38), cf. toŋsam,i(사38)
muʤau ane(믈자ᅀᅢ(水車, 字會中15), 사vii)
maɨni(마ᅀᆞᆫ(四十, 月印2:41), 사42, 회부72)

(3) a. 늦, 누끄, 늦끄(윷, 김태균(1986))
b. myəŋ-šir(명일(名日), 사89, PU481), cf. myəŋir(사89)

(2)의 예는 선행시기에 '△'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2a)는 이 방언의 聽者尊待法의 어미들인데, 語幹 末音이 母音이나 流音일 때에는 '-ᄋᆞ' 로 시작하는 어미가, 순수자음일 때에는 'ㅅ'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된다. 이러한 공시적 교체 異形態들은 선행시기의 육진방언에 '△'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중앙어와 동일한 交替이고, 현대 중앙어는 역사적으로 '△'을 경험했던 방언이기 때문이다.[62] (2a)와 더불어 (2b)의 예들도 '△'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1)과 (2)의 상반된 예들이 나타나므로 단순한 자료만의 대비로는 '△'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2)의 예들이 이 방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된 음운변화의 결과인지 혹은 타방언으로부터의 借用의 결과인지가 밝혀지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가 이 방언의 독자적인 변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1)과 (2)는 이 방언에서 '△'이 's'에 합류하는 음변화가 발생하여 어휘에 따라 확산되다가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을 s>z의 변화(李崇寧, 958:213, 1960:104-5)로 간주한다면 이 變化가 語彙에 따라 선별적으로 擴散(diffusion)되어 나가다가 規則傷失로 변화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견

62) 청자존대법 어미 '-ᄋᆞᆸ니/ᄉᆞᆸ니', '-오/소'의 '-ᄋᆞᆸ니, -오'는 공시적인 음운교체에서 자음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3.13을 參考) 이들 교체를 통시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3.6을 參考.

해는 李基文(1972)의 지적대로 母音間에서 'ㅅ'은 유성음화지 않을 뿐더러 중세국어의 경우 모음간에서 유성음화하지 않고 남아 있는 'ㅅ'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63) 따라서 기원적으로 'ㅿ'을 인정하고 이것이 's'에 합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 견해를 수용하면 (2)의 예들이 겪어온 통시적 변화에 대한 해석은 다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2)를 'ㅿ'이 's'에 완전히 합류한 이후에, 다시말하면 이 방언의 바로 앞 단계의 자음체계에 'ㅿ'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ㅿ'을 지닌 타방언형이 침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가 'ㅿ'이 's'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이탈한 존재들로서 'ㅿ'을 유지한 채로 잔존해 있다가 'ㅿ'의 탈락을 경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놓고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통해서 (2)의 예를 借用으로 볼 수도 있다. 첫째는 이미 李崇寧(1956:228-231)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가을'(秋)의 방언형 '가슬'이 '가을'과 함께 분포하는 지역을 보면, '가을'系가 東北地域의 해안선을 따라 육진방언의 일부 지역까지 침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사실이다.(<辭典>에서는 '가슬'과 '가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2b)의 'kyəəri'도 차용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육진을 포함한 동북방언의 '겨울'에 대한 방언형은 'toŋsam'이라는 점에서이다. 푸칠로의 <로한ᄌᆞ뎐>에도 '교으리, 동삼이'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64) 반면, 慶源郡誌에는 '겨슬'이 이

---

63) 李基文(1972a:18)에서는 原始國語 단계의 자음체계에서 *z를 인정하고 이것이 후에 *s에 合流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어 단계에도 *z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을 유보하고 있다.(李基文,1972b:93) 그리고 李基文(1972b:35)에서는 後期中世國語에 보이는 일군의 *z는 특정 환경에서의 s>z의 변화 결과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方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업적으로는 崔明玉(1978:185-194)가 있다. 崔明玉 敎授는 동남방언의 선행단계에 'ㅸ,ㅿ'가 존재하였음을 말하고, 중세국어의 'ㅿ'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이 치조마찰음 [z]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그 증거로 삼고 있다. 그는 또 기원적인 'ㅸ ,ㅿ'는 대체로 이 방언에서는 'ㅂ,ㅅ'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64) 小倉進平(1945)에는 '겨울'에 대한 함북 지역의 방언형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단지 함남 지역의 방언형만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지역이 'toŋ-sami'로 등

지역 방언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 보고는 결국 'kyəəri'가 차용어일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慶源郡誌의 '겨슬'은 이 지역의 고유한 방언형인데 이 방언형은 어떤 이유로 '동삼'과의 경합에서 물러나 잔존세력으로 남아 명맥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방언형 '가슬'(秋)이 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실과는 반대로 '겨울' 쪽에서는 'kyəəri'가 '동삼이'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고 '겨슬'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kyəəri'가 차용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65]

借用과 관련하여 (3)의 'myəŋ-širi'(名日)을 보기로 하자. 이 어사에서 '日'이 '/sir/로 실현된 것은 '日'이 日母字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매우 흥미롭다. '日'이 'sir'로 반사된 것은 이 어사가 이 방언에 借用될 때 'ㅿ'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66] 즉, 중세국어 에서 '日'이 '실'로 실현된 사실을 감안하면(李基文,1971, 1972:36-7) '名日'은 '명실'이었을 것인데 이 어사가 이 방언에 借用될 때에 이 방언에 'ㅿ'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실'로 반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日'이 'sir'로 반사되어야 할 '來日', '삼짇날' 등은 이 방언에서는 'nɛɛr, samʤinnal'로 나타난다.[67]

(3)의 또다른 예인 '늣, 누끄, 뉴끄'도 흥미로운 예이다. '늦'은 訓蒙

재되어 있다.

65) 청자존대법어미들을 통해서 이 방언의 경어법 체계가 차용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문법체계는 그 차용이 매우 완만하고 더디므로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66) 이와 같은 예로 중국어 차용어 '甫兒'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어사는 거의 전국적으로 'posi, posɛgi'로 나타난다.(최학근 교수의 <韓國方言辭典>에는 '보재기'로 나타나는 방언도 있다함.) '兒'가 日母字인 점을 감안하면 위 예와 그 변화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차용시기 등이 문제가 되므로 적극적인 증거로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67) 함경남도 남부지역에는 '名日'(名節)을 '명실', '명질'이라 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高原邑, <한글>4-11, 1936) '삼짇날'도 '삼실날'이라 한다.(定平, <한글>5, 1937) 이 외에 동북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Tajshin의 <露韓辭典>에는 '來日'이 'rasil'로 전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日'의 音이 /sir/로 반사된 점은 흥미롭다.

字會에 '숫'으로 나타나거니와 또 방언에 '숫'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어사의 어두음이 日母에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견해가 맞는다면 日母가 기원적으로는 *ńz에 소급되므로 그 반사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숯'이 중국어 차용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하나의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와 그에 대한 논의 결과로는, 선행시기 이 방언에 'ㅿ'이 존재한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2)가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의 성격 또는 이론적 기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문헌자료나 타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방언에만 분포하는 탈락형들을 관찰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로서, 졸고(1991)에서 소개한 바 있는 '매애-'(마시-(飮))를 들 수 있다. 이 방언형은 함북 일원에만 분포하는 방언형이므로 이 방언권에서 'ㅿ'이 존재한 것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동북방언에서도 'ㅿ'이 존재했었고 이것이 어사에 따라 's'에 합류하기도 하고 탈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68)

4.9.2 語中子音 /p/

어중자음 /p/를 유지하고 있는 어사들은 다음과 같다.69)

---

68) '매애-'는 필자가 함북 吉州, 鶴城郡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다. 그리고 동북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M., Klynovskii, *Russko-Iaponsko-Korejskii Voennyj Perevodchik,* (2-i, Irkutsk, 1904)에도 이 방언형이 다음과 같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

mɛíltʰə(마실 터, p.200)
maígo sipso(마시고 싶소, p.152), maíl kət(마실 것, p.118, 145, 197, 270)
maéra(마시-어라, p.146), maísiyo(마시시오, p.146)

69) 이들 예 외에 東北方言에는 다음과 같은 유지형들이 발견된다.

걸브시(cf. 걼바ᄉᆡ, 걼와ᄉᆡ(乞人)), 가비-(cf. 굽-(溜), 드비-(드위(飜)), 터불(터울), 거붗(거웃(毛)), 귀발(귀얄), 기붓기붓(기웃기웃), 새비(새우).

(1) abogi(아옥(葵, 字會上, 15), PU.292,374)
obun(온(全, 法華2:62), 사85,130,회133, 교11,29,31,41,53,56,71)
yəbɨygi(여위-(瘦, 月釋1:62), 사9,33,44)
kabɨy(ᄀᆞ외(袴衣, 金三2:61), PU.712)
kobaŋ(광(庫), 정56, 慶源郡誌),
kabunde(가ᄫᆞ딕(中, 月釋14:80), 김태균(1986), p.494)
kibulda(기울-다(側, 釋譜19:7), 茂山郡誌)
cf. 月斜 得吉卜格大, 朝鮮館譯語
kɨburgi(그울다(轉, 楞2;79), 사7), kɨburyešə(굴리-었어, 교31)
nɨbe(누에(蠶, 解例 用字), PU.700), nɨbekotʰi(누에고치, PU.518)
cf. nɨwi(누에, 교38)
nɨbɨy(누의(妹, 月釋2:6), 회180,190,199,200, 사vi,104)
sɨynɨbɨydəri(시누이-들이, 회199,200), nɨbɨyne(누이-네, 회200)
nuntupe(눈두베(眼皮, 蒙2, PU.554), nɨburmegi(울모기, 교11)
nɨburi(노을(霞, 字會上, 2), 사34)
talbɨy, talbuy(돌외(髭, 字會中25), PU.66,444,256)
təbɨy(mək'u)(더뷔(暑, 釋譜9:9), 더위(먹고), 사viii, 교6)
t'ube(두에(蓋, 小諺5:72, 뚜껑, 慶源郡誌)
malbaŋi(말왐(菱, 字會上, 12))
puburi(부우리(喙, 字會下, 6), PU.238)
pəbəri(버워리(啞, 釋譜19:6), 사69, PU.16,100)
hobagi, paŋɨy hobagi(호왁(臼, 字會中, 11), PU.622)
haburemi(ᄒᆞ올어미(寡婦, 內訓 序), 사8)
habullɨ(ᄒᆞ올로(獨, 법화1:167), 사8)
habundza(ᄒᆞᄫᆞᅀᅡ(獨, 龍35), 사100)
habulliburi(홋이불(單襟), UCH15)
ʧʰibɨy(치뷔(寒, 釋譜9:9), 사viii), kuibal(귀얄, 小倉, 1945:227)
우벙(우엉, 김태균(1986), p.395), 셔분하다(서운하다, 慶源郡誌)
(2) kibəra(깁(補)-어라, PU.466, 교22)

kɨbɨnda(굽(炙)-는다, PU.230)

kobun(곱(麗)-은, 사3,48), mibəra(밉(憎)-어라, PU.350)

ədɨba(어듭(昏)-어, 교71, PU.636)

tsabunda, tsabuo(좁-(睡), PU.152), $ʧ^{h}$ibun(츱(寒)-은, 교55)

nɨbəšə(눕-(臥)-었어, 교23,63,67,사52,84)

(3) tuuri(둘(二), 사24,89, 회70,130, 200,351)

suuri(술(酒), 사xiv,5, 회90,100,315-6,321-4)

tsəur(저울(秤), 사17,18)

kaunde(가운데(中), 사111, 회414, PU.427), kaundi(사103)

šəur-io(서울(京), 회223)

(4) šərbun(섧은, 사105), šərum(설움, 사19)

təbun(더운, 사70), tebun(데운, Mat.6)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중에 /p/를 유지하고 있는 어사는 상당수에 이른다. (1)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p/ 유지형인데 대부분 중세국어에서는 이미 'ㅸ>w'를 경험한 어사들이다. (2)는 중세국어에서 용언의 어간말 /ㅸ/에 대응되는 방언형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3)은 前期中世國語 段階에서 /ㅸ/이었던 어사들이어서 다른 어사들과 함께 /p/로 나타날 것이 기대되지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β>w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어사들과 비교할 때, 이 예들만이 β>w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만한 특별한 환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4)는 파생어의 예인데 역시 /p/탈락의 환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4.9.3 語中子音 /k/

어중에 /k/를 維持하고 있는 어사들은 다음과 같다.

(1) š'igaši, š'igat(씨앗(種), 사118, 교43,62)

surgɨy(술위(車, 龍5:33), 사12,81,110,119, 회64,77, 교28,34,60)
ərgəŋtsʰɛ(어레미, 교45,46), tsʰamdɛ ərgemi, ərgətsʰɛ(PU.556)
pərgəʤi(벌에(蟲, 杜初16:73), 사132,교38)
pərgi-gwa(벌레-와, 교38)
kɛt'oŋpərgɛ, kɛttipərgi(개똥벌레, PU.566)
pərginda(벌린다(擴), PU.344)
purgətsigi(부러지-(折), PU.454)
mərgʉy(멀위(葡, 字會, 上:12), 사11,83, 회xi, 사11, PU.52)
morgɛ(모래(沙, 龍9:49), PU.422,508)
게그르다(게으르-(怠), 김태균,p.23)
kidurgugi(기들우다(待, 杜初8:51), 사10,31,82),
kurge/kure(굴에(馬勒, 杜初21;28), PU.666),
talgɛnda(달애다(說, 龍46), PU.368)
tolkatsi naŋgi(도라지 나무, PU.540)
(2) pirginda(빌이다(借, 杜初7:20), 빌린다, PU.128)
yellgigu ik'illɛ(열이다(實), 열려 있기에, 교67)
yergyenninde(열렸는데, 교64)
targigu, targyešə(돌이-(懸, 월석8:14), 달리고, 달렸어, 교69)
malginda(말이다(使勿, 龍94), 말린다, 慶源郡誌)
salgugi(살오다(使生, 法華2:184), 살리기, 사96, 110)
argugi(알외다(使知, 月曲82), 알리기, 사71)
turgugi(돌오다(使回, 小諺3:19), 돌리기, 사9)
(3) kannagwa(간나(여자)-와, 교25,58), kɛgwa(개(犬)-와
konyɛgwa(고양이-와, 교48), kagwa(그 아이-와, 교63)
taksurigwa(독수리와, 교19), t'allegwa(딸네-와, 교59)
adzɨbanigwa(숙부-와, 교69), ɛbigwa(아버지-와, 교62)
kʰɨnamɛgwa(할머니-와, 교13), yəsɨgwa(여우-와, 교48)
urigwa(우리-와, 교68), tsegwa(저-와, 교61)
(4) k'ɛɛmi(개암(榛), 회xvi, 사73, 교2,59)

ʧəmurədyešə(져믈-(晩)어지었어, 교67)

(1)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유지형이고, (2)는 사피동접사 '-기-,-구-'의 예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3)에서 보듯 共同格 語尾는 어간말음이 모음이거나 자음이거나 관계없이 '-과'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2)와 같이 /r/下의 使被動接辭 '기,구'의 어두자음도 탈락하지 않고 유지되어 있다. 따라서 육진방언은 앞서의 '-s-,-p-'처럼 어중자음이 가장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는 방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이 방언의 어간 내부에서 /k/가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a. 닐괘(닐웨(七日, 月曲108), 北關路程錄)
nürye(이레, 회227, 234)
b. kuri-ri(굴위(鞦韆, 字會, 中19), 그네-를, 사43, 교4)
구리/굴기(慶源郡誌, p.132)
kulgiy(PU.230)

(4a)는 유의양의 北關路程錄(1773)에 수록된 18세기 중엽의 함북 鐘城郡 방언형으로서 어중자음 /k/가 아직 탈락하지 않고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azan자료를 비롯 김태균(1986)에는 /k/ 탈락형만이 보인다. 이는 육진방언에서도 어휘에 따라 /k/가 탈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70]

(4b)는 '그네'의 육진방언형으로, 이 방언형은 小倉(1945)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함북 일원에만 분포한다.[71] 역시 小倉(1945)에 의하면 이 계통의 방언형은 'kulgi, kulli, kulle, kuri'가 있는데, 이 중에서 'kuri'는

70) 北關路程錄에 대하여는, 최강현, 北關路程錄(일지사, 1976) 및 J.R.K. King (1991:12-16)을 참고.

71) 小倉進平(1945)에는 이와 유사한 방언형이 제주에서 'kurmɛ'로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함북 慶源의 방언형이고[72], 'kurgi'는 慶興의 방언형이다. 함북지역에만 분포하는 이들 방언형들을 통하여 육진방언에서는 r_V 환경에서 /k/가 탈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방언형들은 외부로부터 차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운탈락은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k/탈락에 대한 암시를 던져준다.

(5) ibu pərigu(입을 벌리고, 교26)
kɛge mogaʤe tʰəri s'iriungə pogu marγɛ(개의 목아지에 털이 쓸리운 것을 보구 말해, 교34)
cf. s'ɨrgiwə kagillɛ(쓸려 가길래, 교67)

(5)는 /pərkita, s'ɨrkita/에서 /k/가 탈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əlli-, s'ɨlli-/로 재구조화되지 않은 것은 /k/가 탈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5)는 (4)와 더불어 이 방언에서 流音下의 /k/가 탈락하였음을 증언하는 소중한 예라 할 것이다. Kazan 자료에만 의지하여 말한다면 /k/의 탈락은 'r_i'의 환경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9.4 語中子音 /r/

어중자음 /r/이 유지되어 있는 어사는 다음 1예가 있다.

(1) a. húri-gi, (kubúri-gi)(휘(使彎)-기, 구부리-기, 사63,18)
b. húrə tɨrgi(사19)

(2) kəmɛ(거머리(蛭), UCH43)

(1a)는 타동사(러시아어 표제어가 타동사이다.), (1b)는 자동사이다.

72) 김태균(1986)에는 'kuri'가 함북 온성,종성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

'huri-'는 'hur-'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의 '휘-'는 'huri-'의 /r/이 탈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2)는 '거마리'에서 어중의 /r/이 탈락된 것이다. 金泰均(1986)에는 함북 전역에 '거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진지역에는 '거매'도 공존한다. 이는 '거매'가 어중 /r/탈락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V__i 환경에서 /r/이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4.9.5 語中子音 /h/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h/는 형태소의 語頭 位置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어중의 /h/가 탈락한 결과이다. 중세국어와의 비교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다음은 漢字語 및 中世語形에 대한 이 방언의 반사형들이다.

nəərgi(너흘-(咬), 사21,33), s'aum(싸홈(鬪), 사3,4,27,28),
šəŋnyuwɛ(石硫黃→성냥, 회110), cf. šəŋnyuɛ(성냥, 회xvi)
šəŋwɛrɨ šigigi(성화-를 부리다, 사61)
irədigi(잃어지-(失), 사92), iriymi(일훔(名), 회175,216)
ori(옳이(正), 회345, 사126), tõe(동히(동이그릇), 회xvi),
tʰyərani(텰환(鐵丸), 회387), tʰyənɛ(천하(天下), 사102)
karɛgi(갈히-(選), 사15,95), kwanyək(관혁(과녁), 사130)

第 5章 악센트 體系와 그 變動

5.1에서는 六鎭方言의 악센트의 본질과 그 體系에 대하여 논의하고, 5.2에서는 體言과 用言 어간의 악센트 類型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파악한 다음, 이들 語幹에 語尾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악센트 변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5.3에서는 5.2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派生語 형성에서의 악센트 變動을 다룬다. 5.4에서는 漢字語의 악센트를 中世國語 단계의 漢字音 聲調 및 中國語 한자음의 성조와 비교하면서 성조의 변화 및 한자어의 악센트와 그 변동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5에서는 借用語의 악센트를 다룬다. 中國語의 聲調와 러시아어의 stress-accent가 pitch-accent를 가진 육진방언에 어떤 모습으로 반사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육진방언의 악센트와 그 변동을 공시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면서 중세국어의 성조와 비교하기로 한다. 이는 육진방언의 악센트가 중세국어의 성조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時間軸上에서의 변화가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인용되는 자료는 <教科書>,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이 외에 용언 어간의 악센트 변동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육진지역 출신인들로부터 부족한 자료를 채록하여 보충하였다.

5.1 Kazan 資料와 六鎭方言의 악센트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은 육진방언의 악센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敎科書>(1902)의 편찬자들은 육진방언의 악센트가 意味分化에 관여하는 韻律的 要素(prosodic feature)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轉寫上 同綴異音語가 생기는 경우, 그들 어사의 의미를 악센트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辭典>의 편찬자들은 한국어 악센트(Udarenie)에 대해서 留意할 점을 지적하였다.(序文:xvi-xv) 그 내용은, 한국어의 악센트 배정은 엄격한 검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악센트는 환경에 따라 이동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주위의 단어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獨立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 基本格(Oconovnoy Padezh)형에 주격어미가 연결되면 악센트가 어미 쪽으로 이동하는 예들이 있다는 점, 전사문자에 補助符號(diacritic mark)가 붙어 있어서 악센트 표지를 부가할 수 없었던 단어들의 악센트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다.

그리고 <單語와 表現>(序文:xxxv)도 육진방언의 曲用과 活用의 예를 제시하면서 語尾가 語幹에 統合될 때의 악센트 변동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어 단어의 악센트는 철저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전사 과정에서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악센트의 실현 및 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꽤 苦心하였음을 示唆하는 것이다.[1)]

---

1) Putsillo(1874), Matveev(1900), Taishin(1898)에도 한국어의 악센트를 전사하려 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M., Khlynovskii(1904), *Russko-Iaponsko-Koreiski Voennyi Perevodchik*, Irkutsk.에도 동북방언의 악센트가 전사되어 있다. 그러나 정밀하게 전사된 것은 오직 위 Kazan자료와 김병옥이 편찬한 *Razvedchiku v Koree* 뿐이다. 이는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언어학적 지식을 소유한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1.1 六鎭方言의 악센트

Kazan 자료를 통해서 육진방언의 악센트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악센트'라 명명한 육진방언의 악센트를 그들이 어떻게 認識하고 轉寫에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육진방언 악센트의 本質, 나아가 그 體系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편찬자들이 한국어 악센트의 음성적 혹은 음운론적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국어의 악센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전사에 반영시켰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敎科書>에서는 한국어의 악센트가 의미분화에 있어서의 유의적 요소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會話> 이후의 자료에 악센트를 전사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어의 악센트는 意味 辨別은 물론, 發音, 統辭上 일정한 機能을 행사하므로 이러한 러시아어의 악센트에 대한 언어학적 인식이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심을 갖게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악센트를 意味分化의 有意味的 要素로 이해는 하였지만, 한국어의 악센트를 stress-accent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pitch-accent로 인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pitch-accent로 인식하였다면 육진방언에 있을 법한 gliding-pitch는 轉寫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우리는 편찬자들이 일정한 발화상의 단위에서 나타나는 音高의 돌출(prominence)을 악센트라 불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돌출된 음고의 最頂點(culmination of prominence)은 stress의 가장 큰 징표인데(Hyman,1975:204), stress의 音聲的 端緖는 반드시 强度(intensity)만은 아니고 오히려 pitch가 stress의 음성적 端緖(cue)가 되므로(Bolinger,1958:111) 편찬자들이 러시아어의 stress-accent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한국어의 악센트를 파악하였다 하여도 한국어 악센트의 음성적 실현을 포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

그리고 한국어나 러시아어의 악센트는 固定的 악센트가 아니고 自由 악센트(free accent)이며 音韻論的(phonemic)이기 때문에 그 유사성으로 인하여 같은 음성적 실현을 보이는 악센트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그렇다면 러시아어에는 없는 上昇調나 下降調가 육진방언에 존재하였고 그것을 전사에 반영하였다면 이와 같은 gliding-pitch는 어떻게 전사하였을까? 이는 中世國語의 上聲을 염두에 둘 때 자연히 제기되는 의문이다. 우선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 a. suurí(술(酒), 사5)
maamí(마음(心)-이, 사29, 67, 105, 106)

(2) a. tuúri(둘(二), 회200, 사24, 사89)
pəə́nge(벌(稼)-은 것이, 사26)
k'εέmi(개암(榛), 회xiv)
maálli(마을(洞)-으로, 84)
kεέʤi(강아지, 회xiv)
b. peés'o(베(刪)-었소), šeés'o(세(算)-었소)

(3) a. púudəktsʉy(큰쥐, 사49)
tyáamdyam-han(캄캄한, 사57)
kamáani(가만히, 사124)
hiŋdzigirée hagí(흐물흐물 하기, 사33)
tyáaŋdzi(항상, 언제나, 사24)
kadzuráani(가지런히, 사99)

---

2) 음성적 차이가 있다면 'intensity'와 'pitch' 중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gliding'이 아닌 'level register system'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악센트의 음성적 실현을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하는냐 하는 점일 것이다.

3) 같은 러시아인이면서 E.D. Polivanov와 같은 사람은 한국어 악센트의 변별적 기능을 부정하였다. 한국어 악센트에 대한 인식이 Kazan 자료의 편찬자들과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L.R. Koncevich(1990) 및 김완진(1990)을 참고.)

b. séemi(시어머니(姑), 회198), šúui(수은(水銀), 사98)
tsúuri(주(與)-겠소, 회377), tyóon(좋(好)-은, 사129)
sáamni(살(生)-읍니다, 회200), sáannya?(사느냐?, 회189)
séepte(세(비싸다)-읍데, 회239), séedyesso(비싸지었소, 회240)

(1-3)은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長音을 보인 것이다. (1)은 低長調, (2)는 上昇調, (3)은 下降調이다. 이를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a)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低長調이고, (2a)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上昇調이다. 이들은 통시적으로 어중자음 탈락을 경험한 어사들이다.[4] 그런데 (3a)는 어중자음 탈락과 무관하게 형태소 내부에서 下降調를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3a)의 예들이 대부분 副詞語라는 점과 語頭 및 非語頭에서 制約 없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이는 下降調가 示差的 資質이기보다는 表現效果를 增大시키고자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자질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2b)와 (3b)는 이미 3章(3.6, 3.7 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의 音韻現象에 의하여 長音化하면서 上昇調 또는 下降調로 실현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는 gliding-pitch가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韻律素와 그 示差性 與否의 확인에 있으므로 자연 형태소 내부에서의 上昇調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위 上昇調는 高調 혹은 低調와의 對立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韻素로 설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上昇調는 音韻論的으로는 2 mora의 어간 母音에 低調와 高調가 병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5.1.4 및 5.2에서 자료가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中世國語의 上聲은 모두 이 方言에서 高調로 실현된다. 上聲이 모두 高調에 合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語中子音 脫落을 경험한 (2a)의 어간들이 여전히 上昇調를 維持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저장조의 (1)도

4) (2a)의 '벌-'는 경남과 제주방언에서 '버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중자음 'ㅅ'이 탈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하다.5)

그런데 中世國語에서 上聲의 聲調를 가졌던 어사가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昇調로 전사된 唯一 예가 발견된다.

ʧəə́guna(cf. 중세국어, :져그·나, 사64)
mardəri ʧə́guna megiuri(말들에게 근근히 먹일 것입니다, 회75)

'ʧəə́guna'는 長音을 수반한 gliding-pitch를 전사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어사가 副詞語라는 점6)—表現 效果를 增大시키기 위한 非示差的 韻律 要素가 쉽게 介入될 수 있는—과 다른 곳에서는 high-pitch로 전사된 점으로 미루어, 전사된 gliding-pitch는 표현적 자질로서의 非示差的인 音調로 해석된다.7)

한편, 앞서 2.2.2에서 Kazan 자료에 전사되어 있는 악센트가 어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주는 示差的 機能 要素임을 확인한 바 있다. Kazan의 한국어 자료들에서는 한 語節 내에서 한 음절만이 高調로 실현되고 高調 전후의 모든 음절들은 低調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절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만 악센트 標識가 부가되어 있는

---

5) 音長 및 聲調가 非示差的인 黃海道의 일부 지역에서도 語中子音 脫落形들은 長音을 維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李基文, 金完鎭, 郭忠求 外(1991), "韓國語 方言의 基礎的 硏究," 學術院論文集 30(人文·社會科學篇), pp.33-37을 참고.

6) 부사어에서의 이러한 예들은 이미 2.2.2에서 소개한 바 있다.

7) 필자가 咸北地域의 방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吉州, 鶴城 方言은 중세국어의 上聲이 長音을 지닌 上昇調(Rising pitch)로 실현된다. 반면에 六鎭方言은 慶興, 會寧 제보자로부터만 일부 어사가 수의적으로 상승조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는데, 이 때의 상승조가 剩餘的으로 갖는 length는 吉州의 그것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었다. 제보자는 '말'(斗)과 '말'(言)의 length는 다르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 자연발화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양자가 高調로만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咸鏡道 地域의 聲調素와 그 分布에 대하여는, 李基文, 金完鎭, 金英培, 崔明玉, 郭忠求, 李丞宰, <한국언어지도>, 대한민국 학술원, 1993을 참고.

데, 이는 high-pitch가 음절간의 상대적인(relative) 비교에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低高'의 對立을 보이는 어사성조체계(word level pitch-accent system)(鄭然粲:1974)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Kazan자료가 보여주는 육진방언의 韻素는 pitch-accent이며 低高의 對立을 바탕으로 하는 평판조(level pitch register system)라 할 수 있다. Kazan자료의 편찬자들이 '악센트'라 한 것은 語節(syntagma, phonological phrase) 내의 모음들 중에서 그 音高가 最頂点(prominence)에 이른 것을 지칭한 것이다. 그 이유는 <會話>, <辭典>의 한국어는 대개 어절을 한 단위로 하여 전사되어 있고(1.3 참고) 그 어절 중에는 단 하나의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單音節 語幹에는 악센트 표지가 부가되지 않았다. 그것은 pitch-accent는 한 語節을 이루는 모음들의 상대적인 음의 높이(relative height)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이것이 中世國語의 聲調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즉, 音高를 比較할 수 없는 單音節 어사의 악센트 설정은 불가능하다. 어떤 單音節 語幹이 악센트 어간(tonic stem)인지 악센트가 없는 어간(atonic stem)인지는 이 語幹에 曲用語尾가 統合된 어형들을 살펴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는 5.2에서 논의될 것이다.

5.1.2 악센트 전사의 單位

한 문장의 발화형태는 분절음과 병행하여 운율적 자질을 지니게 된다. 그러한 요소들은 화자가 표현 욕구를 증대시키고자 할 때에 일회적으로 표출되는 표현적 자질(expressive feature)과 語意分化에 관여하는 韻律素(prosodic feature)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다분히 화자의 심리적 분위기에 연관되어 있고 또 개인적, 일회적, 정서적임에 반해, 후자는 의미분화의 요체이면서 항구적이고, 언중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언어학적으로 유의미적(linguistically significant) 요소이다. 그리

고 전자는 문장의 어떤 위치에서나 가능하지만, 후자는 일정한 구성성분을 단위로 해서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러한 후자의 운율소는 원칙적으로 호흡단위(breath group)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성대를 비롯한 조음기관이 일단은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발화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하나의 문장이 몇 개의 呼吸單位로 분절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진대사의 원활화라는 생리적 욕구 이외에 발화음을 온전하게 산출하기 위한 예비적 조처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문을 구성하는 성분요소들이 문 내에서의 형태나 기능 혹은 의미론적 영역의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호흡단위 속에 결속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나 어미류와 같은 의존형식들은 그것들이 부여해야 될 통사적 기능과 의미 때문에 어간 형태소들과 結束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하나의 호흡단위는 語幹 혹은 語基, 이들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語尾類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호흡단위를 우리는 'syntagma'(Jakobson:1931), '語節'(李熙昇:1955, 허웅:1955, 金完鎭: 1973), 'phonological phrase'(Ramsey:1978)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音高의 파악은 어절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Kazan 자료의 한국어 accent는 모두 어절을 한 단위로 하여 전사되어 있다. 간혹 '-도'와 같은 후치사는 'sarim du'(사람-도)처럼 어간과 분리되어 전사되었지만 '-du'가 有聲音으로 전사된 것으로 보아 'sarim du' 전체를 하나의 'breath group' 즉 하나의 어절 단위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7 띄어쓰기 참고) 그러나 복합어는 복합어를 이루는 語基들이 분리되어 전사되고 그에 따라 accent의 전사도 語基별로 독립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辭典>, xvi) 복합어의 악센트 실현과 그 규칙 체계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 편찬자들이 악센트의 전사를 이와 같이 해 놓은 이유는 그들의 표현대로 '한국어의 악센트가 주위의 환경에 따라 移動'하기 때문이었다. 굴절 체계에서의 악센트 실현에 비해서 복합어의 악센트 실현은 그 기제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복합어를 형성하

는 어기들의 악센트만을 밝혀 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azan 자료를 통한 악센트의 연구는 단일 형태소 및 그 어간의 曲用과 活用에서의 악센트 변동, 파생에서의 악센트 변동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8)]

5.1.3 악센트 전사의 실제 모습과 분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敎科書>에서는 '악센트'가 語意 分化의 유의적 요소라는 인식 차원에서 同綴異音語를 가려뽑고(<敎科書>내의 한국어에서), 그들 어사들이 악센트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을 뿐, 本文의 韓國語에는 악센트 標識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2년 후에 간행된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에 채록되어 있는 모든 韓國語에는 악센트 標識(')가 부가되어 있다. 그런데 音節母音 [ɨ], [ə], [ɛ]는 이들 모음을 전사한 轉寫文字가 'ŏ, ȯ, ä'와 같이 키릴문자 上端에 補助符號를 가한 것이어서 그 위에에 다시 악센트 標識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母音은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轉寫에는 반영될 수 없었다.(순전히 印刷上의 어려움 때문이었다.(<辭典>, 序文:xiv 참고)) <辭典>의 편자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우 악센트가 놓이는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辭典>, 序文:xv) 우선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의 다음 音聲轉寫 例를 보기로 한다.

(1) tyəŋgé t^{h}yərani k'edí mót-haryarɨ hɨrgɨllɨ s'aán mɛgí əps'o?
(<會話>), 387)

(2) Bladimir ʧíburu torá ogú, ak'ɨnɨn koŋbú hará kášə(<辭典>,1)

(3) i sárɨmi kasirɨ háda(hádaga), sónɨ peésso(<單語와 表現>,xxii)

---

8) 따라서 Kazan 자료로는 복합어에서의 악센트 변동을 관찰할 수 없다. 복합어가 하나의 어사로 인식되어 악센트 표지가 부가된 예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單語形成(word formation)과 그에 따른 악센트 변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에서의 악센트 전사는 위와 같이 語節 單位로 전사되어 있다.(단, 복합동사 'tora ogu'는 語基별로 악센트가 파악 전사되어 있음) 그런데 모음 [ɨ], [ə], [ɛ]가 들어 있는 (1)의 'tʰyərani'(鐵丸), 'hɨrgɨllɨ(흙-으로), 'əps'o'(없-소), (2)의 'ak'ɨnɨn'(아우-는), (3)의 'kasɨrɨ'(가을걷이-를)는 악센트 標識가 없으므로 어느 음절 모음에 악센트가 놓이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경우 악센트가 놓이는 음절 모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辭典> 편찬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한 語節 안에 [ə], [ɛ], [ɨ] 중의 어느 한 모음이 있고, 이 모음 이외의 다른 음절 모음에 악센트가 없으면 악센트는 [ə], [ɛ], [ɨ] 중의 어느 한 모음 위에 놓인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ə], [ɛ], [ɨ]를 전사한 문자에는 보조부호가 붙어 있어서 그 위에 악센트 표지를 다시 부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센트가 놓인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위의 'tʰ yərani'는 이 어절내의 세 모음 'yə, a, i' 중에서 'a, i'에 악센트가 놓이지 않았으므로 이 어절 내에서의 악센트는 당연히 모음 'yə'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əps'o'는 첫음절 모음 'ə'에 악센트가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ɨrgɨllɨ, ak'ɨnɨn'과 같이 한 어절 내에 모음 [ə], [ɛ], [ɨ]가 2회 이상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악센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曲用語尾 '-ɨllɨ', '-inɨ(n)'의 악센트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異形態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어간 말자음이 순음일 때의 위 곡용어미의 이형태는 '-ullu(ɨ), -unɨ(n)'이므로 이들 이형태를 통해서 위 曲用語尾의 악센트 위치가 확인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

шо́ры̆ни(šərɨni, 서른(三十), 회xii)

즉, 위 例에서는 주격어미 '-i'에 악센트가 없으므로 語幹 'šərɨn'의 두 모음 'ə'나 'ɨ' 중의 어느 하나에 악센트가 놓인다는 점만은 예견되

지만 두 모음 중 어느 모음에 악센트가 놓이는 지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사문자 'ǘ, ä, ȯ'(즉, ɨ, ɛ, ə)가 한 어절내에 2회 이상 나타날 때에는 그 어절의 어느 음절모음에 악센트가 놓이는 지를 말할 수 없다. 이 점이 Kazan 자료를 통한 육진방언 악센트 연구의 걸림돌이다. 이러한 예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논거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경흥 출신의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조사를 하였다.

5.1.4 六鎭方言의 악센트와 중세국어 聲調와의 比較

앞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육진 방언의 악센트는 低高의 평판조 악센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센트를 基底에서의 악센트와 표면 층위에서의 악센트로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체언과 용언의 어간은 후행하는 선어말어미 혹은 어미와의 통합과정에서 일정한 악센트의 변동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基底層位에서의 악센트를 설정하고, 이것이 音調調整規則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으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센트 실현의 형태음소론적 현상을 기술해야 되는 것이다.

어간의 基底 악센트를 결정하려면 어미들의 악센트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어미들과 어간의 통합 과정에서 보여지는 악센트 실현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屈折이나 派生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 副詞語의— 體言과 用言 語幹은 굴절어미가 통합될 때에 악센트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악센트 실현 양상을 보고 또 中世國語의 聲調를 대비시켜 각 體系가 어떻게 相違한가를 살피기로 한다. 이것은 육진방언 악센트에 대한 논의의 基礎가 될 것이다. 單音節 어사는 악센트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2음절 및 3음절 副詞語만을 보기로 한다.

5.1.4.1 2음절 副詞語의 악센트

육진방언의 2음절 副詞語의 악센트型을 살펴보고, 中世國語 聲調를

대비시켜 그 차이를 보기로 한다.(아래 例의 'L'은 중세국어의 '平聲' 혹은 六鎭方言의 '低調'를, 'H'는 중세국어의 '去聲' 혹은 육진방언의 '高調'를 나타냄. 'R'은 중세국어의 '上聲'을 나타냄. 以下 同一함)

[中世國語]	[六鎭方言]	[비 고]
ᄀᆞ독(滿)	katík(LH, 정9)	LL→LH
도로(更)	torú(LH, 회126)	LL→LH
바ᄅᆞ(正)	parɨ́(LH, 사93)	LL→LH
서르(相)	sərɨ́(LH, 사109)	LL→LH
아조(全)	adʑú(LH, 사76)	LL→LH
·급ᄒᆞ-(急)	kɨ́pʰi(HL, 사31)	HL→HL
·ᄀᆞ티(同)	kátʰi(HL, 회88,94)	HL→HL
아·니(否)	aní(LH, 사65)	LH→LH
오·래(久)	oré(LH, 사23,26)	LH→LH
일·즉(早)	irts'ɨ́ygi(LHL, 회xvi)	LH→LH(L)
더·듸(遲)	tədɨ́y(LH, 회202)	LH→LH
마·조(應)	madzú(LH, 사64)	LH→LH
모도(全)	modó(LH, 정44)	LH→LH
몬·져(先)	mandʑə́(LH, 사89)	LH→LH
ᄆᆡ·이(甚)	mɛú(LH, 사76)	LH→LH
볼·셔(已)	paršə́(LH, 회xviii)	LH→LH
ᄲᆞᆯ·리(急)	p'allí(LH, 사105)	LH→LH
ᄌᆞ·조(頻)	tsadzúru(LHL, 사131)	LH→LH(L)
안·직(未)	andzúk(LH, 회200)	LH→LH
다·시(更)	taší(LH, 회297)	LH→LH cf. táši(사73)
되·오(甚)	twɛú(LH, 사21)	LH→LH
ᄒᆞᆷ·ᄢᅴ(同)	hamké(LH, 정44)	LH→LH
:언제(何時)	ə́ndzena(HLL, 회363)	RL→HL(L)
:모·ᄡᅵ(甚)	mópši(HL, 사61)	RL→HL

:만·히(多)	máni(HL, 사55)	RH→HL
:만·일(萬一)	mánnir(HL, 사30)	RH→HL
:엇·디(何)	ə́tti(HL, 회215)	RH→HL
:엇·뎨(")	ə́ttyɛ(HL, 회123,212)	RH→HL

(例外)

ᄀᆞ·장(最)	kádzaŋ (HL, 사76)	LH→HL

위 例를 통하여 中世國語 聲調와 六鎭方言의 음조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世國語]	[六鎭方言]			[비 고]
聲調(용례)	LH	HL	LL	
LL (5)	5	-	-	
LH (15)	15	[1]	-	[ ]는 HL로도 실현됨을 표시함.
LR -	-	-	-	
HL (2)	-	2	-	
HH -	-	-	-	
HR -	-	-	-	
RL (1)	-	1	-	
RH (5)	-	5	-	
RR -	-	-	-	

위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中世國語 제 1음절의 去聲 혹은 上聲은 六鎭方言의 高調(high pitch, H)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나) 中世國語 제 1음절의 聲調가 去聲이거나 上聲이고 제 2음절의 聲調가 역시 去聲이나 上聲일 때, 六鎭方言에서는 제 1음절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다) 中世國語 제 1음절의 聲調가 平聲이고 제 2음절이 去聲인 경우, 육진방언에서는 제 2음절만이 高調를 갖는다.

(라) 中世國語의 平+平型은 육진방언에서 低高로 실현된다.

이는 결국 中世國語 單語의 첫 去聲과 上聲만이 이 방언에서는 高調로 실현된다는 점과 이 방언에서는 語節 내에서 하나의 prominence (high pitch)만을 갖는다는 사실로 要約된다. 위 사실에만 근거하여 말한다면, 육진방언 2음절 어간의 음조형에는 제 1음절 모음에 악센트 표지가 놓이는 '高低型'과 제 2음절에 악센트 표지가 놓이는 '低高型'의 두 有標識 類型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악센트 실현이 表面層位에서의 것인지 아니면 基底層位에서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基底層位에서는 '無標識 語幹'(즉 低低(LL))'이 존재하지만, 어떤 制約이나 規則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表面層位에서는 '低低'가 低高로 실현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曲用 語幹의 악센트 실현이 그것을 암시한다.

(1) ʧibúŋ(지붕, 사49,81,120)
ʧibũí(지붕, 사49)

(2) kummúk magɛ(굴뚝 마개, 사16)
kummuk, kummugí(굴뚝, 사122)
taŋšín sóoni(당신(屬格 位置) 所願이, 회57)
taŋšiní(당신-이, 회5,63,278,286)

(3) pʰinadí(피난-이, 회부74,회58,325), pʰinadíraŋ(피난-이랑, 회302)
pʰinadɨ́ piyo(피난-을 베(刪)-오, 회230)
pʰinadɨ́ pʰáo(피난-을 팔(賣)-오, 회243)
pʰinák-kwa(피난, 회355-6)

(4) musú, muk'í(菁, 사99)

namú, nɛŋgí(木, 사25)
namú-gwa(나무-와, 회102)[9)]

(1-4)의 예들은 한정첨사 '-이' 혹은 격어미 'i'나 'ɨ'가 어간에 통합될 때에는 어간말음절 위치에 있던 악센트가 그 어미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ʧibuŋ', 'kummuk', 'pʰinak'과 같은 형태는 그 자신이 육진방언의 발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단독형을 말할 때에는 한정첨사 '-이'가 접미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4)의 'musu, namu'와 같은 형태들도 물론 그 자신이 단독으로 발화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들과 통합되거나 다른 어사와 복합어를 형성할 때(단, 복합어의 선행요소일 때) 또는 (2)에서 본 바와 같이 격어미가 생략된 환경에서만 실현될 뿐이다. 例 (1)의 ʧibuŋ, (2) kummuk, (3) pʰinak, (4) musu, namu가 발화 표면에서는 그 자신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어형들은 Kazan 자료의 편찬자들이 복수접미사 '-덜'을 통합시켜 얻어낸 것들이다. 편찬자들이 이 때의 交替語幹을 '基本格'이라 명명하였다 함은 앞서 밝힌 바 있다. (2.1.8 참고)

그러므로 (4)의 'namu, musu' 따위는 실제 발화표면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형태소 분석'이라는 언어학적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10)] 따라서 체언 어간의 단독형이 (1-4)와 같이 低高로 실현되는 예

9) 공동격어미 '-kwa'가 연결된 'phinák-kwa', 'namú-gwa'에서 어간말 모음에 악센트가 놓인 것은 편찬자들이 '-kwa'와 선행어간을 분리하여 악센트를 파악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에는 '-kwa'에 해당되는 격어미는 없고 접속사만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악센트를 러시아어의 문법에 의거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辭典>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辭典>에서는 선행어간에 관계없이 '-kwa'에 악센트 표지를 둔 점이 <會話>와 다르다. 예) kɛ kwá marí(개와 말(馬)), koré kwá nəé(고래와 물개), nyəniy kwá pədirgɛ (연어와 버들개, 사22).

10) 이와 같이 특수한 어간교체를 보이는 어사들은 체언이나 용언이나 막론하고 모두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다.

들은 그 자신이 실제 발화 표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얻어진 위 어사들(단독형)의 악센트가 '低高'로 실현된 사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副詞語(비굴절 어사라는 점에서)에 '低低'형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방언에는 '低低' 어간이 표면에서는 '低高'로 실현되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11] 다시 말하면 부사어의 경우는 이 규칙에 의하여 '低低>低高'의 통시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체언의 경우는 공시적으로 休止 앞에서만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uri'(我等)가 곡용어미들과 통합될 때의 악센트 변동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한다.(<單語와 表現>, 序文:xiv에서 引用)

(5)	기본격	uri
	주격	urí
	속격	urí
	여격	uri-gé
	대격	uri-rɨ́
	호격	――――
	향격	uri-llɨ́
	처격	uri-gé
	탈격	uri-géšə
	주제격	uri-nɨ́n

위 예에서 基本格, 主格, 屬格形은 語幹의 제 2음절 모음에 악센트가 놓였지만 나머지는 語幹 'uri'에 악센트가 놓이지 않은 사실을 발견

11) *Razvedchiku*에도 中世國語의 '平平' 語幹이 모두 'LH'로 전사되어 있다. porí(麥, 61), taŋšín(당신, 41,61), kɨtɛ́(그대, 61), puák(廚, 49), sogóm(鹽, 57), urí (我等, 50,61), namú(木, 45,46), karú(粉, 49,50), norú(獐, 48), narú(津, 43), ʧarú(袋, 50) 등이 그 예이다.

할 수 있다. 이 악센트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 'uri'는 제 2음절 모음에 악센트 표지가 있는 어간인데 여격, 주제격 어미와 통합되면 악센트 표지가 어미 쪽으로 이동한다.
(나) 'uri'는 악센트 표지가 없는 어간인데 休止 앞에서는 語末의 제 2음절 모음이 高調로 실현된다.

(가), (나)의 해석 중 (나)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어간이 격어미와 통합될 때에 어간의 악센트가 모두 격어미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에서의 악센트 실현은 休止 앞에서 語幹末 母音이 高調로 실현되는 (1-4)와 동일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ri'는 본디 악센트가 없는 어간(편의상 'LL' 어간으로 표시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基底 層位에서 어떤 어간이 악센트를 가질 때 우리는 이를 '기저 악센트'라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정한 악센트 변동(실현) 규칙에 의해서 표면에 나타난 악센트를 '표면 악센트'라 하기로 한다. 이렇게 定義하면 육진방언에는 악센트 표지가 없는 어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無標識 語幹(LL型)은 다른 음조형과는 달리 유일하게 基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2음절 어간의 音調型에 '低低'가 추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악센트 표지가 없는 語幹이 休止 앞에 놓일 때, 그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은 表面層位에서 高調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語末高調化 規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2] 이 規

12) 이러한 語末高調化 현상을 R.S., Ramsey(1978)에서는 '저저' 어간이 音調配定規則(Pitch Assignment Rule)에 의거 '低高'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음조배정규칙으로는 육진방언의 악센트 실현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kamagúy'의 악센트 표지는 3음절 모음에 놓이는데 음조배정규칙에 의하여 표면에서는 '저고고'로 실현된다는 것이 Ramsey 교수의 해석이다. 그러나 Kazan 자료에는 'kamagúy', 즉 '저저고'로 전사되어 있다.

則 때문에 副詞語는 '低低'型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1.4.2 3음절 副詞語의 音調型

六鎭方言의 3음절 副詞語의 音調型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중세국어 성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2음절어의 음조형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기로 한다.

中世國語	六鎭方言	비　고
:죠고·마(小)	ʧók'um(HL, 사57,66,86)	RLH→HL
:져그·나(僅)	ʧə́guna(HLL, 회75)	RLH→HLL
ᄒᆞᄫᆞ·ᅀᅡ(獨)	habundzá(LLH, 사100)	LLH→LLH
ᄒᆞ올·로(")	habullɨ́(LLH, 사8)	LLH→LLH
갓가·이(近)	katsʰɛbí(LLH, 회37)	LLH→LLH
	ə́kʧillɨ(HLL, 억지로, 사63)	
	púrš'erɨ(HLL, →갑자기, 회xviii, 사8,10,116)	
	púrsɛ̃i(HLL, 불쌍히, 사31)	
	tɨndiní(LLH, 든든히, 사44)	
	t'okt'ogí(LLH, 똑똑이, 회203)	

(例外) ᄀᆞᄆᆞ니, ᄀᆞ마니(靜) kamáni(LHL), kamááni(LHHL)

3음절 부사어의 중세국어 성조와 육진방언 악센트의 대응 관계는 앞서의 2음절어의 경우와 일치한다. 즉 중세국어 형태소 내부의 첫 去聲과 上聲은 六鎭方言의 高調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위 예들을 고려하여 3음절어의 음조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 0 0 (HLL)
0'0 0 (LHL)
0 0'0 (LLH)
(0 0 0 (LLL) --- 발견되지 않는다.)

2음절어에서 악센트가 없는 부사어를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3음절어에서도 악센트가 없는 부사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LLL'이 기대되는 'ᄀᆞᄆᆞ니'는 'LHL'로 실현된다.[13]

지금까지 5.1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六鎭方言의 악센트는 pitch-accent이다.

(2) 有標識의 단일 형태소는 오직 하나의 악센트 표지만을 갖는다.

(3) 無標識 어간은 休止 앞에서 語幹末母音이 高調로 실현된다. 따라서 表面層位에서는 원칙적으로 'LL, LLL··'과 같이 低調가 연속되는 경우는 없다.(語末高調化規則)

(4) 語節 內의 어느 한 음절 모음이 高調이면, 그 음절 모음의 앞 그리고 뒤의 음절들은 모두 低調로 실현된다.

한편, 中世國語 聲調와 六鎭方言의 악센트는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1) 中世國語 1음절 어간 上聲, 去聲(R, H)은 六鎭方言의 '高調'에, 平聲은 '低調'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2) 中世國語 2음절 以上 語幹에서, 만약 그 어간 내에 '上聲' 혹은 '去聲'이 2회 이상 나타난다면 六鎭方言에서는 어두 또는 어두로부터 가장 가까운 '上聲' 혹은 '去聲'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3) 中世國語 平平聲의 聲調는 六鎭方言에서 副詞語와 같은 非屈折語는 '低高', 屈折 語幹은 '低低'에 대응된다. 굴절 어간도 表面層位에서는 休止 앞에서 '低高'로 실현된다.

지금까지 副詞語만을 대상으로 하여 육진방언의 악센트를 살펴 보았다. 결과 中世國語의 聲調와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그 對應이 規則的이라는 점과,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中世國語의 聲調가 單純化한 것이

---

13) 4음절 副詞의 악센트 실현도 2, 3음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podúrɛbi, podúrabun'(보드랍게, 보드라운, 사62)가 中世國語의 '보ᄃᆞ라이'(LHLH)(杜初,16:61)와 대응되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屈折 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드러날 것이다.

5.2 屈折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5.2.1 體言 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5.2.1.1 單音節 語幹

단음절 어간은 그 어간의 音高가 다른 음절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으므로, 즉 相對的인 音高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로서는 악센트 표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單音節 語幹의 악센트 표지 유무는 그 어간에 일정한 격어미를 통합시켜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에는 단음절 체언 어간에 限定添辭(혹은 主格語尾) '-이'가 결합되어 있어서 어간의 악센트 표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비롯한 다른 격어미들이 악센트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먼저 확인이 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체언 어간의 악센트 표지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 경우 無標識 語幹(atonic stem)에 연결되는 格語尾들의 악센트 실현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격어미의 악센트 표지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여기에 알맞은 무표지 어간으로 '집'(家), '형'(兄)이 있다. 이들 체언 어간과 격어미의 연결에서 보여지는 악센트 실현을 보기로 한다.(한글로 전사된 형태소 앞의 '''는 후행 음절모음의 악센트 표지임.)

(1) '집'(家, cf. 중세국어, 집(L))

ʧibí(집-이, 회82,사49)	-'이(주격)
ʧibúru(집-으로, 회26,114,356)	-'으르/우루(향격, 조격)
ʧibú(집-을, 사31,회121)	-'우(대격)
ʧibí(집-에, 회200)	-'이(처격)[14]
ʧibé(집-에, 사45,회440)	-'에(")

ʧibí(집-의, 회91)	-'이(속격)
ʧimmádaŋ(집-마다, 회406,79)	-'마당(후치사)
ʧiptə́ri(집-들이, 회365)	-'덜(복수접미사)

(2) '형'(兄, cf. 중세국어, 형(L))

hyə̃í(형-이, 사4,5,103)	-'이(주격)
šə̃í(형-이, 회164,부63)	-'이(〃)
hyə̃ína(형-이나, 사4,5,103)	-'이나(계사)
šəŋ-ním(형-님, 회164,179)	-'님(존칭접미사)
šəŋné-gwa(형-네-과, 회183)	-'네(접미사)
šəŋnéraŋ(형-네-랑, 회184)	-'네(〃)

(1-2)는 명사 /tsip/과 /syəŋ/이 악센트가 없는 無標識 어간이라는 점과, 이 어간에 연결되어 있는 格語尾, 後置詞, 接辭는 각각 악센트가 있는 有標識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有標識 語幹과 有標識 格語尾가 統合될 때의 악센트 실현은 다음과 같다.

(3) 딮(稿, cf. 중세국어,·딮(H))

típʰi(짚-이, 회78-9, 사109)	HH → HL
típʰu(짚-을, 회107,150,263)	HH → HL
típʰiraŋ(짚-이랑, 회302)	HHL→ HLL
típʰullɨ(짚-으로, 사109)	HHL→ HLL

---

14) 中世國語에서 '집'은 特異處格 '-의'를 취하는 名詞이다.(李崇寧, 1982:173-175) Kazan 자료에서도 이 명사는 다른 어사와 달리 처격어미와의 통합형이 'ʧibi'와 'ʧibe'로 나타난다. 또한 명사 '집'은 속격어미도 '-ɨ/u' 대신에 '-i'를 취하는 특이한 존재이다. 例는 다음과 같다.

處格(-i): andzúk sɛɛgi nɨbɨyné ʧibí sáamni(아직 시누이는 누이네 집-에 삽니다., 회200)

處格(-e): hwandɨyrɨ́ ʧibé nyəə́ra(環刀를 집(칼집)-에 넣어라, 회440)

屬格(-i): i ʧibí ʧwéni núygio?(이 집-의 主人이 누구요?, 회91)

(4) 길(道, cf. 중세국어, 길(H))

kíri(길-이, 회192) HH → HL
kírɨ(길-을, 회22) HH → HL
kíllɨ(길-으로, 회84,363) HH → HL
kiré(길-에, 회8) HH → LH[15)]

(3-4)는 '됲', '길'이 각각 악센트가 있는 有標識 語幹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2)에서 확인한 바 있는 有標識의 格語尾나 接辭類는 低調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한 語節 內(물론 형태소 경계가 포함된)에 高調가 둘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절 내의 첫 高調만이 표면에서 고조로 실현되고 그 이하는 저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H'는 高調임을 표시한다. 이하 동일함.)

(i) 무표항(atonic) L(어간) + H(어미) ──→ LH → LH
(ii) 유표항(tonic) H(어간) + H(어미) ──→ HH → HL

(i-ii)를 통하여 基底層位의 語彙目錄(Lexicon)에 등재되어 있는 악센트 표지를 지닌 語幹이 어미나 접사와 같은 문법형태소와 통합된 이후 表面層位에 이르기 前에 다음과 같은 [音調調整規則]의 適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音調調整規則]
어간과 문법형태소가 통합된 한 語節 內에서는 악센트 표지가 있는 음절 중에서 첫 악센트 표지 음절만이 高調로 실현되고 그 以下의 음절은 악센트 표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低調로 실현된다.

---

15) 處格語尾 '-에'는 선행 어간의 直前 音節 母音이 高調라도 그것을 低調化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규칙은 형태소 내부에서도 적용되었던 규칙이다. 이미 5.1.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형태소 내부에 '上聲' 혹은 '去聲'을 지닌 음절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에 대응되는 육진방언형에서는 오직 어두 음절 혹은 그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上聲' 또는 '去聲'만이 高調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시적인 MS-rule과 공시적인 P-rule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체언 어간의 음조형을 결정짓거나 혹은 체언 어간에 格語尾나 後置詞 또는 接辭 등이 통합되었을 때의 악센트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格語尾, 後置詞, 接辭의 악센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들의 악센트 표지 유무 또는 악센트가 놓이는 음절을 알아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1-2)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악센트가 없는(atonic) 체언 어간을 찾아내고 거기에 통합된 제반 文法 形態素들의 악센트 실현을 관찰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틀거리(substitution frame)를 만들어 이들 文法 形態素들이 유표항인지 무표항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辭典>, <會話>, <單語와 表現>에서 확인한 文法 形態素들의 악센트는 다음과 같다.

(가) 格語尾

주격(또는 한정첨사); -í

속격; -í, -ɨ́, -ú

여격; -ké, -gé, -k'é, -ɨgé, -ugé

대격; -rɨ́, -ɨ́, -ú

호격; -á, -yé

향격; -ɨ́llɨ, -úllɨ(-úllu)

처격; -í, -é, -k'é, -gé

탈격; -éšə, -k'éšə, -géšə

주제격; -ɨ́nɨn, -ɨ́nɨ, -nɨ́, -nɨ́n, -únɨn, -únɨ

공동격; -kwá

(나) 後置詞

-pogú (-보다;비교)
-póda (-보다;비교)
-mádaŋ (-마다)
-íraŋ, -ráŋ (-이랑)
-t^{h}yərɨ (-처럼)
-k'ə́ʤi (-까지)
-put^{h}ə́ (-부터)
-pak'é (-밖에)
-kat^{h}í (-같이)

(다) 接辭類

-t(d)ə́r (-들:복수접미사)
-né (-네)
-índu (-인지)
-ídəndi (-이던지)
-s'í (-씩)
-ʧír (-질)

위와 같이 체언 어간에 통합되는 접사류는 대부분 악센트 표지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에 등재되어 있는 1음절 체언 어간의 음조형과 그 예를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방언의 악센트와 中世國語의 聲調가 어떻게 대응되며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中世國語의 聲調를 제시하기로 한다.

(5) 無標識(低調) 語幹 : 중세국어의 平聲 語幹

[中世國語]	[六鎭方言]	[中世國語]	[六鎭方言]
앒(前)	ap^{h}úru(사13)	겯(側)	kyət^{h}é(사83)
곱(倍)	kobí(회240)	금(金)	kɨmí(사38)
꿩(雉)	k'wə̃í(사127, 회xvi)	몯(長)	madí, mat(사112)

ᄆᆞᆯ(馬)	marí(사24), marɨ́(회386)	밑(底)	mit^{h}í(사40, 회74)
목(項)	mogí(사2), mogɨ́(사42)	문(門)	muní(사122)
밤(夜)	pamú(사69)	밭(田)	pat^{h}í(사85)
볃(陽)	pyet^{h}í(사102)	ᄇᆞᆯ(腕)	p^{h}ar,í(사98)
산(山)	saní(사19,137)	숡(炭)	sut^{h}í(사124)
술/수을(酒)	suur,í(사5,xiv)	ᄊᆞᆼ(雙)	s'ãí(사177)
셩(城)	šẽí(사19)	ᄃᆞᆰ(鷄)	taktəriraŋ(회360)
돝(豚)	tot^{h}ú(회248)	털(毛)	t^{h}ərí(사12,55)
ᄧᆞᆨ(隻)	ts'ɛgí(사113)	집(家)	ʧibí(회82,사49)
우(上)	uí(사9) uúrɨ, uúllɨ(사81)	은(銀)	ɨní(회xii)

위 예들은 低調로 실현되는 無標識의 체언 어간이다. 이들 어사들은 中世國語에서 平聲의 聲調를 가졌던 것들이다.

(6) 有標識(高調) 語幹

(가) 중세국어의 去聲 語幹

[中世國語]	[六鎭方言]	[中世國語]	[六鎭方言]
·열(十)	yári(부71,사26)	·길(路)	kíri(회5,사29)
·짗(羽)	kíʤi(사78)	·곱(脂)	kóbi(사100)
·귀(耳)	kúy(회ix), kʉy(사6)		kóbu(회250)
·귿(末)	kɨ́t^{h}i(사46)	·ᄭᅮᆷ(夢)	k'úmi(사109)
·ᄢᅮᆯ(蜜)	k'úri(사58), k'úrɨ(회xvi)	·고(鼻)	k^{h}ó,i(사69)
·말(斗)	mári(사61)	·맛(味)	máši(사11)
·몇(幾)	myéʧ^{h}io(회ix,391,413)		másɨ(회101)
·몯(釘)	módi(사18), módɨ(사89)	·몸(身)	mómi(사54)
·믈(水)	múri(회60), múru(회115)		mómu(사124)
·낟(鎌)	nádi(사48)	·납(鉛)	nábullɨ(사34)
·날(日)	nár,i(사13,25,xiii)	·ᄂᆞᆶ(刃)	nárɨ(사70)
·닢(葉)	níp^{h}i(사54)	·니(齒)	nírɨ(사74)

·눈(眼)	núni(사74,18)	·밥(飯)	pɛ́bi(사43)
·빗(梳)	písɨllɨ(회132)	·빛(光)	píʧ^{h}i(사3)
·붇(筆)	púdi(사78)	·블(火)	púri(사84)
·법(法)	pəbi(사17)		púru(사96,45)
·ᄡᅣᆷ(額)	p'yɛ́mi(회xii)	·ᄲᅳᆯ(角)	p'úri(회xvi)
·ᄑᆞᆯ(蠅)	p^{h}ári(사61)	·플(草)	p^{h}úru(회160)
·삼(麻)	sám,i(사46), sámu(사80)	·살(膚)	sár,i(사30)
·ᄡᅮᆨ(蓬)	súgi(사55)	·술(匙)	súr,i(사55)
·ᄡᆞᆯ(米)	s'ári(사49), s'ári(회241)	·쇼(牛)	š^{w}éri(사34)
·ᄡᅵ(種)	š'íri(사118)	·ᄃᆞᆯ(月)	tár,i(사55)
·딮(稿)	típ^{h}u(회107,150)	·ᄯᅡ(地)	t'ái(회xvii)
·ᄄᆞᆷ(汗)	t'ɛ́mi(회xvii)	·ᄯᅥᆨ(餠)	t'égi(회xvi,사128)
·톱(鋸)	t^{h}óbi(사79)	·ᄌᆞᆷ(眠)	tsámu(사35)
·잔(杯)	tsán,i(사49)	·좀(蟲)	tsóm,i(사60)
·줌(把)	tsúm,i(사20)	·줄(絃)	tsúr,i(사11)
·채(鞭)	ts^{h}ɛ́llɨ(사112)		tsúru(사53)
·춤(唾)	ts^{h}úmu(사80),ts^{h}úmi(사107)	·짐(荷)	ʧímu(회192)
·쥭(粥)	ʧúgi(사88)	·졋(乳)	ʧədʑi(사160)
·옷(衣)	óši(사80)		ʧédʑi(회xiv)
(기타)	tót^{h}i(덫, 사42,43)		

역시 六鎭方言의 高調는 중세국어의 去聲과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나) 중세국어의 上聲 語幹

[중세국어]	[六鎭方言]	[중세국어]	[六鎭方言]
:일(事)	ír,i(사30),	:개(犬)	kɛ́gwa(사 22)
:게(蟹)	kédər(사111)	:곰(熊)	kómi(사58)
:궤(櫃)	kwét túullɨ(궤의 뒤로,사40)	:말(言)	mári(사5)
:밀(蠟)	míri(사13)		mári(회286,사12)

:눈(雪)	nún,i(사108)	:별(星)	pyə́ri(사37)
:병(病)	pyẽ́i(사65,회xvi)	:솔(刷)	sóri(사136)
:살(元旦)	sə́r,i(사89)	:셤(島)	šə́m,i(사75)
:셩(姓)	šə̃́i(부63)	:돌(石)	tóri(사39,42)
:돈(錢)	tóni(사25), tóniɨ(회139)	:뒤(後)	túi(사40)
:둘ㅎ(二)	tuúri(회200)		túu(사82)
	tuúrɨ(회130,351)		túuru(사32,63)
	tuúrbakke(회70)		túe(사32)

cf. túuri(사24,89)

<例外> :새(草) sɛná (회43,107), sɛráŋ (회30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去聲, 上聲이 六鎭方言에서는 高調로 실현된다. 이는 매우 규칙적이어서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의 音調調整規則에 의하여 無標項(atonic)인 체언 어간에 악센트를 가진 격어미가 통합되어 한 어절을 이루게 되면, 이 어절 안에서의 악센트는 격어미에 나타나게 되지만, 有標項(tonic)인 語幹과 有標項인 어미가 통합된 어절 내에서는 語幹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표지 語幹에 유표지의 處格語尾 '-에'가 統合되면 語幹은 低調로 실현되고 處格語尾가 高調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16] 먼저 單音節 어간에서의 例를 보기로 한다. 편의상 중세국어에서 去聲의 聲調를 가졌던 語幹을 <가>, 上聲의 聲調를 가졌던 語幹을 <나>라 한다.

(7) <가>

an-é(안(內)-에, 사vi)	cf. án-i(안-이, 사112)
tar-é(달(月)-에, 사65)	tár-i(달-이, 표28)

16) 처격어미 '-에'는 중세국어의 聲調論에서 '抹消子'(金完鎭, 1973:69)를 가진 형태소로 알려져 있다. 이 형태소는 去聲인 단음절 선행 어간을 평성화하는 힘을 지녔던 존재이다.

t'a-é(땅(地)-에, 회441)	t'á-i(땅-이, 표41)
t'əg-é(떡(餠)-에, 표vi)	t'ég-i(떡-이, 표vi)
kir-é(길(路)-에, 회8)	kír-i(길-이, 표2)
ku-é(귀(耳)-에, 사103)	kúy(귀(耳), 회ix)
mur-é(물(水)-에, 사126)	múr-i(물-이, 표2)
nadz-é(낮(晝)-에, 사25,회308)	náʤ-i(낮-이, 표33)
nun-é(눈(眼)-에, 사69),	nún-i(눈-이, 사18,74)
pur-é(불(火)-에, 사70)	púr-i(불-이, 사71)
pam-é(밤(夜)-에, 회127,312)	pɛ́m-i(밤-이, 표19)
ts^hon-é(촌(村)-에, 표vi)	ts^hón-i(촌(村)-이, 표vi)

<나>

ir-é(일(事)-에, 사10) cf. ír-i(일-이, 표20)

kor-ɛ́(골(谷)-에, 사71)

그런데 處格語尾 '-에'가 언제나 선행어간의 고조를 低調化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은 低調로 실현되지 않는 예들이다.[17]

(8) <가>

móm-e(몸(身)-에, 사96), cf. mómu(몸-을, 사124)

---

17) 중세국어에서도 처격어미가 통합될 때에 평성화하는 어간과 고정적으로 거성을 유지하는 두 부류의 어간이 있었다.(金完鎭, 1973:73-74) 그런데 처격어미 앞에서 고정적으로 거성을 유지하던 어사들, 가령 '물'(水), '블'(火)은 육진방언에서는 저조화한다. 이는 '-에'에 의한 저조화가 확대된(예외 형태가 축소되고 간소화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함남 북청방언을 다룬 Ramsey(1978)도 '불'은 수의적으로, '물'은 필수적으로 저조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위의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한편, 處格語尾 앞에서 平聲으로 실현되던 '몸'이 육진방언에서는 高調로 실현된다. Ramsey(1978:168-169)는 중세국어에서처럼 필수적으로 저조화하는 어간으로 분류한 바 있다.

<나>
hú-e(후(後)-에, 회313), húwe(후-에, 사87)
tú-e(뒤(後)-에, 사32), cf. túy(표41), túi(사40), túu(사82)
már-e(말(言)-에, 표viii), cf. mári(표viii)

(7-8)과 같이 처격어미 '-에'가 유표지의 單音節 語幹에 통합될 때에는 音調調整規則에 의하여 語幹이 高調로 실현되는 어사들이 있는 반면, 어간이 低調로 실현되는 일군의 어사들도 있다. 이와 같이 처격어미 앞에서 어간의 악센트가 변동되는 양상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도 나타나지만 單音節 어간에서의 그것보다는 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9)	adɨr-é(아들(子)-에, 표viii)	adɨ́r-i(사118, 표viii)
	turu-é(들(野)-에, 회407)	turú-i(들-이, 표40)
(10)	k'otə́r-e(꽃-들-에, 표vii)	k'otə́r-i(꽃-들-이, 표vii)
	ʧiptə́r-e(집-들-에, 표vii)	ʧiptə́r-i(집-들-이, 표vii)
	mardə́r-e(말(馬)-들-에, 표ix)	mardə́r-i(말-들-이, 표ix)
(11)	aádər-e(아이-들-에, 표ix)	aádər-i(아이-들-이, 표ix)
	sárɨmdər-e(사람-들-에, 표xv)	sárɨmdər-i(사람-들-에, 표xv)
	nyáŋbandər-e(양반들-에, 표xi)	nyáŋbandər-i(양반들-이,표xi)

(9)는 처격어미 앞에서 語幹末母音의 高調가 低調化한 예이고, (10)은 복수접미사 '-də́r-'이 결코 低調化하지 않음을, (11)은 악센트를 지닌 어간 모음이 처격어미와 인접하지 않을 때는 결코 어간이 저조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처격어미 앞에서 선행요소의 고조가 저조화하는 경우는 선행요소가 先語末語尾가 아닌 체언 어간일 때이며, 또 그 체언 어간의 악센트를 지닌 음절이 처격어미와 隣接해 있을 그 때에만 체언 어간말 모음의 高調가 어사에 따라 選別的으로 低調化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처격어미 이외에 선행어간의 고조를 거의 필수적으로 저조화하는 격어미들이 존재한다.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與格의 '-gé, -k'é', 그리고 奪格의[18] '-gésə, -k'ésə'가 바로 그들이다.[19]

	(12) 형님(표x)	(13) 제비(燕, 표vi)	(14) 말(言, 표viii)
기본격	šəŋ-ním	ʧéb-i	mar
주격	šəŋ-ním-i	ʧéb-i	már-i
속격	šəŋ-ním	ʧéb-i	mar
여격	šəŋ-nim-k'é	ʧeb-igé	már-k'e
대격	šəŋ-ním-u	ʧéb-iri	már-ɨ
호격	šəŋ-nim-yé	ʧə́b-a	――
향격	šəŋ-ním-ullɨ	ʧéb-illɨ	mál-lɨ
처격	šəŋ-ním-e	ʧeb-igé	már-e
	šəŋ-nim-k'é	――	――
탈격	šəŋ-ním-ešə	ʧeb-igéšə	már-ešə
	šəŋ-nim-k'éšə	――	――
주제격	šəŋ-ním-unɨn	ʧéb-inɨn	már-ɨnɨn

	(15) 사람(人, 표xv)	(16) 아들(子, 표viii)	(17)떡(餠, 표vi)
기본격	sárɨm	adɨ́r	t'ək
주격	sárɨm-i	adɨ́r-i	t'ég-i
속격	sárɨm-u	adɨ́r	t'ək
여격	sarɨm-k'é	adɨr-k'é	t'ək-ké
	sarɨm-ugé		

18) <單語와 表現>의 편찬자들은 '-gésə, -k'ésə'를 출발격(Ishodnaja Padezh)이라 하였는데, 筆者가 이를 '奪格'이라 한 것이다.

19) 선행 어간의 고조를 필수적으로 저조화하는 경우는 용언에서도 발견된다. 使被動의 接辭인 '-이-,-히-,-기-,-구-'가 바로 그들인데, 이들 접미사는 항상 선행어간을 저조화하는 특이한 존재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5.4에서 다루어진다.

대격	sárɨm-u	adɨ́r-ɨ	t'ə́g-ɨ
호격	———	adɨ́r-a	———
향격	sárɨm-ullɨ	adɨ́l-lɨ	t'ə́g-ɨllɨ
처격	sárɨm-e	adɨr-é	t'əg-é
	sárɨm-k'é	adɨr-k'é	———
탈격	sárɨm-ešə	adɨr-éšə	t'əg-éšə
	sarɨm-k'éšə	adɨr-k'éšə	———
	sarɨm-ugéšə		
주제격	sárɨm-unɨn	adɨ́r-ɨnɨn	t'ə́g-ɨnɨn

(12-17)의 곡용형들은 굴절 환경에서의 악센트 변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주격어미 '-i', 대격어미 '-ɨ/u, -rɨ' 주제격의 '-ɨnɨn/unɨn', 향격의 '-ɨllɨ/ullɨ'는 선행 어간의 악센트 변동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처격어미 '-e'는 선행하는 체언 어간의 高調를 선별적으로 저조화한다.

그런데 與格, 奪格語尾는 (3)의 '말'을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선행 어간의 高調를 低調化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위 六鎭方言의 與格이나 奪格語尾들이 起源的으로는 處格語尾 '-e'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격어미들은 중세국어의 통시적인 정보를 고려한다면 '-ge'는 '그+에'로, '-k'e'는[20] 'ㅅ그+에'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처격, 여격, 탈격의 어미들이 공통적으로 선행어간의 高調를 低調化하는 힘은 '-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격어미 '-에'는 선행어간을 선별적으로 低調化하지만 '-ge, -k'e'는 必須的으로 低調化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처격어미 '-에'는 자신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선행어간의 高調만을 低調化하지만 '-ge, -k'e'는 '-에'가 갖는 그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선행어

20) 'ㅅ그+에'의 'ㅅ'은 15C 중앙어에서는 속격어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安秉禧:1968) 현대국어에서 '-k'e'는 존칭체언에만 연결된다. 그러나 六鎭方言에서는 有情體 어간이 개음절이면 '-ge'가, 자음 중에서 특히 유성자음 r,m,n 다음에는 '-k'e'가 연결된다. 그리고 '-k'e'는 尊敬表示와는 관계가 없다.

간을 저조화한다는 차이도 있다.

그런데 위 격어미와 같이 선행하는 어간의 고조를 저조화하는 형태소들이 또 존재한다. 중세국어의 '이+어긔', '그+어긔', '뎌+어긔'의 반사형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예들이 바로 그들인데, 예를 보고 더 논의하기로 한다.21)

(18) a. yəŋgé(여기(에), 표5, 회80,140, 사13,123)
yəŋgéšə(여기서(에서), 부67, 표5)
b. kəŋgé(거기(에), 부74)
c. tyəŋgé(저기(에), 표3, 회51,4,5,365,386)
tyəŋgéšə(저기서(에서), 부73,)
tyəŋgéri(저기로, 사123)
(19) a. í-ge(이 것이, 표xix), írən, írən-ge
b. tyə́-ge(저 것이, 표xix), tyə́rən, tyə́rən-ge
c. ki-gé(그 것이, 표xix), kirə́n, kirə́n-ge

(18-19)의 예들은 분명 대명사 '이, 그, 뎌'에서 파생된 어사들이다. (19)의 예들을 통해서 '이, 뎌'는 유표지 어간(高調), '그'는 무표지 어간(低調)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의 예들은 이와는 관계없이 모두 제 2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18)은 앞서 언급한 '그+에'와 유사한 형태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ㆁ'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중세국어나 선행시기 六鎭方言에서 'ㆁ'이 高調 어간의 低調化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22)

---

21) (7)의 예들은 분명 중세국어의 後代形으로 생각되지만 변화 과정이 모호한 점이 있다. 가령, 'yəŋgé'가 '이+어긔'의 후대형이라면 '이+어긔>이+어ㆁ긔'와 같은 音韻倒置를 상정해야 된다.('kəŋgé', 'tyəŋgé'도 同一) 그러나 이러한 音韻倒置가 可能한지는 疑問이다.

22) 金完鎭(1973:36)에는 어미 '-어긔'가 'LH' 聲調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미 앞의 '이, 그'는 항상 平聲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金完鎭 교수는 이 때의 平聲化가 'ㆁ'에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한편, (14)의 '말'(言)은 그 어떤 어미가 통합되어도 결코 저조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악센트 변동은 音調調整規則의 구속에서 벗어난 例外的인 양상들이므로, 이들 변동 양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少數規則(minor rule)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規則은 '與格(-ge, k'e), 奪格語尾(gešə, k'ešə)는 선행 어간의 악센트 표지를 消去시키며, 處格語尾(-e)는 이 어미 바로 앞에 위치한 선행어간 모음의 악센트 표지를 消去한다.'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特定 語尾들은 語幹의 악센트 표지를 消去하는, 바꾸어 말하면 高調를 低調化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特定 語幹은 語尾와 統合될 때에 어간의 악센트가 不規則的으로 變動되는 예가 있다. 우선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9) 나(我)(표xiv)

기본격,주격,속격;	nɛ
여격;	nɛ-gé
대격;	ná-rɨ
향격;	na-llɨ́
처격;	nɛ-gé
탈격;	nɛ-géšə
주제격;	ná-nɨn

(10) 남(他)

속격;	namú(사133)
주격;	námi(정48)
대격;	námu
주제격;	námunɨn

(20)은 代名詞 '나'가 격어미와 통합될 때 악센트 실현이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격, 주격, 속격어미와의 통합형은 단음절이기 때문에 高低를 확인할 수 없지만, 향격, 여격, 탈격, 처격어미가 통합되면 語尾가 高調로 실현되고, 대격과 주제격어미가 통합되면 語幹이 高調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23]

제기한 바 있다.

23) 이들 불규칙 어간에 대해서는 金完鎭(1973:61-69)를 참고. 六鎭方言에서의

(20)의 '나'가 有標識 語幹이라면 처격, 여격, 탈격어미가 통합되었을 때 어미가 고조로 실현되는 것은 설명이 되지만 向格語尾가 통합되었을 때 어미가 고조로 실현되는 것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21)도 역시 양상은 다르지만 속격어미 '-u'가 선행 어간의 高調를 低調化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어간이라 할 수 있다.

5.2.1.2 2음절 名詞의 音調型과 中世國語의 聲調

Kazan 자료가 보여주는 六鎭方言 2음절 名詞의 音調型은 다음 세 가지이다.

가) 0 0 (低低, LL)
나) 0'0 (低高, LH)
다) '0 0 (高低, HL)

5.2.1.2.1 無標識(低低) 語幹: 中世國語의 平平聲 語幹

(1) 폐음절 어간

中世國語	六鎭方言
ᄀᆞᅀᆞᆶ(秋)	kasɨrí(가을-이, 사74)
가족(皮)	kadzugí(가죽-이, 사61,46)
강남(江南)	kaŋnaméšə(강남-에서, 사54)
구석(隅)	kusegí(구석-이, 사124)
귀밀(燕麥)	kumirɨ́(구밀-을, 회148,264,355,419)
	kumirína(구밀-이나, 사43), kumiríraŋ(회302,358)
기동(柱)	kiduŋ/kidũí(기둥/기둥-이, 사113)
그력(雁)	kiryegídərɨ́(기러기-들-이, 회254), kiryegí(표30)
ᄃᆞᆫ술(甘酒)	tansuurí(단술-이, 사11)

이러한 악센트 변동은 중세국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필자는 咸北 鶴城郡과 吉州郡의 방언조사에서 '나'의 대격형이 'naárɨ́'로 실현됨을 확인한 바 있다. (중세국어에서 '나'에 대격어미가 통합되면 어간은 上聲으로 실현된다.)

당신(當身) taŋšiní(당신-이, 부63,회5,278,286)
동생(弟) toŋsɛŋné(동생-네, 회183), toŋ-saŋ/toŋsɛ̃(사xviii)
ᄆᆞᅀᆞᆷ(心) maamí(마음-이, 사29,67), maamé(마음-에, 사109)
모밀(蕎麥) mɛmirí(메밀-이, 사20)
ᄇᆞᄅᆞᆷ(風) parɨmí(바람-이, 사17)
소곰(鹽) sogomí(소금-이, 사109), sogumú(소금-을, 회245)
슈염(鬚) šuemí(수염-이, 사126)
얼굴(顔) ərgurí(얼굴-이, 사54)
개옴(榛) k'ɛɛmí(사73), cf. k'ɛɛ̃mi(회xiv)

(2) 개음절 어간

고래(鯨) korɛ́(고래, 사22)
고쵸(椒) kotʃʰí(고추, 사ix)
ᄃᆞ리(橋) tarí(다리, 다리-가, 회8,15,157,375, 회부64)
몬지(塵) mundzúy(먼지, 사94)
ᄉᆞ지(獅) sadzíy(사자, 사52)
누의(妹) nɨbíy(누이-가, 회168,194)
아교(膠) ɛgyú(아교, 사44)
념통(心臟) nyəmtʰúy(염통, 사103)
댱ᄉᆞ(商) tyaŋsíy(장사, 사47,50)

(例外)

하낳(一) hánna(회188,350), hannánɨ(하나-는, 사200)

(1-2)의 예들은 中世國語에서 '平平'의 성조를 가졌던 어사들과 그에 대응되는 六鎭方言形을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육진방언형들은 '低低'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만, (1)의 폐음절 어간만이 '低低'로 실현되고 (2)의 개음절 어간들은 '低高'로 실현된다.

(2)는 한정첨사(또는 주격조사) '-이'가 개음절 어간 혹은 末音이 /ŋ/인 어간에 통합되면서 어간의 일부로 고정되어 再構造化된 어사들

이다. 이 때에 한정첨사 '-이'의 高調가 語幹末音節 母音의 低調와 결합하여 '低高'로 실현된 것이다. 즉, LL+H→LL-H>LH의 단계를 거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L-H>H'의 통시적 규칙을 수립하기로 한다. L-H(=R)은 이 방언의 선행단계에 고조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시적으로 'R'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L-H'가 H로 실현된 것이다.

```
L  L  H     L  L-H     L  H
|  |  |  →  |  |/   >  |  |
당 수 이    당  시      당 식
```

따라서 (2)의 개음절 어간 중에서 어간말에 '-이'가 통합되어 어간으로 굳어진 예들은 공시적으로는 '低高' 어간이다.

그런데 한정첨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低低가 기대되는 곳이 低高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예들은 악센트에 대한 기술이 어절 범위를 벗어나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를 보기로 한다.

(3) maálli kína kanin kílli urirí tɛryé kágəra(마을로 지나가는 길로 우리를 데려 가거라. 회84)

uri t'ə-na kár t'ɛ taŋšinnége ta torú tírye nossúri(우리가 떠나 갈 때 당신네에게 다 도로 들여 놓겠소(반환하겠소), 회126)

(4) taŋšín šəŋ-ts'ɛri ətti s'ío?(당신의 姓字를 어떻게 쓰오?, 회1)

taŋšiní i marí émmɛri pakkú pʰárgɛs'o(당신이 이 말(馬)을 얼마나 받고 팔겠소?(회286)

(5) núegešə satʰá s'armán háo?(누구에게서 사탕을 살만 하오?, 회ghl 259), cf. satʰáŋ(정56)

šəbá kagí(장가를 가기, 사31), cf. šəbaŋ(사31)

(3)에서 대격어미가 통합된 'uri'는 '低低'로 실현되었지만 주격위치

의 'uri'는 '低高'로 실현되었다. (4)에서도 주격어미와 통합된 'taŋšin'은 '低低'로 실현되었지만, 속격위치의 'taŋšin'은 '低高'로 실현되었다. (3-4)와 같이 본디 악센트가 없는 '低低' 어간의 말모음이 休止 앞에서 '고조'로 실현되는 것은 語末高調化에 의한 것이다. (5)의 'satʰá'은 文內에서의 位置로 보아 그리고 鼻音化를 경험한 것으로 보아 對格語尾가 統合되어 있어야 할 곳이다. 이는 대격어미 '-i'가 어간에 통합된 다음 모음동화를 경험하면서 대격어미가 지닌 고조가 어간말에서 실현된 것이다.24)

5.2.1.2.2 低高 語幹

'低高' 어간은 중세국어의 平去, 平上聲 어간과 대응된다.

(1) 중세국어의 平去聲 語幹

[중세국어]	[六鎭方言]
가·래(農具)	kaɛ́r(가래, 회viii)
가·마(釜)	kamɛ́(가마, 사48)
가·숨(胸)	kasím,i(가슴-이, 사21)
ᄀᆞᇫ·애(鋏)	kasɛ́(가위, 사68)
갗·신(鞋)	kaš'ín,i(가죽신-이, 사2)
가·지(種)	kaʤí(가지, 사110)
거·리(街)	kərí(거리, 회266)
거·믜(蛛)	kəmíy(거미, 회x,사77)
거·름(步)	kəríymi(거름-이, 회x,435)
겨·슬(冬)	kyəə́r,i(겨울-이, 사38)
고·개(峴)	kogɛ́(고개, 회4/부63)
고·기(魚)	kogína(고기-이나, 회99), kogí(사62,98)
고·랑(畔)	koráŋ/korɛ̃́(고랑, 고랑-이, 사21)
고·티(繭)	kotʰí(고치, 사20)

24) 모음동화에 대해서는 3.6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동화에 의해서 장모음화한 장음은 발화 표면에서 수의적으로 단음으로 실현되었다.

구·들(坑) kudúr,i(구들-이, 사64,85)
구·리(銅) kurí(구리, 사61), kurílli(구리-로, 사61)
구·슬(珠) kusúr,i(구슬-이, 사6)
구·실(職務) kušíri(구실-을, 사107)
구·ᅀᅵ(槽) kušídəri(구유-들-이, 사117,부65)
굴·헝(壑) kurőlli(구렁-으로, 회369), kurẽ(구렁-이, 부75)
그·릇(器) kiríši(그릇-이, 사8,83,88)
기·름(脂) kiríymi(기름-이, 회336-7)
ᄭᅩ·리(尾) k'orí(꼬리, 사128)
나·괴(驢) nagúy(나귀, 사73)
나·랗(國) naráŋ/narãi(나라, 나라-가), 사130)
남·편(男便) namp^hyə́n,i(남편-이, 사61)
너·븨(廣) nəbíy(너비, 회17, 부65)
너·출(蔓) nətsʰúr mitʰé(넝쿨 밑에, 사83)
녀·름(夏) nyərím,i(여름-이, 사56)
놀·애(歌) noré(노래, 사94)
닐·웨(七日) nüryé(이레, 회xi,227,234)
닐·굽(七) nirgúp(일곱, 사103), nirgúbi(일곱-이, 사103)
닐·흔(七十) niríni(일흔-이, 회부72)
다·ᄉᆺ(五) tasíši(다섯-이, 회부71), tasíšigu(다섯-이고, 회184)
더·뷔(暑) təbíy mək'ú(더위 먹고, 사viii)
동·히(樽) tõé(동이, 회316,xvi, 사50)
드·레(汲器) tirẽ(사2)
드·릏(野) turúi(들-이, 사85)
마·ᅀᆞᆫ(四十) maíni(마흔-이, 회xii, 부72)
ᄆᆞᆯ·채(策) martsʰɛ(사80)
멀·위(葡) mərgúy(사11,83, 회xi)
몰·애(沙) mosɛ́(사78)
무·디(堆) mudí(사47,50,115)

므·슥(何) musɨ́ge(사133)
바·ᄂᆞᆯ(針) panɨ́r,i(바늘-이, 사6,39)
바·ᄅᆞᆯ(海) padáŋ múr,i(바닷물-이, 사60)
바·당(底) padáŋ/padɛ̃(바닥, 바닥-이, 사85)
바·회(輪) pakʰʉ́y(바퀴, 회xi)
바·올(鈴) pãúri(방울-이, 회xvi,사37,6)
버·들(柳) pədɨ́r,i(버들-이, 사9)
버·슷(菌) pʰəsɨ́ši/pʰəsɨ́t(버섯-이/버섯, 사20)
벼·록(蚤) pyərɨ́gi(벼룩-이, 사4)
벼·슬(爵) pyəsɨ́ri(벼슬-이, 사35,132)
불·휘(根) p'urí(뿌리, 사47)
사·슬(鎖) sasɨ́r,i(사슬-이, 사131)
샷·기(稚) sɛk'í(새끼, 사48,79,87)
서·리(霜) sər,í(서리-가, 사41)
소·리(聲) sorí, sorɨ́rɨ(소리, 소리-를, 사11,22,37,94)
수·리(鷲) surí(독수리, 사73)
술·위(車) surgɨ́y(수레, 수레-가, 사12, 회부64)
싸·홈(鬪) s'aúm,i(싸움-이, 사4,27)
아·ᄃᆞᆯ(子) adɨ́r,i(아들-이, 사118)
아·비(父) ɛbí(아비, 회161, 사26)
아·홉(九) aúbi(아홉-이, 회99, 부72)
아·흔(九十) aɨ́ni(아흔-이, 회90)
어·듸(何處) ədɨ́yo(어디-이오, 회222)
어·제(昨) ədzé(어제, 사14)
어·름(氷) ərɨ́ymi(얼음-이, 회x)
여·듧(八) yadɨ́rbi(여덟-이, 부71)
여·든(八十) yadɨ́ni(여든-이, 부72)
여·슷(六) yəsɨ́ši(여섯-이, 부71,사135)
오·ᄂᆞᆯ(今日) onúr(오늘, 회159,298)

올·희(今年) oré(올해, 회239,240)
우·숨(笑) usúm,i(웃음-이, 사108)
일·홈(名) iríymi(이름-이, 회175,216-9)
쟈·랑(誇) ʧaráŋ/ʧarâi(자랑/자랑-이, 사128)
자·리(席) tsarí(자리, 회26,402,회부66)
잠·개(兵器) tsɛŋgídəriraŋ(장기(仗器)-들-이랑, 사124)
죠·희(紙) ʧōé(종이, 회294, 사6)
주·검(屍) tsugə́mi(주검-이, 사107)
즈·슴(際) tsɨɨ́mi(즈음-이, 사46)
하·놀(天) haníri(하늘-이, 사6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世國語의 平去형 어간은 六鎭方言에서 低高調로 실현된다. 이 대응은 규칙적이다. 이 '低高' 어간은 다른 2음절어의 음조형보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세국어와의 대응에서 소수의 예외가 보인다. kádzɛ(가·재(石蟹), 회xiv), tsə́ur,i(저·울(秤), 사17)가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例에서 보듯 '高低' 어간이다.

(2) 中世國語의 平上聲 語幹
막:대(杖) maktɛ́, maktɛgí(막대, 막대기, 사77)
손:님(客) sonním(손님, 사95)
한:새(鸛) hansɛ́(황새, 사32)
형:님(兄) šəŋ-ním(회164,179), šəŋ-nímullɛ(형님을 위해, 사95)
여:쉰(六十) yešǘni(회xii)

平上聲 어간은 그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합어나 파생어가 많다. 이들 어간의 平上聲이 六鎭方言에서는 규칙적으로 低高調로 실현된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막다·히'(>막:대)의 이 방언 반사형은 'maktɛgí, maktɛ́'인데 聲調의 대응 역시 규

칙적이다.

5.2.1.2.3 高低 語幹

高低 語幹은 中世國語의 去平, 去去, 去上聲 語幹 및 上平, 上去, 上上聲 語幹과 대응된다. 그러나 '去聲'과 '上聲'이 결합된 중세국어의 성조형은 육진방언에서 '高低'에 규칙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중세국어 성조와 이 방언의 악센트 실현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1) 中世國語의 去平聲 語幹

·가지(枝) káʤi(사116)
·구룸(雲) kúrum,i(구름-이, 사123)
·그림(畵) kɨ́rimu(그림-을, 사89), kɨ́rim,i(그림-이, 사43)
·놀개(翅) nárgɛ(사49)
·빨기(葱) tárgɯy(사57)
·무뤼(雹) múrɨ́y(사20)
·벼개(枕) pyə́gɛ(사83)
·싀집(媤) sɨ́y-ʤibu(시집-을, 회193,195)
·치뷔(寒) ʧʰíbɨ́y(사60,129)
·톳기(兎) tʰók'i(토끼, 사36)

去平聲 語幹은 대부분 高低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음 어사들은 低低 혹은 低高로 실현된다.[25]

·그믈(網) kɨmúr,i(정구의 네트, 118), kɨmur,í(魚網, 사65)
·소매(袖) samɛ́ɨ(소매-를, 사124)
·젹삼(衫) ʧəksam, ʧəksɛmí(적삼, 적삼-이, 사98,129)

(2) 中世國語의 去去聲 語幹

25) 전학석(1986:100)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ᄀᆞ·뭄(旱) kámur,i(가뭄-이, 사116)
·쇠·졋(牛乳) šwé-ʤəʤina(소젖-이나, 회108)
·슈·박(果實) šúbak(수박, 사1)
·ᄉᆞ·믈(二十) síműri(스물-이, 부71,사20)
·어·미(母) émi(어미, 회166,57)
·녀·편(女便) nyépʰyen,i(여편(네)-이, 사31)
·올·히(鴨) óri(오리, 회345,사126)
·열·쇠(鑰) yárswɛ(열쇠, 사45)
·잔·치(宴) tsántsʰɨy(잔치, 사48)
·할·미(姑) hármi(할미, 사2)
·활·개(四肢) hwárgɛrɨ(활개-를, 사57)

위 去去聲은 六鎭方言에서 高低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低高' 혹은 '低低'로 실현되는 예도 발견된다.

·ᄀᆞ·래(楸) karɛ́(가래, 사55, 회viii)
·단·디(壺) tandí(단지, 회329, 사20,50)
·모·욕(沐浴) moyók-kanɨrɨ(목욕간-으로, 사vi)
·우·리(我) uri(사117), urirí(우리-를, 회83,84,107)

(3) 中世國語의 去上聲 語幹
·ᄇᆡᆨ:셩(百姓) pɛ́kšəŋdəri(백성들-이, 사vii), pɛ́kšəŋ/pɛ́kšẽ(백성/백성-이, 사64))
·퉁:발(網) tʰoŋbarí(통발-이, 사54)

中世國語에서는 단일 형태소로서 去上聲인 2음절 명사 어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例의 '통발'도 복합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去上聲 어간에 대한 六鎭方言의 반사형들은 '高低' 혹은 '低低'로 실현된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去上

聲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복합어들도 '高低' 혹은 '低低'로 실현된다.26)

·녀:죵(侍女) nyə́-ʤoŋ/nyə́-ʤōi(여종/여종-이, 사95)
·춤:외(眞瓜) tsʰámɛ(사29)
·피:낟(稷穀) pʰinadɨ́(피낟-을, 회230), pʰinadí(피낟-이, 부74)
pʰinadíraŋ(피낟-이랑, 회302)

따라서 중세국어의 '去上聲'이 六鎭方言에서는 '高低, 低低'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去上聲'이 특이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去聲'과 '上聲'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웠던 때문으로 생각된다.27)

(4) 高低 語幹: 中世國語의 上平聲
:사룸(人) sárɨm(회22), sárɨmi(사람-이, 부66,사65)
sárɨmi(사람-이, 회191), sárɨmuge(사람-에게, 사66)
:얼운(成人) ə́runi(어른-이, 회x)
:님자(主人) nímdzɛ(사61)
:댱가(娶) tyáŋgarɨ kagí(장가-를 가기, 사31), tyáŋgɛrɨ(회185)
:져비(燕) ʧébi(사52,39), ʧébidəri(제비들-이, 사54)
:죠고맛(小) ʧók'um(조금, 사86)
:겨집(女) kyéʤip, kyéʤibi(계집, 계집-이, 사72)

(5) 中世國語의 上去聲 語幹
:거·동(임금의 행차) kə́duŋ-hagi(사135)

26) '통발'은 전학석(1986:102)에서도 '低低'로 조사 보고 되었다. 이 외에도 중세국어에서 '去上' 聲調를 지녔던 '한숨, 숫돌'이 전자는 '高低', 후자는 '低高'로 실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27) 중세국어의 'HR' 혹은 'RH' 성조에서 이러한 변화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의 경우도 동일하다.(5.4 참고) 그러나 이 변화는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돗·귀(斧)	tók'ɨy nárɨ(도끼날-이, 사70)
:둘·채(二)	túrts'ɛ(부67, 회38)
:볽·쥐(蝠)	p'ár-ts'ʉy(사89)
:쇠·졋(牛乳)	š^wéʤəʤi(소젖-이, 회329,330)
:엇·디(豈)	ə́tti(회215,부63)
:언·마(幾何)	émmɛo(얼마-오, 회15,220), émmɛš'i(얼마씩, 회232)
:진·지(飯)	ʧín-ʤi(진지, 사4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平', '上去聲'은 원칙적으로 '高低'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은 예외가 보인다.

:셔볼(京)	šəurío(서울-이오, 회223)
:아모(某)	amu sárɨmina(아무 사람이나, 사49)
:슈·건(水巾)	šugən,í(수건-이, 사80,85)
:시·작(始作)	šidzɛgírɨ(시작(이)-를, 사64,32)
:대·국(大國)	tɛgúk sárɨm,i(→中國 사람-이, 사44)
:쇼·경(盲人)	šwe-gyə̃́(소경-이, 사107)

'上平聲' 어간의 예외들은 '低低'로 실현된다. '上去聲' 어간들도 '低低'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슈건'과 '시작'은 '低低'임이 틀림없지만 '대국'과 '쇼경'은 위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대국'은 語末高調化 規則에 의하여 '低高'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며, 'šwe-gyə̃́'은 주격어미와의 統合形이므로 주격어미의 高調가 어간말 모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Kazan 자료가 보여주는 육진방언 2음절 체언어간의 음조형과 이들 음조형들이 중세국어의 성조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世國語 聲調	用例	六鎭方言 音調型 LL	LH	HL	비 고 ( )는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例.
LL	18	17(1)	1(1)	-	폐음절 어간만을 대상으로 함.
LH	84	-	82	2	
LR	5	-	5	-	
HL	12	1(1)	1	10(1)	
HH	15	1	3	11	
HR	5	2	-	3	
RL	9	2	-	7	
RH	12	2	2?	8	LH의 ?은 LL일 수도 있음.
RR	-	-	-	-	

六鎭方言의 2음절 音調型은 中世國語의 聲調型에 비해 매우 單純化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單純化는 통시적으로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上聲이 高調에 합류하였고,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는 高調가 오직 1회만 나타나는 制約이 생긴 결과이다. 그리고 中世國語의 聲調型과 六鎭方言의 音調型은 그 對應에 있어서 規則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명사 어간이 문법형태소와 통합될 때의 악센트 변동을 살펴본 바 있는데, 변동의 기제는 중세국어 단계의 성조의 변동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육진방언의 선행시기에도 중세국어와 같은 聲調가 존재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한 先行時期 六鎭方言의 聲調가 體系와 規則의 單純化를 경험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語末高調化 規則'이다. 休止 앞에서 악센트가 없는 無標識 語幹의 말음절 母音이 高調로 실현되는 이 현상은 六鎭方言의 운소 체계가 새로운 변모를 꾀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慶尙道 方言의 악센트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논의될 문제이다.

5.2.1.3 3음절 명사의 음조형

六鎭方言의 3음절 명사의 음조형과 중세국어의 성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中世國語]	[六鎭方言]
(1)	손가락(指)	sonkarɛgí(사77)
(2)	아자·비(叔)	adzɛbí(사30)
	가락·지(環)	karaktʃí(사46,78)
	가마·괴(烏)	kamagʉ́y(사13, 회xi)
	그림·제(影)	kɨrimdzʉ́y(사123)
	기러·기(雁)	kiryegídəri(기러기들-이, 회254)
	녑구·레(肋)	nyək'urí(사4)
	ᄃᆡ고·리(頭)	tɛgarí(사19)
	ᄆᆞ야·지(駒)	mɛɛʤí(사57)
	머구·리(蛙)	məgɨráktʃi(사57)
	목소·리(聲)	moksorí(사19)
	믈자·ᅀᆡ(桔)	muʤaú(사vii)
	벌어·지(蟲)	pərgəʤí(사132)
	주머·니(囊)	tsumən,í(사48)
(3)	아·바:님(父)	abúnim(회161)
	가·ᄫᆞᆫ·ᄃᆡ(中)	kaúnde(사111, 회414)
	나·ᄀᆞ·내(旅)	nagɨ́nɛrɨ(나그내-를, 사36)
	두·디·쥐(鼢)	t'udígi(사99)
	묏·도·기(螞)	mɛt'úgi(사113)
	며·느·리(婦)	myənɨ́ri(사66)
	버·워·리(啞)	pəbə́ri(사69)
	ᄌᆞ·치·음(噴)	tsatsʰému hagí(재채기-를 하기, 사133)
	오·좀·ᄶᅢ(膀)	odzomkʰɛ́(사93)
	아·ᄌᆞ·미(姑)	adzɨ́m,i(사120)

	술·위·떠(轅)	surgɨyt'ʉy(사75)
(4)	·싀·어·미(姑)	sɨ́y-emi(사101), séemi(회198)
	·두·루·미(鶴)	túrumi(사52)
	·버·국:새(郭公)	pə́k'ugi(사50)
	·싀누이(妹)	sɨ́y-nɨbɨy(회200)
	·어마:님(母)	ə́munim(회166)
	:죠구·맛(小)	ʧók'um(사133,86,66,5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의 3음절 어간 音調型은 4가지이다. 音調型을 中世國語의 聲調와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六鎭方言]	[中世國語 聲調]
0 0 0 (LLL)	LLL
'0 0 0 (HLL)	HH, HHR, HHL, HLL, HLR, RLH
0'0 0 (LHL)	LHH, LHR, LHL
0 0'0 (LLH)	LLH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형태소 내부에서 어두 혹은 어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上聲, 去聲'만이 六鎭方言에서는 高調로 실현된다고 한 사실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六鎭方言의 악센트는 中世國語의 聲調와 그 대응에 있어서 규칙적이지만 예외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도리채(LLL)	torík'ɛ(LHL)[28]
고·솜돌(LHL)	kosundót, kosundotʰí(LLH, LLLH)

위 例 外에 각 음조형에 따른 六鎭方言形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8) 이 어사는 전학석(1986)에도 LHL형으로 되어 있다.

(1) LLL

əsɨrmɛgí(어스름-이, 표33), cf. əsɨrmagé(어스름-에, 회310)
hwɛparɨmú púrgi(휘파람-을, 사102), hwɛparɨmʧír(휘파람질,사34)
hwaryuŋšəní(화륜선(火輪船), 사65)

(2) LLH

yərɨmɛ́(열매(實), 회ix)
hedzɛbí(허수아비, 사50)
myəkʰərí(메투리, 사80)
nɨburí(노을, 사34)
namusɛ́(남새, 사71)
nip'adyɛ̃́(이 빠진 사람, 사3)
pagitʰé(바깥, 사16)
pyɛ̃urí(병아리, 회349)
motsʰorí(메추라기, 사78)
puraŋgʉ́y(대포, 사94)
pusuk'ɛ́(아궁이, 사79)
šəŋnyuɛ́(성냥, 회xvi)
šabagʉ́y(목이 긴 구두, 사2)
šimbarám(심부름, 사51)
šišɛrí(게으름, 나태, 사53)
sar-kuktʉ́y(쇠스랑, 사20)
tɨŋ-k'aŋʤí(벼껍질, 사35)
taptɛbí(답답이, 사105, 121)
tsɛnnabíy(원숭이, 사70)
todokʧírɨ(도둑질-을, 사125,115)
ʧuŋtʰɛgí(망태기, 사116)
ʧokʧəpʰí(족제비, 사129)
ʧənmegí(젖먹이, 사58)
piʤik'ɛ́(성냥→spizika(露語),사110)

(3) LHL

nyəpʰári(옆, 사4)
wɛgári(왜가리, 회x)
kamúŋgi(갈가마귀, 사18)
kɛɛ́ʤi(강아지, 회xiv)
kaŋʤɛɛ́gi(진흙탕, 사 22)
kadɛ́gi(쟁기(耒), 회viii)
kamáani(가만히, 사124)
kərgí-tsʰɛ(십자가, 사89),
hwaŋgári(족제비, 사129)
puk'úrəm(부끄럼, 사115)
pɨygákʧir(베는일, 사31)
pʰarítsʰɛ(마차의 멍에, 사71)
tasípʰo(요리사, 사39,50)
nɛgúri(연기, 사29)

(4) HLL

órɛbi(오라비, 사vi,5)
ɛ́bari(노력, 회viii)
kʉ́yt'uri(귀뚜라미, 사101)
púrš'erɨ(갑자기, 사10,8, 회xviii)
púudəktsʉy(쥐, 사49)
ʧók'umhan(조그만, 사57)

5.2.1.4 4음절 體言 語幹의 音調型

4음절 어간은 다음과 같이 3예만이 보인다.

[중세국어]		[六鎭方言]
아ᄌᆞ·바:님	LLHR	adzɨbáni(회170,사30)
아·ᄌᆞ마:님	LHLR	adzímani(사120)
하올·어·미	LLHH	habúémi(사8)

4음절 어간의 악센트 실현에서도 역시 앞서의 성조변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즉, 한 형태소 내부에서 고조는 1회만 나타나며 그 고조는 中世國語의 성조에서 한 형태소의 첫 '去聲'이거나 첫 '上聲'이다.

中世國語에서 대응 예를 발견할 수 없는, 六鎭方言에서만 보이는 4음절 체언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低低低高; pirəŋgiré(거지, 사67), pirənbǎí(사67)
əbudzɛgí(고함, 사49,97)
tsabundɛgí(馬具, 사101)

低低高低; məgirɛ́gi(개구리, 사57), məgiráktʃi(개구리, 사57)
turumági(두루마기, 사77)

이들 예만을 가지고는 체언 4음절 어간의 음조형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의 예를 통하여 4음절 어간의 음조형은 n+1 즉 5가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2.2 用言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用言語幹의 악센트 실현은 자못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用言語幹에서의 악센트 실현은 몇가지 類型으로 분류될 수 있다. 鄭然

粲(1963), 金完鎭(1963,1973)은 中世國語를 대상으로 하여 활용어간의 성조 변동을 유형화하고 그 내적 기제를 밝힌 업적이다. 그리고 Ramsey (1978)도 東北方言의 하위 방언인 咸南 北靑方言을 대상으로 하여 활용어간의 악센트 실현을 유형화한 것이다.

本節에서는 <會話>, <辭典>, <單語와 表現>의 六鎭方言 자료를 중심으로 이 방언의 활용 어간의 악센트 변동을 살펴보고 그들을 몇 개의 부류로 나눈 다음, 그 부류에 드는 어간들을 목록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의 악센트가 중세국어 활용어간의 성조와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유형의 어간들이 어미와 통합될 때 나타나는 악센트 변동의 기제는 표면층위에서의 양상만을 가지고 규칙화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외를 만나야 되고 또 그 만큼의 소수규칙(minor rule)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지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활용어간의 악센트 유형을 확인하려면, 먼저 어간에 통합되는 어미들의 악센트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간과 어미들의 기저악센트가 결정되어야만 여기서 보여지는 제반 형태음소론적인 악센트 변동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육진방언의 활용어미는 다음에 보일 예들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어미들의 악센트 유무는 第 一類에 속한 語幹들이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기 때문에 이들 어간에 연결되어 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5.2.2.1 單音節 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1) 第 一類型 語幹

第 一類型은 語幹이 어떠한 어미와 통합되어도 低調로 실현되는, 악센트 표지가 없는(atonic) 어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의 활용형을 통하여 어미들의 악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29) Kazan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활용형은 咸北 慶興 출신인 金翊俊 氏로부터 조사하여 얻어낸 것임을 밝혀 둔다.

[語 尾]	[낳-(産)]	[입-(被)]	[찧-(搗)]
[-아/어라]	naára	nibə́ra	t'yəə́ra
[-았/었다]	naát'a	nibə́t'a	t'yəə́t'a
[-고]	nakʰú	nipkú	t'ikʰú
[-디]	natʰí	niptí	t'itʰí
[-게]	nakʰé	nipké	t'ikʰé
[-으러]	naára	nibúra	t'iíra
[-으라고]	naáragu	nibúragu	t'iíragu
[-으면]	naámun	nibúmun	t'iímun
[-을]	naál(s'u)		
[-기]	nakʰí	nipk'í	t'ikʰí
[-길래]	nakʰíllɛ	nipk'íllɛ	t'ikʰíllɛ
[-은]	naán		
[-는]	nannɨn	nimnɨn	t'innɨn
[-는-]	nannɨndá	nimnɨndá	
[-오/소]	nas'ó	nips'ó	t'is'ó
[-우/수리]	nas'úri		
[-겠-]	nakʰɛ́t'a	nipk'ɛ́t'a	t'ikʰɛ́t'a
[-을 만하다]	naálmanada	nibúlmánada	t'iílmanada
[-읍데/습데]	nas'úpte	nips'úpte	t'is'úpt'e
[-읍/습구마]	nas'úk'uma	nips'úk'uma	t'is'úk'uma
[-읍/습궈니]	nas'upk'wəni		
[-읍/습쇼]	nasúps'o	nibúps'yo	t'iíps'yo
[-는 구마]	nanníŋguma	nimníŋguma	t'inníŋguma
[-읍/습두ㅇ]	nas'úmdũ	nips'úmdũ	t'is'úmdũ
[-으니까]	naánik'a	nibúnik'a	t'iínik'a
[-으며]	naámyə	nibúmyə	t'iímyənšə
[-던]	natʰə́n	nipt'ə́n	t'itʰə́n
[-자]	natʃʰá	niptʃ'á	t'itʃʰá

[-네!]	nanné		t'inné
[-더라]	natʰəra	nipt'əra	t'itʰəra
[-다가]	natʰagá	nipt'agá	t'itʰagá
[-거나]	nakʰə́na	nipk'ə́na	t̡'ikʰə́na
[-는데!]	nannɨndé	mimnɨndé	t'innɨ́nde
[-으시다(니)]	naásinda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類에 소속된 어간들은 어떤 어미와 연결되어도 저조로만 실현된다. 이 부류에 속한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키릴문자를 한글자모로 전사함. 出典은 省略)

앉-(座), 앓-(患), 있-(有), 얕-(淺), 굳-(固), 걲-(折), 깎-(削), 깨-(醒), 막-(防), 맞-(鞭), 맺-(紐), 및-(及), 믿-(信), 물-(咬), 먹-(食), 날-(飛), 낫-(愈), 닙-(被), 닉-(熟), 넣-(挿), 놓-(置), 높-(高), 눅-(값이 싸다), 늡-(臥), 늙-(老), 늦-(晩), 받-(受), 박-(말뚝을 ~), 밭-(棄唾), 밝-(明), 빗-(梳), 붙-(附), 붇-(潤), 붊-(羨), 벗-(脫), 뿔-(增), 석-(腐), 싸-(돈을 주고 물건을 ~), 쌓-(積), 식-(冷), 씻-(洗), 헤-(泳)

한편,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음이 /h/인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되면 /h/탈락에 의하여 naát'a'(놓-았다), 또는 /h/탈락과 母音同化에 의하여 't'iíra'(찧(搗)-으러)처럼 실현된다. 이 때의 上昇調는 음운론적으로는 저조와 고조의 병치로서 후행모음에 악센트 표지가 놓인다.

(2) 第 二類型 語幹

	[2A: 칩-(寒)]	[2B: 없-(無)]
[-아/어서(도)]	ʧʰíbašə	ə́ps'əsə
[-고]	ʧʰípk'u	ə́pk'u
[-디]	ʧʰípt'i	ə́pt'i

[-으면]	tʃʰíbumun	
[-을]	tʃʰíbun	
[-기]		ə́pki
[-길래]	tʃʰípkillɛ	ə́pkillɛ
[-는]		ə́mnɨn
[-오/소]	tʃʰíps’o	ə́ps’o
[-우리/수리]	tʃʰípk’ɛt’a	ə́pgɛt’a
[-읍데/습데]	tʃʰíps’upt’e	ə́psupte
[-읍구마/습구마]	tʃʰíps’uk’uma	
[-읍니/습니]		ə́psumni
[-읍/습두ㅇ]	tʃʰíps’umdũ	
[-으니까]	tʃʰíbunik’a	
[-으며]		ə́ps’ɨni
[-던]		ə́pt’ən
[-더라]	tʃʰípt’əra	ə́pt’əra
[-다가]	tʃʰípt’aga	ə́pt’aga
[-거나]	tʃʰípk’əna	ə́pk’əna
[-는데]	tʃʰíbunde	ə́mnɨnde

二類에 속하는 어간들의 악센트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어미들이 연결되어도 결코 변동되지 않는다. 이들 어간 중에서 [2A]는 中世國語에서 '去聲'의 聲調를 가졌던 語幹이고, [2B]는 '固定的 上聲'(金完鎭, 1973:54) 혹은 '上聲不變語幹'(鄭然粲, 1974:163)이라 불리운 것들로서 활용시 고정적으로 상성의 성조를 유지했던 어간이다. 육진 방언에서는 上聲이 高調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어간 모음은 언제나 고조로 실현된다. 이 類型에 드는 語幹은 다음과 같다.

갈-(磨), 둏-(好), 쉬-(息), 파-(掘), 팔-(賣), 세-(값이 비싸다)
곱-(麗), 내-(出), 닐-(起), 븨-(刪), 싸-(값이 나가다, ~에 합당하다),

삼-(신을-), 쉽-(易), 섧-(서럽-), 쟉-(小), 얻-(得).

Ramsey(1978)에서는 이들 어간 중에서 [2B]는 五類와 語幹末 子音이 상호 대조적인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2음절 어간으로 再構하고 (HL, RL) 각각 apocope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鄭然粲(1963)의 해석에 기댄 것이다.

(3) 第 三類型 語幹

	[서-(立)]	[펴-(伸)]	[켜-(点火)]	[지-(負)]
[-아/어라]	šə́ra	p^{h}éra	š'ə́ra	ʧeéra
[-았/었다]	šə́t'a	p^{h}ét'a	š'ə́t'a	ʧeét'a
[-고]	šəgú	p^{h}égu		ʧigú
[-디]	šədí	p^{h}edí	š'ədí	ʧidí
[-게]	šəgé	p^{h}egé	š'əgé	ʧigé
[-으러]		p^{h}erá	š'ərá	ʧirá
[-으라고]	šərágu	p^{h}erágu	š'ərágu	ʧirágu
[-으면]	šəmyə́n	p^{h}emún		ʧimún
[-기]	šəgí	p^{h}egí	š'əgí	ʧigí
[-길래]	šəgíllɛ	p^{h}egíllɛ	š'əgílɛ	ʧigíllɛ
[-는]	šənɨn		š'ənɨn	ʧinɨn
[-는-]	šəndá	p^{h}endá	š'əndá	ʧindá
[-오/소]	šəó	p^{h}eó	š'əó	ʧió
[-겠-]	šəgɛ́t'a	p^{h}egɛ́s'o	š'əgɛ́t'a	ʧigɛ́t'a
[-을만하다]	šəlmánháda	p^{h}elmánáda	š'əlmánada	ʧilmánháda
[-읍데/습데]	šəə́pt'e	p^{h}eépt'e	š'əə́pt'e	ʧiípt'e
[-읍/습구마]	šəə́k'uma	p^{h}eék'uma	š'əə́k'uma	
[-읍쇼/습쇼]	šəə́ps'yo	p^{h}eéps'yo		ʧiíps'yo
[-는 구마]		p^{h}emnɨ́ŋguma		
[-음/슴두ㅇ]		p^{h}eémdu	š'əə́mdu	

[-으니까]	šənîk'a	pʰenîk'a	š'ənîk'a	ʧinîk'a
[-으며]		pʰrmyə́nšə	š'əmyə́nšə	
[-던]	šədə́n	pʰedə́n	š'ədə́n	ʧidə́n
[-자]	šəʤá	pʰeʤá		ʧiʤá
[-더라]	šədə́ra	pʰedə́ra	š'ədə́ra	ʧidə́ra
[-다가]	šədagá	pʰedagá	š'ədagá	ʧidagá
[-거나]	šəgə́na	pʰégəna	š'ə́gəna	ʧigə́na
[-는데]	šənɨndé	pʰenɨndé	š'ənɨndé	ʧinɨndé

三類型은 Ramsey(1978)의 분류에 의한 것인데 Ramsey는 이들 어간들은 부사형어미 '-아/어' 앞에서만 어간모음이 악센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들 어간의 北靑方言에서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1978:193)

sə́ə (서-어)	sə́əla (서-어라)
sə́ət'a, sə́ədu (서-었다, 서-어도)	sə́upme (서-읍메)
sə́əsə (서-어서)	

그러나 六鎭方言에서는 이들 語幹이 '-아/어'와 통합될 때에는 결코 長音化하지 않는다. Ramsey도 반드시 장음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주에서 밝히고 있기는 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은 어간 모음 '아, 어'가 부사형어미와 통합될 때 탈락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간 모음의 탈락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들 어간은 어미 '-아/어'와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저조로 실현되기 때문이다.[30] 이 어간은 기본적으로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펴-, 켜-'가 어미 '-거나'와 통합되면 악센트는 어간 쪽으로 이동한다.

30) 중세국어에서는 '셔아(HH), 셔아셔(HHH), 셔엣다(HLH)'와 같은 성조 변동을 보였다. 즉 '-아/어' 앞에서 어간모음이 탈락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負)'가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이 어사만의 특징은 아니다. '찧-'(搗), '비-'(空), '기-'(匍)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Ramsey(1978)에서처럼 '지-'를 一類와 나누어 三類로 따로이 설정할 근거는 없다.

(4) 第 四類型 語幹

	[자-(眠)]	[하-(爲)]	
[-아/어서(도)]	tsádu	hέεdu	
[-았/었다]	tsát'a	hέεs'o	
[-아/어라]	tsára	hέεra	
[-고]	tsagú	hagú	
[-디]	tsadí	hadí	
[-게]	tsagé	hagé	
[-으러]	tsará	hará	
[-으랴르]		haryárɨ	
[-으라고]	tsarágu	harágu	
[-으면]	tsamún	hamún	
[-을]	tsal s'ú	hal s'ú	cf. har š'ú(회x)
[-기]	tsagí	hagí	por š'ú(회xii)
[-길래]	tsagíllε	hagíllε	
[-는]	tsanɨn	hanɨn	
[-는-]	tsánda	hánda	
[-오/소]	tsáo	háo	
[-우리/수리]	tsáuri	háuri	
[-겠-]	tsagέt'a	hagέt'a	
[-냐]		háannya	
[-읍데/습데]	tsáapt'e	háapt'e	
[-읍쇼/습쇼]		háaps'yo	
[-는 구마]	tsánɨnguma	hánɨnguma	
[-읍/습두ㅇ]		háamdu	

[-으니까]	tsaník'a	haník'a
[-으며]	tsamyə́nšə	hamyə́nšə
[-던]	tsadə́n	hadə́n
[-쟈]	tsadʒá	hadʒá
[-네!]	tsáne	háne
[-더라]	tsádəra	hádəra
[-다가]	tsádaga	hádaga
[-거나]	tsagə́na	hagə́na
[-는데]	tsáninde	háninde
[-으시다(니)]	tsásio	hásio

第 四類型 어간의 악센트 실현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이 유형에 드는 어간들은 모두 개음절 어간이면서 어간 모음이 '아,오,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유형의 어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去), 두-(置), 보-(視), 오-(來), 자-(眠), 주-(與), 하-(爲)

이들 어간이 어미들과 통합될 때의 악센트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어미 앞에서 어간 모음은 高調로 실현된다.[31]
 가. 모음어미 중에서: -아/어, -았/었, -아/어라(도) 등.
 나. 다음과 같은 청자존대법 어미
  -오, -웁데, -웁니, -우리, -웁쇼, -음둥, -웁구마
 다. 자음어미 중에서: -ㄴ다, -네, -는데, -너라, -거라, -더라, -다가
(2) 위 '가, 나, 다'를 제외한 어미 앞에서는 低調로 실현된다.

31) 金完鎭 교수는 이들 어미 이외에 존경법의 '-ᄋᆞ/으시'를 더 들고 있다. 東北方言에는 이 어미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어미를 사용하도록 하여 발화를 청취해 보면 어간이 高調化한다.

(5) 第 五類型 語幹

	[웃-(笑)]	[메-(負)]	[멀-(遠)]
[-아/어라]	usə́ra	meéra	mərə́du
[-았/었다]	usə́t'a	meét'a	
[-고]	úk'u	mégu	mə́lgu
[-디]	út'i	médi	mə́ldi
[-게]	úk'e	mége	mə́lge
[-으러]		méra	
[-으라고]	usíragu	méragu	
[-으면]	úk'i	mémun	mə́lmun
[-기]	úk'i		
[-길래]	úk'illɛ	mégillɛ	mə́lgillɛ
[-는]	únnin		
[-는-]	únninda	ménda	
[-오/소]	ús'o	méo	
[-겠-]	úk'ɛt'a	mégɛs'o	mə́lgɛt'a
[-냐]	únni		
[-을 만하다]	usúl mánada	mél mánada	
[-읍데/습데]	ús'upt'e	méept'e	mə́əpt'e
[-읍니/습니]			cf. sáamni(살-으니)
[-읍궈니/습궈니]			sáanya(살-은냐)
[-읍쇼/습쇼]		méeps'yo	
[-는 구마]		méniŋguma	
[-음/습두ㅇ]		meémdu	
[-으니까]	usíni	ménik'a	mə́nik'a
[-으며]	usímyənsə	mémyə	
[-던]	út'ən	médən	
[-쟈]	útʃ'a		
[-네!]	únne		

[-더라]	út'əra	médəra	máldəra
[-다가]	út'aga	médaga	
[-거나]	úk'əna	mégəna	málgəna
[-는데]	únninde	méninde	mánde
[-으시다(니)]	usísinda		

이와 같이 五類에 소속된 어간들은 모음어미가 통합될 때에는 저조로 실현되지만 자음어미 앞에서는 高調로 실현된다. 단, 聽者尊待法語尾 '-오, -읍데' 등이 통합될 때에는 高調로 실현된다. 다른 음운현상에서와 같이 이들 청자존대법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과 동일한 음운 행위를 보인다. 이 部類에 드는 語幹은 다음과 같다.

갈-(耕), 굽-(炙), 걸-(掛), 검-(黑), 길-(長), 놀-(遊), 돕-(協), 돌-(廻), 덥-(暑), 많-(多), 말-(勿), 메-(負), 밀-(推), 몰-(驅), 물-(償), 묻-(問), 빌-(祈), 불-(風, 吹), 븨-(空), 살-(生), 삶-(烹), 세-(算), 싣-(載), 신-(履), 알-(知), 열-(開), 열-(實), 울-(泣), 웃-(笑), 얼-(氷), 짛-(作), 탈-(실을 타레에 감다.).

이들 어간들은 중세국어 聲調論에서 '流動的 上聲'(金完鎭, 1973:54), 또는 '可變的 上聲'(鄭然粲:1974)에 속했던 어간들이다. 鄭然粲(1963), Ramsey(1978)에서는 이들 어간이 기원적으로는 2음절이었으며, 'LH'의 성조를 가졌던 것들인데, 후에 어간말의 '으, ᄋᆞ'가 탈락하여 단음절화함으로써 자음어미 앞에서는 상성으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32)

32) 위 다섯 類型 外에 어떠한 어미가 연결되어도 언제나 上昇調를 보이는 어사들이 육진방언에 존재함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例) pəə́nge(<*버실-, 벌(稼)-은 것-이, 사26), nəə́rgi(<너흘-, 사21,33), 'tsεέ-'(<자히-, 재(尺)-). 이들은 歷史的으로 語中子音 脫落을 경험한 어사들인데, 이를 따로이 類型化하지 않은 것은 이들 語幹母音은 2 mora로서 低高의 複合調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2.2.2 2음절 어간의 음조형과 그 변동

2음절 용언 어간의 音調型은 00(低低), 0'0(低高), '00(高低)의 三型이 있다. 이들 2음절 어간은 단음절 어간과는 달리 악센트의 변동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類型別로 나누어 살펴보고 중세국어의 성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대응 예로서 제시된 중세국어형 중 일부 어간의 聲調는 특정 어미와 통합될 때 語幹의 聲調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육진방언도 그와 같은 변동이 예상되나 자료의 제약으로 그러한 변동 양상을 낱낱이 밝히기는 어렵다. Kazan 자료에 나타난 예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며 악센트 변동을 보이는 어간에 대해서는 그 변동 양상과 환경을 보이기로 한다.

(1) 00(低低)型

[六鎭方言]	[中世國語]
katsʰabún(가깝(近) -은, 회196,360)	갓갑-(LL, 釋譜13:5)33)
kɨburgí(구르(轉) -기, 사7)	그울-(LL, 釋譜11:18)
kɨburə́ tɛŋgígi(굴러 다니기, 사7)	
kip'un kím,i(기쁘(喜) -ㄴ, 사95)	깃브-(LL, 釋譜9:34)
kip'ə́ hagí(기뻐 하기, 사95,70)	
k'ɨsigú tɛŋgígi(끌-고 다니기,사119)	ᄭᅳᇫ스-(LL, 朴初上42)
tarɨngé(다르(異)-ㄴ것이, 사28)	다ᄅᆞ거늘(LL, 龍24)
tagabúnge(뜨겁-은, 사20)	
marɨgí(마르(乾) -기, 사78,116)	ᄆᆞᄅᆞ-(LL, 月釋2:60)
parɨgí(바르(塗) -기, 사57)	ᄇᆞᄅᆞ-(LL, 釋譜6:38)
parɨdí anin(바르(正)-지 않은, 사49)	바ᄅᆞ-(LL,圓下3之1:96)
purugí(부르(呼)-기, 사84)	브르-(LL, 法華6:37)

33) 中世國語에서 '갓갑-'는 어미 '-아', '-으' 등이 통합될 때에는 어간 모음의 聲調가 'LL', 先語末語尾 '-더-,-거-,-ᄂᆞ-' 등이 통합되면 'LR'로 실현되던 어사이다. Kazan자료에는 모음어미 앞에서의 통합형만이 나타나 그 예만을 소개하였다.

puruúnnya(부르(稱) -냐, 회215)
purugí(부르(請) -기, 사36)
puruó(부르(稱) -오, 회34)
put'irgí(붙들(捕) -기, 사86,128) 븓들-(LL, 小諺6:64)
put'ur s'ú(붙들-수, 회xviii)
simugí(심(植)-기, 사99,118) 시므-(LL, 釋譜19:33)
ak'abá(아깝(惜)-아, 사30,105) 앗갑-(LL, 釋譜6:25)
nirigí(이르(謂)-기, 사92,127,사序) 니르-(LL, 月7:77)
nirió(이르-오, 회358,359,359),
nirgə́ra(이르-거라, 회205)
nirgə́ tsuo(일러 주오(말해 주오), 회241)
nirigí(읽(讀) -기, 사92,127, 사序)
niridʒí(읽-지, 사序vii)
tyarigí(짧(短) -기, 사47) 뎌르-(LL, 杜初15:55)
tirigí(지르(打) -기, 사46) 디르-(LL, 月釋7:8)

위와 같이 중세국어의 '平平' 어간은 육진방언에서 악센트가 없는 어간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중세국어에서 대응 예가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다.

karigí(가르(分割)-기, 사30)
parigí(바르(剝), 사109)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去平' 聲調를 가졌던 '무겁-'는 아래 예에서 보는 보는 바와 같이 악센트가 없는 어간이다.

mugəpk'í(무겁-기, 사123) 므겁-(HL, 釋譜6:5)

(2) 0'0(低高)型

kadúnɨn(가두(圍)-는, 사44)	가도-(LH, 釋譜9:8)
karɛ́gi(가리(選)-기, 사15,95)	ᄀᆞᆯᄒᆡ-(LH, 小諺5:63)
kaʤígi(가지-기, 사10)	가지-(LH, 釋譜6:14)
kaʤígu(가지-고, 사43,68), kaʤé óo(가져 오오, 회102)	
katsʰúgi(갖추(備) -기, 사20)	ᄀᆞ초-(LH, 杜初7:25)
katsʰwá(갖추-어, 회95), katsʰún gət (갖춘-것, 사90)	
katsʰúnɨn(갖추-는, 사114)	
kədúgi(거두(收) -기, 사83)	거두-(LH, 月釋序24)
kotʰígi(고치(改) -기, 사56,132)	고티-(LH, 龍73)
kotʰío(고치-오, 회155), kotʰyé(고치-어, 회157)	
noŋgúgi(→나누-기, 사30)	ᄂᆞᆫ호-(LH, 月釋2:37)
kitʰígi(→남기(遺)-기, 사74)	기티-(LH, 楞1:18)
nɛrígi(내리(降)-기, 사107)	ᄂᆞ리-(LH, 月釋1:36)
nɛryéra(내리-어라, 회439), naryə́ kagi(내려 가기, 사108)	
nɛryə́ kagi(내려 가기, 사109,117)	
nɨrún hange(누르-ㄴ한, 사17)	누르-(LH, 月釋1:43)
nurúnhan(누런, 사17), nurúgi(누르-기, 사23,31)	
nurúnge(누르-ㄴ것이, 사31)	
taŋgɛ́gi(다니(引)-기, 사123,25)	ᄃᆞᆼ기-(LH, 楞5:24)
tɛŋgígi(다니(行)-기, 부64)	ᄃᆞᆫ니-(LH, 釋譜9:14)
tɛŋgígɛtta(다니-겠다, 회xiii), tɛŋgínɨn(다니-는, 사129)	
tarígi(다리(煎)-기, 사82)	다리-(LH, 救方上34)
tasɨ́rgi(다스리(治)-기, 사126)	다ᄉᆞᆯ-(LH, 金三62:6)
tatʰígi(→다치(觸)-기, 사122)	다티-(LH, 楞8:102)
targígi(달리(懸)-기, 사26)	ᄃᆞᆯ이-(LH, 月釋8:14)
tedígi(던지(投)-기, 사5,15,75)	더디-(LH, 楞4:6)
tədígi(사101)	
tɛrígi(데리(與)-기, 부66)	ᄃᆞ리-(LH, 月釋1:44)
tɛryéda(데리-어다, 회31), tɛrígu kagí(데리-고, 사101)	

  tɛryé ónəra(데리-어, 회118)

tidíygi(디디(踏)-기, 사115)　　드듸-(LH, 楞9:103)

mašígi(마시(飮)-기, 사15,79)　　마시-(LH, 杜初8:10)

  masír k'e(마실 것이, 회98,xvi)

  masír k'eraŋ(마실 것이랑, 회98,xvi)

matʃ^{h}ígi(마치-기, 사115)　　마치-(LH, 杜初8:9)

mat^{h}ígi(맡기-기, 사63)　　맛디-(LH, 釋譜9:30)

  mat^{h}ío(맡기-오, 회131)

meúgi(메우(塡)-기, 사34,10)　　메우-(LH, 法華2:140)

  meún(메우-ㄴ, 사122)

modúgi(모으(集)-기, 사108)　　모도-(LH, 楞1:16)

  modúo(모으-오, 회138), modá(모으-아, 회124)

  modírmán háo(모으-ㄹ만하오, 회140)

mušə́bun(무섭-은, 사113)　　무ᅀᅴ엽-(LHL,釋譜9:24)

  mušə́ba(무섭-어, 사4,xv)

parígi(버리(棄)-기, 사125)　　ᄇᆞ리-(LH, 釋譜13:39)

ponɛ́gi(보내-기, 사75,87,92,111)　　보내-(LH, 釋譜6:7)

put^{h}ígi(붙이(附)-기, 사89,105)　　브티-(LH, 月釋1:39)

pitʃ^{h}ʉ́ygi(비취(照)-기, 사102)　　비취-(LH, 龍101)

p'urígi(뿌리(散)-기, 사43,118)　　ᄡᅳ리-(LH, 月釋9:39)

  p'uryə́(뿌리-어, 사75,101)

samgági(삼가(謹)-기, 사73)　　삼가-(LH, 月釋21:168)

samtʃ^{h}ígi(삼키(呑)-기, 사18)　　ᄉᆞᆷᄭᅵ-(LH, 金三:51)

šidínge(시들(枯)-ㄴ것이, 사17)　　시들-(LH, 釋譜9:29)

šigígi(시키(使)-기, 사9,40,90,127)　　시기-(LH, 釋譜13:5)

  šigío(시키-오, 회95), šigígillɛ(시키-길래, 사48)

  šigínɨn(시키-는, 회129)

ədíbun(어둡(昏)-은, 사120)　　어듭-(LH, 龍30)

nyegígi(여기(做)-기, 사31,116)　　너기-(LH, 月曲13)

yəmúrgi(여믈(實)-기, 사88)	염글-(LH, 月釋2:41)
yəbíygi(여위(瘦)-기, 사130)	여위-(LH, 月釋1:26)
oráo(오래(久)-오, 회226)	오라-(LH, 龍109)
wɛúgi(외우(誦)-기, 사133)	외오-(LH, 月釋17:55)
ʧəmúrə(저믈(昏)-어, 회311)	져믈-(LH, 杜初25:7)
tikʰígi(지키(守)-기, 사112/회154)	디킈-(LH, 釋譜9:21)
ʧirgín(질기(肕)-ㄴ, 사49)	질긔-(LH, 內訓3:17)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世國語의 '平去'는 육진방언에서 '低高'로 실현된다. 다른 유형에 비해 低高型 語幹은 숫적으로 보아 압도적이어서, 체언 어간과 평행을 긋는다.

그런데 '모르-'는 자음어미 앞에서는 위 유형과 같이 악센트가 제 2 음절에 놓이지만 '-아'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 악센트는 제 2 음절 위치에서 어두 음절로 이동한다. 이 어간은 중세국어에서도 '-아'가 통합되면 '平去'에서 '上平'으로 실현되었다.

中世國語	六鎭方言
모ᄅᆞ고(LHH)	moríndа, morúge(모르(不知)-게, 사124)
몰라(RH)	móllat'a, móllašə(모르-았다, 모르-아서)

다음 예는 중세국어에서 어간 성조가 '去去'이었던 어사인데 육진방언에서는 '저고'로 실현된다. 사동접사 '-우-'가 어간을 저조화한 것이다.

k'ɛúgi(깨우-기, 사6)	ᄭᆡ오-(HH, 杜初15:26)

한편, 아래 예는 악센트 실현이 수의적인 어사이다.

tõígi(동이(→감아서 매다) -기, 사105,124), tṍigi(사17)

중세국어에서 대응 예가 발견되지 않는 다음 예들도 低高調로 실현되는 어간이다.

kərk^{h}ígi(걸키-기((→돌 따위에) 걸리-, 사110)
kop^{h}ínge(곱히-ㄴ것이(→곱한 것이), 사24)
k'iúgi(끼우(插)-기, 사116)
ik'ɨ́rgu(이끌-고, 사12)
turts^{h}úgi(들추-기, 사99), turts^{h}ə́(들추-어, 회121)
əllídi(→속이(欺)-지, 회86)
ərín(어리(幼)-ㄴ, 사29) cf. 어리고(愚)(LHH, 朴初上9a)
tsaŋʧ^{h}ígi(장치-기(물건을 차곡차곡 쌓다), 사44,106)
tswɛún(죄(搾) -ㄴ, 사122)
t'argúgi(→쫓아내다, 사18,19,91), t'argwá(사82)
hɨyndɨ́rgi(흔들-기, 사122)

(3) '00(高低)型

kə́nnegi(건네(涉)-기, 부66,사78)	건네-(RL, 杜初七:6)
nóllagi(놀라(驚)-기, 사93)	놀라-(RH, 龍61)
tə́rəbunge(더럽(醜)-은 것이, 사21,28)	더럽-(RH, 月釋1:35)
kínagi(지나(過)-기, 사64)	디나-(RH, 曲3)
kínan taré(지나-ㄴ 달(月)에, 사69)	
kə́rannɨn(걸터앉-는, 사104,115)	걸앉-(RL, 法華2:118-9)
kéšio(계시(在)-오, 회92)	겨시-(RL, 釋譜13:59)
módirgi(모질(惡,甚)-기, 사21,35)	모딜-(RL, 法華1:82)
kánɨrgi(가늘(細)-기, 사121)	ᄀᆞᄂᆞᆯ-(HH, 月釋2:40)
kánɨn(가늘-은, 사121,116)	
tɨ́rigi(들이(入)-기, 사11)	들이-(HH, 楞4:40)

tɨ́ryə nok^{h}i(들여 놓기, 사11), tɨ́ryə kagi(들여 가기, 사8)
tɨ́ryə(들여, 회ix), tɨ́rye nossuri(들여 놓을 것이오, 회126)

k'ɛ́dak'i(깨닫(覺)-기, 사90)	씨ᄃᆞᆮ-(HL, 釋譜6:20)
tsáraryari(→넉넉하게, 회397)	ᄌᆞ라-(HL, 杜初19:56)
tsárauri(넉넉할 것이오, 회68), tsáragi(넉넉하-기, 부74,사128)	
tsáragi(자라(生長)-기, 사97,128)	ᄌᆞ라-(HL, 釋譜6:43)
ə́dirgi(어질(賢)-게, 사116)	어딜-(HL, 楞8:92)
ʧók-hagi(足하기, 사128)	죡ᄒᆞ-(HL, 朴初上61)
t^hə́digi(터지(裂)-기, 사10,55)	ᄣᅥ디-(HL, 杜初16:65)
$ʧ^h$ə́ŋhagi(청하(請)-기, 사36)	쳥ᄒᆞ-(HL, 朴初上25)
húrigi(휘(曲)-기, 사63)	
pɛ́dzabun(→조밀한, 빽빽한, 사131,회12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上去, 上平, 去去, 去平'은 육진 방언의 高低型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5.2.2.3 3음절 용언 어간의 音調型

3음절 용언어간의 음조형은 체언어간에서와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 중세국어의 성조형과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1) 00'0(低低高)型

[六鎭方言]	[中世國語]
a. kɨburígi(굴리-, 사7,43)	그우리-(LLH, 釋譜6:18)
tit^{h}ɨyúgi(→디디-기, 사24)	드틔우-(LLH, 朴初上3)
put'irgígi(붙들리-기, 사8)	븓들이-(LLH, 圓下三之二33)

(1a)의 예들은 중세국어 제 3음절 위치의 去聲이 육진방언에서 高調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꼭이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 예를 보자.

b. əptarígi(업드리-기, 사100)　　업더리-(LHH, 杜初20:41)
kidurgúgi(기다리-, 사31,82)　　기돌오-(LHH, 蒙法5)
nɛriúgi(내리게 하기, 사108)　　ᄂᆞ리오-(LHH, 龍32)

(1b)의 예들은 中世國語에서의 聲調가 '平去去'였던 어사들인데 육진방언에서는 제 3음절 위치에 악센트가 놓이는 어사들이다.

한편, 다음 예들은 중세국어에서는 LH, LLH 성조를 가졌던 어사들인데 六鎭方言에서 '-이우-' 혹은 '-우-'가 어간에 접미됨으로써 저조로 실현된 예이다. 이는 육진방언에서 피사동접사들이 어간을 저조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5.4참고)

c. komtsʰɨyúdi(감추-지, 회137)　　ᄀᆞ초-(LH, 杜初7:25)
mudɨywə́sso(무디-게 하였소, 사70)　　무듸-(LH, 月釋13:38)
kartʃʰiúgi(회부65, 회17,83)　　ᄀᆞᄅᆞ치-(LLH, 月釋9:33)

이 외에 제 3음절에 악센트가 놓이는 어사는 'humtʃʰirígi'(→매만지다, 쓰다듬다, 사82) 등이 있다.

(2) 0'00(LHL)型
a. kubúrigi(구부리-기, 사63)　　굽브리-(LHL, 法華2:152)
k'ək'ə́digi(꺾어지-기, 사106)　　것거디-(LHL, 杜初15:8)
nəmə́digi(넘어지-기, 사76)　　넘어디-(LHL, 小諺6:114)
t'ərə́digi(떨어지-기, 사2,76,88)　　ᄠᅥ러디-(LHL, 杜初8:65)
podúrabun(보드랍-은, 사62)　　보ᄃᆞᄅᆞᄫᆞᆫ(LHL, 月釋21:140)
tʃap'ádigi(자빠지-기, 사126)　　잣바디-(LHL, 楞5:32)

(2a)는 중세국어의 성조와 육진방언의 악센트 실현이 규칙적으로 대응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2b)는 중세국어의 '平去去' 성조가 육진방언에서는 '저고저'로 실현되는 예이다.

b. tudúrin(두드리-ㄴ, 회58)　두드리-(LHH, 楞7:18)
tudúrigi(두드리-기, 부74,사115),
tudúridi(두드리-지, 사32)

(3) '000(高低低)型
tsóšimhagi(조심하-기, 사73)　조심ᄒᆞ-(RLL, 釋譜9:37)
p'áburigi(→빠뜨리-기, 사121,126)
págihagi(→뾰족하게 하기, 사63)

(4) 000(低低低)型
tsumurugí(주므르-기, 사62,10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用言 3음절 어간에는 네가지 音調型이 있다. 이들 역시 중세국어의 성조와 그 대응이 규칙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잔 자료가 보여주는 육진방언 활용어간의 음조형을 음절수에 따라 파악하고 이들 어간의 악센트가 어떠한 환경에서 변동되는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어간의 악센트와 중세국어의 성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육진방언의 악센트 실현은 중세국어의 성조와 그 대응에 있어서 규칙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센트의 변동은 單音節 어간에서 제 4유형에 드는 어간들이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음절 어간에서의 불규칙한 악센트 변동은 특정 어간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六鎭方言의 악센트 및 그 변동은 중세국어의 聲調論에서 볼 수 있는 양상과 동일한 것이다.

5.3 派生語 形成과 악센트

파생어 형성은 그것이 공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宋喆儀,1990:2) 따라

서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보여지는 악센트의 변동 문제도 그것이 共時的인 移動規則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시적인 현상인지 구명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단순히 어기와 접사의 통합에서 보여지는 악센트 변동의 양상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Kazan 자료에는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악센트 변동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므로 주어진 자료의 범위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

파생어에서의 악센트는 語基가 어떠한 성격의 악센트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動詞派生語가 그러하다. 반면에 一群의 接辭들은 語幹의 高調를 低調化하고 자신은 高調로 실현된다.

5.3.1 使被動 接辭와 악센트 變動

사피동 접사 '-이-,-히-,-기-,-구-'는 有標識 형태소이다. 따라서 無標識 語幹에 이들 접사가 통합되면 이들 형태소는 高調로 실현된다. 그런데 유표지 어간에 이들 접사가 통합되면 [音調調整規則]에 의하여 응당 先行 語幹이 高調로 실현되고 자신은 低調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어간은 저조로 실현되고 그 자신은 언제나 고조로 실현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語 幹]	[派生語]
árgi(알(知)-기, 사38,126)	argúgi(알리-기, 사71)
sárgi(살(生)-기, 사3,32)	sargúgi(살리-기, 사96,110)
ərgi(얼(氷)-기, 사58)	ərgúgi(얼리-기, 사34,115)
torá(돌(回)-아, 사9,54)	torgwá(돌리-어, 사73)
turə́(둘(廻)-어, 회383)	turgúgi(두르-기, 사9)
márgu(말(勿)-고, 사49)	margígi(말리-기, 사126)
šíngu(신(履)-고, 사68)	šingígi(신기-기, 사45,117)
nípki(입(被)-기, 사63,65)	nip^{h}ígi(입히-기, 사64)

pək'í(벗(脫)-기, 사96)	pek'ígi(벗기-기, 사109,75,134)
tʰági(타(燒)-기, 사20)	tʰɛúgi(태우-기, 사31,104)
tʰágu(타(乘)-고, 회371)	tʰɛwána(태우-아, 사43)
ank'í(앉(座)-기, 사64,118)	antʃʰígi(앉히-기, 사87)
kɨburgí(구르(轉)-기, 사7)	kɨburígi(굴리-기, 사7,105)
tsúygi(쥐(握)-기, 사24)	tsuyúgi(쥐이(被握)-기, 사24)
pagá(박(針)-아, 사89)	pɛgín(박히-기, 사7)
tɨk'í(듣(聽)-기, 사17)	tɨk'ígi(들리-기, 사126)
tsuk'í(죽(死)-기, 사86)	tsugígi(죽이-기, 사34)
yə́rgi(열(開)-기, 사96)	yərgígi(열리-기, 사75)

위와 같이 派生語의 악센트는, 語基를 이루는 用言 語幹이 어떠한 종류의 악센트 實現 類型(第一類~第五類)이냐에 관계없이 언제나 使被動 接辭에 놓인다. 이는 名詞 어간에 處格 與格 奪格語尾가 통합될 때 어간이 低調로 실현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語基에 使被動 接辭가 연결될 때에 어간이 저조화하는 것은 必須的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1차 파생에 이어 다시 파생접사가 접미된 경우에, 악센트는 최종 접사 쪽에 놓인다. (2)를 보기로 한다.

(2) put'irgí(붙들-,사86) → put'irgígi(붙들+'기-, 사86)
→ put'urgiún(붙들+기+'우-ㄴ, 회417)
k'argiwə́ssumni(갈+기+우+었-, 갈리었읍니다, 회74)
pɛúmni(보+이+우-읍니, 보입니다, 회402, 사11,84)

그러나 아래 (3)과 같이 多音節 語幹으로서 악센트가 語頭 音節에 놓이는 用言 語幹에 使被動 接辭가 연결되면 악센트는 접사 쪽에 놓이지 않는다.

(3) tsáragi(자라-(長,足), 사97,128) → tsárɛugi(育, 사16)
nóllagi(놀라-(驚), 사93) → nóllɛugi(使驚, 사93)
kánnegi(건너-(涉), 부66) → kə́nneugi(使涉, 회23)

이는 악센트가 놓이는 語幹의 音節 母音과 接辭가 連接될 경우에만 어간이 저조화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역시 名詞 어간에 處格語尾가 통합되었을 때와 동일하다.

피사동의 접미사가 이렇게 어간을 저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어사와 결합될 때에 접사는 고조로 실현되지 않는다. (4)가 그 예이다. (4a)는 否定語 '-디 아니오'와 통합되어 하나의 발화단위를 형성하게 되면 악센트가 '아니'로 변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b)는 '-ㄹ만하-'와 통합되었을 때 악센트가 '-ㄹ만하다'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4) a. tepʰiúgi(덮히다, 회부65)→ tepʰiudyɛnyésso(덮히지 않았소, 회18)
cf. tepʰiwə́ssumni(덮히었읍니다, 회19)
b. megirmán háamni(먹일만 합니다.,회74), megirmán háo?(회73)
cf. ʧə́guna <u>megíuri</u>(근근히 먹일 것입니다, 회75)
ó-bɛk pʰirí <u>megíndɛdu</u> múri tsárauri(五百匹-을 먹인다 하여도 물이 넉넉할 것입니다, 회72)

5.3.2 副詞派生과 악센트 變動

動詞 語幹에 부사파생 접미사가 통합되어 부사화한 어사들의 악센트 실현을 보기로 한다.

(4) kot-(곧(直)-) kodí tik'i(곧-이 듣-기, 사7)
nopʰugí(높(高)-, 사16) nopʰí(높-이, 사16,21)
katsʰap-(가찹(近)-, 회196,360) katsʰɛbí(가까-이, 사2)

(4)는 악센트가 없는 어간에 파생접사 '-이'가 접미되었을 때, 악센트가 파생접사 '-이'에 놓인 예들이다. 이는 부사파생 접사 '-이'가 有標識 形態素임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이 고조 어간에 부사파생의 접사 '-이'가 접미되면 어간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우와 어간은 저조로 실현되고 어미만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뉜다. (5a)가 전자의 경우이고, (5b)가 후자에 해당된다.

(5) a. ə́pso(없(無)-소, 회12,294) → ə́pši(없-이, 사65)
    mántʰa(많(多)-다, 사4) → máni(많-이, 회302)
    óri(옳-이, 회292)
  b. mə́o(멀(遠)-, 회33) → məllí(<멀리, 사23)

위 예는 (5a)의 어간과 (5b)의 어간이 파생어를 형성할 때, 악센트 실현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a)의 '없-, 많-'는 고정적으로 고조를 보이는 어사들이다.(중세국어 성조론에서 固定的 上聲 어간으로 불리는 존재들로서 육진방언에서는 제 2류에 속하는 語幹) 그리고 (5b)의 어간은 高調를 갖되 그 高調로의 實現은 可變的이다.(中世國語에서 可變的 上聲 어간으로 六鎭方言의 제 5류에 속한 語幹) 이처럼 활용에서의 악센트 변동과 부사 파생에서의 악센트 변동은 변동의 기제가 일치한다.

5.3.3 名詞派生과 악센트 變動

用言 語幹에 名詞派生 接辭 '-음'이 접미될 때에도 어간에 따라 악센트의 실현이 다르다.

(6) a. šə́rbun(섧-은, 사21,105)   šə́rum,i(설움-이, 사19)
  b. ə́lgi(얼(氷)-기, 사58)   ərɨ́ymi(얼음-이, 회x,사52)
    úk'i(웃(笑)-기, 사35,108)   usúm,i(웃음-이, 사108)

kə́k'i(걷(步)-기, 사134)	kəríymi(걸음-이, 회x)
c. nórgi(놀(遊)-기, 사39)	
norom,í(노름-이, 사39),	noromú(노름-이, 사39)
d. s'aú-(싸우(鬪)-)	s'aúm,i(싸움-이, 사3)
puk'írəbašə(부끄럽-어서)	puk'úrəm,i(부끄럼-이, 사115)

(6a-b)의 파생에서의 악센트 실현은 앞서 (5)의 예와 동일하다. 즉 (6a)는 固定的으로 高調를 보이는 語幹이고, (6b)는 可變的인 高調 語幹이다. 이들 語幹에 派生接辭 '-음'이 통합된 것인데 (6a)는 악센트가 語基에 고정되어 있지만 (6b)는 접사쪽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6c)의 'norom'은 가변적 고조 어간인 'nór-gi'(놀-기)에서 파생된 명사이지만 (6b)와는 달리 악센트가 접사에 놓이지 않는 특이한 존재이다. 2음절 이상의 용언 어간에 파생접사 '-음'이 통합되면 접사가 고조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6d)는 보여주고 있다.34)

한편, 용언 어간에 파생접사 '-의, -위, -애'가 통합되어 파생된 명사들의 악센트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7) a. nəbún(넙(廣)-은 ,사135)	nəbíyrɨ(너비-를, 사17)
tipʰ-(짚(杖)-)	tipʰé(지팡이, 사122,77)
mak'í(防)-기,사90)	magέ(마개, 사16,194)
b. ʧʰípkillɛ(춥-기에,사23)	ʧʰíbɨy(추위, 사60,124)
c. tə́p(덥(暑)-)	təbíy(더위, 사viii)
tʰárgi(→감-(繞),사105)	tʰarέ((실)타래, 사35)
d. nargí(날(飛)-,사53)	nárgɛ(날개, 사,39,49)

(7)의 예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用言 語幹의 악센트 類型에 따라 파생명사의 악센트 실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語基가

---

34) 動名詞形으로 판단되는 'totʰum,í'(다듬, 사111), 'arim,í'(앓음,사4), 'apʰum,í' (아픔, 사4)는 語基의 악센트 유무에 관계없이 악센트를 갖지 않는다.

가변적인 고조 어간일 때에는 악센트가 접사쪽에서 실현되고, 고정적인 고조 어간인 경우에는 악센트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저조 어간인 경우에는 악센트는 접사에 놓인다. (7)에서의 파생접사는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접사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시적인 악센트 변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편,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통합되어 파생된 명사들의 악센트 실현은 아래 예 (8)과 같다.

(8) a. mak'í(막(防)-기, 사90) mɛgí(막이(防), 사36,회155)
mək'í(먹(食)-기, 사79) ʧənmegí(젖먹이, 사58)
tsapkí(잡(捕)-기, 사54) kogitsɛbík'uni(고기잡이꾼, 사98)
b. kúpki(굽(炙)-기, 사79) kubí(구이, 사3)
kárgi(갈(耕)-기, 사77) pakkarík'uni(밭갈이꾼, 사73)
mórgi(몰(驅)-기, 표32) mar morí-k'uni(말몰이꾼, 사51,68)
morá káo(몰-아 가오, 회289)

(8)의 예도 앞서의 (4-7) 파생어에서의 악센트 변동과 동일하다. (8a)는 악센트가 없는 어간(第 一類)에 명사파생 접미사 '-이'가 통합된 예인데, 악센트가 접미사에 놓였으므로 '-이'는 악센트를 가진 접미사이다. (8b)는 가변적 고조 어간이므로 악센트는 접미사 '-이'에 놓인다.

5.4 漢字語의 악센트

本節에서는 漢字語의 악센트와 그 變動을 논의한다. 그리고 中世國語 단계의 漢字音 聲調와 이 방언의 악센트가 어떻게 對應되는가를 살피고 그 변화를 기술하기로 한다.

六鎭方言 漢字의 악센트가 中世國語 漢字의 聲調와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세국어의 漢字音 및 그 聲調를 反影하고 있는 訓蒙字會, 六祖法寶壇經諺解, 施食勸供 所收의 漢字 聲調와 六鎭方

言의 그것을 比較할 것이다. 또 규칙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들이 예외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中國語의 聲調를 참고하기로 한다. 현대 중국 한자음 성조를 中古 한자음의 성조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 두고 필요한 경우 언급하기로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지시하는 현대 중국어 성조는 다음과 같다.[35]

1 → 陰平(1聲), 2 → 陽平(2聲), 3 → 上聲(3聲), 4→ 去聲(4聲)

그리고 中古音 漢字 聲調는 去聲은 '去'로, 上聲은 '上', 平聲은 '平', 入聲은 '入'으로 표시하고 현대 중국 한자의 성조 앞에 두었다. 중세국어 단계의 한자 성조 및 그 한자들로 구성된 한자어의 성조가 육진방언에서는 어떻게 반사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5.4.1 單音節 漢字語

육진방언 단음절 漢字語는 악센트를 갖는 有徵標 어간과 악센트가 없는 無徵標 어간으로 분류된다. 이들 한자어의 악센트와 중세국어의 聲調를 비교하여 그 對應 關係를 보기로 한다. 비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악센트가 표지가 있는 어간의 음절을 'H'로, 악센트가 표지가 없는 음절을 'L'로 표시한다. 그리고 중세국어 성조는 '上聲'을 'R', 去聲을 'H', 平聲을 'L'로 표시하기로 한다.

---

35) 中國 中古 漢字音의 聲調는 다음 사전을 참고하였다.

漢字古今音彙(*A Pronouncing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in Archaic & ancient Chinese, Mandarin & Cantonese*), 周法高 外3人 編, 홍콩:中文大學出版社, 1979.

現代 中國 漢字音의 聲調는 다음 사전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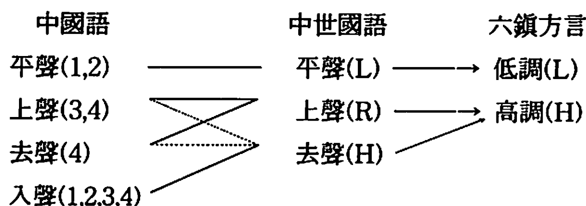
現代漢語詞典(修訂本),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1978.

韓國 漢字音의 聲調는 訓蒙字會(東中本 및 叡山本, 단국대 東洋學研究所 影印本)를 참고하였고, 訓蒙字會에 없는 한자 성조는 六祖法寶壇經諺解, 施食勸供(明知大 影印本)을 참고하였다.

[中世國語 聲調]	[六鎭方言 한자어 및 音調]		[中國語]
三(L, 訓下14b)	L	sam(회42)	平 1
千(L, 訓下14b)	L	ʧʰel-lí(千里, 회42)	平 1
兄(L, 訓上16b)	L	hyə̃í(사5)/šə̃í(형-이, 회164,부63)	平 1
魂(L, 訓中17a)	L	hon,í(혼-이, 사29)	平 2
羊(L, 訓上10a)	L	yaŋdə́ri(양-들-이,회51)/yɛ̃í(양-이,부73)	平 2
功(L, 訓下13b)	L	kõí(공-이, 회xvi)	平 1
金(L, 訓中15a)	L	kim,í(금-이, 사38)/kimí(금-이, 표36)	平 1
斤(L, 訓下14b)	L	kiní(근-이, 표31)	平 1
門(L, 訓中7b)	L	muní(문-이, 사24)/munú(문-울, 사34)	平 2
鳶(L, 訓上9b)	L	nyən,í(연-이, 사38)	平 1
房(L, 訓中3a)	L	pãí(방-이, 사19)	平 2
山(L, 訓上2a)	L	saní(산-이, 회35,사19,117)	平 1
雙(L, 訓下14b)	L	s'ãí(쌍-이, 사177)	平 1
燈(L, 訓中8a)	L	tĩí(둥-이, 사55)	平 1
槍(L, 訓中14a)	L	tsʰaŋdəriraŋ(창-들-이랑, 회124) tsʰãí(창-이, 표19)	平 1
前(L, 訓下15a)	L	ʧəné(전-에, 사60)	平 2
茶(L, 訓中əa)	L	ʧʰarɨ́(차-를, 회258)	平 2
銀(L, 訓中15a)	L	iní(은-이, 사103, 회xii)	平 2
王(L, 訓中1a)	L	wãí(왕-이, 사130)	平 2
中(L, 訓下15a)	L	tyũí(중-이, 사19,109)	平 1
城(L, 六祖64)	L	šə̃í(성-이, 사19)	平 2
一(H, 訓下14b)	H	ír(일, 회42)	入 1
六(H, 訓下14b)	H	nyúk(육, 회42)	入 4
八(H, 訓下14b)	H	pʰár(팔, 회42)	入 1
藥(H, 訓上4a)	H	yɛ́gi(약-이, 회xii), yági(약-이, 사66)	入 4
冠(H, 訓中11a)	H	kwán,i(관-이, 사16)	去 4
幕(H, 訓中7b)	H	mɛ́gi(막-이, 사134)	入 4
脈(H, 訓中14b)	H	mɛ́gi(맥-이, 사106,160)	入 4

百(H, 訓中14b)	H	pέgi(백-이, 사112), pέŋ-ni(百-里, 회42)	入 3
法(H, 訓上18b)	H	pə́bi(법-이, 사17)	入 3
色(H, 六祖1:44a)	H	sέ́gi(색-이, 사3)	入 4
鐵(H, 訓中15b)	H	tʰyə́rɨ(철-을, 회11, 사45)	入 3
冊(H, 訓上18a)	H	tsʰέ́gi(책-이, 사45)	入 4
邑(H, 訓中4b)	H	ɨ́bi(읍-이, 사19, 회序)	入 4
二(R, 訓下14b)	H	í šip(二十, 회42)	去 4
四(R, 訓下14b)	H	sá(四, 회42)	去 4
五(R, 訓下14b)	H	ó(五, 회42)	上 3
七(R, 訓下14b)	H	tʃʰír(七, 회42)	入 1
九(R, 訓下14b)	H	kú(九, 회42)	上 3
十(R, 訓下14b)	H	ším-ni(十里, 회42)	入 2
萬(R, 訓下14b)	H	mál-li(萬里, 회42)	去 4
戶(R, 訓中3b)	H	hóio(戶-이오, 회41)	上 4
潰(R, 訓中6a)	H	kwét-tuullɨ(궤 뒤-로, 사40)	去 4
兩(R 訓下14b)	H	nyáŋ-tʃʰen(二千, 회42)	上 3
病(R, 訓中16a)	H	pyẽ́i(병-이, 회xvi,사4)	去 4
亂(R, 勸供14b)	H	nán,i(난-이, 사12)/náni(난-이, 표40)	去 4
秤(R, 訓6b)	H	tsʰɨ̃́i(칭(저)울-이, 사17)	去 4
後(R, 訓下15a)	H	húe(후-에, 회313), húwe(후-에, 사87)	上 4
姓(R, 訓上17a)	H	šə̃́,i(성-이, 부63)	去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 중세국어 및 육진방언의 한자음 성조는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중세국어의 '去聲'과 '上聲'은 육진방언의 有標識의 高調 語幹에, '平聲'은 無標識의 低調 語幹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이는 이미 앞 장에서 본 고유어의 성조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平聲이 高調로 실현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존재들이 있다.[36]

江(L, 訓上2b)	H	kã́i(강-이, 사72,75), kã́ɨnɨ(강-은, 사1)	平 1
村(L, 訓中5a)	H	ts^{h}óni(촌-이, 사25,부63)	平 1
		ts^{h}ónɨnɨ(촌-은, 사1)	
銃(L, 訓中14a)	H	tʃ^{h}ṍi(총-이, 사98), tʃ^{h}ṍo(총-을, 사114)	去 4
棺(L, 訓中35b)	H	kwán,i(관-이, 사21)	平 1

반대로 다음 예들은 中世國語의 去聲이 低調로 실현되는 예이다.

宅(H, 訓中4b)	L	tɛgí(댁-이, 회177), tɛgío(댁-이오,회179)	入2
匹(H, 訓中17b)	L	p^{h}irí(필-이, 부75, 표13)	入3

이들 예외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세국어 한자음 성조가 방언에 규칙적으로 반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5.4.2 2음절 漢字語

2음절 漢字語의 음조는 원칙적으로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한자의 악센트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결합될 때의 악센트 실현을 유형화하여야 할 것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개별 한자의 학센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세국어 한자음의 성조를 참고하기로 한다.

5.4.2.1 중세국어 '平平聲' 한자어와 육진방언의 악센트

36) *Razvedchiku*에도 이들 漢字는 高調로 반사되어 있다. 예), káŋmul(江물, 정55), ts^{h}óntyaŋ(村長, 정57), nasa-tʃ^{h}óŋ(나사총, 정44)

[中世國語] [六鎭方言]

漢字語	聲調	악센트	六鎭方言의 例
中間	LL	LL	tyuŋ kan,í(중간-이, 사103)
窓門	LL	LL	tsʰaŋmun,í(창문-이, 사72)
羊人	LL	LL	yɛ̃ində́ri(양인-들-이, 회417-8)
醫員	LL	LL	ɨywən,í(의원-이, 사56), cf. ɨywə́ni(회xi)
江南	LL	LL	kaŋnaméšə(강남-에서, 사54)
金哥	LL	LL	kimgaó(김가-이오, 회2)
公論	LL	LL	koŋnuní(공론-이, 회xvi)
官兵	LL	LL	kwanpyə̃í(관병-이, 사109)
官文	LL	LL	kwanmunúru(官文-으로,사27)
嘗年	LL	LL	šaŋnyəní(상년(→지난 해)-이, 표39)
			šaŋnyənbogú(상년-보다, 회240)
			šaŋnyəné(상년-에, 회237-8)
生辰	LL	LL	sɛŋʤinɨ́(생신-을,사41)
生存	LL	LL	sɛŋʤəní(생존-이, 표25)
書房	LL	LL	šəbaŋ, šəbɛ̃(서방, 사31)
			šəbɑ̃́ kagí, tyáŋgarɨ kagí(서방/장가-를, 사31)
城中	LL	LL	šəŋtyuŋí(성중(→시내, 읍내)-이, 사19,97)
精神	LL	LL	ʧəŋšiní(정신-이, 사12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平聲'의 한자어는 육진방언에서 低低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음 예들은 위와는 달리 低高로 실현된다.

(가) 語幹末 母音에 '-이'가 통합된 例.

眞珠	LL	LH	ʧinʤǘ(진주-이, 회ix,사6)
親知	LL	LH	ʧʰindí(친지, 사28)
豌豆	LL	LH	wəndíy(완두-이, 사20,회x)
功勞	LL	LH	koŋnúy(공로-이, 사58)

軍兵	LL	LH	kunpyẽ̂(군병-이, 회398-9, 405-6)
阿膠	LL	LH	ɛgí(아교-이, 회viii), ɛgyű(아교-이, 사44)
皇城	LL	LH	hwaŋ-šẽ̂(황성-이, 사60,100)
環刀	LL	LH	hwan-dɨ́y(환도-이, 사99, 회xi)
圖書	LL	LH	tošé(도서-이, 사79)

(나) 休止 앞에서 高調로 실현된 例.

工夫	LL	LH	koŋbú šigígi(공부 시키기, 사127)
			koŋbú hará(공부-하러, 사1)
沙糖	LL	LH	sat^h ã́(사탕-을, 회259)
新聞	LL	LH	šinmún ə́pši(신문 없이, 사v)
書堂	LL	LH	šədáŋ paŋ án,i(서당 방 안,사5)
			šədáŋ hún-dyaŋ(서당 선생, 사127)
			šədáŋ, šədɛ̃́(서당/서당-이, 사135)
			šədɛ̃́(서당-이, 회viii)

이렇게 '平平聲'의 한자어가 低高로 실현되는 것은 첫째, (가)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표지의 '-이'가 어간에 통합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語幹末의 低調와 語尾의 高調가 竝置된 다음, 그것이 高調로 실현된 것이다. 둘째, (나)의 예들은 고유어의 악센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無標識 어간은 휴지 앞에서 末音節 모음이 高調로 실현되다.'고 한 語末高調化 規則에 의한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외도 발견된다.

狂風	LL	HL	$kwáŋ\text{-}p^huŋ$,i(광풍-이, 사6)
虛空	LL	LH	həgóŋ, həgóŋi(허공-이, 사92)

5.4.2.2 중세국어의 '平去聲' 한자어와 육진방언의 악센트

緋緞	LH	LH	pidán,i(비단-이, 사134)[37]

軍器	LH	LH	kun-kɨ́y(군기, 정51)
軍隊	LH	LH	kun-tɛ́(군대, 정52)
軍幕	LH	LH	kun-mák(군막, 정49)
奔走	LH	LH	pundzú=an(소란한, 회130, 사21,135)
風角	LH	LH	p^huŋgɛ́gi(풍각-이, 사61)
平地	LH	LH	p^hyəŋ-dí(평지, 사112)
朱錫	LH	LH	tyušókkwa(주석-과, 사99)
頭足	LH	LH	tuʤók, tuʤógi(→짐승의 머리, 사19)
他國	LH	LH	t^ha-gúk(사67)
天地	LH	LH	t^hyən-dí(사102)
天主	LH	LH	t^hyən-ʤú, t^hyənʤugé(천주, 천주-에게,사xiii,4)
男便	LH	LH	namp^hyə́ni(남편-이, 사61, 회198, 표26)[38]
東便	LH	LH	toŋ-p^hyə́n(동편, 정44)
西便	LH	LH	syə-p^hyə́n(서편, 정46)
南便	LH	LH	nam-p^hyə́n(남편, 정46)
明日	LH	LH	myə̃ír,i(명일-이, 사33)
盟誓	LH	LH	mɛŋ-šé(맹세, 사45)[39]
無脫	LH	LH	mu-t^hár,i(무탈-이, 사37)
甘酒	LH	LH	kamʤí(감주, 사44, 회xiii)
宮闕	LH	LH	kuŋ-gə́r,i(궁궐-이, 사25,129)
獅子	LH	LH	sadzɨ́y(사자-이, 사52)
孫女	LH	LH	soň-ňé(손녀-이, 사12)
孫子	LH	LH	son-dzɛ́(손자-이, 사12)
神父	LH	LH	šin-bú(신부, 사87)

37) 이 한자어의 성조는 訓蒙字會(中30b)에 '비·단 :단 段'으로 나타나 釋과 音의 聲調가 달리 나타난다.

38) '便'은 訓蒙字會에, '便 오·좀편 俗稱小--又安也又去聲宜也卽也'라 되어 있는데, 육진방언에서도 '便安'은 'p^hyənáni'(사37)에서 보듯 '低調'로 실현된다.

39) '誓'는 訓蒙字會(叡山本 下14b, 東中本 下32b)에 '밍·셧 :셰'로 나와 있어 釋과 音의 聲調가 다르다. 그런데 六祖와 施食에는 去聲으로 표시되어 있다.

身體	LH	LH	šin-tʰyé(신체, 사123)
消息	LH	LH	šošígi(소식-이, 사17)
降伏	LH	LH	haŋbók háo(항복, 회428-9)
行實	LH	LH	hɛŋ-šíri(행실-이, 사67)

이와 같이 중세국어의 '平去聲' 한자어는 육진방언에서 低高調로 실현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발견된다.

糧食	LH	LL	yaŋ-šigí(양식-이, 사79, 회397)
洋國	LH	HL	yáŋ-guk(→러시아, 사97)
空氣	LH	HL	kóŋ-gɨ́y(사viii)
辭說	LH	HL	sášərina(사설-이나, 회130,사60)

5.4.2.3 중세국어의 '平上聲' 漢字語

(가)

無病	LR	LH	mu-byə̃́i(무병-이, 사37)
三寸	LR	LH	sam-tsʰóni(삼촌-이, 사30), sam-tsʰúni(회170)
折半	LR	LH	ʧər-báni(절반-이, 사85)

(나)

人事	LR	LH	kogɛ́rɨ sugímyəŋ in-sá hagí(인사 하기,사44)
官事	LR	LH	kwansá pogí, kwansɛ́(관사 보기,관사-이,사107)
婚事	LR	LH	hon-sé(혼사-이, 사101)
皇帝	LR	LH	hwaŋ-ʤé(황제, 사130)

(다)

朝鮮	LR	LL	tyo-šəní(조선-이, 사47)
防備	LR	LL	paŋ-birɨ́(방비-를, 사36)
公事	LR	LL	koŋ-sa, koŋ-sarɨ́ hagí(공사, 공사-를, 사115)

'平上'의 漢字語는 (가, 나)와 같이 低高로 실현되는 어사들이 있고

예외적으로 (다)와 같이 低低로 실현되는 어간이 있다. (나)는 低高로 실현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休止 앞에서 어간말 모음이 高調로 실현된 것인지 또는 '-이'와의 통합과정에서 高調化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른 유형에 비해 예외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5.4.2.4 중세국어의 '去平聲' 한자어

(가)

父親	HL	HL	pútʃʰin,i(사75), pú-tʃʰini(부친-이, 회161)
父兄	HL	HL	pú-hyẽ̆(부형-이, 사xiv)
不時	HL	HL	púrš'erɨ(→갑자기, 사8,10,116, 회xv)
主人	HL	HL	tʃú-en,i(사129), tʃwéni(주인-이, 회91,92)40)
政丞	HL	HL	tʃə́ŋ-siŋ, tʃə́ŋ-sɨ̃y(정승, 정승-이, 사59)41)
曆書	HL	HL	yə́k-šeo(曆書(→달력)-이오, 사131)
慾心	HL	HL	yókšimi(욕심-이, 사30,84,113)
苦生	HL	HL	kósã(고생-을, 회198)
鐵丸	HL	HL	tʰyə́rani(회387), tʰyə́ran,i(철환(→탄환), 사93)
失魂	HL	HL	šír-hon,i(실혼-이, 사70)
守番	HL	HL	šú-bənɨ(수번-을, 회403)
水軍	HL	HL	šú-gundəri(수군-들-이, 사10)
水銀	HL	HL	šúun,i(수은-이, 사98)
十名	HL	HL	ším-mye(십명-이, 표23)

(나)

曲調	HL	LH	koktyó(곡조, 사94)
乞人	HL	LH	kər-ín,i(걸인-이, 사67)
牧人	HL	LH	mog-ín,i(목인-이, 사77)

40) '乞人, 牧人'과는 다르게 '主人'에서의 '人'의 音은 [en]이다.

41) '政'의 聲調는 訓蒙字會의 異本에 따라 다르다. 叡山本(下13b)에는 平聲이지만 東中本(下31b)에는 去聲이다. 六鎭方言은 東中本의 그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異本에 따라 성조가 다른 또다른 예로서 '丈'이 있는데 육진방언에서의 이 한자의 성조도 東中本의 그것과 일치한다.

手巾	HL	LL	šugən,í(수건-이, 사80)
學徒	HL	LL	hak-todə́r kwa (학도-들-과, 사117)

'去平聲'의 漢字語는 위 (가)와 같이 '高低'로 실현되지만 (나)의 예처럼 '低高' 혹은 '低低'로 실현되는 예도 발견된다.

'低低'로 실현된 '手巾'의 聲調는 訓蒙字會(東中本)에, :슈·긧 건(巾, 中22b)(叡山本은, :슈·긼 건(中11a))으로 나와 釋의 성조와 音의 성조가 다르다.[42] 이와 같이 釋과 音의 성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手'와 '巾'이 결합되어 하나의 한자어를 구성할 때 어떤 규칙에 의거 독특한 성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5.4.2.5 중세국어 '去去聲' 한자어

本板	HH	HL	pón-p^{h}an(→본디, 사100)
土酒	HH	HL	t^{h}ó-ʤüna(토주-이나, 회100)
子息	HH	HL	tsášiktərio(자식-들-이오, 회180)
裁判	HH	HL	tsɛ́-p^{h}an,i(재판-이, 사115)
祖父	HH	HL	tsó-bu(조부, 사29,xiii)
女從	HH	HL	nyə́-ʤoŋ, nyə́-ʤöi(여종, 여종-이, 사95)
鐵筆	HH	HL	ʧ^{h}ə́rp^{h}ir,i(철필(→펜)-이, 사78)
女便	HH	HL	nyép^{h}yen,i(여편-이, 사31)
日氣	HH	HL	ír-gɨy(일기, 사82)
日本	HH	HL	ír-bun,i(사138), ír-buni(일본-이, 표38)
			ír-bun t'ái(일본 땅-이, 회xvii)
木筆	HH	HL	mók-p^{h}iri(목필-이(→鉛筆), 사87)
木手	HH	HL	mók-šʉy(목수-이, 사41,70)
沒殺	HH	HL	mórsɛri(몰살-을, 사40)
丈夫	HH	HL	(kasɛɛbi), tyáŋ-bu(장부(→丈人), 사120)

42) 例에서 '手巾'의 聲調를 'HL'이라 한 것은 개별 한자의 성조를 고려한 것이다. 이 어사는 현대 중부방언에서 첫음절이 音長을 갖는다.

失力	HH	HL	šiʎ-ʎəgi(실력-이, 사70)
許諾	HH	HL	hárak hagi(허락하기, 사84)

'去去聲' 한자어는 거의 규칙적으로 '高低'로 실현되지만, 다음 한자어는 예외를 보인다.

肉食	HH	LL	nyuk-šigɨ́(육식-을, 사96)
沐浴	HH	LH	moyók han taime(목욕한 다음에, 사87)
石板	HH	LH	šəkpʰán,i(석판-이, 사68)

5.4.2.6 중세국어 '去上聲' 한자어

百姓	HR	HL	pέk-šəŋ, pέk-šẽ(백성, 백성-이, 사64)
父母	HR	HL	pú-mo(부모, 사95)
佛道	HR	HL	púr-torɨ nirigí(→祈禱 하기, 사133)
地稅	HR	HL	tíše(사23)
鐵路	HR	HL	tʃʰə́l-lo(사v)
丈母	HR	HL	tyáŋ-mo(사120)
食口	HR	HL	šík'uy(식구-이, 사103)

'去上聲' 한자어는 대부분 '高低'로 실현되나 역시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견된다.

地境	HR	LH	tigyə́ŋ, tigyẽ́(지경, 지경-이, 사20)
實果	HR	LH	širgwέ(실과-이, 사80)
學校	HR	LH	hak'yó(사72)

例에서 '學校'의 '學'은 訓蒙字會(비·홀 ·혹(東中本,下31a))에 '去聲'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육진방언에서는 低調로 실현되었다. 우리는 앞서 '學徒'에서도 '學'이 低調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어, 육진방언에

서의 이 한자는 低調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實果'도 역시 '학교'와 동일한 패턴임이 주목된다.

5.4.2.7 중세국어의 '上去聲' 한자어

故鄕	RL	HL	kóyaŋ(사67), kóyɛ̃(표27), kőyɛ(고향, 회222)
大門	RL	HL	tɛ́-muni(대문-이, 회序, 표19, 사13)
大臣	RL	HL	tɛ́-šin,i(대신, 사59)
操心	RL	HL	tsóšim hɛ́ɛra(조심해라, 회86)
			tsóšim hagí(사73)
兩班	RL	HL	nyáŋban,i(양반-이, 사2)
			nyáŋbandəri(양반들-이, 표x)
老人	RL	HL	nó-in,i(노인-이, 사112)
母親	RL	HL	mó-ʧʰin,i(모친-이, 사57)
			mó-ʧʰin-nim(모친님, 회166)
問安	RL	HL	mún-an hagí(문안하기, 사91)
所聞	RL	HL	sómun,i(소문-이, 사17)
是非	RL	HL	híbina(시비-이나, 사99)
戶錢	RL	HL	hóʤən,i(호전(→세금)-이, 사82)
訓長	RL	HL	hún-dyaŋ, hún-dyɛ̃(훈장, 훈장-이, 사127)

대부분 '高低'로 對應되지만 역시 다음과 같은 例外가 존재한다.

釜山	RL	LL	pu-sané(부산-에, 회190)
點心	RL	LL	ʧəmšimú(점심-을, 회95)
妹夫	RL	LH	mɛbɨ́y(매부-이, 사39)
舍廊	RL	LH	šaráŋ, šarɛ̃́(사랑, 사랑-이, 사100)

이들 例外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즉, 위 예에서 규칙적으로 '高低'로 실현된 어사들은 현대 중부방언에서 모두 語頭 音節 母音이 音長을 갖지만 '低低' 혹은 '低高'로 실현된 '釜山, 妹

夫, 舍廊'은 모두 短音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이다.(신기철 국어대사전에 의함) '點心'은 현대 중부방언에서 長音으로 발음되지만 동북방언에서는 '低低'로 실현되는 異端的 존재이다.[43] 따라서, 이들 예외적 존재들은 六鎭方言과 中部方言에서 그 변화 양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5.4.2.8 중세국어의 '上+去聲' 한자어.

富者	RH	HL	púʤɛ(부자-이, 사4)
對答	RH	HL	tɛ́dap háuri(대답할 것이다, 회133)
			tɛ́dabu hɛ́ɛra(대답-을 해라, 회204)
			tɛ́dabi(대답-이, 표20)
第一	RH	HL	tyéer(제일, 사60)
應食	RH	HL	íŋšigi(응식-이, 회xii)
兩百	RH	HL	nyáŋ-pɛk(→ 二百, 회42)
萬一	RH	HL	mánir, mán-ir(만일, 사30,사vii)
寡婦	RH	HL	kwábɨy(과부, 사8)
果實	RH	HL	kwɛ́širi(과실-을,회96), kwɛširi(과실-이, 표16)
禁食	RH	HL	kímšik, kímšigi(금식, 금식-이, 사88)
畵像	RH	HL	hwá-šaŋ(화상, 사43)
儉素	RH	HL	kə́m-šu han(검소한, 사102)
下直	RH	HL	hádigɨ hagí(하직-을 하기, 사92)

'上去聲'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高低'로 실현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꽤 많은 例外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例外들이 존재하는 것은 '上聲'과 '去聲'의 성조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데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 단계의 고유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上去'형은 극히 드물다.[44]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43) Ramsey(1978)는 北靑方言에서도 '點心'이 低低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서도 低低로 실현됨을 확인한 바 있다. *Razvedchiku*에는 低高로 전사되어 있는데 이는 低低→低高, 즉 語末高調化에 의한 것이다.

44) 中世國語에서 '上去聲'의 聲調를 가졌던 '슈건'이 '저저'로 실현된다 함은 앞

大國	RH	LL	tɛ-guk, tɛ-gug,í(대국(→中國), 대국-이, 사33)
大楪	RH	LL	tɛ-dyebí(대접-이, 사119)
飮食	RH	LL	imšəgí, imšəgé(음식-이, 음식-에, 사51,회233)
			ɨym-šək, ɨym-šegí(음식, 음식-이, 사79,114)
始作	RH	LL	ši-dzák hagí(시작 하기, 사88,96),
			ši-dzɛgírɨ hagí(시작-이-를 하기, 사34,64)
救助	RH	LH	kudzɨ́y hará(구조하러, 회419, 사36,86)
歲月	RH	LH	še-wə́r ponɛ́gi(세월 보내기, 사92)
洗手	RH	LH	šweší(세수-이, 사80,85)
有識	RH	LH	yu-šík hɛ́ɛdu(유식해도, 사67)

'上去聲'이 低低 또는 低高로 반영된 예가 다수 보인다. 低高는 본디 '低低'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휴지 앞이거나 혹은 한정첨사 '-이'와의 통합형이기 때문이다.

5.4.2.9 중세국어 '上上聲'의 한자어

分數	RR	HL	púnsɨy(→행복, 행운, 사116)
偉大	RR	HL	wídɛ(위대, 사132)
問病	RR	HL	mún-byəŋ hagí(문병하기, 사63)
內外	RR	HL	nɛ́uy(내외(→부끄러워하다), 사115)
念慮	RR	HL	nyə́m-nye(염려-이, 회125, 사32)
所願	RR	HL	sóoni(소원-이, 회57, 부74, 사129)
港口	RR	HL	háŋ-gu(항구, 사vi)

'上上聲' 漢字語는 규칙적으로 '高低'로 실현되는데, '低高'로 실현되는 例外도 발견된다. 그런데 '高低'로 실현되는 위 예들의 語頭 音節 母音은 현대 中部方言에서 長音으로 실현되고, '高低'로 실현되는 이들 例外는 短音으로 실현된다. 앞서 중세국어의 '上平聲' 한자어의 예외들

서 지적한 바 있다.

이 육진방언에서는 '低低'로, 중부방언에서는 '短音'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上上聲' 성조를 지닌 한자어들도 그와 평행된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喪事	RR	LH	saŋsɛ́ nagi(상사나기, 사125)
要緊·	RR	LH	yogínhan(요긴한, 사69)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육진방언의 한자어 악센트는 중세국어의 漢字 聲調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는 예외가 다수 보인다. 중세국어와의 대응에서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비교적 많은 예외를 보이는 이유는 單語形成 時에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聲調 결합이 일정한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예외들은 이미 16세기에 간행된 최세진의 著作物에서 발견된다.[45] 이 외에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같은 체계를 가졌던 선행시기 육진방언이 현재의 육진방언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경험한 변화(상승조가 고조에 합류하였다거나 하는), 또는 필자가 참고한 訓蒙字會의 한자 성조가 잘못 調値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육진방언의 2음절 한자어 성조를 중세국어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중세국어]		[육진방언]		
성조	용례수	LL	LH	HL
LL	31	13	16	2
LH	33	1	29	3

45) 崔世珍의 訓蒙字會, 飜譯朴通士, 飜譯老乞大에는 漢字語의 성조와 그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漢字의 聲調가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인다. 가령, '飮食'은 개별 한자의 성조가 '上去聲'이지만('飮, 마·실 :음', '食, ·밥·식'), 한자어는 '음·식탐할 참'(訓蒙字會 下13b)에서 보듯 '平去聲'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釋과 音에서 성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例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성조의 변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LR	10	3	7	
HL	20	2	4	14
HH	19	1	2	16
HR	10		3	7
RL	16	2	2	12
RH	20	4	4	12
RR	9		2	7

위에서 중세국어 단계의 한자 및 한자어의 성조가 육진방언의 그것에 규칙적으로 반사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세국어의 '平平' 聲調가 '低高'로 다수 반사된 것은 육진방언에서 '低低'형 개음절 어간 말모음이 주격어미 '-'이'와 통합되어 'L-H'가 'H'로 실현된 때문이다. 이는 中世國語의 '上聲'이 六鎭方言에서 '高調'로 실현된 것과 平行을 긋는 것이다. 그 이외에 '低低'가 語末高調化 規則에 의거 '低高'로 실현된 때문인데, 이는 發話 表面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2. 中國 漢字音의 聲調가 東音의 聲調에 규칙적으로 반사되지 않았다. 즉, 중국어의 '양평, 음평'이 중세국어 한자음 성조(주로 訓蒙字會)에 규칙적으로 '평성'으로 반사되어 있지만 육진방언에는 高調로 반사된 소수의 예가 존재한다. 예: 江, 村 등
3. 중국어의 성조가 중세국어의 한자음 성조에 규칙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반사된 예가 있는데, 육진방언에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반사되었다. 예: 食 등
4. 上去 또는 去上聲과 같은 聲調(중세국어 단계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漢字語가 육진방언에서 高低로 반사되지 않은 예외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그것은 개별 한자가 결합되어 단어를 구성할 때에 성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제는 명확히 들어나지 않는다. 가령, '釜山, 妹夫, 舍廊'은 중세국어에서 上去聲이므로 高低로 반사될 것이 기대되지만 이들은 모두

低低 혹은 低高로 실현된다. 이들 어사들은 현대 中部方言에서 短音으로 실현되므로 이들 어사에 관한 한, 六鎭方言과 현대 중부방언은 일관성을 보인다.

5.5 借用語의 악센트

육진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어 차용어가 존재한다. Kazan 자료에 반사된 이들 어사들의 악센트는 다음과 같다.

[육진방언 악센트]	[중국어 성조]	
maudzɛ́(毛子)(회100,214,315)	maó.z	20
tʰándzɛ(毯子)(회xiv)	tǎn.zi	30
tʰúndzɛ(筒子)(회xiv)	tǒng.zi	30
mántʰʉy(饅頭)(사53)	mán.tou	20
wandzɛ́(碗子)(사131, 정60)	wǎn	30
kʰə́udɛ(口袋)(회143,148,276/사62)	kou.dài	34
tyə́mdze(墊子)(사45)	diàn	4
tsʰwáni(船)(회24,36,66/사55)	chuán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 성조와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규칙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어 차용어의 악센트는 다음과 같다.[46]

---

46) 19세기 후기부터 러시아의 沿海州 지역으로의 移住 및 交流가 왕성해지면서 많은 러시아어가 流入되었다. medɨré(물통,vedró[ведро]), pagwə́ni(객차, vagón [вагони]), muduk'ɛ(물뿌리, butýlka[бутылка]), mullak'ɛ(안전핀/옷핀, bulávk'a[булавка]), kərɨmani(주머니, karmán[карман]), kollosi(고무신, galósha [голоша]), karandaši(연필, karandáshi[карандаш])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예들이다. 이들 러시아어 차용어에 대하여는 小倉進平(1927), 미승우(1987)를 참고할 것.

[육진방언 악센트]	[러시아어 및 악센트]
šápk'wɛ(모자, 사134)	šápka[шапка]
šárpʰɨy(목도리, 사134)	šarf[шарф]
šabagúy(목이 긴 구두, 사2)	sapóg[сапог]
piʤik'é(성냥, 사110)	spíchika[спичика]
kóyk'ɛ(침대, 사46,49)	kóyka[койка]

러시아어 借用語의 악센트 역시 러시아語 악센트와는 무관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음절어인 경우는 어두 음절 모음에, 3음절인 경우에는 어말 음절 모음에 규칙적으로 악센트가 놓인다는 사실이다. 앞서의 중국어 차용어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또한 러시아語는 아니지만 2음절어인 'yéšu'(예수, 사42)도 語頭 音節에 악센트가 놓였다.

이는 借用語가 原語의 운율소에 無關하게 새로이 악센트를 배정받는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센트 配定이 규칙적인 것인지, 규칙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되어야 할 흥미로운 과제이다.

第 6章　結　論

本書는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를 통하여 咸鏡北道 六鎭方言의 공시적인 音韻交替와 통시적인 音韻變化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六鎭方言은 다른 방언에 비해 音素 配列에 있어서 制約이 적으며, 音韻規則의 수가 적고, 규칙 적용에 있어서 例外가 많지 않으며, 음운 규칙에 가해지는 형태론적 제약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언은 中世國語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방언의 音韻史를 기술하면서 文獻資料를 통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音聲 層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변화의 통시적인 전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악센트는 中世國語 단계의 聲調 體系와 그 變動이 單純化를 지향한 결과로서 그의 충실한 繼承者임도 드러났다. 이는 이 방언이 保守的이면서 또한 孤立方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要約하여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第 1章에서는 本書의 연구 자료가 된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文獻資料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咸北 北部의 두만강변에 위치한 慶興 및 그 주변 지역의 방언이 러시아의 키릴문자(Cyrillic alphabet)와 그 변종으로 精密轉寫되어 있다. 이 문헌자료들은 러시아 正敎宣敎協會에 의해서 출판되었으며 책의 편집에는 카잔사범학교의 한국인 학생 그리고 카잔대학의 마샤노프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Azbuka dlja Korejtsev(<韓國人을 위한 綴字教科書>, 1902)는 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키릴문자와 러시아어를 익히게 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책 속에는 모두 91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는 모두 口述者가 聽者에게 口演하는 文套의 口語體 문장으로 되어 있다.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 1904)는 慶興 주변의 豆滿江 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편찬되었다. 한국어의 調音特性, 分布環境, 轉寫文字에 대한 해설이 있고 총 443개의 會話體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露韓會話에 대한 單語와 表現>, 1904)는 <露韓會話>의 자매편으로서 <露韓會話>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풀이하고, 한국어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이 책에는 六鎭方言의 格語尾, 活用語尾, 時制, 品詞 그리고 曲用과 活用시의 악센트 변동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실려 있다.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試篇 露韓小辭典>, 1904)은 일찌기 Ramstedt 박사가 한국어 연구에 이용한 小辭典으로 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러시아어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카잔 자료 외에 최초의 한국어 관계 對譯辭典인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 Sankt-Peterburg:1874)(<로한ᄌᆞ뎐>)과 러시아 공사 및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강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병옥이 편찬한 *Razvedchiku v Koree*(Russko-Korejskij Slovarj, Sankt-Peterburg:1904)(<한국에 대한 정탐>) 등이 보조 자료로 연구에 이용되었다.

第 2章에서는 카잔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그 배경, 문헌자료들에 대한 書誌的 고찰, 轉寫文字 體系와 그들 轉寫文字가 지시하는 한국어의 音聲 特徵과 韻律素를 밝혔다. 記寫者들의 한국어 음성에 대한 認識과

그 음성을 전사한 태도·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 轉寫에 반영된 子音 音聲 目錄과 子音體系

p, b	t, d		k, g	
p'	t'		k'	
p^h	t^h		k^h	
	s, z	š	ɣ	h
	s'	š'		
	ts, dz	ʧ, ʤ		
ts'				
	ts^h	$ʧ^h$		
m	n	ň	ŋ (˜)	
	r			
	ll	ʎ		

(2) 子音體系

/p/	/t/	/s/	/ts/	/k/	/h/
/p'/	/t'/	/s'/	/ts'/	/k'/	
/p^h/	/t^h/		/ts^h/	/k^h/	
/m/	/n/	/r/		/ŋ/	

위 音聲目錄에서 無聲無氣破裂音과 破擦音은 각각 有聲音의 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 분포가 相補的이므로 유성음은 異音으로 처리된다. 齒音과 硬口蓋音은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하며 音聲的으로 類似하고, '치음→경구개음/__{i,y}'와 같은 異音 規則이 존재하므로 이들 음성을 별개의 音素로 설정하는 것은 非經濟的이다. 또한 경구개음을 단위 音素로 설정하면 이들 音素 뒤에 上昇 二重母音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音素連結 制約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자음과 二重母音의

연결이 극히 自由스러운 이 방언의 音素 配列 關係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 못 된다. [ʧ]를 /tsy/로 재해석한다면 /ts/뒤에 上昇 二重母音의 연결은 다른 자음과 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體系的인 관점과 經濟性을 고려하여 경구개음(C)은 /Cy/로 再音素化한다. 따라서 [šweʤədzinɨ(n)](소젖-은)은 음운론적으로 /sywetsətsinɨ/와 같이 표시된다. [z]는 /ts/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수의적 변이음(free variant)이다. 流音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r]로 전사되어 있다. 그러나 유음이 겹쳐 나는 경우는 [ll]로 전사되었다.

(3) 母音 音聲과 母音體系

i, ü	ɨ	u	/i/	/ɨ/	/u/
e	ə	o	/e/	/ə/	/o/
ɛ	a		/ɛ/	/a/	

위 母音 音聲 중에서 [ü]는 音聲的으로 硬口蓋 子音이나 滑音 /y/下에서만 分布하는 편재성을 보인다. 例), 'yešüni'(예순), 'š'üšigi'(쑤시기) 그런데 경구개 자음은 /Cy/로 재음소화하였으므로 위의 例는 일단 /yesyüni/, /s'yüsiki/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ü]를 단위 音素로 인정한다면 [ü]는 음운론적으로 上昇 二重母音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럴 때 [ü] 자신은 다른 모음과 對立을 이루지 못한다는 弱點을 갖는다. 또한 [ü]는 이중모음 /uy/와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ü]는 독립된 音素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점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위 사실 외에도 [ü]가 분포상의 편재성으로 機能負擔量이 적다는 점을 중시하고 [ü]가 /uy/로부터의 발달이라는 통시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ü]를 /uy/로 再音素化하였다.

위 해석은 순수히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ü]가 이중모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

구개 자음 뒤에서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격을 지니며 스스로 변화의 길을 걷는다. [ü]는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어사들에 있어서는 이미 '[ü]>i'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시태와 통시태에 대한 기술상의 調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示唆하는 바가 많다.

(4) 滑音:/w/, /y/

(5) 韻素

<會話>, <辭典>에는 六鎭方言의 악센트가 전사되어 있다. <教科書>, <辭典>의 序文에는 韓國語가 악센트(Udarenie)를 가진 언어이며 이 악센트가 어사의 意味 辨別에 관여하는 示差的 機能 要素임을 밝히고 있다. <教科書>는 同綴異音語를 제시하고 이들 同綴異音語는 악센트에 의하여 의미 식별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악센트라 한 것은 breath group을 한 단위로 하여 여기에 소속된 음절 모음의 음고 중에서 最頂点의 音高(culmination of prominence)를 지칭한 것인데, 거기에 악센트 표지(′)를 부가한 것이다. 따라서 악센트 표지는 단음절 어간에는 부가되지 않았다. 상대적인 음의 높이(relative pitch)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악센트는 어사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示差的(contrastive) 기능 요소이므로 육진방언의 유의미적 요소(linguistically significant feature)로서 韻素目錄에 든다. 이밖에 低長調(例, maamí(마음), suurí(酒)), 上昇調(例, tuúri(二), ʧəə́guna(僅)), 下降調(例, šúun(水銀), séemi(시어미))도 존재하지만 이들 音調는 각각 다른 音調와 對立的이지 못하므로 非示差的이다.

第 3章 共時音韻論

形態素 境界에서의 音韻現象을 支配하는 규칙들은 중부방언에 비해 문법 범주와 같은 非音韻論的 制約을 덜 받는다. 圓脣母音化 規則, 滑音形成 規則, 硬音化 規則과 같은 순수한 음운규칙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 規則은 屈折 語幹과 語尾가 統合되는 환경에서 필수

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特殊語幹交替, 母音調和, 流音脫落과 같은 현상은 공시적 音韻過程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들은 그 교체가 과거의 통시적 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 잔재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形態論的 制約 또는 語彙部 내에서의 選擇規則으로 처리하였다.

3.1 母音調和

副詞形語尾 '-아/어'의 交替는 원칙적으로 語頭音節 母音에 의하여 支配된다. 즉, 語頭音節 모음이 /ɛ,a,o/일 때에는 '-아'로, /i,e,ɨ,ə,u/일 때에는 '-어'로 交替된다. 單音節 語幹의 경우는 例外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多音節 語幹에서의 '-아/어' 交替는 그 기제가 단순하지 않다. 2음절 어간의 경우, /u,ɨ/는 非語頭 音節 位置에서 非關與的이다. 반면, /i/는 語幹末音節 위치에서는 음성모음으로 행동하지만, 비어말 위치에서는 비관여적이다. 그리고 어두음절 모음이 'M'(=양성모음)인 3음절 이상의 어간에서의 '-아/어' 교체는 수의적이다. 이것은 어간모음이 길어질수록 동화주의 어미에 대한 동화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例), kartʃʰiwara, kartʃʰiwəra(가르치-어).

한편, 2음절 이상의 어간으로서 末子音이 /p/인 어사들은 '-아'로 교체된다.(例) kušəba(구섭-아→아쉬워), mušəba(무섭-아), mugəbadini (무겁-어지니), tʃibisɨrəba(고집스럽-아), niaksɨrəbašə(이악스럽-아서))

3.2 움라우트

피동화주가 後部 非圓脣母音 /a,ə/일 때 同化主 /i,y/앞에 [-coronal] 자음이 介在하는 條件下에서 필수적으로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그러나 피동화주가 /u,o/이면 움라우트는 실현되지 않는다. 단, /u,o/에 선행하는 자음이 음성적으로 경구개 자음일 때에는 움라우트가 가능하다. 이는 통시적으로 [uy]가 경구개 자음하에서만 [ü]로 單母音化한 사실과 평행적이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ɨ/일 때에는 /ɨ/가 악센트를 지닌 조건하에서만 /ɨy/로 실현된다. 비경구개 자음하의 /u/도 /uy/로 움라우트

가 이루어지나 稀少하다.

그러나, 피동화주가 上昇 二重母音일 때에는 介在子音의 制約 條件에 구속되지 않고 움라우트가 실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피동화주의 on-glide /y/와 동화주 /i,y/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형태소 내부에서 목격되며 형태소 경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例, š'üšigi(쑤시기), yešüni(예순), kyeʤip(계집)) 이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을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i	[ü]	ɨ	u
e	[ö]>[ʷe]	ə	o
ɛ		a	

(움라우트)

i	ɨ	u
	└ɨy	└uy
e	ə	o
	ɛ	a

(움라우트(가))

3.3 圓脣母音化

원순성 자질을 지닌 원순자음과 원순모음하에서 어미의 頭音 /ɨ/가 원순모음 /u/로 동화된다. 이 음운현상은 중부방언과는 달리 문법범주에 관계없이 굴절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는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例) sarimunɨn(사람-은), tsʰumu pak'i(침-을 뱉기), tipʰullɨ(짚-으로), apʰuru(앞-으로), hyəŋnimullɛ(형님을 위해), ʧiburušə(집-으로부터서), puru(불-을), totʰu(돼지-를), modu(못(釘)-을), sonu(손-을), tsugundzuru(죽-은 줄을)

3.4 滑音形成

역시 문법범주의 제약없이 어간 말음 /i,o,u/에 부사형어미 '-아/어'나 처격어미 '-에'가 통합되면 활음형성이 이루어진다. 단, 단음절 체

언어간에서는 활음형성이 수의적이다.

1) 用言 語幹末母音 /i/의 활음화(활음형성후 ‘yə>ye’ 규칙이 적용됨)
例) kot^{h}ye(고치-어), p’adyeñña(빠지-었냐), nyegyešə(여기-었어)
2) 用言 語幹末母音 /o,u/: pɛwara(배우-어라), k’wadigi(꼬-아지기)
3) 用言 語幹末母音이 二重母音 /uy/, /ɨy/일 때.
t’weɣašə(뛰-어 갔어), tswešə(쥐-었어), cf. t’uygi, tsuygi
kee tirə kagi(기(匍)-어 들어 가기), cf. kɨygi(기-기)
pee nosso(베(刪)-어 놓소), cf. pɨygi(베-기)
4) 어간말 자음이 /h/일 때에는 /h/탈락 이후 원칙적으로 활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tyoa hanɨn(좋-아 하는), nowa(놓-아), noañña(놓-았냐)
5) 體言 語幹末母音 /i/의 활음화.
tandyee(단지-에), tsaryee(자리-에), mudyešə(무더기-에서), namu atʃ^{h}ɛgyeda(나무가지-에다), mundʒegye (먼지-에)
6) 體言 語幹末母音이 二重母音 /uy/, /ɨy/일 때.
surgee(수레-에), pargwena(발귀-에나), cf. surgɨy, parguy
7) 단어 경계에서 : musɨyrɨ ← musiŋ+ir
8) 體言 語幹末母音이 /u/일 때에는 활음화가 수의적이다.
twešə(뒤-에서) cf. tuuru, tuullɨ(뒤-로), tuu(뒤-를)
kue(귀-에), ue(위-에), nue(누구-에), nuegerɨ(누구-에게로)
9) 부정어미 /-ti/ : tot^{h}udyanik^{h}u(다투지 아니하고)

3.5 鼻母音化와 /ŋ/의 탈락

비모음화는 /ŋ/이 v___v 환경에 놓일 때에만 발생한다.
tsɨmsɨŋ, tsɨmsĩi/tsɨmsĩy(짐승/짐승-이)
tsɨmsĩ əbudzak(tsɨmsɨŋ+ɨ(짐승+의))

이 음운현상은 /ŋ/과 선행모음의 통합(coalescen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통합 이후에 비모음 ‘ɛ̃,ẽ’ 뒤에서 /i/가 탈락한다. 例), šədaŋ(書堂)+i→šədɛ̃i→šədɛ̃(혹은 šədɛ), tigyəŋ, tigyẽ(지경(地境), 지경-이)

그런데 비모음화 이후에 비음성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ŋ/ 탈락 규칙의 적용으로 설명된다.

konyɛ(猫), šəŋmɛʤɛ(搗人), šiŋnyɛ(승냥이), šəŋnyuwɛ(석류황→성냥)
namdyəŋgwa/namdyəŋdəri/namdyəŋk'erɨ(남정-과/-들이/-에게로)
namdye(남정-이)/namdyənɨ(남정-은)/namdyə(남정-을,-의,-에게)
namdyəa(남정-아!)

3.6 音韻脫落

3.6.1 모음탈락

1) 체언어간과 곡용어미의 통합에서의 '으' 탈락

원칙적으로 어간 말음이 母音과 流音인 경우에는 어미의 頭母音 /ɨ/가 탈락하지만 주제격의 /ɨ/는 탈락하지 않는다. 대격어미는 어간 末音이 流音을 포함한 자음일 때에는 '-ɨ/u', 開音節 語幹 다음에서는 '-rɨ'로 실현된다. 그러나 개음절 어간이라 하더라도 어간이 單音節인 경우에는 kʰoo(코-를), tuu(뒤-를), uu(위-를)와 같이 '-rɨ'가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격어미는 하나의 基底形으로 설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음탈락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기타의 격어미들의 두모음 /ɨ/는 母音과 流音下에서 탈락된다.

2) 용언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의 음운탈락

(1) 어미의 두음 /ɨ/ 탈락

(가) [+voc] 다음에서 頭音 /ɨ/가 탈락하는 어미.

例) -ɨryarɨ, -ɨra, -ɨragu, -ɨmyəŋ, -ɨmun 등.

(나) [+voc] 다음에서 頭音 /ɨ/가 탈락하지 않는 어미.

例) -ɨmni, -ɨ(u)pte, -ɨmdu, -ɨnnya 등.

(나)는 末音이 母音과 流音인 어간에 통합되는 聽者尊待法 語尾로서, 유음을 제외한 어간말자음 아래에서는 /s/로 시작되는 이형태가 통합된다.(-sɨmni, -sɨ(u)pte 등) (나)류의 어미 두음 /ɨ/ 앞에서는 오히

려 유음 /r/이 탈락하고 그 자신은 語幹末 母音에 同化된다.

(2) 어간말 모음 /ɨ/ 탈락

어간말 모음 /ɨ,a,ə/는 '-a/əX'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3) 호격의 '-아' 앞에서 어간말 모음 /i/가 탈락한다.

(가) taksura(독수리야!), cf. taksuri-gwa(독수리와)

hedzɛba(허수아비야!), cf. hedzɛbi-rɨ(허수아비-를)

mitsʰura(→물뱀아!), cf. mittsʰuri-gwa(미추리-와)

(나) ʧəb-a(제비야!), cf. ʧebi, ʧebi-rɨ, ʧebi-gwa(제비-를, -과)

(나)는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이다.

3.5.2 流音脫落

[+cor] 자음으로 시작되는 /-ti, -tsya, -tsyagu, -nɨn, -nya/ 어미 앞에서 流音 /r/은 필수적으로 탈락된다. 그리고 '-오, -읍쇼, -읍(웁)궈니, -읍(웁)데, -읍(웁)구마, -음두, -읍니, -우리, -은냐'와 같은 어미 앞에서도 流音 /r/은 예외없이 탈락한다. 이들 어미는 악센트의 변동, 特殊語幹交替에서도 子音語尾처럼 행동한다.

3.6 長母音化와 母音의 音韻論的 强度

3.6.1 체언어간과 어미의 통합 과정에서의 모음동화와 장모음화

1) 모음동화

(1) kʰoo/kʰoonɨ(코-를/-는), tuuru/tuullu(뒤-로), uurɨ/uullɨ(위-로)

(2) ʧʰõo(銃-을), pãa(房-을), madzũu(마중-을)

(3) tʰundzɛɛ(물통-에), t'ɛɛsa(때(時)-에야)

(4) toŋsɛ̃ɛna(동생-이나)

2) 활음형성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

(1) tsaryee(자리-에), tandyee(단지-에)(수의적)

3.7.2 용언어간과 어미의 통합

1) 모음동화

(1) pooňňa(보느냐), t^hiiňňa(打), tsuuňňa(與), pruunnya(呼)
saaňňa(사느냐), aaňňa(아느냐), kaaňňa(갈(耕)느냐)
haamni(하-읍니), haapte, haamdu, haapkuma, nɛɛmni(내(出)-읍니), seepte(세(→비싸-)-읍데)

(2) nooni(놓-으니), tyoor/tyoon(좋-을/-은), s'aan(쌓-은)

(3) mee-nɛ-t^higi(메(負)-어 내치다), hɛɛra, hɛɛdu, hɛɛšə

5) 활음형성 : t'yəəsa(찧(搗)-어야), ʧəəšə(짛(作)-었어)
kee(기(匐)-어), pee(베(刪)-어), cf. kɨy-, pɨy-

모음동화에서 보여지는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다음과 같다.

强 ←		弱 →		强
|	i	ɨ	u	|
|	e	ə	o	↓
强↓	ɛ	a		强

3.8 子音의 中和

3.9 硬音化: 語幹末 子音이 [+son]인 /n,m,ŋ,r/ 다음에 연결되는 무성자음은 경음화하지 않고 有聲音化한다.

例), 用言: singu(신(履)-고), samgu(삶(烹)-고), angu(안(抱)-고)
體言: nundu(눈(眼)-도), sarɨmdu(사람-도), ank'andər(여자들)
wənsiŋgwa(원숭이-와)

3.10 有氣音化

3.11 子音同化: 변자음화, 비자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3.12 子音群單純化

$-C_1C_2C_3-$의 자음 연쇄에서 C_2가 [+cor] 자음이면 C_2가 탈락하고, C_2가 [-cor] 이면 C_1이 탈락한다.

C_2탈락: antʃa(앉-자!), kamman(값-만), əptəngeda(없-던가 보다)
C_1탈락: yadɨp še(여덟 시에), popki(밟-기), tɨpki(뚫-기→뚫다)
syəpso(섧다), samgi(삶-기), komgi(곪-기), pak'i(밝-기)

3.13 非自動的 交替 語幹의 음운현상

이들 語幹은 子音語尾(또는 單語境界)와 母音語尾 앞에서 각각 語彙化한 異形態로 교체된다. 이 교체는 音韻論的 條件에 의한 것이지만 공시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 교체 어간은 네가지 類型이 있는데, 用言의 五類型을 제외하고는 악센트가 없는(atonic) 低調 語幹이라는 점에서 共通的이다. 各 類型에 소속된 語幹은 다음과 같다.

3.13.1 體言

一類 : 나무(木), 두무(水罐), 구무(穴), 풍구(冶)
例),nɛŋg-i/naŋg-irɨ/naŋg-e/naŋg-ɨ/naŋg-ɨllišə/naŋg-ɨnɨ/
naŋg-ɨllɛ(母音語尾 앞)
namu-gwa/namu-dər-i(子音語尾 앞)
k'ɛɛm namu-gadʒi/namu-a dʒɛgi(單語 境界 앞)

二類 : 자루(袋, 柄)/가루(粉)/그루(株)/시루(甑)/나루(津)/부루(萵)/
노루(獐)/모루(鐵站)/마루(頂)
例), tʃarg-i(자루-가)(母音語尾 앞)
tʃarɨ-dər-i(자루-들-이)(子音語尾 앞)

三類 : 하루(一日)
例), tsʰohalli(초하루-가)(母音語尾 앞)
harɨ-gari(하루같이), harɨsari(하루살이(蜉))
단, 교체를 보이지 않는 'hallal'형도 共存. 例) hallar-i, hallar-e

四類 : 아우(弟), 여우(狐), 무(菁)
asɨ-, yəsɨ-, musu- (子音語尾 혹은 單語境界 앞)
akk-, yəkk-, mukk- (母音語尾 앞)

3.13.2 用言 : 體言의 四類와 같이 交替되는 語幹은 없음.

一類 : simk-~simu-(植), cf. 단일화한 simku-도 출현.
二類 : turk-~turu-(揮)
niri-(讀,謂)/turu-(揮)/puru-(飽)/kori-(調)/mari-(裁)
tsiri-(刺)/turu-(圈)/kəri-(濾)/puri-(增)
三類 : purr-~puru-(呼)
ori-(登)/mori-(不知)/mari-(乾)/hiri-(流)/puri-(呼,號)
五類 : nirir-~niri-(至)

3.12.3 其他: 같-(如), 많-(多)

/katʰε-/, ____ -a系 어미 앞
/katʰa-/, ____ -u, -i系 어미 앞
/kat-/, ____ -ki, -ta, -ti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katʰ-/, ____ -i(파생접사)
/manε-/, ____ -a계 어미 앞
/man(h)a-/, ____ -in 등 -i계 어미 앞
/manh-/, ____ -ki, -ti, -so, -sumni 등 자음어미 앞

이들 交替 語幹은 각각 語彙部에 등재되어 있고 그것이 음운론적 조건이 明示된 選擇規則에 의하여 어미와 통합된다.

제 4장 通時音韻論

4.1 母音調和

선행시기 육진방언의 母音調和는 共時的인 母音調和 規則, 形態素構造制約, 中世國語와의 比較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調和的 體系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아	오	ᄋᆞ
	어	우	으

4.2 /ᄋᆞ/의 변화

어두 음절에서는 'ᄋᆞ>아', 비어두에서는 'ᄋᆞ>으'로 변화. 이 변화는 규칙적이어서 例外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孤立方言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例), tʰak, tʰɛgi(턱), hargi(흙), sarimi(사람), parimi(바람),

少數이지만 'ᄋᆞ>어'의 예도 발견된다. 例), tər(들(복수접미사) 등.

4.3 /오>우/ 변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러나, 先行母音이 /오/일 때에는 例外가 많다. 이것은 /o/의 동화력이 다른 모음에 비하여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例) todzoŋnomi, motsʰori, odzomkʰɛ, sogom, noromi, noromu, norom kɛmi, osork'iri

4.4 움라우트

형태소 경계에서처럼 被同化主가 /a, ə/이고 同化主 /i,y/ 앞에 [-coronal] 자음이 개재할 때에는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이루진다. 그러나 [+coronal] 자음이 개재할 경우에도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이 발견된다. 이는 齒音이 동화주 /i,y/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발생한 통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사실은 피동화주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 자음이거나 이와 동일한 자질을 가진 /y/가 선행하면 'u>ü'의 움라우트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음운론적으로는 모두 上昇 二重母音)이다.

例), š'üšigi(<쀼시기, 쑤시기), ümiri(<yümiri<yumiri, 유밀)

4.5 圓脣母音化

會寧, 鐘城, 穩城은 脣子音 下에서 'ᄋᆞ>오'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慶興은 'ᄋᆞ>오' 변화의 예가 희소하며, 그 중간에 위치한 慶源은 轉移地域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으>우' 원순모음화 규칙이 會寧, 鐘城, 穩城 지역에서 規則의 單純化를 경험한 다음, 이 규칙이 남부의 慶源, 慶興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ᄋᆞ>아' 변화 규칙과 마주치게 된 결과이다. 말하자면 'ᄋᆞ>오' 규칙과 'ᄋᆞ>아' 규칙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음절 모음이 원순모음 /o,u/이면 후행음절의 비원순모음 /ɨ/가 /u/로 변화하였다. 例), kusur(珠), kudur(坑), tuduridi(두드리다), tsumurugi(주므르-기), norusu(노릇-울), onur(오늘), moruge(모르게)

4.6 非圓脣化

순자음하에서 이중모음 /uy/가 비원순화하여 /ɨy/로 변화하는데 그 類型은 아래와 같다.

1) pɨy(<puy, 비(箒)), pɨygi(베(刪)-기), pɨyo(베-오), pɨygaktʃir(베는 일), pɨyn(비(空)-ㄴ) ('뷔>븨'의 변화)
2) toŋmɨy(동무), kwabɨy(과부), mɛbɨy(매부), təbɨy(더위), tʃ^{h}ibɨy(추위) ('-이' 또는 '위'가 어간에 통합된 후 비원순화.)
3) murɨy(우박), surgɨy(수레), tokkɨy(도끼)(선행음절의 원순모음에 의하여 후행음절의 원순모음이 비원순화.)
4) pɛumni(보입니다), mɛttogi(메뚜기), mɛtot^{h}i(멧돼지), pɛ(베(布), mɛtpoŋori(멧봉우리) (moy>mwɛ>mɛ로 변화한 예)
5) kotʃ^{h}i(고추), hutʃ^{h}i(후추) ([ü]>i의 비원순화)

4.7 母音體系의 再構

공시적 음운 교체, 통시적 음운변화를 내적증거로 삼고, 또 15C 중앙어와의 비교로부터 선행시기 이 방언의 모음체계를 재구하고 그 변화를 기술하였다.

4.7.2 二重母音의 再構와 그 變化

4.7.2.1 下降 二重母音

核母音이 非高母音인 /ay/, /əy/는 單母音 /ɛ/, /e/로 변화하였다. 반면, 高母音인 /uy/, /ɨy/는 변화가 완만하고 더디다. /oy/는 어두위치에서는 /wɛ/로, 비어두 위치에서는 /uy/에 합류하였다. /ʌy/는 원칙적으로 어두에서는 /ay/에 합류한 후 /ɛ/로, 비어두에서는 /ɨy/로 변화하였

지만 예외가 많다. 漢字語, 固有語, 借用語에 따라 그 變化의 速度나 方向이 다르다. /ɨy/는 稀少하지만 /i/나 /ɨ/로 변화한 예가 발견된다.

4.7.2.2 上昇 二重母音 : /yu̦/, /yo/, /yʌ/, /yə/, /ya/

/yʌ/>ya, 例) yadɨrp(八), yar(十), yara(諸)

4.7.3 三重母音의 再構와 그 變化

1) 비어말위치 : /yuy/>yü, 例), yešüni(예순)

2) 어말 위치 : 한정첨사 '-i'가 어간에 통합되어 三重母音 형성.

/yuy/>ü, i 例), wənšü(원쉬(怨讐)), t^{h}oʤü(토쥐(土酒))

/yoy/ 語末 : /yoy/>/yuy/>ü, i 例), koʧ^{h}i(고추)

語頭 : /yoy/>*ö>we 例), š^{w}e(소(牛))

/yay/>yɛ, 例), koʤɛ(=/kodzyɛ/, 宦)

/yəy/>ye, 例), nyəmnye(念慮)

4.8 口蓋音化

4.8.1 t구개음화. 'ㅈ'은 /ts/으로서 異音 [ʧ]을 갖지만 t구개음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例), tyaŋgɛ(장가), tyarɨ-(잚-), tyəpši(접시), tyušək(朱錫), tyo-(好) 등. 다만, 否定語尾 '-ti>ʧi'의 3例가 보인다.

例), nirɨʤi anik^{h}ek'ədən(읽-지 아니하겠거든)

kaʤə kaʤi mao(가져 가-지 마오)

ʧap'aʤigi(자빠지-기, 사126), cf. ʧap'adigi(사76)

다음 구개음화 예는 구개음화를 경험한 방언으로부터 借用된 것으로 판단된다.

例) hwaŋʤe(황제), ʧəmšimu(점심-을)

ʧ^{h}ərp^{h}iri(→펜), ʧ^{h}əllo(鐵路)

4.8.2 h-구개음화 : /h/ 구개음화는 예외 없이 이루어짐.

例) š'əgɛ(서캐), še, šet'ɛ(혀), šəŋnim(형님), š'əgi(켜-(點火, 鋸)

šegi(세(算)-기), šimi(힘(力)-이)

4.8.3 k-구개음화 : <敎科書>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敎科書>의 편찬에 간여했던 吉州 출신 話者의 방언형으로 보인다.

例) ʧəndɨydi(견디-), ʧitʰəšə(기티-(遺)→남기-), ʧik'i twɛgɛt'a (긷-(汲)-게 되겠다), ʧidurguəšə(기다리-었어)

[ʧ]는 앞서 자음체계에서 본 바와 같이 /ts/의 異音일 뿐이다. 이 단계에서 k-구개음화가 이루어졌으므로 k-구개음화 규칙은 음성규칙이라 할 수 있다. [ʧ]가 음소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단계에서 k-구개음화 규칙이 발생한 것이다.

4.8.4 口蓋音化와 過度矯正(hyper-correction)

1) t>k의 변화 : tyər(寺)>kyər, tyəmšim>kyəŋšimi, tina->kina-
2) ʧ>k : kit, kiʤi(깃, 깃-이)
3) ʧ>t : madaŋtiri(마당질-을), piʤik'ɛ>pidik'ɛ(비지깨→성냥)
4) s>h : hibina(是非)

4.9 語中子音

다른 방언에는 분포하지 않는 어중자음 유지형들이 다수 발견되지만, 어중자음 탈락형도 존재한다. 또한 다른 방언에는 분포하지 않는 탈락형이 존재한다. 例), maida, mɛɛda'(마시-). '닐궤>닐웨'(七) 와 같은 변화는 Kazan자료 이전의 육진방언 문헌자료와 Kazan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kurgi'(鞦韆)>kuri'는 육진방언 내부의 방언형들을 비교함으로써 語中子音 脫落 現象이 이 방언의 先行 時期에 存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방언의 선행시기에도 'ㅿ,ㅸ'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語中子音 維持形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s/ : əši(父母), musɨndille(민들레), kasɨr(가을), kisɨm(김(雜草),. kisəs'o(깃-(茂)), naši(냉이), myəŋširi(名日), rasil(來日)
<脫落形> 聽者尊待法 語尾 : '-ɨmni, -ɨpte'
maami(마음), twə(두어), maɨni(마흔) 등.

/p/ : obun(온(全)), kabi(衣), kibulda(기울-), abogi(葵), puburi(嘴) kɨburgi(轉), nɨbe(蠶), habundza(獨), malbaŋi(麥), t'ube(蓋) 등.
<脫落形> tuuri(二), suuri(酒), tsəuri(秤), šəuri(서울)

/k/ : šigaši(씨앗), surgɨy(車), mərgʉy(머루), morgɛ(모래), kurge (구레(馬勒)), kidurgugi(待), purgətsigi(부러지-), pərgi(벌레) 사피동접사: sargugi(살리-기), argugi(알리-기), targigi(달리-기), malgigi(말리-기), yergigi(열리-기), 공동격의 '-kwa'

/r/ : /huri-/(휘-(曲))

/h/ : 이 방언에서 예외 없이 탈락함.

例), nəərda(썹-), šəŋnyuwɛ(石硫黄→성냥), šəŋwɛ(성화), tõe(罐)

第 5章 악센트 體系와 그 變動

카잔 자료가 보여주는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低高의 對立을 바탕으로한 평판조 체계(level-pitch register system)이다. 육진방언의 형태소는 하나의 악센트 표지를 지닌 유표항이거나 악센트 표지가 없는 무표항 중의 하나이다. 표면에서의 악센트 실현은 다음과 같은 音調調整 規則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 한 語節 내에 악센트 標識가 있는(有標識) 모음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앞 쪽의 有標識 음절 모음만이 高調로 실현되고 그 앞과 뒤는 모두 低調로 실현된다.

(나) 무표지항의 마지막 음절 모음은 休止 앞에서 高調로 실현된다.

1. 體言 語幹의 악센트와 變動

音調調整規則이 적용되지 않는 例外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少數規則(minor rule)의 적용을 받는다.

1) 有標識 語幹에 有標識의 處格語尾가 통합되면 處格語尾가 高調로 실현된다. 이는 어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단, 선행하는 어간의 유표지 음절 모음이 처격어미의 바로 앞에 위치할 때에만 가능하다.

2) 奪格의 '-géšə, -k'éšə'가 유표지 어간에 통합되면 선행어간의 유표지 음절 모음은 低調로 실현되고 그 자신은 高調로 실현된다.

그러나 처격어미에서처럼 유표지 어간 모음이 奪格어미에 인접해야 된다는 制約은 없다.

3) 'yəŋgé'(여기에), 'tyəŋgé'(저기에), 'kəŋgé'(거기에)와 같은 어사들은 말음절 모음이 언제나 高調로 실현된다.

4) '나'(我), '남'(他)과 같은 체언 어간은 音調의 실현이 불규칙적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例) nɛ(주격, 속격), nɛgé(여격,처격), nári(대격), nallí(향격)
nánin(주제격), nɛgéšə(탈격)
námi(주격), namú(속격, 대격), námunin(주제격)

2. 用言語幹의 악센트와 그 變動

第 1類 : 악센트가 없는 語幹.(中世國語의 平聲 語幹)

第 2類 : 악센트를 갖는 語幹.(〃 去聲 또는 固定的 上聲 語幹)

第 3類 : 一類와 대동소이하나 특정어미 앞에서 高調로 실현되는 語幹.

第 4類 : 악센트 실현이 매우 不規則한 語幹.

第 5類 : 모음어미 앞에서 악센트가 어미쪽으로 이동하는 語幹.
(中世國語의 可變的 上聲 語幹)

3. 派生語 形成과 악센트 變動

1) 有標識의 單音節 語幹에 有標識의 使被動接辭가 접미되면 어간은 低調로 실현되고 使被動接辭만이 高調로 실현된다.(必須的) 그러나 多音節 語幹인 경우에는 使被動接辭의 바로 앞에 위치한 有標識 語幹 모음만이 低調로 실현된다.

2) 용언의 제 2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유표지의 派生接辭가 접미되면 語基가 高調로 실현되지만, 제 4류 어간에 파생접사가 접미되면 語基는 低調로 실현된다. 活用에서의 악센트 변동과 일치한다.

4. 中世國語의 聲調와 六鎭方言의 악센트 比較

(1) 中世國語 單音節 어간의 去聲 혹은 上聲이 六鎭方言에서는 規則的으로 高調로 실현된다.

(2) 中世國語 多音節 어간의 어두 음절 모음의 聲調가 去聲이거나 上聲이고, 非語頭 音節의 聲調가 역시 去聲이나 上聲인 경우, 六鎭方言에서는 어두 음절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이는 통시적으로 音調調整規則 (가)가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된 결과이다.

(3) 中世國語 多音節 어간의 어두 음절 모음의 聲調가 平聲이고 비어두음절의 聲調가 上聲이나 去聲인 경우, 육진방언에서는 비어두 음절의 첫 去聲이나 上聲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4) 中世國語 副詞語의 음절 모음 聲調가 모두 平聲이면, 육진방언에서는 마지막 음절 모음만이 高調로 실현된다. 이것은 통시적으로 音調調整規則 (나)가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된 결과이다.

15C	六鎭方言	15C	六鎭方言
H	H	LL	LH(부사어), LL(굴절어간)
R	H	LH	LH
L	L	LR	LH
		HL, HH, HR	HL
		RH, RR, RL	HL

5. 漢字語의 악센트

1) 單音節 漢字語

고유어의 악센트 및 그 변동과 동일하다.

중세국어의 상성과 거성은 고조로 실현되고 평성은 저조로 실현되어 고유어와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발견된다.

(1) 中世國語의 平聲이 高調로 실현되는 例: 江, 村, 銃, 棺

(2) 〃 〃 去聲이 低調로 실현되는 例: 宅, 匹

2) 二音節 漢字語

고유어에서의 악센트 변동과 동일하고, 音調調定規則도 동일하다. 단, 중세국어에서 RH, HR, RR, LR 등의 성조를 가졌던 어간은 예외가 많은 편이다. 이것은 이러한 성조의 연결이 부자연 스러운 데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6. 借用語의 악센트

중국어 및 러시아어 借用語의 악센트는 중국어의 성조 및 러시아어의 악센트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들 차용어가 2음절어일 때에는 語頭 音節이, 3음절어인 경우는 語末 音節이 高調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다.

參 考 論 著

姜信沆(1967), 韻解訓民正音 硏究, 韓國硏究院.

______(1983), "齒音과 한글 表記," 國語學 12.

______(1987), 訓民正音硏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姜昶錫(1982), "現代國語의 形態素 分析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50.

고송무(1980),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______(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方言 7.

______(1985), "'뻬-'의 通時的 變化와 方言分化," 國語學 14.

______(1986a), "露韓會話(해제)," 韓國學報 44.

______(1986b), "露韓會話와 咸北 慶興方言," 震檀學報 62.

______(1987), "露韓小辭典의 國語學的 價値," 冠岳語文硏究 12.

______(1988), "로한ᄌᆞ뎐의 韓國語와 그 轉寫에 대하여," 梨花語文論集 10.

______(1991), "咸北 吉州地域語의 上昇調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金京芽(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國語硏究 94.

김병제(1959), 조선어 방언학 개요(상), 평양:과학원출판사.

______(1975), 조선어 방언학 개요(중), 평양:사회과학원출판사.

______(1980), 방언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金星奎(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77.

______(1988),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岳語文硏究 13.

金英培(1979), "平安·咸鏡方言 硏究에 대한 檢討," 方言 1.

______(1984), 平安方言硏究, 東國大 出版部.
______(1988), "ㅈ, ㄷ음의 실험음성학적 한 고찰", 동국대 논문집 27.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金完鎭(1963a),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一潮閣.
______(1963b),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西江大學 論文集 1.
______(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 4.
______(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 10.
______(1972a),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硏究 8-2.
______(1972b),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위하여," 東亞文化 11.
______(1973), 中世國語 聲調의 硏究,(1977, 國語學叢書 4, 國語學會, 塔出版社.)
______(197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
______(1985), "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硏究," 韓國文化 6, 서울대 韓國文化硏究所.
______(1990), "'E.D. Polivanov교수와 한국어학에 대한 그의 기여'에 대한 논평," 한국학의 세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金周弼(1985), "ㅁ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硏究," 國語硏究 68.
金泰均(1983), "咸北方言 調査硏究 I," 牛步 全炳斗博士華甲紀念論文集.
______(1986), 咸北方言辭典, 京畿大 出版部.
金亨奎(1975), 韓國方言辭典, 서울대 出版部.
南廣祐(1960), 國語學論文集, 一潮閣.
미승우(1987), "咸鏡道 사투리 속의 러시아말들", 語文硏究 54.
박창원(1986), "음운교체와 재어휘화," 어문논집 2.
______(1987), "표면음성 제약과 음운현상," 國語學 16.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國語硏究 91.
백두현(1988), "'ᄋᆞ,오,으,ᄋᆖ'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國語學 17.
______(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太學社.
徐禎穆(1981), "慶南 鎭海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에 대하여," 方言 5.
소강춘(1983),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문학연구 15(전북대).

______(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宋 敏(1975), "十八世紀 前期 韓國語의 母音體系," 論文集 5(聖心女大).
______(1986), 前期 近代國語 音韻論 硏究, 塔出版社.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規則," 國語硏究 38.
______(1982), "國語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7.
______(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硏究, 太學社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硏究, 國語硏究 7(塔出版社, 1978)
______(1968), "中世國語 屬格語尾 'ㅅ'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李珖鎬(1985), "미지(未知)의 '이'를 찾아서," 語文學 5(國民大 語文學硏究所).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______(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B.
______(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______(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______(1971), 訓蒙字會 硏究, 韓國文化硏究所.
______(1972), 國語音韻史硏究, 韓國文化硏究所(塔出版社, 1977).
______(1977), "제주도 방언의 'ᄋᆞ'와 관련된 몇 문제,"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______(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 東洋學 9.
______外 5人(1991), "韓國語 方言의 基礎的 硏究,"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30.
______外 5人(1993), 한국 언어 지도, 성지문화사.
李南淳(1984), "被動과 使動의 文型," 國語學 13.
李明奎(1974), "口蓋音化에 대한 文獻的 考察," 國語硏究 31.
李秉根(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
______(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_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______(1976),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
______(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_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______(1980), "동시조음 규칙과 자음 체계," 말소리 1.
______(1981), "유음탈락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글 173·174.
李相揆(1983), "慶北地域語의 主格 '-이가'," 어문론총 17(慶北大)
______(1991), "경북, 충북 접경지역의 어휘분화,"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李相億(1979), "音調配定規則에 關한 두어 問題," 國語學 8.
______(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e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20·4.
李崇寧(1935), "Umlaut 현상을 통하야 본 母音 '·'의 音價攷," 新興 8.
______(1954), 國語音韻論 研究 第1輯(增補版), 乙酉文化社.
______(1967), "方言學史," 韓國文化史大系 V.
______(1977), "/ㆍ/의 消失期 推定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 17.
______(1982),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李丞宰(1977), "南部方言의 圓脣母音化와 母音體系," 冠岳語文研究 2.
______(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 國語研究 45.
______(1983), "再構와 方言分化," 國語學 12.
______(1990), "方言音韻論,"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국어국문학회.
李翊燮(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 震檀學報 33.
______(1980), 嶺東嶺西의 言語分化, 서울大出版部.
李熙昇(1957), 國語學 概說, 民衆書館.
田光鉉(1967), "十七世紀 國語의 研究," 國語研究 19.
______(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______(1978), "十八世紀 前期國語의 一考察", 語學 5, 全北大 語學研究所.
鄭 光(1978), "朝鮮偉國字彙의 解題," 朝鮮偉國字彙(影印附錄), 홍문각.
鄭 光 編(1988), (諸本集成) 倭語類解, 太學社.
鄭 國(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D. Dissertation, Texas Univ.
鄭承喆(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國語研究 84.
鄭然粲(1960), "15世紀 國語의 Tone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8.
______(1963),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忠南大 論文集 8.

______(1974), 慶尙道方言聲調硏究, 塔出版社.
______(1976), 國語 聲調에 관한 硏究, 一潮閣.
정용호(1988), 함경도방언연구, 평양:교육도서출판사.
鄭寅承(1937), "'i'의 逆行同化 問題, 그 原理와 處理方案," 한글 5-1.
전학석(1984), "방언에서 볼 수 있는 《ㄹ》 받침아래의 《ㄱ》 음에 대하여," 조선어학론문집, 심양:민족출판사.
______(1986), "중세조선어의 방점과 연길지방의 높낮이의 비교," 조선 어학론문집,중국조선어학회,심양:민족출판사.
______(1987), "훈춘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 조선어문석사론문집, 심양:료령민족출판사.
趙賢淑(1985), "奉化地域語의 聲調硏究," 國語硏究 66.
崔林植(1989), 國語 內破化에 關한 硏究, 啓明大 博士學位論文.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4.
______(1980), 慶北 東海岸方言 硏究, 嶺南大出版部.
______(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______(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p-,s-,t-변칙동사를 중심으로," 國語學 14.
______(1988a),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lɨ-, lə-, ɛ(jə)-, h-變則動詞를 중심으로," 語學硏究 24·1.
______(1988b), "國語 움라우트의 硏究史的 檢討," 震檀學報 65.
______(1989), "國語 움라우트의 硏究史的 考察," 周時經學報 3.
崔銓承(1975), "中世國語에서의 異化作用에 의한 圓脣性 資質의 消失에 대하여," 國語硏究 33.
______(1982), "비어두음절모음의 방언분화--(u-i)와 접미사 'i'의 기능,"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_(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______(1987), "二重母音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母音體系의 변화", 어학 14, 全北大 語學硏究所.
______(1989),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19세기와 20세기 전기 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27.
崔鶴根(1977), "푸찔로의 露韓字典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1.

______(1978),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한두복(1962), "륙진방언연구(개요)," 조선어학 2.
韓榮均(1985), "國語音韻史에 대한 地理言語學的 硏究", 國語硏究 55.
______(1985), "音韻變化와 語彙部의 再構造化," 冠岳語文硏究 10.
한영순(1967), 조선어방언학,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許　雄(1955), "旁點硏究," 東方學志 2.
______(1965a), "齒音考," 국어국문학 27.
______(1965b), 國語音韻學, 一潮閣.
______(1975), 우리 옛말본(형태론), 새문화사.
洪允杓(1969), "15C 國語의 格硏究," 國語硏究 21.
______(1985), "ㅁ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硏究," 震檀學報 60.
______(1993), 國語史文獻資料硏究, 太學社.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橋本萬太郎(1973), "韓國語 Accent의 音韻論, 특히 경상도 방언의 accent를 중심으로," 한글 151.
菅野裕臣(1971), "韓國關係 露西亞語 文獻目錄," 亞細亞硏究 44.
宣德五(1986), "朝鮮語六鎭話的 方言特点," 民族語文 5.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의 方言, 朝鮮史學會.
________(1927), "咸鏡南北道方言," 朝鮮語 2, 朝鮮敎育硏究會.
________(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Tokyo: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________(1944), 朝鮮語方言の硏究, 東京:巖波書店.
田島泰秀(1918), "咸北方言の訛言," 朝鮮敎育硏究會雜誌 2月號.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 京城:東都書籍.
Adami, N.R.(1982), "Die in Russland vor 1910 Erschienen Materallien zur Koreanischen Sprache-Lexicalisches," in Hau, *Korea Kultur Magazin*, Heftz, pp.50-60., Institut für Kor. Kultur :Bonn.
Anttila, 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The Macmillan Company.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Holt.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Chomsky, N. and M. Halle(1968), *Sound Pattern of English*, N.Y.: Harper & Low.

Foley, J.(1977), *Foundations of Theoretical Phonology*, N.Y.:Cambridge Univ. Press.

Jakobson, R.(1931), "Principle of Historical Phonology," in A.R. Keiler(1972).

__________(1971), The Kazan's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Selected Writings* II, pp394-428, Mouton, Thw Hague.

Jeffers, R.,J & Lehiste, I.(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MIT.

Kriler, A.R.(ed),(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Holt, Renehart and Winston, Inc..

King, J.R.P.(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ch* 23, Seoul National Univ.

__________(1988), "The Korean Dialect Materials in Matveev's 1900 Reference Book to the City of Vladivostock," *Language Research* 24, Seoul National Univ.

__________(1989), "A 1902 Cyrillic-script Rendition of 'Red Riding Hood' in North Hamkyeng Dialect," in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WOKL(Workshop on Korean Linguistics).

__________(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Doctorial dissertation in Havard Univ.

Kiparsky, P.(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__________(1968),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Bach and R.T.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1968).

__________(1971), "Phonological Change," I.U.L. Club.

__________(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W.O. Dingwall(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 of Maryland.

Koncevich, L.R.(菅野裕臣 譯註)(1971), "蘇聯의 韓國語學," 亞細亞硏究 24 (高麗大).

________(1990), "E.D. Polivanov 교수와 한국어학에 대한 그의 기여," 한국학의 세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Koutsoudas, A., G. Sanders & C. Noll(1974), "On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

McCawley, J.D.(1978), What is a Tone Language? in V.A. Fromkin(ed.), *Tone-Linguistic Survey*, Academic Press.

Newton, B.E.(1972), *The Generative Interpretation of Dialect*, Cambridge Univ. Press.

Nida, D.A.(1949), *Morphology*,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Orton, H.(1960), "An English Dialect Survey : *Linguistic Atlas of English*," Orbis 9.

Pike, K.L.(1967), *Tone Language*, Ann Arbor.

Postal, P.M.(1968), *Aspects of Phonological Theory*, N.Y.:Harper & Low.

Ramsey, R.S.(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塔出版社.

Ramstedt, G.J.(1928), "Remarks on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

________(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aporta, S.(1965), "Ordered Rules, Dialect Differences and Historical Processes," *Language* 41.

Schane, S.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kousen, R.(1975), *Substantive Evidence from Finnish & French*, The Hague :Mouton.

Stockwell, R.P. & R.K.S. Macaulay(eds.) (1972),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Theory*, Bloomington:Indiana Univ. Press.

Toivonen,Y.H.(1950), "Gustaf John Ramstedt," Discours Commemor atif Prononce e 2.12. 1950 A L'assemblee Annuelle de la Societe Finno-Ougrienne.

Trubetzkoy, N.S.,(1969), *Principle of Phonology*, Berkeley:Univ. of California Press.

Xolodovich, A.A.(1954), "Fonetika Severnya dialektov," Moskva:*Ocherk Grammatiki Korejskogo Jazyka*.

著者 略歷

忠南 牙山 出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文學碩士, 文學博士

忠北大 助敎授 歷任

現 同德女子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副敎授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초판 인쇄 1994년 5월 10일

초판 발행 1994년 5월 30일

지은이 / 곽 충 구

펴낸이 / 지 현 구

펴낸곳 / 태 학 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7

정우빌딩 303호

전화 (02) 299-6211~2

팩스 (02) 299-6213

등록 제2-284호(1980. 1. 25)

ISBN 89-7626-044-9 93710

값 12,000 원